

대입학숙학능력시험 20년사

1994
학년도

*A 20-Year History of College
Scholastic Ability Test*

2013
학년도

20th

대학수학능력시험 20년사

A 20-Year History of College Scholastic Ability Test

목차

대학수학능력시험 연보

제1장 대학입학 국가고사의 변천

제1절 대학입학 국가연합고사(1954학년도)

- 가. 대학입학 국가연합고사의 도입 배경 025
- 나. 대학입학 국가연합고사의 시험 체제 025

제2절 대학입학자격 국가고사(1962~1963학년도)

- 가. 대학입학자격 국가고사의 도입 배경 027
- 나. 대학입학자격 국가고사의 시험 체제 028

제3절 대학입학예비고사(1969~1981학년도)

- 가. 대학입학예비고사의 도입 배경 030
- 나. 대학입학예비고사의 시험 체제 031

제4절 대학입학학력고사(1982~1993학년도)

- 가. 대학입학학력고사의 도입 배경 037
- 나. 대학입학학력고사의 시험 체제 038

제5절 대학수학능력시험(1994학년도~) 047

제2장 수능 체제 변천사

제1절 태동과 준비(태동기): 1986~1992년

- 가. 수능의 도입 배경과 과정 052
- 나. 수능의 개념과 성격 057
- 다. 실험평가 064
- 라. 이슈와 여적 070

제2절 형성과 정착(형성기): 1994~1998학년도

- 가. 시기 개관 074
- 나. 시험 체제와 점수 체제의 특징과 변화 077
- 다. 이슈와 여적 090

제3절 변화와 발전(성장기): 1999~2004학년도

- 가. 시기 개관 094
- 나. 시험 체제와 점수 체제의 특징과 변화 095
- 다. 이슈와 여적 108

제4절 안정과 지속(안정기): 2005~2013학년도

- 가. 시기 개관 111
- 나. 시험 체제와 점수 체제의 특징과 변화 113
- 다. 이슈와 여적 126

제3장 영역별 변천사

제1절 언어 영역

- 가. 개요 132
- 나. 태동기의 언어 영역의 변화(1986~1992년) 136
- 다. 형성기의 언어 영역의 변화(1994~1998학년도) 144
- 라. 성장기의 언어 영역의 변화(1999~2004학년도) 150
- 마. 안정기의 언어 영역의 변화(2005~2013학년도) 158
- 바. 언어 영역의 성과와 발전 방향 165

제2절 수리 영역

- 가. 개요 166
- 나. 태동기의 수리 영역의 변화(1986~1992년) 168
- 다. 형성기의 수리 영역의 변화(1994~1998학년도) 173
- 라. 성장기의 수리 영역의 변화(1999~2004학년도) 178
- 마. 안정기의 수리 영역의 변화(2005~2013학년도) 183
- 바. 수리 영역에 대한 성과와 발전 방향 197

제3절 외국어(영어) 영역

- 가. 개요 199
- 나. 태동기 외국어(영어) 영역의 변화(1986~1992년) 200
- 다. 형성기 외국어(영어) 영역의 변화(1994~1998학년도) 207
- 라. 성장기 외국어(영어) 영역의 변화(1999~2004학년도) 213
- 마. 안정기 외국어(영어) 영역의 변화(2005~2013학년도) 217
- 바. 외국어(영어) 영역의 성과와 발전 방향 221

제4절 사회탐구 영역

- 가. 개요 227
- 나. 태동기의 사회탐구 영역의 변화(1986~1992년) 229
- 다. 형성기의 사회탐구 영역의 변화(1994~1998학년도) 234
- 라. 성장기의 사회탐구 영역의 변화(1999~2004학년도) 236
- 마. 안정기의 사회탐구 영역의 변화(2005~2013학년도) 240
- 바. 사회탐구 영역의 성과와 발전 방향 248

제5절 과학탐구 영역

가. 개요	250
나. 태동기의 과학탐구 영역의 변화(1986~1992년)	252
다. 형성기의 과학탐구 영역의 변화(1994~1998학년도)	255
라. 성장기의 과학탐구 영역의 변화(1999~2004학년도)	261
마. 안정기의 과학탐구 영역의 변화(2005~2013학년도)	266
바. 과학탐구 영역의 성과와 발전 방향	275

제6절 직업탐구 영역

가. 개요	277
나. 직업탐구 영역의 특징	281
다. 직업탐구 영역에 대한 성과와 발전 방향	298

제7절 제2외국어/한문 영역

가. 개요	302
나. 제2외국어/한문 영역의 특징	305
다. 제2외국어/한문 영역의 성과와 발전 방향	325

제4장 시험 관리 체제의 변화

제1절 출제 과정

가. 시행 기본계획 수립과 연도별 현황	334
나. 시험 출제 방식의 변화	338
다. 출제 일정 및 출제본부 구성	344
라. 출제본부의 출제 업무	346

제2절 인쇄 및 시험 시행 과정

가. 인쇄와 배부 과정	351
나. 시험 준비 및 시행 과정	354

제3절 채점 및 결과 보고 과정

가. 채점본부 운영	368
나. 점수 보고 방식의 변화	372
다. 점수 통지 및 조회	379

제5장 기록으로 남기는 수능의 다사다난

제1절 수능의 다면사

가. 수능의 연습, '모의평가'	384
나. 수능-EBS 강의와 연계 정책	388
다. 듣기 평가 CD 제작	391
라. 특별관리대상자용 문제지 제작	395
마. 평가원 수능 전담 조직	399

제2절 수능 복수 정답 사례

가. 2004학년도 수능 언어 영역 17번 문항	403
나. 2008학년도 수능 과학탐구 영역 물리Ⅱ 11번 문항	406
다. 2010학년도 수능 과학탐구 영역 지구과학Ⅰ 19번 문항	407

제3절 출제본부의 위기와 대처

가. 신종플루와의 전쟁, 2010학년도 수능	410
나. 불행한 사고, 2012학년도 수능	414

부록

연구물 목록	418
--------	-----

20th

대학수학능력시험 20년사

A 20-Year History of College Scholastic Ability Test

발간사

대학수학능력시험 20년의 기록이 우리나라 교육의 소중한 자료가 되기를 기대하며



고차적인 사고력 평가를 강화함으로써 중등교육을 정상화시키고 교육적으로 의미 있는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1994학년도 대학 입시에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이 도입된 지 20년이 되었습니다. 그간 수능은 공정성과 객관성 높은 대입 전형자료를 제공해 왔습니다. 또한 모든 교육평가가 조형(shaping) 기능을 가지고 있듯이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운영과 편성, 교수 학습의 방향과 내용 등에 지대한 영향을 미쳐 왔습니다.

통합교과적인 소재를 활용한 사고력 중심의 발전된 학력고사를 표방하였던 수능은 그 사이에 많은 변화를 겪었습니다. 수능이라는 명칭만 바뀌지 않았을 뿐, 시험의 성격과 목표, 시험체제 등 거의 모든 것들이 바뀌었습니다. 시험 영역의 수가 늘었고, 영역의 명칭이 달라지기도 했습니다. 영역의 문항 수, 시험 시간, 배점도 바뀌었습니다. 탐구 영역에 선택과목이 도입되기도 했고, 출제 범위도 달라졌습니다. 원점수 체제에서 표준점수 체제로 점수 체제가 바뀌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수능의 변화와 가장 관계가 밀접한 것은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변화입니다. 정부 대입 정책의 변화, 고등학교와 대학의 요구 등도 변화의 동인으로 작용해 왔습니다.

대학수학능력시험 10년사를 발간한지 10년이 되었고, 2014학년도 수능에서부터는 수준별 시험이 도입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자료가 망실되고 관련자들의 기억이 흐려지기 전에 기록으로 남겨야 할 필요가 있어 이 책에서는 1994학년도부터 2013학년도까지 수능 20년간의 특징과 변화를 정리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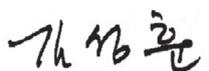
책의 구성과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1장에서는 수능 이전의 대학입학 국가고사의 변천을 다루었습니다. 수능의 도입 배경을 역사적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는 토대가 될 것입니다. 제2장에서는 수능의 변천에 대해서 다루었습니다. 먼저 어떤 논의와 준비가 있어 수능이 태동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이어 20년간의 수능을 형성기(1994~1998학년도),

성장기(1999~2004학년도), 안정기(2005~2013학년도)로 구분하고, 각 시기별로 시험 체제와 점수체제의 특징과 변천을 정리하였습니다. 제3장에서는 언어, 수리, 외국어(영어), 사회탐구, 과학탐구, 직업탐구, 제2외국어/한문 영역의 특징과 변화를 기록하였습니다. 제4장에서는 시험 관리 체제의 변화를 시험의 출제, 인쇄 및 시행, 채점 및 성적 보고로 나누어 기록하였습니다. 제5장에서는 다사다난했던 수능의 여러 얼굴과 뒷이야기를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부록에서는 수능 연구물 목록을 제시하였고, 별첨 CD에는 20년간의 수능 관련 보도자료, 문제지와 정답 및 듣기 평가 과일을 수록하였습니다.

수능은 20년 동안 많은 분들의 노고와 헌신을 자양으로 하여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열정과 사명감으로 오랜 합숙을 감내하신 역대 수능 출제 검토위원, 대과 없이 임무를 완수한 인쇄와 채점 업무 관계자 여러분들에게 고마움을 전합니다. 그리고 매년 수십만 명이 응시하는 수능의 시행에 협조해 주신 학교 선생님들,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 관계자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분들이말로 수능 20년의 역사를 함께 만들어 온 주역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 가지로 바쁘신 중에 이 책이 나올 수 있도록 애써 주신 자문위원, 집필자, 편찬위원들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이 책이 수능을 연구하거나 수능에 관심이 있는 많은 분들에게 널리 활용되어 수능의 안정과 발전 방안, 바람직한 대입 제도의 방향을 탐색할 때 유용한 역사적 자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2014년 10월

원장 



KICE

Korea Institute for Curriculum and Evaluation

A 20-Year History of College Scholastic Ability Test

연보

년도	일자	내역
1986	7.	교육개혁심의회, 대학입학시험제도 개선 방안 심의·결정
1987	12.	대학입학시험제도 개선에 대한 대통령 선거 공약 발표
1988	8.	중앙교육평가원, 대학 교육 적성시험 개발을 위한 기초 연구 실시
1989	12.	중앙교육심의회 전체회의, 대학입학시험제도 개선안 심의·결정
1990	8.	중앙교육평가원, 대학 교육 적성시험 실험평가 연구
	12.19	1차 대학 교육 적성시험 실험평가 실시
1991	4.2	대학입학시험제도 개선안 최종 확정 발표 - '대학 교육 적성시험'을 '대학수학능력시험'으로 명칭 변경
	5.24	2차 대학 교육 적성시험 실험평가 실시
	7.11	3차 대학 교육 적성시험 실험평가 실시
	11.27	4차 대학 교육 적성시험 실험평가 실시
1992	4.1	교육부, '94학년도 대학별 입시요강' 종합발표 - 1994학년도 대학입시에서 대학별본고사 실시하되 내신성적은 40~60% · 대학수학능력시험은 20~60%씩 반영
	5.27	5차 대학 교육 적성시험 실험평가 실시
	8.31	6차 대학 교육 적성시험 실험평가 실시
	11.10	7차 대학 교육 적성시험 실험평가 실시
	12.19	1994년부터 전문대도 수학능력시험 도입 결정
1993	2.2	대통령 직속 대학입시개혁위원회 설치 - 수학능력시험 수리·탐구 분리 건의
	2.12	교육부, 2회의 대학수학능력시험 중 높은 점수 제출 등 새 대학입시제도 시행 방안 확정
	3.30	199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 계획 확정 발표
	4.2	대입 내신 15등급 확정(40% 반영, 등급 간 격차 2.5점)
	5.11	대학수학능력시험 2개 유형으로 출제. 수험생 부정행위 시 2년 응시 제한
	8.20	1994학년도 1차 대학수학능력시험 실시 - 제5차 교육과정 적용

년도	일자	내역
1993	9.21	1994학년도 1차 대학수학능력시험 채점 결과 발표
	11.16	1994학년도 2차 대학수학능력시험 실시 - 문·이과 분리 출제
	11.17	대학수학능력시험 이후 수업 이탈 방지 목적으로 내신 출석 점수 산출 기준일을 12월 20일로 연장
	12.20	1994학년도 2차 대학수학능력시험 채점 결과 발표
1994	2.28	1995학년도 대학입시제도 개선 내용 발표 - 시험 실시 횟수를 두 번에서 한 번으로 축소 - 대학수학능력시험 문제를 인문, 자연, 예·체능계로 분리 출제 199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세부 시행 계획 확정·발표
	11.23	199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실시 - 1회 시행으로 변경, 수리·탐구 I·II는 계열별 시행
	11.27	교육부 장관, TV프로그램에서 대입 내신 반영 자율화, 대학수학능력시험 문제은행식 출제 검토 밝힘
	12.23	199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채점 결과 발표
1995	3.29	199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 계획 발표
	7.17	199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세부 시행 계획 확정
	8.28	1997학년도 수능시험 개선 방안 발표
	11.22	199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실시 - 외국어(영어) 듣기 총 10문항으로 증가
	12.14	교육개혁위원회, 수학능력시험의 학력고사와 적성검사 분리 등 교육과정개혁안 발표
	12.19	1997학년도 새 대학입학전형제도 시행 기본 계획 발표
	12.21	199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채점 결과 발표
	2.27	199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세부 시행 계획 확정·발표 - 400점 만점, 문항 수 및 시험 시간 증가
1996	8.1	199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 계획 공고
	11.13	199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실시 - 수리 I 영역에 주관식 도입, 외국어(영어) 듣기 총 17문항으로 증가
	12.7	199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채점 결과 발표

년도	일자	내역
1997	2.24	1998학년도 대학 입학 기본 계획 확정·발표 - 대학별 수학능력시험 평균점수와 학생부 성적 공개 발표
	2.28	199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세부 시행 계획 확정·발표 - 3교시 수리·탐구 영역Ⅱ의 시험 시간 10분 연장 - 맹인 수험생에 대하여 점자 문제지와 음성 평가 도구 제공
	3.14	199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개선안 발표
	4.20	교육부·대학교육협의회, 대학별·학과별 합격자의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 공개
	7.4	199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 방안 발표
	10.23	에듀넷을 통한 대학수학능력시험 정보 서비스 실시
	11.19	199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실시 - 수리·탐구Ⅱ 시험 시간 120분으로 확대
12.20	199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채점 결과 발표	
1998	3.19	199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 계획 발표 - 수리·탐구 영역Ⅱ에서 시험 과목 선택제 도입 - 표준 점수제 도입, 원점수 함께 표기
	9.18	2002학년도 대학입시 개선시안 발표 - 수능 성적 대입 반영 축소 및 무시험·특별전형 확대 등
	11.18	199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실시 - 제6차 교육과정 적용, 이후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주관 - 탐구 영역 선택과목제 도입, 수리·탐구Ⅱ에서 표준점수 사용
	12.18	199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채점 결과 발표
1999	2.28	2000학년도 대학 입학 전형 기본 계획 확정·발표
	3.31	200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 계획 발표 - 시험실당 수험생 수 40명에서 32명으로 축소 - 성적통지표에 400점 기준 변환표준점수에 의한 백분위점수 함께 표기
	8.2	200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 계획 공고
	9.10	200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제2외국어 영역 시행 지침 발표
	11.17	200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실시 - 변환표준점수의 백분위점수 추가 제공
	12.17	200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채점 결과 발표

년도	일자	내역
2000	2.28	2001학년도 대학 입학 전형 기본 계획 발표
	3.29	200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 계획 발표
	4.19	200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9등급제 실시, 소수점 및 총점 폐지 공고
	8.2	200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시행 계획 공고
	11.15	200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실시 - 5교시 제2외국어 영역 추가(계열 구분 없이 선택 응시)
	11.30	2002학년도 대학 입학 전형 기본 계획 발표
	12.12	200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채점 결과 발표
2001	3.22	200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 계획 발표
	7.11	200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 계획 공고
	8.31	2003학년도 대학 입학 전형 기본 계획 발표
	11.7	200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실시 - 총점제 폐지, 5개 영역 9등급제 및 영역별 점수 제공
	12.3	200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채점 결과 발표
	12.28	200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체제 개편안 발표
2002	3.14	2003학년도 대학 입학 전형 기본 계획 발표
	3.29	200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 계획 발표
	7.4	200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모의평가 시행 계획 확정·발표
	7.10	200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 계획 공고
	7.18	2004학년도 대학 입학 전형 기본 계획 주요 사항 행정 예고
	8.22	2004학년도 대학 입학 전형 기본 계획 발표
	8.29	2005학년도 대학 입학 전형 기본 계획 발표
	9.3	200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모의평가 실시
	9.25	200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모의평가 채점 결과 발표
	11.6	200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실시
	11.7	200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표본 채점 결과 발표
	12.2	200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채점 결과 발표

년도	일자	내역
2003	2.21	2004학년도 대학 입학 전형 기본 계획 발표
	4.1	200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 계획 발표
	6.11	200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 실시
	6.19	200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 계획안 발표
	7.2	200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 채점 결과 발표
	7.9	200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 계획 공고
	7.19	200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9월 모의평가 시행 계획 발표
	8.25	2005학년도 대학 입학 전형 기본 계획 발표
	9.2	200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9월 모의평가 실시
	9.29	200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9월 모의평가 채점 결과 발표
	11.5	200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실시 - 문항당 배점 소수점에서 정수로 변경
	11.6	200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표본 채점 결과 발표
	11.24	200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출제 관련 논란 사항 처리 방침 결정 - 언어 영역 17번 문항 복수 정답 처리
	12.2	200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채점 결과 발표
2004	2.17	교육인적자원부, 대학수학능력시험 강의 전문 채널 도입 등 공교육 정상화 통한 사교육비 경감 대책 발표
	3.12	대학수학능력시험 출제 관리 개선 방안 공청회 개최
	3.28	2005대학수학능력시험 출제·관리 개선 방안 발표 - 선택과목 문제 풀이 순서 사전 결정 등
	3.30	대학입학제도개혁 특별위원회 출범 - 내신 비중 100%, 수능 3~5등급제 등 추진
	4.1	EBS 대학수학능력시험 강의 시작
	4.5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부터 교육방송 대학수학능력시험 강의 내용 출제 반영 발표
	4.9	전국 8개 지역에서 2005학년도 대입 전형 및 대학수학능력시험 주요 사항에 대한 이해도 제고를 위한 순회 설명회 개최
	5.7	교육인적자원부 EBS 대학수학능력시험 강의 보완 대책 발표

년도	일자	내역
2004	6.2	200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 실시
	6.15	6월 모의평가 이의 제기 심사 결과 발표 - 사회탐구·과학탐구 영역 화학II 20번 문항 모두 정답 처리
	7.9	200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 계획 발표
	8.26	학교 교육 정상화를 위한 2008학년도 이후 대학입학제도 개선 방안(시안) 발표
	8.27	2004학년도 대입 지원 방법 위반자에 대한 조치 계획 발표
	8.31	2006학년도 대입 전형 기본 계획 발표
	9.4	2008학년도 이후 대입제도 개선 방안 공청회
	9.16	200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9월 모의평가 실시
	9.30	200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출제위원 선정 방침 공개
	10.20	서울고등법원, 2002년 대학수학능력시험 수험생 개인석차 공개 소송에 비공개가 정당 판결
	10.28	안병영 교육부총리, 2008학년도 대입제도 개선안 발표 - 9등급 수능 전환
	11.17	200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실시 - 인문계, 자연계, 예·체능계 구분 폐지, 영역별 선택형 수능 도입 - 원점수 없이 표준점수와 백분위, 등급 표시 - 직업탐구 영역 신설, 제2외국어 영역에 한문, 아랍어 과목 신설
	11.25	안병영 교육인적자원부장관과 16개 시·도 교육감, 대학수학능력시험 부정행위 사건 관련 대국민 사과
	11.28	200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이의 신청 심사 결과 발표
	12.6	교육인적자원부, 경찰 통보 대학수학능력시험 부정행위 의혹자 299명 중 226명 시험 무효 처리
	12.13	교육인적자원부, 경찰 2차 통보 부정행위 수험생 100명중 86명에 대학수학능력시험 무효 결정
	12.14	200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채점 결과 발표
	2005	1.19
2.28		교육인적자원부, 2004학년도 수능부정대학생 36명 입학 취소를 대학에 요구
3.30		200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 기본 계획 발표
6.1		200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 실시
6.14		200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 이의 신청 심사 결과 발표 - 제2외국어/한문 영역 프랑스어 I 26번 문항 모두 정답 처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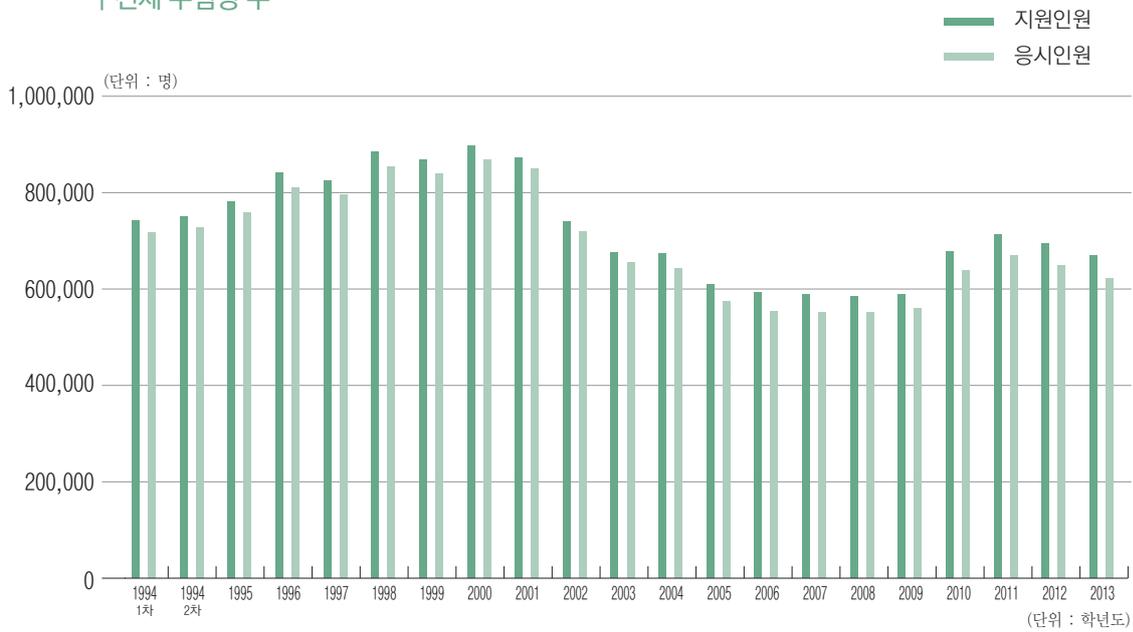
년도	일자	내역
2005	7.8	200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 세부 계획 발표
	9.7	200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9월 모의평가 실시
	9.21	200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9월 모의평가 이의 신청 심사 결과 발표 - 사회탐구 영역 '법과 사회' 과목 16번 문항 복수 정답 처리
	11.23	200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실시 - 17일 예정이었던 시험을 APEC 정상회담 개최로 연기 - 대리시험 방지용 수능 샤프 및 OMR 답안지 필적 확인 도입
	11.24	교육인적자원부,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휴대전화 소지 수험생 27명에 시험 무효 처리
	12.5	200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이의 신청 심사 결과 발표
	12.16	200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채점 결과 발표
	12.18	교육인적자원부, 휴대전화 소지 등 수능 단순 부정행위자 38명에 시험 성적 무효 처리
2006	3.31	200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 기본 계획 발표
	6.1	200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 실시
	7.7	200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 세부 계획 발표
	8.23	대학수학능력시험 부정행위자 처리 규정 발표
	9.6	200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9월 모의평가 실시
	9.8	서울행정법원,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학업성취도평가를 제외한 수능 결과 자료는 공개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 교육인적자원부 항소 제기
	10.14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과 부정행위 유형 발표
	11.16	200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실시 - 목요일로 수능 시행요일 변경
11.26	200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이의 신청 심사 결과 발표	
12.13	200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채점 결과 발표	
2007	3.27	200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 기본 계획 발표
	4.27	서울고등법원, 학업성취도평가와 수능 결과 자료를 모두 공개하라 판결 교육인적자원부, 서울고등법원 판결에 상고 결정
	6.7	200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 실시
	7.6	200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 세부 계획 발표

년도	일자	내역
2007	9.6	200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9월 모의평가 실시
	11.15	200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실시 - 표준점수, 백분위 표기 삭제, 9등급제 단독 표기
	11.28	200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이의 신청 심사 결과 발표
	12.7	200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채점 결과 발표
	12.24	200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과학탐구 영역 물리Ⅱ 11번 문항 복수 정답 처리
	12.26	물리Ⅱ 등급 조정된 수험생 대상으로 성적표 재배부
2008	1.22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대입 자율화 3단계 자율화 방안 발표
	3.27	200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 기본 계획 발표
	6.4	200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 실시
	6.17	200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 이의 신청 심사 결과 발표 - 수리 영역 '나'형 28번 문항 복수 정답 처리
	7.7	200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 세부 계획 발표
	9.4	200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9월 모의평가 실시
	9.19	교육과학기술부, "수능 원자료 학교별 공개 어렵다" 입장 표명
	11.13	200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실시 - 등급제 폐지, 영역별 표준점수 부활, 백분위도 병행 표기
	11.26	200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이의 신청 심사 결과 발표
	12.10	200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채점 결과 발표
2009	12.15	2012학년도 수능 시험 체제 개편안 시안 행정 예고 - 사회탐구 및 과학탐구 영역 최대 응시 가능한 과목수 현행 4과목에서 3과목으로 축소 - 수리 나형의 출제 범위에 '미적분과 통계기본' 과목을 추가
	3.19	교육과학기술부, 16개 시·도 및 230여개 시군구 단위 수능 성적 원자료 공개 방침 표명
	3.30	201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 기본 계획 발표
	4.15	대학수학능력시험(2005~2009학년도) 성적자료 분석 결과 최초 공개
	6.4	201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 실시
6.7	201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 이의 신청 심사 결과 발표 - 직업탐구 영역 프로그래밍 13번 문항 복수 정답 처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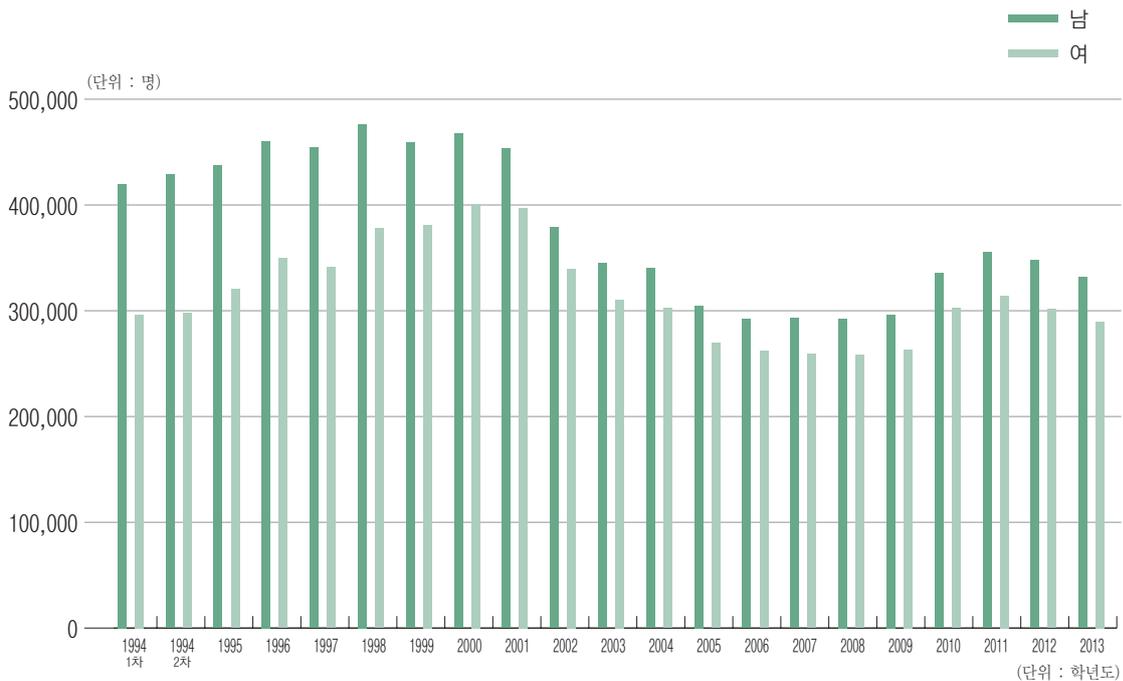
년도	일자	내역
2009	7.6	201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 세부 계획 발표
	7.21	대학수학능력시험 원자료 열람(국회의원과 보좌관 등 국회 직원에 한해)을 허용
	9.3	201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9월 모의평가 실시
	10.12	최근 5년간 고교별 수능표준점수 자료 공개
	11.12	201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실시
	11.23	201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이의 신청 심사 결과 발표 - 과학탐구 영역 지구과학 I 19번 문항 복수 정답 처리
	12.8	201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채점 결과 발표
2010	2.11	대법원, 2008학년도 수능 원점수와 1-9등급 구분 점수 공개 확정 판결
	2.25	대법원, '정보공개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수능 원데이터 공개 판결
	3.10	교육과학기술부·평가원·EBS 간 교류협력 협정서(MOU) 체결
	3.29	201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 기본 계획 발표
	4.14	201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 분석 결과 발표
	4.22	201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기본 계획 발표 - 탐구 영역 최대 선택과목이 4과목에서 3과목으로 축소
	6.10	201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 실시
	7.5	201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 세부 계획 발표
	9.2	201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9월 모의평가 실시
	9.15	2014학년도 수능개편 시안 전라·제주권 공청회
	9.17	2014학년도 수능개편 시안 충청권 공청회
	9.28	2014학년도 수능개편 시안 부산·경남권 공청회
	10.1	2014학년도 수능개편 시안 수도권 공청회
	11.18	201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실시 - 11일 예정이었던 시험을 서울 G20 정상회의 개최로 연기 - 수능 문제 EBS 연계 70% 시행 - 듣기평가 테이프에서 CD로 변경
	11.29	201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이의 신청 심사 결과 발표
12.8	201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채점 결과 발표 - 온라인 성적 통지로 변경	

년도	일자	내역
2011	1.26	2014학년도 수능시험 개편방안 발표
	2.16	교육과학기술부·평가원·EBS, 공교육을 보완하는 수능-EBS 연계 정착 방안 발표
	3.30	201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 기본 계획 발표
	3.30	201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 분석 결과 발표
	6.2	201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 실시
	7.4	201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 세부 계획 발표
	9.1	201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9월 모의평가 실시
	11.10	201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실시 - 탐구 영역 선택 최대 3과목 제한 - 수리 영역 범위 조정 및 과목 변경 - 채점 방식이 이미지 스캐너 방식으로 변경되어 답안지 예비 마킹 불가
	11.21	201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이의 신청 심사 결과 발표
	11.30	201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채점 결과 발표
2012	3.28	201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 기본 계획 발표
	6.7	201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 실시
	6.14	201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 분석 결과 발표
	7.2	201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 세부 계획 발표
	9.4	201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9월 모의평가 실시
	11.8	201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실시
	11.19	201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이의 신청 심사 결과 발표
	11.28	201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채점 결과 발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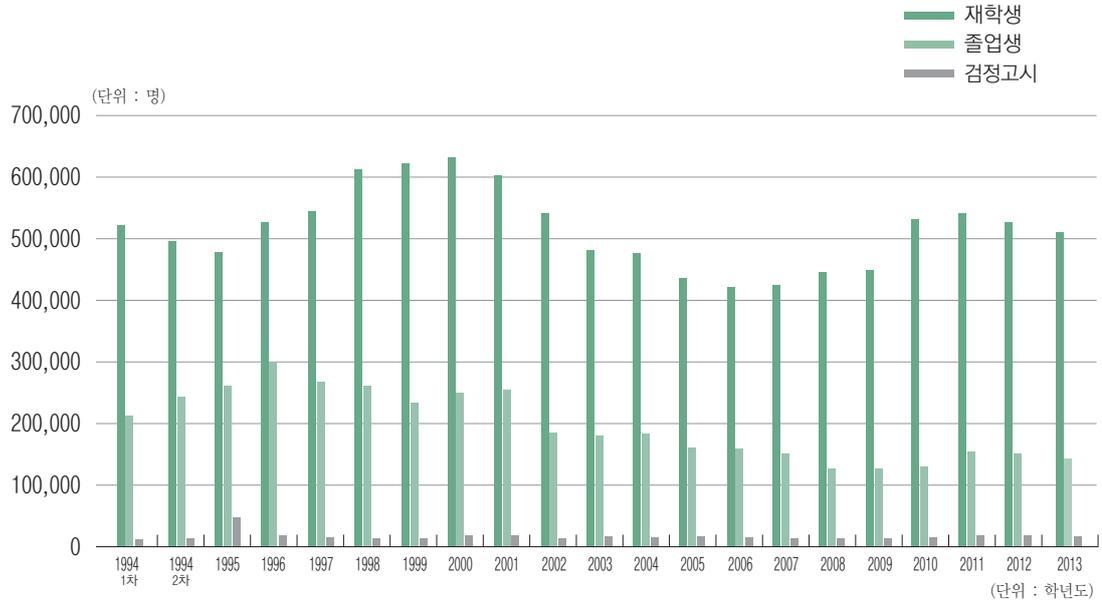
| 전체 수험생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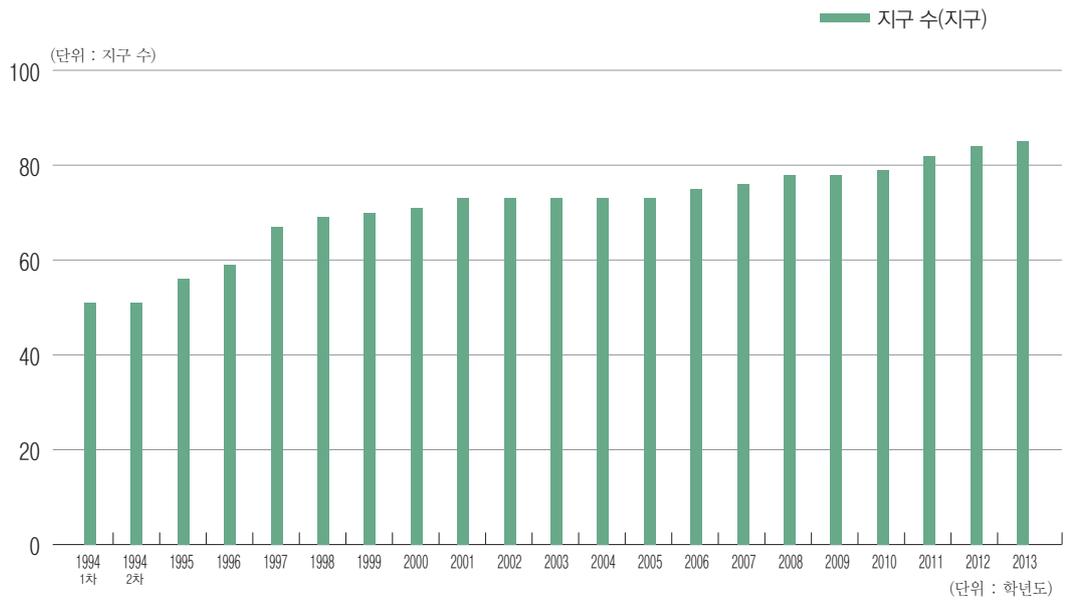
| 성별 수험생 응시인원



| 재학생, 졸업생, 검정고시 등 지원자 수



| 시험장 지구 수





KICE

Korea Institute for Curriculum and Evaluation

A 20-Year History of College Scholastic Ability Test

제1장 대학입학 국가고사의 변천

제1절 대학입학 국가연합고사 (1954학년도)

제2절 대학입학자격 국가고사 (1962~1963학년도)

제3절 대학입학예비고사 (1969~1981학년도)

제4절 대학입학학력고사 (1982~1993학년도)

제5절 대학수학능력시험 (1994학년도~)

대학입학 국가고사의 변천

양길석(가톨릭대학교)

우리나라의 대학입학 전형제도는 1945년 해방 이후 지금까지 크고 작은 변화가 지속되어 왔다. 그 변천 과정을 구분하는 방식에 있어 학자마다 다소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처음의 형태를 1945~1953학년도 기간의 '대학별 단독시험제'로 명하는 데에는 큰 이견이 없다. 즉, 초기의 대학입학 전형제도는 대학이 주체적·자율적으로 대학교육 적격자를 선발할 수 있도록 모집 단위 및 정원 규모, 전형 유형 및 요소, 시험 과목, 시험 시기 등 대입 관련 사항이 전적으로 대학 자율에 의하여 정해지고 운영되는 형태를 띠었다. 그러나 대학 자율권 보장에 따른 그림자라 할 수 있는 대학 정원 확보를 위한 부정 입학 등의 문제가 발생하자 대학교육 적격자 선발을 통해 대학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고 대학입학 전형제도의 공공성을 확보하고자 국가 차원의 관여가 시작되었다. 이후 대학의 학생 선발 자율권 보장과 교육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국가의 관여가 맞물려 강조점이 달라지며 대학입학 전형제도가 변천되어 왔다. 즉 대학에 선발권을 온전히 넘겨주었다가 사회적, 교육적 문제 해소를 위해 국가가 대입에 관여하게 되었고, 대학의 자율권을 보장하는 정도의 차이에 따라 여러 형태의 제도가 형성, 변화되어 온 것이다(〈표 1-1-1〉 참조).

국가 차원의 관여가 이루어진 대학입학 전형제도의 하나가 바로 국가고사이다. 국가고사란 '대학입학을 원하는 학생이 의무적으로 혹은 필요에 의해 전국적으로 치르는 국가 주도의 시험'으로서, 우리나라에서는 1954학년도 대학입학자 선발을 위해 '대학입학 국가연합고사'가 처음으로 등장하였다. 이후 '대학입학자격국가고사'(1962~1963학년도), '대학입학예비고사'(1969~1981학년도), '대학입학학력고사'(1982~1993학년도) 등의 국가고사가 실시되었으며, 1994학년도 이후 현재까지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이 국가고사로서의 위상을 이어오고 있다.

〈표 1-1-1〉 우리나라 대학입학 전형제도의 변천 과정

시기(학년도)	유형(전형 방법)	주요 내용	시행 결과
1945~1953	대학별 단독시험제	○ 대학별로 입학 시험 실시 (모집단위, 정원 자율) (선지원)	• 부정 입학 발생 (무자격자 및 6·25 병역 특전)
1954	대입국가연합고사 +대학별 본고사	○ 국가연합고사: 자격고사 ○ 본고사: 선발고사 (선시험)	• 입시 이중 부담 • 정치적 이유로 무효화, 대학별 본고사 성적만으로 선발
1955~1961	대학별 단독시험제 (+내신제 및 무시험 전형)	○ 내신제의 도입(1958학년도) ○ 정원의 10%는 내신 성적에 의한 무시험, 정원의 90%는 내신 성적 30% 반영하여 전형 ○ 여성 진학 기회 확대와 제대자우대대책으로 정원 10% 초과 모집 허용 (선지원)	• 정원 초과 모집으로 학사 부조리 발생
1962~1963	대학입학자격 국가고사제	○ 1962학년도에는 국가고사만으로 전형 ○ 1963학년도에는 국가고사와 본고사 병행 전형 ○ 국가고사는 정원의 100%만 합격 (선시험)	• 성적 우수자 탈락 • 비인기학과 미달
1964~1968	대학별 단독시험제	○ 대학별 자율운영/대학별 입학시험 실시 ○ 일부 대학 적성 검사 치름 ○ 내신 성적 반영 (선지원)	• 초과모집과 고헌력 실업자 증가 • 대학 간 격차 심화 • 입시과목 중심의 교육과정 파행 운영
1969~1980	대학입학예비고사 +대학별 본고사	○ 예비고사: 초기에는 전국 합격선 적용, 후기에는 지역별로 적용 ○ 1979~80학년도에는 내신 성적도 포함 반영 (선시험)	• 과열 과외 • 빈부 차에 따른 위화감 조성 • 입시 이중 부담
1981	대학입학예비고사 +고교내신	○ 본고사 폐지(1980.7·30 교육개혁 조치) ○ 과외 전면 금지 ○ 예비고사 50% 이상, 내신 20% 이상 반영 (선시험)	• 무제한 지원, 성적 공개 등 시행상 문제점 대두(입시 혼란) • 대학 선발가능 미약 • 미달 사태 발생, 과열 경쟁으로 탈락
1982~1985	대학입학학력고사 +고교내신	○ 내신 성적 전학년 확대 ○ 학력고사 50% 이상, 내신 30% 이상 반영 ○ 복수 지원 제한 ○ 1985학년도 내신 등급 간 점수 차이 조정 (2.7점→2점) (선시험)	• 대학 선발가능 미약 • 내신 성적 불신 제기 • 접수 마감 시간 혼란 잔재 • 체력검사 폐지 대두

시기(학년도)	유형(전형 방법)	주요 내용	시행 결과
1986~1987	대학입학학력고사 +고교내신 +논술고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복수 지원 불허 ○ 전기합격자 후기 응시 불가 ○ 대학별 논술고사 실시(1986학년도에는 10% 이내, 1987학년도에는 10% 반영) ○ 내신 학년별 성적 반영 조정 <p>(선시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의 학생 선발 자율권 미흡 • 눈치 지원 극심, 적성 무시 지원 • 논술고사 기능 미흡
1988~1993	대학입학학력고사 +고교내신 +면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논술고사 폐지 ○ 선지원 후시험제 도입 ○ 면접고사 점수화, 과목별 가중치 적용 ○ 학력고사에 주관식 문항 30% 출제 <p>(선지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서 접수 혼란 완화 • 학력고사 문제지 도난과 정답지 유출 사고(1992학년도) • 과외 성행
1994~1996	대학수학능력시험 +고교내신 +대학별 고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력고사 폐지, 대학수학능력시험 도입 ○ 내신 성적 반영비율 상향 조정(40% 이상) ○ 동일계 지원 가산점제 도입 <p>(선시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교교육 교수·학습 방식 개선에 기여 • 1994학년도 2회 시행상의 난이도 논란, 이후 1회 시행
1997~2001	대학수학능력시험 +학교생활기록부 +대학별 고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공립대학 대학별 고사 실시 불가 <p>(선시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의 학생 선발 자율권 미흡 • 사교육비 증가
2002 이후	대학별 자율결정 (대학수학능력시험, 학생부, 논술, 면접, 특별전형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어, 수학, 영어 위주의 대학별 고사 규제 ○ 전형 방법의 다양화·자율화 ○ 논술고사 및 실기고사 자율적 실시 ○ 정시모집과 수시모집으로 이원화 ○ 수능 체제의 주요 개편(2005, 2014학년도) ○ 대학입학사정관제 도입 및 활성화 (2008학년도 이후) <p>(선시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의 학생 선발 자율권 상대적 강화 • 대학의 선발전형 전문성 강화 • 다양화 취지와 달리 입시부담 가중 • 사교육비 문제 논란 • 수능 난이도 논란

* 박도순(2007)의 자료를 토대로 박도순 외(1989), 임찬빈 외(1998)의 자료를 참고하여 종합, 구성한 것임.

제1절

대학입학 국가연합고사(1954학년도)

가. 대학입학 국가연합고사의 도입 배경

대학 입학에 위한 대학입학 국가연합고사¹⁾는 1954학년도(1953년)에 도입되어 대학별 본고사와 병행 실시되었다. 해방 이후 1953학년도까지는 대학별 단독시험제 시기로서 대학이 대학입학 전형 전반에 대한 자율권을 가지고 대학교육 적격자를 선발하여 왔다. 대학별 선발시험을 주 전형자료로 활용하여 학생을 선발하였으며, 실업계 고교생, 이북학교 출신자, 6·25 전역자 및 상이 학생 등을 위한 특별전형을 활성화하기도 하였다.

그런데 당시 대학 교육 수요의 부족으로 정원이 미달되는 사태가 발생하자 병역상의 징집·소집 유보의 특혜를 주었지만 오히려 대학 부정 입학 문제를 유발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즉 병역 기피 수단으로 대학에 진학하는 사례가 증가하였고 이는 대학의 정원 확보와 맞물려 자격 요건이 미흡한 지원자들을 선발하는 부정 입학 문제를 야기하였던 것이다. 이에

정부는 대학의 권위와 질을 제고하고 국가 사회의 공공성 확보라는 책무성을 다하기 위하여 대학의 학생 선발에 관여하고자 하였다. 그 일환으로 도입된 것이 대학입학 국가연합고사라는 국가고사였다(동아일보, 1953.10.22).

그러나 당시 시험 결과에 따라 일부 지도층 자녀가 불합격하는 사태가 발생하여 사회 문제로 불거지면서 1954년 3월 대통령의 “각급 학교 입학은 일체 자유 경쟁에 맡기라”라는 지시에 의해 시험이 무효화되고 1년 만에 사라지게 되었다.²⁾

나. 대학입학 국가연합고사의 시험 체제³⁾

1954학년도 대학 신입생 선발을 위한 대학입학 국가연합고사는 ‘대학입학자 선발고시위원회’의 주관 하에 실시되었던 국가고사이다.

1) 언론 자료에는 ‘대학입학 국가연합고사’, ‘대입국가연합고사’, ‘대입국가연합고사’ 등이 혼용되어 사용되었으나, 본고에서는 ‘대학입학 국가연합고사’로 통일하여 사용함.

2) 당시 ‘특별전형에서 여자와 군제대자에게 연합고사 특혜를 줌에 따라 입시 기회 불균등이 발생한다.’, ‘두 가지 시험의 실시로 인해 학생의 부담이 가중된다.’라는 지적도 이 시험의 폐기라는 결과에 영향을 미쳤음.

3) ‘시험 체제’는 시험의 목적과 성격, 출제, 시행, 채점(점수 및 성적표 산출 포함), 결과 활용 등 광범위한 의미로 사용될 수 있으나, 여기서는 목적과 성격, 출제 과목(범위 포함), 문항 형식, 문항 수, 배점(문항 배점 및 총점), 시험 일정 등의 측면으로 국한하여 다루었음.

(1) 목적 및 성격

- 대학교육 적격자 선발을 위해 대학별 본고사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시험(대학 모집정원의 140% 선발: 자격시험이라 하나 이것은 절대평가가 아닌 상대평가에 의한 것이기에 일종의 단계형 선발시험이라 할 수 있음)
- 고등학교 교육과정(교과목)을 토대로 한 지필 학력 평가

(2) 출제 과목, 문항 형식, 문항 수, 배점, 시간⁴⁾

- 출제 과목: 총 6개 과목으로 구성되며, 응시자는 5개 과목(필수 4, 선택 1)을 응시함.
 - 필수: 국어, 수학, 영어, 사회생활
 - 선택: 과학 또는 실업(농업, 상업공업, 수산)
- 문항 형식: 4지선다형
- 문항 수 및 배점: 문항당 1점
- 시험 일시 및 시간: 1953.12.28(월)~29(화) 2일간 실시
 - 1일차: 국어, 영어, 수학
 - 2일차: 사회생활, 선택(과학 또는 실업)

4) 문제지를 공개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대학입학 국가연합고사의 시험 체제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자료를 찾기가 어려워 다른 국가고사에서 다른 상세 내용(문항 수, 배점, 교시별 시간 등)을 다루지 못하였음.

제2절

대학입학자격 국가고사(1962~1963학년도)

가. 대학입학자격 국가고사의 도입 배경

1954학년도 대학입학 국가연합고사의 무효화에 따라 대학입학 전형제도는 다시 대학별 단독시험제로 전환되어 1961학년도 입시까지 유지되었다. 초기 대학별 단독시험제 시기(1945~1953학년도)와는 달리, 고등학교 교육을 정상화하고 대학교육 적격자를 선발한다는 원칙하에 대학별로 본고사를 실시하거나 무시험 전형을 실시하는 등 대학 자율적으로 다양한 전형이 전개되었다(박도순 외, 1989). 특히 1958학년도 이후 고교내신 성적이 활용되기 시작하였으며¹⁾ 신체검사, 면접, 대학진학 적성검사 등의 전형방식이 활용되기도 하였다. 또한 일부 대학의 경우 상관회귀법²⁾에 의한 무시험 전형이 실시되었으며, 실업계 고교졸업자의 동일계 대학 진학 시 무시험 전형을 권장하는 특별전형(국·공립대 입학정원의 10% 내에서 실시)이 시행되기도 하였다. 그런데 1955~1961학년도의 대학별 단독시험제는 대학의 자율권을 보장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제도라는 긍정적 평가를 받았지만 한편으로는

대학 간 학력 격차가 심해지고 대학별 본고사에서 특정 교과목으로 편중되는 현상을 가져옴으로써 고교교육의 비정상화를 초래한다는 비판도 받았다.

이에 1961년 5·16 직후, 법률 제689호 ‘중학교 고등학교 및 대학의 입학에 관한 임시조치법’을 공포(1961. 8.12)하여 중·고등학교 및 대학입학시험을 국가고시제로 전환하였다(동아일보, 1961. 7.15). 대학입학 전형에서의 국가고사로 ‘대학입학자격 국가고사’를 도입하면서 ① 고교 교육과정 운영의 정상화, ② 대학교육의 질적 향상, ③ 인문 중시 풍토의 타파와 실업교육 진흥, ④ 입학 정원의 20%의 학생을 추가 합격시켜 지방대학 육성 기도, ⑤ 여학생 합격률을 별도 사정하여 여성 교육을 육성 등의 목적을 표방하였다.

그러나 대학 간, 학과 간 학력차 노출이 심해지고 인기 대학 및 학과에 대한 쏠림 현상이 발생하여 우수 학생이 탈락하고 정원이 미달되는 사태가 발생하였다. 이에 대학의 학생 선발 자율권이 침해되고 있다는 비판 여론이 거세지면서 ‘대학 입학에 관한 임시 조치법’이 폐지(1963. 4. 1)되고 시행 2년 만에 다시

1) 국·공립대의 경우 입학정원의 10%를 ‘고교내신 성적’으로만 선발하고, 입학정원의 90%는 ‘대학본고사 성적 70%+고교내신 성적 30%’로 선발하도록 하였음.

2) 대학 재학생의 성적과 출신학교 성적과의 상관을 산출하고 회귀방정식이나 회귀도표를 활용하여 학생을 선발하는 방식임.

대학별 단독시험제로 회귀하게 된다.

나. 대학입학자격 국가고사의 시험 체제

1962~1963학년도 대학 신입생 선발을 위한 대학 입학자격 국가고사는 당시 문교부 산하에 설치된 ‘대학입학 국가고사위원회’의 주관하에 실시되었던 국가고사이다(경향신문, 1962.12.13).

(1) 목적 및 성격

- 1962학년도에는 대학별 본고사를 대체하는 국가 차원의 자격고사³⁾ 겸 선발시험의 성격으로, 1963학년도에는 대학별 본고사가 부활함에 따라 대학입학 자격만 결정하는 시험의 성격으로 활용됨.
 - 1962학년도: 대학입학자격 국가고사+대학별 실기고사(체능고사)
 - 1963학년도: 대학입학자격 국가고사+대학별 선발시험
-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토대로 한 지필 학력 평가로서, 그 출제 원칙은 다음과 같음.
 - 고교 교육과정을 토대로 특정 교과서에 편중되지 않게 출제
 - 일상적, 생활 관련 내용의 문제를 많이 채택
 - 이해, 응용, 분석, 종합, 해석 등의 고등정신능력 측정
 - 광범위하게 모든 단원 포괄
 - 평이한 난이도 유지 (※지원자가 많은 과목은 난도를 높임)

(2) 출제 과목, 문항 형식, 문항 수, 배점, 시간

- 출제 과목: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필수 교과와 선택 교과의 내용 및 범위를 기준으로 하여 필수 과목과 선택과목으로 구성함.

〈1962학년도〉

- 필수 6과목: 국어(1), 사회(일반사회, 도덕, 국사), 수학(1), 과학(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 중 택 1), 영어, 실업·가정(농업, 공업, 상업, 수산업, 가정 중 택 1)
- 선택 1과목: 계열별로 1개 과목 선택
 - 인문사회계열: 국어(2), 세계사, 지리, 독일어, 불란서어, 중국어
 - 자연이공계열: 해석, 기하, 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 (단, 물리, 화학, 생물, 지학의 4개 과목 중 택할 경우에는 필수 교과에서 선택하지 않은 과목 중에서 택 1)
 - 예능·체육계열: 음악, 미술, 체육

〈1963학년도〉

- 필수 과목만으로 구성, 실시함.

- 문항 형식: 4지선다형

- 문항 수 및 배점(동아일보, 1962. 1.18):

〈1962학년도〉

- 출제자 입장에서는 필수 600문항(40문항 × 15과목), 선택 405문항(예능체육은 실기 제외), 총 1,005문항 출제
- 수험자 입장에서는 필수 240문항(40문항 × 6과목), 선택 60문항(예능체육은 이론 15문항), 총 300문항(예능체육은 255문항) 풀이
- 수험자 기준 계열별 300점 만점 : 필수 240점

3) 1962학년도 대학입학자격 국가고사의 경우, 문교부는 합격자 사정기준에 의하여 300점 만점 체제에서 최저기준을 1백 50점(예능체육계는 별도)으로 정하고 그 이하는 불합격시키는 원칙 아래 전체 모집정원에 10%를 가산하여 합격선으로 확정하였음(경향신문, 1962. 2. 8 기사).

- (6과목×40점) + 선택 60점
- 문항 배점은 모두 1점
- 〈1963학년도〉
- 출제자 입장에서는 필수 450문항(30문항 ×15과목) 출제
 - 수험자 입장에서는 필수 180문항(30문항 ×6과목)풀이
 - 수험자 기준 300점 만점
 - 문항 배점은 모두 1점
- 시험 일시 및 시간(경향신문, 1962. 1.16):
- 〈1962학년도〉
- 1962. 1. 16(화)~18(목) 3일간 실시
 - 1일차 9:40~10:40 국어
- 11:00~12:00 사회
13:10~14:30 수학
14:50~15:50 영어
- 2일차 9:40~10:40 과학
 - 11:00~12:00 실업 및 가정
 - 12:20~13:40 (인문·자연계열)
선택과목
 - 12:20~12:40 (예능·체육계열)
선택과목
 - 3일차 9:50~
예능·체육계열
실기고사
- 〈1963학년도〉
- 1962. 12. 13(목) 1일간 실시
 - 10:00~11:30 수학, 사회, 실업가정
 - 13:00~14:30 국어, 영어, 과학

〈표 1-2-1〉 대학입학자격 국가고사의 시험 체제

시험 과목 명		문항 수		문항 배점 (점)		과목 배점 (점)		시험 시간(분)	
		1962 학년도	1963 학년도	1962 학년도	1963 학년도	1962 학년도	1963 학년도	1962 학년도	1963 학년도
필수	국어(국어1)	40	30	1	1	40	30	60	• 수학, 사회, 실업가정 90분
	사회(일반사회, 도덕, 국사)	40	30	1	1	40	30	60	
	수학(수학1)	40	30	1	1	40	30	80	
	과학(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 중 택 1)	40	30	1	1	40	30	60	• 국어, 영어, 과학 90분
	영어	40	30	1	1	40	30	60	
	실업·가정 (농업, 공업, 상업, 수산업, 가정 중 택 1)	40	30	1	1	40	30	60	
선택	인문사회계열 국어(2), 세계사, 지리, 독일어, 불란서어, 중국어 중 택 1	60	-	1	-	60	-	80	-
	자연이공계열 해석, 기하, 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 중 택 1	60	-	1	-	60	-	80	-
	예능·체육계열 음악, 미술, 체육 중 택 1 (이론과 실기 병행)	15 (이론)	-	1	-	60 (이론15 실기45)	-	20 +a	-
계		300 (예능 체육 255)	-	-	-	계열 300	-	-	-

제3절

대학입학예비고사(1969~1981학년도)

가. 대학입학예비고사의 도입 배경

1962~1963학년도의 대학입학자격 국가고사 시기를 거쳐 1964학년도부터 1968학년도까지 대학에 학생 선발권을 일임하는 대학별 단독시험제로 회귀하여 대입전형이 실시되었다. 이 시기에 정부에서는 대학입학 전형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최소한의 지침만을 제공하고 대학이 자율적으로 학생을 선발하도록 하였으나, 대학의 입시관리 부실, 일부 사립대학의 정원 초과 모집에 따른 대학교육 질 저하, 일류대학 집중 지원 현상으로 인한 대학별 격차 심화, 정원 초과 모집에 따른 고등실업자 증가 등의 문제가 또 다시 여론으로 급부상하였다(조용기, 2013). 이에 정부는 대학의 학생 선발 자율권을 유지하면서 대학 주도 전형에서 과생되었던 부정적 문제들을 해소하여 입시의 공정성을 확보한다는 명분으로 국가고사를 다시 부활시켰다(매일경제, 1968.11.12). 1968년 11월 15일 대학입학예비고사 실시에 따른 교육법(제111조¹⁾) 개정을 단행하여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였고, 1968년 12월 19일 첫 번째 대학입학예비고사를 실시하기에 이른다. 그리고 1969년 12월 4일에 대통령령으로 ‘대학

입학예비고사령’을 공포함으로써 예비고사에서 제외된 예·체능계의 학과의 범위가 정해지고 대학 입학예비고사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였다.

대학입학예비고사는 ① 대입적격자 선발로 대학의 질적 향상 도모, ② 고교교육의 정상화 시도라는 실시 목적을 표방하였으며, 구체적으로는 대학의 불합리한 입시제도 관리 지양, 대학 간 질적 격차 해소, 대학생 정원 관리의 효율화, 교육 투자의 낭비 억제, 국가인력 수급 정책과의 유기적 관계 유지 등의 정책 과제를 추진하였다.

대학입학 전형제도의 변천 단계로 볼 때, 대학 입학예비고사는 대학별 본고사와 병행되었던 1969~1980학년도 시기와 고교내신과 병행되었던 1981학년도 시기로 구분되며, 전자(대학별 본고사와의 병행 시기)는 다시 고교내신이 포함되지 않았던 1969~1972학년도 시기와 대학별 본고사와 고교내신이 모두 포함되었던 1973~1980학년도 시기로 구분되기도 한다. 즉 ‘대학입학예비고사+대학별 본고사’(1969~1972학년도), ‘대학입학예비고사+대학별 본고사+고교내신’(1973~1980학년도), ‘대학입학예비고사+고교내신’(1981학년도)의 전형 유형을 갖는다.

1) 제111조는 ‘대학(교대, 사대 포함)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대입예비고사에 합격한 자로 한다’라고 규정함.

1972학년도까지는 대학별 시험(본고사)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 부여의 시험이었으나 1973학년도부터 선발의 전형 요소로 점수화되어 사용되었다.

하지만 대학별 본고사가 실시되었던 1980학년도까지는 두 가지 시험 실시에 따른 수험생들의 부담이 컸고 시험 준비 위주의 교육으로 인해 학교 교육 과정 정도가 심하였으며 과열 과외, 재수생 양산과 그에 따른 사회 문제, 예비고사 합격선의 변별력(예비고사 기능) 상실²⁾ 등의 문제가 제기되었다.

이에 정부는 1980년 7·30 교육개혁 조치(교육 정상화 및 과열 과외 해소 방안: 대학별 본고사 폐지, 고교내신 성적의 입시 반영, 과외 전면 금지, 대학 정원 확대와 졸업정원제 실시, 교복 자율화 등)를 취하였고, 그에 따라 1981학년도에는 대학입학예비고사 성적(50% 이상)과 고교내신 성적(20% 이상)만으로 신입생을 선발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 해는 무제한 복수 지원에 따른 정원 미달 사태와 과열 경쟁에 의한 탈락 현상이 어느 때보다도 심하게 나타났고, 내신 성적 평가에서 형평성 시비의 문제가 제기되었으며, 고등 정선 능력 측정 시험으로의 개선 요구도 있었다.

나. 대학입학예비고사의 시험 체제

1968년 대학 신입생 선발을 위한 대학입학예비고사는 당시 문교부 산하에 설치된 ‘대입예비고사 위원회’의 주관하에 실시되었던 국가고사이다.

(1) 목적 및 성격

○ 1969~1972학년도에는 대학별 본고사에 응시할 수 있는 국가 차원의 자격 부여 시험으로, 1973~1981학년도에는 합격 결정에 영향을 주는 전형 요소의 하나로 활용됨.

• 1969~1972학년도: 대학별 본고사 응시자격 부여용(대학입학정원의 150%선에서 전국 단위로 단일합격선³⁾을 정하여 자격 부여)

• 1973~1980학년도: 응시자격 부여 및 합격자 선발을 위한 전형요소로 활용

※ ‘예비고사 성적만으로 전형’, ‘대학입학예비고사 성적+대학별 본고사 성적 전형’, ‘대학입학예비고사 성적+대학별 본고사 성적+고교내신 성적 전형’(1979학년도 이후 국립대학에 적용) 등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

• 1981학년도: 합격자 선발을 위한 주요 전형요소로 활용(대학별 본고사를 완전 대체하고 고교내신 성적과 합산하여 합격을 결정함)

※ 대학예비고사 성적(50~80%) + 고교내신 성적(20~50%; 고3 성적만 반영)

○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토대로 전 과목을 포함한 기초능력 검사로서, 지나치게 특수·지엽적인 내용을 배제하고 이해력·적용력·분석력 등 고차적 능력을 측정하는 데 중점을 둔 시험임(경향신문, 1978.11. 7).

2) 1979학년도부터 대학입학예비고사의 적용대상이 전문대학으로까지 확대되면서 대학정원이 급격히 팽창하였고, 그에 따라 대학입학예비고사 총응시자의 약 90%가 합격하게 되어 합격선이 유명무실해짐(박도순 외, 1989).

3) 1972학년도에는 정원의 180%, 1974학년도에는 정원의 200% 선에서 합격선을 정함. 또한 1973학년도부터는 지역별 합격선을 정하여 해당 지역 대학의 자격 요건으로 활용되었음.

(2) 출제 과목, 문항 형식, 문항 수, 배점,
시간: <표 1-3-2>~<표 1-3-7> 참조

○ 출제 과목

- 1969~1972학년도: 국어, 국민윤리 및 사회, 수학, 과학, 영어, 실업(농업, 공업, 수산, 상업, 가정 중 택 1; 단 가정은 여학생에 한함)의 6개 과목(경향신문, 1968.10.29)
- 1973학년도: 7개 과목(중전 국민윤리 및 사회에 속해있던 국사를 '민족주체교육 확립'이란 명분하에 독립과목으로 분리·출제)
- 1974학년도: 영어가 외국어로 변경되고 영어, 독일어, 불어, 중국어, 에스파니아어 중 택 1
- 1976학년도: 외국어 과목의 선택이 늘어남.
- 1981학년도: 고교 전 교육과정 14개 과목

○ 문항 형식: 4지선다형(경향신문, 1968.11.19)

○ 문항 수 및 배점

- 1969학년도: 국어, 국민윤리 및 사회, 과학, 영어, 실업은 과목별 60문항 60점 배점, 수학은 30문항 60점 배점, 총 330문항 360점 만점
- 1970~1972학년도: 국어, 국민윤리 및 사회, 과학, 영어, 실업은 과목별 50문항 50점 배점, 수학은 25문항 50점 배점, 총 275문항 300점 만점
- 1973학년도: 국사 30문항 30점 배점 추가, 실업 46문항(4문항 축소) 50점 배점(4문항 2점, 42문항 1점), 총 301문항 330점 만점
- 1974학년도: 국어, 국민윤리 및 사회, 과학, 외국어는 과목별 50문항 50점 배점, 국사 30문항 30점, 수학은 25문항 50점 배점, 실업은 40문항 50점 배점, 체력검사 20점, 총 295문항 350점 만점
- 1975~1980학년도: 실업 및 가정의 점수를 50점에서 40점으로, 문항 수를 40문항에서 30문항으로 하향조정, 총 285문항 340점 만점

※ 1974학년도부터 체력장(체력검사) 20점이 대학입학예비고사 점수에 포함되어 총점 350점 만점 체제로 유지되어 왔으며, 1975학년도부터 실업(및 가정)이 10점 감축(50점→40점, 문항 수 40개→30개) 되어 총점 340점 만점 체제로 구성되었음.

- 1981학년도: 고교 전 교육과정 14개 과목(공통필수 7과목, 공통 선택 2과목, 계열별 필수 4과목, 계열별 선택 1과목)
<공통필수>: 국어 I, 한문 I, 국사, 국민윤리, 정치·경제, 수학 I, 기술(가정)
<공통선택>: 외국어(영어, 독일어, 불어, 중국어, 일본어 중 선택), 실업(농업, 공업, 상업, 수산업, 가사 중 선택)
<인문계열필수>: 사회문화, 세계사, 국토지리, 인문지리(자연계열 택 1)
<자연계열필수>: 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인문계열 택 1)
- 문항 배점은 국어, 국민윤리 및 사회, 과학, 영어, 국사의 경우 1점씩, 수학의 경우 2점, 실업(및 가정)은 1973학년도부터 1~2점(경향신문, 1979. 5.19)

○ 시험일시: <표 1-3-1> 참조

(경향신문, 1969.11.12; 경향신문, 1970.11.20; 동아일보, 1971.11.18; 경향신문 1972. 9.11; 동아일보, 1973.11.15; 경향신문, 1974.11.13; 경향신문, 1975.11.12; 경향신문, 1976. 8. 28; 동아일보, 1977.11. 9; 경향신문, 1978.11. 4; 경향신문, 1979.11. 6; 동아일보, 1980. 8. 8)

〈표 1-3-1〉 1969~1981학년도 대학입학예비고사 시험일시

학년도	시험일시
1969	1968.12.16(월)
1970	1969.11.18(화)
1971	1970.11.20(금)
1972	1971.11.19(금)
1973	1972.11.20(월)
1974	1973.11.16(금)
1975	1974.11.13(수)
1976	1975.11.12(수)
1977	1976.11.12(금)
1978	1977.11.10(목)
1979	1978.11. 7(화)
1980	1979.11. 6(화)
1981	1980.11.20(수)

○ 시험 시간

〈1969학년도〉

- 교시 간 쉬는 시간 20분씩, 점심시간 75분
- 1교시 9:00~9:50 국어
- 2교시 10:10~11:00 수학
- 3교시 11:20~12:10 과학
- 4교시 13:30~14:20 사회
- 5교시 14:40~15:30 영어
- 6교시 15:50~16:40 실업

〈1970~1972학년도〉

- 교시 간 쉬는 시간 20분씩, 점심시간 85분
- 1교시 9:00~10:30 국어, 수학
- 2교시 11:00~12:30 사회, 과학
- 3교시 14:00~15:30 영어, 실업

〈1973학년도〉

- 교시 간 쉬는 시간 30분씩, 점심시간 80분
- 1교시 9:00~10:20 국민윤리 및 사회, 국사
- 2교시 10:50~12:20 수학, 과학
- 3교시 13:40~14:30 국어
- 4교시 15:00~16:30 영어, 실업

〈1974학년도〉

- 교시 간 쉬는 시간 30분씩, 점심시간 70분
- 1교시 9:00~10:20 과학, 국사
- 2교시 10:50~12:20 국민윤리 및 사회, 수학
- 3교시 13:40~14:30 외국어
- 4교시 15:00~16:30 국어, 실업(및 가정)

〈1975학년도〉

- 교시 간 쉬는 시간 30분씩, 점심시간 60분
- 1교시 9:00~10:20 과학, 국사
- 2교시 10:50~12:30 국민윤리 및 사회, 수학
- 3교시 13:40~14:30 외국어
- 4교시 15:00~16:20 국어, 실업(및 가정)

〈1976~1979학년도〉

- 교시 간 쉬는 시간 30분씩, 점심시간 70분
- 1교시 9:00~10:20 과학, 국사
- 2교시 11:00~12:40 국민윤리 및 사회, 수학
- 3교시 14:00~14:50 외국어
- 4교시 15:30~16:50 실업(및 가정), 국어

〈1980~1981학년도〉

- 교시 간 쉬는 시간 30분씩, 점심시간 60분
- 1교시 9:00~10:20 국어, 실업
- 2교시 11:00~12:50 국사, 국민윤리, 정치, 경제, 수학
- 3교시 14:00~14:50 외국어
- 4교시 15:30~16:50 사회, 과학

〈표 1-3-2〉 1969학년도 대학입학예비고사의 시험 체제

교시	시간	시험 과목 명	문항 수	문항 배점(점)	과목 배점(점)	시험 시간(분)	비고
1교시	9:00~9:50	국어	60	1	60	50	
2교시	10:10~11:00	수학	30	2	60	50	
3교시	11:20~12:10	과학	60	1	60	50	
4교시	13:30~14:20	국민윤리 및 사회	60	1	60	50	
5교시	14:40~15:30	영어	60	1	60	50	
6교시	15:50~16:40	실업(농업, 공업, 수산업, 상업, 가정 중 택 1)	60	1	60	50	
계			330	-	360	300	

〈표 1-3-3〉 1970~1972학년도 대학입학예비고사의 시험 체제

교시	시간	시험 과목 명	문항 수	문항 배점(점)	과목 배점(점)	시험 시간(분)		비고
1교시	9:00~10:30	국어	50	1	50	45	90	2과목씩 묶어 1개 교시 90분 배정 (과목당 45분 추정)
		수학	25	2	50	45		
2교시	11:00~12:30	국민윤리 및 사회	50	1	50	45	90	
		과학	50	1	50	45		
3교시	14:00~15:30	영어	50	1	50	45	90	
		실업(농업, 공업, 수산업, 상업, 가정 중 택 1)	50	1	50	45		
계			275	-	300	270	60점 하향	

〈표 1-3-4〉 1973학년도 대학입학예비고사의 시험 체제

교시	시간	시험 과목 명	문항 수	문항 배점(점)	과목 배점(점)	시험 시간(분)		비고
1교시	9:00~10:20	국민윤리 및 사회	50	1	50	50	80	신설
		국사	30	1	30	30		
2교시	10:50~12:20	수학	25	2	50	45	90	
		과학	50	1	50	45		
3교시	13:40~14:30	국어	50	1	50	50		
4교시	15:00~16:30	영어	50	1	50	45	90	4문항(1~4번) 2점 배점
		실업(농업, 공업, 수산업, 상업, 가정 중 택 1)	46	1~2	50	45		
계			301	-	330	310	30점 상향	

〈표 1-3-5〉 1974학년도 대학입학예비고사의 시험 체제

교시	시간	시험 과목 명	문항 수	문항 배점(점)	과목 배점(점)	시험 시간(분)		비고
1교시	9:00~10:20	과학	50	1	50	50	80	
		국사	30	1	30	30		
2교시	10:50~12:20	국민윤리 및 사회	50	1	50	45	90	
		수학	25	2	50	45		
3교시	13:40~14:30	외국어	50	1	50	50		
4교시	15:00~16:30	국어	50	1	50	45	90	10문항 2점 30문항 1점
		실업·가정 (농업, 공업, 수산업, 상업, 가정 중 택 1)	40	1~2	50	45		
소계			295	-	330	310		
체력장(체력검사)			-	-	20	-		신설
계			-	-	350	-		20점 상향

〈표 1-3-6〉 1975~1979학년도 대학입학예비고사의 시험 체제

교시	시간	시험 과목 명	문항 수	문항 배점(점)	과목 배점(점)	시험 시간(분)		비고
1교시	9:00~10:20	과학	50	1	50	50	80	
		국사	30	1	30	30		
2교시*	10:50~12:30	국민윤리 및 사회	50	1	50	50	100	10분 증가
		수학	25	2	50	50		
3교시*	13:40~14:30	외국어	50	1	50	50		
4교시*	15:00~16:20	국어**	50	1	50	50	80	문항 수 및 배점 하향
		실업 가정 (농업, 공업, 수산업, 상업, 가정 중 택 1)	30	1~2 (10문항)	40	30		
소계			285	-	320	310		
체력장(체력검사)			-	-	20	-		
계			-	-	340	-		10점 하향

* 1976학년도 이후, 2교시 11:00~12:40, 3교시 14:00~14:50, 4교시 15:30~16:50

** 1976학년도부터 국어 과목에 한자가 출제되기 시작함(단, 과목으로서의 '한문'이 추가된 것은 아님).

〈표 1-3-7〉 1980~1981학년도 대학입학예비고사의 시험 체제

교시	시간	시험 과목 명	문항 수	문항 배점(점)	과목 배점(점)	시험 시간(분)	비고
1교시	9:00~10:20	국어	50	1	50	50	계열 공통 80
		실업 가정 : 기술(남자 필수), 가정(여자 필수), 공업, 농업, 상업, 수산업, 가사(여자 한함) 중 택 1	30	1~2 (10문항)	40	30	
2교시	11:00~12:50	국사, 국민윤리, 정치 경제	55	1	55	55	계열 공통 110 10분 증가
		수학	25	2	50	55	
3교시	14:00~14:50	외국어	50	1	50	50	계열 공통
4교시	15:30~16:50	사회(사회문화, 세계사, 국토지리, 인문지리)	인문60 자연15	1	인문60 자연15	80	인문 필수 자연 택 1 인문 택 1 자연 필수
		과학(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	인문15 자연60	1	인문15 자연60		
소계			계열별 285	-	계열별 320	320	
체력장(체력검사)			-	-	20	-	
계			-	-	340	-	

※ 1980학년도 시험 관리의 주요 특징

- 체력검사 종목이 축소됨.
- 각 시도교육위를 통해 수학 문제지를 공개하여 문제지 일부가 처음으로 공개됨(동아일보, 1979. 6.28).
- 최초로 맹인을 위한 점자 출제를 실시함(동아일보, 1979. 7. 10).

※ 1981학년도 시험 관리의 주요 특징

- 한국과학기술연구소(KIST)는 기존의 OCR(문자해독기) 대신 새로운 시험 채점기인 NCS7108을 도입하여 예비고사에서 활용함(경향신문, 1980. 7.25).
- 문제지를 전면 공개하고 답안지 수정을 불허함. 수험번호, 문제지 유형 미기입 시 영점 처리함.

- 실업계열 중 일부는 일반계열 합격선을 상회하고 모집 정원도 대폭 증가하여 실업계 동일계 진학에 대한 예비합격 사정을 별도로 하지 않고 일반계열과 같이 사정하게 됨.
- 대학별 본고사가 폐지되고 예비고사 성적과 고교내신 성적만으로 사정하게 됨에 따라 예비고사의 비중이 높아짐. 이에 시험 관리에 신중을 기하기 위하여 시험일을 11월 4일에서 11월 20일로 연기함.

제4절

대학입학학력고사(1982 ~ 1993학년도)

가. 대학입학학력고사의 도입 배경

대학입학학력고사는 1980년 7·30 교육개혁 조치에 따라 고등학교 교육의 정상화와 대학교육 적격자 선발을 목표로 대학별 본고사 폐지, 고교내신 성적 강화, 과외 금지 등의 조치와 함께 나타난 것이라 할 수 있다. 대학입학 전형과 관련한 주요 사항을 보면, ① '대학입학학력고사 성적 50% 이상+ 고교내신 성적 30% 이상'에 의한 신입생 선발, ② 전국/지역 단위의 합격선 폐지, ③ 실업계 동일계 진학, 산업체 근로자 특혜 조치는 종전과 같이 존속, ④ 대학입학학력고사의 문제와 정답의 공개 등이 있다. 이 조치에 따라 1981학년도엔 대학별 본고사 대신 대학입학예비고사 성적을 활용하게 하였고, 1982학년도부터 대학입학예비고사를 '대학입학학력고사'로 명칭을 바꾸어 사용했던 것이다. 1981학년도 '대학입학 예비고사 성적 50% 이상+고교내신 성적 20% 이상'의 체제에서는 갑작스러운 대학별 본고사 폐지로 심한 혼란이 나타났으며, 고교내신 성적 산출의 합리성과 신뢰성 문제 제기, 내신제 강화에 따른 학교 내 학생 간의 지나친 경쟁의식 촉발, 무제한적 복수 지원에 따른 정원 미달 사태 및 지나친 과열 경쟁 초래 등의 문제가

불거졌다. 이에 1982학년도 이후 고3에 국한되었던 내신 성적을 고교 전 과정으로 확대¹⁾하고, 복수 지원을 제한하였다.

7·30 개혁 조치에 따른 초기 대입전형제도 개선은 대학입학학력고사 성적과 고교내신 성적이 단순 합산에 따른 총점 중심의 체제였기 때문에, 대학의 학생 선발권 위축, 수험생의 눈치 작전 및 배짱 지원과 같은 비교육적 현상 초래, 객관식 일변도의 학력고사에 따른 고차적 사고력 측정 미흡 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 이에 1986학년도부터 고차적인 사고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논술고사'를 도입하여 기존 전형(학력고사+내신)에 추가하고, 전 학년에 동등한 비율을 적용하던 내신 성적 산출방식을 1학년 20%, 2학년 30%, 3학년 50%로 변경하였으며, 1987학년도부터는 학력고사의 교과목을 9개 과목으로 축소하고 과목별 배점 및 고사 시간을 변경하고 예·체능계열을 신설하였다.

그러나 1986~1987학년도의 전형은 논술고사의 기능이 미흡할 뿐 아니라 이전의 대입전형 관련 문제를 해소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또한 대학의 자율성을 제한하고 있다는 비판 여론도 계속 있었다. 이에 1988학년도부터는 논술고사를 폐지하고 면접고사를

1) 1982학년도에는 고교 2, 3학년 성적, 1983학년도 이후에는 고교 1~3학년 성적으로 확대하였고, 1985학년도부터는 내신 등급 간 점수 차이를 2.7점에서 2점으로 축소 조정하였음.

도입하였으며, 대학지원 방법을 ‘선지원 후시험제’로 전환하였다. 또한 대학입학학력고사의 출제는 중앙교육평가원이 담당하게 하고, 30% 내외에서 주관식 출제를 하게 하였으며, 선택과목은 지원자가 대학지원 시 선택하지만 실업 및 제2외국어의 과목 선택 지정은 대학에서 할 수 있도록 하였고 학력고사의 실시, 채점, 결과 처리 등은 각 대학이 책임 관리하되 과목별 가중치는 10% 이내에서 대학이 자율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경향신문, 1986.11.25; 동아일보, 1986.11.25; 경향신문 1987.6.16; 동아일보, 1991.6.26).

나. 대학입학학력고사의 시험 체제

대학 신입생 선발을 위한 대학입학학력고사는 대학입학예비고사의 성격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명칭만 변경된 시험제도이다.

(1) 목적 및 성격

- 학생 선발을 위한 주요 전형 요소의 하나로 활용됨(50% 이상 반영).
-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토대로 전 과목을 포함한 기초능력 검사로서, 지나치게 특수·지역적인 내용을 배제하고 이해력·적용력·분석력 등 고차적 능력을 측정하는 데 중점을 둔 시험임.

(2) 출제 과목, 문항 형식, 문항 수, 배점, 시간

- 출제 과목
(경향신문, 1975. 8.13; 경향신문, 1980.12.25; 동아일보, 1981.11.26; 매일경제, 1985.10.31)
 - 1982~1983학년도: 1982학년도 13개, 1983학년도 14개 과목(국어에 한문 추가)

<공통필수 7과목>

국어 I, 한문 I, 국사, 국민윤리, 정치·경제, 수학 I, 기술(가정)

<공통선택 2과목>

외국어(영어, 독일어, 불어, 중국어, 일본어 중 선택), 실업(농업, 공업, 상업, 수산업, 가사 중 선택)

<인문계열필수 4과목>

사회문화, 세계사 국토지리, 인문지리(자연계열 택 1)

<자연계열필수 4과목>

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인문계열 택 1)

- 1984학년도: 15개 과목(인문계열 국어II, 자연계열 수학II 신설)
- 1985학년도: 인문계열 16개 과목(과학 1과목 추가하여 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 중 두 과목 선택, 단 물리, 화학 중 반드시 하나 선택)
자연계열 전년도 15개 과목 그대로 유지
- 1986학년도: 인문계열 17개, 자연계열 16개 과목 (제2외국어를 신설하여 독일어, 불어, 중국어, 일본어, 서반어어 중 한 과목 선택)
- 1987학년도 이후: 9개 과목으로 축소(필수 5, 선택 4)

<필수 5과목>

국어(인문계열은II 포함), 수학(자연계열은II 포함), 영어, 국사, 국민윤리

<선택 4과목>

- 인문계열: 사회 과목 중 택 2+과학 과목 중 택 1+제2외국어/실업 10과목 중 택 1
- 자연계열: 사회 과목 중 택 1+과학 과목 중 택 2+제2외국어/실업 10과목 중 택 1
- 예·체능계열: 사회 과목 중 택 1+과학 과목 중 택 1+제2외국어/실업 10과목 중 택 1+음악·미술 중 택 1

- 문항 형식
 - 1982~1987학년도 4지선다형
 - 1988~1993학년도 4지선다형(객관식)+ 서답형(주관식) 병행
- 문항 수 및 배점(경향신문, 1983. 6. 9)
 - 1982~1983학년도: 직전의 대학입학예비고사 체제를 유지함. 즉, 지필 시험은 계열별 총 285문항, 320점 만점 체제였고, 최종 점수 산출에는 체력장 20점을 합산하여 총 340점 만점 체제로 활용함.
 - 1984학년도: 계열별 1과목 증설(인문계열 국어Ⅱ, 자연계열 수학Ⅱ)로 계열별 15점이 늘어남에 따라 국사 5점(25점→20점), 실업과 기술·가정 10점(40점→30점)을 하향 조정함.
 - 문항 수는 인문계열 295문항, 자연계열 290문항으로 전년도에 비해 인문계열 10문항, 자연계열 5문항이 늘었으나, 과목 배점 조정을 통하여 지필 320점, 체력장 20점, 총 340점 만점 체제를 유지함.
 - 1985학년도: 인문계열의 경우 과학의 선택과목이 이전 1개(15문항, 15점)에서 2개(30문항, 30점)로 늘어남에 따라 사회 과목의 문항 수와 배점을 축소 조정(과목별 15문항 15점→과목별 10문항 10점)하고, 인문계열의 국어Ⅱ와 자연계열의 수학Ⅱ의 문항 수 및 배점을 조정(국어Ⅱ 15문항 15점→20문항 20점, 수학Ⅱ 10문항 15점→10문항 20점)함. 이에 지필 시험은 인문계열 295문항 320점, 자연계열 285문항 320점 체제를 유지함(학력고사 총점은 체력장 20점을 합산한 340점 만점).
 - 인문계열: 사회(4과목) 20문항 20점 감소, 과학 15문항 15점 및 국어Ⅱ 5문항 5점 증가
 - 자연계열: 사회(1과목) 5문항 5점 감소, 수학Ⅱ 5문항 5점 증가
 - 1986학년도: 분리 신설된 제2외국어 20문항 20점 증가에 따라 수학Ⅰ 과 영어 과목의 문항 수와 배점을 축소 조정(수학Ⅰ 25문항 50점→20문항 40점, 영어 50문항 50점→40문항 40점)함. 이에 지필 시험의 총 문항 수는 전년도 대비 5문항 증가한 인문계열 300문항, 자연계열 290문항이며, 배점은 320점 만점 체제를 유지함(학력고사 총점은 체력장 20점을 합산한 340점 만점).
 - 1987학년도: 시험 과목 수 축소 조정(총 9개 과목: 필수 5개, 선택 4개)과 예·체능계열 신설에 따라 새롭게 개편된 지필 시험 체제는 인문계열과 예·체능계열 292문항, 자연계열 282문항, 320점 만점 체제로 구성됨(학력고사 총점은 체력장 20점을 합산한 340점 만점).
 - 1988~1993학년도: 소위 '주관식'이란 용어로 서답형의 문항이 새롭게 도입되면서 문항 수는 인문계열 249문항(객관식 208, 주관식 41), 자연계열 241문항(객관식 201, 주관식 40), 예·체능계열 233문항(객관식 194, 주관식 39), 배점은 전 계열 320점으로 지필 시험의 체제가 구성됨. 역시 학력고사 총점은 체력장 20점을 합산한 340점 만점 체제를 유지함.
 - 문항 배점은 1982~1983학년도의 경우 이전 대학입학학력고사와 같이 수학 2점, 실업·가정 1~2점, 기타 과목 1점 체제를 유지하였고, 1984학년도의 경우 새로 도입된 국어Ⅱ, 수학Ⅱ 1~2점, 기존 수학Ⅰ 2점, 기타 과목 1점 체제로 구성되었음. 1985~1986학년도의 경우에는 국어Ⅱ 1점, 수학Ⅱ 2점, 기타 과목 1점 체제로, 1987학년도에는 수학 과목 1~3점, 기타

과목 1점 체제로 변경되었으며, 주관식 문항이 도입된 1988학년도 시험부터는 과목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전체적으로 최소 1점, 최대 4점까지의 차등배점으로 구성되어 1993학년도까지 지속되었음.

○ 시험 일시 : <표 1-4-1> 참조

(경향신문, 1981. 9. 9; 매일경제, 1983.11.21; 매일경제, 1984. 6.18; 매일경제, 1985.11.19; 경향신문, 1988.12.14)

<표 1-4-1> 1982~1993학년도 대학입학학력고사 시험일시

학년도	시험일시
1982	1981.11.24(목)
1983	1982.12. 2(목)
1984	1983.11.22(화)
1985	1984.11.23(금)
1986	1985.11.20(수)
1987	1986.11.20(목)
1988	1987.11.22(화)
1989	1988.12.16(금)
1990	1989.12.15(금)
1991	1990.12.18(화)
1992	1991.12.17(화)
1993	1992.12.22(화)

○ 시험 시간

(동아일보, 1982.12. 1; 매일경제, 1983.11.21; 매일경제, 1984.11.22; 경향신문, 1985. 5.17; 경향신문, 1990.12.17; 동아일보, 1991.12.17; 한겨레, 1992.12.22)

<1982~1983학년도>

- 교시 간 쉬는 시간 30분씩, 점심시간 60분
 - 1교시 9:00~10:20 국어, 실업·가정
 - 2교시 11:00~12:50 국사, 국민윤리, 정치·경제, 수학
 - 3교시 14:00~14:50 외국어

4교시 15:30~16:50 사회, 과학

<1984학년도>

- 교시 간 쉬는 시간 30분씩, 점심시간 60분
 - 1교시 8:50~10:10 국어 I, 한문 I, 기술·가정, 실업
 - 2교시 10:50~12:30 국사, 국민윤리, 정치, 경제, 수학 I
 - 3교시 13:40~14:50 외국어, 국어 II, 수학 II
 - 4교시 15:30~16:50 사회, 과학

<1985학년도>

- 교시 간 쉬는 시간 30분씩, 점심시간 60분
 - 1교시 8:50~10:10 국어 I, 한문 I, 기술·가정, 실업
 - 2교시 10:50~12:30 국사, 국민윤리, 정치, 경제, 수학 I
 - 3교시 13:40~15:00 외국어, 국어 II, 수학 II
 - 4교시 15:40~16:50 사회, 과학

<1986학년도>

- 교시 간 쉬는 시간 30분씩, 점심시간 60분
 - 1교시 8:50~10:10 국어 I, 학문 I, 기술·가정, 실업
 - 2교시 10:50~12:20 국사, 국민윤리, 정치·경제, 수학 I
 - 3교시 13:30~15:00 외국어, 국어 II, 수학 II
 - 4교시 15:40~16:50 사회, 과학

<1987~1988학년도>

- 교시 간 쉬는 시간 30분씩, 점심시간 60분
 - 1교시 8:50~10:10 국어 I (한문 I 포함), 국사
 - 2교시 10:45~12:20 수학, 사회, 지리, 세계사
 - * 예체능 ~12:00
 - 3교시 13:20~14:40 영어, 제2외국어/실업
 - 4교시 15:15~16:50 국어 II, 국민윤리, 과학

<1989~1993학년도>

- 교시 간 쉬는 시간 30분씩, 점심시간 60분
 - * 예체능 80분

1교시 8:40~10:10 국어 I (한문 I 포함), 국사

3교시 13:30~15:00 영어, 제2외국어/실업

2교시 10:40~12:30 수학, 사회, 지리, 세계사

4교시 15:30~17:10 국어 II, 국민윤리, 과학

* 예체능 ~12:10

〈표 1-4-2〉 1982~1983학년도 대학입학학력고사의 시험 체제

교시	시간	시험 과목 명	문항 수	문항 배점(점)	과목 배점(점)	시험 시간(분)	비고
1교시	9:00~10:20	국어 (1983학년도부터 한문 과목 포함)	50	1	50	50	계열 공통 80
		실업·가정 : 기술(남자 필수), 가정(여자 필수), 공업, 농업, 상업, 수산업, 가사(여자 한함) 중 택 1	30	1~2 (10문항)	40	30	
2교시	11:00~12:50	국사, 국민윤리, 정치·경제	55	1	55	55	계열 공통 110 10분 증가
		수학	25	2	50	55	
3교시	14:00~14:50	외국어	50	1	50	50	계열 공통
4교시	15:30~16:50	사회(사회문화, 세계사, 국토지리, 인문지리)	인문60 자연15	1	인문60 자연15	80	인문 필수 자연 택 1
		과학(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	인문15 자연60	1	인문15 자연60		
소계			계열별 285	-	계열별 320	320	
체력장(체력검사)			-	-	20	-	
계			-	-	340	-	

〈표 1-4-3〉 1984학년도 대학입학학력고사의 시험 체제

교시	시간	시험 과목 명	문항 수	문항 배점(점)	과목 배점(점)	시험 시간(분)	비고
1교시	8:50~10:10	국어 I, 한문 I	50	1	50	50	계열 공통 • 계열 공통 • 배점 조정 (40점~30점)
		기술·가정	15	1	15	15	
		실업 (농업, 공업, 상업, 수산업, 가사 중 택 1)	15	1	15	15	
2교시	10:50~12:30	국민윤리	15	1	15	15	100 • 계열 공통 • 국사 배점 조정(-5점) • 과목 편성에 따라 10분 감소
		국사	20	1	20	20	
		정치·경제	15	1	15	15	
		수학 I	25	2	50	50	
3교시	13:40~14:50	외국어(영어, 독어, 불어, 중국어, 일어, 에스파냐어 중 택 1)	50	1	50	50	70 계열 공통 • 신설 • 계열 선택
		국어 II (인문계열) 수학 II (자연계열)	국어15 수학10	국어1 수학1~2	15	20	
4교시	15:30~16:50	사회(사회문화, 세계사, 국토지리, 인문지리)	인문60 자연15	1	인문60 자연15	80	인문 필수 자연 택 1 인문 택 1 자연 필수
		과학(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	인문15 자연60	1	인문15 자연60		
소계			인문295 자연290	-	계열별 320	330	
체력장(체력검사)			-	-	20	-	
계			-	-	340	-	

〈표 1-4-4〉 1985학년도 대학입학학력고사의 시험 체제

교시	시간	시험 과목 명	문항 수	문항 배점(점)	과목 배점(점)	시험 시간(분)	비고
1교시	8:50~10:10	국어 I, 한문 I	50	1	50	50	계열 공통 계열 공통 계열 공통
		기술·가정	15	1	15	15	
		실업 (농업, 공업, 상업, 수산업, 가사 중 택 1)	15	1	15	15	
2교시	10:50~12:30	국민윤리	15	1	15	15	100 • 계열 공통 • 과목편성에 따라 10분 감소
		국사	20	1	20	20	
		정치·경제	15	1	15	15	
		수학 I	25	2	50	50	
3교시	13:40~15:00	외국어(영어, 독어, 불어, 중국어, 일어, 에스파니아어 중 택 1)	50	1	50	50	80 계열 공통 • 계열 선택 • 5점 증대
		국어 II (인문계열) 수학 II (자연계열)	국어20 수학10	국어1 수학2	20	30	
4교시	15:40~16:50	사회(사회문화, 세계사, 국토지리, 인문지리)	인문40 자연10	1	인문40 자연10	70	과목별 문항 수 및 배점 축소 (15→10) 인문 택 2 (1과목 증가)
		과학(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	인문30 자연60	1	인문30 자연60		
소계			인문295 자연285	-	계열별 320	330	
체력장(체력검사)			-	-	20	-	
계			-	-	340	-	

〈표 1-4-5〉 1986학년도 대학입학학력고사의 시험 체제

교시	시간	시험 과목 명	문항 수	문항 배점(점)	과목 배점(점)	시험 시간(분)	비고
1교시	8:50~10:10	국어 I, 한문 I	50	1	50	50	80 계열 공통
		기술·가정	15	1	15	15	
		실업 (농업, 공업, 상업, 수산업, 가사 중 택 1)	15	1	15	15	
2교시	10:50~12:20	국민윤리	15	1	15	15	90 • 계열 공통 • 수학 I 문항 수 및 배점 축소
		국사	20	1	20	20	
		정치·경제	15	1	15	15	
		수학 I	20	2	40	40	
3교시	13:30~15:00	영어	40	1	40	40	90 • 제2외국어 분리, 신설 • 영어 문항 수와 배점 축소 조정
		제2외국어(독어, 불어, 중국어, 일어, 에스파냐어 중 택 1)	20	1	20	20	
		국어 II (인문계열) 수학 II (자연계열)	국어20 수학10	국어1 수학2	20	30	
4교시	15:40~16:50	사회(사회문화, 세계사, 국토지리, 인문지리)	인문40 자연10	1	인문40 자연10	70	자연 택 1
		과학(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	인문30 자연60	1	인문30 자연60		인문 택 2 (1과목 증가)
소계			인문300 자연290	-	320	330	
체력장(체력검사)			-	-	20	-	
계			-	-	340	-	

〈표 1-4-6〉 1987학년도 대학입학학력고사의 시험 체제

시험 과목 명				문항 수			문항 배점 (점)	과목 배점(점)			시험 시간 (분)	비고
교시	인문	자연	예·체능	인문	자연	예·체능	-	인문	자연	예·체능		
1교시 8:50~ 10:10	국어 I, 한문 I			55	55	55	1	55	55	55	80	예·체능 계열 신설
	국사			25	25	25	1	25	25	25		
2교시 10:45~ 12:20*	수학 I · II-1	수학 I · II-2	수학 I · II-1	27	37	27	1~3	55	75	55	95 (예·체능 75)	2교시: 예·체능 20분 조기 종료
	사회, 지리, 세계사 중 택 2 택 1 택 1			40	20	20	1	40	20	20		
	영어			60	60	60	1	60	60	60		
3교시 13:20~ 14:40	제2외국어/실업 (독어, 불어, 중국어, 일어, 에스파냐어, 농업, 공업, 상업, 수산업, 가사 중 택 1)			20	20	20	1	20	20	20	80	제2외국어와 실업 과목을 묶어 선택군 설정
4교시 15:15~ 16:50	국민윤리			25	25	25	1	25	25	25	95	계열별 선택과목 조정
	국어 II	-	-	20	-	-	1	20	-	-		
	-	-	음악, 미술, 체육 중 택 1	-	-	40	1	-	-	40		
	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 중 택 1 택 2 택 1			20	40	20	1	20	40	20		
소계				292	282	292	-	320	320	320	350 (예·체능 330)	
체력장(체력검사)								20			-	
계								340			-	

* 예·체능계열은 인문/자연계열보다 20분 앞당긴 12:00에 종료

〈표 1-4-7〉 1988~1993학년도 대학입학학력고사의 시험 체제

시험 과목 명				문항 수			문항 배점 (점)	과목 배점(점)			시험 시간 (분)	비고
교시*	인문	자연	예·체능	인문	자연	예·체능	-	인문	자연	예·체능		
1교시 08:50~ 10:10	국어 I, 한문 I			46 (객39, 주7)			1~3	55 (객39, 주16)			80	
	국사			22(객19, 주3)			1~2	25(객19, 주6)				
2교시 10:45~ 12:20	수학 I · II-1	수학 I · II-2	수학 I · II-1	24 (객19, 주5)	33 (객26, 주7)	24 (객19, 주5)	2~4	55 (객38, 주17)	75 (객52, 주23)	55 (객38, 주17)	95 (예·체능 75)	2교시 : 예·체능 20분 조기 종료
	사회, 지리, 세계사 중 택 2 택 1 택 1			과목별17(객14, 주3)			1~2	과목별20(객14, 주6)				
				34	17	17		40	20	20		
3교시 13:20~ 14:40	영어			50(객42, 주8)			1~4	60(객42, 주18)			80	제2외국어와 실업 과목을 묶어 선택군 설정
	제2외국어/실업 (독어, 불어, 중국어, 일어, 에스파냐어, 농업, 공업, 상업, 수산업, 가사 중 택 1)			17 (객14, 주3)			1~2	20 (객14, 주6)				
4교시 15:15~ 16:50	국민윤리			22(객19, 주3)			1~2	25(객19, 주6)			95	계열별 선택과목 조정
	국어 II	-	-	17 (객14, 주3)	-	-	1~2	20 (객14, 주6)	-	-		
	-	-	음악, 미술, 체육 중 택 1	-	-	18 (객14, 주4)	2~3	-	-	40 (객28, 주12)		
	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 중 택 1 택 2 택 1			과목별17(객14, 주3)			1~2	과목별20(객14, 주6)				
			17	34	17	20		40	20			
소계				249 객208 주41	241 객201 주40	233 객194 주39	-	320	320	320	350 (예·체능 330)	
체력장(체력검사)								20			-	
계								340			-	

* 1989~1993학년도엔 1교시 08:40~10:10으로 10분(80분→90분), 2교시 10:40~12:30으로 15분(95분→110분; 예·체능은 12:10분 종료, 75분→90분), 3교시 13:30~15:00으로 10분(80분→90분), 4교시 15:30~17:10으로 5분(95분→100분), 총 40분(350분→390분, 예체능은 330분→370분)을 증대 조정하였음.

제5절

대학수학능력시험(1994학년도~)

대학입학학력고사는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교과목, 교과서 중심으로 문제가 출제되면서 고차적인 능력을 측정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비판을 계속 받아 왔다. 또한 논술이나 면접을 통하여 대학별 전형 요소를 강화하고자 하였으나 여전히 학력고사와 내신 중심의 기계적 점수 합산 방식이 주된 전형 방식으로 자리를 잡으면서 대학의 선발 자율권이 약화되었다는 지적도 받아 왔다.

이에 1986년 당시 대통령 직속 심의기구인 교육 개혁심의회는 ‘교육개혁종합구상’이란 보고서를 통해 기존 ‘대학입학학력고사’를 대체하는 시험으로 범교과적 학업 적성 평가를 위한 ‘대학입학적성시험’을 제안하면서 수능이 태동하였다(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05). 그리고 1987년 12월 대학입학시험제도 개선에 대한 대통령 선거 공약 발표, 1989년 12월 대학교육적성시험 실시 등을 포함한 대학입학시험제도 개선안에 대한 중앙교육심의회 심의·결정, 1990년부터 1992년까지의 7차례 대학교육적성시험 실험평가 실시(1990년 1회, 1991년 3회, 1992년 3회), 1991년 대학입학시험제도 개선안에 대한 교육부의 최종 확정·발표(대학교육적성시험→대학수학

능력시험으로 명칭 변경), 1993년 2월 교육부의 새 대학입학시험제도 기본 계획 확정·발표 등의 경과를 거쳐 1993년 8월 20일에 수능이 처음 실시되었다(양길석, 2010).

수능 도입 초기(1994~1996학년도)에는 대학의 선발권을 중시한다는 차원에서 대학별 고사를 함께 허용하였으나, 1997학년도부터는 국·공립대학, 그리고 2002학년도 이후에는 모든 대학의 국어, 수학, 영어 위주의 대학별 고사 형태를 규제하고 그 이외의 다양한 방법의 대학별 고사를 장려하였다. 이에 따라 수능은 학교생활기록부와 함께 주요한 대입전형 요소로 그 위상을 이어 오고 있다.

수능은 검사 및 측정 이론의 발달 등에 힘입은 자체 개선, 시행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실적 문제 해결 및 요구 충족을 위한 변천, 그리고 정부 시책에 따른 변천 등 다양한 동인에 의해 현재까지 크고 작은 많은 변화가 있었다. 수능의 도입 배경, 시험 체제에 대한 사항은 후속 장에서 상세히 살펴볼 것이다.

참고문헌

- 박도순 (2007). 교육평가-이해와 적용-, 서울: 교육과학사.
- 박도순, 장석우, 강무섭(1989). 대학입학시험제도 개선방안연구, 한국대학교육협의회.
- 양길석(2010). 대학수학능력시험의 변천 과정과 쟁점 분석, 교육평가연구, 23(4), 765-791, 한국교육평가학회.
- 임찬빈, 양길석, 성병창(1998). 대학수학능력시험 영향 연구,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조용기(2013). 대입 국가고사 국어시험의 변천 연구, 박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대학원.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05). 대학수학능력시험 10년사,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참고한 언론 기사]

- | | |
|---------------------------|---------------------------------------|
| 동아일보 1953. 10. 22 기사(2면). | 대학입시요강결정. |
| 동아일보 1961. 7. 15 기사(3면). | 중·고등·대학교 입학자전형요강안. |
| 경향신문 1962. 1. 16 기사(3면). | 대학입시 자격고사 일정표. |
| 동아일보 1962. 1. 18 기사(3면). | 대학입시 배점 내용을 공표. |
| 경향신문 1962. 12. 13 기사(7면). | 대학입학자격국가고사 실시. |
| 경향신문 1968. 10. 29 기사(3면). | 대입예비고사 과목 등 확정. |
| 매일경제 1968. 11. 12 기사(1면). | 대학은 예비고사제 교육법 개정안 통과. |
| 경향신문 1968. 11. 19 기사(3면). | 객관식 4지선다형으로. |
| 경향신문 1969. 11. 12 기사(7면). | 대입예비고사 시간표를 발표. |
| 경향신문 1970. 11. 20 기사(7면). | 대학입학예비고사 전국 일제히. |
| 동아일보 1971. 11. 18 기사(7면). | 내일 대입예시 오늘 예비소집. |
| 경향신문 1972. 9. 11 기사(7면). | 3백30점 만점 대입예비고사 11월20일에. |
| 동아일보 1973. 11. 15 기사(7면). | 내일 대입예시. |
| 경향신문 1974. 11. 13 기사(7면). | 전국 일제히 179개 고사장서 영하의 추위 속
대입예비고사. |
| 경향신문 1975. 8. 13 기사(7면). | 대입예시 일어 추가 한자도 출제. |
| 경향신문 1975. 11. 12 기사(7면). | 대입예비고사 전국서 일제히. |
| 경향신문 1976. 8. 28 기사(1면). | 대입예시 11월12일. |
| 동아일보 1977. 11. 9 기사(7면). | 내일 대입예비고사. |
| 경향신문 1978. 11. 4 기사(6면). | '79 입시풍향, 예비고사 앞으로 3일...차분히
만반 대비. |
| 경향신문 1978. 11. 7 기사(7면). | 암기보다 이해·응용 중점. |
| 경향신문 1979. 5. 19 기사(7면). | 대입예시 배점 조정. |

- 동아일보 1979. 6. 28 기사(7면). 문교부 대법원 판결 따라 예시공개 검토.
 동아일보 1979. 7. 10 기사(7면). 문교부 대입예시 11월6일 실시.
 경향신문 1979. 11. 6 기사(7면). 대입예시 전국 3백91개 고사장서
 50만1천5백15명 응시.
 경향신문 1980. 7. 25 기사(4면). 새 시험채점기 도입 KIST, 예비고사서
 활용계획.
 동아일보 1980. 8. 8. 기사(1면). 대입예시 11월20일로 연기.
 경향신문 1980. 12. 25 기사(7면). 대입고사 제2외국어 추가.
 경향신문 1981. 9. 9 기사(11면). 대입학력고사 11월24일.
 동아일보 1981. 11. 26 기사(11면). 대입학력고사 내년까지 현행대로,
 84~86학년도 과목 추가 배점 조정.
 동아일보 1982. 12. 1 기사(11면). 학력고사 시간표.
 경향신문 1983. 6. 9 기사(3면). 대입학력고사 과목별 배점 · 시간.
 매일경제 1983. 11. 21 기사(11면). 내일 대입 학력고사.
 매일경제 1983. 11. 21 기사(11면). 고사시간표.
 매일경제 1984. 6. 18 기사(11면). 85학년도 대입학력고사 11월23일 실시.
 매일경제 1984. 11. 22 기사(11면). 고사시간표.
 경향신문 1985. 5. 17 기사(7면). 문교부, 86학년도 대입학력고사 11월20일.
 매일경제 1985. 10. 31 기사(11면). 87학년도 이후 대학입학 학력고사 교과목.
 매일경제 1985. 11. 19 기사(11면). 답안 고치면 0점 처리-내일 대입학력고사...
 유의해야 할 사항.
 경향신문 1986. 11. 25 기사(3면). 「눈치 · 배짱」 없어진다.
 동아일보 1986. 11. 25 기사(1면). 대입 88년부터 대학별시험.
 경향신문 1987. 6. 16 기사(1면). 대입 주관식 30% 출제.
 경향신문 1988. 12. 14 기사(14면). 긴장 풀고 수면시간 늘리도록.
 경향신문 1990. 12. 17 기사(17면). 학력고사 시간표.
 동아일보 1991. 6. 26 기사(22면). 선지원후시험-주관식 30% 유지.
 동아일보 1991. 12. 17 기사(23면). 국영수 작년보다 쉬웠다.
 한겨레 1992. 12. 22 기사(14면). 오늘 전기대학 입시.



KICE

Korea Institute for Curriculum and Evaluation

A 20-Year History of College Scholastic Ability Test

제2장 수능 체제 변천사

제1절 태동과 준비(태동기): 1986 - 1992년

제2절 형성과 정착(형성기): 1994 - 1998학년도

제3절 변화와 발전(성장기): 1999 - 2004학년도

제4절 안정과 지속(안정기): 2005 - 2013학년도

제1절

태동과 준비(태동기): 1986 ~ 1992년

김진규(중앙교육연수원)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의 전체 역사 가운데 태동기는 수능이 처음 제안되어 첫 시행을 준비한 초창기를 말한다. 수능의 태동기는 교육개혁심의회에서 대학교육적성시험을 제안한 1986년부터 중앙교육평가원(국립교육평가원 전신)에서 수능 실험평가를 마무리한 1992년까지의 기간이다. 이 시기에 대해서는 수능이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전에 교육개혁심의회에서 제안한 대학교육적성시험에 대한 개념적 혼란을 해소하고, 수능의 개념과 성격을 규정하며, 수능 시행에 대비하여 실험평가를 시행한 것을 중심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가. 수능의 도입 배경과 과정

(1) 교육개혁심의회 제안

교육개혁심의회는 1985년 3월 7일에 대통령령 제11,657호에 의거하여 교육 정책 및 교육 제도의 종합적인 개선책의 수립 등에 관한 대통령 자문기구로 설치되어 1987년 12월 31일까지 존속되었다. 이 기구의 산하에는 교육제도분과, 초중등교육분과, 고등교육분과, 그리고 교육발전분과 등 4개 분과와

운영위원회 및 기획조정위원회를 두었다. 심의회에서 여러 가지 활동을 수행하였으나 이 글에서는 수능과 직결되는 대학입시 분야에 초점을 맞추어 논의하고자 한다.

1985년 6월 28일, 대학입학시험 제도에 관한 3차 공청회를 개최하면서 당시 대학입학시험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학입시제도의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시작하였다. 교육개혁심의회 고등교육분과의 전문위원들을 중심으로 대입제도 개선방안이 본격적으로 논의되는 과정에서 대학입학학력고사를 대학교육적성시험으로 발전시킨다는 구상이 제안되었다. 그 후 문교부 관계관 협의회와 고교 및 대학의 입시 실무자 협의회를 개최하였으며, 시도교육위원회 의견을 청취하였고, 7차례의 교육개혁심의회 전체 회의의 심의를 거쳐 1986년 7월 15일 제17차 전체 회의에서 대학입시제도의 개선방안이 의결되었다(교육개혁심의회, 1986b). 따라서 대학교육적성시험이 공식화된 것은 바로 1986년 7월 15일이며 이 시험의 성격에 대해서는 1986년 10월에 발간된 김영채 외(1986)의 ‘대학입시제도의 개선’이라는 보고서에 기술되어 있다.

또한 1986년 6월에 보고한 교육 개혁의 기본 방향에서도 대학교육적성시험이라는 용어를 적시

하지 않았지만, 학업적성을 평가하는 기본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즉 교육 개혁의 9대 기본 원칙을 제시하였는데, 다섯 번째 수월성의 추구라는 기본 원칙을 설명하면서 교육평가 방법을 개선하고 입시제도를 쇠신하여 학생들의 소질과 능력이 충분히 발굴·신장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언급하고 있다. 특히 각급 학교의 입시제도 역시 학교교육을 정상화하고 전인적인 발달을 조장할 수 있는 방향으로 쇠신되지 않으면 안 되며 아울러 수학(修學)능력 측정이라는 입시제도 고유의 기능을 소홀히 할 수 없으며 현재의 지식 정도보다는 잠재적인 학업 적성의 평가에 역점을 두는 방향으로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제시하였다(교육개혁심의회, 1986a).

이어서 1987년 5월에 교육개혁심의회에서 발간된 교육개혁안에서는 대학입시제도의 개선을 위한 기본 방향으로 크게 ① 개별 대학 재량과 책임 증대, ② 대학교육에 필요한 자질의 종합적 평가, ③ 중등학교 교육의 정상적 운영, ④ 교육의 원칙에 충실한 개선 등 4가지를 열거하고 있다.

대학입학 전형제도의 개선 대책으로는 대학입학 전형제도의 운영과 전국 단위 평가로 대별하여 제시하였다. 먼저 대학입학 전형제도의 운영을 위한 개선 대책은 다음과 같다(교육개혁심의회, 1987a).

- 개별 대학의 입학전형은 대학교육적성시험 성적, 고등학교 내신 성적, 대학별 평가 성적 등을 다양하게 참고하여 대학의 재량에 따라 사정한다.
- 발표 대회나 경시 대회 등을 통하여 나타난 영재나 특기, 또는 대학교육 발전을 위한 기여도 등도 입학사정의 기준이 될 수 있다.
- 전기, 후기 및 추가 모집 등 전형기별로 수험자가 지원할 수 있는 대학의 수를 제한하지 아니한다.

또한 전국 단위 평가를 위한 개선 대책은 다음과 같다(교육개혁심의회, 1987a).

- 대학입학학력고사를 점차적으로 범교과적인 대학교육적성시험으로 발전시킨다. 대학입학학력고사 또는 대학교육적성시험은 현실적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대학에서의 학업성취 가능성을 준거로 하여 대학에 지원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자격을 측정하는 기능도가질 수 있다.
- 실시 초기의 대학교육적성시험의 고사 과목에는 기본 과목과 전공계열별 필수·선택과목을 둔다.
- 초등학교나 중학교 등의 각급 학교에서 1회 이상의 전국 단위 평가를 실시하고 이러한 평가 결과들과 기타의 누가 기록들을 진로 지도에 반영함은 물론 대학입학 전형제도에서도 반영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 평가 전담기구는 공공법인체로 운영하며 전문적 기능의 발전을 통하여 정부 주관의 평가 기능을 흡수함은 물론 각급 학교의 평가활동을 지원한다.
- 체육특기자 선발의 기준을 점차 강화하여 체육 교육의 정상적 운영을 도모한다.

교육개혁심의회에서는 1987년 12월에 2차 최종 보고서인 교육개혁종합구상을 발간하였다. 이 보고서에서는 대학입학시험제도의 단계적 자율화를 크게 강조하였다. 대학입시에서 대학의 자율성 문제를 부각한 배경에는 그 당시 대학입학학력고사와 고교 내신에 의하여 대학 신입생을 선발하는 것이 대학의 자율성을 크게 제한한다는 의견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1988학년도부터 시행되는 대학입시제도를 점진적으로 보완, 발전시켜, 1990년대 초반부터는 개별 대학이 창의적이고 독자적인 입학전형제도를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새 대학입시제도의 개선 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교육개혁위원회, 1987b).

- 대학입학의 전형자료는 과도적으로 현행의 학력고사, 고교내신, 체력장을 주된 자료로 활용하되, 면접의 점수화 결과도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자율화 단계에서는 개별 대학이 학생 선발의 준거로 고등학교, 대학, 제3의 기구 또는 정부기관 등이 실시한 전문적인 평가 결과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전형자료를 다양화하며,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평가 영역에 대해서는 영역별 고사, 실기고사, 구술고사, 면접법 등의 독자적인 보완책을 강구할 수 있게 한다.
- 1990년대 초반까지 객관식 중심의 학력고사는 대학교육적성시험으로 발전시키며, 주관식 중심의 학력고사는 대학별 평가로 발전시킨다.
- 자율화 단계부터는 발표 및 경시 대회 등을 통해 나타난 영재와 특기자의 성적, 특별 활동 및 과외 활동의 성적, 학교의 추천서, 그리고 당해 대학 발전에의 기여도 등을 전형자료로 활용할 수 있게 한다.
- 모집 방법은 수년 후부터 전·후기와 분할 모집을 대학의 자율에 맡기며, 자율화 단계는 모집 시기까지도 일정 기간 내에서 대학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한다.
- 지원 방법은 과도적으로 현행의 선지원 후 시험제를 유지하되 자율화 단계에서는 대학에 일임하며, 지원 대학 수도 과도적으로 2~3개 대학까지 지원할 수 있게 하고, 자율화 단계에서는 그 수를 제한하지 않는다.

위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교육개혁심의회에서는 수능의 개념을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았지만 단편적 지식과 암기 위주의 대학입학학력고사를 고등학교 교육을 파행적으로 왜곡하는 역작용의 주범으로 간주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대안으로 대학교육적성시험을 제안하였다고 판단된다. 대학교육적성시험이란 교과목을 뛰어넘는 범교과적인 고차적

사고력을 측정하는 시험이어야 하고 교육개혁심의회 의 고등교육분과 전문위원으로 참여한 김영재 교수가 미국의 학업적성검사를 염두에 두고 오래전부터 대학교육적성검사란 이름으로 제안해 온 것이기도 했다(국정브리핑 특별기획팀, 2007).

(2) 중앙정부의 입시 정책 수립

1945년 해방 이후 오늘날까지 대학입학시험제도는 교육개혁을 단행하거나 정권이 바뀔 때마다 시행착오를 거듭한다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여러 차례 변경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정부가 대학입학시험 제도에 대한 최종 결정 권한을 지니고 있다. 그래서 매년 정부가 대학입시제도의 개선안을 확정하고 발표해 왔다. 교육개혁심의회에서 1986년에 대학입학시험제도의 개선방안이 심의되고 이와 더불어 1987년에 제13대 대통령 선거 공약의 하나로 대학입시제도 개선방안이 제안되자, 문교부에서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대학입시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를 의뢰하였다.

그 후 1989년 12월 8일에 중앙교육심의회 전체 회의에서 대학입학시험제도 개선안을 심의 결정하였다. 1989년 12월 27일에 교육정책자문회의에서 중앙교육심의회 개선안에 대한 검토 의견이 제시되었다. 1990년 2월 7일에 문교부는 검토 의견을 반영한 대학입시제도 개선 조정안의 재심의를 중앙교육심의회에 의뢰하였다.

교육개혁심의회에서 제안된 대학교육적성시험에 대한 정부 차원의 검토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정원식 문교부 장관이 재임하던 시절이었다. 1989년 스승의 날 무렵 서울 필운동에 있는 한정식 집에서 역대 문교부 장관 모임이 열렸다. 이날 모임에서 정 장관이 전임 장관들에게 학력고사를 없애고 대학입학적성시험을 만들면 어떨지에 대해 물었다.

정 장관은 1988년 12월 5일 취임한 이후 1990년 12월 26일 퇴임할 때까지 그 당시 중앙교육심의회 전문위원으로 활동하던 박도순 교수와 대학교육 적성시험 도입 문제를 심층적이면서도 열정적으로 논의하였다(국정브리핑 특별기획팀, 2007).

이미 수능 이전의 국가고사이던 대학입학학력 고사는 수명을 다하고 있었다. 모든 교과목을 대상으로 단편적 지식을 측정함으로써 암기 위주의 획일화된 입시 교육을 강화시킨 주범으로 지목되었기 때문이다. 수능은 교과목을 뛰어넘는 고차적 사고력을 측정하는 시험이라는 측면에서 학력고사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었다(국정브리핑 특별기획팀, 2007). 또한 문교부는 대학교육협의회에 대학입시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를 의뢰하여 1989년 5월에 1차 연구를 마무리하였다. 동년 8월 30일에 대학입시제도연구위원회에서는 1993년도부터 실시할 대학입학시험 제도의 골격으로 대학교육 적성시험, 고등학교 내신성적의 두 전형 자료를 필수로 하고, 대학의 자율적 결정에 따라 대학별 고사를 실시하는 3원 구조로 이루어진 대학입시제도를 제안한 바 있다(대학입학시험제도연구위원회, 1989).

국가고사의 주관 부서인 문교부는 1990년 12월 27일 법률 제4,268호에 의거하여 정부조직법이 개정됨에 따라 교육부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부서 명칭의 변경과 더불어 교육부 수장이 정원식 장관에서 윤행섭 장관으로 교체되었다. 교육부는 1991년 4월 2일에 대학입학시험제도 개선안을 최종적으로 확정하여 발표하였다. 이 때 논란이 되어왔던 대학 교육적성시험의 명칭이 대학수학능력시험으로 변경되었다. 특히 교육부는 1994학년도 대학입시부터 국가가 관리하는 수능을 연 2회 시행하고 각 대학별 본고사는 부활한다는 내용의 새로운 대학입학시험 제도 개선안을 확정하였다.

새 대학입시제도를 도입하는 과정에서부터 교육부가 대학입학시험제도를 최종적으로 확정하여

발표하기까지 주요한 대학입시 관련 정책 일지를 간략히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 1985. 6. 교육개혁심의회에서 대학입학시험 제도에 관한 공청회 개최
- 1987. 5. 교육개혁심의회에서 대학입시제도의 개선방안 발표(교육개혁안)
- 1987. 7. 교육개혁심의회에서 대학입학시험 제도 개선방안 심의·결정
- 1987. 12. 제13대 대통령 선거공약으로 대학 입시제도 개선방안 제안. 문교부,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대학입시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 의뢰
- 1989. 5. 대교협 1차년도 연구 마무리, 8. 30 1차 공청회 개최
- 1989. 12. 8 중앙교육심의회 전체 회의에서 대학입학시험제도 개선안 심의·결정
- 1989. 12. 27 교육정책자문회의에서 중앙교육심의회 개선안에 대한 검토 의견 제시
- 1990. 2. 7 문교부, 검토 의견 반영한 대학입시제도 개선 조정안을 중앙교육심의회에 재심의 의뢰
- 1990. 12. 19 중앙교육평가원에서 대학교육적성 시험 문항 개발 모형 설정 후 1차 실험평가 실시, 이후 1992년 11월까지 총 7회 실험평가 실시
- 1990. 12. 27 문교부를 교육부로 명칭 변경
- 1991. 4. 2 교육부에서 대학입학시험제도 개선안 최종 확정 발표, 대학교육적성시험을 대학수학능력시험으로 명칭 변경 및 연 2회 시행 결정
- 1993. 2. 10 교육부에서 1994학년도부터 적용될 새 대학입학시험제도 기본 계획 확정 발표

(3) 중앙교육평가원의 연구 활동

우리나라 대학입시제도의 변천 과정을 보면, 1954년에 대학입학 국가연합고사, 1962~1963년 대학입학자격국가고사, 그리고 1969~1981학년도 대학입학예비고사를 시행하였으며 문교부가 주관하여 이들 국가고사를 출제·관리하였다. 당시 문교부 대학학과 일반행정직 공무원들이 외부 대학교수를 출제위원으로 위촉하여 국가고사의 출제와 관리 등에 관한 업무를 위임하여 운영해 왔으나 이러한 방식의 대학입시 관련 국가고사의 출제 관리와 고사 운영은 평가 관리의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을 받았다.

그래서 1981년 6월 26일에 대통령령 제10,387호로 중앙교육연구원의 기능을 개편하여 중앙교육연수원을 설립하고 대학입학학력고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평가관리부를 만들어 국가고사의 출제와 고사 운영에 대한 전문성을 제고하고자 노력하였다. 중앙교육연수원의 평가관리부장에 국립대학교 평가 전공 교수를 파견하여 근무하게 하였고, 출제 관리에 교육전문직을, 그리고 고사 운영에 일반행정직 공무원을 각각 임명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앙교육연수원은 평가 업무와 연수 업무라는 두 가지 이질적인 업무를 동시에 수행하는 어려움을 지니고 있었다.

이에 문교부에서는 중앙교육연수원의 평가관리부 수준의 기능과 역할로는 폭주하는 평가관리 업무를 감당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1985년 8월 12일에 대통령령 제11,773호에 의거하여 중앙교육평가원의 직제를 공포하게 되었다. 동 직제에 의하여 원장은 교수 또는 관리관으로 보하고, 3부 9실 3과에 88명의 정원을 두는 독립된 평가관리 전담기구가 창립된 것이다. 그 후 1990년 6월 20일 대통령령 제13,023호에 의거하여 독학에 의한 학사학위 취득 업무를 신설하여 이를 관장할 학위검정부를 설치하였고, 원장은 차관급 정무직으로 보하고 4부 11실 5과,

135명의 정원으로 확대하였다.

그런데 독학학위취득시험이 시행된 이후, 사설 학원 등에서 중앙교육평가원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함으로써 민원인들에게 큰 혼란과 오해의 소지를 주는 등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었다. 그래서 1992년 3월 28일 대통령령 제13,623호에 의거하여 중앙교육평가원의 명칭을 국립교육평가원으로 변경하게 되었다.

그 이후 1994년 12월 23일 대통령령 제14,441호에 의하여 교육부와 그 직속기관의 직제가 개정됨에 따라 국립교육평가원이 폐지되고 1996년 2월 29일 까지 한시적으로 존속토록 하였다. 그러나 국립교육평가원의 평가 업무를 전담할 평가 전담 기구가 설립되지 않아서 1997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이 연장되기도 하였다. 그 후 1998년 1월 1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하 평가원)이 설립되면서 수능 등 평가 관련 업무를 이관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중앙교육평가원이 개원한 1985년, 교육개혁심의회에서 대학입학학력고사를 대신할 대학교육 적성시험이 제안됨에 따라 중앙교육평가원의 평가 연구실에서 새로운 적성시험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자체 연구에 착수하기 시작하였다. 그 결과 1986년에 대학수학능력검사 개발 연구를 수행하였고 이 연구에서는 미국의 학업적성검사를 기본 모형으로 삼아 우리나라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대학 수학 능력을 측정하는 검사를 실험적으로 개발하였다(김영길, 이수환, 김진규, 1986). 이어서 1987년에 중앙교육평가원에서 실험적으로 개발한 대학수학능력검사의 표준화를 위한 기준 제작 연구를 수행하여 계열별 기준과 성별 기준을 제작하였다(황정규, 1987). 당시 중앙교육평가원에서는 대학교육적성시험에 대한 개념을 규정하기보다는 우리나라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대학수학능력을 측정하는데 초점을 맞추려고 시도하였다.

초기의 두 연구에서 사용했던 ‘대학수학능력’이라는 용어는 나중에 ‘대학교육적성시험’이라는 용어가 논란을 일으키자 교육부에서 이를 ‘대학수학능력시험’으로 바꾸는 과정에서 대안적 개념이 된 것으로 추정된다.

1988년에 들어와서 중앙교육평가원에서는 자체 연구진이 대학교육적성시험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는 대신 외부 평가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추진하도록 하였다. 황정규(1988)는 대학교육적성시험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를 수행하였고 이 연구에서 대학교육적성시험에 대한 개념을 규정하였고 측정 영역을 언어 영역, 수리 영역, 사회 영역, 과학 영역의 4가지로 제안했다. 이어서 황정규(1989)는 대학교육적성시험의 활용 방안을 제시하는 후속 연구를 추진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대학입학학력고사를 대신하여 대학교육적성시험이 전형기준의 하나로 활용될 것에 대비하여 정책적 활용 방안과 아울러 고등학교와 대학에서의 교육적 활용 방안을 제시하였다.

중앙교육평가원에서는 황정규(1988)의 대학교육적성시험의 모형을 기초로 하여 각 측정 영역별로 구체적인 측정 내용과 정신 능력의 상세화 및 문항 제작을 시험적으로 시도한 대학교육적성시험 문항 개발 연구를 수행하였다. 언어 영역의 경우 개념과 평가목표 및 측정 내용을 규정하고 100개의 예시 문항을 측정 목표별로 제시하였다(이종승, 김광해, 1989). 수리 영역의 경우 개념과 성격을 규정하고 평가목표와 내용 및 문항 형태와 문항 제작 기법을 제시한 다음 100개의 예시 문항을 평가목표별로 제시하였다(이종성, 강봉규, 1989). 사회 영역의 경우 개념을 규정하고 평가목표, 문항 형태 및 문항 개발 방법을 제시한 다음, 내용 영역별로 90개의 문항을 제시하였다(한면희, 1989). 과학 영역의 경우 개념을 규정하고 평가목표와 문항 개발 절차 등을 제시한 다음 105개의 문항을 제시하였다(권균, 1989).

또 황정규(1990)는 1994학년도에 실시될 대학교육적성시험의 개념을 정립하여 실시 방향을 제시

하기 위한 실험평가 연구의 일환으로 ‘대학교육적성시험의 개념 정립과 실시 방향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박도순(1990)이 제시한 대학교육적성시험의 개념을 따르기로 하고 이 시험의 성격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였다(구창현, 1995).

- 대학교육적성시험은 선천적 능력 혹은 적성을 측정하는 적성검사가 아니다.
- 학교교육을 통하여 학습된 능력을 측정하는 시험으로서 고교 교육과정의 수준과 내용에 따라 출제한다.
- 특정 교과별 시험이 아니고 통합교과적인 소재를 활용하여 출제하는 시험이다.
- 사고력 중심의 학력고사이다.

같은 해에 각 영역별로 대학교육적성시험 실험평가의 개념 정립과 시행 방안 연구가 추진되었다. 이종승, 김광해, 노명완(1990)은 언어 영역 시험의 개념, 평가목표, 평가의 체제, 출제 방향 등을 제시하고 평가목표별 문항을 예시하였다. 김형립, 박승재, 정세구(1990)는 수리·탐구의 개념을 규정하고 측정 방향과 수리 능력, 과학적 탐구력, 사회적 탐구력 평가 방안을 제시하고 출제 지침과 함께 표본 문항을 예시하였다. 장석우, 김덕기(1990)는 현행 외국어(영어) 평가의 현황을 분석하고 외국어(영어) 사용능력의 요소·기능과 외국어(영어) 능력 평가의 유형, 외국어(영어) 적성시험의 성격과 출제 유형을 제시하였다.

나. 수능의 개념과 성격

(1) 수능의 개념

현재 사용하고 있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은 처음에

대학입학학력고사를 대신할 전형 기준의 하나로서 대학교육적성시험이라고 부르다가 명칭이 변경된 것이다. 이는 1986년 7월 15일 교육개혁심의회 제17차 전체 회의에서 의결된 대학입시제도의 개선안에서 대학입학학력고사를 대신하여 대학교육적성시험으로 발전시킨다는 것에서 비롯되었다. 대학교육적성시험은 1986년부터 사용하기 시작하여 교육부가 새로운 대학입학시험제도의 개선안을 최종적으로 확정하면서, 적성시험에 대한 개념적 혼란을 없애기 위하여 대학교육적성시험을 ‘대학수학능력시험’으로 명칭을 변경한다고 발표한 1991년 4월 2일 까지 공식적으로 사용되어 왔다. 처음 제안될 당시에 대학교육적성시험이라는 용어를 사용해오다가 대학수학능력시험으로 명칭을 변경하였기 때문에, 수능의 개념을 역사적으로 보다 정확하게 규정하기 위해서 편의상 수능이라는 이름으로 확정되기 전에 실제로 사용했던 당시의 대학교육적성시험이라는 명칭을 그대로 사용하고자 한다. 또 1991년 4월 2일 이전에 발간된 보고서 또는 주장에서는 대학교육적성시험을 사용하였으므로 이를 수능과 동일한 개념으로 간주하여 이 절에서는 대학교육적성시험으로 기술하고자 한다.

교육개혁심의회에서 1986년에 처음으로 대학교육적성시험을 제안한 이후 적성시험에 대한 개념적 혼란과 새로운 제도의 도입에 대한 저항이 증폭되어 전문가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까지 다양하게 해석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여기에서는 대학교육적성시험의 개념을 정리하기 위해 교육개혁심의회(1986b), 황정규(1988), 이종승(1989), 박도순(1990)의 제안을 발표년도 순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가) 교육개혁심의회 제언

대체로 대학교육적성시험이 교육개혁심의회에서 처음 제안된 것으로 알고 있으나, 실제로 교육개혁

심의회 고등교육분과에서 책임연구자로 활동한 김영채(1986)의 주장이라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하겠다. 그는 평소에 고등학교 내신제와 동일한 학업성취도를 이중으로 측정하는 대학입학학력고사의 모순점을 지적하고 미국의 학업적성검사와 같은 시험을 대안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을 강조해 왔기 때문이다. 이러한 대학입학학력고사의 대안은 교육개혁심의회가 발족하면서 대학교육적성시험에 대한 구상으로 대두되었다. 대학교육적성시험에 대한 성격이 가장 잘 드러난 것은 1986년 10월에 발간된 김영채 외(1986)의 「대학입시제도의 개선」이라는 보고서에서 찾을 수 있다. 이 보고서에서는 대학교육적성시험에 대한 구체적인 개념을 명시하지 않았으나 시험의 성격을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있다.

“우리는 사람의 정신능력 즉 인지능력을 지능-적성-학력의 세 가지로 편리하게 범주화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정의상으로 보면 적성검사는 적당한 훈련이 주어졌을 때의 성취를 예측하고, 학력검사(또는 학업성취검사)는 특정 시간에서의 성취정도를 나타내는 것이며, 그리고 목적상으로 보면 전자는 미래의 성공가능성을 측정하고 후자는 과거의 학습된 능력을 측정하는 것이라고 구분해 볼 수는 있다. 그러나 특히 지필검사법에 제한하는 경우, 양자의 구분은 상당히 임의적이라고 지적할 수 있다. 이처럼 적성과 학력의 구분은 누구에게나 수용받을 수 있도록 정의 내리기란 어렵지만 검사의 과제가 학교의 형식 교육에 얼마나 관련되어 있느냐 그리고 측정하려는 능력이 얼마나 종합적이고 전체적이며 일반적인가에 따라서 양자를 구분해 보면 편리하다. 학력검사는 구체적이거나 공식적인 교수·학습의 결과인 개인의 지식이나 수행의 정도를 측정하는 것으로서 형식교육과 보다

밀접한 관계를 가지는 데 대하여 학업적성검사는 형식교육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학습이 누적되어 영향을 미치는 다소간 종합적이고, 일반적이며, 범교과목적인 능력을 측정한다고 이해해 볼 수 있다. 가장 총괄적이며 일반적인 수준의 능력을 지능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 대학적성시험은 대개 보아 앞서 기술한 바 있는 성격의 학업적성검사여야 하지만 구체적인 방향과 제작·실시의 접근법은 평가전담기구를 중심으로 추후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학교에서의 학업성공을 예측하기 위한 학업적성검사는 SAT(Scholastic Aptitude Test)처럼 학업적성의 언어적 측면과 수량적 측면을 측정토록 설계할 수도 있고, 기억, 추리력, 언어유창성 등 기본 정신 능력을 짚 수도 있고 또는 언어추리, 수리력 등의 차별적 적성을 짚 수도 있다. 그리고 교과영역별 적성검사도 가능할 수도 있다.

그리고 대학교육적성시험은 대학입학학력고사에서 발전되는 초기 단계에서는 기본 과목과 전공계열별 필수·선택과목을 두는 교과영역별 적성검사이지만 점차 개발이 계속되고 결과들이 누적됨에 따라서 범교과적인 것으로 발전되어야 한다.

대학교육적성시험이 본격적으로 실시될 때 그것은 고등학교의 형식 교육에 덜 관련되며 그리하여 중등학교 교육은 대학입시의 영향에서 보다 자유스러워질 것이다. 또한 고등학교 내신제는 결과적으로 보면 대학입학학력고사와 더불어 교과서 중심의 학업성취도를 이중 사정하게 되는 구조적 모순에서 벗어나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이수 결과를 평가하는 고유의 기능을 발휘하게 될 것이다.”

교육개혁심의회에서 대학교육적성시험을 제안한 근원적인 배경에는 대학입학학력고사가 고교

내신제와 더불어 교과서 중심의 학업성취도를 이중으로 사정하는 구조적인 모순을 범하고 있다는 인식이 깔려 있다. 그래서 대학교육적성시험은 다소간 종합적이고 일반적이며 범교과목적인 능력을 측정하는 학업적성검사와 같은 시험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학교육적성시험의 구체적인 측정 영역과 제작, 실시 방법에 대해서는 SAT 유형의 학업적성, 기본 정신능력, 차별적 적성, 그리고 교과영역별 적성검사 등과 같은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 또한 초기 단계에서는 교과영역별 적성검사에서 출발하여 범교과적인 것으로 발전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황정규의 제안

대학입학학력고사를 출제하고 관리하는 중앙교육평가원에서는 1990년대 초에 실시하게 될 새로운 대학입시제도가 대학교육적성시험, 고교내신, 그리고 대학별 고사라는 3원 구조로 이루어질 것에 대비하여 1986년부터 자체 연구를 추진하였다. 처음 2년 동안은 대학입학학력고사를 대신하는 대학교육적성시험에 대한 연구를 추진하였지만, 그 후 외부 평가 전문가에게 연구를 의뢰하는 방향으로 선회하게 되었다. 중앙교육평가원의 의뢰로 황정규(1988)는 대학교육적성시험 개발을 위한 기초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 연구에서 대학교육적성시험에 대한 개념을 규정하고, 그와 관련된 측정 능력과 측정 영역을 제안하였다. 또 대학교육적성시험에서 측정할 내용을 무엇으로 할 것인가의 문제와 교과목의 내용을 어느 수준에서 반영해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논의하였다. 황정규(1988)의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교육적성시험에서 측정해야 할 내용의 문제이다. 인간의 능력은 보다 훈련을 요구하는 쪽인가 아니면 보다 전이능력을 요구하는 쪽인가에 따라 훈련-전이(training-transfer)라는 차원에서

분류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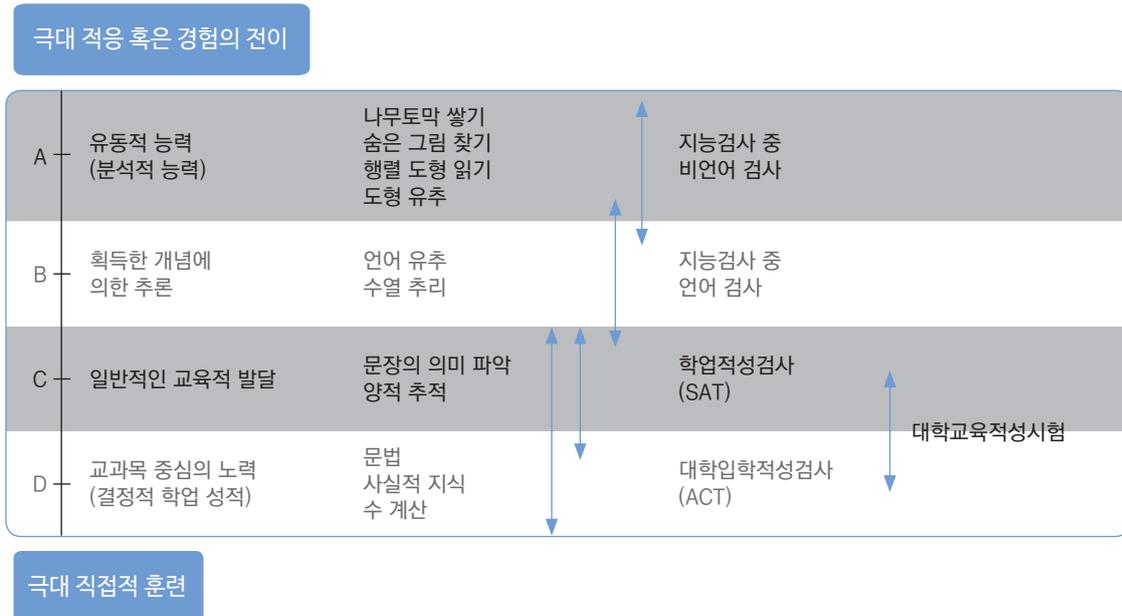
이들 관계를 하나의 그림으로 제시한 것이 [그림 2-1-1]이다. 이 그림은 하단의 '극대 직접적 훈련' 차원과 상단의 '극대 적응 혹은 경험의 전이' 차원으로 구분한 다음 그 사이에 A수준(유동적 능력), B수준(획득한 개념에 의한 추론), C수준(일반적 교육발달), D수준(교과목 중심의 노력) 등 4수준으로 나누어 인간 능력을 스펙트럼처럼 분해하여 설명하고 있다. 먼저 하단의 극대 직접적 훈련 차원은 정보의 획득과 실제 기능을 요구하는 능력이며, 이것은 훈련에 의해 습득되는 능력을 의미한다. 상단의 극대 적응 혹은 경험의 전이 차원은 주어진 장면에서 반응을 새롭게 창출해야 하는 능력이다. 이 경우에는 지식이나 정보, 구체적 기능은 최소한으로 요구하고 오히려 개인이 해답을 유추하고 구성해야 하는 능력이 더 요구된다.

A수준은 흔히 유동적(fluid ability)이라고 지칭하며,

이것은 주어진 상황에서 적응하는 과정(adaptive process)을 중요시하는 능력이다. 처음 보는 도형을 이해한다거나 그것을 어떤 기준에 맞추어 재배열하는 능력이 이에 해당한다. 이 능력에는 특수한 지식, 정보, 기능은 최소한으로 작용하도록 되어 있다. 지능검사 중에서 대개 비언어 검사가 이 수준에 해당되는 검사이지만,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며, 언어 검사 속에도 이에 해당되는 검사들이 있을 수 있다.

B수준은 지식의 재조직을 요구하는 능력이다. B수준에서 이용되는 지식이나 정보는 누구나 다 잘 알고 있는 것이며, 피험자에게 요구하는 것은 잘 알고 있는 지식이나 정보를 조직하는 것이다. 예컨대, 언어 유추나 수열 유추에서와 같이 여기에서 사용하는 언어나 수는 누구나 알고 있지만 이것으로 무엇을 어떻게 재구성, 재조직하느냐하는 능력이 B수준 능력의 핵심이 된다.

C수준은 새로운 내용에 실제적 기능을 적용하는



[그림 2-1-1] 인간 능력의 스펙트럼

능력이다. 예로 제시한 문장 의미의 이해는 각 문장이 피험자에게는 새로운 것이지만 특별히 고안해 내는 능력을 요구하지 않고, 이미 알고 있는 기능이나 지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요구한다. 미국의 대학입학고사의 하나인 SAT(Scholastic Aptitude Test)가 바로 이러한 수준에 해당된다고 보면 될 것이다.

D수준은 어떤 특정 내용에 관련하여 배운 것을 기억, 이해, 적용하는 것으로 친숙한 내용에 대해 잘 알고 있는 방법으로 반응하며, 대부분의 학력 고사가 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미국의 대학입학 적성검사인 ACT(American College Testing)는 D수준과 C수준의 능력을 함께 측정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이같은 인간 능력의 스펙트럼에서 볼 때, 대학 교육적성시험은 C수준과 D수준을 포괄하면서 그 중간 능력을 강조하는 고사가 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대학교육적성시험은 교과목의 내용을 어느 수준에서 반영해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대학교육적성시험은 C수준과 D수준의 중간쯤에 위치한 성격의 검사가 되어야 함을 시사하였다. 또한 교육개혁심의회는 보고서에서도 1990년에는 교과목별 주관식 고사는 대학별 평가로 발전시키는 것을 제안하고 있다. 이러한 조건을 전제로 할 때, 대학교육적성시험은 고등학교 교과목에서 배웠다고 추정되는 관련 내용을 자료로 이용하기는 하되, 그에 구애됨이 없이 대학에서 필요한 학업적성 중심의 검사가 되어야 할 것이다.

이 개념에 따르면 대학교육적성시험은 대학 수학에 필요하다고 추정되는 일반 학업적성을 측정하는 SAT보다는 학력(achievement) 측정을 더 강조하고 있고, 학력검사(achievement test)보다는 학업적성에 가까운 능력을 측정하는 검사로 규정할 수 있다. 즉 고등학교 교과목과 관련하여 학습했으리라고 추정되는 내용에 직접 혹은 간접으로 관련되기는 하되,

학생이 대학에서 수학할 때 요구되는 일반적 학업적성 중심의 검사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개념을 전제로 황정규는 이 연구에서 대학교육적성시험에 포함해야 할 측정 영역을 언어 영역, 수리 영역, 사회 영역, 과학 영역의 4가지로 제안했다.

중앙교육평가원에서는 황정규의 제안에 따라 언어 능력을 비롯하여 사회 영역, 수리 영역, 과학 영역 등과 같은 측정 영역별로 구체적인 측정 내용과 정신 능력을 상세화하고 문항을 시험적으로 제작하는 연구를 추진하였다.

(다) 이종승의 제안

1989년에 한국교육학회 교육평가연구회에서 개최한 ‘대학입시의 측정·평가론적 연구’에서 이종승은 「대학교육적성시험의 개념화」라는 논문에서 대학교육적성시험의 개념과 내용을 독자적으로 제시하였다. 그는 이 논문에서 대학교육적성시험을 미국의 SAT와 유사한 성격을 갖는 시험으로 규정하고 있다.

“대학교육적성시험이란 대학 수학에 기초 공통으로 요구되는 학업 성적을 측정하기 위하여 특정 교과목의 내용에 구애받음 없이, 학교 내외의 경험과 훈련을 통하여 습득한 언어 능력, 수리 능력, 외국어(영어) 능력을 측정하는 객관식 형태의 시험을 의미한다.”라고 제안하고 있다.

이와 같은 대학교육적성시험의 개념 규정 속에는 다음의 다섯 가지 특성이 내포되어 있다.

첫째, 대학교육적성시험에서 측정하는 능력은 대학의 각 학문 계열이나 전공 분야에 따른 특수적성이 아니라, 대학 수학에 공통적으로 작용하는 보편적 기초능력으로서의 학업적성이다.

둘째, 대학교육적성시험은 선천적으로 타고난 능력을 측정하기보다는 학교 내외의 경험과 훈련에서 학습된 능력을 측정하는 시험이다.

셋째, 대학교육적성시험의 측정 내용은 크게 언어, 수리, 영어의 세 가지 영역으로 구분된다.

넷째, 대학교육적성시험의 출제 내용이나 시험에 이용되는 자료는 특정 교과목에 별로 구애받지 않는 것으로서 어느 정도 탈교과적 성격을 갖는다.

다섯째, 대학교육적성시험은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하여 객관식 형태로 출제한다.

(라) 박도순의 제안

박도순(1990)은 교육부가 위촉한 대학입학시험 제도 위원회의 연구에서 대학입학시험제도의 기본 골격을 대학교육적성시험과 고교내신의 두 가지 전형자료를 필수로 하고 대학별 고사(전공기초시험 및 실기고사와 면접)의 실시 여부와 방법 등을 대학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하는 대학입학시험제도의 기본골격을 제시하였다. 이와 더불어 대학교육적성 시험의 개념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 있다(박도순, 1990).

대학교육적성시험은 대학교육 수학에 필요한 학업적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통합교과적으로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수준과 내용에 맞추어 고차적인 사고력을 측정하는 ‘발전된 학력고사’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대학교육적성시험의 성격을 5가지로 규정하고 있다. 첫째, 대학교육 수학에 기초가 되는 공통적인 보편적 학력을 측정하는 시험으로서 대학의 각 학문 계열이나 전공 분야에 따른 특수 적성을 측정하는 시험이 아니다. 둘째, 학교 교육의 경험을 통하여 학습된 능력을 측정하는 시험으로서 선천적으로 타고난 능력을 측정하기 위한 적성시험이 아니다. 셋째,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내용과 수준에 따라서 출제되는 사고력 중심의 학력고사이다. 넷째, 통합교과적으로 소재를 활용하여 출제되는 시험

으로서 특정 교과별 시험이 아니다. 다섯째, 대학에 진학하고자 하는 모든 수험생이 필수적으로 응시해야 하는 시험이다.

다시 말하면 대학교육적성시험은 선천적인 능력을 측정하는 적성검사가 아니라 학교 교육을 통하여 학습된 능력을 측정하는 것이며,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내용에 구애받음 없이, 학교 내외의 경험과 훈련을 통하여 습득된 언어 능력, 수리 능력, 외국어(영어) 능력을 측정하는 객관식 형태의 시험을 의미한다.

박도순이 제안한 개념은 ① 선천적인 능력을 측정하는 적성검사가 아니라 학교 교육을 통해 학습된 능력을 측정한다는 것, ②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내용과 수준에 따라 출제한다는 것, ③ 특정 교과별 시험(예컨대, 당시의 대학입학학력고사)이 아니라 통합교과적 소재를 활용하여 출제한다는 것, ④ 고차적인 사고력을 측정한다는 것으로, ‘발전된 학력고사’라는 조작적인 개념 규정을 하고 있다.

이상의 개념 규정을 통해 알 수 있는, ‘대학교육 적성시험’의 성격은 초기에는 비교적 일반적인 학업적성으로, 그리고 그 모형을 SAT에 비추어 규정하였으나, 이후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준거를 두는 학력검사의 성격으로, 그리고 그 모형은 ACT에 비추어 규정하는 방향으로 바뀌었다고 해석할 수 있다.

(2) 수능의 성격

교육개혁심의회에서 제안된 대학교육적성시험의 성격은 처음에는 일반적인 학업적성으로 규정되었으나 위의 여러 학자들의 개념 정의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준거를 두는 학력검사이자 통합교과적 소재를 활용하여 고차적 사고력을 측정

하는 시험으로 성격이 다소 변모하게 되었다. 「대학 수능능력시험 10년사」에서는 수능의 성격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다(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05).

첫째, 선천적 능력 혹은 적성을 측정하는 적성검사가 아니라는 것이다. 대학교육적성 시험이란 용어가 던져진 이후 교육 전문가나 일반인에게 혼란을 야기했던 것이 적성이란 개념이었다. 적성이란 개념을 어떤 사람은 비교적 선천적으로 오랫동안의 성장 과정을 거쳐 형성되는 순수한 능력 개념으로 해석하기도 했고, 어떤 사람은 대학에 필요한 비교적 일반적인 학업적성으로 해석하기도 했으며, 또 어떤 사람은 직업적성이나 예술적성을 분류할 때와 같은 수준의 대학교육적성이라는 영역이 존재하는 것으로 해석하기도 했다. 이같이 적성이란 개념에 대한 해석상의 차이와 ‘대학교육’이란 한정사를 덧붙임으로써 야기되는 혼란이 상승 작용하여 혼란이 가중되었다. 그러나 대학교육적성시험의 적성이 전통적 적성의 개념이 아님은 분명해졌다.

둘째, 학교교육을 통하여 학습된 능력을 측정하는 시험이며,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내용과 수준에 따라 출제한다는 것이다. 고등학교를 포함하여 그 이전의 학교 교육을 통하여 학습된 능력을 측정하는 시험이란, 곧 이 시험이 학력 검사의 성격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를 뒷받침하는 것이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내용과 수준에 따라 출제한다는 명제이다. 이 말은 곧 대학교육적성시험이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내용이나 수준에 의거하여 학습된 능력을 측정함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동시에 주의해야 할 것은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내용과 수준에 따라 출제한다는 것은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의거하고 그것을 고려한다는 뜻으로 해석되어지며, 이것이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그대로

반영하거나 반복한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서는 안된다. 따라서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충실히 이수한 학생, 성공적으로 이수한 학생이면 발휘할 수 있는 능력을 측정하기 때문에 교육과정의 암기나 복사를 요구하기보다는 전이 능력에 더 강조를 둘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셋째, 특정 교과목 시험이 아니고 통합교과적 소재를 활용하여 출제한다는 것이다. 이 명제가 뜻하는 바는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의거해 개설되어 있는 여러 가지 교과, 예컨대 국어, 수학, 생물, 물리, 지구과학, 사회 등의 교과별로 출제되는 시험이 아니라 두 과목 이상의 교과들이 직접, 간접으로 관련되어 있는 소재, 즉 통합교과적 소재를 활용하여 출제를 한다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바꾸어 표현하면 각 문항 세트의 소재는 어느 특정 교과로 분류할 수 없는 것이라는 의미가 강하게 담겨 있다.

넷째, 사고력 중심의 학력고사라는 것이다. 그동안 대학입학학력고사는 단편적 지식을 중심으로 하여 암기력을 측정하는 시험이라는 비판을 많이 받아 왔다. 이에 따라 고등학교 교육도 입시 준비를 위해 지식의 암기에 치우친 파행적 수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다. 입학 시험이라는 평가 방법이 교육과정 운영을 왜곡된 방향으로 지배해 온 셈이다. 위에 제시된 사고력 중심의 발전된 학력고사라는 개념은 왜곡된 개념을 바로잡기 위해 대학교육적성시험을 통합교과적 소재를 대상으로 사고력을 측정하는 검사로 규정하고 있다. 대학입학시험에서 사고력 중심의 측정을 강조함으로써 고등학교 교육과정도 사고력 중심의 교육으로 전환하도록 유도하려는 의도가 내포되어 있다. 이는 곧 고등학교 교육과정 운영을 정상화함으로써 학교교육을 본질적인 위치로 되돌리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대학 입학을 원하는

지원자가 많고 수용할 수 있는 능력에 제한이 있는 경우, 수요 공급의 원칙에 의해 필연적으로 경쟁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 경쟁의 과정을 교육적으로 유의미한 경쟁으로 전환 시킴으로써 교육의 본질에 접근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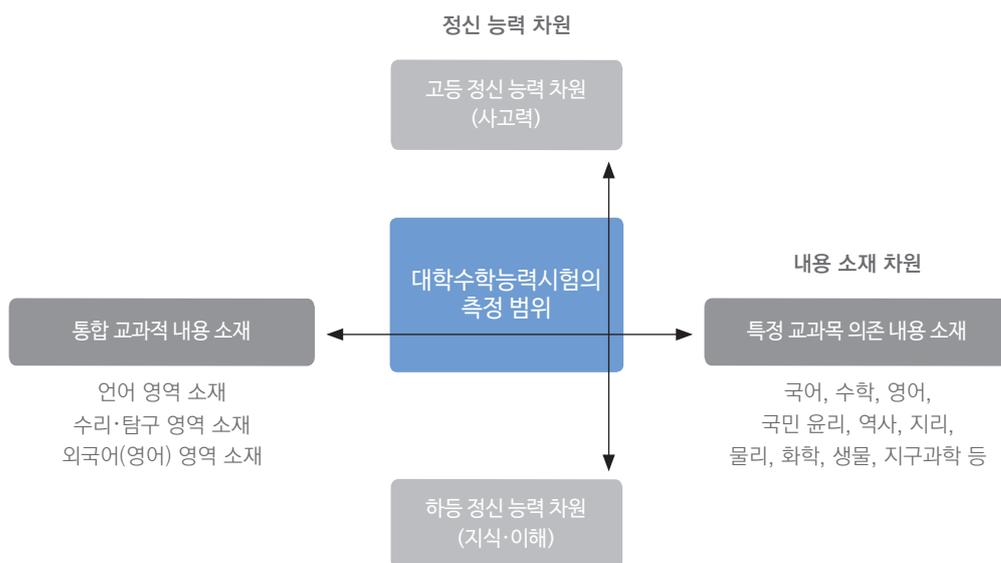
황정규(1990)는 「대학교육적성시험 실험평가 연구 -개념 정립과 실시 방향」에서 박도순(1990)이 제안한 대학교육적성시험의 개념을 따르기로 하고, 위에서 논의한 개념적 구도를 정신 능력 차원과 내용 소재 차원으로 나누어 [그림 2-1-2]와 같은 그림으로 제시하고 있다. 정신 능력 차원은 사고력에 해당하는 고등 정신 능력 차원과 지식·이해 등과 같은 하등 정신 능력차원으로 구분된다. 내용 소재 차원은 특정 교과목 의존 내용 소재 차원과 통합교과적 내용 소재 차원으로 구분된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05).

다. 실험평가

(1) 필요성과 목적

대학입학학력고사의 출제와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중앙교육평가원에서는 새로운 대학교육적성시험에 대한 기초 연구를 비롯하여 각 영역별 문항개발을 위한 후속 연구를 계속 추진하였다. 그러나 이 같은 연구를 추진하는 것만으로는 기존의 대학입학학력고사와 다른 형태의 대학교육적성시험을 실제로 출제하고 관리하는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혼란을 미연에 방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그래서 대학교육적성시험에 대한 실험평가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실험평가는 중앙교육평가원에서 1990년부터 1992년에 걸쳐 총 7차례 실시하였다. 실험평가를 실시한 목적은 다음과 같다(국립교육평가원, 1995).



[그림 2-1-2] 정신 능력과 내용 소재에 따른 개념 구도

- 시험모형(영역별 배점, 문항 수, 시험 시간)의 타당성을 검증한다.
- 출제 방향을 구체화하고, 영역별 평가목표를 상세화하여 그 적절성을 평가한다.
-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수준과 내용에 맞추어 사고력을 측정할 수 있는 양호한 문항을 개발하여 고등학교 교육의 정상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한다.
- 고등학교 교사, 학생, 학부모 등의 이해를 증진 시킴으로써 수능의 조기 정착을 도모한다.
- 수능의 출제에 대비한 출제·채점·관리 능력의 경험을 축적한다.

위의 5가지 실험평가 시행의 목적을 표방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더욱 중요한 추가적인 목적은 다음 3가지, 즉 ① 출제자들의 수능의 개념에 관한 이해와 공감대 형성, ② 수능의 개념을 각 영역의 문항에 반영하는 출제 능력의 훈련, ③ 일선 고등학교의 수능에 대한 이해와 공감대 형성으로 요약할 수 있다.

실험평가를 위한 수능의 출제자는 대학 교수로 한정하였다. 이미 과거 대학입학학력고사에서 대학 교수가 출제를 담당하여 온 긴 관행과 역사를 그대로 받아들인 셈이다. 수능 실험평가에 대학교수를 초빙할 때 고려한 것은 가급적 많은 교수를 실험평가에 참여시킴으로써 수능이 처음 실시될 때 필요한 능력 있는 출제 인력을 미리 확보하는 것과 그들로 하여금 수능의 개념을 문항에 반영하여, 투입하는 경험을 쌓도록 하는 것이었다. 이 같은 이유로 7차례 걸친 실험평가에서는 각 영역 출제자의 약 1/2은 새로운 출제자를 참여시키고, 약 1/2은 출제 경험의 연속성을 고려하여 기존 출제자를 참여시키는 원칙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였다. 또 매 회마다 영역별 출제자 대표를 교체한다는 원칙도 지키고자 하였다. 또한 수능 문항 제작의 특성상 출제자 사이의 활발한 토론과

논쟁, 그리고 발전적 공감대 형성과 출제 기법의 공유 등을 위해 일정 기간 합숙하며 공동으로 작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그러나 출제 기간이 대학에서 수업이 진행되고 있는 학기 중이기 때문에 완벽한 합숙 공동 작업의 원칙을 지키기는 어려웠다.

실험평가 문항을 출제할 당시 출제자들에게 강조한 두 가지 원칙은 통합교과적 문항의 출제 원칙과 사고력 중심의 발전된 학력고사라는 원칙이었다.

통합교과적 문항의 출제 원칙은 특정한 교과를 바탕으로 문항을 출제하는 것이 아니라 통합교과적 소재로 문항을 출제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이 뜻하는 바는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의거해서 개설되어 있는 교과목인 국어, 수학, 물리, 화학, 생물, 국민윤리, 정치, 경제, 사회 등에서 문항이 출제되는 것이 아니라 두 개 이상의 교과목이 직·간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다고 판단되는 소재, 즉 통합교과적 소재를 대상으로 출제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각 문항이나 문항 세트는 교과목으로만 분류할 수 없는 통합 소재를 이용한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사고력 중심의 발전된 학력고사라는 원칙은 암기력 중심에서 탈피하여 적용력, 분석력, 종합력, 평가력, 문제해결력과 같은 고등 정신 능력 중심으로, 즉 사고력 중심으로 측정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문제는 수능 문항을 출제할 교수들이 각 영역의 내용 소재에서 사고력을 측정하는 문항을 개발해 낼 수 있는 능력, 노하우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대학 교수들은 각자의 전공 분야 내용에 관해서는 전문적 식견을 갖추고 있지만, 그에 비례해서 정신 능력인 사고력에 대한 이해 및 그것을 측정하는 능력과 기술에서는 취약한 것이 사실이다. 통합교과의 내용을 소재로 해서 사고력을 평가할 수 있는 문항을 대학 교수들에게 출제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더욱 더 어려운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험평가를 7차례에 걸쳐 시행함에 따라 많은 출제 교수들이 고등 정신 능력이 무엇인지를 차츰 이해하게 되었고, 문항의

질도 향상되는 결과를 낳았다. 이러한 결과는 수능 실험평가의 커다란 성과라 할 수 있다.

고등 정신 능력 이해의 공감대 확산은 수능 실험 평가를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실시한 후 학생과 교사의 여론을 묻고 수렴하는 과정에서 고등 정신 능력 이해의 공감대는 확산되었다. 수능을 실시해 본 학생과 교사들이 처음에는 생경하다, 당황스럽다, 어렵다는 반응을 보였으나 몇 차례 실시되면서 대학입시 문제 출제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 교육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도록 유도할 것으로 본다는 긍정적인 반응으로 바뀌어 갔다.

(2) 실험평가 준비

중앙교육평가원에서는 평가연구실 중심으로 대학교육적성시험에 관한 자체 연구를 추진했다. 1990년 7월, 새로운 대입제도의 핵심 전형기준으로 부각된 대학교육적성시험 시행에 대비한 전담연구팀을 구성하고 관련 업무를 입시제도실로 이관하여 담당하도록 하였다. 입시제도실의 전담연구팀에서 대학교육적성시험의 실험평가 업무를 관장하게 되었다. 초창기의 전담연구팀에는 구창현 교수(총괄, 수리 영역), 신난수 교육연구사(언어 영역), 김영일 교육연구사(탐구 영역), 그리고 김정호 교육연구사(외국어 영역) 등이 참여하였다.

새 대학입시에 적용될 대학교육적성시험에 대비하여 ① 대학교육적성시험의 기본 개념을 정립하고, ② 표본 문항을 개발하며, ③ 대학교육적성시험의 타당성을 검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실험평가를 시행하기 위한 실시 방안을 수립하기로 하였다. 이러한 방침에 따라 대학교육적성시험의 기본 개념은 황정규(1988)와 박도순(1990)의 연구를 토대로 하여 개념 모형을 정립하기로 하였다. 표본 문항은 각 영역별로 이미 개발된 「대학교육적성시험 문항 개발

연구」(1989)에서 예시한 문항을 토대로 대학 교수 및 고교 교사로 출제팀을 구성하여 개발하기로 하였다. 실험평가 시험 시행 방안으로 영역별 평가 목표 상세화, 평가 범위, 시험 문항 유형, 시험모형(영역별 문항 수, 배점, 시험 시간), 점수 표기 방법 등을 구안하기로 하였다. 또한 출제팀을 구성하고 출제위원들을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하며, 각 시·도 교육청의 협조를 얻어 지역별, 성별, 계열별을 고려하여 유층표집한 일반계 고등학교의 재학생을 대상으로 실험평가 시험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시험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시험 성적을 분석하여 답지별 반응율, 문항변별도, 계열별·지역별·성별·영역별 총점의 평균과 표준편차, 영역별 시험의 신뢰도와 타당도, 영역 간 상호 상관 계수 및 고교의 교과 성적과 시험 성적 간의 상관관계(공인타당도)를 분석하며, 시험 실시 고교생과 고교 교사를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를 실시하고 학교, 학부모, 언론 기관 관계자들이 참가하는 세미나를 개최하는 계획을 수립하였다.

실험평가를 추진한 과정을 간략히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 1989. 12. 중앙교육심의회 전체회의에서 대학 교육적성시험 실시 심의 결정
- 1990. 4. 28 교육정책자문회의에서 대학교육 적성시험을 1994학년도에 실시 결정
- 1990. 7. 입시제도실에 대학교육적성시험 연구 전담팀 구성(구창현, 신난수, 김영일, 김정호)
- 1990. 9. 대학교육적성시험 실험평가시험 자문 위원회 구성(황정규, 이종승, 김광해, 노명완, 김형립, 박승안, 박승재, 정세구, 장석우, 김덕기)
- 1990. 10. 대학교육적성시험의 개념 정립과 실시 방향 연구 발주
- 1990. 10. 대학교육적성시험 실험평가 연구(김철연, 선형기, 구창현)

- 1990. 12. 19 1차 실험평가 시행
- 1991. 4. 2 대학교육적성시험에서 대학수학 능력시험으로 명칭 변경 및 연 2회 시행 결정
- 1991. 5. 24 2차 실험평가 시행
- 1991. 7. 11 3차 실험평가 시행
- 1991. 11. 27 4차 실험평가 시행
- 1991. 12. 수능의 영역별 출제전략 방안 연구
- 1992. 5. 27 5차 실험평가 시행
- 1992. 8. 31 6차 실험평가 시행
- 1992. 11. 10 7차 실험평가 시행
- 1993. 2. 1994학년도 수능 시행 초안
- 1993. 3. 30 1994학년도 수능 시행계획 확정 발표
- 1993. 5. 수능 1~7차 실험평가 결과 종합보고서 발간

한편 전담연구팀을 자문하고 대학교육적성 시험 실험평가를 성공적으로 시행하도록 도와주기 위하여 1990년 9월에 실험평가 시험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였다. 자문위원의 명단을 제시하면 다음 <표 2-1-1>과 같다.

(3) 실시 내용

(가) 실시 현황

실험평가의 대상은 전국의 일반계 고등학교 2학년 재학생으로 실시하였다. 1990년 1차 실험평가는 서울과 대도시에서만 실시하였으며 30개교를 선정, 학교당 1개 학급을 표집하여 총 1,6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1991년에 시행한 2~4차 실험평가는 전국의 모든 지역에서 각 차수당 100개교를 선정하여 학교당 2개 학급을 표집하고 1만 명씩 총 3만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1992년에 시행한 5~7차 실험평가는 전국의 모든 지역에서 5차 315개교, 6차 549개교, 7차 702개교를 표집하여 약 35만 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7차례의 실험평가를 통하여 전국의 고등학생 가운데 1,595,720명(표집 378,733명, 비표집 1,216,987명)이 시험에 참여하였다.

(나) 시험모형

실험평가에서 영역별 배점 비중은 크게 언어

<표 2-1-1> 대학교육적성시험 실험평가 자문위원 명단

영역	성명	전공	소속
위원장	황정규	교육학	서울대
언어	이종승	교육학	충남대
	김광해	국어국문학	강릉대
	노명완	국어교육학	서울교대
수리·탐구	김형립	교육학	서강대
	박승안	수학	서강대
	박승재	물리교육	서울대
	정세구	국민윤리	서울대
외국어(영어)	장석우	교육학	인천대
	김택기	영어교육학	고려대

영역(외국어 영역 포함)과 수리·탐구 영역으로 구분하여 1:1로 결정하였다. 언어 영역은 다시 언어와 외국어(영어) 영역으로 나누고 각각 60:40의 비중을 가지도록 결정하였다. 그 이유는 언어 영역의 경우 여러 교과목의 소재를 사용한 것에 비하여 외국어(영어) 영역은 영어 교과목의 시험이기 때문이었다. 수리·탐구 영역에서 수리 분야와 탐구 분야의 배점 비중을 1~3차 실험평가에서는 50:50으로 동일하게 하였으나, 4차 실험평가 이후에는 교육과정의 정상적 운영 등을 고려하여 40:60으로 조정하였다.

7차례의 실험평가 가운데 1차 실험평가와 나머지 실험평가 간에는 시험모형에서 뚜렷한 차이가 있다. 1차 실험평가는 대학교육적성시험이라는 명칭으로 시행한 반면에 나머지 6차례 실험평가는 대학수학능력시험으로 명칭이 변경된 이후에 실시되었다. 또 1차 실험평가는 주관식 문항 20%와 객관식 문항 80%로 구성하였다. 주관식 문항을 포함한 이유는 당시 대입학력고사와 같이 지원 대학에서 입시 관리와 채점 업무를 담당한다는 전제 하에서 시행했기 때문이다.

2차 실험평가 시행 전인 1991년 4월 2일에 대학교육적성시험의 명칭이 대학수학능력시험으로 변경되고, 대입제도가 선시험 후지원으로 바뀌면서 출제 업무뿐만 아니라 대학에서 담당하던 채점 업무를 국립교육평가원에 위임하기로 함에 따라 채점의 객관성과 편리성을 고려하여 문항을 객관식 5지 선다형으로 출제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러한 방침에 따라 2차 실험평가 이후에는 문항을 모두 5지 선다형으로 제작하였다.

영역별 배점은 1차 실험평가 모형을 토대로 일부 영역의 배점을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언어 영역과 외국어(영어) 영역의 배점은 7차례 모두 각각 60점, 40점으로 동일하였다. 수리·탐구 영역 중 수리 분야와 탐구 분야의 배점은 1~3차 실험평가에서 각각 50점이었으나, 4~7차 실험평가에서는 외국어(영어) 영역 배점과 균형을 맞추고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단위수를 고려하여 수리 분야의 배점을 40점으로 축소하고 탐구 분야를 60점으로 확대 조정하였다.

문항당 배점은 2차 실험평가부터 수리 분야만

〈표 2-1-2〉 실험평가 시험모형

차수	배점(점)				문항 수(개)				시험 시간(분)			
	언어	수리탐구	외국어	총점	언어	수리탐구	외국어	계	언어	수리탐구	외국어	계
1	60	100	40	200	51(5)	69(9)	35(5)	155(17)	70	120	60	250
2	60	100	40	200	60	75	40	175	80	120	60	260
3	60	100	40	200	60	75	40	181	80	120	60	260
4	60	100	40	200	60	80	40	180	90	120	60	270
5	60	100	40	200	60	80	50	190	90	120	70	280
6	60	100	40	200	60	(I)20* (II)60	50	190	90	(I)60 (II)90	70	310
7	60	100	40	200	60	(I)20 (II)60	50	190	90	(I)60 (II)90	70	310

※ 1차 실험평가에서 ()안은 주관식 문항 수임

* 6차 실험 평가부터 수리·탐구 영역 (I)은 수리 부분(현재의 수리 영역)으로, 수리·탐구 영역 (II)는 탐구 부분(현재의 사회탐구, 과학탐구 영역)으로 분리됨

2점으로 하고 다른 영역은 문항당 1점으로 하였다. 3차 실험평가에서는 언어 영역에서 차등 배점(0.5점, 1점)을 처음 실시하였다. 4차 실험평가에서는 수리·탐구 영역에서 차등 배점(0.5점, 1점)을 하였다. 5차 실험평가부터는 외국어(영어) 영역의 배점을 1점에서 0.8점으로 낮추었다.

문항 수의 경우, 1차 실험평가에서는 주관식 문항을 포괄하여 전체 문항 수가 155개였다. 그러나 2차 실험평가에서는 모두 객관식 문항이어서 175개로 늘어났다. 수리·탐구 영역에서 수리 분야 문항이 25개, 탐구 분야 문항이 50개(과학탐구 27개, 사회탐구 23개)이었다. 3차 실험평가에서는 언어 영역이 차등 배점으로 66개 문항을 출제함에 따라 181개로 늘어났다. 4차 실험평가 이후에는 수리 분야 문항이 20개로 축소되고, 탐구 분야 문항은 60개(과학탐구 33개, 사회탐구 27개)로 확대되었다. 5차 실험평가에서는 외국어(영어) 능력의 변별력을 높이기 위해 외국어 영역의 문항 수를 40개에서 50개로 늘림으로써 전체 문항 수가 190개로 확대되었다. 5차 실험평가 이후 총 문항 수는 190개로 고정되었다. 6차 실험평가에서는 수리·탐구 영역을 수리·탐구(I)과 수리·탐구(II)로 분리하여 각각 다른 시간에 시험을 시행하였다.

시험 시간은 응시 학생들과 시험 실시 고등학교 교사들의 설문 응답 결과를 수렴하여 언어 영역은 2차와 4차 실험평가에서 시험 시간을 각각 10분씩 늘렸고, 외국어(영어) 영역은 5차 실험평가에서 10분 늘렸다. 수리·탐구 영역의 경우 시험 시간이 부족하다는 의견을 수렴하여 6차 실험평가에서 30분 더 늘리기 위해 수리·탐구 영역(I)과 수리·탐구 영역(II)로 분리하고 각각 60분과 90분을 배당하였다.

1차 실험평가에서부터 7차 실험평가까지 적용한 시험모형을 요약 제시하면 <표 2-1-2>와 같다(국립교육평가원, 1995).

(4) 출제의 기본 방향

(가) 1차 실험평가

1990년 12월에 처음으로 실시되었던 1차 대학 교육적성시험 실험평가의 출제 기본 방향은 다음과 같다.

-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내용과 수준에 맞추어 출제한다.
- 교과서 내외에서 학생들이 접할 수 있는 자료를 두루 활용하되, 영역별로 가능한 한 통합교과적 소재를 사용하여 출제한다.
- 고등학교의 여러 과정, 교과목 중 공통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출제한다.
- 단순한 기억력이나 암기력 평가를 지양하고, 이해력과 사고력을 측정하는 문항을 출제하여 속도 검사가 아닌 역량 검사가 되도록 한다.
- 문항의 난이도는 20~80%, 영역별 평균 점수는 50점 내외가 되도록 출제한다.
- 전국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평가라는 관점에서 사용 교재, 지도 교사, 지역, 과정, 성별 등의 변인에 따른 차별 기능 문항이 출제되지 않도록 한다.
- 단편적으로 교과서 지식을 암기하는 입시 위주 교육에서 벗어나 새로운 교수·학습 방법을 통해 교과서에 제시된 기본 개념과 원리를 철저히 이해하고 교과서뿐만 아니라 각종 자료를 분석적으로 이해·적용하며 여러 교과와 관련된 광범위한 독서와 토의, 관찰·실험 중심의 탐구학습 및 생활 영어 학습 등을 통해 학력을 신장시킨 학생들이면 무난히 풀 수 있도록 출제한다.
- 문항 형태는 객관식 5지 선다형으로 하고, 한 문항에서 정답이 2개 이상 있는 문항과 주관식 단답형도 17문항 출제한다.

-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하여 외국어(영어) 영역에서는 15~17.5%의 듣기 평가 문항을 출제한다.

(나) 2~7차 실험평가

대학수학능력시험으로 명칭이 변경된 후에 실시한 2~7차 실험평가의 출제 기본 방향은 1차 실험평가의 출제 기본 방향을 일부 수정하고 추가하였다.

- 문항 형태는 모두 5지 선다형으로 하고, 한 문항에서 정답이 2개 이상이 있는 문항도 출제한다.
- 4차 시험부터 언어 영역에서도 10% 정도의 듣기 평가를 실시한다.
- 6차 시험부터는 수리·탐구 영역을 I 과 II로 분리하여, 수리 분야는 수리·탐구 영역(I)로, 탐구 분야는 수리·탐구 영역(II)로 하고 문항 수를 늘린다.

라. 이슈와 여적

(1) 적성시험의 개념에 대한 논란

교육개혁심의회에서 대학입학학력고사를 대학교육적성시험으로 발전시킨다고 발표한 이래 적성시험에 대한 지대한 관심과 논란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1986년 10월에 발간된 「대학입시제도의 개선」이라는 보고서에서 대학교육적성시험의 성격에 대하여 기술하고 있지만, 이 보고서가 널리 배포되지 않았고 크게 홍보되지도 않았다. 그래서 관련 인사들까지도 대학교육적성시험의 개념에 대한 혼란이 갈수록 증폭되어 나타났다. 대학교육적성시험의 도입에 대한 저항도 적지 않았다. 전문가는 전문가대로, 일반 국민은 국민대로

대학교육적성시험에 대한 개념을 다양하게 해석하는 경향이 커졌다. 어떤 단일한 실체에 대한 다의적 해석은 여러 가지 오해와 혼란을 가중시키는 요인이 되었다.

이 같은 혼란은 대학교육적성시험이라는 명칭 속에 있는 적성시험이라는 용어의 참조 근거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달리 의미를 부여하고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생긴 것이다. 따라서 혼란스러운 대학교육적성시험의 개념을 정확하게, 분명하게 그러면서도 빠른 시일 안에 정리하라는 사회적 압력과 교육계의 요구가 거세게 일어났다. 그래서 황정규(1988), 이종승(1989), 박도순(1990) 등은 각자 대학교육적성시험의 개념을 제안하였고 이 제안들이 수렴되어 수능의 개념을 정립하는 기초가 되었다.

이러한 전문가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1990년 12월 19일 1차 대학교육적성시험 실험평가가 전국적으로 시행되면서, 언론과 일선 학교 학부모들은 ‘이 시험이 어떤 시험이냐’, ‘현행 대입 학력고사와 어떻게 다르냐’, ‘왜 이름이 대학교육적성시험이냐’ 라며 많은 관심들을 보였다. 특히 그 이름 때문에 학교에서 실시하던 ‘적성시험’과 같은 시험으로 오해하는 사람들도 많았다.

대학입학시험과 관련된 외국의 사례를 보면, 대학에서 수학하는 데 필요한 학업적성을 측정하는 시험(미국의 SAT 학업적성검사)과 고교에서의 학업성취도를 측정하는 시험(미국의 ACT 학업성취도검사)이 대표적인데, 우리나라에서 치르고자 했던 시험의 성격은 전자에 가까웠기 때문에 이름을 대학교육적성시험으로 정했던 것이다. 그러나 이름 때문에 생기는 오해를 없애고, 현재의 학력이 아니라 장차 대학에서 수학하는 데 필요한 사고력을 측정하는 시험이라는 수능의 성격을 분명히 하기 위해 1991년 4월 2일에 교육부가 공식적으로 대학교육적성시험을 대학수학능력시험(大學修學能力試驗)

으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이에 따라 그해 5월 24일에 실시했던 2차 실험평가부터는 이름을 대학수학능력시험으로 바꾸었다. 그런데 이번에는 왜 ‘수학’ 시험만 보느냐는 여론이 일면서 수능의 명칭에 대한 논란은 계속 되었다.

(2) 수능 실험평가의 역사적 의의

1985년 8월 12일에 대학입학학력고사 업무를 관장하고 있던 중앙교육연수원 평가관리부가 모체가 되어 중앙교육평가원이 문교부 산하 기관으로 독립하게 되었다. 중앙교육평가원은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로 독립된 국가수준 평가전담기관인 셈이다. 중앙교육평가원의 발족과 더불어 교육개혁심의회에서 새로운 대학입시제도를 입안하면서 대학교육적성시험이 제안되자, 중앙교육평가원에서는 1986년부터 평가연구실을 중심으로 자체 연구에 착수하였다. 1987년부터는 외부 평가 전문가에게 대학교육적성시험 연구를 의뢰하기 시작하였다.

중앙교육평가원을 중심으로 대학교육적성시험에 대한 개념 정립과 더불어 새로운 유형의 국가고사를 출제하고 관리하는 문제에 대한 사전 공감대 형성과 훈련이 필요하였다. 사실 고사 관리는 대입학력고사를 시행해 온 경험과 노하우가 축적되어 있기 때문에 그다지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그보다는 국가고사의 문항 출제를 담당하는 대학 교수들이 새로운 대학교육적성시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새로운 유형에 대한 출제 경험이 전무하다는 것이 문제였다. 따라서 대입학력고사와 마찬가지로 대학 교수가 출제자로 참여할 경우에 그들이 대학교육적성시험을 이해하고 그에 따른 문항을 출제하는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었다. 그 결과 아무런 사전 준비 없이 생소한 유형의 문항을 출제하여 국가고사를 시행하는 것은 엄청난 위험 부담을 안게 되므로 시범 문항을 개발

하여 학생들에게 직접 투입하는 실험평가 시험을 시행하는 방안이 논의되기 시작한 것이다.

중앙교육평가원에서는 1990년 7월에 대학교육적성시험의 시행에 대비한 실험평가 연구전담팀을 구성하고 같은 해 9월에 평가 전문가 4명과 영역별 출제전문가 7명이 참여하는 대학교육적성시험 실험평가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였다. 내부 연구전담팀과 외부 전문가 집단의 협력 작업으로 1990년 12월 19일에 1차 실험평가를 시행하는 것으로 1992년 11월 10일까지 모두 7차례 실험평가 시험을 시행하였다. 7차례의 실험평가 결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1993년에 시행할 수능의 기본 모형을 확정하게 되었다.

수능은 우리나라 국가고사 역사상 새로운 시험 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기 전에 제도의 시행 과정에서 예상되는 문제점을 검토한 후에 실제로 적용한 최초 사례라고 평가할 수 있다. 실험평가를 통해 수능 시험 모형의 타당성을 검증하였고, 7차례에 걸쳐 각 영역별로 출제위원의 반 정도를 새로운 출제위원을 위촉하여 최대한 많은 수의 출제자들에게 새로운 시험 문항을 출제하는 경험을 제공하였다. 또한 전국의 고등학교 학생들과 교사들에게도 새로운 수능의 문항을 접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그리고 학부모들의 새로운 입시제도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을 줄여주는 데도 크게 기여하였다.

(3) 태동기 수능에 대한 언론의 호의적 반응

대학교육적성시험에서 대학수학능력시험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지만, ‘수능’이라는 생소한 이름의 대입시험이 등장하면서, 학부모와 학생, 언론에서는 또 대학입시가 바뀌느냐, 학교 현장에 혼란을 주는 것이 아니냐와 같은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내었다. 그러나 중앙교육평가원에서 주최하는 공청회나 학교 교사

연수, 학부모 대상의 설명회가 거듭되면서 ‘어떤 시험이냐’, ‘종래의 대입학력고사와 어떻게 다르냐’에 대해 많은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이해하기도 힘들고, 실체를 알 수 없다가하여 여전히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그런데, 1990년 12월에 1차 실험평가가 시행되면서 시험의 모습이 만천하에 드러나자, 시험에 대한 우려나 비난이 한순간에 사라지고, 긍정적인 평가가 이어지기 시작하였다. 평소에 교육부의 정책에 대한 언론의 평가는 부정적이고 비판적이었다. 그러나 1차 실험평가 시험 당일 교육부 출입기자들에게 문제지를 배포하고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성급하게 언어 영역 문제지를 훑어보던 기자들이 환성을 지르는 것이었다. ‘문제들이 너무 좋은데’, ‘고교 졸업한 지 10년이 넘은 우리도 이런 문제 같으면 100점 맞겠는데’, ‘독서를 많이 할수록 유리하겠는데’, ‘지식 문제는 없고 모두 창의력과 사고력이 필요한 문제들뿐인데’라고들 하면서 수능에 대해 후하게 평가하였다. 그리고 이 실험평가 시험 이후 몇 년간 수능에 대한 언론의 평가는 호의적이었고, 이러한 호의적인 평가가 수능이 뿌리를 내리는 데 큰 역할을 했다는 것은 분명하다.

(4) 태동기 수능과 독서 열풍

실험평가 시험이 전국의 일반계 고등학교로 확대 시행되면서 언론의 관심이 집중되었고, 학교에서도 이에 대한 대비에 여념이 없었다. 이때 특히 주목을 받았던 것은 언어 시험과 탐구 시험의 문제 유형에 관한 것이었는데, 그 이유는 이들 문항에 사용된 지문들이 종래 시험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방대하고 다양해졌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이런 문제들을 풀려면, 우선 주어진 지문들을 정확히 읽어 이해한 다음 문제를 풀어야 하는데 시간이 제한되어 있으니 거의

모든 학생들의 독해 능력이 이를 따라 갈 수 없었다. 그래서 후반부의 문제들은 거의 손도 못대는 학생들이 대부분이었다.

중앙교육평가원에서는 각종 연수에서 이러한 문제점을 제시하며 수능 대비를 위해서는 속독 능력이 필수적임을 강조했고, 이를 간파한 학부모와 학생들 사이에서는 독서 열풍이 일기 시작하였다. 마침내 고등학생은 물론 초등학교 학생들까지 독서 열풍에 휘말리게 되었고, 어떤 출판사가 발빠르게 펴낸 「논리 시리즈」는 전국적인 베스트셀러가 되기도 하였다.

수능이 몰고 온 독서 열풍은 어릴 때부터 길러온 학생들의 책 읽는 습관과 독서 능력의 중요성을 부각하였고 이는 수능이 이론 또 다른 공로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5) 태동기 수능의 홍보와 연수

중앙교육평가원에서는 수능 실험평가를 추진하는 동시에 전국 규모의 심포지엄을 개최하여 빠른 시일 내에 올바른 수능의 개념과 성격을 확산시키고자 노력하였다. 또한 일선 고등학교 교사들과 관련 교육 기관 관계자들의 이해를 돕고 이 제도가 학교 현장에서 정착되도록 도와주는 여러 가지 홍보 자료를 발간하여 배포하였다.

1991년 4월에 「대학수학능력시험은 이런 방향으로 실시됩니다」(중앙교육평가원, 1991) 2,500부를 발간하여 각 시·도 교육청에 배포하였으며 이어서 1992년 12월, 실험평가가 끝난 다음, 이들 문제를 엮어 만든 「대학수학능력시험 실험평가 문제집」(국립교육평가원, 1992)을 5,000부 발간하여 배포하였는데 그 내용은 수능의 개념과 성격, 영역별 평가 목표와 내용, 출제 기본 방향, 실험평가 실시 현황 및 1~7차 실험평가 문제 등이었다.

1991년 10월 29일에는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전국의 고등학교 교사, 교육 전문직, 대학 교수 등 약 4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대학수학능력시험과 고등학교 교육의 재조명'을 주제로 「전국 교육 평가 심포지엄」을 개최하였다. 이 심포지엄은 고등학교 교사들이 수능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교수-학습 방법과 평가 방법을 탐색하는 데 큰 기여를 하였다.

1993년 5월에는 「새 대입 제도에 따른 대학수학능력시험 해설」(국립교육평가원, 1993)이라는 교육 자료를 10,000부 발간하였고, 이 자료를 전국의 고등학교에 배포하여 교육 자료로 활용하도록 하였다. 이 자료는 1994학년도 새 대학입학시험제도의 대강을 살펴보고, 수능의 개념과 실시 배경, 시행 방법 등을 설명하였으며, 수능의 영역인 언어, 수리·탐구, 외국어(영어)의 3개 영역별로 평가 목표와 출제 방향을 예시 문항과 함께 해설함으로써 시험에 대비하기 위한 효과적인 교수-학습 방향을 제시하였다. 이 자료가 발간 배포되면서 일선 고등학교에서는 수능의 성격과 평가 문항에 대한 이해를 보다 확실하게 하였다.

또 1992년 2월부터 각 시·도 교육청과 교육연수원 및 고등학교 등에서 교사와 교육 전문직 및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연수회(456회, 42,500명 참여)와 학부모, 재수생 및 입시 학원을 대상으로 한 설명회(38회, 18,000명 참여)를 실시하였고, 이 연수회와 설명회에는 수능실험평가 출제에 참여했던 교수들이 강사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6) 수능 실험평가 문항 공모

1991년 4월, 1994학년도부터 시행될 대학수학능력시험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며,

전국의 시·도 교육청 및 산하 교육연수원 등의 교육 전문직과 관심 있는 교원에 의해 개발된 참신하고 수준 높은 문항을 저장 활용하고, 교육 현장의 상담 능력을 제고하고 문항 출제 경험을 축적하기 위해 고등학교 교사와 교육 전문직을 대상으로 실험평가 문항을 공모하였다.

이를 위해 수능의 문항 출제에 필요한 영역별 출제 기본 방향을 알려 출제에 참고하도록 하고, 출제 경험을 쌓은 교육 전문직 및 교원은 향후 수능 출제 등에 직접 참여할 기회를 부여하며, 공모된 문항 중에서 선제된 양호한 문항은 실험평가 문항으로 저장 활용하였다. 또한 채택된 양호한 문항은 교육 자료로 발간하여 시·도 교육청에 배포 활용하기로 하였다. 공모 방법은 중앙교육평가원에서 제시한 문항 카드를 이용하여 작성한 문항을 개인이나 기관을 통해 수시로 우송 또는 방문 제출하는 것이었다.

그 결과, 1991년에 1개 교육연수원에서 3명의 교육 전문직이 51개 문항을 제출했고, 5개 고등학교에서 56명의 교사가 372개 문항을 제출하였다. 이 가운데 3차 실험평가에 322개 문항이 활용되고 2개 문항이 채택되었으며, 4차 실험평가에는 101개 문항이 출제에 활용되었다. 그리고 우수한 문항을 제출한 교사 가운데 1명은 3차 실험평가의 외국어(영어) 영역 검토위원으로 참여하였으며, 1992년 11월에는 2개 기관과 5명의 교사에게 중앙교육평가원장 명의의 표창장을 교육감을 통해 전달하였다.

제2절

형성과 정착(형성기): 1994 ~ 1998학년도

김진규(중앙교육연수원)

수능의 전체 역사 가운데 형성기는 수능을 처음 시행하고 점차 정착되어 가는 시기를 말한다. 수능의 형성기는 국립교육평가원(이전 중앙교육평가원)이 수능을 첫 시행한 1994학년도부터 마지막으로 시행한 1998학년도까지의 기간에 해당된다. 수능의 형성기는 국립교육평가원이 주도적으로 수능을 계속적으로 시행하였던 시기라고 할 수 있다. 특히 1994학년도 수능은 수능 시행 첫 해인 1993년에 실시된 것으로 연 2회 실시되었다는 점에서 역사적 의의가 있다. 1998년도 수능업무를 수행한 후, 국립교육평가원은 수능 업무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으로 이관하게 된다.

가. 시기 개관

(1) 국립교육평가원의 수능 관리

수능이 비교적 무난하게 시행될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도 국가고사를 전담하는 평가 전담기관이 설립되어 출제 관리와 고사 운영에 관한 경험과 노하우를 축적했기 때문일 것이다. 또한 평가 전문가들이 국가고사 관리에 공식적으로 참여한 것이 국가고사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된 중요한 이유이다. 사실 1981년 문교부 중앙교육연구원을

중앙교육연수원으로 개편하면서 대학입학학력 고사 출제관리를 담당하는 평가관리부를 두고 이를 책임지는 평가관리부장에 국립대학교 평가전공 교수를 파견 발령한 것이 국가고사 관리에 평가 전문가를 직접 참여시켜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만든 결정적 조치였다고 판단된다. 중앙교육연수원에서 중앙교육평가원으로 분리 독립한 이후 1987년까지 국립대학교 평가 전공 교수를 평가관리부장으로 임용하는 전통이 이어졌다. 이와 더불어 교육평가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임교수직을 두게 하였다. 물론 중앙교육평가원 자체의 교육전문직 공무원이 다수 근무하고 있었으나 초창기에 출제 및 평가관리의 기반을 조성하는 데는 평가 전문가들이 크게 기여했다고 본다.

1987년 이후에는 자체 전임교수와 교육 전문직 공무원들이 중심이 되어 국가고사를 출제 관리하고 외부 평가 전문가들은 자문하는 형태로 전환되기에 이르렀다. 매년 반복적으로 시행되는 수능의 출제와 관리는 중앙교육평가원 자체 공무원들과 외부 출제위원들 간의 유기적이고 긴밀한 협업이 이루어 지지 않고서는 결코 성공적으로 시행할 수 없기 때문이다.

국가고사 역사상 처음으로 1993년 8월과 11월에

연 2회 시행한 수능에 대한 학부모와 학생들의 반응은 두 번째 시험을 본 직후에 나타났다. 8월에 치른 첫 시험보다 11월에 치른 두 번째 시험이 더 어렵게 출제되어 예상과 다른 결과가 나왔기 때문이었다. 수능 점수에 대한 학부모와 학생들의 불만이 커지기 시작했고, 언론에서도 수능 2회 실시에 대한 부정적인 보도를 쏟아냈다. 그 결과 1994년 2월 28일 교육부는 1995학년도부터 수능 실시 횟수를 2회에서 1회로 줄이고 수능을 인문계열, 자연계열, 그리고 예·체능계열로 분리하여 출제할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이 시기에 수능의 출제 관리를 담당하고 있던 국립교육평가원은 1994년 12월 23일에 정부 직제에서 폐지되었으나 한시적으로 1997년 12월 31일까지 존치되도록 하였다.

정부가 국립교육평가원을 폐지한다고 발표한 후, 5개월이 경과한 1995년 5월 31일에 대통령 자문 교육개혁위원회는 ‘세계화·정보화 시대를 주도하는 신교육체제 수립을 위한 교육개혁 방안’을 발표하면서 학업성취도 평가, 학교평가, 그리고 수능 관리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할 교육과정평가원을 설치 운영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러한 제안에 따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법이 1997년 8월 22일 제정되어 1998년 1월 1일자로 정부 출연기관 형태의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설립되었다. 국립교육평가원의 한시적 존치 기간이 종료되고 수능 전담기관이 달라짐에 따라 수능의 안정적 정착과 지속적인 관리 문제가 대두되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그 당시 국립교육평가원에 근무하던 공무원들 가운데 고사운영부 소속 공무원들을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1년 동안 파견 근무하게 함으로써 수능 관리에 만전을 기하였다.

(2) 수능 형성기의 대학입시제도

이 시기에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수능의 첫 시행일 것이다. 대학입학학력고사를 폐지하고 그 대신 도입한 수능의 성격은 대학 수학에 기초가 되고 공통적인 보편적 학력을 측정하는 시험으로서, 통합교과적인 소재를 활용하여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내용과 수준에 따라서 출제되는 사고력 중심의 학력고사라고 볼 수 있다. 수능은 국가가 출제와 채점, 시행과 관리의 일체를 관장하는 시험으로, 공공성과 객관성이 높은 전형 자료를 국가가 각 대학에 제공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 이 시험의 도입 목적은 암기 위주의 교육을 탈피하고 사고력을 신장하여 고등학교 교육의 정상화에 기여함과 동시에, 대학교육 적격자 선발 기능을 제고한다는 것이다.

대학별 고사는 대학의 특성 또는 계열별, 학과별 특성상 별도의 수학 능력을 측정할 필요가 있을 때 대학별로 시행할 수 있는 고사로서, 대학의 적격자 선발 기능을 제고하고 대학의 학생 선발권을 확대할 목적으로 도입되었다. 단, 고등학교 교육의 정상화를 저해하지 않도록 국어·수학·영어를 제외한 3과목 이내에서 각 대학이 결정할 수 있게 하였으며, 출제 내용과 수준을 준거로 하여 사고력, 판단력, 탐구 능력 등 고등 정신 능력을 가능한 한 주관식 문제 위주로 측정하도록 하였다. 이 밖에 음악, 미술, 체육 등 실기 능력이 중요시되는 학과에서는 실기고사를 실시하고, 과학 등 실험과 실습이 중요시되는 학과에서는 실험고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면접, 구술고사는 합격·불합격의 자료로만 활용하거나 총점의 10% 이내에서 입시 사정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고, 사범계 대학에서는 면접(10% 이내), 교직 적성 및 인성 검사(10% 이내)를 필수적으로 반영하도록 하였다.

이 시기의 학생 모집 방식은 전기·후기로 구분하여 모집하는 것은 종전과 같으나, 처음으로 전기·후기에

앞서 수능 성적 우수자를 대상으로 하는 특차 모집 제도가 도입되었다. 그리고 교육부장관이 설정한 학생 선발 기간 내에서 대학별로 입시 일자를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하고, 입시 일자가 다른 대학에는 복수로 입학 원서를 제출할 수 있게 하여 수험생의 대학 선택 폭을 넓힌 점이 특징이라고 하겠다. 그러나 복수 지원은 다음과 같이 제한하였다. 즉, ① 수험생은 입시 일자가 같은 대학에는 복수로 지원할 수 없다. ② 수능 우수자 특차 모집에는 2중 지원할 수 없다. ③ 특차 모집 합격자는 전기·후기 및 추가 모집 대학에, 전기 대학 합격자는 후기 및 추가 모집 대학에, 후기 모집 합격자는 추가 모집 대학에 지원할 수 없다. ④ 지원 제한을 위반하여 2중 지원한 학생은 컴퓨터로 조사, 확인하여 지원한 모든 대학의 합격을 무효로 한다. ⑤ 개방대학, 대학에 준하는 각종 학교, 특별법에 의하여 설치된 대학 및 전문대학은 지원 제한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등이다.

이 시기에 또 한 차례 입시제도가 개편되었다. 대통령 자문 교육개혁위원회에서 1995년 5월 31일 발표한 '신교육 체제 수립을 위한 교육 개혁 방안'의 일환으로 대학입학제도가 바뀌게 된 것이다. 즉, 국·공립 대학은 국가가 제시하는 기준에 따라 학생을 선발하고 사립 대학은 초·중등 교육의 정상화, 국민의 사교육비 부담 축소 등의 원칙하에 학생 선발 기준과 방식을 자율적으로 정하여 학생을 선발하도록 하였다. 국·공립 대학은 필수 전형자료로 종합생활기록부, 논술, 면접, 실기 등 다양한 전형 기준에 의해 학생을 선발함으로써 학교 교육의 정상화를 유도하고, 과열 과외를 완화하도록 한다는 것이다(교육개혁위원회, 1995).

이 시기 대학입학제도의 특징 중 하나는 종합생활기록부의 도입이다. 과거의 생활기록부에 근거한 내신 성적은 고교 3년 간의 모든 교과 성적 및 활동 내용을 하나의 총점으로 계산하고, 전체 석차를 구성비에 따라 등급화하는 방법을 택하고 있었다.

이러한 제도는 고등학교 3년 간의 모든 교육 활동을 오직 하나의 점수로 획일화하고 인위적으로 등급 화함으로써 학생들 간에 지나친 경쟁심을 유발하였다. 또한, 과열 과외를 초래하여 입시 고통을 가중시켰고, 학생들의 다양한 능력과 적성을 사장시켜 버렸다. 이런 비교육적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총점 위주의 내신제를 종합생활기록부로 대체하였다. 종합생활기록부는 약칭으로 '중생부'라고 불렀는데 그 어감이 좋지 않다는 여론과 기타 시행상의 문제로 인하여 1년도 되지 않아 '학교생활 기록부'로 명칭이 바뀌었다.

학교생활기록부(이하 학생부)는 고등학교에서의 교과 활동과 생활 전반에 걸친 기록을 보다 구체적으로 기술하여 학생들을 총체적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작성한 자료이다. 이것을 고등학교는 본연의 교육 목적에 따라 교수·학습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하고, 대학은 입학전형에서 학업 성적 이외에 다양한 자질을 평가하는 전형자료로 활용한다는 것이 도입 취지이다.

학생부를 도입하게 된 목적은 다음과 같다. ① 학업 성적 이외에 다양한 자질과 능력을 계발시키는 교육과정 운영으로 중등 교육의 정상화를 도모한다. ② 학생이 타고난 적성과 소질을 계발하고 육성하여 인간 교육을 실현한다. ③ 학업의 목표 지향적이고 종합적 결과를 대학입학전형에 반영하여 대학교육 적격자 선발 기능을 제고한다. 학생부의 구성 요소는 인적 사항, 학적 사항, 출결 사항, 신체 발달 사항, 심리 검사 사항, 수상 경력, 자격증 취득 사항, 진로 지도 사항, 특별 활동 사항, 봉사 활동 사항, 행동 발달 사항, 종합 의견, 교과 학습 활동 사항 등 모두 13가지이다.

이 시기에 국·공립 대학의 학생 선발은 학교생활 기록부를 필수 전형자료로 하고, 선택 전형자료로 수능, 논술, 면접, 실기 등을 활용하되, 국어·수학·영어 위주의 대학별 고시는 실시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대학별 고시는 학생부를 비롯한 고교내신 자료나

수능의 결과를 통해서도 확인하기 어려운 지원자의 능력과 인성을 평가하기 위한 시험으로, 대학 나름대로 실시하는 논술 등의 필답고사, 면접이나 구술고사, 실기·실형 고사, 교직 적성·인성 검사 등 다양한 형태로 실시되었다. 대학별 고사가 채택되었던 이유는 대학의 특수성이나 전공 계열 또는 학과의 특성을 고려하여 이에 알맞은 능력을 갖춘 학생들을 선발함으로써 대학의 적격자 선발 기능을 강화하고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 데 있었다.

나. 시험 체제와 점수 체제의 특징과 변화

형성기의 수능은 실험평가를 통해 마련된 시험 모형(교시별 시험 시간·영역별 배점·문항 수, 출제 기본 방향, 출제 범위, 시험 관리 및 채점·시험 결과 분석 및 성적통지 등)에 따라 시행되었으며, 시험 횟수가 거듭되면서 시험은 학교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되었다.

1994학년도 시험은 2회(1차 1993년 8월 20일, 2차 1993년 11월 16일) 실시되었으며, 수험생들이 두 번 응시한 경우, 그 가운데 좋은 성적으로 대학에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평가원에서는 두 시험이 일관성을 유지하고 영역별 난이도가 동일 수준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였다. 그러나 실제 두 시험 간에

약 8.2점(100점 만점 환산점수 4.1 점)의 점수 차이가 발생함으로써 난이도 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되었다.

출제위원회의 문항 검토 과정에서 고등학교 교사로 구성된 검토위원들의 면밀한 난이도 조정이 있었지만, 원점수제를 채택하고 있는 당시 제도로서는 불가피한 일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학교, 학부모, 언론 등에서 '1회 실시' 요구가 강력하게 대두되었다. 또한 고등학교의 계열에 관계없이 공통 문제로 시험을 실시함에 따라 많은 일선 고등학교에서 계열별 심화 과목(자연계열의 수학Ⅱ, 물리, 화학과 인문계열의 세계지리, 사회문화)을 등한시하거나 전혀 다루지 않는 등, 교육과정을 파행적으로 운영하는 부작용이 나타났다. 그래서 수능이 고등학교 교육의 정상화에 역작용을 불러왔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대학 입학 학력고사와 같이 계열별로 분리 실시하는 대안이 등장하게 되었다.

(1) 시험모형

(가) 1994학년도 1, 2차 수능

1994학년도 1차 및 2차 시험의 영역별 문항 수, 배점 및 출제 범위는 각각 <표 2-2-1>과 <표 2-2-2>와 같다.

<표 2-2-1> 1994학년도 1차·2차 수능의 영역별 시험 시간, 문항 수 및 배점

교시	시험 시간	시험 영역	문항 수(개)	배점(점)	문항 배점(점)	비고	
1교시	90분	언어	60	60	0.8, 1, 1.2	듣기 문항 6개	
2교시	70분	수리·탐구(Ⅰ)	20	40	2		
3교시	100분	수리·탐구(Ⅱ)	사회탐구	27	27	0.8, 1, 1.2	
			과학탐구	33	33		
4교시	80분	외국어(영어)	50	40	0.8		
계	340분	-	190	200	-		

〈표 2-2-2〉 1994학년도 수능의 영역별 출제 범위

시험 영역	문항 수(개)	관련 교과 및 출제 범위
언어	60	전 교과(국어 교과, 인문, 사회, 과학, 예술 분야)
수리·탐구(I)	20	일반수학, 수학 I
수리·탐구(II)	사회탐구	국사, 국민윤리, 한국지리, 정치경제, 세계사
	과학탐구	과학 I, 과학 II
외국어(영어)	50	전 교과
계	190	-

〈표 2-2-3〉 1995~1996학년도 수능의 영역별 시험 시간, 문항 수 및 배점

교시	시험 시간	시험 영역	문항 수(개)	배점(점)	문항 배점(점)	비고
1교시	90분	언어	60	60	0.8, 1, 1.2	듣기 문항 6개
2교시	90분	수리·탐구(I)	30	40	1, 1.5, 2	
3교시	100분	사회탐구	인문	36	36	0.8, 1, 1.2
			예·체능			
			자연	24	24	
		과학탐구	인문	24	24	
			예·체능			
			자연	36	36	
4교시	80분	외국어(영어)	50	40	0.6, 0.8, 1	듣기 문항 8개
계	360분	-	200	200	-	

(나) 1995, 1996학년도 수능

1995학년도 시험은 1994학년도 1, 2차 시험 간의 난이도 차이로 인한 혼란을 줄이기 위해 연 1회 실시하고,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정상적인 운영과 계열의 특성을 살리기 위해 계열별(인문, 자연, 예·체능)로 분리 출제하는 새로운 시험모형을 채택하였다.

이 모형에서 1994학년도 시험과 달라진 점은 다음과 같으며 시험모형과 출제 범위는 각각 〈표 2-2-3〉과 〈표 2-2-4〉와 같다.

- 수리·탐구 영역(I)의 시험 시간을 90분(70분 → 90분)으로 확대하고, 총 시험 시간을 360분으로 확대하였다.
- 수리·탐구 영역(I)의 문항 수를 30문항(20문항 → 30문항)으로 확대하고, 이 가운데 주관식 단답형 문항을 6문항 출제하였으며, 문항 배점은 1점, 1.5점, 2점으로 차등 배점하였다.
- 수리·탐구 영역에서 계열별로 구분하여 출제하는데 75% 정도는 공통 출제하고 25% 정도는 계열별로 구분 출제하도록 하였다.
- 수리·탐구 영역(II)의 사회탐구와 과학탐구의

〈표 2-2-4〉 1995~1998학년도 수능의 영역별 출제 범위

시험 영역			문항 수(개)		관련 교과 및 출제 범위	
			공통	계열	공통	계열
언어			60	0	전 교과(국어 교과, 인문, 사회, 과학, 예술 분야)	
수리·탐구(I)			21	9	일반수학, 수학 I	수학 II
수리·탐구(II)	사회 탐구	인문	24	12	국사, 국민윤리, 한국지리, 정치경제, 세계사	사회문화, 세계지리
		예·채능				-
		자연	24	0		-
	과학 탐구	인문	24	0	과학 I, 과학 II	-
		예·채능				-
		자연	24	12		물리, 화학
외국어(영어)			50		전 교과	
계			200		-	

배점 비율은 인문계열과 예·채능계열은 6:4로 하고, 자연계열은 4:6으로 하였다.

- 외국어(영어) 영역에서 듣기·말하기 문항을 10문항(8문항→10문항)으로 확대하였다.

1995학년도 시험은 1994학년도의 시험모형을 유지하되, 11월 중에 1회 실시하고 계열별(인문, 자연, 예·채능)로 일부 문항을 달리하여 출제하였다. 1996학년도 시험은 1995학년도의 시행 원칙을 유지하되, 외국어(영어) 영역에서 듣기 문항 수를 10개로 늘리고 종합적 이해 능력을 측정하는 문항을 확대하여 변별력을 제고하도록 하였다.

이 시기의 수능은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내용과 수준에 맞추어 사고력 중심의 고등정신능력을 적절히 평가함으로써, 대학 수학 적격자의 선발과 고등학교 교육의 정상화에 모두 기여할 수 있는 평가 도구로서 당초 기대했던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하였다고 평가되었다. 고등학교 교육 현장도 과거의 암기 위주의 주입식 입시 교육에서 점차 탈피하여 탐구 중심, 사고

중심, 문제 해결 중심, 창의력 개발과 표현 중심의 교수·학습 방법으로 점진적으로 개선되고 있고 수능에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특히 이 시기 실시된 설문 조사에서 고등학교 교사들은 수능이 대체로 고등학교 교육의 정상화에 기여하며 대학 수학 능력을 측정할 수 있다고 평가하였다.

(다) 1997, 1998학년도 수능

1997학년도 시험에서는 1996학년도 시험모형을 다음과 같이 수정하였다. 시험모형과 출제 범위는 각각 〈표 2-2-5〉와 〈표 2-2-6〉과 같다.

- 영역별 시험 시간을 조정(언어 90분→100분, 수리·탐구 영역(I) 90분→100분, 수리·탐구 영역(II) 100분→110분)하여 총 시험 시간을 360분에서 390분으로 확대하였다.
- 문항 수는 200개에서 230개로 확대하였는데, 언어 영역 60문항→65문항, 수리·탐구

〈표 2-2-5〉 1997~1998학년도 수능의 영역별 시험 시간, 문항 수 및 배점

교시	시험 시간	시험 영역		문항 수(개)	배점(점)	문항 배점(점)	비고	
1교시	100분	언어		65	120	1.6, 1.8, 2	듣기 6문항	
2교시	100분	수리 · 탐구(I)		30	80	2, 3, 4	주관식 6문항	
3교시	110분*	수리 · 탐구(II)	사회 탐구	인문, 예·체능	48	72	1, 1.5, 2	
				자연	32	48		
			과학 탐구	인문, 예·체능	32	48		
				자연	48	72		
4교시	80분	외국어(영어)		55	80	1, 1.5, 2	듣기 · 말하기 17문항	
계	390분**			230	400			

* 1998학년도 120분

** 1998학년도 400분

〈표 2-2-6〉 1997~1998학년도 수능의 영역별 출제 범위

시험 영역		문항 비율		관련 교과 및 출제 범위		
		공통	계열	공통	계열	
언어		100%	0	전 교과(국어 교과, 인문, 사회, 과학, 예술 분야)		
수리 · 탐구(I)	인문	70% 내외	30% 내외	일반수학, 수학 I *	수학 II	
	예 · 체능					
	자연					
수리 · 탐구(II)	사회 탐구	인문	67% 내외	국사, 국민윤리, 정치 · 경제, 한국지리, 세계사	사회 · 문화, 세계지리	
		예 · 체능	67% 내외		국사, 국민윤리, 정치 · 경제, 한국지리, 세계사	
		자연	100%		0	
	과학 탐구	인문	100%	0	과학 I, 과학 II **	물리, 화학
		예 · 체능				
		자연				
외국어(영어)		100%	0	전 교과		

* 자연계열의 경우, 수학 I 은 수학 II 중에서 수학 I 의 내용과 공통 부분

** 자연계열의 경우, 과학 II 는 물리, 화학 중 과학 II 의 내용과 공통 부분

영역(II) 60문항→80문항, 외국어(영어) 영역 50문항→55문항, 특히 외국어(영어) 영역의 듣기 · 말하기 문항 수를 10문항에서 17문항으로 확대하였다.

○ 배점은 200점에서 400점으로 확대하였다.

○ 문항 배점은 언어 영역 1.6점, 1.8점, 2점, 수리 · 탐구 영역(I) 2점, 3점, 4점, 수리 · 탐구 영역(II) 1점, 1.5점, 2점, 외국어(영어) 영역 1점, 1.5점, 2점으로 차등 배점하였다.

1998학년도 시험에서는 시험 시간을 일부 조정

(3교시 수리·탐구(Ⅱ) 110분→120분)하여 총 시험 시간을 400분으로 확대하였다.

(2) 출제의 기본 방향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수능은 대학에서 수학하는 데 필요한 능력을 평가하기 위하여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내용과 수준에 맞추어 언어, 수리·탐구, 외국어(영어) 영역별로 통합교과적인 소재를 바탕으로 하여 사고력 중심으로 평가하는 발전된 학력 고사라고 규정하였다.

1993년에 처음으로 시행된 수능은 시험의 기본 성격에 따라 출제 기본 방향을 설정하고, 이러한 기본 방향에 입각한 출제 원칙을 최대한 지키려고 노력하였으나, 이후 교육 환경의 변화에 따라 부분적으로 바뀌었다. 연도별 출제 기본 방향은 다음과 같다.

(가) 1994학년도 수능

수능 시행 첫 해의 출제 기본 방향은 그동안 7차례 실험평가에서 검증된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7개 세부 출제 원칙으로 나타났다.

-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수준과 내용에 맞추어 고등학교의 여러 계열, 교과목에서 공통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출제한다.
- 고등학교에서 이수하는 모든 교과목과 관련된 교과서 내외의 범교과적 소재를 활용하되, 가능한 한 문제 상황 중심의 통합교과적 소재를 활용하여 출제한다. 단, 교과서 이외의 소재를 바탕으로 문항을 제작할 때에는 그 내용과 수준이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준하도록 하되, 지역별·성별·계열별로 차별 기능 문항이 없도록 한다.

- 단순한 기억력이나 암기력 평가를 지양하고 사고력을 측정하도록 출제한다.
- 속도 검사가 아니라 역량 검사가 되도록 출제한다. 이를 위해 문항 당 언어 영역 1.5분, 수리·탐구 영역(Ⅰ) 3.5분, 수리·탐구 영역(Ⅱ) 1.7분, 외국어(영어) 영역 1.6분씩 시간을 배분한다.
- 문항의 형태는 5지선다형 객관식으로 하며, 정답이 2개 이상인 문항과 “정답 없음”과 같은 문항도 출제한다. 단, 문제지는 공정한 시험 관리를 위해 2종 이상의 형태로 편집 제작한다.
- 고등학교 교육을 정상화하기 위해 언어 영역과 외국어(영어) 영역에서는 일정 비율의 ‘듣기’ 문항을 출제한다.
- 문항별 예상 정답률은 20~80% 수준을 유지 하되, 영역별 평균 점수는 상위 50% 집단의 평균 점수가 50~60점이 되도록 출제한다. 수리·탐구 영역은 고등학교에서 학습한 학력을 바탕으로 한 교과(수학, 과학, 사회 등) 관련 내용의 출제 비율을 높여 난이도를 조절하고, 특히 시험의 난이도는 1차 시험과 2차 시험이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한다.

(나) 1995학년도 수능

1995학년도 수능 출제의 기본 방향은 1994학년도 출제 기본 방향에 준하되, 시험의 변별력을 제고하기 위해 영역별 문항 수와 문항 배점을 다음과 같이 조정하기로 발표하였다.

- 수리·탐구 영역(Ⅰ)의 문항 수를 30개로 늘리고, 문항 배점을 1점, 1.5점, 2점으로 차등 배점하되, 사고의 수준이 높고 복합적인 사고를 요하는 문항에 많은 배점을 주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표 2-2-7〉 1994~1998학년도 수능의 지원자 및 응시자 현황

학년도	지원자 수(명)	응시자 수(명)	응시율(%)
1994 1차	742,668	716,326	96.5
1994 2차	750,181	726,634	96.9
1995	781,749	757,488	96.9
1996	840,661	809,867	96.3
1997	824,374	795,338	96.5
1998	885,321	854,272	96.5

(다) 1996학년도 수능

1996학년도 수능 출제의 기본 방향은 1995학년도와 동일하였다.

(라) 1997학년도 수능

시험의 변별 기능을 확대하고, 대학에서 수학할 능력을 제대로 측정하기 위하여 1997학년도 시험의 출제 기본 방향을 다음과 같이 일부 수정하였다.

- 문항의 형태는 5지선다형 객관식으로 하여 정답이 2개 이상인 문항과 '정답 없음'과 같은 문항도 출제하되, 수리·탐구 영역(I)에서는 주관식 문항을 20%(6개) 포함하며, 정답은 숫자로 나타내도록 하여 그것을 OMR 답지에 표기하도록 한다.
- 언어 영역에 6개의 듣기 문항을, 외국어(영어) 영역에 17개의 듣기·말하기 문항을 출제한다.
- 동점자를 줄이고 변별 기능을 높이기 위해 문항당 배점을 언어 영역은 1.6점, 1.8점, 2점, 수리·탐구(I)은 2, 3, 4점, 수리·탐구(II)와 외국어(영어) 영역은 1, 1.5, 2점으로 차등 배점하며, 총점을 400점으로 한다.

(마) 1998학년도 수능

1998학년도 수능의 출제 기본 방향은 그동안 5차례에 걸친 시험으로 정착되어 가고 있다는 판단 하에, 잦은 시험 체제의 변화로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에게 혼란을 주지 않기 위하여 1997학년도와 동일하게 적용하였다.

(3) 응시 현황**(가) 전체 응시 현황**

수능 첫 시행 연도인 1994학년도부터 1998학년도까지 형성기의 지원자와 응시자 수는 〈표 2-2-7〉과 같다.

응시자는 1994학년도 1차 시험에서 716,326명 그리고 2차 시험에서 726,634명이었다. 1995학년도 757,488명, 1996학년도 809,867명으로 증가하다가 1997학년도 795,338명으로 약간 감소한 후 1998학년도에 854,272명으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보면 형성기의 응시자 현황은 1997학년도에 약간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지만, 수능 응시자는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2-8〉 1994~1998학년도 수능의 계열별 응시자 현황

(단위: 명)

학년도	인문	자연	예·체능	계
1994 1차	325,171	328,199	62,926	716,326
1994 2차	331,749	332,624	62,261	726,634
1995	359,772	326,745	70,971	757,488
1996	391,450	344,931	73,486	809,867
1997	378,374	344,780	72,184	795,338
1998	411,753	362,849	79,670	854,272

〈표 2-2-9〉 1994~1998학년도 수능의 성별 응시자 현황

(단위: 명)

학년도	남	여	계
1994 1차	419,977	296,349	716,326
1994 2차	428,952	297,682	726,634
1995	437,113	320,375	757,488
1996	460,205	349,662	809,867
1997	454,381	340,957	795,338
1998	476,525	377,747	854,272

(나) 계열별 응시 현황

수능 첫 시행 연도인 1994학년도부터 1998학년도 까지 형성기의 계열별 응시자 현황을 제시하면 〈표 2-2-8〉과 같다.

수능의 계열별 응시자는 1994학년도 1차 시험과 2차 시험에서는 자연계열 응시자가 인문계열에 비해 약간 많았다. 그러나 1995학년도 이후에는 인문계열 응시자가 계속 증가하여, 1995~1998학년도는 인문계열 응시자가 자연계열에 비해 약 5만 명 정도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 성별 응시 현황

수능 첫 시행 연도인 1994학년도부터 1998학년도 까지 성별 응시자 현황을 제시하면 〈표 2-2-9〉와 같다.

형성기의 성별 응시자 현황을 보면, 1994~1997학년도에는 남자가 여자에 비해 12~13만 명 정도 많았는데, 1998학년도부터 약 10만 명 정도의 차이로 차츰 줄어들기 시작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남녀 격차가 줄어드는 현상은 1999학년도 이후에도 지속 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4) 시험 시행

(가) 1994학년도 1차, 2차 수능

1994학년도 1차 수능은 1993년 8월 20일 오전 9시부터 전국 51개 시험 지구, 658개 고사장에서 실시되었다. 이 시험에 지원한 수험생 총 742,668명 중에서 결시생을 제외한 실제 시험 응시생은 716,326명(응시율 96.5%)으로, 31명의 시각 장애자와 46명의 약시자 및 47명의 청각 장애자가 포함되어 있다.

1994학년도 2차 수능은 1993년 11월 16일 오전 9시부터 전국 51개 시험 지구, 664개 고사장에서 실시되었다. 이 시험에 지원한 수험생 총 750,181명 중에서 결시생을 제외한 응시생은 726,634명(응시율 96.9%)으로, 응시자 수가 1차 시험에 응시한 716,326명보다 10,308명이 더 많았다. 여기에는 시각 장애자 28명, 약시자 45명, 그리고 청각 장애자 55명이 포함되어 있다. 1차 시험에 응시했던 수험생 가운데 2차 시험을 포기한 수험생은 61,893명이었다.

(나) 1995학년도 수능

1995학년도 수능은 1994년 11월 23일 오전 9시부터 전국 56개 시험 지구, 702개 시험장에서 실시되었다. 이 시험에 지원한 수험생 총 781,749명 중에서 실제 응시생은 757,488명(응시율 96.9%)이었는데, 응시자 수는 1994학년도 2차 시험에 응시한 726,634명보다 30,854명이 더 많았다. 여기에는 시각 장애자 28명, 약시자 56명, 그리고 청각 장애자 69명이 포함되어 있었다.

(다) 1996학년도 수능

1996학년도 수능은 1995년 11월 22일 오전 9시부터 전국 59개 시험 지구, 749개 고사장에서 실시되었다. 이

시험에 지원한 수험생 총 840,661명 중에서 결시생을 제외한 응시생은 809,867명(응시율 96.3%)으로, 1995학년도 시험에 응시한 757,488명보다 52,379명이 더 많은 것으로 집계되었다.

(라) 1997학년도 수능

1997학년도 수능은 1996년 11월 13일 오전 9시부터 전국 67개 시험 지구, 771개 고사장에서 실시되었다. 이 시험에 지원한 수험생 총 824,374명 중에서 결시생을 제외한 응시생은 795,338명(응시율 96.5%)으로, 1996학년도 시험에 응시한 809,867명보다 14,529명이 더 적었다. 수능 첫 시행 이래 응시자 수가 계속적으로 증가하다가 1997학년도에 처음으로 감소하는 현상이 일어났다.

(마) 1998학년도 수능

1998학년도 수능은 1997년 11월 19일 오전 9시부터 전국 69개 시험 지구, 820개 고사장에서 실시되었다. 이 시험에 지원한 수험생 총 885,321명 중에서 결시생을 제외한 응시생은 854,272명(응시율 96.5%)으로, 1997학년도 시험에 응시한 795,338명보다 58,934명이 더 많았다.

(5) 성적 분석

(가) 전체 및 상위 50% 성별 총점의 평균점수와 표준편차

형성기 중 1994학년도부터 1997학년도까지 시험에서는 상위 50% 집단의 평균 점수가 50~60점이 되도록 난이도를 맞추는 출제의 기본 방향을 고수하였다. 그러나 1997년 11월에 실시한 1998학년도

시험부터 수험생의 수험 부담을 줄이고 고등학교 교육을 정상화시키며 사교육비를 절감하고 수능의 영향력을 최소화한다는 목표로 정부 정책이 달라짐에 따라 해마다 난이도 목표를 상위 50% 집단의 50~60점, 60~70점, 75점, 77.5±2.5점으로 연차적으로 상향 조정하면서 문제를 쉽게 출제하기 시작하였다.

수능 형성기의 전체 집단과 상위 50% 집단의 성별 총점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제시하면 <표 2-2-10>과 같다.

전체 집단의 시험 성적을 보면 1994학년도부터 1997학년도까지 40점대를 유지하였으나, 1998학년도에는 수능의 난이도 목표를 수정함에 따라 53.1점으로 처음으로 50점대로 상향 조정되었다. 이와 마찬가지로 상위 50% 집단의 시험 성적을 보면 1994학년도부터 1997학년도까지 50~60점대를

유지하였으나, 1998학년도에는 67.7점으로 수능이 도입된 이래 가장 높은 점수를 보였다.

(나) 영역별 · 성별 총점의 평균점수와 표준편차

수능 형성기의 영역별 · 성별 총점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제시하면 <표 2-2-11>과 같다.

1998학년도를 제외한 수능 형성기에서 영역별 총점의 평균점수는 언어 영역은 50점대, 수리 · 탐구 영역(Ⅱ)과 외국어(영어) 영역은 40점대, 수리 · 탐구 영역(Ⅰ)은 20~30점대로서 특히 수리 · 탐구 영역(Ⅰ)은 목표 수준(평균 50~60점대)에서 크게 벗어나고 있다. 표준편차는 외국어(영어) 영역은 20점대를 나타내고 있으나 다른 영역은 비교적 적절하게 나타났다.

<표 2-2-10> 1994~1998학년도 수능의 전체 및 상위 50% 성별 총점의 평균점수와 표준편차

(단위: 점)

학년도	구분 성별	전체			상위 50% 집단		
		남	여	계	남	여	계
1994 1차	평균점수	49.7	48.5	49.2	62.6	60.2	61.7
	표준편차	16.5	14.4	15.7	10.6	9.6	10.3
1994 2차	평균점수	44.6	44.3	44.5	55.7	53.5	54.8
	표준편차	13.5	11.9	12.9	9.3	8.2	8.9
1995	평균점수	49.7	49.8	49.7	63.3	60.7	62.2
	표준편차	15.9	14.0	15.1	9.9	8.9	9.6
1996	평균점수	46.0	46.1	46.1	58.6	56.6	57.7
	표준편차	14.7	13.2	9.3	9.3	8.3	9.0
1997	평균점수	42.4	43.1	42.7	55.1	52.9	54.1
	표준편차	-	-	-	-	-	-
1998	평균점수	52.9	53.5	53.1	69.0	66.3	67.7
	표준편차	-	-	-	-	-	-

〈표 2-2-11〉 1994~1998학년도 수능의 영역별·성별 총점의 평균점수와 표준편차

(단위: 점)

학년도	구분	언어		수리·탐구(I)		수리·탐구(II)		외국어(영어)		전체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계
1994 1차	평균	62.4	63.7	42.4	38.8	-	-	48.9	49.7	49.7	48.5	49.2
	표준편차	18.3	16.7	15.6	13.1	-	-	22.5	20.8	16.5	14.4	15.7
1994 2차	평균	53.6	55.3	27.9	24.1	43.6	42.3	49.4	51.4	44.6	44.3	44.5
	표준편차	14.9	14.0	14.9	12.2	14.8	13.4	21.3	19.5	13.5	11.9	12.9
1995	평균	61.6	64.2	62.9	36.6	32.7	34.9	43.9	43.1	49.7	49.8	49.7
	표준편차	17.8	16.2	17.1	17.7	15.0	16.8	13.9	12.2	13.3	23.7	22.2
1996	평균	52.9	54.6	35.3	34.5	43.3	41.7	50.5	51.6	46.0	46.1	46.1
	표준편차	15.3	13.9	15.1	13.0	14.4	13.1	22.8	21.5	14.7	13.2	14.1
1997	평균	52.7	55.6	29.4	27.7	40.1	39.9	43.2	44.7	42.4	43.1	42.7
1998	평균	63.5	66.3	39.1	36.1	49.7	49.5	55.4	57.5	52.9	53.5	53.1

〈표 2-2-12〉 1994~1998학년도 수능의 계열별·성별 총점의 평균점수

(단위: 점)

학년도	구분	인문		자연		예·체능		전체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계
1994 1차		50.8	47.7	50.1	52.7	39.5	42.9	49.7	48.5	49.2
1994 2차		45.4	43.9	45.0	47.8	36.5	38.9	44.6	44.3	44.5
1995		51.1	48.9	49.7	54.7	41.5	44.5	49.7	49.8	49.7
1996		47.4	45.3	46.0	50.7	39.3	41.8	46.1	46.0	46.1
1997		43.8	42.1	42.3	48.1	35.7	38.6	42.4	43.1	42.7
1998		54.7	52.3	53.0	59.9	42.8	46.9	52.9	53.5	53.1

(다) 계열별, 성별 총점의 평균점수

수능 형성기의 계열별·성별 총점의 평균을 제시하면 〈표 2-2-12〉와 같다.

형성기 수능에서 계열별 성적을 보면(1994학년도 1차 시험과 2차 시험은 계열 구분이 없었고, 다만 희망 계열별로 통계 처리했음), 남자의 경우 인문계열과 자연계열은 계열에 관계없이 성적이 서로 비슷한

경향을 보이고 있으나, 여자의 경우 자연계열이 인문계열보다 3.9~7.6점 정도씩 더 높았다.

(라) 계열별, 영역별, 성별 총점의 평균점수

1) 인문계열 영역별, 성별 총점의 평균점수

수능 형성기의 인문계열 영역별·성별 총점의 평균을 제시하면 〈표 2-2-13〉과 같다.

〈표 2-2-13〉 1994~1998학년도 수능의 인문계열 영역별 · 성별 총점의 평균점수

(단위: 점)

학년도	구분		언어		수리 · 탐구(I)		수리 · 탐구(II)		외국어(영어)		전체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계	
1994 1차	64.9	63.6	41.8	37.5	-	-	52.1	49.5	50.8	47.7	49.1	
1994 2차	55.5	55.2	26.3	22.6	43.6	41.7	52.3	51.5	45.4	43.9	44.6	
1995	63.6	63.6	34.8	30.4	45.9	43.0	55.6	54.4	51.1	48.9	49.9	
1996	54.2	53.9	37.0	34.0	44.2	40.8	52.3	50.2	46.0	46.1	46.1	
1997	54.3	54.7	26.7	26.3	36.0* 46.3	40.0 39.8	45.0	43.1	43.8	42.1	42.8	
1998	65.3	65.3	38.7	33.6	59.4 43.7	55.6 40.0	57.1	55.8	54.7	52.3	53.3	

* 1997학년도부터 수리 · 탐구 영역(II)을 사회탐구와 과학탐구로 구분하여 분석함.

형성기에서 인문계열의 영역별, 성별 총점의 평균 점수는 1997학년도와 1998학년도의 언어 영역과 1997학년도 사회탐구 영역을 제외한 모든 영역에서 남자가 여자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언어 영역은 성별로 보면, 남녀 성적이 비슷한 경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보면 1994학년도 1차 시험과 1995학년도 및 1998학년도 시험에서는 63~65점대를 기록했으나, 1994학년도 2차 시험과 1996학년도 및 1997학년도 시험에서는 54~55점대를 나타내고 있어 연도가 달라지면서 성적이 오르내리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수리 · 탐구 영역(I)은 남자에 비해 여자가 4점 정도 낮게 나타났다. 연도별로 보면 1994학년도 2차 시험(1차 시험은 과학탐구와 사회탐구가 함께 포함되었기 때문에 생략)은 22~26점대이었으나, 1995학년도, 1996학년도 시험은 30~37점대로 상승하다가 1997학년도에는 26점대로 낮아졌다가 1998학년도에는 33~38점대로 상승하고 있다.

수리 · 탐구 영역(II)는 성별로 보면 1997학년도 사회탐구 영역을 제외하고, 남자가 여자에 비해 평균 2~4점 높게 나타나고 있고, 연도별로 보면 점수의

기복이 그다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어(영어) 영역은 성별로 보면 남자가 여자에 비해 1~2점 정도 높고, 연도별로 보면 거의 50~55점대를 보이고 있어 비교적 안정된 점수를 나타내었다.

2) 자연계열 영역별, 성별 총점의 평균점수

수능 형성기의 자연계열 영역별 · 성별 총점의 평균을 제시하면 〈표 2-2-14〉와 같다.

형성기의 자연계열 영역별, 성별 총점의 평균점수는 인문계열과 반대로 전 영역에서 남자가 여자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언어 영역은 성별로 보면 첫 시험인 1994학년도 1차 시험에서는 남자가 여자보다 3.5점 높았으나, 그 후 시험에서는 남자가 오히려 여자보다 4~7점 정도 낮은 성적을 나타냈다. 연도별로 보면 1994학년도 1차 시험과 1995학년도 및 1998학년도 시험에서는 61~71점대를 기록했으나, 1994학년도 2차 시험과 1996학년도 및 1997학년도 시험에서는 52~60점대를 나타내고 있어 연도에 따라 성적이 등락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수리 · 탐구 영역(I)은 성별로 보면 1994학년도

1, 2차 시험과 1997학년도 시험에서는 남·녀가 서로 비슷했으나, 1995, 1996, 1998학년도 시험에서는 여자가 남자보다 3~5점 정도 높게 나타났다. 연도별로 보면 1994학년도 2차 시험(1차 시험은 과학탐구와 사회탐구가 함께 포함되었기 때문에 생략)과 1997학년도 시험은 28~29점대로 낮았으나, 1995학년도와 1996학년도 시험은 34~41점대를, 그리고 1998학년도 시험은 40~46점대를 보이고 있다.

수리·탐구 영역(II)은 성별로 보면 남자가 여자에 비해 평균 1~3점 정도 낮게 나타나고 있고, 연도별로 보면 점수의 기복이 그다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탐구와 과학탐구로 구분하여 분석한 1997학년도보다 1998학년도의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외국어(영어) 영역은 성별로 보면 인문계열과 달리 남자가 여자에 비해 9~12점 정도 낮으며, 연도별로 보면 거의 48~55점대를 기록하고 있어 비교적 안정

〈표 2-2-14〉 1994~1998학년도 수능의 자연계열 영역별·성별 총점의 평균점수

(단위: 점)

구분 학년도	언어		수리·탐구(I)		수리·탐구(II)		외국어(영어)		전체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계
1994 1차	69.9	66.3	43.7	44.0	-	-	48.3	53.7	50.1	52.7	50.7
1994 2차	53.3	57.6	29.4	28.7	44.4	45.7	48.9	55.1	45.0	47.8	45.7
1995	61.3	68.2	38.9	41.8	43.2	45.2	49.5	61.9	49.7	54.7	51.0
1996	52.8	58.3	34.7	37.1	43.5	46.5	50.7	59.4	46.0	46.1	46.1
1997	52.5	60.0	26.7	26.3	43.3* 39.5	46.6 43.2	45.0	43.2	42.3	48.1	43.7
1998	63.4	71.4	40.7	46.3	53.3 45.8	58.5 49.9	56.0	65.8	53.0	59.9	54.7

* 1997학년도부터 수리·탐구 영역(II)을 사회탐구와 과학탐구로 구분하여 분석함.

〈표 2-2-15〉 1994~1998학년도 수능의 예·체능계열 영역별·성별 총점의 평균점수

(단위: 점)

구분 학년도	언어		수리·탐구(I)		수리·탐구(II)		외국어(영어)		전체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계
1994 1차	52.6	58.8	33.0	33.8	-	-	36.2	41.6	39.5	42.9	41.4
1994 2차	45.6	50.2	22.4	21.1	36.1	37.1	37.5	42.4	36.5	38.9	37.9
1995	53.8	59.6	26.9	26.6	38.6	39.9	41.6	46.8	41.5	44.5	43.2
1996	47.1	51.3	31.0	31.8	36.9	37.6	39.7	44.0	39.3	41.8	40.8
1997	46.0	51.3	23.2	23.6	43.3* 39.5	46.6 43.2	33.3	37.3	35.7	38.6	37.3
1998	55.0	61.5	27.5	28.8	53.3 45.8	58.5 49.9	43.7	49.8	42.8	46.9	45.1

* 1997학년도부터 수리·탐구 영역(II)을 사회탐구와 과학탐구로 구분하여 분석함.

된 점수를 나타내고 있다.

3) 예·체능계열 영역별, 성별 총점의 평균점수

수능 형성기의 예·체능계열 영역별·성별 총점의 평균을 제시하면 다음 <표 2-2-15>와 같다.

형성기의 예·체능계열 성적도 인문계열이나 자연계열과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1994학년도 2차 시험과 1995학년도 시험의 수리·탐구 영역(I)을 제외한 다른 영역에서는 여자의 성적이 남자보다 높게 나타났고, 연도에 따라 성적의 등락이 있음을 알 수 있다.

(6) 연도별 특이 사항

형성기의 수능에서 나타난 변화와 연도별 특이

사항을 정리하면 <표 2-2-16>과 같다.

위 표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형성기 수능은 1994학년도 첫 시행 이후 1998학년도까지 국립교육평가원 주관 하에 커다란 변화 없이 일관성 있게 시행되었다고 볼 수 있다. 국가고사 역사상 처음으로 수능을 연 2회 실시한 다음 해에 곧바로 연 1회 시행으로 회귀하게 되었다. 형성기에서 가장 큰 변화는 1997학년도라고 할 수 있다. 수리·탐구 영역(II)에서 사회탐구 영역과 과학탐구 영역을 계열별로 문항 수와 배점을 다르게 하도록 하였다. 문항 수도 200 문항에서 230 문항으로 확대하였고, 수리·탐구 영역(I)의 30문항 가운데 6문항을 주관식으로 출제하였고, 외국어(영어) 영역 가운데 듣기·말하기 문항을 10개에서 17개로 확대하였으며, 모든 영역에 걸쳐 차등 배점을 적용하였으며, 총점도 200점에서 400점으로 확대하였다. 또한 영역별 시험 시간을 조정하고 총 시험 시간을

<표 2-2-16> 1994~1998학년도 수능의 특징 개관

학년도	구분	시험 횟수	시간 (분)	영역	계열	점수 체제	문항 수	배점 (점)	문항 배점	상위 50% 평균 점수(점)	
										기대목표	실제
1994		2회	340	4영역	구분 없음	원점수	190	200	균등 배점	50~60	62.0 (1차) 54.8 (2차)
1995		1회	360	4영역	인문 자연 예·체능	원점수 백분위	200	200	수리·탐구(I) 차등 배점	50~60	62.2
1996		1회	360	4영역	인문 자연 예·체능	원점수 백분위	200	200	수리·탐구(I) 차등 배점	50~60	57.7
1997		1회	390	사회·과학 탐구 구분	인문 자연 예·체능	원점수 백분위	230	400	전 영역 차등 배점	50~60	54.1
1998		1회	400	사회·과학 탐구 구분	인문 자연 예·체능	원점수 백분위	230	400	전 영역 차등 배점	50~60	67.7

360분에서 390분으로 확대하였다.

다. 이슈와 여적

(1) 수능 연 2회 실시

1982학년도부터 1993학년도까지의 대학입학 학력고사는 전기, 후기, 전문대학으로 구분하여 시행되었지만, 매년 1회 시행한 결과를 대학입학의 전형 기준으로 사용하고 폐기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어 왔다. 수험생의 시험 당일 건강과 같은 신체 조건이나 실수 때문에 생기는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여러 번의 시험을 치를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그 당시의 여론을 반영하여 1991년 4월 2일에 교육부는 1994학년도에 처음 시행되는 수능을 연 2회 실시할 것을 확정하여 발표하였다. 이러한 교육부의 정책에 따라 1994학년도에는 국가고사 역사상 처음으로 8월 20일과 11월 16일에 연 2회 시험이 실시되었다.¹⁾

연 2회 시행한 결과에 대한 학생, 학부모, 일선 고등학교 교사들의 불만이 크게 야기되었다. 1차 시험 후 학생들의 3개월 간의 공부 기간이 있었고 1차의 출제위원과 검토위원들 40%가 2차 시험에 다시 출제에 참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난이도 조정에 실패하였다. 난이도 조정의 실패로 인해 수험생과 학부모들은 재응시로 시간과 노력만 허비했다고 극심한 불만을 제기하였다.

또한 연 2회 출제로 인한 예산과 인력의 부담도 적지 않은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출제본부를 위한

호텔 사용료, 출제위원과 검토위원의 수당, 감독관 수당, 인쇄 비용 등 시험 관리에 소요되는 예산이 당시 1회에 70여 억 원이 소요되었다. 물론 이는 응시생이 내는 1만 2천원의 전형료로 충당한다지만 시험의 효용성에 비하면 낭비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았다.

실험평가 당시 평가 전문가들은 채점 방식을 원점수 체제에서 표준점수 체제로 전환하는 문제를 심각히 논의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그러나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일선 학교 교사들도 표준점수 체제를 제대로 이해하고 공감하는 비율이 저조한 편이었다. 더구나 교육정책 당국자, 일반 국민과 학부모, 언론 등은 표준점수 체제의 필요성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시기 수능 연 2회 시행과 표준점수제를 동시에 도입하지 못한 것이 아쉬움으로 남는다. 실제 표준점수제가 도입된 것은 수능 실시 10년이 지난 다음으로 국민적 공감대를 구축하는 데 그만큼 시간이 필요했다고 볼 수 있다.

또 공청회 등 여론 수렴 과정에서 수능 연 2회 실시가 오히려 수험생의 부담을 키운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대입전형에서 수능 비중이 낮지 않은 상황이어서 수험생 대부분이 2회 모두 응시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1994년 2월 28일에 연 1회 시험 실시를 발표하였다.

(2) 국립교육평가원의 수능 자체 채점

중앙교육평가원은 1985년 설립 당시 직제에 전산실 조직이 있었으나, 장학관을 실장으로 보하고 교육 연구사 2인으로 구성된 소규모 조직에 불과하였다.

1) 2010년 8월에 대입선진화연구회는 2014학년도 수능 체제개편안으로 연 2회 실시 방안을 제안하였다. 질병이나 사고, 시험당일 실수 등으로 1년을 다시 기다려야 하는 상황을 막자는 취지였다. 수능이 최초 도입된 1994학년도에 시행된 연 2회 실시가 부작용이 컸다는 지적이 제기됐지만, 11월에 15일 간격으로 2회를 치르더라도 표준점수 체제로 바뀌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었다.

1989년에 전산처리 전문가인 전산주사보 2명을 채용한 후 1990년과 1991년에 각 1명을 증원하여 4명의 정원을 확보하였다. 1990년대 초반에는 독학학위 취득시험과 같은 소규모 국가시험을 채점 관리하기 시작하였고 1991년에 수능 실험평가 결과를 전산 처리하였다.

전통적으로 중앙교육평가원에서는 대규모 국가 시험의 경우 자체 시설과 인력으로 채점할 수 없어서 외부 기관인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 용역 의뢰하여 처리하였다. 그러나 1993년에 국립교육평가원(이전 중앙교육평가원)에서 수능을 관장하면서 시험 성적의 채점 등 전산처리 업무가 새로운 당면 과제로 부각되기 시작하였다.

수능 첫 해인 1993년에 국립교육평가원에서 KIST에 수능 성적의 전산 처리를 의뢰했으나, KIST측은 컴퓨터 장비 등 장비가 낡았고 인력이 부족해 채점 업무를 맡을 수 없다는 회신을 통보하였다. 그 당시 수능의 채점을 맡을 수 있는 컴퓨터와 전문요원 보유 기관은 국가 기관인 KIST 외에 사설 단체인 중앙교육진흥연구소와 대성학력개발연구소 등이 있었으나, 국가시험의 채점을 민간 기관에 의뢰할 경우 신뢰성과 공정성·책임성 등에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많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따라서 국립교육평가원으로서 KIST의 요구 조건을 받아들이고 1993년 2회에 걸친 시험의 성적 처리를 KIST에 용역 의뢰하여 수능의 시행을 무사히 마무리하는 일이 급선무였다.

국립교육평가원에서는 다음 해 수능부터 자체 전산 처리하는 것을 당면 목표로 설정하고 두 차례 수능 성적 처리 과정에 국립교육평가원 소속 전산 전문가와 교육연구사를 파견하여 채점 처리 과정을 면밀하게 현장 학습하는 한편, 수능의 자체 전산 처리를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전산 전공인 교육연구사를 5명으로 증원하고 전산 전공 파견교사 5명을 긴급 확보하였다. 그리고 수능 자체 전산 처리에 필요한 새로운 컴퓨터 기자재를 구입하였다.

그리하여 1995학년도 수능부터는 KIST의 자문을

받아 국립교육평가원 전산실에서 성적 처리 업무를 수행하기 시작하였다. 국립교육평가원 자체 채점이 시작된 것은 1994년 11월 24일부터이며 주 컴퓨터와 OMR판독기 12대, 레이저 프린터 3대 등의 장비를 갖춰 놓고 자체 채점을 하였다. 전산, 관리, 지원, 경비 요원 등 모두 56명으로 구성된 채점분부는 매일 10여 시간씩 작업을 강행하였다. 채점 업무는 답안지 판독과 더불어 판독 오류 답안지 처리, 판독 답안 파일 검증 및 채점 작업이 수반된다. 채점이 완료된 다음에 수험생별로 총점과 과목별 점수, 응시계열별 백분위, 점수 누적 분포 등과 같은 각종 통계가 산출되며 개인별 성적통지표가 출력되어 배부하는 등의 절차가 이루어졌다. 이러한 수능 성적 채점 업무는 1998학년도 수능에 이르기까지 계속되었다.

(3) 수리·탐구 영역(I)의 주관식 문항 도입

수능을 시행한 지 3년차인 1995년 5월 31일에 교육개혁위원회에서 새로운 대학입시제도를 포함한 교육개혁방안을 발표하며 새 입시제도가 적용되는 1997, 1998학년도의 수능 개선방안이 논의되기 시작하였다. 특히 새 입시제도에서 국공립대학교의 국어, 영어, 수학 위주의 대학별 본고사가 폐지되고 사립대학교의 본고사 채택 가능성도 거의 없게 되자 수능이 유일한 객관적 전형자료로 활용되기 때문에 수능의 비중은 더욱 커지게 되었다.

교육부에서는 수능개선연구위원회(위원장 황정규 교수)에 의뢰하여 수능 개선안을 마련하였다. 개선안에 따르면 새 대입제도가 적용되는 1997, 1998학년도의 수능 문항 수는 200문항에서 230문항으로 15% 늘리고, 배점도 200점에서 400점으로 확대하였다. 전체 시험 시간이 360분에서 390분으로 30분 늘어났다. 이와 더불어 수리·탐구 영역(I)에 처음으로 주관식 문항을 출제하는 것으로 발표하였다.

수리·탐구 영역(I)의 30문항 가운데 20%인 6개 문항을 주관식으로 출제하기로 하였다. 이 경우 주관식 문제의 정답은 객관식 문제의 정답과 함께 OMR 용지에 숫자로 표기할 수 있는 단답형이었다. 출제위원들의 입장에서 보면 5지 선다형과 단답형을 함께 출제하는 것은 고도의 사고력을 요구하는 문제를 보다 수월하게 출제하고 매력 있는 오답지를 작성하는 수고를 덜어줄 수 있었다. 그러나 수험생들의 입장에서 보면 주관식은 심리적 부담감을 가중시키고 체감 난이도를 훨씬 더 높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수능에 주관식 문항을 도입하게 된 것은 대학별 본고사가 폐지됨에 따라 수능의 변별력을 강화하기 위해 전반적으로 어렵게 출제하는 기본 방향에 부응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주관식 문항은 상위권 학생들의 변별력을 높이기 위한 대안으로, 종전에 요행으로 정답을 맞추는 선택형 문항의 한계 때문에 상위권 학생들 간의 실력 차이를 정확하게 판별할 수 없었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장치였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수능의 객관식 문항을 고수해 왔던 기존의 방침과 달리, 단답형과 같은 주관식 문항을 처음으로 도입하게 된 것은 수능의 수준이 한 단계 진화한 모습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4) 수능의 난이도와 사교육 논란

1997학년도 수능에서 대학별 본고사가 폐지됨에 따라 수능의 변별력을 제고하는 문제가 당면 과제로 부각되었다. 대학별 본고사가 담당해 왔던 상위권 학생들의 변별 기능을 수능에서 어느 정도 반영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이러한 현안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든 영역에서 어려운 문항을 일정 부분 출제하기로 하는 한편, 특히 수리·탐구 영역(I)에 주관식 문항을 도입하여 정답 찍기와 같은 요행에 의한 정답 맞추기를 최소화하려는 장치가 마련되었다. 이와 같이 새로운

입시제도의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수능 출제의 기본 방향을 다소 변경함에 따라 1997학년도에 어렵게 출제된 수능이 과외 수요를 유발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기 시작하였다.

소비자보호원은 1997년 5월 18일에 사교육비 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수능이 과열 과외와 사교육비 급증을 유발하는 주요 요인 중 하나라고 주장하였다. 소비자보호원의 주장에 따르면, 일부 수능이 지나치게 어렵게 출제되어 과외 수요를 유발하고 있다는 것이다. 소비자보호원은 사교육비 급증에 대한 수능 책임론의 근거로 어렵게 출제되는 수리·탐구 영역(I)에서 고교생의 사교육 수요가 가장 높다는 점을 들었다. 또 수능은 상당수 문제가 통합교과 및 탈교과 방식으로 출제되는 반면에, 일선 학교교육은 단일 교과목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어 수능 방식의 시험에 대처할 수 있는 교사나 교재가 거의 없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교육부는 이에 대해 대학입시에서 본고사가 폐지되어 수능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는 바람에 수능이 과외 요인이라는 막연한 인식을 주고 있는 것일 뿐이라면서 소비자보호원의 주장을 일축하였다. 수능의 도입 취지에 비추어 어느 정도의 난이도 확보는 불가피하며, 단지 수리·탐구 등 일부 영역이 너무 어렵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이미 시험 시간 10분 연장 등 보완책을 내 놓았다는 입장이었다. 또한 문제를 통합교과적으로 출제하는 것은 학교수업이 단편적 지식 암기 중심으로 흐르는 것을 막기 위한 노력인데 이를 다시 단일 교과목 지식 축적 위주로 되돌리지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라 본 것이다.

수능이 어렵기 때문에 사교육의 수요가 높아진다는 단순 논리는 설득력이 약해 보인다. 수능이 쉽게 출제될 경우에도 여전히 사교육은 사라지지 않기 때문이다. 1997학년도 당시 본고사가 폐지되는 바람에 수능의 비중이 높아짐으로써 본고사에 대신하여 수능 과외 수요가 높아진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수능의 난이도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자

정부에서는 1999학년도 이후부터 수능을 쉽게 출제하는 방향으로 선화하였다. 사실 수능의 적정한 난이도를 유지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임에 틀림없다. 게다가 당시에는 표준점수제를 도입하지 않고 원점수제를 채택하고 있었기 때문에 수능의 난이도 논란은 끊임없이 지속되었다.

(5) 수능 위성교육방송 시대 개막

한국교육방송공사(이하 EBS)는 수능에 대비한 <TV 고교가정학습> 프로그램을 1993년 3월 1일에 처음으로 방송하였다. 1993년 8월 1차 수능이 끝난 후, EBS는

즉시 2차 수능에 대비한 2단계 <TV 고교가정학습> 프로그램을 문제풀이 중심으로 진행하였고, 1차 시험에서 나온 문제유형을 해설함으로써 수험생에게 큰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

교육부는 음성적으로 늘어가는 사교육 시장을 대체하기 위해 EBS를 통한 수능 전문 방송을 시행하면서 사이버교육을 강화한다는 ‘공교육 정상화를 통한 사교육비 경감 대책’을 발표하였다. 이 대책에서는 EBS 수능 강의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EBS 강의내용이 수능과 연계되도록 국립교육평가원과 협조체제를 구축한다는 방침이 제시되었다. 이러한 방침에 따라 1997년 8월 25일 오후 3시부터 수능의 위성교육방송 첫 전파가 발사되었다.

제3절

변화와 발전(성장기): 1999 ~ 2004학년도

김경성(서울교육대학교)

1995년 5월 31일 발표한 '신교육 체제 수립을 위한 교육개혁 방안'이 이 시기에 적용되어 대학 입학 제도가 바뀌게 되었다. 제6차 교육과정이 적용된 1999학년도 수능에서부터 선택과목이 도입되었고, 선택과목 간 난이도 차이 조정을 위한 표준점수제가 실시되었다. 2001학년도부터 제2외국어 과목이 선택과목으로 도입되었다. 그리고 2002학년도부터는 수능 성적표에서 총점을 폐지하였으며, 수능 성적이 대학입시에 미치는 영향력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9등급제를 도입하였다. 또한 영역별 성적의 반영 여부와 영역별 점수 가중치 부여를 대학(또는 학부 및 학과별로)이 자율적으로 운용하게 함으로써 학생의 소질과 적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1999학년도부터 2004학년도에 이르기까지의 수능의 특징들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가. 시기 개관

(1) 시험의 성격 변화

1998학년도까지 시행된 수능은 대학 수학에 필요한 기초적이고 공통적인 보편적 학력을 측정하는

시험으로서, 통합교과적인 소재를 활용하여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내용과 수준에 따라서 출제되는 사고력 중심의 학력고사라고 볼 수 있다. 1999학년도 이후의 수능 역시 이전의 수능의 성격과 비슷하며, 암기 위주의 교육을 탈피하고 사고력을 신장하여 고등학교 교육의 정상화에 기여함과 동시에 대학교육 적격자 선발 기능을 제고함에 그 목적을 두었다.

(2) 제6차 교육과정 적용

제6차 교육과정의 개정에 의해 1999학년도 수능은 변화를 겪게 되었다. 이때부터는 상대적으로 입시에서 수학의 비중이 낮은 예·체능계열 학생을 위해 수리·탐구 영역(I)에 예·체능계열을 추가했으며, 인문계와 자연계에 한해 수리·탐구 영역(II)에 선택과목 제도를 도입하였다. 자연계열은 과학탐구에서 48문항, 사회탐구에서 32문항이, 인문계열은 과학탐구에서 32문항, 사회탐구에서 48문항이 출제되었다. 자연계열에서는 공통으로 물리 I, 화학 I, 생물 I, 지구과학 I, 윤리, 국사, 일반 사회, 한국지리에서 64문항이 출제되었고 16문항은 선택과목 물리 II, 화학 II, 생물 II, 지구과학 II 중에서

1과목을 선택하여 풀도록 하였다. 인문계열에서는 공통으로 물리 I, 화학 I, 생물 I, 지구과학 I, 윤리, 국사, 일반사회, 한국지리에서 70문항이 출제되었고, 10문항은 선택과목 정치, 경제, 사회문화, 세계사, 세계지리 중에서 1과목을 선택하여 풀도록 하였다. 선택과목 도입에 따라 선택과목 간 난이도 차이를 조정하기 위한 표준점수제를 도입하였다.

(3) 수능 성장기의 대학입시제도

이 시기 대학입시에 사용된 주요 전형자료는 학생부, 대학 자체 전형자료, 수능인데 각각의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학생부 성적을 국·공립 대학의 입학전형에 의무적으로 반영하도록 하던 것을 국·공립이나 사립 등 모든 대학이 학생부 자료 활용 여부를 자율적으로 판단하게 하였다. 학생부는 학생들의 3년간 교과 성적, 품성·봉사·협동 활동, 체력 등을 종합 기록할 수 있도록 과일식으로 전환하고, 교과 성적은 수, 우, 미, 양, 가 형식의 평어(절대평가 방식)와 과목별로 계열별 석차(상대평가 방식)를 모두 기록하도록 하였다. 대학 자체 전형 자료는 대학 자체적으로 다양한 논술고사와 실기고사 등을 실시하여 마련하도록 하였다. 대학별 지필고사를 시행할 때에는 국어·수학·영어 위주의 고사는 실시할 수 없도록 하였다.

다음으로 수능은 기존의 틀을 유지하되 부분적으로 보완하였다. 시험 영역을 언어, 수리, 사회탐구, 과학탐구, 외국어(영어)의 5개 영역으로 분리하고, 사고력 위주의 출제 방향은 유지하였다. 배점에는 소수점 배점을 폐지하고, 총점 역시 폐지하면서 영역별 점수만 표시하였다. 그리고 이 시기부터 성적표에 등급(9등급제)이 제공되었다.

이 시기 대학 입학전형의 특징 중 하나는 특별전형의 활성화이다. 종전의 학생 선발 방식은 대체로 한두

가지 척도나 기준에 기초하여 대학 지원자를 서열화한 후 선발함으로써 학생들의 다양한 소질과 잠재력을 경시하였다. 이러한 문제점을 감안하여, 모집 인원과 선발 방법을 다양화함으로써 다원화 시대, 다품종 소량 생산 방식의 21세기 지식 기반 사회가 요구하는 학생 선발 방법에 적합하도록 특별 전형의 방식을 적극 활용하도록 하였다. 특별 전형에 의한 학생 선발 비율은 대학 자율 사항이나 개별 대학에서 대학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특별 전형 유형을 많이 개발하여 시행하도록 권장하였다. 그리고 모집 인원을 적절히 나누어 각기 다른 전형 자료별로 선발하는 것도 가능하도록 하였다. 예컨대, 모집 인원의 20%는 고교내신 성적만으로, 10%는 봉사 활동 경력으로, 30%는 수능과 심층 면접으로, 10%는 특기 및 수상 경력에 의한 특별 전형 등으로 선발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전형 일정은 정시 모집과 수시 모집으로 이원화하여 대학은 연중 언제나 학생을 선발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전형 일정을 분산시켜 여유 있는 전형 일정을 확보할 수 있게 하여 대입 전형 다양화의 여건을 마련한 것이다. 다만, 학생 선발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 모집 구분을 수시 모집과 정시 모집으로 크게 나누어 운영하였다. 수시 모집은 1학기 말, 2학기 말에 각각 등록 기간을 두었고, 정시 모집은 그동안의 4개군에서 3개군으로 축소하여 운영하도록 하였다.

나. 시험 체제와 점수 체제의 특징과 변화

성장기(1999~2004학년도)의 수능은 기본적으로 제6차 교육과정의 내용과 수준에 맞추어 학교 교육의 정상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출제하였으며, 기존의 틀을 유지하되 부분적으로 보완하였다. 즉, 시험 영역을 언어, 수리, 사회탐구, 과학탐구, 외국어(영어) 등 5개 영역으로 분리하고, 사고력 위주의 출제 방향은

유지하며, 그동안 변별력 제고를 위하여 도입된 소수점 배점을 폐지하였다. 그리고 총점 위주로 서열화하지 않도록 총점을 폐지하고, 영역별 점수만 표시하여 모집 단위에 따른 영역별 반영을 유도하였으며, 점수뿐만 아니라 등급으로도 사용할 수 있게 등급(9등급제)도 병행하여 제공하였다.

(1) 시험모형

(가) 1999~2000학년도 수능

1999학년도 수능의 본질적 성격은 변화되지 않았으나 제6차 교육과정에 근거해서 시험이 치러짐에 따라 영역별로 출제 비율과 출제 범위가 달라졌다. 특히, 수리·탐구 영역(Ⅱ)에서 선택과목제가 도입되어 표준점수를 사용하게 된 것이 큰 변화라 하겠다.

이전 연도와 비교하여 언어 영역은 달라진 점이 없으나, 수리·탐구 영역(Ⅰ)의 예·채능계열의 경우에

〈표 2-3-1〉 1999학년도 수능의 영역별, 계열별 출제 비율과 범위

영역	계열		문항 수	배점 (점)	출제 비율		출제 범위	
					필수	선택	필수	선택
언어 영역	공통		65	120	100%	-	전교과	
수리·탐구 영역(Ⅰ)	인문		30	80	공통수학 70% 정도 수학Ⅰ 30% 정도		공통수학, 수학Ⅰ	
	자연			80	공통수학 50% 정도 수학Ⅰ 20% 정도 수학Ⅱ 30% 정도		공통수학, 수학Ⅰ, 수학Ⅱ	
	예·채능			80	공통수학 100%		공통수학	
수리·탐구 영역(Ⅱ)	사회탐구	인문	80	72	80% 정도	20% 정도	공통사회, 국사, 윤리	정치, 경제 사회문화, 세계사, 세계지리 중 택 1
		자연		48	100%	-	공통사회, 국사, 윤리	-
		예·채능		72	100%	-	공통사회, 국사, 윤리	-
	과학탐구	인문		48	100%	-	공통과학	-
		자연		72	67%	33%	공통과학	물리Ⅱ, 화학Ⅱ, 생물Ⅱ, 지구과학Ⅱ 중 택 1
		예·채능		48	100%	-	공통과학	-
		공통		55	80	100%	-	공통영어
외국어(영어) 영역	공통		55	80	100%	-	공통영어	
계			230	400				

‘공통수학’에서만 출제되고, 수리·탐구 영역(Ⅱ)에서는 인문계열의 사회탐구와 자연계열의 과학탐구에 선택과목이 새로 도입되었으며 외국어(영어) 영역은 ‘공통영어’에서만 출제되었다. 1999학년도 수능의 영역별, 계열별 출제 비율과 범위는 <표 2-3-1>과 같다.

2000학년도 수능에서는 표준점수를 활용하는 대학의 편의를 위해 변환표준점수의 백분위점수가 추가적으로 제공되었다는 것 외에는 1999학년도와 동일하였다.

(나) 2001학년도 수능

2001학년도 수능의 가장 큰 특징은 제2외국어 영역이 추가되었다는 것이다. 제2외국어 영역은 6개의 선택과목, 즉 독일어, 프랑스어, 에스파냐어, 중국어, 일본어, 러시아어로, 문항은 각 30문항, 배점은 40점이었다. 제2외국어 영역의 시험 시간은 18시 10분부터 실시되는 제5교시에 40분간 실시되었고, 출제 범위는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제2외국어 I의

내용과 수준으로 하였다. 제2외국어 영역은 선택 과목으로 계열 구분 없이 응시하고자 하는 수험생들만 응시하도록 하였으므로 점수를 총점에 합산하지 않고 별도 표기하였으며, 원점수 및 표준점수와 그에 의한 백분위점수만을 별도로 표기하였고 응시 과목명은 표시하지 않았다.

또 다른 특징은 언어 영역의 문항 수가 65문항에서 60문항으로 줄어든 것이다. 이에 따라 시험 시간 또한 10분이 줄었고, 문항당 배점이 문제의 난이도와 교육과정 상의 중요성 등을 근거로 기존의 1.6, 1.8, 2점에서 1.8, 2, 2.2점으로 변경되었다. 외국어(영어) 영역은 문항 수가 55문항에서 50문항으로 줄고 이에 따라 시험 시간이 10분 줄었으며, 문항당 배점은 전년도와 동일하였다. 2001학년도 수능의 영역별 시험 시간, 문항 수 및 배점은 <표 2-3-2>와 같다.

(다) 2002~2003학년도 수능

2002학년도 수능의 가장 주요한 특징으로는 시험 영역에서 수리·탐구 영역(Ⅰ)을 수리 영역으로,

<표 2-3-2> 2001학년도 수능의 영역별 시험 시간, 문항 수 및 배점

교시	시험 시간	시험 영역		문항 수	배점 (점)	문항 배점(점)	비고	
1교시	90분	언어		60	120	1.8, 2, 2.2	듣기 6문항	
2교시	100분	수리·탐구(Ⅰ)		30	80	2,3,4	주관식 20%	
3교시	120분	수리·탐구(Ⅱ)	사회탐구	인문, 예·체능	48	72	1, 1.5, 2	
				자연	32	48		
			과학탐구	인문, 예·체능	32	48		
				자연	48	72		
4교시	80분	외국어(영어)		50	80	1, 1.5, 2	듣기·말하기 17문항	
5교시	40분	제2외국어(선택)		30	40	1, 1.5, 2		
계	380분	-		220	400	-		

수리·탐구 영역(Ⅱ)를 사회탐구 영역과 과학탐구 영역으로 분리하여 전체 영역이 4개 영역에서 5개 영역으로 변경되었다는 점이다. 그러나 시험 영역 변경에 관계없이 시험 시간, 출제 문항, 출제 범위 등은 2001학년도와 동일하였다.

또 다른 특징은 총점에 의한 학생 선발 관행을 지양하고 학생의 소질과 적성을 중시하는 전형 방식을 다양화하기 위해 총점 및 소수점 표기를 폐지하고 9등급제를 도입한 것이다. 따라서 원점수에 의한 백분위점수, 표준점수, 변환표준점수(400점 기준), 변환표준점수에 의한 백분위점수의 소수점 표기를 폐지하고 이를 모두 정수로 표기하였다. 다만 수험생 성적표의 원점수는 소수 첫째 자리까지 표기하였는데, 그 이유는 원점수를 소수점 이하 점수를 반올림하여 기재하면 원점수가 동일하더라도 백분위점수, 변환표준점수, 등급에서 차이가 발생하여 수험생에게 혼란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대학에 제공하는 성적 자료에는 원점수의 소수점 이하 점수를 반올림 처리하여 배부하였다. 총점을 제공하지 않는 대신 변환표준점수에 의한 영역별 등급과 5개 영역 종합 등급을 기재하였는데 영역별 등급은 소수 둘째 자리(소수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까지 산출된 변환표준점수에 의한 등급이고, 5개 영역 종합 등급은 영역별 변환표준점수를 합한 점수에 의한 등급이다. 등급별 비율은 <표 2-3-3>과 같다.

제2외국어 영역의 점수는 5개 영역 종합 등급에 합산하지 않고 별도로 표기하며, 원점수와 표준점수 및 그 백분위점수만 표기하고 표준점수에 의한 등급을 기재하되 응시 과목명은 표기하지 않았다.

(라) 2004학년도 수능

2004학년도 수능에서 전년도와 달라진 점은 소수점에 의해 당락이 결정되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문항당 배점을 기존의 소수점에서 정수로 변경하여 표기한 것이다. 이에 각 영역의 문항당 배점이 언어 영역은 1.8, 2, 2.2점에서 1, 2, 3점으로, 수리 영역은 2, 3, 4점에서 2, 3점으로, 그리고 사회탐구, 과학탐구, 외국어(영어) 및 제2외국어 영역은 1, 1.5, 2 점에서 1, 2점으로 변경되었다. 성적 자료 표기에도 변화가 있었는데, 기존의 학생 성적표처럼 대학에 제공되는 성적 자료에도 영역별 원점수가 정수로 표기되었다. 이에 영역별 등급은 소수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수로 산출된 변환표준점수에 의한 등급으로, 5개 영역 종합 등급은 정수로 산출된 영역별 변환표준점수의 합에 의한 등급으로 표기하고 등급 경계선에 있는 동점자는 상위 등급으로 처리하였다. 몇 가지 점을 제외하고는 시험 영역, 시험 시간, 출제 문항, 출제 범위 등에서 2003학년도와 동일한 체제를 유지하였다.

(2) 출제의 기본 방향

(가) 1999~2000학년도 수능

1999학년도에는 제6차 교육과정에 근거하여 교육을 받은 학생들이 시험을 치렀으므로 영역별로 출제 비율과 출제 범위가 일부 달라졌으나, 출제 기본 방향은 1998학년도와 비교했을 때 별다른 변화가 없었다. 다만

<표 2-3-3> 수능의 등급별 비율

등급	1	2	3	4	5	6	7	8	9
비율(%)	4	7	12	17	20	17	12	7	4

난이도에서 1998학년도까지는 상위 50% 집단의 영역별 예상 평균이 100점 만점 기준으로 50~60점이 되도록 하였으나, 1999학년도에는 60~70점이 되도록 상향 조정하였다.

2000학년도 수능은 수리·탐구 영역(Ⅱ)에서 과학 탐구와 사회탐구의 선택과목의 원점수를 활용하는 대학을 위해 과목 간 난이도 조정에 특히 유념하여 출제하였다. 난이도에서도 전년도에 상위 50% 집단의 영역별 평균 점수가 100점 만점 기준에 60~70점으로 상향 조정할 것을 다시 75점으로 소폭 상향 조정하였다. 이러한 난이도의 상향 조정은 수능을 평이하게 출제하여 학생들의 수험 부담을 줄이고 학교 교육의 정상화에 기여하기 위함이었다.

(나) 2001학년도 수능

2001학년도 수능의 출제 기본 방향은 2000학년도와 동일하게 적용되었다. 다만 새롭게 추가된 제2외국어 영역의 경우,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규정한 제2외국어 I 수준에 맞추어 학생들이 학교 교육을 통해 배양된 기초적인 외국어 의사소통 능력을 측정하도록 출제하였다. 또 내용영역과 행동영역이 고르게 포함되도록 균형 있게 출제되, 내용영역의 경우 발음 및 철자, 어휘, 문법, 문화를 각각 3개 문항(10%), 의사소통 기능을 18개 문항(60%) 출제하였다. 또 불필요한 언어학적 문법 지식의 측정을 지양하고 다양한 상황에서 사용되는 생활 외국어의 언어 사용 측면의 측정을 강조하는 평가 문항을 출제하였다.

(다) 2002~2004학년도 수능

2002학년도 수능의 출제 기본 방향은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내용과 수준에 맞추어, 통합교과적 소재를 바탕으로 사고력을 측정하는 문항 위주로 출제하는 것이다. 출제 범위는 전년도와 같이 고등

학교 교육과정의 전 범위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계열별로 출제하되 언어, 외국어(영어) 영역 및 제2외국어 영역은 계열 구분 없이 공통으로 출제하였다. 시험 과목의 선택은 인문계열 학생의 경우, 정치, 경제, 사회·문화, 세계지리 중에서 1과목을 택하고, 자연계열은 물리Ⅱ, 화학Ⅱ, 생물Ⅱ, 지구과학Ⅱ 중에서 1과목을 택하지만 예·체능계열의 경우에는 선택과목이 없다. 제2외국어 영역은 계열 구분 없이 원하는 수험생만 응시하고 6개 과목 중에서 1개 과목을 택하도록 하였다. 난이도에서 영역별 평균점수는 2000학년도 및 2001학년도의 시험 결과를 참고하여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조정하였는데, 상위 50% 집단의 5개 영역별 평균점수가 100점 만점에 77.5 ± 2.5 점 수준으로 출제하였다. 2003학년도, 2004학년도 수능의 출제 기본 방향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적용하였다.

(3) 응시 현황

(가) 전체 응시 현황

1999학년도부터 2004학년도까지 수능 성장기의 지원자와 응시자 수는 <표 2-3-4>와 같다. 수능 응시자는 1999학년도 839,837명에서 2000학년도 시험에서 868,366명으로 증가하다가 2001학년도 850,305명으로 감소, 2002학년도 수능에서는 718,441명으로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보면 성장기의 응시자 현황은 2000학년을 제외하고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나) 계열별 응시 현황

1999학년도부터 2004학년도까지 수능 성장기 계열별 응시자 현황을 제시하면 <표 2-3-5>와 같다.

〈표 2-3-4〉 1999~2004학년도 수능의 지원자 및 응시자 현황

학년도	지원자(명)	응시자(명)	응시율(%)
1999	868,643	839,837	96.7%
2000	896,122	868,366	96.9%
2001	872,297	850,305	97.5%
2002	739,129	718,441	97.2%
2003	675,922	655,384	97.0%
2004	674,154	642,583	95.3%

〈표 2-3-5〉 1999~2004학년도 수능의 계열별 응시자 현황

(단위: 명)

학년도	인문	자연	예·체능	계
1999	411,082	336,510	92,245	839,837
2000	451,522	301,458	115,386	868,366
2001	468,717	250,884	130,704	850,305
2002	405,373	193,976	119,092	718,441
2003	355,146	198,835	101,403	655,384
2004	344,015	202,434	96,134	642,583

이 시기 수능의 계열별 응시자는 인문계열 응시자가 자연계열, 예·체능계열 응시자보다 많았다. 전체적으로 인문계열 응시자와 예·체능계열 응시자는 2001학년도까지 증가 추세를 보이다가 2002학년도부터 감소하였고, 자연계열은 계속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다) 성별 응시자 현황

1999학년도부터 2004학년도까지 성별 응시자 현황을 제시하면 〈표 2-3-6〉과 같다.

수능 성장기의 성별 응시자 현황을 보면, 1999학년도에 남자가 여자에 비해 약 8만 명 정도 많았으며, 2002학년도부터 그 차이는 약 4만 명 정도로 점차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4) 시험 시행

(가) 1999학년도 수능

1999학년도 수능은 1998년 11월 18일 오전 9시부터 전국 70개 시험 지구, 828개 고사장에서 실시되었다. 이 시험에 지원한 수험생 총 868,643명 중에서 결시자 28,806명을 제외한 실제 응시자는 839,837명(96.7%)으로 1998학년도 시험에 응시한 854,272명보다 14,435명이 더 적다. 실제 응시자 수에는 시각장애자 139명, 청각 장애자 204명, 그리고 지체부자유자 224명이 포함되었다.

〈표 2-3-6〉 1999~2004학년도 수능의 성별 응시자 현황

(단위: 명)

학년도	남	여	계
1999	458,893	380,944	839,837
2000	467,561	400,805	868,366
2001	453,091	397,214	850,305
2002	378,958	339,483	718,441
2003	345,098	310,286	655,384
2004	340,053	302,530	642,583

(나) 2000학년도 수능

2000학년도 수능은 1999년 11월 17일 오전 9시부터 전국 71개 시험 지구, 1,017개 고사장에서 실시되었다. 이 시험에 지원한 수험생 총 896,122명 중 결시자 27,756명을 제외한 응시자는 868,366명(응시율 96.9%)으로, 1999학년도에 응시한 839,837명보다 28,529명이 더 많다. 실제 응시자 수에는 시각 장애자 164명, 청각 장애자 208명, 그리고 지체 부자유자 259명이 포함되었다.

(다) 2001학년도 수능

2001학년도 수능은 2000년 11월 15일 오전 9시부터 전국 73개 시험 지구, 1,054개 고사장에서 실시되었다. 이 시험에 지원한 수험생 총 872,297명 중에서 결시자 21,992명을 제외한 실제 응시자는 850,305명(응시율 97.5%)으로, 2000학년도에 응시한 868,366명보다 18,061명이 더 적었다. 실제 응시자 수에는 시각 장애자 182명, 청각 장애자 242명, 그리고 지체 부자유자 261명이 포함되었다.

(라) 2002학년도 수능

2002학년도 수능은 2001년 11월 7일 오전 9시부터 전국 73개 시험 지구, 938개 고사장에서 실시되었다. 이 시험에 지원한 수험생 총 739,129명 중에서 20,688명의 결시자를 제외한 실제 응시자는 718,441명(응시율 97.2%)으로 2001학년도 응시자 850,305명보다 131,864명이 더 적었다.

(마) 2003학년도 수능

2003학년도 수능은 2002년 11월 6일 오전 9시부터 전국 73개 시험 지구, 878개 고사장에서 실시되었다. 이 시험에 지원한 수험생 총 675,922명 중에서 20,538명의 결시자를 제외한 655,384명(응시율 97.0%)이 응시하여, 2002학년도 응시자 718,441명에 비해 63,057명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바) 2004학년도 수능

2004학년도 수능은 2003년 11월 5일 오전 9시부터 전국 73개 시험 지구, 876개 고사장에서 실시되었다. 이 시험에 지원한 수험생 총 674,154명 중에서 31,571명의 결시자를 제외한 642,583명(응시율

95.3%)이 응시하여, 2003학년도 응시자 655,384명에 비해 12,801명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5) 성적 분석

(가) 전체 및 상위 50% 성별 총점의 평균점수

성장기 수능은 수험생의 수험 부담을 줄이고 고등학교 교육을 정상화하며 사교육비를 절감하고 수능의 영향력을 최소화한다는 정책에 따라 해마다

난이도 목표를 상위 50% 집단의 평균점수 50~60점, 60~70점, 75점, 77.5±2.5점으로 연차적으로 상향 조정하면서 문제를 쉽게 출제함에 따라, 실제 점수도 1999학년도 75.1점, 2000학년도 77.5점, 2001학년도 84.2점으로 계속 상승하였다.

수능 성장기의 전체 집단과 상위 50% 집단의 성별 총점의 평균을 제시하면 <표 2-3-7>과 같으며 2002학년도부터 총점 제도가 폐지되었으므로, 이에 대한 정보는 없다.

<표 2-3-7> 1999~2004학년도 수능의 전체 및 상위 50% 성별 총점의 평균점수

(단위: 점)

학년도	구분 성별	전체			상위 50% 집단		
		남	여	계	남	여	계
1999	평균점수	59.7	60.5	60.1	76.2	73.9	75.1
2000	평균점수	61.7	63.2	62.4	78.6	76.3	77.5
2001	평균점수	68.5	70.2	69.3	85.1	83.3	84.2

<표 2-3-8> 1999~2004학년도 수능의 영역별 · 성별 총점의 평균점수

(단위: 점)

학년도	구분	언어		수리 · 탐구(I)		수리 · 탐구(II)		외국어		전체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계
1999*		69.2	72.3	41.8	38.7	-	-	59.8	62.3	59.7	60.5	60.1
2000		61.9	65.2	48.1	46.0	70.4	71.0	61.9	65.6	61.7	63.2	62.4
2001		77.9	81.7	54.9	53.5	70.7	71.9	65.0	67.1	68.5	70.2	69.3
2002~2004**		-	-	-	-	-	-	-	-	-	-	-

* 1999학년도에는 수리 · 탐구(II)를 사회탐구, 과학탐구로 나누어 제시하였음.

이때 사회탐구 남 · 여 학생의 평균은 각각 64.2, 65.0 이었으며 과학탐구 남 · 여 학생의 평균은 각각 59.6, 57.7 이었음.

** 2002학년도부터 총점 제도가 폐지되었으므로, 이에 대한 정보가 없음.

〈표 2-3-9〉 1999~2004학년도 수능의 재학생·졸업생별, 성별 총점의 평균점수

(단위: 점)

학년도	구분	재학생			졸업생			전체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1999		59.2	60.8	60.0	61.3	59.9	60.7	59.7	60.5
2000		60.5	63.2	61.8	65.2	63.8	64.6	61.7	63.2
2001		66.7	69.7	68.1	73.1	71.9	72.6	68.5	70.2
2002~2004		-	-	-	-	-	-	-	-

* 2002학년도부터 총점 제도가 폐지되었으므로, 이에 대한 정보가 없음.

〈표 2-3-10〉 1999~2004학년도 수능의 계열별·성별 총점의 평균점수

(단위: 점)

학년도	구분	인문		자연		예·체능		전체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계
1999		60.6	59.1	60.8	68.0	49.8	54.0	60.0	60.5	60.1
2000		62.4	62.2	63.7	72.2	51.0	55.7	61.7	63.2	62.4
2001		69.1	69.8	71.9	79.8	56.7	61.8	68.5	70.2	69.3
2002~2004		-	-	-	-	-	-	-	-	-

* 2002학년도부터 총점 제도가 폐지되었으므로, 이에 대한 정보가 없음.

(나) 영역별·성별 총점의 평균점수

수능 성장기의 영역별·성별 총점의 평균을 제시하면 〈표 2-3-8〉과 같다.

수능 성장기의 영역별 총점의 평균점수는 언어 영역은 1999학년도 70점대에서 2001학년도는 약 80점대, 수리·탐구 영역(I)은 1999학년도 40점대에서 2001학년도 50점대, 수리·탐구 영역(II)은 1999학년도 60점대에서 2001학년도에서 70점대로 상승하였으나, 이는 난이도 목표의 상향 조정에 따른 결과라고 하겠다.

(다) 재학생·졸업생별, 성별 총점의 평균점수

수능 성장기의 재학생·졸업생별·성별 총점의 평균을 제시하면 〈표 2-3-9〉와 같다.

재학생·졸업생별 총점의 평균점수는 남자는 1999학년도 시험에서 2001학년도 시험까지 졸업생의 성적이 재학생에 비해 총점 기준으로 2.1점, 4.7점, 6.4점이 높아졌고, 여자는 2000학년도 시험부터 졸업생 성적이 0.6점, 2.2점이 높아졌다.

〈표 2-3-11〉 1999~2004학년도 수능의 인문계열 영역별·성별 총점의 평균점수

(단위: 점)

구분 학년도	언어		수리·탐구(I)		수리·탐구(II)				외국어(영어)		전체		
					사회탐구		과학탐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계
1999	70.6	71.5	40.2	35.6	66.5	64.8	60.0	55.6	61.1	60.9	60.6	59.1	59.7
2000	63.2	64.9	46.2	42.7	72.6	71.9	70.7	68.7	63.4	65.0	62.4	62.2	62.3
2001	78.8	81.8	53.3	51.2	73.2	74.0	70.4	69.3	65.8	67.1	69.1	69.8	69.5
2002	55.9	58.0	38.6	36.8	59.2	60.2	53.5	53.1	53.5	55.5	-	-	-
2003	56.2	58.3	37.4	36.0	52.8	53.2	57.6	55.8	53.8	54.6	-	-	-
2004	57.4	59.1	42.6	40.3	61.4	60.3	38.5	37.3	63.5	64.8	-	-	-

* 2002학년도부터 총점 제도가 폐지되었으므로, 이에 대한 정보가 없음.

〈표 2-3-12〉 1999~2004학년도 수능의 자연계열 영역별·성별 총점의 평균점수

(단위: 점)

구분 학년도	언어		수리·탐구(I)		수리·탐구(II)				외국어(영어)		전체		
					사회탐구		과학탐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계
1999	69.7	77.7	44.5	49.7	64.0	68.7	61.3	68.2	61.0	71.0	60.8	68.0	62.7
2000	62.8	70.8	52.3	60.8	74.9	80.0	69.9	77.4	64.1	76.2	63.7	72.2	66.0
2001	79.9	87.1	61.2	69.8	74.0	80.1	72.5	80.2	69.0	78.1	71.9	79.8	74.1
2002	58.6	65.3	49.5	54.0	64.9	70.1	60.5	67.5	58.8	67.3	-	-	-
2003	58.1	65.5	47.7	53.0	49.9	55.7	66.8	71.8	58.3	66.3	-	-	-
2004	59.3	65.5	55.3	59.4	51.0	54.6	54.3	55.6	67.6	75.1	-	-	-

* 2002학년도부터 총점 제도가 폐지되었으므로, 이에 대한 정보가 없음.

(라) 계열별, 성별 총점의 평균점수

수능 성장기의 계열별·성별 총점의 평균을 제시하면 <표 2-3-10>과 같다.

성장기 수능에서 계열별 성적을 보면 남자의 경우 인문계열과 자연계열은 계열에 관계없이 성적이 서로 비슷했으나, 여자의 경우 자연계열이 인문계열보다 8~10점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연도별

성적은 1999학년도 60.1점에서 2001학년도 69.3점까지 계속 상승하였다.

(마) 계열별, 영역별, 성별 총점의 평균점수

1) 인문계열 영역별, 성별 총점의 평균점수

수능 성장기의 인문계열 영역별·성별 총점의 평균을 제시하면 <표 2-3-11>과 같다.

〈표 2-3-13〉 1999~2004학년도 수능의 예·체능계열 영역별·성별 총점의 평균점수

(단위: 점)

학년도	구분		언어		수리·탐구(I)		수리·탐구(II)		외국어(영어)		전체		
	남	여	남	여	사회탐구		과학탐구		남	여	남	여	계
					남	여	남	여					
1999	60.3	66.8	32.5	34.1	56.0	59.5	47.8	48.6	47.0	53.2	49.8	54.0	52.1
2000	53.2	59.3	37.5	40.1	60.9	64.7	58.7	61.3	47.6	54.4	51.0	55.7	53.5
2001	68.9	76.1	41.8	45.0	59.6	64.4	56.9	59.5	50.8	56.1	56.7	61.8	59.4
2002	44.8	50.1	29.2	31.7	43.9	48.2	38.8	41.8	37.7	42.9	-	-	-
2003	42.8	49.1	28.4	31.2	38.7	43.2	42.9	43.9	36.6	41.5	-	-	-
2004	43.5	50.0	26.9	29.3	42.1	46.0	28.3	29.0	44.1	50.8	-	-	-

* 2002학년도부터 총점 제도가 폐지되었으므로, 이에 대한 정보가 없음.

성장기에서 인문계열의 영역별, 성별 총점의 평균 점수는 수리·탐구 영역(I)과 과학탐구 영역에서만 남자의 성적이 여자보다 1~5점 정도 높을 뿐 다른 영역에서는 의미 있는 차이가 없었다.

언어 영역은 2001학년도 시험까지 연도별로 평균 점수가 등락을 반복하고 있으나, 2002학년도부터 2004학년도까지는 55~59점대의 성적을 나타내면서 안정되고 있다. 수리·탐구(I)은 1999~2001학년도 시험은 55~57점대이었으나, 2002~2003학년도에는 36점대로 낮아졌다가, 2004학년도에 다시 40점대를 나타내고 있다. 사회탐구 영역도 2003년도까지는 과학탐구 영역과 비슷한 성적 변화를 나타냈으나, 2004학년도 시험에서 60점대로 높아졌다. 과학탐구 영역은 1999~2001학년도 시험은 60~70점대였다가, 2001~2003학년도에는 55점대를 기록했으나 2004학년도에는 37점대로 크게 하락하고 있다. 외국어(영어) 영역은 사회탐구 영역과 비슷한 성적 변화를 보이고 있다.

2) 자연계열 영역별, 성별 총점의 평균점수

수능 성장기의 자연계열 영역별·성별 총점의

평균을 제시하면 〈표 2-3-12〉와 같다.

성장기의 자연계열 영역별, 성별 총점의 평균점수는 인문계열과 반대로 전 영역에서 여자가 남자보다 3~10점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점수는 전 영역에서 인문계열과 비슷한 성적 변화를 보이고 있다.

3) 예·체능계열 영역별, 성별 총점의 평균점수

수능 성장기의 예·체능계열 영역별·성별 총점의 평균을 제시하면 〈표 2-3-13〉과 같다.

성장기의 예·체능계열의 영역별, 성별 총점의 평균 점수는 자연계열과 마찬가지로 전 영역에서 여자가 남자보다 1~5점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점수는 전 영역에서 인문계열과 비슷한 성적 변화를 보이고 있다.

4) 제2외국어 영역별·계열별 선택과목의

평균점수

수능 성장기의 제2외국어 영역별·계열별 선택 과목의 평균 점수를 제시하면 〈표 2-3-14〉와 같다.

2001학년도부터 2004학년도까지 제2외국어

〈표 2-3-14〉 1999~2004학년도 수능의 제2외국어 영역별·계열별 선택과목의 평균점수

(단위: 점)

학년도	계열	독일어	프랑스어	에스파냐어	중국어	일본어	러시아어
2001	인문	89.1	87.1	79.9	90.0	71.3	72.0
	자연	85.4	83.4	75.3	82.8	62.2	65.0
	예·체능	76.1	74.1	68.3	76.9	60.1	54.9
2002	인문	54.2	59.9	58.4	55.3	55.1	54.4
	자연	44.8	51.2	60.3	43.5	45.1	59.1
	예·체능	37.0	38.8	44.5	39.9	47.8	36.3
2003	인문	59.0	54.4	65.8	59.7	50.6	63.4
	자연	47.0	43.6	50.7	49.9	39.4	55.8
	예·체능	39.3	37.1	30.7	37.2	45.4	46.1
2004	인문	51.5	56.3	50.3	52.8	46.8	44.3
	자연	44.0	45.3	36.8	50.5	38.8	45.3
	예·체능	35.5	39.5	25.0	32.5	42.8	22.3

영역의 전체 집단의 과목별, 계열별 평균점수는 〈표 2-3-14〉와 같다. 제2외국어 영역이 처음 도입된 2001학년도에는 모든 과목의 평균점수가 높아 난이도 조정 실패라는 비난을 받았으나, 2002학년도부터 평균 50~60점대를 유지하며 안정된 경향을 보였다.

(6) 점수 체제

1) 1999학년도 수능

1999학년도 수능 성적표에는 수리·탐구 영역(II)이 과학탐구와 사회탐구로 나뉘어 표기되어 있다. 따라서 언어 영역, 수리·탐구 영역(I), 수리·탐구 영역(II)-과학탐구·사회탐구, 외국어(영어) 영역의 4영역에 대한 원점수와 각 영역 원점수에 의한 백분위점수, 원점수 총점, 원점수 총점의 백분위점수를 표기하고, 영역별 표준점수, 영역별 변환표준점수(400점 만점)와 변환표준점수 총점을 표기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2000학년도 수능 성적표에는 1999학년도와 달리 변환표준점수에 의한 백분위점수가 추가되었다.

2) 2001학년도 수능

2001학년도 수능 성적표에는 언어 영역, 수리·탐구 영역(I), 수리·탐구 영역(II)-과학탐구·사회탐구, 외국어(영어) 4영역 외에 제2외국어 영역이 추가되었다.

각 영역에 대해 영역별 원점수, 원점수에 의한 백분위점수, 원점수 총점, 원점수 총점의 백분위점수, 영역별 표준점수, 영역별 변환표준점수(400점 만점)와 변환표준점수 총점, 변환표준점수에 의한 백분위점수를 표기하였다. 그러나 제2외국어 영역의 경우 변환표준점수(400점 기준)와 변환표준점수에 의한 백분위점수 대신 표준점수에 의한 백분위점수를 표기하도록 하였다.

3) 2002~2003학년도 수능

2002~2003학년도 수능 성적표에는 언어 영역, 수리 영역, 과학탐구 영역, 사회탐구 영역, 외국어(영어)

영역, 제2외국어 영역의 6영역이 표기되고 있다. 그 이전과는 달리 수리·탐구 영역(I), 수리·탐구 영역(II)를 구분하지 않고, 수리 영역, 과학탐구 영역, 사회탐구 영역으로 나누어 표기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각 영역에 대해 영역별 원점수와, 원점수에 의한 백분위점수, 영역별 표준점수, 영역별 변환표준점수(400점 기준)와 변환표준점수에 의한 백분위점수를 표기하고, 영역별 등급과 5영역 종합 등급을 추가로 제시하고 있다. 제2외국어 영역의 경우 역시 변환표준점수(400점 기준)와 변환표준점수에 의한 백분위점수 대신 표준점수에 의한 백분위점수를 표기하였고, 영역별 등급과 5영역 종합 등급은 다른 영역들과 동일하게 표기하였다. 이 시기의 성적표에는 원점수,

원점수에 의한 백분위점수, 변환표준점수 및 변환표준점수에 의한 백분위점수의 총점을 표기하지 않고 있다.

4) 2004학년도 수능

2004학년도 수능의 점수 체제와 수능 성적통지표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적용하였다. 예년과 달라진 점은 첫째, 문항 배점이 모두 점수가 되어 원점수도 정수로 표기되었다는 것이다. 둘째, 등급은 변환표준점수의 소수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 정수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것이다. 이때 경계선에 있는 동점자는 상위 등급으로 처리하였다(표 2-3-15) 참조.

〈표 2-3-15〉 2004학년도 수능의 각 영역의 배점별 문항 수

영역	계열	배점별 문항 수				배점(점)		
		1점	2점	3점	계			
언어	공통	5	50	5	60	120		
수리	인문	-	10	20	30	80		
	자연	-	10	20	30			
	예·체능	-	10	20	30			
사회탐구	인문	공통	16	16	-	32	48	72
		추가	3	3	-	6	9	
		선택	5	5	-	10	15	
	자연	16	16	-	32	48		
	예·체능	공통	16	16	-	32	48	72
		선택	8	8	-	16	24	
과학탐구	인문	16	16	-	32	48		
	자연	공통	16	16	-	32	47	72
		선택	8	8	-	16	24	
	예·체능	16	16	-	32	48		
외국어(영어)	공통	20	30	-	50	80		
제2외국어	공통	20	10	-	30	40		

〈표 2-3-16〉 1999학년도~2004학년도 수능의 연도별 특이사항

구분 학년도	시험 횟수	시간 (분)	영역	계열	점수 체제	문항 수	배점 (점)	문항 배점
1999	1회	400	4영역	인문, 예·체능, 자연	원점수 백분위 표준점수	230	400	전 영역 차등 배점
2000	1회	400	4영역	인문, 예·체능, 자연	원점수 백분위 표준점수	230	400	전 영역 차등 배점
2001	1회	380	제2외국어* 추가	인문, 예·체능, 자연	원점수 백분위 표준점수	220	400	전 영역 차등 배점
2002	1회	380	제2외국어 추가	인문, 예·체능, 자연	백분위 표준점수 변환표준점수	220	400	전 영역 차등 배점
2003	1회	380	제2외국어 추가	인문, 예·체능, 자연	백분위 표준점수 변환표준점수	220	400	전 영역 차등 배점
2004	1회	380	제2외국어 추가	인문, 예·체능, 자연	백분위 표준점수 변환표준점수	220	400	전 영역 차등 배점

* 2001~2004학년도에는 제2외국어 영역이 선택 영역으로 추가되었음.

(7) 연도별 특이 사항

성장기의 수능에서 나타난 변화와 연도별 특이 사항을 정리하면 〈표 2-3-16〉과 같다.

표에서 나타난 것과 같이 1999학년도 수능은 제6차 교육과정을 적용하여 처음으로 출제한 수능으로 탐구 영역에서 계열별 선택과목제가 도입된 것이 특징적이다. 2000학년도는 1999학년도와 같았다.

2001학년도에는 제2외국어 영역이 처음으로 선택 영역으로 도입되었고 문항 수는 언어와 외국어 영역에서 각각 5문항씩 감소하여 제2외국어를 포함하면 250문항이 되었다.

2002학년도 수능에서는 수리·탐구 영역(I)을 수리 영역으로, 수리·탐구 영역(II)를 사회탐구·과학탐구 영역으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그리고 2003학년도

수능은 2002학년도 수능과 같은 형태를 유지하였다.

2004학년도에는 문항당 배점을 정수로 하였다. 그 외 시험 시간, 영역별 배점은 2003학년도와 같다.

다. 이슈와 여적

(1) 수능의 난이도 논란

수능은 국가가 출제, 인쇄, 시행, 그리고 채점 관리 일체를 관장하는 시험으로, 공공성과 객관성이 높은 전형 자료를 국가가 각 대학에 제공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 또한 수능의 도입 목적은 암기 위주의 교육을 탈피하고 사고력을 신장하여 고등학교 교육의 정상화에 기여함과 동시에, 대학 교육 적격자 선발

〈표 2-3-17〉 1999~2004학년도 수능의 난이도

(단위: 점)

학년도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목표 난이도	상위 50%	75	75	75	77.5±2.5	75	75
	실제 난이도						
	상위 50%	83.9	75.4	90.0	69.4	69.3	-
	전체	70.6	63.4	79.7	56.4	56.5	-

※ 2004학년도부터 전 영역 평균 점수를 산출하지 않음.

기능을 제고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2001학년도 수능은 소위 ‘물수능’이라는 별칭을 붙일 정도로 너무 쉽게 출제되었다. 〈표 2-3-17〉에서 알 수 있듯이, 2000학년도 수능에 비해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상위 50%는 14.6점이, 전체는 16.4점이나 평균점수가 상승하였다. 그 결과, 만점자가 66명이나 배출되었고, 역대 수능 최초로 수능 만점자가 내신과 제2외국어영역 변환표준점수상의 불이익으로 서울대학교의 특차전형에 불합격하는 일도 발생하였다. 게다가 200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수학 등의 과목에서 쉬운 문제에 높은 배점을 하고, 어려운 문제에 낮은 배점을 하는 소위 ‘역 배점’이 논란이 되기도 하였다. 이를 통해 수능의 사회적 목적과 기능, 난이도와 관련하여 당시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그런데 다음해에 실시된 2002학년도 수능은 ‘불수능’이라는 별칭으로 불릴 정도로 너무 어렵게 출제되었다. 2001학년도 비해 2002학년도 수능은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상위 50%는 20.6점, 전체는 23.3점이나 평균점수가 하락하였다. 이웃한 2001학년도는 ‘물수능’, 2002학년도는 ‘불수능’으로 수능의 난이도가 널뛰기를 하면서 학교 현장은 어느 장단에 맞춰서 춤을 쳐야 하느냐며 아우성을 쳤다.

난이도 논란에 대응하여 정부는 2002년에 평가원에 수능을 전담할 수 있는 상시 연구 인력을 대거 채용

하였고, 수험생들의 학력을 진단할 목적으로 2002년 9월에 최초로 모의평가를 실시하였다. 또한 2003학년도 수능부터는 수험생들의 학력을 잘 알고 있는 고등학교 교사들을 20% 이상 수능 출제위원으로 참여시켰다.

(2) 복수 정답과 수능 관리 체제의 개선

2004학년도 수능에서 한 문제에 두 개의 정답이 인정되는 대학 입시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언어 영역 17번 문항에서 ③번 답지 외에 ⑤번 답지도 정답으로 인정함으로써 63만 9,000여 명에 이르는 수험생의 답안지를 재채점하고 성적을 재처리하는 작업이 불가피했다. 당시에는 문항 및 정답 이의 심사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복수 정답을 인정하는 과정에서 많은 혼란이 있었고 비싼 사회적 비용을 치렀다.

또한 2004학년도 수능에서는 출제위원 선정과 관련된 문제가 여론의 도마 위에 올랐다. 대학의 전임교원이 아닌 초빙 교수가 수능 출제위원으로 선정되었는데, 해당 출제위원이 사교육업체가 운영하고 있던 인터넷 사이트에서 논술 동영상 강의를 한 사실이 알려져 출제위원 자격 검증에 제대로 하지 못한 평가원에 대한 여론의 비판이 매우 따가웠다. 게다가 해당 출제위원이 출제한 문항의 사전 유출

의혹에 대한 논란까지 나타났다. 이 논란과 더불어 2004학년도 수능에서는 출제위원 중 특정 대학교 사범대학 출신의 비율이 지나치게 높고, 출제위원으로 참여한 교사 중 상업용 문제집을 집필한 경우가 있어 출제위원 선정의 공정성 시비로 이어졌다.

복수 정답과 출제위원 선정과 관련해서 커다란 혼란을 치른 2004학년도 수능을 계기로 이후 수능 관리 체제에 많은 변화가 생겼다. 문항이나 정답과 관련된 민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이의신청 제도가 마련되었고, 수능 출제 인력풀이 구축되었으며, 출제위원 선정과 위촉 과정을 엄정하게 관리하기 위한 제반 규정과 지침이 정비되었다.

(3) 점수 체제의 신뢰성 확보

2003학년도 수능에서는 수험생에게는 원점수만 소수점까지 표기해 통보하고 대학에는 수험생의 원점수, 표준점수, 백분위점수 등을 모두 반올림해 제공했다가 점수 역전 현상으로 인한 당락의 역전 현상이 발생하여 당시 사회적 문제가 되었고 소송으로까지 이어졌다. 결국 2004학년도부터는 소수점 배점이 모두 폐지되었고, 처음으로 정수 배점을 실시하였다.

정수 배점은 소수점 이하의 점수에 의해 당락이 결정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또 등급도 소수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점수로 산출된 변환표준점수로 구분하고, 등급 경계선의 동점자를 모두 상위 등급으로 처리함으로써 소수점이나 동점에 의한 불이익을 최소화하고자 하였다.

(4) 제2외국어 영역 신설

2001학년도 수능은 제2외국어 영역이 추가된 최초의 수능이다. 제6차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제2외국어 I의 내용과 수준에 맞추어, 학생들이 정상적인 학교 교육을 통해 배양된 기초적인 외국어 의사소통 능력을 측정할 수 있도록 쉽고 일상적인 소재를 중심으로 출제하였다.

6개 과목의 난이도를 유사하게 조정하기 위하여 각 과목의 문항을 내용 영역별 순서 즉, 발음 및 철자, 어휘, 문법, 의사소통 기능, 문화의 순으로 통일하여 제시하였고, 각 내용 영역별 문항 수는 3문항, 3문항, 3문항, 18문항, 3문항으로 하여 총 30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출제 과정에서 외국어과 출제진들이 다른 외국어 과목들의 출제 기법을 상호 검토하고 문제들을 풀어 보는 과정을 여러 번 거쳐 과목 간의 난이도 조정을 하였다. 또한 난이도 조정을 위해 보다 구체적으로 과목별 사용 어휘 수를 통제하였다.

그러나 2001학년도 수능에 처음 채택된 제2외국어 시험 문제가 너무 쉽게 출제되면서 변별력을 상실, '제2외국어 시험 무용론'이 제기되었다(경향신문, 2000. 11. 17). 제2외국어가 쉽게 출제됨에 따라 대학들도 '선발 기준으로 무의미하게 됐다'라고 불만을 토로하기도 하였다.

제4절

안정과 지속(안정기): 2005 ~ 2013학년도

지은림(경희대학교)

수능은 2005학년도부터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강조하였고, 대학은 수능 성적 결과를 활용하는 데 어느 정도 자율성을 가지게 되었다. 이러한 특징은 이후에도 큰 변화 없이 지속되었는데 2014학년도부터는 수준별 수능이 도입되는 큰 변화가 있었으므로 2005학년도부터 2013학년도에 이르는 시기를 안정기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이 시기의 수능 출제는 제7차 교육과정에 기반하였으며, 적성과 흥미에 따른 시험 영역과 과목에 대한 학생의 선택권이 확대되었다. 점수도 영역별, 과목별로 보고하는 체제를 적용하게 되었다. 이외에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여 사회·과학탐구 영역에 직업탐구 영역을 추가하여 실업계 고등학교(현재 특성화고)의 전문 교육 활성화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였고, 제2외국어 영역에 한문을 추가하였다.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던 지나친 사교육비 지출을 줄이기 위해서 시험 문항들을 EBS와 직접적으로 연계하여 출제하도록 한 것도 이 시기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가. 시기 개관

(1) 대학입시제도

수능의 안정기가 시작되었던 2005학년도는 2002학년도 대입제도 개선안을 따르고 있는데, 2002학년도 대입제도의 특징은 다양한 선발방식을 허용하여 대학에 학생 선발 자율권을 보장해 주려고 했던 것이다. 전형 유형도 다양화되어 일반 전형 이외에 특별 전형을 확대하면서 무시험 전형이 도입되었는데, 이는 시험 성적의 비중이 줄어들고 다양한 자료들이 전형자료로 활용될 수 있게 하였다. 결국 이는 대학입시에서 수능의 영향력을 감소시켰다고 할 수 있다. 무시험 전형에서 비교과 영역의 반영이 확대되면서 수능 점수보고 체계에서 기존의 표준점수에 등급을 추가하여 동일한 등급에 있는 학생들은 수학 능력이 유사한 수준으로 판단하여 사용하도록 하였다. 이에 제7차 교육과정의 적용을 받은 학생들이 대학에 진학하기 시작한 2005학년도부터는 수능도 시험 영역과 과목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게 하였으며, 대학들도 자율적으로 개별 교과목 성적을 전형자료로 선택하여 활용할 수 있게 하였다.

이후 2008학년도 대입제도 개선에서는 첫째,

학생부의 신뢰도 제고를 위해 내신 부풀리기를 방지하려는 취지로 상대평가 체제의 9등급제를 도입하였다. 둘째, 수능에서도 성적 위주의 서열화를 줄이고 다양한 전형요소 활용을 유도하기 위하여 수능을 완전 등급제로 전환하여 기존의 백분위와 표준점수는 더 이상 제공하지 않도록 하였다. 이는 대학입시를 위한 수능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것이기도 했다. 이와 같이 대학입시에서 수능의 비중을 줄이고 다양한 전형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 정성적 자료를 전문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입학사정관제도가 도입되기도 했다. 그러나 수능의 등급제는 우수한 학생을 제대로 구분하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제기되면서 '로또 수능'이라는 말이 나오기도 했다. 이로 인해 1년 만에 이전의 점수 체제(백분위, 표준점수, 등급)로 환원하게 되었다. 한편 이명박 정부의 대입 3단계 자율화 방안은 1단계로 수능 등급제 보완, 대입 자율화 조치 및 대학 책무성 강화를 통해 자율화의 기반을 다지고자 하였으며, 2단계로는 수능의 응시 과목을 축소하여 사교육을 완화시킴으로써 공교육을 강화하려고 했고, 3단계로 대학입시를 완전 자율화하고자 했다.

(2) 제7차 교육과정 개편 및 적용

수능이 2005학년도에 변화를 겪게 된 배경으로 제7차 교육과정의 적용을 들 수 있다. 새로운 교육과정의 적용을 받은 고등학생들이 2005학년도에 대학에 진학하게 됨에 따라 교육과정의 변화를 반영하여 수능의 영역과 점수 체제를 변화시키게 된 것이다.

제7차 교육과정은 진로와 적성에 따른 선택과 집중을 추구하고 있으므로 수능에서도 과목들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변화를 가져왔다. 새로운 선택 중심 교육과정은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이 끝나는

11, 12학년에 적용되며 교과와 특별 활동으로 구성되는데, 이 중 교과는 보통 교과와 전문 교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교육과정의 취지를 반영하여 2004학년도까지는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언어, 수리, 사회탐구, 과학탐구, 외국어(영어)가 모두 필수 영역이었지만, 2005학년도부터는 언어, 수리, 외국어(영어), 사회/과학/직업탐구, 제2외국어/한문이 모두 임의 선택이 가능하게 되었고, 시험 출제 범위에서 '수리'는 '가'형과 '나'형으로 분리되었다. 이와 같이 2005학년도부터 수능은 제7차 교육과정의 취지에 따라 학생들의 선택의 폭을 확대하였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실업계고(현재 특성화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사회/과학탐구 영역 이외에 직업탐구 영역을 신설하였으며, 사회 요구를 반영하여 제2외국어 영역에 한문을 추가하게 되었다.

(3) EBS 연계 출제

이 시기 수능은 2005학년도부터 시작된 수능 문제와 EBS 연계를 강화하여 2007학년도부터는 출제 문항 수의 70%를 연계하도록 하였다. 이는 공교육 내실화 및 사교육비 경감을 위하여 교육과정에 충실한 EBS 수능 교재 및 강의와 연계를 강화하되 교육과정에서 주요하게 다루고 있는 개념과 원리 중심으로 연계하여 출제하도록 한 것이었다.

시험 출제는 목표했던 수준으로(문항 수의 70%) EBS와 연계하여 시행되었지만, 의도했던 공교육 내실화와 사교육비 경감의 실현에 대해서는 찬반이 엇갈리고 있다. 문항의 난이도 조절이나 교육의 본질적인 측면에서 시험 출제와 EBS와의 연계가 예상치 못한 현상을 유발했기 때문이다. 시험 문항들과 EBS와의 연계가 내용 차원에서는 어느 정도 가능하지만 문항 난이도까지 조절하기는 어려웠기

때문이다. 이와는 별도로 지나친 연계 강화로 EBS 교재 및 강의 내용을 그대로 학습하는 것은 교육의 본질에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은 고려할 만하다.

나. 시험 체제와 점수 체제의 특징과 변화

이 시기 수능은 기본적으로 제7차 교육과정의 내용과 수준에 맞추어 학교 교육의 정상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출제하며, 출제 범위는 고등학교 2, 3학년 심화선택과목 중심으로 출제하고, 심화선택과목은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을 바탕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선택과목과 관련되는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의 내용은 간접적으로 출제 범위에 포함되도록 했다. 즉, 안정기의 수능에서 가장 주요한 변화는 첫째 수능의 기본 성격이 '통합교과적' 성격에서 '범교과적 성격'으로 전환되었다는 것이고, 둘째 제7차 교육과정의 취지를 반영하여 시험 영역에 대한 선택권이 확대되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탐구 영역에 사회와 과학 영역 이외에 직업탐구 영역이 추가된 것도 이 시기의 특징이다.

한편, 2005학년도부터 시험의 내용이 다음과 같이 달라졌는데, 이는 2013학년도까지 큰 변화 없이 지속적으로 유지되었다. 그 구체적인 특징은 다음과 같다.

- 인문, 자연, 예·체능계열 구분이 없다.
- 평가 영역에는 언어, 수리, 외국어(영어), 사회탐구, 과학탐구 영역 외에 직업탐구 영역을 신설하고, 제2외국어 영역은 제2외국어/한문 영역으로 변경하였으며, 수험생의 선택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 영역에 응시할 수 있다.
- 언어와 외국어(영어) 영역은 범교과적인 주제와 소재를 활용하므로 출제 범위를 특정 과목으로 한정하지 않는다.
- 수리 영역은 '가'형과 '나'형을 선택하여 응시하여야 하며, '가'형에서는 미분과 적분, 확률과 통계, 이산수학 중 1과목을 선택하여야 한다.
- 탐구 영역은 사회/과학/직업탐구 영역으로 이루어지며, 사회탐구와 과학탐구는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으나, 직업탐구 영역은 실업계열의 전문 교과를 82단위 이상 이수(예정)해야만 응시할 수 있다.
- 사회탐구 영역은 11과목 중 최대 4과목, 과학탐구 영역은 8과목 중 최대 4과목을 각각 선택할 수 있으며, 직업탐구 영역은 17과목 중 최대 3과목을 선택하되, 컴퓨터 관련 4과목 중 최대 1과목을, 나머지 13과목 중 최대 2과목을 각각 선택할 수 있다.
- 사회/과학/직업탐구 영역의 시험 시간은 과목당 30분이고, 매 과목 시험 종료 후 2분간의 문제지 회수 시간을 두며, 본인이 선택한 과목의 순서대로 시험에 응시하여야 한다.
- 제2외국어/한문 영역에는 아랍어 I 과 한문이 새로 추가되어 총 8과목 중 1과목을 선택할 수 있다.
- 선택과목과 관련되는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의 내용은 간접적으로 출제범위에 포함된다.
- 성적통지표에는 응시한 영역과 과목명이 표기되며, 영역/선택과목별로 표준점수, 백분위, 등급이 제공된다.

(1) 시험체제

(가) 2005~2007학년도 수능

2005학년도 수능의 가장 큰 변화는 시험 영역들을 임의 선택할 수 있게 된 것이었다. 2004학년도에는 언어, 수리, 사회탐구, 과학탐구, 외국어(영어) 영역들이

〈표 2-4-1〉 2004, 2005학년도 수능 대비표

구분		2004학년도					2005학년도				
기본 성격		• 대학교육에 필요한 수학 능력을 측정하기 위하여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내용과 수준에 따라 통합교과적 소재를 바탕으로 한 사고력 중심의 발전된 학력고사					• 대학교육에 필요한 수학 능력을 측정하기 위하여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내용과 수준에 따라 범교과적 소재 혹은 개별 교과 특성을 바탕으로 한 사고력 중심의 평가를 지향함				
평가 영역 및 선택		• 필수 : 언어, 수리, 사회탐구, 과학탐구, 외국어(영어) • 선택 : 제2외국어					• 임의 선택 : 언어, 수리, 외국어(영어), 사회/과학/ 직업탐구, 제2외국어/한문 • 사회/과학/직업탐구 중 한 영역만 응시				
영 역 별 시 험 체 제	영역	계열	출제 범위	문항 수	시험 시간(분)	문항 형태	출제 범위		문항 수	시험 시간(분)	문항 형태
	언어	공통	전교과	60	90	5지 선다형	범교과		60	90	5지선다형
	수리	인문	공통수학, 수학 I	30	100	5지선다형 (80%), 단답형 (20%)	수리 '가'	수학 I 수학 II	30	100	5지선다형 (70%), 단답형 (30%)
		자연	공통수학, 수학 I, 수학 II	30			수리 '나'	수학 I	30		
		예·체능	공통수학	30							
	외국어 (영어)	공통	공통영어	50	70	5지 선다형	범교과		50	70	5지 선다형
	사회 탐구	인문	필수 + 선택 1	48	120	5지 선다형	11과목 중 택 4 이내		과목당 20	과목당 30	5지 선다형
		자연	필수	32							
		예·체능	필수	48							
	과학 탐구	인문	필수 (공통과학)	32	120	5지 선다형	8과목 중 택 4 이내		과목당 20	과목당 30 (최대 120)	5지 선다형
		자연	필수 + 선택 1	48							
		예·체능	필수	32							
직업 탐구	-	-	-	-	-	4과목 중 택 1 + 13과목 중 택 2 이내		과목당 20	과목당 30	5지 선다형	
제2외국어 /한문	공통	6과목 중 택 1 (100%)	30	40	5지 선다형	8과목 중 택 1		30	40	5지 선다형	

필수이며 제2외국어만 임의 선택이 가능했던 반면에 2005학년도에는 언어, 수리, 외국어, 사회/과학/직업탐구, 제2외국어/한문을 임의 선택할 수 있게 되었고 사회/과학/직업탐구 중 한 영역만 응시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직업탐구 영역이 신설된 것과 제2외국어 영역에 한문이 추가된 것도 큰 변화였다. 이러한 변화는 모두 교육과정과 사회적 요구를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시험은 언어, 수리, 외국어(영어), 사회/과학/직업탐구, 제2외국어/한문의 5개 영역 중 전부 또는 일부 영역의 선택이 가능하도록 했다. 그 중에서 수리 영역은 '가'형과 '나'형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했는데, 수리 '가'형은 미분과 적분, 확률과 통계, 이산수학 중 1과목을 선택해야 하며, 수학 I 에서 12문항, 수학II에서 13문항, 선택과목 5문항을 출제하였다. 한편 수리 '나'형은 수학 I에서 30문항을 출제하도록 했다. 사회/과학/직업탐구 3개 영역에서는 하나의 영역을 선택하도록 했는데, 사회탐구 영역은 11과목 중 최대 4과목, 과학탐구 영역은 8과목 중 최대 4과목 까지 선택 가능했다. 직업탐구 영역은 17과목 중 최대 3과목까지 선택 가능하도록 했다. 5교시에 실시되는 제2외국어/한문 영역 응시자는 8과목 중 1과목만 선택할 수 있었다.

각 영역별로 문항당 배점은 문항의 난이도, 문제 해결에 소요되는 시간, 중요도, 사고 수준 등을 고려

하여 차등 배점하였다. 언어 및 외국어 영역 배점은 1, 2, 3점이고, 수리 영역에서는 2, 3, 4점이며, 사회/과학/직업탐구 영역에서는 2, 3점이고, 제2외국어/한문 영역은 1, 2점으로 차등 배점하였다.

(나) 2008~2011학년도 수능

2008학년도 시험 체제는 2005학년도 이후 시행 되어 온 내용과 거의 동일하나, 언어 영역 문항 수가 60개에서 50개로, 시험시간이 90분에서 80분으로 줄어든 것이 다른 점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언어 영역의 듣기 문항이 6개에서 5개로 줄었다.

(다) 2012~2013학년도 수능

2012학년도 수능에서 달라진 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2008년에 기 확정·예고한 '탐구 영역 최대 선택과목 수 축소'와 2007년 수학과 교육과정 개정에 따른 '수리 영역 출제 과목 조정'이 반영된 것이었다. 이에 따라 사회 및 과학탐구 영역의 최대 선택과목 수가 4과목에서 3과목으로 축소되었으며, 2007년 개정 수학과 교육과정에 따라 수리 영역 '가'형은 '수학 I', '수학 II', '적분과 통계', '기하와 벡터'에서 출제되었고 수리 영역 '나'형은 '수학 I'과 '미적분과 통계 기본'에서 출제되었다.

〈표 2-4-2〉 2005~2007학년도 수능의 영역별 시험 시간, 문항 수 및 배점

교시	시험 시간	시험 영역	문항 수	배점(점)	비고
1	90분	언어	60	100	듣기 문항 6개 포함
2	100분	수리	30	100	단답형 30% 포함
3	70분	외국어(영어)	50	100	듣기·말하기 문항 17개 포함
4	과목당 30분	탐구 (사회/과학/직업)	과목당 20	과목당 50	
5	40분	제2외국어/한문	과목당 30	과목당 50	8개 과목 중 택 1

〈표 2-4-3〉 2005학년도 수능의 영역별 시험 시간, 배점, 문항 수

교시	시험 시간	시험 영역	문항 수	배점(점)	비고
1	80분	언어	50	100	• 듣기 문항 5개 포함 - 08:40부터 13분 이내
2	100분	수리	30	100	• 단답형 30% 포함
3	70분	외국어(영어)	50	100	• 듣기·말하기 문항 17개 포함 - 13:10부터 20분 이내
4	과목당 30분 (회수 2분)	사회/과학/직업탐구 (최대 3과목 선택 가능)	과목당 20	과목당 20	• 선택과목 응시순서는 응시원서에 명기된 탐구 영역별 과목의 순서에 따라야 함. • 문제지 회수 시간은 과목당 2분임
5	40분	제2외국어/한문	30	50	• 8개 과목 중 택 1

〈표 2-4-4〉 2005학년도 수능의 영역별 평가 영역

시험영역	비고
언어	범교과적인 소재를 활용하여 출제
수리	수학 I + 수학 II + 미분과 적분, 확률과 통계, 이산수학의 3개 과목 중 택 1 수학 I
외국어(영어)	범교과적인 소재를 활용하여 출제
사회/과학/ 직업탐구 (최대 4과목 선택 가능)	윤리(윤리와 사상+전통윤리), 국사, 한국지리, 세계지리, 경제지리, 한국 근현대사, 세계사, 법과 사회, 정치, 경제, 사회·문화 등 11과목 중 최대 택 4 물리 I, 화학 I, 생물 I, 지구과학 I, 물리 II, 화학 II, 생물 II, 지구과학 II 등 8과목 중 최대 택 4 농업 정보 관리, 정보 기술 기초, 컴퓨터 일반, 수산·해운 정보 처리 등 컴퓨터 관련 4과목 중 최대 택 1 농업 이해, 농업 기초 기술, 공업 입문, 기초 제도, 상업 경제, 회계 원리, 수산 일반, 해상 일반, 해양 일반, 인간 발달, 식품과 영양, 디자인 일반, 프로그래밍 등 전공 관련 13과목 중 최대 택 2
제2외국어 /한문	독일어 I, 프랑스어 I, 스페인어 I, 중국어 I, 일본어 I, 러시아어 I, 아랍어 I, 한문 등 8과목 중 택 1

(2) 출제의 기본 방향

수능이 2004학년도까지는 대학교육에 필요한 수학 능력을 측정하기 위해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내용과 수준에 따라 통합교과적 소재를 바탕으로 하는 사고력 중심의 '발전된 학력고사'의 성격을 가졌다면, 2005학년도부터는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내용과 수준에 따라 범교과적 소재 혹은 개별 교과목의 특성을

비탕으로 한 사고력 중심의 평가를 지향하였다고 할 수 있다.

언어, 외국어(영어) 영역의 경우에는 가능한 여러 교과가 관련된 범교과적 소재를 활용하거나, 한 교과 내의 여러 단원이 관련된 소재를 활용한 문항을 출제하도록 하였으며, 수리, 사회/과학/직업탐구 및 제2외국어/한문 영역은 개별 교과목의 특성을 비탕으로 한 사고력 중심의 문항을 출제하도록 했다.

〈표 2-4-5〉 2011학년도 대비 2012학년도 수능 시행 상의 변화

변화 유형	2011학년도	2012학년도																																				
출제 기본 방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부의 사교육비 경감 정책에 적극 부응하기 위해 EBS 교재와 연계를 강화하여 출제함. 연계 비율은 문항 수 기준으로 70%이며, 연계 방법은 영역별로 차이가 있으나 중요 개념이나 원리의 활용, 지문 재구성, 그림, 도표 등의 자료 활용, 문항 변형 등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교육 내실화 및 사교육비 경감을 위하여 교육과정에 충실하게 구성한 EBS 수능교재 및 강의와 연계를 강화하여 출제함. 연계 비율은 문항 수 기준으로 70%이며, 연계 유형은 영역별로 차이가 있으나 중요 개념이나 원리의 활용, 지문 재구성, 그림, 도표 등의 자료 활용, 문항 변형 등임. 수능 난이도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영역별 만점자가 1% 수준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함. 																																				
출제 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리 영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 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필수: 수학 I, 수학 II - 선택: 미분과 적분, 확률과 통계, 이산수학 중 1개 · '나' 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필수: 수학 I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리 영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형: 수학 I, 수학 II, 적분과 통계, 기하와 벡터 · 나형: 수학 I, 미적분과 통계 기본 																																				
선택 과목 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과학탐구 최대 선택과목 수: 4과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과학탐구 최대 선택과목 수: 3과목 																																				
영역별 문항 수 및 배점	<table border="1"> <thead> <tr> <th>시험 영역</th> <th>시험 시간</th> <th>비고</th> </tr> </thead> <tbody> <tr> <td>언어</td> <td>80분</td> <td>듣기: 5문항</td> </tr> <tr> <td>수리</td> <td>100분</td> <td></td> </tr> <tr> <td>외국어(영어)</td> <td>70분</td> <td>듣기·말하기: 17문항</td> </tr> <tr> <td>사회/과학/직업탐구</td> <td>126분</td> <td></td> </tr> <tr> <td>제2외국어/한문</td> <td>40분</td> <td></td> </tr> </tbody> </table>	시험 영역	시험 시간	비고	언어	80분	듣기: 5문항	수리	100분		외국어(영어)	70분	듣기·말하기: 17문항	사회/과학/직업탐구	126분		제2외국어/한문	40분		<table border="1"> <thead> <tr> <th>시험 영역</th> <th>시험 시간</th> <th>비고</th> </tr> </thead> <tbody> <tr> <td>언어</td> <td>80분</td> <td>듣기: 5문항</td> </tr> <tr> <td>수리</td> <td>100분</td> <td></td> </tr> <tr> <td>외국어(영어)</td> <td>70분</td> <td>듣기·말하기: 17문항</td> </tr> <tr> <td>사회/과학/직업탐구</td> <td>94분</td> <td></td> </tr> <tr> <td>제2외국어/한문</td> <td>40분</td> <td></td> </tr> </tbody> </table>	시험 영역	시험 시간	비고	언어	80분	듣기: 5문항	수리	100분		외국어(영어)	70분	듣기·말하기: 17문항	사회/과학/직업탐구	94분		제2외국어/한문	40분	
시험 영역	시험 시간	비고																																				
언어	80분	듣기: 5문항																																				
수리	100분																																					
외국어(영어)	70분	듣기·말하기: 17문항																																				
사회/과학/직업탐구	126분																																					
제2외국어/한문	40분																																					
시험 영역	시험 시간	비고																																				
언어	80분	듣기: 5문항																																				
수리	100분																																					
외국어(영어)	70분	듣기·말하기: 17문항																																				
사회/과학/직업탐구	94분																																					
제2외국어/한문	40분																																					

(가) 2005~2008학년도 수능

2005학년도부터 수능은 제7차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내용과 수준에 맞추어 학교교육의 정상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출제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하였다. 언어, 외국어(영어) 영역은 가능한 범교과적 소재를 활용하거나 한 교과 내의 여러 단원이 관련된 소재를 활용하여 출제하도록 하였으며, 수리, 사회/과학/

직업탐구 및 제2외국어/한문 영역은 개별 교과의 특성을 바탕으로 사고력 중심의 문항을 출제하도록 했다.

이외에 문항의 내용과 소재가 교육과정의 전 범위에서 고르게 출제되도록 하였으며, 선택과목 간에는 난이도 조정에 특히 유념하여 출제하도록 했다.

(나) 2009~2010학년도 수능

시험 체제에 있어서는 2005학년도 이후 실시되어 온 내용과 거의 동일하나, 출제 범위에 있어서 국가 교육과정 부분 개정에 따른 변화가 있었을 뿐이다. 사회탐구 영역 국사 과목이 출제 범위에 근현대사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으나 2009학년도부터는 근현대사 내용을 포함하게 된 것이다.

(다) 2011학년도 수능

2011학년도에는 시험 체제와 점수 체제 따른 이전과 변화가 없었으나, 시험 출제에 변화가 있었다. 정부의 사교육비 경감 정책에 부응하여 EBS 교재와 연계하여 문항들을 출제하는 것을 출제의 기본방향으로 정하게 되었다. 시험 문항들과 EBS 교재와의 연계비율은 문항 수 기준으로 70% 수준을 유지하도록 했다. 연계 대상도 당해 연도 수험생을 위한 교재 중 평가원이 감수한 교재 및 강의에 해당하였고, 연계 유형은 영역별로 차이가 있으나 중요 개념이나 원리의 활용, 지문 재구성, 그림, 도표 등의 자료 활용, 문항 변형

등을 포함하도록 했다.

(라) 2012~2013학년도 수능

공교육 내실화와 사교육비 경감을 위하여, 학생들이 학교 교육을 충실히 받고 학교 수업 보충 자료인 EBS 교재와 강의로 보완하면 사교육에 의존하지 않고 수능 준비를 할 수 있도록 EBS 수능 교재 및 강의와 수능 출제의 연계를 전년도 같이 70% 수준으로 유지하였다. 또한 시험 난이도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영역별 만점자가 1% 수준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는 것을 시험 출제의 기본 방향으로 설정하였다.

(3) 응시 현황**(가) 전체 응시 현황**

2005학년도부터 2013학년도까지 수능 안정기의 지원자와 응시자 수 현황을 살펴보면 <표 2-4-6>과 같다.

<표 2-4-6> 2005~2013학년도 수능의 지원자 및 응시자 현황

학년도	지원자(명)	응시자(명)	응시율(%)
2005	610,257	574,218	94.1
2006	593,806	554,345	93.4
2007	588,899	551,884	93.7
2008	584,934	550,588	94.1
2009	588,839	559,476	95.0
2010	677,834	638,216	94.2
2011	712,227	668,991	93.9
2012	693,631	648,946	93.6
2013	668,522	621,336	92.9

〈표 2-4-7〉 2005~2013학년도 수능의 영역별 응시자 현황

(단위: 명)

학년도	언어	수리	외국어 (영어)	탐구			제2외국어 /한문	계
				사회	과학	직업		
2005	567,950	504,258	570,431	339,278	195,182	34,863	123,193	574,218
				569,323				
2006	551,554	498,785	549,544	320,209	198,186	29,215	96,962	554,345
				547,610				
2007	549,960	500,469	546,321	316,490	197,480	29,826	90,843	551,884
				543,796				
2008	549,731	506,233	543,945	317,014	190,381	33,090	89,197	550,588
				540,485				
2009	558,852	519,600	552,503	326,947	186,423	35,520	99,693	559,476
				548,890				
2010	637,530	599,009	629,928	372,113	210,360	43,225	120,817	638,216
				625,698				
2011	668,339	626,537	657,695	387,887	227,264	37,329	107,377	668,991
				652,480				
2012	648,180	605,967	638,385	368,438	237,589	27,864	86,577	648,946
				633,891				
2013	620,469	579,065	607,939	341,931	241,790	18,606	67,782	621,336
				602,327				

시험 응시자는 2005학년도에 574,218명으로 수능이 시행된 이후 처음으로 60만 명 이하로 응시자 수가 감소하였다. 물론 2010학년도부터 다시 응시자 수가 60만 명 이상으로 증가하였으나, 수능 응시자 수는 대체로 하락한 수준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응시율 역시 시행 이후 처음으로 95% 이하로 낮아지기 시작했다.

(나) 영역별 응시 현황

2005학년도부터 2013학년도까지 수능 안정기 영역별 응시자 현황을 제시하면 〈표 2-4-7〉과 같다.

〈표 2-4-7〉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2005학년도부터 2008학년도까지 수능의 응시자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나타냈다. 수능 응시자가 감소하게 된 주요 요인은 대학 수시모집 인원 확대 등으로 인하여 재학생 지원자가 감소하였으며, 새로운 수능 제도로 재수생 지원자 역시 감소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영역별로는 대부분의 수험생이 언어, 수리, 외국어 영역에 응시하였으며, 탐구 영역의 경우에는 수험생 대부분이 사회탐구, 과학탐구, 직업탐구 영역별 최대 과목 수인 4과목 또는 3과목을 선택하였으며, 1개 과목만을 선택한 수험생은 매우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2외국어/한문 영역은 전체 수험생의 20% 내외의

〈표 2-4-8〉 2005~2013학년도 수능의 성별 응시자 현황

(단위: 명)

학년도	남	여	계
2005	304,599	269,619	574,218
2006	292,307	262,038	554,345
2007	292,858	259,026	551,884
2008	292,333	258,255	550,588
2009	296,246	263,230	559,476
2010	335,672	302,544	638,216
2011	354,967	314,024	668,991
2012	347,592	301,354	648,946
2013	331,455	289,881	621,336

응시율을 나타냈으며 응시생 수는 전체 응시생 수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2009학년도부터 2011학년도까지는 수능의 응시자 수가 다시 증가하였다. 이는 20세기 중반 한국 전쟁 이후 우리나라의 베이비 붐 현상과 이어진 사회적 인구 변화로 베이비 붐 세대의 자녀들이 수험생이 되면서 수험생 수가 이전 연도들과는 다른 양상을 보인 것으로 분석된다. 이 시기 수능은 제도의 변화가 크지 않아 응시생 수에 대한 별다른 특징이 나타나지 않는다. 2012학년도와 2013학년도 수능에서도 역시 대부분의 수험생이 언어, 수리, 외국어 영역에 응시하였고, 제2외국어/한문 영역은 전체 수험생 대비 응시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다만 이 시기 수능에서는 탐구 영역의 영역별 최대 선택과목 수가 3과목 또는 2과목으로 감소한 것이 특징적이다.

(다) 성별 응시 현황

2005학년도부터 2013학년도까지 성별 응시자 현황을 제시하면 〈표 2-4-8〉과 같다.

수능 안정기의 성별 응시자 현황을 보면, 2005학년도에 남자가 여자에 비해 약 3만 5천 명 정도 많았으며, 그 차이는 2013학년도에 약 4만 명 이상으로 더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4) 시험 시행

(가) 2005학년도 수능

수능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 나타난 변화 중의 하나는 선택형 수능이 시행되면서 출제를 위한 인력과 비용이 급격히 증가했다는 점이다. 또한 부정행위 방지대책이 강화되어 2005학년도부터 시험 시간 중에 휴대전화, 무선기기 등을 소지하는 것을 부정행위로 간주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후 휴대용 금속탐지기까지 활용하게 되었다.

2005학년도 수능은 2004년 11월 17일 오전 8시 40분부터 전국 73개 시험 지구, 912개 고사장에서 실시되었다. 이 시험에 지원한 수험생 총 610,257명 중 결시자 36,039명을 제외한 응시자는 574,218명으로,

2004학년도에 응시한 642,583명보다 68,365명이 더 적다. 실제 응시자 수에는 시각 장애인 128명, 청각 장애인 187명, 그리고 지체 부자유자 88명이 포함되었다.

(나) 2006학년도 수능

2006학년도 수능은 2005년 11월 23일 오전 8시 40분부터 전국 75개 시험 지구, 966개 고사장에서 실시되었다. 이 시험에 지원한 수험생 총 593,806명 중 결시자 39,461명을 제외한 응시자는 554,345명으로, 2005학년도에 응시한 574,218명보다 19,873명이 더 적다. 실제 응시자 수에는 시각장애인 122명, 청각 장애인 193명, 그리고 지체부자유자 97명이 포함되었다.

(다) 2007학년도 수능

2007학년도 수능은 2006년 11월 16일 오전 8시 40분부터 전국 76개 시험 지구, 971개 고사장에서 실시되었다. 이 시험에 지원한 수험생 총 588,899명 중 결시자 37,015명을 제외한 응시자는 551,884명으로, 2006학년도에 응시한 554,345명보다 2,461명이 더 적다. 실제 응시자 수에는 시각 장애인 131명, 청각 장애인 200명, 그리고 지체 부자유자 93명이 포함되었다.

(라) 2008학년도 수능

2008학년도 수능은 2007년 11월 15일 오전 8시 40분부터 전국 78개 시험 지구, 980개 고사장에서 실시되었다. 이 시험에 지원한 수험생 총 584,934명 중 결시자 34,346명을 제외한 응시자는 550,588명으로, 2007학년도에 응시한 551,884명보다 1,296명이 더 적다. 실제 응시자 수에는 시각 장애인 144명, 청각

장애인 202명, 그리고 지체 부자유자 62명이 포함되었다.

(마) 2009학년도 수능

2009학년도 수능은 2008년 11월 13일 오전 8시 40분부터 전국 78개 시험 지구, 996개 고사장에서 실시되었다. 이 시험에 지원한 수험생 총 588,839명 중 결시자 29,363명을 제외한 응시자는 559,476명으로, 2008학년도에 응시한 550,588명보다 8,888명이 더 많다. 실제 응시자 수에는 시각장애인 166명, 청각 장애인 201명, 그리고 지체부자유자 121명이 포함되었다.

(바) 2010학년도 수능

2010학년도 수능은 2009년 11월 12일 오전 8시 40분부터 전국 79개 시험 지구, 1,124개 고사장에서 실시되었다. 이 시험에 지원한 수험생 총 677,834명 중 결시자 39,618명을 제외한 응시자는 638,216명으로, 2009학년도에 응시한 559,476명보다 무려 78,740명이 더 많다. 실제 응시자 수에는 시각 장애인 166명, 청각 장애인 243명, 그리고 지체 부자유자 118명이 포함되었다.

(사) 2011학년도 수능

2011학년도 수능은 2010년 11월 18일 오전 8시 40분부터 전국 82개 시험 지구, 1,206개 고사장에서 실시되었다. 이 시험에 지원한 수험생 총 712,227명 중 결시자 43,236명을 제외한 응시자는 668,991명으로, 2010학년도에 응시한 638,216명보다 30,775명이 더 많다. 실제 응시자 수에는 시각 장애인 189명, 청각 장애인 297명, 그리고 지체 부자유자 167명이 포함되었다.

(아) 2012학년도 수능

2012학년도 수능은 2011년 11월 10일 오전 8시 40분부터 전국 84개 시험 지구, 1,207개 고사장에서 실시되었다. 이 시험에 지원한 수험생 총 693,631명 중 결시자 44,685명을 제외한 응시자는 648,946명으로, 2011학년도에 응시한 668,991명보다 20,045명이 더 적다. 실제 응시자 수에는 시각 장애인 200명, 청각 장애인 315명, 그리고 지체 부자유자 142명이 포함되었다.

(자) 2013학년도 수능

2013학년도 수능은 2012년 11월 8일 오전 8시 40분부터 전국 85개 시험 지구, 1,191개 고사장에서 실시되었다. 이 시험에 지원한 수험생 총 668,522명 중 결시자 47,186명을 제외한 응시자는 621,336명으로, 2012학년도에 응시한 648,946명보다 27,610명이 더 적다. 실제 응시자 수에는 시각 장애인 162명, 청각 장애인 197명, 그리고 지체 부자유자 142명이 포함되었다.

(5) 성적 분석

제7차 교육과정¹⁾이 적용되는 2005학년도 수능부터는 선택과목 응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과목 간 난이도에 따른 점수의 불균형 문제에 대비하여 원점수를

발표하지 않았다. 대신 표준점수¹⁾ 체제에 의해 수능 성적을 발표하게 되어 성적표에는 영역/과목별 표준점수, 표준점수에 의한 백분위 점수, 등급(9개 등급)으로 표기되었다.

표준점수 체제에서는 평균이 항상 동일하기 때문에 해당 시험의 난이도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보통 표준점수 최고점이 사용된다. 즉 표준점수 최고점이 다른 해보다 높게 나타나면 학생들의 성적이 넓은 구간에 분포한 것인데 이는 시험이 어려워져 우수한 학생과 그렇지 않은 학생들의 편차가 커졌다는 것을 의미한다.²⁾ <표 2-4-9>는 2005학년도부터 2013학년도까지 수능의 언어, 수리, 외국어(영어) 영역의 표준점수 최고점을 보여준다.

이 시기 언어 영역의 난이도 변화를 표준점수 최고점의 변화 추이를 통해 분석하면 2009학년도와 2011학년도의 시험이 비교적 어려웠으며, 2006학년도와 2013학년도가 쉬웠음을 알 수 있다. 수리의 경우는 '가'형은 2009학년도와 2011학년도가 어려웠고, '나'형의 경우는 2009학년도가 매우 어려웠음을 알 수 있다. 외국어(영어) 영역의 경우 2006학년도와 2011학년도 시험이 비교적 어려웠다. 이들 세 영역을 중심으로 보았을 때 이 시기 중 2011학년도의 시험이 비교적 어려운 시험이었음을 알 수 있다. 그에 비하면 최근에 치러진 2012학년도와 2013학년도 시험은 이 시기 중 비교적 쉬운 시험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 시기 성적에서 등급별 비율은 언어, 수리, 외국어(영어) 영역의 경우 대체로 9등급제 비율을 유지하였으나, 과목별 문항 수가 적거나 응시자 수가 적은

1) 표준점수는 상대적 서열을 나타내는 점수로서, 영역/과목별로 정해진 평균과 표준편차에 따라 원점수를 변환하여 상대적 위치가 어디인지를 나타내는 점수로 수험생 개인의 표준점수는 평균으로부터 얼마만큼 떨어져 있는지를 표준편차의 단위로 나타내게 된다. 수능에서는 언어, 수리, 외국어(영어) 영역은 평균을 100점, 표준 편차를 20으로, 탐구 영역에서는 평균을 50점, 표준편차를 10으로 설정하여 점수를 계산한다.

2) 그러나 이 결과는 시험의 절대적인 난이도를 직접적으로 보여준다기보다는 시험을 치른 학생들의 성적 분포의 입장에서 학생들 간에 성적 격차가 크고 작음을 통해 시험의 난이도를 간접적으로 추정할 것이라 할 수 있다.

〈표 2-4-9〉 2005~2013학년도 수능의 표준점수 최고점 현황

(단위: 점)

학년도	언어	수리		외국어 (영어)
		'가'형	'나'형	
2005	135	141	150	139
2006	127	146	152	142
2007	132	145	140	134
2008 ³⁾ *	-	-	-	-
2009	140	154	158	136
2010	134	142	142	140
2011	140	153	147	142
2012	137	139	138	130
2013	127	139	142	141

* 2008학년도의 경우, 표준점수 없이 등급만 통보되었으므로 공식적인 성적 결과가 존재하지 않음

탐구 영역 및 제2외국어/한문 영역의 경우, 어떤 과목에서는 정해진 등급별 비율을 벗어나거나 일부 등급의 점수가 나타나지 않기도 하였다. 또 등급 구분점수가 어떻게 결정되는지를 통해 학생들의 과목 선택에서의 유리리를 기늬할 수도 있다. 이 경우 같은 등급이라도 어려운 과목을 선택하여 표준점수가 높은 학생이라면 입학전형에서 그렇지 않은 학생보다 유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선택과목이 있는 탐구 영역의 경우, 과목 간 등급 구분점수의 차이가 지나치게 크게 나타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할 수 있다.

〈표 2-4-10〉은 언어, 수리, 외국어(영어) 영역과 탐구 영역의 1등급 구분 표준점수의 추이를 보여준다. 이 시기 언어, 수리, 외국어 영역의 1등급 구분 표준점수를 통해 수능 성적을 분석해 보면 이들 세 개 영역의 1등급 구분 표준점수는 수리 '나'형 외에는 모두 130점 정도에서 결정되고 있으며, 대부분의

학년도에서 이들의 표준점수 차이도 그렇게 크지 않다.

수리 '나'형의 경우, 다른 영역보다 1등급 구분 표준점수가 더 높게 나타나는데 이는 이 영역을 응시하는 학생들의 성적 격차가 크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나 수리 '나'를 전형 요소로 활용하는 대학이 인문계열이라는 것을 고려하면 이와 같은 결과를 통해 문과 학생들의 대학 입학에 영향력이 큰 영역이 언어 영역이 아니라 수리 영역임을 알 수 있다.

〈표 2-4-11〉은 이 시기 탐구 영역의 1등급 구분 표준점수를 보여준다. 이 표에 따르면 사회탐구 영역과 과학탐구 영역에서 1등급 구분 표준점수는 대략 65점 전후로 나타났다. 한편 직업탐구 영역은 60점~70점 정도의 범위, 제2외국어/한문 영역 65점 전후로 나타났다. 1등급 구분 점수의 경우, 최고점과 최저점의 차이가 적을수록 과목 선택에 따른 유불

3) 2008학년도의 경우, 표준점수 없이 등급만 통보되었으므로 공식적인 성적 결과가 존재하지 않음.

〈표 2-4-10〉 2005~2013학년도 수능의 언어, 수리, 외국어 영역 1등급 구분 표준점수

(단위: 점)

학년도	언어	수리		외국어 (영어)
		'가'형	'나'형	
2005	128	131	140	132
2006	125	134	139	133
2007	127	134	137	130
2008*	-	-	-	-
2009	131	135	138	131
2010	128	132	135	133
2011	129	132	139	132
2012	131	130	135	128
2013	125	132	136	134

* 2008학년도의 경우, 표준점수 없이 등급만 통보되었으므로 공식적인 성적 결과가 존재하지 않음

〈표 2-4-11〉 2005~2013학년도 수능의 탐구 및 제2외국어/한문 영역 1등급 구분 표준점수

(단위: 점)

학년도	사회 탐구			과학 탐구			직업 탐구			제2외국어/한문		
	최고점	최저점	차이	최고점	최저점	차이	최고점	최저점	차이	최고점	최저점	차이
2005	66	61	5	67	61	6	71	63	8	68	63	5
2006	68	63	5	67	64	3	70	65	5	69	64	5
2007	68	65	3	69	64	5	71	66	5	69	66	3
2008*	-	-	-	-	-	-	-	-	-	-	-	-
2009	69	66	3	68	65	3	71	65	6	76	65	11
2010	70	64	6	70	65	5	72	67	5	80	64	16
2011	69	66	3	70	67	3	72	66	6	82	65	17
2012	69	64	5	69	65	4	70	64	6	81	65	16
2013	70	65	5	70	65	5	71	66	5	80	64	16

* 2008학년도의 경우, 표준점수 없이 등급만 통보되었으므로 공식적인 성적 결과가 존재하지 않음

리가 적다고 할 수 있는데, 이 시기 사회탐구 영역과 과학 탐구 영역의 경우 1등급 구분 점수의 차이는 대체로 3~6점 정도이다. 이 차이는 앞에서 살펴본 언어 영역, 수리 '가'형, 외국어(영어) 영역의 점수 차이와 유사한 정도이다.

앞에서 비교적 어려운 시험으로 보았던 2009학년도의 경우, 사회탐구와 과학탐구 최고점과 최저점의

차이가 모두 3점 정도여서 공통 과목이라고 할 수 있는 언어, 수리, 외국어(영어) 영역에서의 시험은 다소 어려웠지만 선택과목이라고 할 수 있는 사회탐구와 과학탐구 영역에서 과목 선택에 따른 유불리는 크지 않았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그런데 직업탐구 영역이나 제2외국어/한문 영역의 경우, 1등급 구분점수의 최고점과 최저점의 차이는

사회탐구나 과학탐구 영역보다 크게 나타났다. 이는 이들 영역을 치르는 학생들의 성적 편차가 더 큼을 보여준다. 특히 제2외국어/한문 영역의 경우는 2009학년도부터 1등급 구분점수의 최고점과 최저점의 차이가 더 커지고 있다.⁴⁾

(6) 점수 체제

이 시기에는 수능 영역에서 선택의 기회를 확대함에 따라 점수 체제에서도 변화가 생겼다. 2004학년도까지는 5개 영역 종합 등급을 제공하며 선택 과목명을 표기하지 않았던 것과 달리, 2005학년도부터는 영역별 과목별로 표준점수, 백분위, 등급을 제시하도록 하였으며 선택과목명을 표기하도록 하였다.

2005학년도부터 2013학년도에 이르기까지 대학 수능능력시험을 위한 점수 체제는 이와 동일하게 유지되었으나, 2008학년도에는 표준점수와 백분위는 제공하지 않고 등급만 제공하기도 했다. 이 당시에 등급만 제공한 것은 1~2점 차이로 학생들을 비교, 경쟁하는 것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었지만, 오히려 1~2점 차이로 등급이 달라지는 문제가 유발되는 것과 등급만으로 학생들을 변별하기 어렵다는 점이 지적되어 1년 만에 폐지되었다.

(가) 2005~2007학년도 수능

2004학년도까지 점수 보고를 위해 원점수 및 백분위점수, 표준점수, 변환표준점수 및 백분위점수,

영역별 등급, 5개 영역 종합등급을 포함하며 선택 과목명을 표기하지 않았지만, 2005학년도부터는 영역별 과목별 표준점수, 백분위 및 등급만 표기하고 원점수 및 종합등급은 표기하지 않게 되었다. 이외에 수리 영역은 ‘가’, ‘나’형으로 표기하고, 사회/과학/직업탐구 영역, 제2외국어/한문 영역에서는 선택과목명을 표기하게 되었다.

(나) 2008학년도 수능

2008학년도에 점수 체제가 등급제로 된 것은 수능에서 주요한 변화라고 볼 수 있다. 수능 성적 1~2점 차이에 의해 치열한 경쟁이 발생하는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점수 보고에서 표준점수와 백분위 점수를 제공하지 않고 등급점수만 제공하게 되었던 것이다.

점수 보고에서 등급만 제공함에 따라 1~2점에 따른 점수 경쟁은 완화할 수 있게 되었으나, 근소한 점수 차이에도 등급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 새로운 문제점으로 제기되기도 했다. 이는 수능 등급제의 타당성 및 공정성에 대한 의구심을 유발하게 되었으며, 점수의 변별력 감소가 학생 선발을 위한 수능의 활용도를 저하시킨다는 지적으로 1년 만에 등급제를 폐지하게 되었다. 이에 2009학년도부터는 다시 점수 보고를 위해 표준점수, 백분위, 등급을 모두 제공하게 되었다.

(다) 2009~2013학년도 수능

2008학년도에 영역/과목별로 등급만 제공하게

4) 2009학년도부터 제2외국어/한문 영역의 표준점수의 최고점이 많이 높아졌는데 이에 해당하는 과목이 대체로 러시아어, 아랍어 등이다. 이는 표준점수 체제가 계속되면서 표준점수 산출의 특성을 이해하는 학생들이 시험 준비 없이 이들 과목에 응시하는 경우가 많아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표 2-4-12〉 2005~2013학년도 수능의 점수 체제

시기	점수 체제
2005~2007학년도	표준점수, 백분위, 등급
2008학년도	등급
2009~2013학년도	표준점수, 백분위, 등급

되었던 것이 2009학년도부터는 다시 영역/과목별로 표준점수, 백분위, 등급을 제공하게 되었다. 이는 등급만 제공했을 때 1~2점 차이로 등급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점수의 타당성 및 공정성을 저해시킬 수 있다는 지적과 함께 학생 선발에 활용되는 시험으로서 점수의 변별력이 약화되었다는 문제가 제기되었기 때문이다.

다. 이슈와 여적

(1) 수능의 개념 및 목적의 변화

수능은 처음 도입된 1994학년도에는 ‘대학교육에 필요한 수학 능력을 알아보기 위하여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내용과 수준에 맞추어 언어, 수리, 탐구, 외국어(영어) 영역별 통합교과적 소재를 바탕으로 한 사고력 중심의 평가’로 개념화 되었으며, 시험의 목적을 ‘대학 수학 적격자의 선발’, ‘고교 교육 정상화에 기여’, ‘학생 선발에 공공성과 객관성이 높은 자료 제공’에 두고 있었다. 이러한 시험의 개념과 목적으로 시작되었지만 2005학년도부터 수능은 ‘범교과적 소재 또는 개별 교과 특성’을 바탕으로 한 사고력 중심의 평가’로 변화되었다. 물론 시험의 목적은 동일하게 남아 있다.

수능이 처음 도입된 후 20여 년이 지났지만 시험의 성격 및 기능에 대한 쟁점은 여전히 일관되게 남아 있다. 수능이 처음 도입될 때 학생들을 잘 세우기

하는 학력고사로부터 탈피하여 고차적인 사고력을 측정하고자 하였던 취지를 살리고자 하지만 대학 입학전형에서 영향력이 줄지 않아 여전히 고부담 시험으로 받아들여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수능의 본질을 추구하고 대입에서 수능의 영향력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제도를 도입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수능 외에 특기 적성 관련 선발 비중을 높이려고 했고, 고등학교 비평준화를 폐지하기도 했다. 또한 대학입학전형에서 내신과 논술의 반영 비율을 높여보기도 하고 2008학년도에는 등급제를 도입하여 수능을 ‘자격 고사화’하는 것도 추진해 왔다. 이러한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수능의 본질에 대한 논쟁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2) 교육과정에 따른 변화

수능은 2004학년도까지 언어 영역, 수리 영역, 외국어 영역, 탐구 영역을 모두 필수로 정하였으나 2005학년도부터는 영역별 과목별로 임의 선택을 할 수 있게 하였다는 것이 이 시기 수능의 가장 주요한 변화라고 할 수 있다. 수능이 선택제로 변화된 데는 무엇보다도 제7차 교육과정의 영향을 받아 수험생들이 자신의 적성과 소질을 고려할 수 있게 하고 더불어 자신이 시험 과목을 임의 선택하게 함으로써 학생들의 시험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 기본 취지였다.

그러나 수험생들은 실제로 자신의 적성과 소질에 맞추어 적절한 과목을 선택하여 응시하기보다는 응시 가능한대로 모든 과목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었다. 2005년 수능에 응시한 전체 수험생 574,218명 중 494,708명이 언어, 수리, 외국어(영어), 탐구의 네 영역 모두에 응시한 것으로 나타났고 사회탐구나 과학탐구 영역의 경우에도 선택할 수 있는 최대 과목 수인 4과목에 응시한 수험생이 해당 영역 전체 응시 수험생 중 85.7%, 84.4%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은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는데 이는 수능의 대학입학전형에 대한 영향력이 크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수능이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부담이 되더라도 조금이라도 유리한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모두 확보하고 싶은 수험생의 심리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한편 2007개정 교육과정부터 수학 교육과정이 인문계열에서 미적분이 부활하는 대신 순열과 조합이 사라지고, 자연계열에서는 수학 I, 수학 II, 기하와 벡터, 적분과 통계 등으로 재편되었다. 2012학년도 수능은 이런 변화를 반영하여 인문계 학생들이 주로 선택하는 수리 '나'형은 '수학 I', '미적분과 통계 기본'을, 자연계 학생들이 주로 선택하는 수리 '가'형은 '수학 I', '수학 II', '적분과 통계', '기하와 벡터'로 출제 범위를 조정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학습량의 증가가 우려되자 정부는 인문계의 미적분이 기초 수준의 내용이고, 수리 '가'형도 기존의 별도 과목을 통합 정리한 것이므로 학습 부담이 크게 증가하지 않을 것이라 밝히기도 하였다(동아일보, 2008.12.18).

(3) 직업탐구 영역 신설

2005학년도 수능이 제7차 교육과정에 따라 영역별 과목별 임의 선택이 가능하도록 하면서 새로운 수능 체제를 도입하게 되었는데, 이때 함께 시작된 변화는

직업탐구 영역의 신설이었다. 기존의 사회/과학탐구 영역에 직업탐구 영역을 추가하게 된 것은 정부가 '실업교육 육성방안(2001)'을 발표하면서 실업계고 학생들의 대학입학 기회를 확대하고자 했던 것이다.

직업탐구 영역의 신설은 실업계고 학생들에게 대학 교육의 기회를 확대하고 전문 교과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였다. 그러나 이는 취업 중심이라는 실업계고의 정체성을 위협한다는 우려를 낳기도 하였다.

(4) 점수 체제의 적절성 논란

2005학년도부터는 영역/과목별로 표준점수, 백분위, 9등급을 제공하였다. 그러나 2008학년도에는 경쟁을 완화하기 위하여 등급만을 제공하였다. 실제로 1~2점과 같은 근소한 차이에 의해 등급이 달라진다는 것은 평가의 신뢰성을 오히려 저해할 수 있다는 지적도 가능하다. 결국 등급제 수능은 1년 만에 폐지되고 표준점수, 백분위, 등급을 제공하는 이전의 점수 체제로 환원하게 되었다. 이 시기(2004~2007년)의 연표에서도 여러 차례에 걸쳐 2008학년도 수능 등급제의 문제를 지적하기도 했다(양길석, 2010, 재인용). 즉, 수능 등급제는 우수 학생 변별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교육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으며, 수능의 변별력 약화에 따른 논술 및 면접 대비 사교육 조장이 가능하다는 것을 문제로 지적하였다. 또한 등급이 1~2점 차이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경쟁이 오히려 치열해질 수 있다는 것도 지적하였다.

이러한 수능의 점수 체제는 대학입시에서 학생을 선발하는 데 사용된다는 측면에서는 변별력이 중요한 요소라는 점과 교육적 차원에서는 수험생이 1~2점 차이에 의해 경쟁하는 것을 지양하도록 해야 한다는 점에서 갈등을 겪게 하였다. 점수에 대한 쟁점은 향후에도 계속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5) 수능 EBS 연계 출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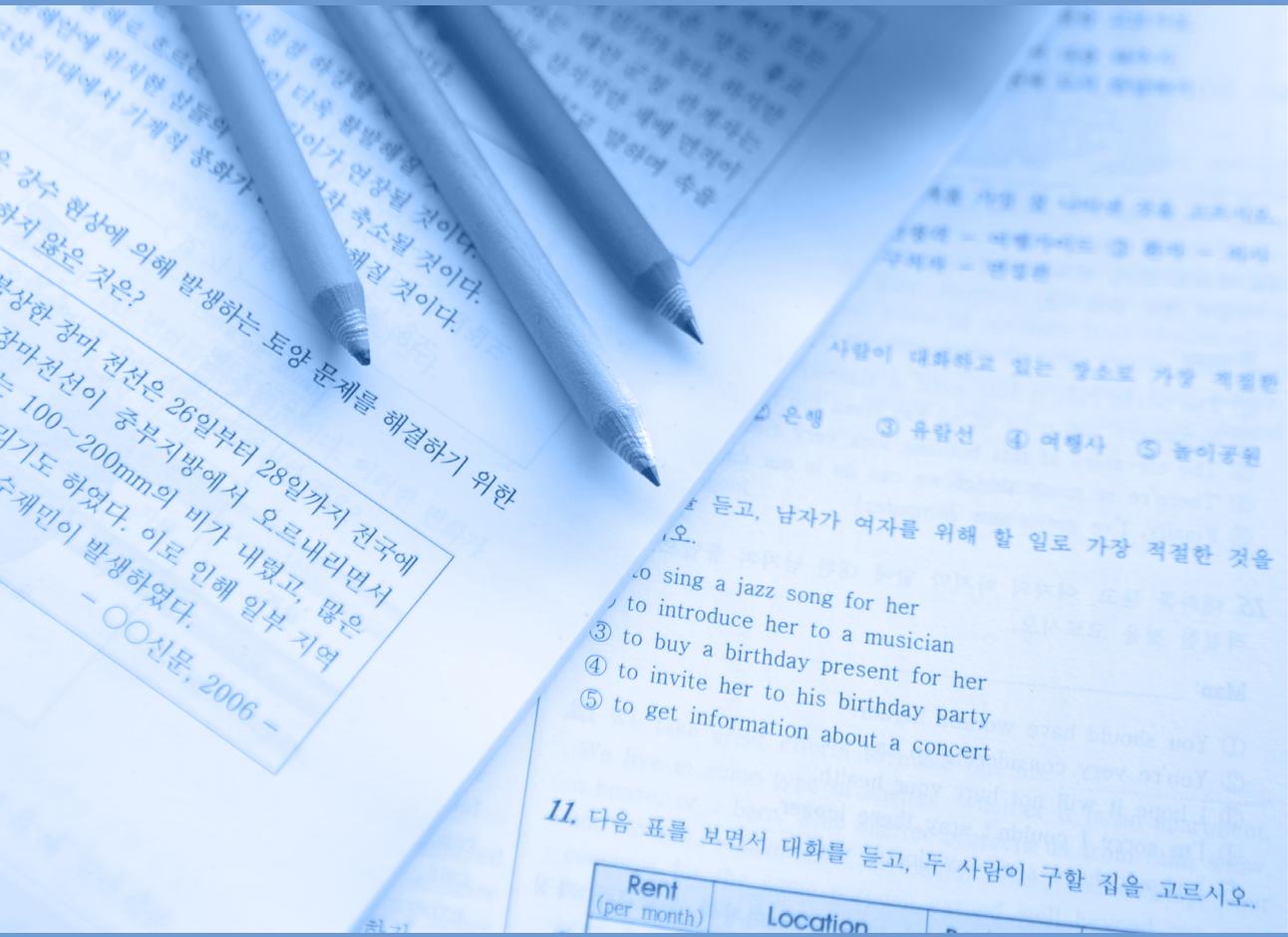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수험생들의 수능 대비에 도움을 주고자 1998년부터 수능 출제에 EBS 강의 혹은 교재의 내용을 연계하고 있다. 이는 정부의 성공적인 교육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이후에도 사교육 억제 및 공교육 정상화 정책의 일환으로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EBS를 활용한 수능 정책을 성공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는 깊이 있게 고려해야 할 부분도 있다.

특히 2011학년도부터 70% 이상의 문항을 EBS교재나 강의와 직접 연계하여 출제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러한 과도한 연계 출제가 적절한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연계 대비 교재의 수가 너무 많으며, 강의를 듣는 데 필요한 비용이 적지 않다는 것, 또 정규 수업에서 교과서 수업이 아닌 EBS 교재 풀이 수업이 이루어지는 것 등은 이 정책의 시행 취지와 맞지 않는 부분이다. 따라서 수능 EBS 연계 출제가 본래의 취지를 살리면서 교육의 본질에 충실할 수 있도록 정책의 구체적인 실행 방향과 방법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교육개혁심의회(1986a), 교육개혁의 기본 방향, 교육개혁심의회 회의 자료.
- 교육개혁심의회(1986b), 대학입시제도의 개선, 교육개혁심의회 정책연구 III-2.
- 교육개혁심의회(1987a), 교육개혁안, 교육개혁심의회 회의 자료.
- 교육개혁심의회(1987b), 교육개혁 종합 구상, 최종보고서 II.
- 교육개혁위원회(1995), 세계화·정보화 시대를 주도하는 신교육체제 수립을 위한 교육개혁 방안, 2차 대통령 보고서.
- 구창현(1995), 대학수학능력시험의 과정, 국립교육평가원 10년사(pp. 181-239), 국립교육평가원.
- 국립교육평가원(1992), 대학수학능력시험 실험평가 문제집, 국립교육평가원.
- 국립교육평가원(1993), 새 대입 제도에 따른 대학수학능력시험 해설, 국립교육평가원.
- 국립교육평가원(1995), 국립교육평가원 10년사, 국립교육평가원.
- 국정브리핑 특별기획팀(2007), 대한민국 교육 40년, 한스미디어.
- 권군(1989), 대학교육적성시험 문항 개발 연구- 과학 영역, 중앙교육평가원.
- 김영길, 이수환, 김진규(1986), 대학수학능력검사 개발 연구(I), 중앙교육평가원.
- 김영채 외(1986), 대학입시제도의 개선, 교육개혁심의회.
- 김형립, 박승재, 정세구(1990), 대학교육적성시험 실험평가 연구- 수리탐구 영역, 중앙교육평가원.
- 대학입학시험제도연구위원회(1989), 대학입학시험제도 개선방안 연구, 한국대학교육협의회.
- 박도순(1990), 대학입학시험제도 개선안, 회의 자료.
- 양길석(2010), 대학수학능력시험의 변천 과정과 쟁점 분석, 교육평가연구, 23(4), 한국교육평가학회.
- 이종승(1989), 대학교육적성시험의 개념화, 교육평가연구회 발표 자료.
- 이종성, 강봉규(1989), 대학교육적성시험 문항 개발 연구- 수리 영역, 중앙교육평가원.
- 이종성, 김광해(1989), 대학교육적성시험 문항 개발 연구- 언어 영역, 중앙교육평가원.
- 이종성, 김광해, 노명완(1990), 대학교육적성시험 실험평가 연구- 언어 영역, 중앙교육평가원.
- 장석우, 김덕기(1990), 대학교육적성시험 실험평가 연구- 외국어 영역, 중앙교육평가원.
- 중앙교육평가원(1991), 대학수학능력시험은 이런 방향으로 실시됩니다, 중앙교육평가원.
- 한국교육과정평가원(2005), 대학수학능력시험 10년사(I),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한면희(1989), 대학교육적성시험 문항 개발 연구- 사회 영역, 중앙교육평가원.
- 황정규(1987), 대학수학능력검사의 표준화를 위한 기준 제작 연구, 중앙교육평가원.
- 황정규(1988), 대학교육적성시험 개발을 위한 기초 연구, 중앙교육평가원.
- 황정규(1989), 대학교육적성시험의 활용 방안, 중앙교육평가원.
- 황정규(1990), 대학교육적성시험 실험평가 연구- 개념 정립과 실시 방향, 중앙교육평가원.



해상에 위치한 섬들의 기온이 낮아지고...
강수 현상에 의해 발생하는 토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지 않은 것은?

부상한 장마 전선은 26일부터 28일까지 전국에
장마전선이 중부지방에서 오르내리면서
100~200mm의 비가 내렸고, 많은
리기도 하였다. 이로 인해 일부 지역
수재만이 발생하였다.
- OO신문, 2006 -

사람이 대화하고 있는 장소로 가장 적절한 것을
① 은행 ② 유람선 ③ 여행사 ④ 놀이공원
듣고, 남자가 여자를 위해 할 일로 가장 적절한 것을
① to sing a jazz song for her
② to introduce her to a musician
③ to buy a birthday present for her
④ to invite her to his birthday party
⑤ to get information about a concert

11. 다음 표를 보면서 대화를 듣고, 두 사람이 구할 집을 고르시오.

Rent (per month)	Location
---------------------	----------

KICE

Korea Institute for Curriculum and Evaluation

A 20-Year History of College Scholastic Ability Test

제3장 영역별 변천사

제1절 언어 영역

제2절 수리 영역

제3절 외국어(영어) 영역

제4절 사회탐구 영역

제5절 과학탐구 영역

제6절 직업탐구 영역

제7절 제2외국어/한문 영역

제1절

언어 영역

김성룡(호서대학교)

가. 개요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 언어 영역은 1994학년도 수능에 도입된 이래 지금까지 계속 시행되어 온 영역이다. 그동안의 크고 작은 변화에도 불구하고 언어를 통한 사고력과 문제 해결력의 측정이라는 시험 목표에 맞춰 다양한 전공 분야 출제진의 협업을 통해 문제를 제작해 왔다. 이런 이유로 언어 영역은 수능의 기본적인 취지를 잘 구현하는 시험이며, 수능의 성향과 수준을 대표하는 시험으로 자리잡아 왔다고 할 수 있다.

(1) 도입 배경과 취지

수능 언어 영역의 기본 취지와 방향은 1985년 교육개혁심의회가 발표한 10대 교육개혁안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각급 학교의 입시제도 역시 학교 교육을 정상화하고 전인적인 발달을 조장할 수 있는 방향으로 쇠퇴되지 않으면 안 된다. 아울러 수학 능력 측정이라는 입시제도 고유의 기능을 소홀히 할 수 없으며 현재의 지식 정도보다는

잠재적인 학업 적성(Scholastic aptitude)의 평가에 역점을 두는 방향으로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여기서 대학입학시험은 수학 능력을 측정하는 것이며 그것은 현재적 지식보다는 잠재적 학업 적성을 측정하는 것이고, 따라서 시험의 성격도 적성시험임을 명시적으로 제안하고 있다. 다만 이 보고서는 ‘대학교육적성시험’을 제안했으나 그것이 어떤 내용의 것인지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다.

언어는 인간의 고등 사고가 하는 모든 활동에서 핵심적인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에 언어 능력이 대학 수학 능력을 측정하는 데에 필수 요소이다. 문제는 대학입학시험에서 선천적으로 갖춘 보편적인 언어 능력과 후천적 학습의 결과로서 습득한 언어 능력 중 어느 것을 더 중시해야 하느냐 하는 것이다. 전자를 강조할수록 일반적 지능 검사와 구별하기 어렵게 되고, 후자를 강조할수록 과거의 학력고사와 다르지 않게 된다.

따라서 수능 언어 영역을 설계했던 연구진은, ‘중대 학력고사에서 국어 시험 출제의 중심을 이루던 국어 전문 지식, 예컨대 국문학 이론, 국문학사, 문법 등의 지식에 해당되는 사항은 평가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고 보았다. 즉 수능 언어 영역에서 측정하

고자 하는 언어 능력을 국어와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는 것이긴 해도 국어 교과와 전문 지식이 아니라 언어 사용에 동원되는 고등사고 능력 일반으로 본 것이다.

1990년 12월 19일 첫 실험평가가 시행된 후 이듬해에도 세 차례에 걸쳐 실험평가가 계속되었다. 1991년에는 대학교육적성시험이라는 명칭에서 대학수학능력시험이라는 명칭으로 바뀌었다. 4차 실험평가(1991.11.27)는 그동안의 세 차례 실험평가를 반성하면서 시험 영역에 큰 변화를 꾀했다. 고등학교 국어 교육과정을 반영하되, 지필 고사로서 측정하기 어려운 말하기 영역을 제외한 듣기, 쓰기, 읽기로 내용영역을 확정했다. 이것은 1992년에 시행된 5, 6, 7차 실험평가의 골격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언어 영역 시험 내용영역의 기준이 되었다. 이에 앞서, 이전의 네 차례 실험평가를 바탕으로 언어 영역의 제재, 출제 비중, 방향 등에 대한 구체적 지침을 담고 있는 출제 지침이 완성되었다. 이것은 이후 언어의 출제 기본지침으로 준용되었다는 데서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

1993년에는 4월에 1994학년도 수능 시행계획이 발표되고, 이 후 두 차례(1993.8.20, 1993.11.16) 시행되었다. 1차 시험은 고등학교 3학년 1학기까지, 2차 시험은 고등학교 전 범위로 하고 그 중 높은 시험 점수를 사용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두 차례의 시험에서 난이도 조절에 실패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했으므로, 이후 1년에 한 차례 시행하는 것으로 정했다.

이 해 발표된 수능의 시행계획에 따르면 언어 영역의 평가목표와 내용은, ‘대학 수학 과정에서 요구되는 우리말 사용에 관련된 어휘능력과 사실적·추리 상상적·비판적·논리적 사고 능력을 측정’하는 것이었다. 이 평가목표와 내용을 실제 출제 과정에서 듣기, 읽기, 쓰기의 내용영역으로 설정하고 ‘어휘력 평가’, ‘사실적 사고 능력 평가’, ‘추리·상상

적 사고 능력 평가’, ‘비판적 사고 능력 평가’, ‘논리적 사고 능력 평가’ 등의 행동영역으로 상세화하였다.

수능은 처음부터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반영한다고 표방해 왔으므로, 언어 영역의 시험 범위는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내용과 수준으로 설정되었다.

언어 영역 시험 범위는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전 범위라는 일반적인 수준의 원칙만 제시하였고, 2005학년도 수능의 시행 세부계획부터 ‘제7차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고등학교 2, 3학년 심화선택과목을 중심으로 출제한다고 하였다. 2007 개정 교육과정이 적용되기 시작한 2012학년도 언어 영역 시험부터는 ‘제7차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범위에서 출제한다.’는 지침이 시행 세부계획에서 삭제되었다. 하지만 ‘고등학교 2, 3학년 심화선택과목 중심’이라는 것은 계속 유지되고 있다.

(2) 언어 영역의 성격 및 평가목표

언어 영역의 성격과 평가목표는 1992년에 국립교육평가원에서 발간한 「대학수학능력 시험 실험평가 문제집」(이하 「실험평가 문제집」), 그리고 2004년에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하 평가원) 발간한 「대학 수학능력시험 출제 매뉴얼 - 언어 영역, CAT 2004-22-2」(이하 「출제 매뉴얼」), 매해 새 학년도의 시험 시행을 앞두고 발표하는 각종 ‘시행계획(‘실시계획’, ‘시행공고문’, ‘실시요강’ 등의 각종 문건)’ 등에서 알 수 있다.

이 중에서 「실험평가 문제집」은 2004년에 발간된 「출제 매뉴얼」이 만들어지기 전까지 언어 영역 시험의 기본 성격과 평가의 목표를 적시한 것으로서 두 가지 의의를 갖는다. 하나는 실험평가부터 이후 10여 년간 언어 영역의 성격과 평가목표의 근간이 되었다는 점, 다른 하나는 「출제 매뉴얼」과 비교해도 몇몇 변화가 있기는 해도 그야말로

언어 영역의 기본 골격이 되었다는 점 등이다. 이하 언어 영역의 성격 및 평가목표는 이 세 유형의 문건을 통해서 살펴보기로 한다. 언어 영역의 성격을 명제적으로 간명하게 제시한 것은 2004년에 나온 「출제 매뉴얼」이다. 여기에 제시된 언어 영역의 성격은 다음과 같다(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04a)

언어 영역 시험은 대학에서 원만하고 능률적인 수학을 위하여 요구되는 우리말 사용 능력을 측정하기 위한 것으로 정상적인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들이 다양한 교육과 경험을 통하여 습득한 듣기, 쓰기, 읽기 등 우리말 사용 능력을 범교과적인 제재를 활용하여 측정하는 시험이다.

1994학년도 수능의 시행계획에 따르면 언어 영역은, '대학 수학 과정에서 요구되는 우리말 사용에 관련된 어휘 능력과 사실적, 추리 상상적, 비판적, 논리적 사고능력을 측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하였다(국립교육평가원, 1993a). 그러므로 출제 매뉴얼에 적시된 시험의 성격은 1994학년도의 기본 골격을 큰 수정 없이 유지했다고 할 수 있다.

「실험평가 문제집」은 언어 영역의 평가목표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것은 2005학년도 언어 영역 시험까지 언어 영역 평가목표의 기초가 되었다. 여기에 따르면 언어 영역 시험의 평가목표는 다음과 같다(국립교육평가원, 1992).

첫째, 언어 영역은 대학 수학에 기본이 되는 언어 사용 능력 즉, 언어를 통한 표현과 이해의 능력을 평가하고자 하는 영역으로 학교 내외의 생활에서 경험하고 학습하는 동안에 습득한 어휘력, 문장 독해력, 언어 추리력 등을 통합 교과적인 소재를 사용하여 출제한다.

둘째, 언어 영역은 평가 소재로 보아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모든 교과 즉 인문, 사회, 과학, 실업, 예술·체육뿐만 아니라 우리의 언어 생활에서 만나게 되는 다양한 실용문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제재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또한 교과서의 문장에 국한하지 않고 교과서 밖의 문장과 실생활의 언어까지도 광범위하게 다루어 전반적인 언어 능력을 평가한다.

셋째, 언어 영역에서는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등 언어 사용의 제 측면과 언어에 대한 이해 그리고 언어 사용의 또 다른 형태인 문학이 평가의 대상으로 포함된다. 이들 영역의 기본 개념과 기초 지식, 그리고 이해-분석-적용-추론-판단으로 구성되는 사고력을 평가한다.

여기에 제시된 평가목표는 이후 2004년에 발간된 「출제 매뉴얼」이 제시하는 기본 골격과 그리 다르지 않으므로 이 둘을 보태어 이해하면 지난 20년간 언어 영역 평가목표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04a).

언어 영역의 평가목표는 기본적으로는 (1) 내용 영역과 (2) 행동영역의 이원적 틀을 취한다.

먼저 듣기, 읽기, 쓰기의 내용 영역 평가목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듣기'는 여러 형태의 듣기 자료를 듣고 내용을 정확하고 창조적으로 이해하는 능력, 들은 내용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적용 발전시키는 능력, 화자와 청자의 관계를 고려하며 말하기 전략을 파악하고 비판하는 능력을 평가한다.

'읽기'는 글을 읽고 내용을 이해하는 능력, 그렇게 얻은 정보를 활용하는 능력, 글의 구조와 내용 등을 재조직하는 능력, 다양한 그림 읽기, 표 읽기 등을 평가한다. 읽기 제재에 따라 비문학제재와 문학제재로 크게 구분한다.

'쓰기'는 지필 평가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쓰기 능력을 평가하는 방법을 취하여, 문제를 발견하고 내용을 생성하며 조직하는 능력, 실제로 글을 쓰고

고쳐 쓰는 능력을 평가한다.

행동영역은 2004학년도 이전에는 어휘, 사실적 사고, 추론적 사고, 비판적 사고, 논리적 사고로 구성되었다가, 2005학년도부터는 어휘 어법, 사실적 사고, 추론적 사고, 비판적 사고, 창의적 사고로 바뀌었다. 이 행동영역에 따라 평가목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어휘력’, 또는 ‘어휘·어법’은 습득한 어휘의 양을 비롯하여 그 정확하고 창의적인 사용에 이르기까지 관련되는 모든 능력을 평가한다. 어휘의 의미를 추리하는 능력, 지식적·문맥적·비유적 의미를 유추·이해하고 표현하는 능력, 기초적인 한자의 판별 능력, 관용 표현을 정확하게 구사하는 능력, 문장과 문단을 정확하게 구사하고 의미가 분명하게 드러나도록 표현하는 능력 등을 여기에서 평가한다. 어휘는 실제 언어 생활에서 필요한 언어 능력을 측정하는 데 목표를 두어 문맥과 상황에서 평가하는 데 비중을 둔다.

‘사실적 사고’란 언어로 표현된 말이나 글의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해하는 능력과 사실에 맞게 언어로 표현하는 능력이다. 정보를 확인하고 내용을 요약하며, 글의 연결과 전개 방법, 글의 종류와 특징 등을 정확히 파악하는 등 글의 내용이나 구성에 관계되는 모든 요소를 사실 그대로 이해하는 과정에 관계되는 사항이 사실적 사고의 측정 요소가 된다.

‘추론적 사고’란 언어의 표현과 이해 과정에서 추론을 통하여 보다 깊고 수준 높은 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이 능력은 설명문이나 논설문과 같은 글을 이해할 때 언어 표현의 내적 연관성을 종합하여 논리적으로 추론하는 능력과, 문학 작품을 감상하고 이해할 때 상상력을 동원하여 언어 표현을 이해하는 능력을 포함한다. 추론적 사고는 그 하위 평가목표를 글의 내용에 대한 추론, 내용이나 표현 과정의 추론, 그리고 내용 사이의 관계에 대한 구조의 추론 등으로 분류한다. 추론 능력은

논리력과 깊은 관련을 갖지만 언어 영역에서는 논리적 약호나 지식으로 측정하지 않고 자연 언어로 이 능력을 측정한다. 이것은 「실험평가 문제집」에서 ‘논리적 사고 능력 평가’를 따로 독립시키고 ‘언어 논리와 추론’을 발전적으로 계승한 것으로 보인다.

‘비판적 사고’란 언어 표현과 이해의 과정에서 여러준거에 의해 분석한 것을 바탕으로 그의 정당성, 적절성, 우열 등을 평가하는 능력을 말한다. 문학 작품 감상과 비평이 흔히 여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으나 문학 작품이 아니더라도 글의 내용이나 표현에 대한 비판이나 독자의 태도에 대한 비판 등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는 것은 중요하므로, 중요한 측정 대상이 된다. 비판은 반드시 객관적 준거가 필요하며 언어의 정확성과 적절성을 기준으로 하는 내적 준거와 타당성과 효용성을 기준으로 하는 외적 준거가 비판의 준거로서 적용될 수 있다.

‘창의적 사고’는 주어진 상황과 조건에 맞게 어떤 언어 자료를 변형하거나 새롭게 표현하는 언어 활동이다. 창의적 사고는 텍스트에서 제시하지 않은 새로운 요소를 창출한다는 점에서 추론적 사고와 비슷하지만 추론적 사고가 주어진 것으로부터의 수평적 확산에 가깝다면 창의적 사고는 주어진 것으로부터 수직적인 오름이라는 점에서 구별된다. 창의적 사고는 내용의 관계를 분석하거나 설정하여 주어진 정보를 창의적으로 수용하고 새로운 정보로 생성하는 능력, 텍스트의 구성 요소를 파악하고 새로운 구조를 창출하는 능력, 표현된 글에 담겨 있는 전제나 태도를 분석하고 표현 의도와 관점을 명확하게 하는 능력을 측정 요소로 한다.

나. 태동기의 언어 영역의 변화 (1986~1992년)

교육개혁종합구상이 발표된 1986년부터 일곱 차례의 실험평가가 완료된 1992년까지는 수능능력 시험 언어 영역의 틀과 방향이 결정된 시기이다. 실험평가를 거치면서 「실험평가 문제집」과 같이 언어 영역의 성격과 평가목표, 하위 영역과 세부 지침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었으므로, 이 시기가 언어 영역의 역사 중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이다.

처음 수능은 대학교육적성시험으로서 개발되었으므로 언어 영역 역시 대학교육의 적성을 판단하는 준거의 하나로서 개발되었다. 1991년에 이르러 대학교육적성시험이 아니라 수능으로, 일반적 적성에 의한 대학교육의 적성을 판단하는 시험이 아니라 학습의 결과로 갖게 된 대학 수학의 능력을 판단하는 시험으로 시험의 성격이 구체화되면서 언어 영역의 성격과 목적, 세부 영역과 내용도 변경되었다.

1990년 12월 19일에 이르러서야 첫 실험평가가 시행되었으므로, 이 시기는 1986년부터 1990년까지의 연구개발기, 1990년 말부터 1992년까지의 실험평가기로 구분할 수 있다.

연구개발기는 21세기를 향한 우리나라 교육의 목적에 따라 새로운 교육과정과 변화된 대학입시 제도를 구상하면서 그에 적합한 시험 제도를 구상하고 계획하는 시기였다.

실험평가기에는 대학 교육의 적성 검사 모델에 따라 문항을 제작해 일곱 차례의 실험평가에 적용하였다. 이 시기는 두 가지 면에서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

첫째, 시험 제도를 바꾸면서 실험평가를 통해 시험의 타당성을 검증했다는 것이다.

둘째, 실제로 문항을 제작하면서 언어 영역의 시험 목적과 구체적인 영역에 대한 재검토를 했다는 것이다. 실험평가기에 만들어진 출제의 세부 지침은 이후 20여 년에 걸쳐 문항 제작의 지침으로 활용되었다.

실험평가기 내내 시험의 성격과 목적, 영역과 내용에 대한 치열하고 철저한 탐구가 이루어졌다. 1차 실험평가는 이전의 대학교육적성시험의 성격을 언어 영역에 구현하는 데 치중했으며, 2차 실험평가부터 4차 실험평가까지는 언어 영역의 정체성을 구체화하는 데 치중했다. 그리고 5차 실험평가부터 7차 실험평가까지는 언어 영역의 시험 형식을 공고히 하고 시험의 성격을 확립하는 데 치중했다. 이를 각각 모색기, 개발기, 완성기라고 부르기로 한다.¹⁾

대학교육적성시험은 ‘대학 교육 수학에 필요한 학업 적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통합 교과적으로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수준과 내용에 맞추어 고차적인 사고력을 측정하는 발전된 학력고사’라고 정의한다. 여기서는 수능이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요소를 제시하고는 있지만 언어 영역이 이 기본 요소를 어떻게 구현해야 하는가와는 다른 문제였다. 특히 언어를 의사전달의 도구로 한정하는 데서 문화적 산물로서 인식하는 것으로 전환함으로써 시험의 성격뿐만 아니라 시험 목적, 내용영역 등이 지금과 같은 형태로 전환되었다는 점은 중요하다.

1) 「대학수학능력시험 10년사 I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05)」, 131쪽에서 암중모색기, 모형개발기, 모형완성기라고 명명했으므로 이를 준용한다.

(1) 시험모형

언어 영역은 단일한 시험이므로 하위 과목을 가지지 않는다. 다만 언어 영역 시험이 국어교과와 무관할 수 없으므로 국어교과의 하위 영역으로 내용영역을 구분할 수는 있다.

1차 실험평가의 언어 영역은 어휘력, 문장독해력, 언어 추리력의 셋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이 시험의 문항들이 다룬 제재는 인문(국민윤리, 국어, 문학, 철학 등), 사회(국사, 세계사, 정치·경제, 한국지리), 과학(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 실업(농업, 공업, 상업, 수산업, 가사 등), 예술·체육(음악, 미술, 체육 등) 분야의 글들과 특정 분야로 분류하기 어려운 문장들, 예컨대 보고문, 보도문, 편지, 계약서 등의 실용문까지 광범위하였다.

4차 실험평가 때는 큰 변화가 있었다. 국어교육과정의 하위 영역인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언어, 문학이 언어 영역의 내용영역으로 반영된 것이다. 이 중에서 듣기와 쓰기를 도입한 것은 획기적인 변화였다. 대학 교육이 구어로써 이루어지고 우리의 언어 생활이 음성 언어로써 이루어지는 현실을 반영하며, 음성 언어의 비논리적 사용을 계도해야 한다는 교육적 목적이 듣기 평가 도입에 정당성을 부여했다. 쓰기 역시 쓴 결과물을 평가할 수는 없으나 쓰기를 위하여 진행되는 단계적 사고는 객관식 문항을 통해 충분히 측정할 수 있다는 점이 쓰기 평가를 도입하게 된 근거였다.

1992년 5, 6, 7차 실험평가를 앞두고 구체화된 출제 지침에서 시험의 성격과 평가목표를 간추리면 다음과 같다.

언어능력시험은 언어 사용 능력 중심의 시험으로서, 듣기 영역에서 음성 언어를, 이해의 영역에서 문자 언어의 읽기 능력을, 표현의 영역에서 문자 언어로 표현하기 전까지의 사고 과정을 측정한다.

사고 과정으로서 어휘력, 사실적 사고, 분석적(추리·상상적) 사고, 비판적 사고, 논리적 사고를 다루고, 제재로서 문학, 인문, 사회, 과학, 예술, 체육, 기타 대화, 연설, 담화, 토론 등이 두루 출제된다.²⁾

1차에서부터 7차 실험평가까지의 변화를 정리하면 <표 3-1-1>과 같다.

이 일곱 차례의 실험평가를 보면 문항 수, 시험 시간, 문항 형태, 배점 등에 있어서 여러 실험을 거듭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언어 영역이 오랫동안 별다른 수정 없이 시행될 수 있던 것은 이러한 신중하고 철저한 실험을 거쳤기 때문이다.

(2) 평가틀

(가) 내용영역

1차 실험평가에는 시험의 성격을 적성 시험에 두고 이를 충실하게 구현하기 위하여 언어의 성격을 의사소통의 도구로 보았다. 그 결과 이 시기 언어 영역은 지금의 언어 영역과는 성격이 매우 달랐다. 이때의 언어 영역의 출제 지침은 어휘력, 독해력, 언어 추리력의 행동영역만을 염두에 두었다. 이 중에서 어휘력은 30%, 독해력은 55%, 언어 추리력은 15%로 어휘력의 비중이 컸다. 통합교과적 성격을

2) 앞의 책, 141쪽

〈표 3-1-1〉 수능 실험평가 언어 영역의 문항 개관

차수	시행 일시	문항 수	시험 시간(분)	문항 형태	총점	배점
1차	1990.12.19	51	70	5지선다형 및 주관식	60점	5지선다형 - 1점 문항 44문항, - 2점 문항 2문항 계 48점 주관식 - 2점 문항 4문항 - 4점 문항 1문항 계 12점
2차	1991.5.24	60	80	5지선다형	60점	1점 문항 60문항
3차	1991.7.11	66	80	5지선다형	60점	0.5점 문항 12문항 1점 문항 54문항
4차	1991.11.27	60	90	5지선다형	60점	1점 문항 60문항
5차	1992.5.27	60	90	5지선다형	60점	1점 문항 60문항
6차	1992.8.31	60	90	5지선다형	60점	1점 문항 60문항
7차	1992.11.10	60	90	5지선다형	60점	1점 문항 60문항

업무에 두었기 때문에 내용영역에 대해서는 특별한 지침이 없이 고등학교 교과목을 두루 아우르는 지문을 출제하면 된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지문은 인문, 사회, 과학, 예술, 기타의 분야로 나누어 제시하는 것으로 방향을 정했다. 2~4차 실험평가에는 1차 실험평가를 반성하면서 그동안 연구 개발되었던 평가목표를 재검토하고 시험 영역도 고등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확대하였으며 고차적 사고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문항을 개발하는 데 집중했다. 그리하여 내용영역은 ‘국어과의 내용 중 도구적인 내용을 강조’하고 행동영역은 ‘고차적 사고 기능을 강조’하며, 평가의 소재를 ‘교과서는 물론 그 이외의 모든 교과 및 그에 관련된 부분까지 확대’한다는 것을 확정했다. 그리고 듣기, 쓰기를 각각 10%로 하였고 문학의 비중을 30% 이상으로 함으로써 고등학교 국어 교육과 조화를 꾀하였다. 이 시기는 지금의 언어 영역의 모형을 개발했다는 평을 받는다.

5~7차 실험평가에는 출제의 지침이 구체화되었다.

특히 듣기, 쓰기, 읽기의 구체적 지침이 확정되고 각종 용어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이루어졌다. 내용영역에 대해서도 듣기와 쓰기가 각각 10%, 인문, 사회, 과학, 예술, 기타가 각기 10%, 문학은 30% 이상으로 출제의 비중을 조정했다. 듣기, 쓰기의 문항 비율이나 문학 문항의 비중 조정 등은 언어 영역에서 견지해야 할 언어관이 언어가 의사소통의 도구라고 이해하는 관점보다 언어는 공동체의 수준과 표준을 보여주며 문화의 계승과 창달이 구체화되는 과정으로 언어가 사고라는 것을 중시한 관점을 구현한 것이다(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05a). 이것은 1992년 출제 지침에서 다음과 같이 표현되었다.

제재의 영역을 선정함에 있어서 대학에서의 일상 생활이나 교육이 주로 설명적이고 논술적인 언어 활동 중심으로 이루어진다는 점과 대학생 이라면 한국 문화의 최고 수준을 향유하고 계승 발전시킬 의무를 가진다는 점이 고려되어야 한다.

문학 작품의 독서가 고려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설명·논술적인 제재와 문학적인 제재를 7:3의 비율로 측정한다.

이 일곱 차례의 실험평가를 마친 뒤, 「실험평가 문제집」에서는 내용영역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포괄적인 지침을 마련했다.

언어 영역은 평가 소재로 보아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모든 교과 즉 인문(국민윤리, 국어, 문학, 철학 등), 사회(국사, 세계사, 정치·경제, 한국지리), 과학(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 실업(농업, 공업, 상업, 수산업, 가사 등), 예술·체육(음악, 미술, 체육 등)뿐만 아니라 각 교과별 영역으로 분류하기 어려운 문장들, 예컨대 보고문, 보도문, 편지, 계약서 등 실용문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제재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또한 교과서의 문장에 국한하지 않고 교과서 밖의 문장과 실생활의 언어까지도 광범위하게 다루어 전반적인 언어 능력을 평가한다.

듣기, 읽기, 언어(국어 지식), 문학에 대한 출제 지침도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듣기 평가에서는 중등교육의 정상화를 위해서 언어교육의 중요한 영역인 듣기 능력을 실제로 듣기를 통하여 직접적으로 평가한다. 이는 현대 사회에서는 인쇄 혹은 음영 매체 등과 같이 시각적 경로를 통한 자료뿐 아니라 청각 자료 혹은 시각과 청각을 동시에 이용함으로써 얻어지는 지식과 정보의 비중이 매우 크고, 능력이 글자 그대로 대학에서의 수학 능력 적격자를 가려내는 평가일진대 대부분이 강의와 토론에 의한 대학에서의 수학에 기본적인 능력을 갖춘 학생을 가려내고자 한다.

쓰기 능력 평가에서는 언어활동의 중요 영역 가운데 하나인 쓰기의 능력이 평가의 대상이 된다. 실제로 객관식으로 출제되는 문항 형식상 쓰기의 과정이나 결과를 활동 혹은 직접적인 산출물을 통하여 평가할 수 없으나, 문자로 표현되기 직전까지의 단계와 글을 쓴 다음에 이를 퇴고하는 데 관련된 능력 및 결과물로부터 유추 및 평가 능력이 평가대상이 된다.

언어 영역의 하위 분야로서의 언어 분야에서는 도구 언어에 관한 최소한의 기초 지식과 언어 사용에 관련된 능력을 평가하되, 단편적인 어문 규정이나 문법 사항에 관한 문항을 지양하고 언어 및 언어 사용의 본질적 이해에 초점을 맞춘다.

언어 사용의 정수인 문학에 이르러서는, 문학을 문학으로 이해하고 감상하는 데 필요한 기본 개념과 기초 지식 및 사고력을 평가한다. 여기서는 문학사, 작가론, 작품론이나 문학작품의 분석적 이해의 결과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문학을 문학으로 이해하고 감상하는 데 필요한 능력을 구체적인 작품을 중심으로 평가하는 것이다 (국립교육평가원, 1992).

이 지침은 지필 고사의 형태로써 듣기, 쓰기의 영역을 확정하였을 뿐 아니라, 향후 언어 영역에서 언어(국어 지식), 문학의 출제 방향의 기준으로 작용하였다.

(나) 행동영역

1차 실험평가 때에는 어휘력, 독해력, 언어추리력의 세 가지 행동영역을 설계하고 이 세 영역은 각기 30%, 55%, 15%의 비중으로 출제했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표 3-1-2>와 같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05a).

〈표 3-1-2〉 수능 실험평가 언어 영역의 평가목표 분류표

(1) 어휘력	(가) 단어의 이해	• 알고 있는 기본적인 어휘의 양은 충분한가.
		• 단어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가.
		• 기초적인 한자들을 이해하고 있는가.
	(나) 단어들 사이의 연관성 이해	• 단어들 사이의 유의 관계를 이해하고 있는가.
		• 단어들 사이의 반의 관계를 이해하고 있는가.
		• 단어의 다의적인 속성을 이해하고 있는가.
(다) 속어적 표현에 대한 이해	• 사용 빈도가 높은 축어의 의미를 이해하고 있는가.	
	• 사용 빈도가 높은 속담 사자성어 등의 의미를 이해하고 있는가.	
(2) 독해력	(가) 문장의 사실적인 이해	• 긴 글을 빨리 읽으며 주요 내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가.
		• 문장에 나타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가.
		• 문장에 전개된 사건들을 확인할 수 있는가.
		• 문장의 핵심 내용(중심 내용)을 찾을 수 있는가.
	(나) 문장의 추론적 이해	• 예문을 바탕으로 결론을 유도하거나 원리를 파악할 수 있는가.
		• 문장에 전개된 사건들의 관계를 인식할 수 있는가.
		• 문장에 숨겨져 있는 가정이나 전제를 파악할 수 있는가.
		• 문장에 나타난 내용을 다른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가.
	(다) 문장의 비판적 이해	• 글을 쓰게 된 동기나 목적을 이해하고 글의 구조(형식 구조 및 내용 구조)를 파악할 수 있는가.
		• 제재에 관한 필자의 태도를 파악할 수 있는가.
		• 주어진 문장과 작품을 내적 기준에 의거하여 판단할 수 있는가.
		• 주어진 문장과 작품을 외적 준거에 의거하여 판단할 수 있는가.
(라) 문장의 종합적 이해	• 문장 전체의 의미를 종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가.	
	• 주어진 문장의 전후 문맥을 활용할 수 있는가.	
	• 문장 이해에 필요한 문법 구조를 알고 있는가.	
(3) 언어추리력	(가) 언어 유추	• 단어나 개념들 사이의 관계를 논리적 원칙에 따라 파악할 수 있는가.
	(나) 귀납적 추리	• 특수한 사실로부터 일반적인 결론을 이끌어 낼 수 있는가.
	(다) 연역적 추리	• 보편적인 원리나 전제로부터 특수한 원리나 사실을 이끌어 낼 수 있는가.

〈표 3-1-2〉는 실험평가가 시작될 무렵, 언어 영역에 대한 기대가 어떠했음을 알 수 있게 한다. (1)~(3)의 내용을 비교해 보자. 어휘력은 단어를, 독해력은 문장을 단위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여기서 문장은 문자 그대로 문장이라는 뜻과 함께 글이라는 뜻을 다 담고 있어 개념의 혼란도 나타난다. 이렇게 이 표의 평가목표가 단어에서 문장으로, 문장에서 글로, 글

에서 개념이나 원리의 차원으로 진행하는데, 이것은 읽기 능력은 단어의 수준으로부터 출발해서 문장 수준으로, 문장으로부터 글로, 글에서 관념으로 진행된다는 사고를 담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단어로부터 문장, 문장에서 글, 글에서 관념이라는 단위로 확산하는 모형은 추상적이고 정태적인 위계를 설명하는 데에는 도움이 될지

모르나 실제 독서 행위가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 초기 모델 이후 언어 영역을 국어과 교육과정과 일치시키려는 노력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내용영역은 ‘국어과의 내용 중 도구적인 내용을 강조’하는 것이고 행동영역은 ‘고차적 사고 기능을 강조’하는 것으로 평가목표를 수정했다.

수정된 평가목표는 뒤에 완성기의 평가항목과 대동소이하므로, 이 시기의 완성도를 알아보기 위한 참고 자료 대항목과 중항목 수준의 평가목표를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 어휘 능력
 - 어휘의 이해와 사용
 - 어휘 용법의 이해와 사용
 - 어법의 이해와 사용
- 사실적 사고 능력
 - 내용의 사실적 이해와 표현의 능력
 - 조직의 사실적 이해와 표현의 능력
- 분석적 사고 능력
 - 내용의 분석적 사고 능력
 - 과정의 분석적 사고 능력
 - 조직의 분석적 사고 능력
- 비판적 사고 능력
 - 정확성
 - 정당성

- 적절성
- 효용성
- 논리적 사고 능력
 - 일반논리
 - 귀납적 사고
 - 언역 논리

뒤에 분석적 사고 능력은 추리·상상적(추론적)사고 능력으로 바뀌었다. 또 2005학년도 수능에서부터는 논리적 사고 능력도 추론적 사고 능력과 비판적 사고 능력을 뒷받침하는 기본적인 소양으로 간주되어 별도의 항목으로 설계하지 않았다.

1992년, 완성된 출제 지침에서는 <표 3-1-3> ~<표 3-1-4>와 같은 평가목표를 확정했다(국립교육평가원, 1992).

이후로도 언어 영역의 평가목표에는 크고 작은 수정이 있어 왔다. 특히 어휘능력 영역과 논리적 사고 능력 영역은 계속 논란이 되었다. 어휘 능력이나 논리적 사고 능력이 언어 능력과 관련이 있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두 가지 문제가 있다. 하나는 어떻게 측정하느냐 하는 방법의 문제이고, 다른 하나는 과연 어떤 관련을 맺고 있느냐 하는 성격의 문제이다. 앞의 것은 주로 어휘 능력과 관련해서, 뒤의 것은 주로 논리적 사고 능력과 관련해서 벌어진 논란이었다.

논리적 사고 능력 부문은 언어 이전의 사고인지,

<표 3-1-3> 1992 수능 실험평가 언어 영역의 평가목표 분류표: 어휘 능력

(1) 어휘 능력	(가) 어휘의 이해와 사용	• 어휘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고 사용하기
		• 어휘 간의 관계를 이해하고 사용하기
	(나) 어휘 용법의 이해와 사용	• 어휘의 지시적·문맥적·전의적 의미를 이해하고 사용하기
		• 어휘의 비유적·관용적 의미를 이해하고 사용하기
	(다) 어법의 이해와 사용	• 어법에 맞게 어휘를 사용하기
		• 문맥과 문체에 적절한 어휘를 선택하여 사용하는가.

〈표 3-1-4〉 1992 수능 실험평가 언어 영역의 평가목표 분류표: 사고 능력

(2) 사실적 사고 능력	(1) 내용의 사실적 이해와 표현의 능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용의 정보와 그 관계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표현하기 • 전체의 내용과 핵심을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표현하기
	(2) 구조의 사실적 이해와 표현의 능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조의 단위와 그 관계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표현하기 • 형식적 요소와 사실의 관계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표현하기
(3) 추리·상상적 사고 능력	(가) 내용의 추리·상상적 사고 능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언어 또는 사실을 근거로 내용을 미루어 알기 • 언어 또는 사실을 다른 상황에 적용할 줄 알기
	(나) 과정의 추리·상상적 사고 능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장을 분명히 하여 이해 또는 표현하기 • 의도를 명확히 하여 이해 또는 표현하기
	(다) 구조의 추리·상상적 사고 능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성의 모든 요소를 필요 적절하게 추리·상상해내기 • 표현의 모든 요소를 필요 적절하게 추리·상상해내기
(4) 비판적 사고 능력	(가) 내적 준거에 따른 비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확성의 준거에 따라 이해하고 표현하기 • 적절성의 기준에 따라 이해하고 표현하기
	(나) 외적 기준에 따른 비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타당성의 기준에 따라 이해하고 표현하기 • 효용성의 기준에 따라 이해하고 표현하기
(5) 논리적 사고 능력	(가) 언어 논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념과 정의의 방법과 규칙에 따라 사고하기 • 언어 사용상의 오류가 없이 사용하기
	(나) 추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역 추론의 과정과 법칙에 맞게 사고하기 • 귀납 추론의 과정과 규칙에 맞게 사고하기

언어로서 나타난 사고의 형태인지를 판단하기 어려웠다. 그 관계를 제대로 규명하기에 앞서 논리적 사고 능력이 중요하다라는 것은 인정해야 했으므로 단독 문항의 형태로 출제했다. 이것은 어휘 능력의 경우도 마찬가지여서 실제 언어 생활의 양태에서 어휘 능력을 측정하는 것보다는 단독 문항으로 어휘력을 측정하는 형태를 취했다.

(다) 출제 범위

실험평가기에 언어 영역은 국어과 교육과정의 필수과목과 선택과목 전체를 출제 범위로 삼았다. 다만 세부 내용에 있어서는 행동영역이나 내용영역을 중심으로 미세한 변화가 있기는 했다.

제1차 실험평가 때의 언어 영역은 어휘력, 문장 독해력, 언어 추리력을 시험 과목으로 삼았다. 특히 어휘력의 비중을 높이 두어 어휘력을 30%로 책정했다. 고등학교 교과목을 아우를 수 있는 통합 교과적 평가를 위해 제재는 인문 30%, 사회 25%, 과학 20%, 예술 15%, 기타 실용문을 10%로 제시했다.

4차 실험평가 때부터는 듣기 10%, 쓰기 10%가 도입되었고 읽기 중 문학의 비중을 30% 이상으로 두었다. 특히 어휘력에도 변화가 있었다. 어휘력은 단독 문항으로 출제하는 것을 배제하고 지문 가운데서 종합적으로 묻는 형식으로 출제되었다. [예시 문항 1]은 4차 실험평가 언어 영역 46번 문항으로 이러한 변화를 잘 보여준다.

완성기에 들면서 언어 영역의 출제는 안정화되었다.

[예시 문항 1]

〈4차 수능 실험평가 언어 영역 46번〉

[45-4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수도[㉠]계에서의 여행은 진행이지 완료가 아니다. 역사상 항상 그것이 그렇게 판명되었다. 수도계에서 완성된 품위는 없다. 인간은 신과 짐승의 중간자로서 수도계 (종교에서의 想定을 제외하고)의 ㉡길에서 태어나서 길에서 살다가 길에서 죽어야 한다. 각 품위는 그 길 위에 있는 里程標에 불과하다. (이하 생략)

46. ㉡의 ‘길’과 가장 가까운 의미를 가진 것은?

- ① 명사(鳴沙)길 익은 말이 취선(醉仙)을 빗기
실어 바다를 곁에 두고 해당화로 들어가니
- ② 길을 잘 데 몰라 거리에서 서성이니
동서남북에 잘 길도 하도 할사
앞에서 가는 사람이 정길〔正道〕 어디 있나니?
- ③ 전쟁 — 그 술한 길, 수많은 사람들이 폐지어 가던
길, 군용 트럭들이 수없이 달리던 길, 한반도의 핏
줄처럼 얽힌 그 눈물의 길, 비바람과 눈보라 그리
고 들국화, 모든 것을 잃었다.
- ④ 들을 지나서 산으로
내를 건너서 숲으로
오늘도 가고 내일도 잘
나의 길 새로운 길
- ⑤ 분명히 열반(涅槃)은 있고 열반으로 가는 길도
있지만, 사람들 가운데는 열반에 이르는 이도 있고
못 이르는 이도 있다. 나는 다만 길을 가리킬 뿐
이다.

듣기와 쓰기는 각각 10%씩 여섯 문항을 출제했고, 읽기 지문으로 인문, 사회, 과학, 예술, 기타가 각각 10%, 그리고 문학은 30% 정도로 배당되었다.

행동영역의 비중도 조정되어 어휘력 15%, 사실적 사고 15%, 추리·상상적 사고 25%, 비판적 사고 30%, 논리적 사고 15%의 비중으로 조정되었다.

(3) 특이사항

실험평가를 통해서 언어 영역은 수능의 핵심적인 영역으로 자리잡아 갔다. 교사들은 이러한 언어 영역이 고등학교 교육과정과 부합하다고 여겼고 고등학교 국어과 교수법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느끼기 시작했다. 5차 실험평가 후 실시된 설문조사에서 교사들은 고교 교육 목표와 부합된 정도에 대하여 ‘잘 부합된다(11.0%)’ 또는 ‘대체로 부합된다(68.8%)’고 했다. 적용력, 분석력, 추리력, 판단력과 같은 고등 정신 능력을 묻는 문항 수가 ‘매우 많다(22.1%)’거나 ‘많은 편이다(57.1%)’라고 여겼으며 따라서 고등학교 교수법이 변화해야 한다는 데 대해서 ‘매우 그렇다(60.0%)’거나 ‘다소 그렇다(36.7%)’라고 여겼다.³⁾ 실험평가를 통해서 언어 영역은 성공적으로 정착했고 고등학교 국어 교육의 대대적인 변화를 예고하고 있었다.

다. 형성기의 언어 영역의 변화

(1994~1998학년도)

이 기간 동안 언어 영역은 몇 가지 의미를 갖는다. 첫째, 그동안의 실험평가를 통해서 얻은 결과를 토대로 수능의 성격과 목적을 가장 훌륭하게 현실화 하였다는 의미를 갖는다. 1990년부터 1992년까지 일곱 차례에 걸친 실험평가를 마치고 1993년에는 1994학년도 1, 2차 수능이 시행되었다. 충분한 기간 동안 실험평가를 하였으므로 고등학교 교육 현장에서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은 충분했을 뿐만 아니라, 언어 영역 자체도 여러 차례 검증을 통해

안정된 틀을 갖추었다. 이러한 노력으로 1993년 8월 20일과 11월 16일, 두 차례로 치러진 1994학년도 수능의 언어 영역은 성공적으로 시행되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둘째, 언어 영역이 고등 사고 능력과 통합 교과적 성격을 지향하면서 학력고사와 같이 지식의 암기나 적용과 같은 방식으로는 이 시험에 대비할 수 없다는 것이 분명해졌다. 고등학교 국어과 교육에 미치는 영향이 대단히 컸지만 사회적으로도 비상한 관심을 모았다. 많은 책을 읽어야 한다는 의식이 확산되어 독서 열풍이 일어난 것도 그렇고, 당시로서는 낯선 언어 추리 형태의 문제에 대비하기 위한 논리 관련 서적이 많아진 것도 이러한 영향의 결과였다.

이 시기 동안 언어 영역의 문항 수나 배점 등에 변화가 있었고 이에 따라 시험 시간에도 변화가 있었다. 하지만 언어 영역이 평가하는 내용영역이나 행동영역에 있어서는 실험평가를 거쳐서 확립된 틀이 안정적으로 정착되어 변함없이 시행되었다.

(1) 시험모형

언어 영역의 성격이 1994학년도에 제출된, ‘대학 수학 과정에서 요구되는 우리말 사용에 관련된 어휘 능력과 사실적, 추리·상상적, 비판적, 논리적 사고 능력을 측정한다.’는 것은 변함이 없었다. 듣기, 쓰기, 읽기의 내용영역으로 나누고, 읽기 영역은 문학을 비롯하여 인문, 사회, 과학, 예술, 기타 생활문의 하위 영역을 포함하는 것과 듣기, 쓰기 문항이 10%를 차지한다는 원칙도 그대로 유지되었다.

언어 영역은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내용과 수준에

3) 한국교육과정평가원(2005), 대학수학능력시험 10년사 I, 143쪽.

[예시 문항 2]

<1994학년도 수능 1차 언어 영역 35번>

35. (가)의 내용에 가장 잘 어울리는 미술 작품은?



맞추어 출제하고, 문제 상황을 중심으로 통합교과적 소재를 활용하여 출제했다. 1994학년도 1차 시험에 나온 [예시 문항 2]가 그런 유형에 속한다.

이 기간 동안 언어 영역의 문항 수나 배점 방식, 시험 시간 등에 있어서는 변화가 있었다.

<표 3-1-5>에서 보듯이 언어 영역은 1994학년도 1, 2차 시험 이후로 1996학년도까지 60점 만점으로

60문항을 출제했다. 문항의 성격상 문제 해결을 위한 시간과 난이도를 고려하여 0.8점 문항과 1점 문항, 그리고 1.2점 문항으로 차등 배점을 하였다. 그런데 1997학년도에는 문항의 수가 다섯 문항 늘어서 65문항이 되었고 총점도 120점으로 두 배가 되었다. 문항이 다섯 문항 늘어남에 따라 시험 시간도 90분에서 100분으로 조정되었다.

〈표 3-1-5〉 1994~1998학년도 언어 영역의 문항 개관

학년도	문항 수	시험 시간(분)	문항 형태	총점(점)	배점
1994-1차	60	90	5지선다형 듣기 6문항	60	0.8점 문항: 4 문항 1점 문항: 52 문항 1.2점 문항: 4 문항
1994-2차	60	90	5지선다형 듣기 6문항	60	0.8점 문항: 4 문항 1점 문항: 52 문항 1.2점 문항: 4 문항
1995	60	90	5지선다형 듣기 6문항	60	0.8점 문항: 4 문항 1점 문항: 52 문항 1.2점 문항: 4 문항
1996	60	90	5지선다형 듣기 6문항	60	0.8점 문항: 5 문항 1점 문항: 50 문항 1.2점 문항: 5 문항
1997	65	100	5지선다형 듣기 6문항	120	1.6점 문항: 5 문항 1.8점 문항: 40 문항 2.0점 문항: 20 문항
1998	65	100	5지선다형 듣기 6문항	120	1.6점 문항: 5 문항 1.8점 문항: 40 문항 2.0점 문항: 20 문항

1994학년도 언어 영역부터 1996학년도까지 문항당 배점이 0.8, 1, 1.2점으로 기준이 되는 1점 문항을 중심으로 80%, 120%의 점수 차이를 갖는다. 차등 문항의 수도 각각 8.3% 정도이다. 그런데 1997학년도부터 시행된 1.6, 1.8, 2점의 차등 배점은 기준이 되는 1.8점을 중심으로 할 때 각각 89%, 111%의 점수 차이를 갖게 되어 문항당 점수 차가 작아졌다. 하지만 점수 차이가 있는 문항의 수가 각 5, 20문항으로 현격히 많아졌다.

이러한 변화는 이 시기 대학입시의 변동과 관련이 있다. 당시 대학별고사를 폐지하고 대신 성적 대신 종합생활기록부가 대학입학 전형자료로 활용되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수능의 비중이 높아질 필요가 있었던 것이다.

1994학년도에는 수능이 두 차례 시행되었다. 1차 시험은 3학년 1학기까지를, 2차 시험은 전체를 대상으로 하며, 두 차례 응시할 기회를 주고 그 중 가장 좋은 성적을 활용할 수 있게 한다는 취지로

시행되었다. 하지만 난이도 조절에 실패함으로써 이후 1년에 한 차례 시행되는 것으로 바뀌게 되었다.

(2) 평가틀

(가) 내용영역

이 시기 언어 영역과 외국어(영어) 영역은 계열 공통으로 치르는 시험으로 범교과적으로 출제되었다. 1994학년도의 수능의 언어 영역에 대한 출제 지침에는 다음과 같이 평가의 목적과 내용을 적시했다.

대학수학 과정에서 요구되는 우리말 사용에 관련된 어휘 능력과 사실적, 추리·상상적, 비판적, 논리적 사고 능력을 측정

〈표 3-1-6〉 1994학년도 1차 언어 영역의 평가목표 이원분류표

내용	행동	어휘력			사실적 사고		추리·상상적 사고			비판적 사고		논리력		문항 수 (개)	비율 (%)
		어휘	용법	어법	내용	구조	내용	과정	구조	내적	외적	언어	추론		
듣기															
읽기	인문														
	문학														
	사회														
	과학														
	예술														
	기타														
쓰기															
문항 수															
비율(%)															

출제 과정에서는 「실험평가 문제집」에서 제시된 내용영역이 준용되었다. 당시의 평가목표 이원분류표를 보면(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05a) 내용영역은 듣기, 읽기, 쓰기의 틀이 기본적으로 유지되고 있으며, 읽기 영역은 문학 지문과 문학 외 인문, 사회, 과학, 예술 및 기타 지문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기타는 통상 교과서 관련 지문을 의미했다.

읽기 영역에서는 문학 지문이 30% 이상, 인문, 사회, 과학, 예술, 기타 영역의 지문이 50% 이하의 비중을 보였다. 내용영역에서 문학은 다른 하위 영역과 그 위상이 달랐다. 이것은 문학이 언어 자료 가운데 우리 문화가 생산한 언어 문화의 높은 수준을 보여주는 글로서 가장 언어 표현의 밀도가 높고, 단순 정보 파악 이외의 다양한 심미 체험과 비판 활동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문학은 고전시가, 고전소설, 현대시, 현대소설, 희곡, 수필 등 문예 갈래의 글을 망라해 출제되었다. 한편 비문학 지문은 통상 인문, 사회, 과학, 예술, 기타 영역에서 하나씩 지문을 출제하는 것이 보통이다. 그렇게 되면 하나의 지문에서 많게는 7문항, 적게는 4문항씩 출제해야 한다. 한 지문에서

7문항씩 내는 것은 지문의 함량이 감당하기에 벅차다. 이러한 출제의 어려움 때문에 1998학년도부터는 문학 지문의 문항이 많아져 40%가 되었다. 그러다 보니 문학 지문과 문학이 아닌 지문으로 양분되어 결과적으로는 문학과 비문학이라는 구분이 만들어지게 되었다. 이는 1994학년도 1차 수능의 평가목표 이원분류표와 1998학년도의 평가목표 이원분류표를 비교해 보면 잘 알 수 있다. 내용영역에서 듣기, 읽기, 쓰기의 세 영역과 읽기 영역 아래 하위 영역으로 문학, 인문, 사회, 과학, 예술, 기타를 둔 것 등 기본 골격은 변함이 없는 것을 알 수 있다. 다만 문항 수의 조정에 따라 60문항이 65문항으로 늘었어도 듣기, 쓰기 문항의 수는 6문항씩으로 유지했으므로 전체 문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줄어든 것이라든가, 문학의 비중이 커졌다든가 하는 변화는 있었다.

(나) 행동영역

앞의 평가목표 이원분류표가 보여주는 것처럼, ‘형성기’의 행동영역은 ‘태동기’에서 제시한 어휘력,

〈표 3-1-7〉 1998학년도 언어 영역의 평가목표 이원분류표

내용	행동	어휘력			사실적 사고		추리·상상적 사고			비판적 사고		논리력		문항 수	비율
		어휘	용법	어법	내용	구조	내용	과정	구조	내적	외적	언어	추론		
듣기															
읽기	인문														
	문학														
	사회														
	과학														
	예술														
	기타														
쓰기															
문항 수															
비율(%)															

사실적 사고 능력, 추리·상상적 사고 능력, 비판적 사고 능력, 논리적 사고 능력의 다섯 개 영역을 재정비하여 구체적인 출제 지침으로 삼았다(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05a). 행동영역의 기본틀이나 세부 항목이 ‘태동기’와 ‘형성기’가 일치하는 것은 이런 때문이다.

‘형성기’의 출제진은 어휘력 평가를 위하여 ‘태동기’에서 제시한 어휘력 평가를 계승하고 재정비하여 다음과 같은 평가목표를 제시했다.

단독 제시형 등 사전적 수준의 어휘력을 묻는 문제는 피하고 문맥 또는 문장형으로 하되 듣기, 쓰기, 읽기와 관련하여 출제하고, 중·고등학교의 학교 수업을 통하여 습득한 다음 능력을 평가(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05a)

이것과 「실험평가 문제집」에 있는 ‘어휘의 이해 정도가 대학에서의 수학에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초·중·고등학교의 학교 수업을 통하여 습득한 다음 능력을 평가한다.’는 평가목표와 비교하면 무엇을 지양하고 무엇을 유지하여 어떤 문형을 지향하는지

를 알 수 있다.

사실적 사고력 평가는 ‘언어로 표현된 바의 내용과 구조를 사실 그대로 이해하거나 사실에 맞게 언어로 표현하는 능력’이라고 하고 하위 영역으로, ‘내용의 사실적 이해와 표현의 능력’, ‘구조의 사실적 이해와 표현의 능력’을 두었다. 평가의 목적이나 하위 영역, 하위 세부 지침 모두 「실험평가 문제집」에서 제시한 내용과 다르지 않다.

추리·상상적 사고 능력 평가는 ‘언어 표현과 이해의 과정에서 추리와 상상을 통해서 보다 수준 높은 언어 사용으로 나아가는 능력’을 평가한다. 하위 영역으로 ‘내용의 추리·상상적 사고 능력’, ‘과정의 추리·상상적 사고 능력’, ‘구조의 추리·상상적 사고 능력’을 두었다. 이것 역시 평가 목적, 하위 영역, 하위 세부 지침 등이 이전의 「실험평가 문제집」에서 제시한 바와 동일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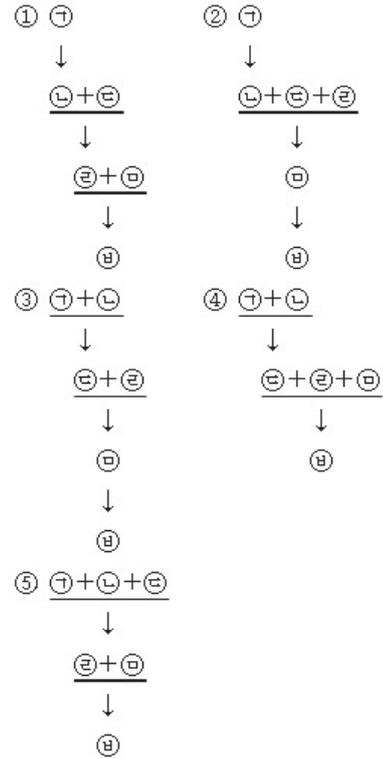
비판적 사고 능력 평가는 ‘언어 표현과 이해의 과정에서 여러 가지 준거에 의하여 분석된 것을 바탕으로 적절성 또는 가치 및 우열을 판단하는 능력을 평가’한다. 하위 영역으로는 ‘내적 준거에 따른 비판’, ‘외적 기준에 따른 비판’을 두었다. 비판의 내

[예시 문항 3]

<1997학년도 수능 언어 영역 13번>

13. 다음 글의 논리적 구조를 바르게 분석 것은?

- ㉠ 역사는 어느 시대, 어떤 상황에 있어서도 삶과 동떨어진 가치란 존재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고 있다.
- ㉡ 문학은 그 시대적 상황을 수렴한다.
- ㉢ 따라서, 작가는 현실에 대한 바른 안목으로 그 안에 용해되어 있는 삶의 모습들을 예술적으로 형상화하는 데 부단한 노력을 경주하여야 한다.
- ㉣ 현실적 상황이 제시하고 만들어 내는 여러 요소들을 깊이 있게 통찰하고, 이를 진지한 안목에서 분석하여 의미를 부여할 때, 문학은 그 존재 가치가 더욱 빛나는 것이다.
- ㉤ 그뿐만 아니라, 문학의 궁극적인 목적이 인간성을 구현하는 데 있는 것이라면, 이를 효과적으로 드러낼 수 있는 현실의 가능성을 찾아내고, 거기에 사람의 옷을 입혀 살아 숨쉬게 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 ㉥ 그런 면에서, 문학은 삶을 새롭게 하고, 의미를 부여하며, 그 삶의 현실을 재창조하는 작업이라 할 수 있다.



가지 기준 즉, 정확성, 적절성, 타당성, 효용성의 기준에 따라 이해하고 표현하는 능력을 평가한다는 지침도 역시 「실험평가 문제집」과 동일하다.

논리적 사고 능력 평가는 ‘언어 사용 과정이 논리적 규칙에 맞는가를 알아보기 위하여 ‘언어 논리’와 ‘추론 유형’의 세부 항목들을 평가’한다. 세부 지침도 역시 「실험평가 문제집」과 동일하다. 논리적 사고 능력이 글 읽기와 결합하면 상당히 고급 난도의 문제로 바뀌는 경우가 많다. [예시 문항 3]은 그런 예의 하나이다.

(다) 출제 범위

1993년에 두 차례 시행된 1994학년도 수능 언어 영역은 각기 출제 범위를 달리하였다.

- 1차 시험: 3학년 1학기말까지의 진도 수준
- 2차 시험: 전 범위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학교 현장 상황을 고려하여 출제

1995학년도부터는 1회 출제하므로 출제 범위와 계열별 출제에 대한 기본 지침이 달라졌다. 「199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실시요강」에는 출제

범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는데 이 지침은 이 기간 내내 지속되었다.

- 출제 범위는 고교 교육과정의 전 범위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언어 영역과 외국어(영어) 영역은 계열 관계 없이 공통 출제함.
- 수능 통합교과적 소재 등을 활용하여 출제하므로 구체적인 출제범위는 위 기준을 참고하여 출제위원회에서 정함.⁴⁾

언어 영역의 출제 범위가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전 범위를 대상으로 한다는 것과 통합교과적 소재를 활용한다는 것을 종합해서 고려하면 언어 영역의 내용영역은 고등학교 전체 교과를 대상으로 한다.

그런데 출제 범위가 광범하고 소재도 다양할 듯하지만 실제 출제 국면에서는 그렇지 않았다. 문학 작품이나 읽기 지문을 선택할 경우 고등학교 학생 수준에 적합하면서도 시중의 문제집에 나온 것을 제외하고 또 기출 문제를 피하려다 보면 궁벽한 작품이나 자료를 선택할 가능성도 없지 않았다. 당시 출제진은 통합적이면서도 범교과적인 소재로 문제해결 중심의 평가를 함으로써 이러한 어려움을 돌파하고자 했다.

(3) 특이사항

이 시기는 대동기의 충분한 실험을 통해 시험이 안정적으로 정착한 시기라는 점에서 중요하다.

기본적인 문항 유형도 이 시기에 완성되었고, 지문을 구성하는 일반적인 지침도 이 시기에 거의 확립되었다. 문항의 유형이 완성되고 지문 구성의 지침이 확립된 데에는 이 시기의 출제위원들의 헌신적인 노력에 힘입은 바 크다. 전 영역에 걸쳐 언어 영역 출제가 가장 힘들게 진행됨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희생할 수 있던 것은 언어 영역이야말로 수능의 정신을 가장 잘 구현하는 영역임을 언어 영역 출제위원 자신이 더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문제점도 나타나기 시작했다. 1994학년도 출제 지침에는 명료하게 표현되지 않았으나 1995학년도의 출제 지침에서부터는 상위 50%에 속하는 학생들의 평균이 100점 만점으로 할 때 50~60점이 되도록 했다.⁵⁾ 실제 결과는 1995학년도는 상위 50%의 평균점수가 75.8점이었는데 1996학년도에는 64.6점으로 하락했다. 1997학년도는 66.1점, 1998학년도에는 78.6점이었다(국립교육평가원, 1995; 국립교육평가원, 1996;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05a). 이것을 보면 상위 50%의 학생들이 거의 10점 이상 등락을 거듭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다. 대학 입시가 전 국민적 관심이 되고 대학 입시에서 수능이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커지면서 시험의 난이도가 등락을 거듭하는 현상은 점점 불안 요인이 되기 시작했다.

라. 성장기의 언어 영역의 변화 (1999~2004학년도)

그동안 시험의 성격과 평가목표를 확고하게

4) 국립교육평가원(1994), 「199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실시요강」, 국립교육평가원(1995), 「199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실시요강」, 국립교육평가원(1996), 「199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실시요강」, 국립교육평가원(1997), 「199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계획」 등이 모두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

5) 당시 국립교육평가원은 시행계획을 보도자료를 통해 공표하면서 거듭 '문항별 예상 정답률은 20~80%, 영역별 예상 평균점수는 50~60%(상위 50% 집단)'을 목표로 한다고 했다. '1995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계획', '199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계획 보도자료', '199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계획', '199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계획 보도자료' 등

수립하여 시행되어 온 언어 영역 시험은 성장기에 들어가면서 새로운 변화가 나타났다. 이것은 언어 영역 자체 내의 모색과 변화의 결과이기도 하지만 대학입시로서 수능 전반의 변화와도 관련이 깊다.

성장기는 수능 전반에 걸쳐 커다란 변화가 있던 시기이기도 하다. 대학별 본고사가 폐지된 1997학년도부터 대학입시의 주요 전형 자료로서 수능의 비중이 높아졌다. 대학은 다양한 전형 자료가 필요했고 다양한 전형 방법을 요구했다. 수리·탐구(Ⅱ)에서 선택 과목이 도입되었고, 제2외국어 영역이 신설되었다. 대학에서 입학 전형에 표준점수를 활용함에 따라 총점뿐만 아니라 표준점수, 변환표준점수, 원점수에 의한 백분위점수, 변환표준점수에 의한 백분위점수 등 대학 전형과 관련한 다양한 방식의 점수가 제공되었다. 대학입시에 대한 사회적 요구도 거세어져서 이 무렵부터 쉬운 시험을 요구하고 있었다.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여 언어 영역도 많은 변화가 있었다.

첫째, 쉬운 시험을 지향하였다. 처음에는 상위 50% 학생들이 50~60점의 평균을 보이도록 다소 어렵게 출제되었다. 그런데 언어 영역에 대해서도 쉽게 출제하라는 사회의 요구가 거세어졌다. 1999학년도에는 상위 50% 집단의 예상정답률이 60~70%가 되도록 하라고 하더니 2000학년도와 2001학년도에는 75%, 그리고 2003학년도에는 $77.5\% \pm 2.5$ 가 되도록 했다. 수능에 대하여 사회는 복합적인 사고가 필요한 문항, 새롭고 참신한 유형보다는 평이하고 익숙한 유형의 문항을 요구하고 있었던 것이다.

둘째, 난이도 조절에서 언어 영역의 책임이 커졌다. 2001학년도, 2002학년도의 언어 영역은 ‘물수능’, ‘불수능’이라는 용어가 만들어지게 된 계기가 되기도 했다. 이렇게 난이도가 불안정해짐에 따라 모의평가 제도가 도입되었다. 모의평가는 2002년 9월에 처음 시행되었다. 공교롭게도 이 해에는 광역자치단체의

교육청에서 전국연합학력평가도 도입·시행했다. 이 두 시험은 동기는 다르지만 수능의 항상성을 유지하고 평가의 예측 가능성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반영한 것으로 여겨진다.

셋째, 대학별로 다양한 전형제도를 운영하지만 수능 성적 이상으로 신뢰도가 높은 전형 자료가 없다. 이렇게 입시에서 수능의 영향력이 줄지 않는 상황에서 언어 영역은 인문, 자연, 예체능 계열 수험생 대부분이 응시하는 시험 과목이므로, 최근의 수능 제도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그 비중이나 위상은 오히려 더 커졌다고 할 수 있다.

(1) 시험모형

수능은 대학입시를 위한 시험이다. 이 기간 동안에도 대학교육에 필요한 수학 능력을 알아보기 위하여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내용과 수준에 따라 통합교과적 소재를 바탕으로 사고력을 측정하는 발전된 학력고사로서의 성격은 변함이 없었다. 따라서 대학 수학 적격자의 선발 기능을 제고하고, 고교 교육 정상화에 기여하며, 학생 선발에 공공성과 객관성이 높은 자료를 제공하는 목적은 같았다.

언어 영역도 안정적인 틀을 유지하는 한편 변화에 부응해야 했다. 우선 내용영역과 행동영역의 틀을 바꾸지 않았다. 그러나 문항의 질과 출제의 방향은 지속적인 관심사였다. 기본적인 방향은 변별도가 높으면서 고등학교 교육 정상화에 기여하는 시험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다양한 실험을 하면서도 시험의 항구성을 확보하는 일이었다.

이 시기의 문항 배점은 큰 변화가 있었다. 문항의 차등 배점이 도입되면서부터는 문제의 난이도와 교육과정 상의 중요성에 따른 차등 배점을 시도했던 것은 이전부터 있었던 일이다. 그런데 차등 배점의 비율과 문항 수는 항상 문제가 아닐 수 없었다.

〈표 3-1-8〉 1999~2004학년도 언어 영역의 문항 개관

학년도	문항 수	시험 시간(분)	문항 형태	총점(점)	배점
1999	65	100	5지선다형 듣기 6문항	120	1.6점 문항: 5문항 1.8점 문항: 40문항 2점 문항: 20문항
2000	65	100	5지선다형 듣기 6문항	120	1.6점 문항: 5문항 1.8점 문항: 40문항 2점 문항: 20문항
2001	60	90	5지선다형 듣기 6문항	120	1.8점 문항: 6문항 2점 문항: 48문항 2.2점 문항: 6문항
2002	60	90	5지선다형 듣기 6문항	120	1.8점 문항: 5문항 2점 문항: 50문항 2.2점 문항: 5문항
2003	60	90	5지선다형 듣기 6문항	120	1.8점 문항: 5문항 2점 문항: 50문항 2.2점 문항: 5문항
2004	60	90	5지선다형 듣기 6문항	120	1점 문항: 5문항 2점 문항: 50문항 3점 문항: 5문항

〈표 3-1-8〉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이 동안에 언어 영역의 문항 수, 배점, 시험 시간이 변화했다. 대단히 큰 변화는 2004학년도에 이루어졌다. 2004학년도에는 기준점수 2점을 중심으로 1점과 3점으로 차등을 두었다. 점수로 차등 배정을 한다는 원칙에 따른 것이지만 기준점수를 중심으로 하여 각각 50%, 150%의 차등이 생겼다. 비율로 보면 그렇지만 문항 점수로 보면 1점 문항 두 개가 2점 문항 하나와 같고, 3점 문항은 1점 문항 세 개와 같아진 셈이다. 그러므로 1점 문항은 1점 문항 대로 제 구실을 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생겼고, 3점 문항 하나는 시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크다는 문제가 생겼다.

(2) 평가틀

(가) 내용영역

언어 영역에서 듣기, 쓰기, 읽기의 세 내용영역은 지속적으로 유지되었다. 총 문항이 65문항이었던 1997학년도부터 2000학년도까지와, 그 이전이나 그 이후 총 문항이 60문항이었던 때에도 듣기와 쓰기 분야는 항상 6문항씩 출제했다.

이 기간 동안에는 문학의 비중이 높아진 것이 중요하다. 이것은 문항 수와 관련하여 살펴보아야 할 것 같다. 1998학년도의 언어 영역 문항 수는 모두 65문항이었다. 그리고 그 중에서 문학이 차지하는 비율은 33.8%였다. 그러던 것이 1999학년도에는 문학이 전체 문항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40%였다. 65문항으로 출제되었던 2000학년도 역시 문학이 전체 문항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40%였다. 그리고

60문항으로 줄어든 2001학년도에의 경우는 41.6%로서 최고점이었다가 이후 2002학년도 40%, 2003학년도 40%, 2004학년도 38.3%로 변화하였다.

문학은 현대시, 현대소설, 고전시가, 고전소설, 극·수필 등 다섯 분야가 출제되었다. 현대시는 고전시와 복합적으로 출제되기도 했지만(2000학년도), 대부분은 단독으로 출제되었다. 이것은 현대소설이나 고전소설도 마찬가지였다. 극·수필 분야는 1999학년도, 2000학년도, 2004학년도에는 수필을 출제했다. 2001학년도, 2002학년도, 2003학년도에는 희곡 또는 시나리오를 출제했다.

이렇게 되자 읽기 지문은 문학 지문과 비문학 지문으로 구분하게 되고 문학 지문에는 현대시, 현대소설, 고전시가, 고전소설, 극·수필이라는 편의상의 영역 구분이 생겼다. 비문학 지문도 인문, 사회, 과학, 예술, 기타의 영역 구분을 하게 되었다. 출제진을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 인문은 철학, 역사 등으로, 사회도 경제나 정치, 언론, 과학은 생물,

지구과학, 수학이 그리고 예술은 음악이나 미술, 공연 예술 등 다양한 소재들이 제공되었다.

한편 기타 제제도 중요하다. 이 영역은 출제위원 들로부터는 ‘생활 언어’라고도 일컬어지기도 하고 ‘교과서 및 언어’라고도 불렸다. 이는 국어 교과서의 읽기 단원에 수록된 텍스트를 지문으로 선택하여 교육과정과의 밀착도를 높이기 위함이지만, 문법 분야를 배려하는 차원에서 특별히 국어 교과서 중에서 국어 내지 언어의 특징, 역사, 이론을 다루는 글을 고려하면서 이러한 명칭을 얻게 된 것이다. <표 3-1-9>를 보면 알 수 있듯이 ‘기타’ 제제는 1994, 1995, 2001학년도를 제외하고는 언어 관련 텍스트를 활용하고 있다. 언어에 대한 관심은 2004학년도에는 언어 탐구라는 새로운 유형의 두 문항을 개발하여 별도로 독립되기도 했다.

그동안 듣기에서는 조건과 상황에 맞는 확산적 사고를 측정하는 문제를 다양하게 개발해 왔다. 그런데 조건과 상황을 설명하기 쉽지 않아 상황을 묘사하는 것으로 바꾸어 보기도 했다. 특히 언어 이외의 매체와

<표 3-1-9> 1994~2004학년도 언어 영역의 기타 제제와 출전

학년도	제목	출전
1994 1차	민족 문화의 전통과 계승(이기백)	5차 고등학교 국어(상)
1994 2차	학문의 목적(박종홍)	5차 고등학교 국어(상)
1995	현대 사회의 과제(김형석)	5차 고등학교 국어(하)
1996	어원 연구에 대하여(이기문)	5차 고등학교 국어(상)
1997	우리말 바꾸기(고영근)	6차 고등학교 국어(하)
1998	국어의 순화(김석득)	5차 고등학교 국어(상)
1999	우리말의 역사	6차 고등학교 국어(하)
2000	언어의 특질	교과서 외
2001	사회변동과 문화 변동(임희섭)	6차 고등학교 국어(하)
2002	새말의 탄생(남기섭)	6차 고등학교 국어(하)
2003	국어의 특질	6차 고등학교 국어(상)
2004	언어의 체계, 구조, 기능(이용주)	6차 고등학교 국어(상)

결합하려는 노력은 주목할 만하다. 하지만 그림으로 묘사하는 경우에는 두드러지게 표현된 것만이 아니라 묘사되지 않은 부분에 대한 해석의 가능성을 막기가 대단히 어려웠다. 게다가 묘사된 상황이 정확히 어떤 것이라고 하기 모호할 때도 있었다.

2003학년도에는 쓰기와 결합한 읽기 문항도 만들어졌다. 송순의 <면앙정가>의 일부를 지목하고 일정한 조건을 주어 주제 의식과 시적 화자의 정서와 태도를 나타내는 글을 쓰라는 것이었다. 결과적으로 글을 쓰는 과정을 점검하는 쓰기 문항은 아니나 다섯 개의 답지에서 주제, 정서, 태도를 확인하는 독해 문항으로서의 시도는 참신하다고 할 수 있다.

문학 작품도 둘 이상의 작품을 함께 읽음으로써

확산적인 사고와 보다 고도화된 종합적 감상 능력을 유도하는 문항의 개발이 거듭되었다. [예시문항 4]와 같은 고전시가 문제는 고전문학 작품에 대한 당대인의 판단을 현대적 관점에서 비판적으로 수용하는 문제가 출제되었다. 이 문항은 문제 해결을 위하여 고도의 사고를 요할 뿐만 아니라 종합적인 고려도 필요했다.

(나) 행동영역

이 기간 동안 언어 영역의 행동영역은 이전에 확립된 내용을 그대로 준수했으므로 큰 변화는 없었다. 언어 영역 평가목표 이원분류표 역시 <표 3-1-10>처럼 이전의 것과 달라지지 않았다.

[예시 문항 4]

<2002학년도 수능 언어 영역 37번>

37. <보기>의 관점에서 (가)~(다)를 평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우리나라의 노래는 음란스러워 말할 것이 못 된다. '한림별곡(翰林別曲)'과 같은 노래는 방탕한 뜻이 있고 거만한 데다가 외설스러워 숭상할 바가 아니다. 이별(李麗)이 지은 노래가 세상에 널리 전하는데, 이것이 더 낫다고들 한다. 하지만 세상을 우습게 알며 공손한 뜻이 없는 데다가 온유(溫柔)한 태도가 적어 애석하다. 요사이 나는 한가롭게 지내며 병을 고치는 틈틈이 마음에 감동된 것을 한시(漢詩)로 나타내곤 했다. 그런데 한시는 읊조릴 수는 있지만 노래가 되지는 않았다. 마음에 감동된 것을 노래로 부르려면 반드시 시속(時俗)의 말로 엮어야 한다.

- 이황. 도산육곡 발(陶山六曲跋) -

- ① (가)는 온화하고 부드러운 태도를 담고 있어 좋군.
- ② (나)는 세상을 호탕하게 살려는 의지를 담고 있어 좋군.
- ③ (다)는 음란하거나 외설스러운 태도가 없어 좋군.
- ④ (가)와 (다)는 한가롭게 지내는 가운데 느낀 감동을 표현해서 좋군.
- ⑤ (나)와 (다)는 시속의 말로 지어져 노래할 수 있어 좋군.

〈표 3-1-10〉 1994~2004학년도 언어 영역의 평가목표 이원분류표

내용영역	행동영역	어휘력			사실적 사고 능력		추리·상상적 사고 능력			비판적 사고 능력		논리적 사고 능력		문항 수(개)	비율 (%)
		어휘	용법	어법	내용	구조	내용	과정	구조	내적	외적	언어	추론		
	듣기														
읽기	인문														
	문학														
	사회														
	과학														
	예술														
	기타														
	쓰기														
	문항 수														
	비율(%)														

[예시 문항 5]

〈2003학년도 수능 언어 영역 60번〉

60. ㉠와 관련하여, <보기>의 원리에 따라 우리말 색채어의 다양성을 학습해 보고자 한다. () 안에 알맞은 것은?

—<보 기>—

<색채어 분화 원리>

1. '노랗다'와 같이 양성 모음을 갖는 어휘는 밝은 색깔을 표현하고, '누렇다'와 같이 음성 모음을 갖는 어휘는 어두운 색깔을 표현한다.
2. '셋'은 양성 모음을 갖는 어휘에, '싯'은 음성 모음을 갖는 어휘에 붙는데, 둘 다 '색깔이 더 짙음'을 표현한다.
3. '-스름하다', '-스레하다'가 결합하면 '색깔이 분명하지 않다'는 의미를 더해 준다.

<예문>

개울가에는 노란 달맞이꽃이 오후 햇살에 눈이 부신 듯 얼굴을 찡그린 채 즐지어 서 있었다. 해가 지자 달맞이꽃들은 차츰 희미해져서 노르스름한 점들로 보였다. 시간이 흘러 산등성이에서 달이 뜨기 시작했다. 노르스레하던 달맞이꽃은 달이 떠오르자 점점 선명해져 여기저기 작고 () 얼굴을 내밀었다.

- ① 누런 ② 싯누런 ③ 셋노란
 ④ 누르스레한 ⑤ 노릇노릇한

이 기간 동안 수능은 난이도의 안정적 유지라는 사회적 요구에 어떻게 부응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로 부신했다. 특히 언어 영역은 1교시에 시험을 치러 그 인상적 난이도가 그날 수험생들의 시험을 좌우하는 경향마저 있으므로 다른 시험보다 각별한 관심을 받았다. 언어 영역은 이러한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면서도 새로운 유형의 문항을 개발함으로써 고등 사고 능력을 측정하려는 수능 본연의 성격과 목적을 충실히 구현하고 있었다.

어휘력에서 맞춤법이나 어법에 적절한 것을 찾는 문제는 점차 지양되었다. 그 대신에 언어 지식을 탐구함으로써 국어 현상들을 이해하도록 유도하는 문제가 자리를 잡아갔다. [예시 문항 5]가 대표적인 유형이다.

(다) 출제 범위

이 기간에도 출제 범위는 이전과 마찬가지로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전 범위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2000학년도 시행 계획에 명시되어 이 기간 내내 지속된 언어 영역의 출제 원칙은 다음과 같다.

- 학교 교육을 통해 성취한 다양한 언어 능력을 측정하도록 평이하게 출제
- 문학, 인문, 사회, 과학, 예술 등 다양한 분야의 글을 통해서 독서 체험의 폭과 깊이를 측정하도록 출제
- 각종 교과서의 글도 지문으로 사용하여 출제 (한국교육과정평가원, 1999a)

평이한 시험에 대한 사회적 압력을 반영한 듯 평이한 출제를 출제 원칙의 제일 첫 머리에 실었다. 그 외에는 이전의 출제 원칙에서 흔히 보는 내용이다. 이 시기 동안 문학의 출제 비중을 40%선으로 유지함에 따라 읽기 영역은 문학과 비문학으로 양분되는 현상

이 고정되었다. 사실 비문학 영역은 그 체제만 다를 뿐, 글의 형식이나 표현, 구성 등에 있어서 문학처럼 다채로움과 깊이를 갖기 어렵다. 문종도 단순하고 읽기 활동도 평이하다 보니 비문학보다는 문학 문항이 더 수준이 높은 경우가 많았다.

문학 작품의 경우 모든 장르에 걸쳐 두루 출제되었고, 현대 문학 작품과 고전 문학 작품의 비중도 적당한 안배와 균형을 갖고 있었다. 문학 작품은 교과서에서도 적절한 수준의 제재를 선택하여 사용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러한 경향은 시험과 학교 교육과의 관계를 고려할 때 교육적으로 바람직하다는 평을 받는다. 다만 교과서 범위 내의 작품으로는 기출 문제나, 참고서나 문제집에서 다루어진 문제를 피하기가 어려웠다. 그러다 보니 읽기 영역은 지금까지 다루어지지 않은 제재나 작품을 고르는데 정력과 시간을 소진하곤 했고, 궁벽한 제재의 글이나 작품을 출제하곤 했다.

이것은 바람직한 것은 아니었으므로 출제진은 독서 체험의 폭과 깊이를 측정할 수 있고 학생들에게 읽힐 만한 좋은 글을 제시하고자 했다. 그러나 특정 문제집이나 참고서, 또는 특정 교과서에만 나타난 글을 사용한다는 것은 시험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상당한 부담이 아닐 수 없어 피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니 어떤 면에서 출제 범위는 그저 원칙상의 지침이고 실제 출제 상황에서는 광범위한 수색과 치밀한 검증이 요했다. 그러나 이것은 언어 영역의 문제 수준을 높이고 난이도를 끌어올리게 하였으니 평이한 문제를 요구하는 사회적 압력과 길항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3) 특이사항

언어 영역은 1교시에 치러지는 데다가 통합교과적이고 비중이 높아서 그해 수능의 전반적인 난이도를 인상적으로 결정하다시피 하였으므로 수능 난이도

조절 실패의 책임도 그대로 안을 수밖에 없었다. 2002년 11월 평가원에서는 2003학년도 출제 경향 보도자료를 발표하면서 난이도 추이를 다음과 같이 정리했다.

1994학년도부터 실시되어 온 수능에서 1997학년도까지는 전체 수험생들의 평균점수와 상위 50% 수험생들의 평균점수가 일정한 점수대를 유지했다. 그러나 1998학년도에는 상위 50% 수험생들의 평균점수가 60점대로, 1999학년도와 2000학년도에는 70점대로, 2001학년도에는 84.2점으로 매년 상승하다가, 2002학년도에는 큰 폭으로 하락하였다.

지난 1998학년도부터 2001학년도까지의 점수 상승은 수험생들의 대학 수학 능력의 향상이라기보다는 시험이 쉽게 출제된 결과라고 할 수 있으며, 2002학년도의 점수 하락은 수능의 기본 특성을 유지하는 가운데 2001학년도 보다 어렵게 출제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결과라고 할 수 있다(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02a).

그리고 수능을 치르는 수험생들의 학습 양상이 매년 다르고, 예상 난이도는 어디까지나 추정치이므로 이에 근거한 어떤 결정을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앞으로는 예상 점수를 발표하지 않겠다고 했다.

수능을 전담 관리할 상시기구를 설치하고 현장 경험과 능력 위주로 전문 연구 인력을 보강하여 기출문항 분석, 새로운 문항 유형 개발 관리 등을 실시하며, 출제위원으로 고등학교 교사가 참여하는 비율도 늘리고 참여할 영역도 확대한다고 했다. 이렇게 해서 2002학년도의 경우 사회탐구, 과학탐구, 제2외국어 영역에 한하여 약 7% 정도의 현직 교사가 참여했던 것을 2003학년도 수능에서는 6개 영역 모두에 걸쳐 출제위원의 20% 이상을 현직 교사로 위촉하였다. 언어 영역에서 현직 교사가 출제위원

으로 참여하기 시작한 것도 이 무렵이다.

이러한 조치는 모두 일정 수준의 난이도를 유지하여 시험의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함이었다. 시행 학년도별 언어 영역의 난이도가 들쭉날쭉하자 일정 수준의 난이도에 대한 요구도 더욱 거셌다. 그러나 난이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일은 대단히 어렵다. 이러한 고민은 이 기간 동안 시행계획의 난이도와 관련된 항목을 통해서 읽어볼 수 있다.

- 1999학년도 수능 시행계획: 문항별 예상 정답률은 20~80%, 영역별 예상 평균점수는 상위 50% 집단이 100점 만점 기준으로 60~70점 정도가 되도록 출제
- 2000학년도 수능 시행계획: 영역별 평균 점수는 상위 50% 집단이 75점(100점 만점 기준)이 되도록 평이하게 출제하여, 학생들의 수험 부담을 줄이고 학교 교육의 정상화에 기여하게 함.
- 2001학년도 수능 시행계획: 영역별 평균 점수는 상위 50% 집단이 75점(100점 만점 기준)이 되도록 2000학년도 수준으로 출제
- 2002학년도 수능 시행계획: 영역별 평균 점수는 2000학년도 및 2001학년도의 시험 결과를 참고하여 적정 수준으로 유지(상위 50% 집단의 5개 영역 총점 평균점수(100점 만점 기준)가 77.5 ± 2.5 점 수준의 출제가 되도록 노력할 것임.)
- 2003학년도 수능 시행계획: 영역별 평균 점수는 2001학년도 및 2002학년도의 시험 결과를 참고하여 적정 수준으로 유지
- 2004학년도 수능 시행계획: 영역별 난이도는 최근 2~3년간의 시험 결과를 고려하여 적정 수준으로 유지

또한 2004학년도에는 언어 영역에서 복수 정답을

인정하는 일이 생겼다. 게다가 언어 영역의 출제위원 선정상의 문제까지 겹쳤다. 언어 영역 시험의 일관성을 요구하는 사회적 분위기에 더하여 언어 영역 시험 체제에 대하여 근본적으로 점검해야 할 필요가 생긴 것이다. 마침 제7차 교육과정이 적용되었기 때문에 2005학년도부터 언어 영역 시험은 출제 관리부터 문항에 대한 관리에 이르기까지 커다란 변화가 있었다.

마. 안정기의 언어 영역의 변화 (2005~2013학년도)

이 시기 수능은 제7차 교육과정에 따라 시행하였으므로 제7차 교육과정이 표방하고 있는 ‘학습자 중심의 수준별 교육과정’을 반영할 필요가 있었다. 따라서 2005학년도 수능은 11~12학년의 선택 중심 교육과정을 따르게 되어 수능 시행계획에 언어, 수리, 외국어(영어), 사회/과학/직업탐구, 제2외국어/한문의 5개 영역 중 전부 또는 일부 영역의 선택이 가능함이라고 명시하였다. 이제 언어 영역은 전계열이 공통으로 보아야 하는 시험이 아니라 학생들이 선택해서 보는 여러 영역 중의 하나가 된 것이다.

이 시기 언어 영역 출제에서 특기할 사항은 출제 매뉴얼이 발표되었다는 것이다. 이전까지의 수능에서는 출제 지침이나 지문 선정의 원칙 등이 공식적으로 발표되지는 않았다. 하지만 2001학년도와 2002학년도의 난이도 조절 문제, 2004학년도의 복수 정답 과동과 출제 관리의 문제 등이 불거지면서 출제 매뉴얼이 발표된 것이다. 그동안 출제위원들이 출제의 과정에서 겪은 경험에서 만들어진 것들이 많은 토의를 거쳐서 출제의 기본 지침으로 확정되고 이것들이 쌓여서 매뉴얼이 만들어진 것이었다. 이로써 언어 영역 시험의 한 장이 완성되었다고 보아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1) 시험모형

2005학년도부터는 학생들이 대학의 전형 방식에 따라서, 자신이 치른 언어 영역의 시험 성적을 대학 자료로 활용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게 되었다. 언어 영역도 선택 영역이 된 것이다. 그러다 보니 언어 영역의 성적 결과를 다른 영역의 성적과 비교하여 대학의 전형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영역별로 표준점수와 백분위점수가 필요했다. 여기에 등급이 추가되어 제공되었다.

한 점이라도 더 따려는 치열한 점수 따기 경쟁을 완화시키고 또 대학입학전형에서 수능이 차지하는 비중을 약화시키고자 표준점수나 백분위를 제공하지 않고 등급만을 제공하는 제도가 2008학년도에 전격 도입되기도 했다. 하지만 오히려 원점수 1점의 차이로 등급이 달라지고 급간의 차이가 오히려 더 큰 차이를 낳는 부작용이 생겼다. 이로 인해 등급만 제공하는 이른바 등급제 수능은 폐지되고 2009학년도부터는 다시 표준점수와 백분위, 등급을 제공하는 점수체제가 부활해 2013학년도까지 시행되었다.

비록 수능 전 영역이 선택 영역이라고는 해도 언어 영역은 많은 대학에서 전형 자료로 삼는 중요한 시험 영역이었다. 하지만 대학별로 일정 수의 영역만 반영하게 하면 언어 영역의 위상이 달라질 소지가 생긴 것은 분명하다. 이렇게 되자 언어 영역에 대한 배타적인 지위도 많이 줄었다. 이것은 문항 수의 조정으로 나타났다. <표 3-1-11>에 나타난 것처럼 2008학년도부터는 문항 수가 50문항으로 줄었으며 시험 시간도 80분으로 줄었다. 듣기 문항을 포함해 세부 내용영역별, 행동영역별로 문항 수를 줄이지 않을 수 없었다.

〈표 3-1-11〉 2005~2013학년도 언어 영역의 문항 개관

학년도	문항 수	시험 시간(분)	문항 형태	총점(점)	배점
2005	60	90	5지선다형 듣기 6문항	100	1점 문항: 23문항 2점 문항: 34문항 3점 문항: 3문항
2006	60	90	5지선다형 듣기 6문항	100	1점 문항: 23문항 2점 문항: 34문항 3점 문항: 3문항
2007	60	90	5지선다형 듣기 6문항	100	1점 문항: 23문항 2점 문항: 34문항 3점 문항: 3문항
2008	50	80	5지선다형 듣기 5문항	100	1점 문항: 5문항 2점 문항: 40문항 3점 문항: 5문항
2009	50	80	5지선다형 듣기 5문항	100	1점 문항: 5문항 2점 문항: 40문항 3점 문항: 5문항
2010	50	80	5지선다형 듣기 5문항	100	1점 문항: 5문항 2점 문항: 40문항 3점 문항: 5문항
2011	50	80	5지선다형 듣기 5문항	100	1점 문항: 5문항 2점 문항: 40문항 3점 문항: 5문항
2012	50	80	5지선다형 듣기 5문항	100	1점 문항: 5문항 2점 문항: 40문항 3점 문항: 5문항
2013	50	80	5지선다형 듣기 5문항	100	1점 문항: 5문항 2점 문항: 40문항 3점 문항: 5문항

〈표 3-1-12〉 2005~2013학년도 출제 매뉴얼상의 언어 영역 평가목표 이원분류표

내용영역		행동영역					문항 수	비율
		어휘·어법	사실적 사고	추론적 사고	비판적 사고	창의적 사고		
듣기·말하기								
읽기	인문·사회							
	과학·기술							
	문학·예술							
	언어·생활							
쓰기								
문항 수								
비율								

(2) 평가틀

(가) 내용영역

2005학년도부터 2013학년도까지 시행된 언어 영역은 2004년의 「출제 매뉴얼」에 따라 <표 3-1-12>와 같은 언어 영역 평가목표 이원분류표를 작성했다. 이것은 실제 출제 과정에서는 <표 3-1-13>과 같은 이원분류표로 바꾸어 사용하곤 했다. 이 ‘출제 과정에서의 언어 영역 평가목표 이원분류표’는 언어 영역이 유지해온 오랜 관행을 고스란히 담고 있다.

읽기 영역의 관행적 분류와 「출제 매뉴얼」을 비교 하면, 인문, 사회, 과학, 기술, 예술 등 단위 구분이

출제 매뉴얼에서는 인문·사회, 과학·기술이라는 복합 단위로 분류되고 있다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인문, 사회, 과학, 기술이라고 하면 각각의 단위마다 하나씩의 지문을 선정하게 되지만 인문·사회라고 하면 정치, 경제 지문을 선발해도 되고 과학·기술이라고 하면 물리, 생물 지문을 선발해도 된다. 글감의 범위가 보다 융통성 있게 된 셈이다.

국어 지식은 종래의 교육과정에서 ‘문법’ 등으로 지칭되던 것으로 7차 교육과정에서는 국어 지식이라 하였고, 또 2005~2013학년도 수능에서도 이 용어를 사용해 왔다. 여기에 해당하는 내용이 대부분 문법 지식이어서 관행적으로는 이를 문법이라고 불려왔다. 국어 지식은 2004학년도에

<표 3-1-13> 2005~2013학년도 출제 과정에서의 언어 영역 평가목표 이원분류표

내용영역		행동영역	어휘·어법	사실적 사고	추론적 사고	비판적 사고	창의적 사고	문항 수	비율
		듣기							
		듣기							
		쓰기							
		국어 지식							
읽기 (비문학)	인문								
	사회								
	과학								
	기술								
	예술								
	언어·생활								
읽기 (문학)	현대시								
	현대소설								
	고전시가								
	고전소설								
	수필								
	희곡/시나리오								
		문항 수							
		비율							

처음 별도의 문항으로 2문항이 출제되었다가 이후 별도의 내용영역이 되었다. 이 영역은 이후 국어 지식을 그대로 묻는 방식을 탈피하여 탐구 과제를 통하여 문법 이론이나 어휘 지식을 이해하는 방식으로 매년 2문항 정도가 출제되었다.

언어·생활은 2004학년도까지는 기타라고 분류하고 언어와 관련된 교과서의 지문을 활용하여 문항을 구성하였다. 이것이 관행으로 여겨지면서 이 내용영역은 모두 언어 관련 텍스트를 다루었다.

(나) 행동영역

2005학년도부터 언어 영역의 행동영역이 어휘·어법, 사실적 사고, 추론적 사고 등으로 변화하였다. 출제 매뉴얼에 나타난 내용영역별로 특기할 만한 해설과 하위 평가목표만 적어보면 다음과 같다.

① 어휘·어법

‘어휘력’이 ‘어휘·어법’으로 명칭이 바뀌었다. 세부 내용은 그대로 유지하고 어법에 대한 자세한 지침을 마련했다는 것은 주목할 만하다. 하위 평가목표는 다음과 같다.

- 어휘의 이해와 사용
 - 어휘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고 사용하는가.
 - 어휘간의 관계를 이해하고 제대로 사용하는가.

- 어휘의 짜임과 의미 변화를 이해하고 탐구하는가.
- 어휘 용법의 이해와 적용
 - 어휘의 지시적·문맥적 의미를 이해하고 사용하는가.
 - 어휘의 비유적·관용적 의미를 이해하고 사용하는가.
- 어법의 이해와 적용
 - 어법에 맞게 언어를 사용하는가.
 - 문맥과 문체에 적절한 표현을 사용하는가.
 - 언어 규범과 예절에 맞게 언어를 사용하는가.
 - 문장과 문단을 바르게 이해하고 언어를 사용하는가.

② 사실적 사고

독해력의 가장 기본적인 소양이기 때문에 크게 바뀐 비는 없다. 사실적 이해 능력을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언어 능력으로 간주하여 다른 능력, 예컨대 추론적 사고, 비판적 사고보다는 비중을 낮추어 측정한다는 지침을 적시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 내용의 사실적 이해
 - 내용의 정보와 그 관계를 정확하게 이해하는가.
 - 글 전체의 내용과 핵심을 체계적으로 이해하는가.
- 글의 구조에 대한 사실적 이해

<표 3-1-14> 언어 영역의 행동영역 비교

1999~2004학년도 행동영역	2005~2013학년도 행동영역
어휘력	어휘·어법
사실적 사고 능력	사실적 사고
추리·상상적 사고 능력	추론적 사고
비판적 사고 능력	비판적 사고
논리적 사고 능력	창의적 사고

- 글의 구조 단위와 그 관계를 정확하게 이해하는가.
- 글의 형식적 요소와 사실의 관계를 정확하게 이해하는가.

③ 추론적 사고

추론적 사고 영역은 이전의 ‘추리·상상적 사고 능력’과 ‘논리적 사고능력’의 두 항목을 망라하고자 했다.

첫째, 추론적 사고를 넓게 해석해 설명문이나 논설문과 같은 언어 표현의 내적 연관성을 종합하여 논리적으로 추론하는 능력과 문학 작품과 같은 언어 표현에서 상상력을 동원하여 이해하는 능력을 포함한다고 했다.

둘째, 언어 사용의 과정이 논리적으로 이루어졌는지를 판단하는 능력으로서 논리적 규칙에 따른 정의의 방법과 정확한 개념의 연결, 언어가 갖는 모호성과 사고 과정의 오류 등을 배제하는 것, 연역적 사고 과정이나 귀납적 사고 과정과 같은 논리적 추론 과정도 포함한다고 했다. 그리고 논리적 사고능력을 측정하는 방식은 논리학의 형태가 아니라 자연 언어의 표현 형태를 통해서 이 능력을 측정하도록 한다고 명시하여 논리학 지식의 암기에 치중하지 않도록 했다.

추론적 사고의 구체적인 하위평가목표는 다음과 같다.

- 내용의 추론
 - 언어 또는 사실을 근거로 내용을 미루어 아는가.
 - 언어 또는 사실을 구체적인 상황에 적용할 줄 아는가.
 - 연역 추론과 귀납 추론의 과정과 규칙에 맞게 사고하는가.

- 구조의 추론
 - 텍스트 구성에 관련된 요소를 적절하게 추리·상상하는가.
 - 언어 표현에 관련된 요소를 적절하게 추리·상상하는가.
- 과정의 추론
 - 처지와 상황을 분명히 하여 이해하고 표현하는가.
 - 의도와 관점을 명확히 하여 이해하고 표현하는가.
 - 논지 전개에서의 문제와 그 해결 과정을 이해하는가.

④ 비판적 사고

비판적 사고 역시 고등 독해 능력을 구성하는 영역이어서 일찍부터 그 정의가 확립되어 있었다. ‘비판적’이란 하거나 결함을 지적하는 부정적 판단만이 아니라 평가하고 비평하는 긍정적 판단을 포함한다고 했다. 그리고 언어 영역에서는 대학의 교육 수준을 감안하여 비판적 사고 능력에 높은 비중을 둔다고 밝혔다. 비판적 사고의 하위 평가목표는 다음과 같다.

- 내적 증거에 따른 비판
 - 내용의 정확성과 내용 전개의 적절성 기준에 따라 이해하고 표현하는가.
 - 구조와 표현의 적절성 기준에 따라 이해하고 표현하는가.
- 외적 증거에 따른 비판
 - 타당성의 기준에 따라 이해하고 표현하는가.
 - 효용성의 기준에 따라 이해하고 표현하는가.

⑤ 창의적 사고

창의적 사고는 이 시기에 도입된 행동영역이다. 이것은 주어진 상황과 조건에 맞게 어떤 언어 자료를

변형하거나 새롭게 표현하는 고차적인 언어 활동이라고 정의한다. 창의적 사고는 주어진 텍스트의 내용과 소재, 주제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추론적 사고의 확산 형태가 아니라 새로운 내용, 새로운 주제나 소재를 도입할 수 있는 ‘수직적인 수준 오름(shift-up)’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창의적 사고 영역은 내용, 구조, 표현의 세 측면에서 창의적 수용과 생성을 측정한다.

내용에 관한 창의적 수용과 생성에서는 내용의 관계를 분석하거나 설정하여 주어진 정보를 창의적으로 수용하고 그것을 새로운 정보로 생성하는 능력까지가 측정의 요소가 된다.

구조에 관한 창의적 수용과 생성에서는 표현된 내용이나 표현할 내용이 어떤 관계에 있는가를 분석적으로 살펴봄으로써 그 조직을 이해하거나 창의적으로 조직하는 능력을 말한다. 따라서 텍스트의 구성 요소를 파악하고 이를 통해 새로운 구조를 창출해 내는 능력 등이 측정 요소가 된다.

표현에 관한 창의적 수용과 생성에서는 표현된 내용이나 표현되는 과정에서 어떤 요소가 개입되었는가를 분석적으로 추리·상상함으로써 그 의미를 명확하게 하는 능력을 말한다. 따라서 표현된 글에 담겨 있는 전제나 태도를 분석하고 어떤 사실을 표현하는 의도와 관점을 명확하게 하는 능력 등이 측정 요소가 된다.

창의적 사고의 하위 평가목표는 다음과 같다.

- 내용의 창의적 수용과 생성
 - 새로운 정보를 효과적으로 발견하거나 생성하는가.
 - 주어진 정보를 효과적으로 응용하거나 새롭게 활용하는가.
 - 목적, 대상, 상황 등에 적절한 언어 활동 계획을 세우는가.

- 구조의 창의적 수용과 생성
 - 텍스트의 구성 요소를 창의적으로 수용하고 변용하는가.
 - 같거나 비슷한 구조를 활용하여 새로운 텍스트를 구성해 내는가.
 - 목적, 대상, 상황 등에 적절한 구조를 생성하고 활용하는가.
- 표현의 창의적 수용과 생성
 - 개성적이고 참신한 표현을 이해하고 표현하는가.
 - 여러 가지 수사법을 이해하고 효과적으로 활용하는가.
 - 목적, 대상, 상황 등을 고려하여 같은 내용을 여러 가지로 다르게 표현하고 이해하는가.

(다) 출제 범위

수능이 제7차 교육과정에 따라 출제하도록 되면서 2005학년도 수능 시행 계획에서는 고등학교 2, 3학년 심화선택과목 중심으로 출제함이라고 밝히고,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에 속하는 과목도 간접적으로 출제 범위에 포함함이라고 하여 고등학교 1학년 때의 과목도 출제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국어과 교육과정의 경우, 1학년부터 10학년까지의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에는 ‘국어’ 과목이 있고, 11, 12학년의 선택 중심 교육과정에는 ‘국어생활’, ‘화법’, ‘독서’, ‘작문’, ‘문법’, ‘문학’과 같은 과목이 설정되어 있었다.

이 기간 언어 영역도 제7차 교육과정을 따라야 했으므로 언어 영역의 출제 범위 역시, 선택과목을 출제 범위로 삼고, 10학년의 국어도 출제 가능한 범위가 되었다. 즉 선택과목인 ‘화법, 작문, 독서, 문법, 문학, 국어생활’과 공통과목인 ‘10학년 국어’가 출제 대상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전 시기에도 언어 영역의 출제 범위는 말하기를 제외한 듣기,

읽기, 쓰기 및 문학과 문법(국어지식)을 언어영역 평가 목표의 내용 영역으로 제시하고 있었으므로 큰 변화를 겪지는 않았다.

그러나 이전 시기에는 국어와 문법 교과서는 국정 교과서 체제였으나 화법, 작문, 독서, 문학 등의 교과서는 검정 교과서였다. 학교에서 사용하는 교과서가 다르다보니 출제 과정에서 특정 교과서로 인한 유불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큰 문제로 대두되었다. 이 시기, 출제를 위한 지문 선정 과정에서 배제의 원리와 공통의 원리를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해진 것이다.

(3) 특이사항

이 시기는 수능 전체적으로 볼 때는 안정기이지만, 언어 영역의 경우에는 변화가 잦았고 변화의 폭이 컸다. 시험 문항이 50문항으로 바뀐 것과 고등학교 국어과 교육과정 중에서 선택과목을 중심으로 출제하게 된 것이 그렇다. 언어 영역이 선택 영역이 되면서 수능에서의 위상도 달라졌다.

수능은 대학 수학 능력을 측정하는 것만 아니라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충실히 학습한 결과를 측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앞의 것이 대학의 요구에 부응하는 측면이라고 한다면 뒤의 것은 고등학교의 요구에 부응하는 측면이라고 할 수 있다. 언어 영역에서 어휘력, 독해력, 언어추리력이라고 하거나, 어휘·어법, 사실적 사고 능력, 추리 상상적 사고 능력, 비판적 사고 능력, 창의적 사고 능력이라고 하거나, 언어로써 이루어지는 고등 사고 능력을 측정하려는 것은 앞의 요구에 부응하는 측면이다. 반면에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개편에 따라 교과 영역을 반영하고 고등학교 교육과정이 추구하는 성취 목표를 시험으로써 구현하고자 하는 것은 뒤의 요구에 부응하려는 노력이라고 할 것이다.

이 기간 동안 언어 영역은 고등학교 2, 3학년 선택과목에서 출제한다는 점을 명시했다. 이러한 출제 원칙은 해석에 따라서는 ‘국어과의 하위 과목에서 출제한다.’는 것으로 읽을 수 있다. 거기에 더해 언어 영역은 수험생이 선택할 수 있는 시험 영역의 하나가 되었다. 대부분의 수험생이 언어 영역을 치르고 그것을 대학입학 전형 자료로 삼기는 하지만 언어 영역은 대학 교육에 적합한 소양을 측정하는 필수적인 요소는 아니게 되었다.



바. 언어 영역의 성과와 발전 방향

2014학년도 수능부터는 ‘언어 영역’이라는 명칭은 사라지고 ‘국어 영역’으로 명칭이 바뀌었다. 이것은 여러 가지 면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해방 이후 수능이 도입되기 전까지 우리나라의 대학입학시험제도는 모두 11차례 바뀌었다. 수능이 도입된 이래 소소한 변화는 있지만 그 취지와 목적, 시험의 설계와 방향이 바뀌지 않고 20년 동안 유지했다는 것은 이 시험이 얼마나 안정적이고 성공적이었는가를 잘 말해준다.

수능의 여러 영역 중에서 언어 영역은 수리, 외국어(영어) 영역과 마찬가지로 처음부터 20여 년 간 그 정신과 틀을 비교적 굳건히 유지해 왔다. 이 세 영역 중에서도 언어 영역은 수능의 취지와 목적을 가장 잘 구현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것은 언어가 갖고 있는 성격 때문이다.

우리의 수준 높은 사고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언어가 아니고서는 불가능하다. 따라서 언어 능력이란 언어로 표현된 글을 읽고 이해하며 수용할 줄 아는 능력만이 아니라 언어로 추리하고 상상하며 비판하여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능력까지를 포함한다. 이 언어 능력을 측정하는 언어 영역이야말로 인간의 고등 사고를 이해하고 수용하는 능력만이 아니라 생산하고 창조하는 능력을 측정하는 시험이라고 말할 수 있다.

나아가 수능이 대학 수학 과정에서 요구되는 사고 능력과 문제해결 능력을 측정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언어 영역은 이 시험의 정체성을 가장

탁월하게 구현한 시험이라고 말할 수 있다. 실제로 언어 영역은 통합교과적 제재, 즉 인문, 사회, 과학, 예술 분야의 제재를 대상으로 사고 능력을 측정하는 문항을 구성하고 있다.

처음부터 수능은 대학 수학의 적성 내지 대학 수학 능력을 측정하는 기능과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학습 결과를 측정하는 기능을 동시에 가질 것을 요구받아 왔는데, 이 ‘고차적 사고 능력’과 ‘고등학교 교과과정’의 조합은 썩 잘 어울리는 조합은 아니다. 그간 수능의 문항 유형이나 문항의 곤란도가 사회적 문제로서 부각될 때마다 고등학교 교과과정과 일치할 것을 주문하고 심지어는 수능 언어 영역이 고등학교 국어 수업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는 불평이 제기되기도 했던 것도 이 양자의 조합이 여전히 어렵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2014학년도 수능부터 ‘언어 영역’이 ‘국어 영역’으로 바뀌면서 일반적인 언어 능력이 아니라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제공하는 국어과 교육의 학습 결과를 평가 내용으로 갖게 되었다. 이는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충실하라는 사회적 요구에 수능이 부응하는 면이다.

수능이 대학교육에 필요한 수학 능력을 알아 보기 위하여 고차적 사고 능력을 측정할 것을 요구하는 사회적 요구가 다른 것으로 바뀐 것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2014학년도부터 시행되는 ‘국어 영역’은 ‘언어 영역’이 그 동안 성공적으로 구현했던 고차적 사고 능력 측정의 기능을 잘 계승해야 한다. 미래 시대에 더 필요해진 추론적, 비판적 능력과 창의적 능력은 여전히 언어를 통해서만 측정 가능하기 때문이다.

제2절

수리 영역

선우하식(건국대학교)

가. 개요

(1) 도입 배경과 취지

처음으로 수능이 치러진 1994학년도 당시에는 제5차 교육과정을 따르는 수학과 교육과정이 적용되고 있었다. 1988년에 발표된 제5차 수학과 교육과정은 수학 교육 정책 및 수학 교육의 세계적 추이 등을 고려하여 대다수 학생을 위한 수학 교육, 학교 수학의 유용성과 적용 가능성의 강조, 수학적 활동 경험을 중요시했다. 이에 따른 수학과 교육과정의 기본 정신은 다음과 같다.

- 최소의 필수 기본 지식 및 기능의 정선
- 수학적 활동의 강화
- 문제 해결의 강화
- 정의적 측면의 강조

수학과 교육과정에서 문제해결력은 1980년대 이후 수학 교육의 기본 방향으로 일상 생활에서의

수학 적용 능력 및 합리적 사고 능력이 강조되었으나 교과서에는 그것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였다.¹⁾ 이에 따라 1993학년도까지 치러졌던 대학입학 학력고사는 거의 모든 교과목을 대상으로 단편적 지식을 묻는 문항이 주로 출제되었다. 따라서 교육과정의 변화에 따라 중등학교 교육을 정상화시키고 의미 있는 경쟁을 유도하자는 취지에서 수능을 도입하게 되었다. 국립교육평가원²⁾에서는 대학교육적성시험 실험평가 연구를 통해 대학 교육적성시험의 개념과 성격, 측정 영역과 정신 능력, 출제 모형과 문항 제작 방법, 영역별 시험의 개념과 출제 방향 등을 정립하였으며 그 가운데 수리 영역의 시험 내용과 관련된 내용을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05a).

첫째, 선천적인 능력을 측정하는 적성 검사가 아니라 학교 교육을 통하여 학습된 능력을 측정한다.

둘째,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내용과 수준에 따라 출제한다.

셋째, 특정 교과별 시험이 아니라 통합교과적 소재

1) 고등학교 수학과 교육과정 해설, 문교부 고시 제88-7호(1988.3.31)

2) 1998년에 한국교육과정평가원으로 개원하였다.

를 활용하여 출제한다.

넷째, 측정 정신 능력은 고차적인 사고력을 측정하는 발전된 학력고사이다.

이 원칙에 따라 수리 영역은 대학 교육을 이수 하는데 요구되는 수리 능력, 즉 수리의 기초적 개념에 대한 이해력과 주어진 수리 자료나 정보를 바르게 추리하는 능력 및 주어진 자료에 원리나 적절한 방법을 적용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 등을 수학, 과학, 사회 등의 통합교과적인 제재를 사용하여 측정하는 것으로 수학 교육의 평가에서 사고력 측정을 강조 하게 되었다. 따라서 1994학년도부터 실시된 수능에서는 이전의 학력고사에서 주로 출제되었던 교과서 중심의 문제에서 탈피하여 교과서 외적인 소재를 사용한 문항이나 타 교과와 관련된 문항, 그리고 학생의 창의적 사고력을 측정하는 문항이 다수 출제되었다.

(2) 수리 영역의 성격 및 평가목표

수능 20년째를 맞는 2013학년도의 수학과 교육 과정³⁾에서는 수학과 의 성격을 “수학과는 수학적 개념, 원리, 법칙을 이해하고 논리적으로 사고하며, 여러 가지 현상을 수학적으로 관찰하고 해석하는 능력을 기르고, 여러 가지 문제를 수학적 방법을 사용하여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능력과 태도를 기르는 교과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는 1994학년도에 처음으로 수능이 실시된 당시에 적용되었던 제5차 수학과 교육과정에 명시된 수학과 의 교과 목표와 표현이 일부 수정되었을 뿐 같다고 할 수 있다. 한편

고등학교 수학 학습의 평가는 학생의 ‘정의적 영역’ 과 ‘인지적 영역’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정의적 영역에 대한 평가에서는 학생의 수학에 대한 긍정적 태도를 신장시키기 위하여 학생의 수학에 대한 바람직한 가치관이나 수학 학습에 대한 관심, 흥미, 자신감 등의 정도를 파악한다. 인지적 영역에 대한 평가는 수리 영역에서 평가하고자 하는 것으로 다음과 같은 능력을 평가한다.

- 수학의 기본적인 개념, 원리, 법칙을 이해하고 적용하는 능력
- 수학적 표현의 의미를 이해하고 정확하게 사용하는 능력
- 수학적 지식과 기능을 활용하여 타당하게 추론 하는 능력
- 다양한 상황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를 수학적으로 사고하여 해결하는 능력
- 생활 주변 현상, 사회 현상, 자연 현상 등의 여러 가지 현상을 수학적으로 관찰, 분석, 조직 하는 능력
- 수학적 사고 과정과 결과를 합리적으로 의사 소통하는 능력

이에 따라 수리 영역은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이수한 학생들에게 적합하고 대학입학 시험으로서 변별력이 있는 문항으로 구성되고, 단순 암기에 의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나 지나치게 복잡한 계산 위주의 문항을 지양하고 계산 능력, 이해 능력, 추론 능력, 문제해결 능력을 적절하게 평가할 수 있는 문항으로 구성되도록 출제되어왔다.

수능이 이전의 학력고사와 가장 크게 차이 나는

3) 교육인적자원부(2007), 교육인적자원부 고시 제 2007-79호 수학과 교육과정

점은 통합교과적 소재를 활용한 문제 상황을 통하여 학생들의 문제해결 능력을 측정한다는 것이었다. 이에 따라 초기의 수리 영역에서는 수학의 여러 가지 내용이 관련되어 있는 수학 내적인 문제해결 능력과 일상 생활 및 다른 교과 내용과 외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수학 외적 문제해결 능력을 측정하는 문제들이 다수 출제되었다. 수학 과목의 영역 명칭이 수리·탐구 영역(I)이었던 것은 이를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2002학년도부터는 영역명에 따른 개념 혼선을 없애고 실제로 측정하는 평가 내용의 특성을 잘 드러내기 위하여 수리·탐구 영역(I)은 수리 영역, 수리·탐구 영역(II)는 사회탐구와 과학탐구로 영역명을 변경⁴⁾하여 2013학년도 수능까지 그대로 유지되었다.

본고에서는 수능이 실시되기 전인 1986년부터 1992년까지를 태동기, 1994학년도(1993년)부터 1998학년도까지는 형성기, 1999학년도부터 2004학년도까지는 성장기, 그리고 2005

학년도부터 2013학년도까지는 안정기로 구분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나. 태동기의 수리 영역의 변화 (1986~1992년)

태동기는 1986년 교육개혁심의회에서 기존의 ‘대학입학학력고사’를 대체하기 위해 ‘대학교육적성시험’을 제안한 시기부터 7차례의 실험평가가 이루어졌던 1992년까지의 시기이다. 1990년부터 1992년까지 총 7회에 걸친 실험평가를 통하여 수능의 모형을 확정하였는데, 1차 실험평가에서는 ‘대학교육적성시험’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였으며, 2차 실험평가부터 명칭이 ‘대학수학능력시험’으로 변경되었다.

〈표 3-2-1〉 실험평가 시험모형의 변화

실험평가 차수	문항 수	배점(점)	시험 시간(분)	특이사항
1	23 (69)	50 (100)	120	5지선다형 20문항 (40점) 단답형 3문항 (10점)
2	25 (75)	50 (100)	120	5지선다형 25문항 (50점)
3	25 (75)	50 (100)	120	
4	20 (80)	40 (100)	120	1, 2, 3점으로 차등 배점
5	20 (80)	40 (100)	120	모든 문항 2점 배점
6	I : 20 II : 60	I : 40 II : 60	I : 60 II : 90	수리 영역은 수리·탐구 영역(I)로 분리
7	I : 20 II : 60	I : 40 II : 60	I : 60 II : 90	

* ()안은 수리·탐구 영역 전체

4) 양길석(2010), 대학수학능력시험의 변천 과정과 쟁점 분석

(1) 시험모형

수능이 이전의 학력고사와 가장 크게 차이 나는 점은 통합교과적 소재를 활용한 문제 상황을 통하여 학생들의 문제해결 능력을 측정한다는 것이었으므로 수학, 과학, 사회 과목을 모두 포함하여 수리·탐구 영역이라는 명칭을 이용하여 수리 영역에 대한 실험평가를 시행하였다.

1~3차 실험평가에서는 수리·탐구 영역의 수리 분야와 탐구 분야의 배점 비중을 50:50으로 동일하게 하였으나 4차 실험평가(1992년 5월)부터는 외국어(영어) 영역 배점(40점)과의 균형과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단위 수를 고려하여 40:60으로 수리 분야의 비중을 축소하였다.

1차 실험평가부터 5차 실험평가까지는 수리·탐구 영역에 수학, 과학, 사회 과목이 모두 포함되어 120분간 69~80 문항을 풀도록 하였으나 6차 실험평가(1992년 8월)부터는 수리·탐구 영역의 시험 시간이 부족하다는 의견을 받아들여 수리·탐구 영역(I)과 수리·탐구 영역(II)로 분리되어

수리·탐구 영역(I)은 시험 시간이 60분으로 수학 과목만의 독립 영역으로 규정되었다.

(2) 평가틀

(가) 내용영역

이 시기의 교육과정의 수학 과목은 일반수학, 수학I, 수학II의 3과목으로 나뉘어졌고, 일반수학은 1학년 학생들이 이수하고, 2학년부터는 인문계는 수학I을, 자연계는 수학II를 이수하도록 하였다. 실험평가에서 출제된 문항들의 내용영역은 <표 3-2-2>와 같다. 자연계열의 학생들이 이수하는 수학II에는 수학I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7차에 걸친 실험평가에서 수능의 기본 방향과 제5차 수학과 교육과정의 기본 정신을 모두 반영한다는 출제의 기본 원칙 하에서 출제 범위는 인문, 예·체능, 자연계열의 구분 없이 제5차 교육과정에서 모든 학생이 공통으로 이수하는 일반

<표 3-2-2> 실험평가의 수리 영역의 내용영역

과목	영역	내용영역
일반수학	대수	집합과 명제, 수의 체계, 다항식 유리식과 무리식, 방정식, 부등식, 지수와 로그
	해석	함수, 유리함수와 무리함수, 지수함수 로그함수, 삼각함수
	기하	평면좌표, 직선의 방정식 원의 방정식, 포물선의 방정식 도형의 이동, 부등식의 영역
수학 I	대수	행렬과 그 연산, 수열 알고리즘과 순서도
	해석	수열의 극한, 함수의 극한과 연속성 다항함수의 미분법, 도함수의 활용 다항함수의 적분법, 정적분의 응용
	확률과 통계	순열과 조합, 확률, 통계

수학과 수학I의 내용을 이용하여 풀 수 있는 문항들이 출제되었다. 한편 고등학교 2~3학년 과정에서 인문계열은 수학I을 10단위로 이수하고, 자연계열은 18단위로 이수하는 차이가 있는 점과, 자연계열은 수학II에서 배운 내용 중 수학I의 내용과 다른 내용은 수능의 시험 범위에서 제외된다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나) 행동영역

실험평가에서 출제되는 문항들은 행동영역별로 계산 능력, 이해 능력, 추론 능력, 문제해결 능력의 4가지로 구분되었고, 행동영역의 구분과 정의는 이후에도 크게 변하지 않고 유지되었으며 다만 그 비율은 탄력적으로 조정하였다.

4가지 행동영역은 다음과 같이 정의되었다.

○ 계산 능력

여러 가지 계산법과 문제 해결 절차를 능숙하게 구사할 수 있는 능력

○ 이해 능력

기본적인 수리적 개념, 원리, 법칙과 여러 가지 수리적 표현(기호 및 부호, 식, 도형, 표 및 그래프 등) 및 이들 사이의 상호 관련성의 명확한 이해 능력

○ 추론 능력

- 추측능력: 관찰, 열거, 실험 등을 통한 귀납과 유추, 추측에 의하여 수학적 법칙성과 문제 해결 방법을 발견하는 능력

- 증명능력: 조건 명제의 증명, 삼단논법에 의한 연역적 추론, 반례에 의한 증명, 간접증명, 동치인 명제의 증명, 모순법, 수학적 귀납법 등을 이용한 증명을 이해할 수 있으며 이러한 증명 방법을 사용하여 수학적 명제를 증명하는 능력

○ 문제해결 능력

- 수학 내적 문제해결 능력: 수학의 여러 가지 내용 사이의 관련성 파악이 요구되는 수학 내적인 문제해결 능력

- 수학 외적 문제해결 능력: 수학의 여러 가지 내용과 일상 생활 및 다른 교과 내용과의 외적인 관련성 파악이 요구되는 통합 교과적 소재의 응용 문제해결 능력

(3) 특이사항

수능에서 범교과적인 소재를 활용하여 문제 해결 능력을 강조하면서 수리 영역은 이전의 학력고사에서 보지 못하였던 실생활 문제, 사고력을 측정하는 문제해결 문제 등이 다수 출제 되었다. 따라서 매년 대학 입시에서 수리 영역의 난이도는 대학 입시의 당락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가 되었다. 이 절에서는 각 시기별로 실시되는 수리 영역의 난이도에 대하여 설명하도록 한다. 또한, 시기별로 출제되었던 문항의 유형에 대해서 특징적인 것을 설명하도록 한다.

실험평가에서 목표한 난이도는 각 문항의 난이도를 20~80% 정도로, 영역별 평균점수는 100점 만점에 50점 내외가 되도록 하는 것이었다. 수리 영역의 전체, 상위 50% 집단, 계열별로 평균점수는 <표 3-2-3>과 같다.

<표 3-2-3>에서 보듯이 전체 평균은 35점 정도로 매우 낮게 나타났고, 상위 50%의 학생들의 평균도 40점 정도였다. 또한 문항의 정답률의 분포도 낮은 쪽에 편중되어 나타났다. 이는 단순한 기억력이나 암기력을 묻는 문항이 아니라 수업 시간 중에 익숙하게 보지 못하던 사고력을 필요로 하는 생소한 문항이 다수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라 여겨진다.

실험평가에 참여했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표 3-2-3〉 실험평가의 평균점수 (100점 만점 환산)

(단위: 점)

차수	전체 평균 (표준편차)	상위 50% 평균 (표준편차)	계열별	
			인문계	자연계
1	41.2 (11.8)	-	39.1	43.4
2	39.0 (13.0)	-	35.7	42.4
3	31.8 (10.5)	-	29.7	33.9
4	33.9 (9.9)	-	32.3	35.4
5	32.6 (9.4)	39.2 (7.5)	31.2	34.4
6	32.0 (9.5)	39.7 (7.7)	32.0	34.2
7	34.1 (9.3)	40.7 (7.3)	32.5	35.7
계	35.1 (10.5)	39.9 (7.5)	33.2	37.0

설문조사에 의하면 지역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학교에서 시행하고 있는 각종 시험 문항과 비교하였을 때 대체로 더 많이 생각을 요하는 문항이라고 응답하였고, 약 90%의 학생들이 시험 준비를 위한 공부 방법이 달라져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교사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대부분의 교사들은 실험평가 문항들이 고등 정신 능력을 측정한다고 응답하였으며, 고등학교에서의 수업 방법에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결론적으로 수능은 학생과 교사 모두에게 사고력을 측정하는 시험이라는 긍정적인 반응을 얻음으로써 발전된 학력고사로 인정을 받게 되었다(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05a).

7차에 걸친 실험평가에서 수리 영역의 문항들은 기존의 학력고사와 달리 통합교과적인 소재를 사용하고, 고차적인 사고력을 측정하기 위하여 고심을 거쳐 만들어졌다. 그 결과 많은 문항들이 일반적으로 학교 수업에서 익숙하게 다루어지지 않은 생소한 문항들이 포함되어 있었고, 짧은 시간 내에 해결하기 어려운 문항들도 포함되어 있었다. 예를 들어, 5차 실험평가에 출제되었던 [예시 문항 1]은 논리적인 사고력을 측정하는 증명에 관한

문항으로 증명 과정을 완성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문항이었다. 또 7차 실험평가에 출제되었던 [예시 문항 2]는 수학 외적 문제해결 능력을 측정하는 문항으로 실생활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를 수학적 사고를 통하여 해결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문항이었다.

[예시 문항 1]

<5차 수능 실험평가 수리·탐구 영역 10번>

10. 다음은 $\sqrt{2}$ 가 무리수임을 증명한 것이다.

(증명) $\sqrt{2}$ 가 유리수라고 가정하면, $[2]$ 인 자연수 m, n 에 대하여 $\sqrt{2} = \frac{n}{m}$ 꼴로 나타낼 수 있다. 양변을 제곱하면 $2 = \frac{n^2}{m^2}$ 이므로, $n^2 = 2m^2$ 이다. 따라서 $[3]$ 은 2의 배수이다. $[4] = 2k$ 라 놓으면 $n^2 = 2m^2$ 에서 $[5] = 2k^2$ 이 된다. 따라서 $[6]$ 도 2의 배수이다. 이는 m, n 이 $[2]$ 라는 가정에 모순된다. 그러므로 $\sqrt{2}$ 는 유리수가 될 수 없고, 무리수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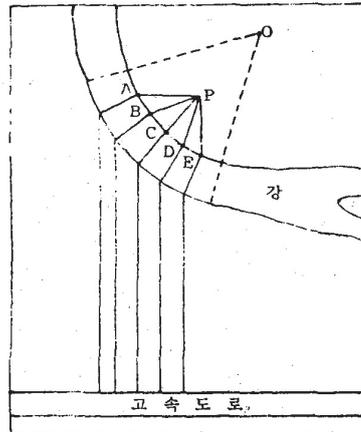
위의 증명과정에서 $[2], [3], [4]$ 에 알맞은 것을 순서대로 적으면?

- ① 홀수 m n
- ② 서로 소 m n
- ③ $m \neq n$ m n
- ④ 홀수 n m
- ⑤ 서로 소 n m

[예시 문항 2]

<7차 수능 실험평가 수리·탐구 영역(1) 12번>

12. 그림과 같이 마을 P를 동심원 모양으로 돌아 흐르는 강 건너에 고속도로가 있다. 마을 P에서 고속도로까지 최단거리의 도로를 건설하려고 하는데, 지형적인 이유로 교량의 위치는 다음 그림의 A, B, C, D, E 중 어느 한 곳이어야 한다. 가장 좋은 위치는? (단, O는 동심원의 중심이고, 교량은 강을 수직으로 건너도록 설계하며, 고속도로에 대하여 \overline{PA} 는 평행, \overline{PE} 는 수직이고 또 C는 \overline{OP} 의 연장선이 강과 만난 점이다.)



- ① A ② B ③ C ④ D ⑤ E

다. 형성기의 수리 영역의 변화 (1994~1998학년도)

형성기는 수능이 처음 실시된 1994학년도부터 1998학년도까지의 시기로 7차례에 걸친 실험 평가를 통하여 첫발을 내딛었지만 그 기본 정신은 유지하면서 더욱 대학입학교사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부족한 점들을 보완하며 현재와 같은 틀이 완성되어지는 시기라고 할 수 있다. 수능이 처음 실시된 1994학년도에는 2회에 걸쳐 실시되었고, 1995학년도부터는 1회만 실시하고, 수험생의 응시 계열을 인문, 예·체능계열과 자연계열의 2계열로 나누어 시험을 실시하였다.

이 시기의 수리 영역의 출제 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수학적 사고의 결과가 아닌 수학적 사고 과정에 대한 능력, 즉 결과로서의 수학이 아니라, 수학적 사고의 과정이 어떠했으며 얼마나 충실했는가를 평가하고자 하였다.

둘째, 여러 기본적인 계산 능력을 포함한 알고리즘의 구사 능력을 측정하도록 하였다.

셋째, 기본적인 수학적 개념, 원리, 법칙 및 그들 간의 관련성 이해와 이에 수반되는 수학적 추론 능력을 측정하도록 하였다.

넷째, 수학적 창의성을 토대로 한 관찰, 추측, 발견 등의 능력과 이를 확인, 증명, 반증할 수 있는 수학적 추론 능력을 측정하도록 하였다.

다섯째, 수학에서 복잡해 보이는 여러 가지 문제 또는 생활 속의 응용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적절한 전략을 구사하고 실행하는 능력을 측정하도록 하였다.

(1) 시험모형

1994학년도에는 수능이 2회에 걸쳐 치뤄졌으나 1995학년도이후에는 1년에 1회 시험을 치르고 있다. 또한 전 계열의 수험생이 공통 문항으로 시험을 보는 경우, 각 계열의 공통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만 시험 범위에 해당되어 교육과정과 수능의 시험 범위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계속 제기되어 1995학년도부터는 인문, 예·체능계열과 자연계열의 2계열로 분리하여 시험을 치르게 되었다. 이에 따라 1994학년도에 20문항이던 것을 10문항 늘려 30문항으로 출제하고, 75%에 해당하는 21문항은 계열 공통 문항으로 출제하고, 25%에 해당하는 9문항은 계열별로 다르게 출제하였다. 또한 수리 영역의 경우 사고의 수준이 높고 복합적인 사고를 요하는 문항에 많은 배점을 주는 것을 원칙으로 정하여 문항별로 1점, 1.5점, 2점으로 차등 배점하였다.

1997학년도에는 1994학년도부터 1996학년도까지 시행되었던 대학별 고사가 폐지되어 수능의 의존도가 더욱 높아진 시기이다. 이에 따라 출제 기본 방향, 문항 수, 점수 체제에 변화가 있었는데, 수리 영역의 변화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전 영역에서 배점이 두 배로 상향 조정이 됨에 따라 수리 영역도 모든 문항의 배점을 2, 3, 4점으로 상향하여 만점이 80점이 되도록 하였다.

둘째, 30문항 중에 20%에 해당하는 6문항을 단답형으로 출제하였다.

셋째, 시험 시간이 10분 더 늘어 100분 동안 단답형 6문항을 포함한 30문항을 풀도록 하였다. 시험 시간은 실험평가 당시 60분에서 꾸준히 증가하여 100분으로 고정되었다.

형성기는 처음 수능이 실시되면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보완하면서 꾸준히 시험모형의

〈표 3-2-4〉 1994~1998학년도 수리 영역의 시험모형 변경 내용

학년도	변경 사항	비고
199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험 시간: 70분 • 문항 형식: 선다형 20문항 • 배점: 각 문항 2점으로 40점 	연 2회 시행
1995~199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열: 인문·예체능계열, 자연계열로 분리 • 문항 수: 10문항 늘임 (30문항) • 시험시간: 20분 늘임 (90분) • 배점: 문항별 차등 배점 (1점, 1.5점, 2점) 	이후 연 1회 시행
1997~199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험시간: 10분 늘임 (100분) • 배점: 40점에서 80점으로 • 문항 형식: 단답형 문항 6문항(20%) 포함 	전 영역 배점 2배 (수리 영역은 2점, 3점, 4점으로 차등 배점)

〈표 3-2-5〉 1994~1998학년도 수리 영역의 시험모형

학년도	계열	배점 (점)	출제 비율(%)		출제 범위		시간 (분)	문항유형 및 문항 수
			공통	계열	공통	계열		
1994	공통	40	100	-	일반수학 수학 I	-	70	5지선다형 20문항
1995~1996	인문 예·체능	40	75	25	일반수학 수학 I*	일반수학 수학 I	90	5지선다형 20문항
	자연					수학 II		
1997~1998	인문 예·체능	80	75	25	일반수학 수학 I*	일반수학 수학 I	100	5지선다형 24문항(80%) 단답형 6문항(20%)
	자연					수학 II		

* 자연계열의 수학 I 은 수학 II 중에서 수학 I 의 내용과 공통 부분

완성도를 높여가는 시기로 연도별로 변화가 많았다. 이상을 연도별로 정리하면 〈표 3-2-4〉와 같다.

단답형 문항 9개(30%)를 포함하여 총 30문항을 100분 동안 푸는 현재의 시험모형은 거의 이 시기에 완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 시기에 적용된 문항 수, 시험 시간, 배점 등의 시험모형을 정리하면 〈표 3-2-5〉와 같다.

(2) 평가틀

(가) 내용영역과 출제 범위

1994학년도에는 2회의 수능이 치러졌으나 계열의 구분이 없어 내용영역은 실험평가 때와 마찬가지로 동일했다. 그러나 1995학년도부터는 인문, 예·체능계열과 자연계열로 분리되어 시험이 치러졌기 때문에 계열에 따라 출제 범위가 달라지고 이에 따라 내용영역에 약간의 변화가 있었다. 인문, 예·체능계열 학생의

〈표 3-2-6〉 1994~1998학년도 수학 II의 내용영역

과목	영역	내용영역
수학 II	대수	방정식, 부등식, 행렬과 그 연산, 수열, 알고리즘과 순서도
	해석	삼각함수와 복소수, 수열의 극한, 함수의 극한과 연속성, 미분법, 도함수의 활용, 부정적분, 정적분의 응용
	기하	타원과 쌍곡선, 공간도형, 공간좌표, 벡터
	확률과 통계	순열과 조합, 확률, 통계

〈표 3-2-7〉 1994~1998학년도의 수리 영역의 출제 범위

학년도	계열	출제 비율(%)		출제 범위	
		공통	계열	공통	계열
1994	공통	100	-	일반수학 수학 I*	-
1995~1998	인문 예·체능	75	25	일반수학 수학 I*	일반수학 수학 I
	자연				수학 II

* 자연계열의 경우 수학 I은 수학 II 중에서 수학 I의 내용과 공통 부분

경우에는 일반수학과 수학 I을 이수하도록 되어 있었으므로 실험평가 때와 내용영역의 변화는 없었지만, 자연계열의 경우에는 일반수학과 수학 II를 이수하도록 되어 있어 일반수학의 내용영역은 변화가 없지만 수학 I의 내용영역은 〈표 3-2-6〉과 같은 수학 II의 내용영역으로 대체되었다.

1994학년도부터 1998학년도까지는 실험평가 시기와 마찬가지로 제5차 교육과정이 적용되는 시기였다. 1994학년도 1차 수능은 시험 날짜가 8월이었으므로 3학년 1학기까지의 진도를 시험 범위로 정하였다. 계열 구분 없이 공통으로 시험을 치렀으므로 시험 범위는 일반수학과 수학 I에서 확률과 통계 영역을 제외한 부분이었다. 1994학년도 2차 수능은 11월에 치러졌고 일반수학과 수학 I의 전 범위가 시험 범위에 해당되었다.

1995학년도부터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정상적인 운영과 계열의

특성을 살린다는 취지로 인문, 예·체능계열과 자연계열의 2계열로 분리하여 출제되었다. 이에 따라 인문, 예·체능계열에서는 일반수학과 수학 I을, 자연계열에서는 일반수학과 수학 II를 각각 시험 범위로 정하고 75% 정도는 공통 출제하고 25% 정도는 계열별로 달리 출제하였다. 이 시기의 출제 범위를 정리하면 〈표 3-2-7〉과 같다.

(나) 행동영역

이 시기의 수능은 태동기에 실시되었던 실험평가의 결과를 바탕으로 시행되었고, 교육과정의 변화도 없었던 시기였기 때문에 행동영역의 변화는 없었다. 이 시기에도 행동영역은 계산 능력, 이해 능력, 추론 능력, 문제해결 능력의 4가지로 구분되어 출제가 되었다.

〈표 3-2-8〉은 이 시기에 수리 영역의 평가목표에 따른 이원분류표의 예시이다.

〈표 3-2-8〉 1994~1998학년도 수리 영역의 이원분류표

내용영역	행동영역	계산	이해	추론		문제해결	
				귀납, 유추, 추측	증명	수학내적 관련성	수학외적 관련성
집합과 명제							
수와 식							
방정식과 부등식							
지수와 로그							
행렬							
수열과 알고리즘							
여러 가지 함수와 복소수							
수열과 함수의 극한							
미분법과 적분법							
도형의 방정식과 공간 도형							
부등식의 영역							
벡터							
순열과 조합							
확률							
통계							

(3) 특이사항

1994학년도 수능에서 제시한 출제 기본 방향에서는 ‘문항별 예상정답률은 20~80% 수준을 유지하며, 영역별 평균점수는 50~60점이 되도록 한다’고 하였다. 7차에 걸친 실험평가에서는 50점 정도의 평균점수를 예상하였지만 사고력을 요하는 문제들의 정답률이 낮아 실제 평균점수는 목표 점수에 훨씬 못미쳤다. 기존의 학력고사 문항과 달리 생소한 문항들이 많아 여전히 학생들이 어려워하여 1994학년도 1차, 2차 수능에서도 평균점수는 각각 40.9점, 36.4점(100점 만점으로 환산)으로 목표 점수에 10점 이상 미달하였다. 이는 실험평가를 통하여 얻은 결과와 비슷한 결과로 어느 정도 예측된 결과였다. 즉, 수리 영역의 문항이 단순한 기억력

이나 암기력을 묻는 문항이 아니라 사고력을 측정하는 생소한 문제 상황 중심으로 출제되어 교과서나 수업 시간 중에 익숙하게 다루었던 기존의 학력고사 문항과 달랐다는 점이 가장 큰 요인이었다고 여겨진다.

〈표 3-2-9〉는 형성기인 1994학년도부터 1998학년도까지의 수리 영역 정답률을 계열별, 성별로 정리한 것이다.

1994학년도에 실시된 1, 2차 수능은 비슷한 수준의 난이도를 유지하도록 출제한다는 원칙을 정하였으나 난이도 조정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1995학년도부터 연 1회만 실시하게 되었다.

1995학년도와 1996학년도에는 전체 정답률은 34.9%로 같게 나왔으나 1994학년도에 비해 전반적으로 정답률이 더 낮게 나타났다. 이는 7회의

〈표 3-2-9〉 1994~1998학년도 수리 영역의 정답률

학년도	전체 집단				상위 50% 집단				성별	
	전체	인문	자연	예·체능	전체	인문	자연	예·체능	남	여
1994 1차	40.9	-	-	-	-	-	-	-	42.4	36.8
1994 2차	36.4	-	-	-	-	-	-	-	37.3	34.9
1995	34.9	32.3	39.6	26.8	44.9	41.3	51.6	32.0	36.6	32.7
1996	34.9	35.3	35.2	31.4	43.8	43.7	45.2	38.0	35.3	34.5
1997	28.7	27.8	30.8	23.4	37.6	35.9	41.5	28.4	29.4	27.7
1998	37.7	35.7	42.2	28.2	52.3	49.6	58.8	36.4	39.1	36.1

실험평가에서 나타난 전체 평균점수 35.1점에 가까운 점수였다.

1997학년도 수능에서 수리 영역의 전체 집단의 평균 정답률은 28.7%로 목표 점수에 크게 미달되었고 1994~1996학년도까지의 평균 정답률에도 크게 못미치는 점수였다. 또한 상위 50% 집단의 평균 정답률도 40%가 채 되지 못하였다. 이는 1997학년도 수리 영역에 전반적으로 어려운 문항이 많았을 것으로 추측되기도 하지만 처음으로 단답형 문항이 출제되어 난도가 높아진 것으로 추측되기도 한다.

1998학년도에는 1997학년도에 비해 평균 정답률을 높이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여 평균 정답률은 37.7%로, 1994학년도 1차 수능의 결과 다음으로 높은 정답률을 기록하였지만 여전히 다른 영역의 평균 정답률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

형성기에 나타난 수리 영역의 문항에는 통합 교과적인 소재를 활용한 문제가 많이 출제되었는데 [예시 문항 3]은 1994학년도 1차 수능에 출제된 문항으로 로그의 계산을 이용하여 생활 속의 문제 상황을 이해하고 해결하는 문항의 예시이다.

[예시 문항 3]

〈1994학년도 수능 수리·탐구 영역(1) 20번〉

20. 1993년 우리 나라의 교육 예산은 GNP의 3.7% 수준이라고 한다. 1993년부터 1998년까지 우리 나라의 GNP 성장률이 매년 7%라고 가정할 때, 1998년에 교육 예산이 GNP의 5%가 되도록 하려면 앞으로 5년 동안 교육 예산을 매년 몇 %씩 증가시켜야 하는가?

상용로그표

수	비례부분									
	0	1	2	3	4	5	6	7	8	9
1.0	.0000	.0043	.0086	.0128	.0170	.0212	.0253	.0294	.0334	.0374
1.1	.0414	.0453	.0492	.0531	.0569	.0607	.0645	.0682	.0719	.0755
1.2	.0792	.0828	.0864	.0899	.0934	.0969	.1004	.1038	.1072	.1106
1.3	.1139	.1173	.1206	.1239	.1271	.1303	.1335	.1365	.1399	.1430
1.4	.1461	.1492	.1523	.1553	.1584	.1614	.1644	.1674	.1703	.1732

- ① 약 10.7%
- ② 약 11.7%
- ③ 약 12.7%
- ④ 약 13.7%
- ⑤ 약 14.7%

(log 3.7=0.5682, log 5=0.6990, log 7=0.8451)

라. 성장기의 수리 영역의 변화 (1999~2004학년도)

이 시기는 제6차 교육과정으로 교육받은 학생들이 수능을 치루었던 시기로 수리 영역은 수험생의 응시 계열이 인문계열, 예·체능계열, 자연계열의 3계열로 나누어 시험을 치렀다.

2001학년도 수능부터는 제2외국어 영역이 추가되었고, '수리·탐구 영역(I)'이라고 사용하던 영역의 명칭을 2002학년도부터는 '수리 영역'으로 사용하게 되었다. 또 '수리·탐구 영역(II)'도 각각 사회탐구와 과학탐구로 영역 명칭이 분리되면서 선택과목제가 도입됨에 따라 표준점수를 사용하게 된 것이 큰 변화라고 할 수 있다.

형성기에 여러 번의 수능을 시행하면서 문항 수, 시험 시간, 문항의 유형(5지선다형과 단답형의 비율) 등 많은 부분이 수정되고 변화하면서 수능이 정착이 되고 안정이 되어, 수능의 성격과 목적은, 제6차 교육과정에 근거하여 시험의 범위가 결정되는 2004학년도까지 변화없이 유지되었다.

출제의 기본 방향도 큰 변화는 없지만 이 시기에 제시된 출제의 기본 방향은 다음과 같다.

- 학교 교육의 경험을 통해 학습된 능력을 측정하도록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내용과 수준에 맞추어 출제
- 가능한 한 여러 교과가 관련된 소재를 활용하거나, 한 교과내의 여러 단원이 관련된 소재를 활용하여 통합교과적인 문항을 출제
- 간단히 상기해서 대답할 수 있는 기억력에 의존하는 평가를 지양하고, 주어진 문제 상황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추리하며 분석하고 탐구하는 사고 능력을 측정하도록 출제
- 고등학교에서 정상적인 수학 학습을 통해 형성된 계산 능력, 기본 개념의 이해 능력, 추론 능력 및

문제해결 능력 등을 고루 측정하도록 출제

- 문항당 배점은 2점, 3점, 4점으로 차등 배점

(1) 시험모형

형성기였던 1997학년도에 수리 영역은 단답형 문항 6개(20%)를 포함하여 총 30개의 문항을 100분 동안 풀도록 하는 시험 모형이었다. 1999학년도부터 시작되는 성장기에는 이와 같은 수리 영역의 시험 모형이 외형적인 변화가 없이 그대로 시행되었다. 다만 이 시기는 계열의 분리, 영역의 명칭 변경, 제2외국어 영역 신설, 성적 제시 방법 변경 등 큰 틀의 변화가 있었다.

1994학년도부터 사용되어 오던 '수리·탐구 영역(I)'이라는 영역의 명칭을 2002학년도부터는 '수리 영역'으로 사용하게 되었다. 또 '수리·탐구 영역(II)'도 각각 사회탐구 영역과 과학탐구 영역으로 분리하여 4개 영역에서 총 5개의 영역으로 변경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시험 영역 변경에 관계없이 시험 시간, 출제 문항, 출제 범위 등은 변함없이 동일하게 유지되었다.

또한 이 시기는 제6차 교육과정에 근거하여 시험이 시행되었으므로 각 영역별 시험의 출제 범위가 달라질 수밖에 없었는데, 제6차 교육과정에서 수학은 공통수학, 수학 I, 수학 II로 나누어졌으며 인문계열, 예·체능계열, 자연계열이 각각 이수하는 과목이 달라 계열별로 출제 범위가 달라졌다. 따라서 1999학년도부터는 이전에 2개의 계열로 나누어 출제했던 것을 인문계열, 예·체능계열, 자연계열의 3계열로 나누어 출제하게 되었다.

이 시기의 시험모형의 변화를 정리하면 <표 3-2-10>과 같다.

성장기에는 1999학년도에 3개의 계열로 분리하여 교육과정에 따른 출제 범위를 구별하고 2002학년도

에 영역의 명칭이 변경된 것 이외에 2004학년도 까지 큰 변화가 없이 <표 3-2-11>과 같은 시험 모형으로 수능이 실시되었다.

2000학년도에는 표준점수를 활용하는 대학의 편의를 위해 변환표준점수의 백분위점수가 추가적으로 제공되었다. 따라서 2000학년도 수능의 성적표에는 영역별 원점수 및 총점, 표준점수 및 변환표준점수, 원점수에 의한 백분위점수가 1999학년도와 마찬가지로 표기되고, 여기에 변환표준점수에 의한 백분위점수도 추가로 제공되었다.

2002학년도에는 총점에 의한 학생 선발 관행을 지양하고 학생의 소질과 적성을 중시하는 전형 방식을 다양화하기 위하여 총점 및 소수점 표기를 폐지하고 9등급제를 도입하였다. 따라서 원점수에 의한 백분위점수, 표준점수, 변환표준점수(400점

기준), 변환표준점수에 의한 백분위점수의 소수점 표기를 폐지하고 이를 모두 정수로 표기하였다. 다만 수험생 성적표의 원점수는 소수 첫째 자리까지 표기하였는데, 그 이유는 원점수의 경우 소수점 이하 점수를 반올림하여 기재하면 원점수가 동일하더라도 백분위점수, 변환표준점수, 등급에서 차이가 발생하여 수험생에게 혼란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2) 평가틀

(가) 내용영역

제6차 교육과정에서 수학과 교육과정 편제를

<표 3-2-10> 1999~2004학년도 수리 영역의 시험모형 특징

구분	변화 내용	이전 내용
교육과정	제6차 교육과정	제5차 교육과정
시험 계열	인문계열 예·체능계열, 자연계열	인문계열, 예·체능계열 자연계열
영역의 명칭	2002학년도부터 수리 영역으로 변경	수리·탐구 영역(1)
시험 시간	100분	100분
문항 수	30문항	30문항

<표 3-2-11> 1999~2004학년도 수리 영역의 시험모형

계열	배점	시험 시간	출제 범위(비율)	문항 수	문항 유형
인문	80점	100분	공통수학(70%)	21	5지선다형 24문항(80%)
예·체능			수학 I (30%)	9	
자연			공통수학(100%)	30	
			공통수학(50%)	15	단답형 6문항(20%)
			수학 I (20%)	6	
			수학 II (30%)	9	

살펴보면 <표 3-2-12>와 같다.

제6차 교육과정에서 수학은 공통수학, 수학 I, 수학 II로 나뉘어 졌으며, 인문계열은 공통수학과 수학 I 을 필수로 이수하게 하였고, 예·체능계열은

공통수학만을, 자연계열은 공통수학, 수학 I, 수학 II 모두를 필수 과목으로 이수하도록 하였다. 제5차 교육과정에서는 수학I과 수학II에 공통 부분이 있어 인문계열의 학생들은 수학 I 을 이수하고, 자연계열의

<표 3-2-12> 1999~2004학년도 수학과 교육과정 편제와 단위 수

과목	계열 구분	단위 수
공통수학	공통 필수	8단위
수학 I	인문 및 자연	10단위
수학 II	자연	10단위
실용수학	실업	8단위

<표 3-2-13> 1999~2004학년도 수리 영역의 내용영역

과목	공통수학	수학 I	수학 II
내용영역	집합과 명제	행렬	방정식과 부등식
	수체계	수열	일차변환과 행렬
	다항식	수열의 극한	삼각함수와 복소수
	유리식과 무리식	함수의 극한과 연속성	미분법
	방정식과 부등식	다항함수의 미분법	적분법
	지수와 로그	다항함수의 적분법	이차곡선
	함수	순열과 조합	공간도형과 공간좌표
	유리함수와 무리함수	확률	벡터
	지수함수와 로그함수	통계	-
	삼각함수	-	-

<표 3-2-14> 1999~2004학년도 수리 영역의 출제 범위 및 문항 수

계열	배점	출제 범위(비율)	문항 수
인문	80점	공통수학(70%)	21
		수학 I(30%)	9
예·체능		공통수학(100%)	30
자연		공통수학(50%)	15
		수학 I(20%)	6
	수학 II(30%)	9	

학생들은 수학II를 이수하였는데, 이 때 수학II에는 수학I과 공통된 부분이 포함되어 있었다. 그러나 제6차 교육과정에서는 공통 부분이 없어 자연계열의 학생들은 수학 I 과 수학II를 모두 이수하게 되었다.

이 시기의 수학 과목은 각 계열별로 이수하는 과목이 다르기 때문에 각 계열별로 이수한 과목의 내용이 수리 영역의 내용영역이 되었다. 각 계열별 내용영역을 정리하면 <표 3-2-13>과 같다.

수능의 계열이 인문, 예·체능, 자연계열의 3계열로 분리되고 계열별 시험 문항의 구성은 인문계열의 경우 공통수학에서 21문항(70%), 수학I에서 9문항(30%), 자연계열의 경우 공통수학에서 15문항(50%), 수학I에서 6문항(20%), 수학II에서 9문항(30%) 정도로 구성되었으며, 예·체능계열의 경우에는 공통수학에서 30문항(100%)이 출제되었다(<표 3-2-14>참조).

(나) 행동영역

수리 영역의 행동영역은 계산 능력, 이해 능력, 추론 능력, 문제해결 능력의 4가지로 구분되고 이는 이전 시기와 동일하다.

행동영역에 따라 출제된 문항을 대략적으로 분류해보면, 인문계열과 자연계열의 경우에는 이해 능력을 측정하는 문항이 가장 많았으며(40%), 다음

으로 문제해결 능력을 측정하는 문항(23%), 추론 능력을 측정하는 문항(20%), 계산 능력을 측정하는 문항(17%)으로 구성되었다. 예·체능계열의 경우에는 문제 해결력을 묻는 문항 수가 인문계열과 자연계열보다 적은 반면 계산 능력을 측정하는 문항 수가 약간 많은 비율로 출제되었다. 이는 역시 제6차 교육과정의 평가 부문에서 강조하는 사항을 고려한 것이라 추측된다.

(3) 특이사항

1994학년도에 처음 시작된 수능은 성장기(1999~2004학년도)에 10년의 연륜을 쌓아왔다. 그 동안 시행상의 절차나 시험의 형식 면에서 꾸준히 개선되면서 수리 영역에서 추구하고자 하였던 사고력을 측정하고, 문제해결 능력을 측정하는 좋은 문항들이 많이 개발되어 왔다. 그러나 수리 영역은 과목의 특성상 난이도의 조절이 매우 힘든 영역이다.

<표 3-2-15>는 이 시기의 수리 영역의 정답률을 정리한 것이다. 1994학년도부터 1998학년도까지의 형성과 정착기의 전체 집단의 정답률이 대부분이 40% 미만이었던 것에 비하면 성장기의 전체 집단의 정답률이 많이 높아진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표 3-2-15> 1999~2004학년도 수리 영역의 정답률

학년도	전체 집단				상위 50% 집단				성별	
	전체	인문	자연	예·체능	전체	인문	자연	예·체능	남	여
1999	40.4	37.5	45.9	33.4	55.9	52.1	63.6	44.6	41.8	38.7
2000	47.1	44.2	54.6	38.9	64.8	60.3	76.4	52.3	48.1	46.0
2001	54.2	52.2	63.6	43.5	74.0	72.8	83.2	60.9	54.9	53.5
2002~2004	-	-	-	-	-	-	-	-	-	-

* 2002학년도부터 총점 제도가 폐지되어 이에 대한 정보가 없음.

2000학년도부터 수험생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상위 50% 집단의 목표 평균점수가 75점 정도가 되도록 평이하게 출제하는 등 많이 노력한 결과, 2000학년도에는 전체 정답률이 47.1% 였으나 2001학년도에는 처음으로 전체 집단의 정답률이 50%가 넘었고, 상위 50% 집단의 평균점수가 출제 기본 방향에서 목표하였던 영역별 평균점수 75점에 가까운 결과를 기록하였다. 그러나 전체 평균은 목표 점수를 달성하였지만, 이로 인하여 2001학년도에는 고득점자(400점 만점에 380점 이상)가 전년도보다 5배 정도 많이 나와 상위권 학생들의

변별에 어려움이 있었다. 수리 영역의 특성상 전체 집단의 평균점수가 60점 정도가 되도록 출제하는 경우 2001학년도의 경우와 같이 만점자 또는 고득점자가 많아져 상위 수준의 수학 능력을 변별하기 어려워 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제6차 수학과 교육과정에서는 “수량관계나 도형에 관한 수학적 개념의 이해, 논리적인 사고력, 합리적인 문제해결 능력과 태도는 과학을 비롯한 대부분의 교과들의 성공적인 학습을 위해 필요하다”.⁵⁾고 명시하였다. 이 시기에는 이를 반영한 문항들이 많이 출제되었는데 [예시 문항 4]가 그 예로 2002

[예시 문항 4]

<2002학년도 수능 수리 영역 인문계, 예·체능계 공통 13번>

13. 그림과 같이 넓이가 다른 세 종류의 직사각형 종이 네 장을 이용하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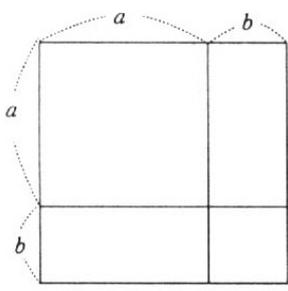
$$(a + b)^2 = a^2 + 2ab + b^2$$

임을 보일 수 있다.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부피가 다른 몇 종류의 직육면체 나무토막을 이용하여

$$(a + b)^3 = a^3 + 3a^2b + 3ab^2 + b^3$$

임을 보이려고 한다. 최소로 필요한 나무토막의 종류의 수와 전체의 개수를 순서대로 적은 것은? [2점]

① 3, 4 ② 3, 6 ③ 3, 8
 ④ 4, 6 ⑤ 4, 8



5) 교육부(1992), 제6차 고등학교 교육과정

학년도 수리 영역에서 인문계열과 예·체능계열의 공통 문항이다. 이 문항은 독립교과적이고 수학 내적인 문항으로 유추를 통해 이항식의 세계곱 전개 공식을 육면체의 부피와 관련지어 사고할 수 있는 능력을 측정하는 문항이다. 수능은 지필 평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실험이나 토론, 도구를 활용하는 다양한 형태의 수업이 이루어지기 힘든데, 이 문항은 도형을 이용하여 대수적인 관계를 유도하였고 교구를 활용하고 단순한 공식의 암기과 아니라 다양한 수학적 사고 과정을 중시한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마. 안정기의 수리 영역의 변화 (2005~2013학년도)

1994학년도부터 시작된 수능은 10여년이 지나 시험모형과 틀이 자리를 잡게 되었다. 그런데 2005학년도부터 선택형 교육과정인 제7차 교육 과정에 근거하여 교육을 받은 학생들이 처음 수능을 치르게 되었고, 이에 따라 수능의 시험 모형과 응시 영역(과목)에 변화가 있었다. 제7차 교육과정의 큰 변화는 고등학교 1학년 과정까지를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으로 정하고 나머지는 모두 선택과목으로 정하였고, 2005학년도부터 수능에서는 수험생들이 시험 영역과 과목을 전부 또는 일부를 선택하여 시험을 치르게 되었다.

2005학년도에 발표된 수능의 성격과 목적은 다음과 같다.

대학 교육과 필요한 수학 능력을 측정하고, 학생의 능력, 진로, 필요, 흥미를 중시하는 제7차 교육과정의 기본 정신에 따라 시험 영역과 과목을 전부 또는 일부를 선택할 수 있게 하며, 언어 영역, 외국어(영어) 영역은 범교과적 소재

를 바탕으로, 수리 영역, 사회/과학/직업탐구 영역, 제2외국어/한문 영역은 개별 교과와 특성을 바탕으로 한 사고력 중심의 평가를 지향함으로써 대학 수학 적격자의 선발 기능을 제고하고 고교교육 정상화에 기여하며 학생 선발에 공정성과 객관성이 높은 자료를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음.

수능의 목적이 고등학교 교육의 정상화에 기여 하면서 대학 수학 적격자를 선발하는데 공정성과 객관성 높은 자료를 제공한다는 목적에는 변함이 없었지만, 시험의 성격은 처음 수능이 시행되던 시기에 '통합교과적 소재'를 강조하였던 것에 비하여 제7차 교육과정에 근거하여 시행된 2005학년도 부터는 언어 영역과 외국어(영어) 영역의 경우는 범교과적인 소재를 바탕으로 출제하고, 수리 영역의 경우는 '수학 교과와 특성을 바탕으로 한 사고력을 평가'하는 시험으로 수정이 되었다. 또한 인문, 자연, 예·체능계의 구별이 없어지면서 수리 영역은 '가'형과 '나'형으로 구분되었다. 이에 따라 각 영역의 출제 원칙도 새로이 정비하여 발표되었는데 수리 영역에 관련된 출제 원칙은 다음과 같다.

- 개별 교과와 특성을 바탕으로 한 사고력 중심의 문항을 출제함.
- 교과내용의 중요도를 고려하되, 점수 분포가 고르게 나올 수 있도록 쉬운 문항, 중간 정도의 문항, 어려운 문항을 균형있게 출제함.
- 문항당 배점은 2, 3, 4점으로 하되, 문항의 중요도와 난이도, 소요 시간, 변별력 등을 고려하여 차등 배점함.
- 교육과정에서 다루는 핵심적인 학습 내용은 필요한 경우 반복 출제 가능함.
-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이수한 학생들에게 적합하고 대학입학시험으로서의 변별력이 있는 문항을 출제함.

- 단순 암기에 의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나 지나치게 복잡한 계산 위주의 문항 출제를 지양하고 학생들의 계산 능력, 수학적 이해 능력, 추론 능력, 문제해결 능력을 적절하게 평가할 수 있는 문항을 출제함.
- 문항의 내용과 소재가 특정 영역에 편중되지 않도록 골고루 출제함.
 - 평가목표 이원분류표를 먼저 작성하고, 이 표를 바탕으로 내용 및 행동 수준별 비율을 준수하여 출제함.
-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초등학교 1학년에서 고등학교 1학년까지)에 속하는 내용은 간접적으로 관련지어 출제함.
- 수리 '가'형의 선택과목 문항은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의 내용뿐만 아니라 수학I 또는 수학II의 내용과도 통합하여 출제 가능함.

2005학년도에 발표된 수능 기본계획에서는 우선 제7차 교육과정의 기본 정신이 잘 반영될 수 있는 시험이 되도록 이전에 비하여 상당히 구체적으로 출제의 원칙을 명시화하였다. 특히 수능의 시행이 10여년의 역사를 가지게 되면서 기출 문항 검색 시스템도 정착이 되어 갔다. 그런데 기출 문항을 너무 피해서 문항을 출제하다보면 교육과정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부분이 아닌 부분에서 문항이 출제되어 고등학교 교육을 정상화하는데 악영향을 줄 수도 있기 때문에 교육과정에서 다루는 핵심적인 내용은 수능에서 반복하여 출제할 수 있음을 강조하게 되었다.

한편, 2012학년도부터는 공교육 내실화 및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다는 취지에 EBS 수능 교재 및 강의와 연계를 강화하여 문항수 기준으로 70% 수준에 이르도록 하였고, 난이도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영역별 만점자가 1% 수준이 되도록 하였다.

(1) 시험모형

제7차 수학과 교육과정에서는 초등학교 1학년 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 10년 동안 국민공통 기본교육과정을 편성, 운영하고 고등학교 2, 3학년의 2년 동안에는 선택 중심의 교육과정을 편성, 운영하도록 하였다. 제7차 수학과 교육과정은 수학적 힘의 신장을 강조하는 수학 교육의 세계적 동향과 자율과 창의성에 바탕을 둔 학생 중심 교육 과정이라는 총론의 기본 정신을 반영하여 구성되었다. 고등학교 수학과 교육과정의 내용 이수 단위는 <표 3-2-16>과 같다.

선택 중심 교육과정의 6개 과목 중 확률과 통계, 이산수학, 실용수학은 10단계 수학(수학 10-가, 10-나)에 도달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선택할 수 있고, '수학I'은 10단계 수학을 이수한 다음 더 높은 수준의 수학을 학습하기 위하여 선택할 수 있는 첫 단계 과목이다. '수학II'는 '수학I'을 이수한 다음에 선택할 수 있는 과목으로서 자연 과학 및 공학 분야의 학습에 기초가 된다. '미분과 적분' 역시 자연 과학 및 공학 분야의 학습에 기초가 되는 과목으로 '수학II'를 이수한 다음에 선택할 수 있는 과목이다.

위와 같은 교육과정에 따라 2005학년도부터 2011학년도까지의 수리 영역의 시험은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다.

- 문제지의 유형은 '가'형과 '나'형으로 구분하고 '가'형은 수학I, 수학II를 필수로 하고 선택 과목인 미분과 적분, 확률과 통계, 이산수학 중 한 과목을 택하도록 하였다. '나'형은 수학I에서만 출제한다.
- '가'형과 '나'형의 문항 수는 각각 30문항이고 시험 시간은 100분으로 이전의 수능과 변함이 없다. 다만 단답형 문항의 비율이 20%에서 30%로 늘어 9문항이 출제된다.

〈표 3-2-16〉 제7차 수학과 교육과정의 과목 및 이수 단위 수

과목	단위 수	비고
수학 10-가	4단위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
수학 10-나	4단위	
실용 수학	4단위	선택중심교육과정
수학 I	8단위	
수학 II	8단위	
미분과 적분	4단위	
확률과 통계	4단위	
이산수학	4단위	

〈표 3-2-17〉 2005~2011학년도 수리 영역의 시험모형

시험 유형	배점	출제 과목	문항 수	시험 시간	문항 유형 및 문항 수	특징
'가'형	100	수학 I 수학 II 선택과목 택 1 (미분과 적분, 확률과 통계, 이산수학)	30문항	100분	5지선다형 21문항(70%) 단답형 9문항 (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영역별 선택 응시 고1 수학내용은 출제 범위 제외(단, 간접 출제) 단답형은 세 자리 이하의 자연수
'나'형		수학 I				

- '가'형의 문항 수는 수학 I에서 12문항, 수학 II에서 13문항, 선택과목에서 5문항을 출제하고, '나'형은 수학I에서만 30문항을 출제하되 이 중 12문항은 '가'형과 공통 문항으로 한다.
- 문항별 배점은 2점 문항 3개, 3점 문항 14개, 4점 문항 13개가 출제되어 전체 배점은 100점으로 한다.

이와 같이 수리 영역의 시험모형을 정리하면 〈표 3-2-17〉과 같다.

제7차 교육과정은 학교 교육을 수요자인 학생 중심으로 바라보도록 관점을 전환시켰고,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 적성, 흥미, 필요에 맞게 과목을 선택하여 이수할 수 있도록 학생 선택의 자율권을 확대한

점에서는 긍정적인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되지만 수년째 운영되면서 몇 가지 문제점이 지적되었다. 수학 교육의 세계적 흐름을 반영하여 수학적 힘의 신장을 강조하였으나 미흡한 점이 있었고, 현대 사회의 빠른 변화에 적응하고 미래 사회에 적합한 수학 교육이 요구되었다. 이와 같은 요구를 반영한 것이 2007 개정 교육과정이다. 2007 개정 교육과정은 제7차 교육과정의 기본 정신 및 체제를 유지하되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의 단계형 교육과정 체제를 개선하여 학기 기준이 아닌 학년 기준으로 교육과정을 편성하였고, 고등학교 수학과 선택 과목의 내용과 체제를 조정하였다. 2007 개정 교육과정의 수학 과목과 기준 단위 수는 〈표 3-2-18〉과 같다.

〈표 3-2-18〉 2007 개정 수학과 교육과정의 과목 및 이수 단위 수

과목	단위 수
고등학교 수학	6단위
수학의 활용	6단위
수학 I	6단위
미적분과 통계 기본	6단위
수학 II	6단위
적분과 통계	6단위
기하와 벡터	6단위

〈표 3-2-19〉 2012~2013학년도 수리 영역의 시험모형

시험 유형	배점	출제 과목	문항 수	시험 시간	문항 유형 및 문항 수	특징
'가'형	100점	수학 I 수학 II 적분과 통계 기하와 벡터	30문항	100분	5지선다형 21문항(70%)	• 선택과목 폐지 • 고1 수학 내용은 출제 범위 제외(단, 간접 출제)
'나'형		수학 I 미적분과 통계 기본			9문항 (30%)	• '가'형 수학 I의 문항은 '나'형에서 공통문항으로 출제

‘고등학교 수학’은 고등학교 1학년 과정이고 선택 과목은 ‘수학의 활용’, ‘수학 I’, ‘미적분과 통계 기본’, ‘수학 II’, ‘적분과 통계’, ‘기하와 벡터’의 6개 과목으로 개편되었다. ‘수학 I’과 ‘미적분과 통계 기본’은 고등학교 1학년까지의 수학을 이수한 다음 선택할 수 있는 과목으로 대학에 진학하여 인문과학, 사회과학 등의 분야를 전공하고자 하는 학생들이 선택하는 과목이다. 또 ‘수학 II’, ‘적분과 통계’, ‘기하와 벡터’는 자연계열 또는 공학계열로 진학하고자 하는 학생들이 선택하는 과목이다. 제7차 교육과정에서는 선택과목의 기준 단위 수가 4단위 또는 8단위로 다르게 편성되었으나, 2007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모두 6단위로 통일하였다.

2007 개정 교육과정이 적용된 2012학년도 수능에서 수리 영역은 〈표 3-2-19〉와 같이 ‘가’형과 ‘나’형의 두 가지 유형 중 한 유형을 선택하도록 하였다.

(2) 평가틀

(가) 내용영역과 출제 범위

평가목표의 내용영역은 시험 출제 범위에 속하는 교과목의 내용으로 한다. 수리 영역은 시험출제 범위에 따라 '가'형과 '나'형으로 구분되는데 2005학년도부터 2011학년도까지 실시된 수능에서 수리 영역의 '가'형과 '나'형의 내용영역을 각 과목의 교과서 대단원명을 기준으로 하면 <표 3-2-20>, <표 3-2-21>과 같다.

한편 2012학년도부터는 2007 개정 교육과정이

적용되었던 시기이기 때문에 '가'형과 '나'형의 출제 범위에 따른 내용영역의 변화가 있었는데, 행동영역과 같이 나타낸 이원분류표의 예시를 보면 <표 3-2-22>, <표 3-2-23>과 같다.

제7차 교육과정과 수능의 출제 방향의 내용을 정리하면 <표 3-2-24>와 같다. 2012학년도부터 교육과정이 2007개정 교육과정으로 바뀌었지만 출제 범위에 따른 과목의 변화가 있었을 뿐, 출제 방향에는 큰 변화가 없었다.

2005학년도부터 실시된 수능에서 수리 영역의 출제 범위는 <표 3-2-25>와 같다.

<표 3-2-20> 2005~2011학년도 수리 영역 '가'형 내용영역

과목	수학 I	수학 II	미분과 적분	확률과 통계	이산수학
내용영역	행렬	방정식과 부등식	삼각함수	자료의 정리와 요약	선택과 배열
	지수와 로그	함수의 극한과 연속성	함수의 극한	확률	그래프
	지수함수와 로그함수	다항함수의 미분법	미분법	확률변수와 확률분포	알고리즘
	수열	다항함수의 적분법	적분법	통계적 추정	의사결정과 최적화
	수열의 극한	이차곡선	-	-	-
	순열과 조합	공간도형과 공간좌표	-	-	-
	확률	벡터	-	-	-
	통계	-	-	-	-

<표 3-2-21> 2005~2011학년도 수리 영역 '나'형 내용영역

과목	수학 I
내용영역	행렬
	지수와 로그
	지수함수와 로그함수
	수열
	수열의 극한
	순열과 조합
	확률
	통계

〈표 3-2-22〉 2012~2013학년도 수리 영역 '가'형 이원분류표

과목	내용영역	행동영역	계산	이해	추론		문제해결	
					발견적	연역적	수학 내적	수학 외적
수학 I	행렬과 그래프							
	지수함수와 로그함수							
	수열							
	수열의 극한							
수학 II	방정식							
	부등식							
	삼각함수							
	함수의 극한과 연속							
적분과 통계	미분법							
	적분법							
	순열과 조합							
	확률 통계							
기하와 벡터	일차변환과 행렬							
	이차곡선							
	공간도형과 공간좌표							
	벡터							

〈표 3-2-23〉 2012~2013학년도 수리 영역 '나'형 이원분류표

과목	내용영역	행동영역	계산	이해	추론		문제해결	
					발견적	연역적	수학 내적	수학 외적
수학 I	행렬과 그래프							
	지수함수와 로그함수							
	수열							
	수열의 극한							
미적분과 통계 기본	함수의 극한과 연속							
	다항함수의 미분법							
	다항함수의 적분법							
	확률							
	통계							

〈표 3-2-24〉 제7차 교육과정과 수능 출제 방향

교육과정의 기본 원칙	특징	출제 방향
수준별 교육과정/선택중심 교육과정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과 선택중심 교육과정으로 분리	심화선택과목(수학 I, 수학 II, 미분과 적분, 확률과 통계, 이산수학)의 내용을 중심으로 출제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	모든 국민에게 동일 기간에 동일 내용을 가르치기 위한 10년 교육과정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 내용은 간접 출제
학습 내용의 적정화	학습 부담을 줄여 줌으로서 수학 학습에 흥미와 자신감 배양	‘가’형과 ‘나’형 중 택 1

〈표 3-2-25〉 2005~2011학년도 수리 영역의 출제 범위

시험 유형	출제범위 및 문항 수	특징
‘가’형	수학 I	12문항
	수학 II	13문항
	선택과목(미분과 적분, 확률과 통계, 이산수학)	5문항
‘나’형	수학 I	30문항

‘가’형 수학 I의 문항은 ‘나’형에서 공통 문항으로 출제

- ‘가’형: 수학 I, 수학 II, 적분과 통계, 기하와 벡터에서 각각 7~8문항씩 총 30문제를 출제함.
- ‘나’형: 수학 I, 미적분과 통계 기본에서 각각 15문항씩 총 30문항을 출제함.

(나) 행동영역

- ‘가’형의 문항 수는 수학 I에서 12문항, 수학 II에서 13문항, 선택과목에서 5문항을 출제한다.
 - ‘나’형은 수학 I에서만 30문항을 출제하되 이 중 12문항은 ‘가’형과 공통 문항으로 한다.
- 2007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2012학년도 수능에서 수리 영역은 ‘가’형과 ‘나’형의 두 가지 유형 중 한 유형을 선택하도록 하였고, 각 유형의 출제 범위는 다음과 같다(〈표 3-2-26〉 참조).

제7차 교육과정에 근거하여 수능이 실시되기 시작한 2005학년도에는 수험생과 학부모 등 수능에 관심 있는 국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수능의 「출제 매뉴얼」을 출간하였다. 「출제 매뉴얼」에서는 수리 영역 시험의 시험목표, 내용, 출제 지침, 문항 개발 과정 등이 예시 문항과 더불어 자세히 제시되어 있다. 수리 영역의 평가목표의 내용영역은 각 유형(‘가’형과 ‘나’형)의 출제 범위에 있는 내용이고, 출제 매뉴얼에서 설명하고 있는 수리

〈표 3-2-26〉 2012~2013학년도 수리 영역 출제 범위

시험 유형	출제 범위 및 문항 수		특징
‘가’형	수학 I	7~8문항	‘가’형 수학 I의 문항은 ‘나’형에서 공통 문항으로 출제
	수학 II	7~8문항	
	적분과 통계	7~8문항	
	기하와 벡터	7~8문항	
‘나’형	수학 I	15문항	
	미적분과 통계 기본	15문항	

영역의 행동영역은 다음과 같다(한국교육과정 평가원, 2005b).

① 계산 능력

- 연산의 기본 법칙이나 성질을 적용하여 주어진 식을 간단히 하는 능력
- 수학의 기본적인 공식이나 계산법을 적용하는 능력
- 수학의 전형적인 풀이 절차를 적용하는 능력

② 이해 능력

- 문제에 주어진 수학적 용어, 기호, 식, 그래프, 표의 의미와 관련 성질을 알고 적용하는 능력
- 주어진 문제와 관련된 수학적 개념을 파악하고 적용하는 능력
- 교과서에 나오는 기본 예제 문제나 정형화된 응용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
- 주어진 문제 상황을 수학적으로 표현(수학적 용어, 기호, 식, 그래프, 표 등) 하는 능력
- 수학적 표현(수학적 용어, 기호, 식, 그래프, 표 등)을 교환하여 표현하는 능력

③ 추론 능력

- 발견적 추론 능력
 - 나열하기, 세어보기, 관찰 등을 통해 문제 해결의 핵심 원리를 발견하는 능력
 - 유추를 통해 문제 해결의 핵심 원리를 발견하는 능력
- 연역적 추론 능력
 - 수학의 개념, 원리, 법칙을 이용하여 참인 성질을 이끌어 내거나 주어진 명제의 참·거짓을 판별하는 능력
 - 주어진 정의를 이해하고 참인 성질을 이끌어 내는 능력
 - 반례를 들어 주어진 명제가 거짓임을 판단하는 능력
 - 증명 능력

- 조건 명제의 증명, 삼단 논법에 의한 논리적 추론, 반례에 의한 증명, 모순법, 동치 명제의 증명, 수학적 귀납법에 의한 증명 등을 이해하는 능력

- 주어진 증명을 읽고 결론을 도출하는 능력

④ 문제해결 능력

- 수학 내적 문제해결 능력
 - 두 가지 이상의 수학적 개념, 원리, 법칙의 관련성을 파악하고 종합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
 - 두 단계 이상의 사고 과정을 거쳐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
- 수학 외적 문제해결 능력
 - 실생활 상황에서 관련된 수학적 개념, 원리, 법칙 등을 파악하고 이를 적용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
 - 타교과의 소재를 사용한 상황에서 관련된 수학적 개념, 원리 법칙 등을 파악하고 이를 적용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

수능이 해를 거듭할수록 그 시험의 성격과 목적도 구체화되고, 이에 따라 수리 영역의 목적인 사고력을 측정하기 위한 행동영역도 체계적으로 연구되어지고 구체화되었다. 각 행동영역에 따른 예시 문항은 다음과 같다.

○ 계산 능력

[예시 문항 5]

<2005학년도 수능 수리 영역 공통 1번>

- $3^{\frac{2}{3}} \times 9^{\frac{3}{2}} \div 27^{\frac{8}{9}}$ 의 값은? (2005학년도 수능 공통 1번)
 ① 1 ② $\sqrt{3}$ ③ 3 ④ $3\sqrt{3}$ ⑤ 9

○ 이해 능력

[예시 문항 6]

<2007학년도 수능 수리 영역 '나'형 22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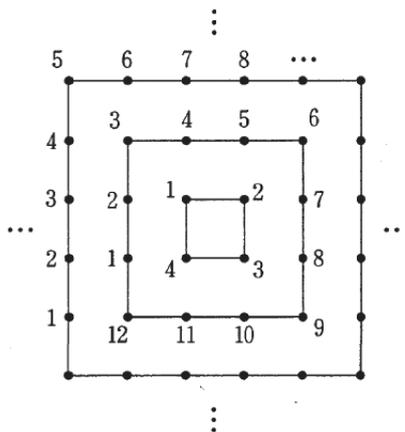
- 정의역이 $\{x | -1 \leq x \leq 3\}$ 인 두 지수함수 $f(x) = 4^x$, $g(x) = \left(\frac{1}{2}\right)^x$ 에 대하여 $f(x)$ 의 최대값을 M , $g(x)$ 의 최소값을 m 이라 할 때, Mm 의 값은?
 (2007학년도 수능 '나'형 4번)
 ① 8 ② 6 ③ 4 ④ 2 ⑤ 1

○ 추론 능력

[예시 문항 7]

<2005학년도 수능 수리 영역 '나'형 22번>

- 한 변의 길이가 각각 1, 3, 5, ..., $2n-1$, ...인 정사각형의 변과 꼭지점에 아래 그림과 같이 일정한 간격으로 자연수가 규칙적으로 배열되어 있다. 이때, 각 정사각형에서 1은 왼쪽 아래 꼭지점 바로 위에 놓여 있다.



각 정사각형의 네 꼭지점에 놓이는 자연수를 성분으로 하는 이차정사각행렬을 차례로 $A_1, A_2, A_3, \dots, A_n, \dots$ 이라 하자.

예를 들면, $A_1 = \begin{pmatrix} 1 & 2 \\ 4 & 3 \end{pmatrix}$, $A_2 = \begin{pmatrix} 3 & 6 \\ 12 & 9 \end{pmatrix}$ 이다.

행렬 A_{15} 의 모든 성분의 합을 구하시오.

○ 문제해결 능력

[예시 문항 8]

〈2006학년도 수능 수리 영역 공통 25번〉

- 어느 물탱크에 서식하고 있는 박테리아를 제거하기 위하여 약품을 투여하려고 한다. 물탱크에 있는 물 1mL 당 초기 박테리아 수를 C_0 , 약품을 투여한 지 t 시간이 지나는 순간 1mL 당 박테리아 수를 C 라 할 때, 다음 관계식이 성립한다고 하자.

$$\log \frac{C}{C_0} = -kt \quad (k \text{는 양의 상수})$$

물 1mL 당 초기 박테리아 수가 8×10^5 이고, 약품을 투여한 지 3시간이 지나는 순간 1mL 당 박테리아 수는 2×10^5 이 된다고 한다. 약품을 투여한 지 a 시간 후에 처음으로 1mL 당 박테리아 수가 8×10^3 이하가 되었다. a 의 값을 구하시오.
(단, $\log 2 = 0.3$ 으로 계산한다.) (2006학년도 수능 공통 25번)

(3) 특이사항

2005학년도부터 수능은 제7차 교육과정과 2007 개정 교육과정의 기본 방향인 선택과 집중의 원리를 충실히 반영하기 위해 수험생이 시험 영역과 과목을 전부 또는 일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각 대학에서 계열에 따라 수험생에게 요구하는 영역 및 과목이 달라졌다. <표 3-2-27>은 2005학년도

부터 2013학년도까지 수리 영역의 응시자 수를 정리한 것이다. <표 3-2-27>에 의하면 2005학년도를 제외하고, 나머지 학년도에서 전체 응시자의 90%이상 이 수리 영역에 응시한것으로 나타났다.

<표 3-2-28>은 수리 영역에 응시한 수험생 중에서 '가'형과 '나'형을 선택한 수험생의 수와 '가'형을 선택한 수험생 중에서 선택과목을 택한 응시 인원 수와 응시 비율을 정리한 것이다. 이에 의하면 수리 영역에

〈표 3-2-27〉 2005~2013학년도 수리 영역의 응시 인원 현황

학년도	수리(명)	전체응시(명)	언어 영역 응시자 대비 비율(%)
2005	504,258	574,218	87.8
2006	498,785	554,345	90.0
2007	500,469	551,884	90.7
2008	506,233	550,588	91.9
2009	519,600	559,475	92.9
2010	599,009	638,216	93.9
2011	626,537	668,991	93.7
2012	605,967	648,946	93.4
2013	579,065	621,336	93.2

〈표 3-2-28〉 2005~2013학년도 수리 영역의 유형 및 선택과목 응시 현황

학년도	응시 인원(명)					응시 비율(%)				
	'가'형	'나'형	선택과목			'가'형	'나'형	선택과목		
			미적	확통	이산			미적	확통	이산
2005	145,823	358,435	139,326	5,393	1,104	28.9	71.1	95.5	3.7	0.8
2006	131,769	367,016	127,138	3,794	837	26.4	73.6	96.5	2.9	0.6
2007	117,273	383,196	113,018	3,379	876	23.4	76.6	96.4	2.9	0.7
2008	122,533	383,700	118,526	3,339	668	24.2	75.8	96.7	2.7	0.5
2009	121,828	397,772	117,830	3,388	610	23.4	76.6	96.7	2.8	0.5
2010	137,073	461,936	131,654	4,384	1,035	22.9	77.1	96.0	3.2	0.8
2011	145,124	481,413	139,378	4,662	1,084	23.2	76.8	96.0	3.2	0.7
2012	154,482	451,485	-	-	-	25.5	74.5	-	-	-
2013	145,693	433,372	-	-	-	25.2	74.8	-	-	-

응시한 수험생 중에서 70% 이상이 '나'형을 선택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 '가'형을 선택한 수험생 중에서 95% 이상의 수험생이 선택과목 중에서 '미분과 적분'을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5학년도부터 시작된 선택형 대학수학능력 시험은 각 영역과 과목을 전부 또는 일부를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원점수 대신 표준점수를 제공하였다. 한편

2005학년도 수능부터는 이 표준점수와 더불어 등급과 백분위점수도 함께 제시하여 대학들이 대학의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활용하도록 하였다.

〈표 3-2-29〉, 〈표 3-2-30〉은 수리 영역 '가'형과 '나'형의 1등급부터 9등급까지의 구분점수를 정리한 것이다. 2008학년도에는 표준점수를 제공하지 않고 등급만 제공하였기 때문에 자료가 없다.

〈표 3-2-29〉 수리 영역 '가'형 등급 구분점수

(단위: 점)

학년도 \ 등급	1	2	3	4	5	6	7	8	9
2005	131	125	118	108	94	82	72	67	67 미만
2006	134	125	116	106	94	83	73	65	65 미만
2007	134	126	116	106	95	84	73	64	64 미만
2008	-	-	-	-	-	-	-	-	-
2009	135	125	116	106	95	84	74	65	65 미만
2010	132	125	116	107	96	83	72	64	64 미만
2011	132	124	116	107	96	83	72	65	65 미만
2012	130	124	117	109	97	83	70	63	63 미만
2013	132	124	117	108	96	84	71	63	63 미만

수리 '가'형과 '나'형의 1등급 구분점수를 비교하면 대체적으로 수리 '나'형의 점수가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수리 '나'형의 경우 출제 범위가 수학I만으로 수리 '가'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쉬워 많은 학생들이 '나'형을 선택하는데 반해 원점수의 평균점수가 '가'형에 비해 매우 낮아 '가'형보다 쉽지만 '나'형의 표준점수가 '가'형의 표준점수보다

대체적으로 높게 나타난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원점수로 만점(100점)을 받은 수험생들의 표준점수는 <표 3-2-31>와 같다.

이 결과도 '나'형의 만점자 표준점수가 '가'형의 만점자 표준점수보다 대체적으로 높게 나타났는데 2007학년도와 2010학년도에 '가'형과 '나'형의 난이도 차이가 크지 않으면서도 '가'형의 만점자

<표 3-2-30> 수리 영역 '나'형 등급 구분점수

(단위: 점)

학년도	등급	1	2	3	4	5	6	7	8	9
2005		140	131	117	101	90	83	79	76	76미만
2006		139	128	118	103	89	82	78	74	74미만
2007		137	128	119	104	90	81	76	72	72미만
2008		-	-	-	-	-	-	-	-	-
2009		138	128	116	104	90	82	77	73	73미만
2010		135	129	119	103	89	82	77	74	74미만
2011		139	129	117	103	89	83	79	75	75미만
2012		135	129	119	105	90	81	76	73	73미만
2013		136	127	118	105	90	81	76	72	72미만

* 2008학년도에는 성적표에 등급만 발표하여 표준점수 자료가 없음

<표 3-2-31> 2005~2013학년도 수리 영역의 만점자 표준점수

(단위: 점)

학년도	'가'형	'나'형
2005	141	150
2006	146	152
2007	145	140
2008	-	-
2009	154	158
2010	142	142
2011	163	147
2012	139	138
2013	139	142

표준점수가 '나'형의 만점자 표준점수보다 같거나 높게 나타났다. 반면에 2011학년도에는 '가'형의 만점자 표준점수가 매우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2011학년도 수리 '가'형의 난도가 매우 높았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2012학년도와 2013학년도에는 난이도의 목표를 만점자 1%를 맞추는 것에 두었다. 2012학년도와 2013학년도에 언어, 수리, 외국어 영역의 만점자 비율은 <표 3-2-32>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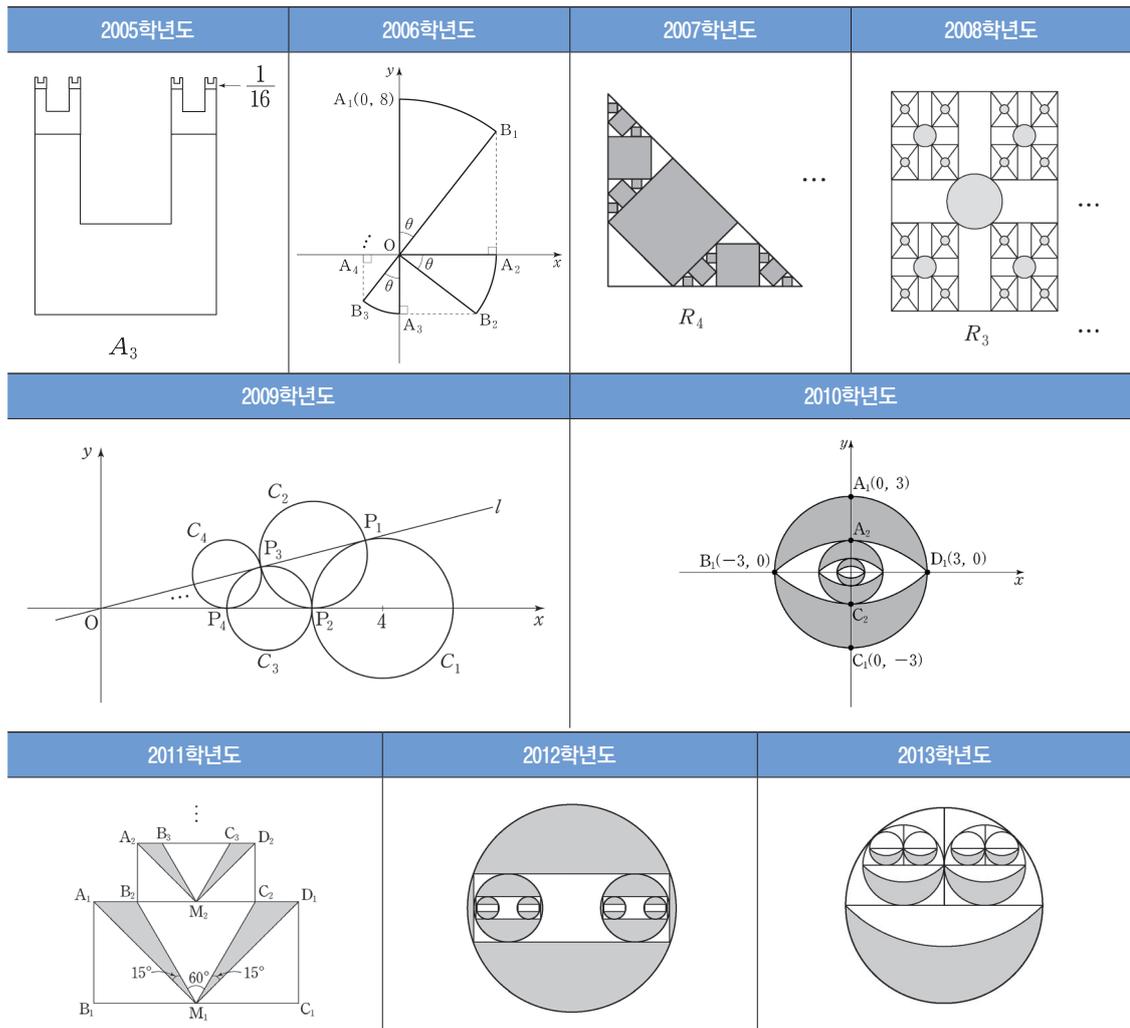
2012학년도에는 수리 '나'형의 만점자 비율이

<표 3-2-32> 2012~2013학년도 영역별 만점자 비율

(단위: %)

	언어	수리 '가'형	수리 '나'형	외국어
2012	0.28	0.31	0.97	2.67
2013	2.36	0.76	0.98	0.66

<표 3-2-33> 2005~2013학년도 수리 영역 무한등비급수 문항에 사용된 그림



0.97%로 거의 1%에 가까운 비율을 보였다. 하지만 수리 '가'형의 경우 만점자 비율이 0.31%로 약간 저조하였는데 이는 고난도 문항이 예상보다 좀 더 어려웠기도 하지만, 수리 '가'형의 과목 특성상 어려운 내용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 고난도 문항을 해결하기 위한 시간이 상대적으로 부족했던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반면에 2013학년도에는 수리 '가'형에서 0.76%, 수리 '나'형에서 0.98%로 두 영역 모두 1% 수준의 만점자 비율을 기록하였다. 또 만점자가 1%가 넘는 경우에는 원점수에서 만점을 받고도 백분위점수에서 100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 수리 영역의 경우에는 1% 수준이면서도 1%를 넘지 않아 백분위점수도 적절하게 나온 것으로 분석된다.

안정기에 들어서면서 수능의 출제 시스템은 더욱 체계화되고 출제위원 인력풀을 활용하여 우수한 출제위원을 확보한 결과 수리 영역에서의 논리적인 사고력을 평가하는 우수한 문항들이 많이 개발되었다. 여기에서는 안정기에 출제되었던 수리 영역 문항의 특징을 소개하고자 한다.

먼저 안정기가 시작한 2005학년도부터 매년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출제되었던 문항은 도형을 활용한 무한등비급수에 관한 문항이다. 처음부터 의도하고 매년 출제한 것은 아니었을 것이라 생각되지만 안정기 동안 매년 2회의 모의평가와 본 수능에 출제되었던 문항이다. <표 3-2-33>는 수능에 출제되었던 무한등비급수에서 사용되었던 그림 및 도형을 모아 놓은 것이다.

사용된 도형의 요소는 직선, 삼각형, 사각형, 원 등으로, 다양한 상황을 고려하여 첫째항과 공비를 구하여 무한등비급수 문제를 해결하는 문항이다. 시중에 출판되는 많은 문제집에서도 무한등비급수를 겨냥한 문제들을 출제하는데 몇 가지의 기본 도형을 이용하여 수많은 문제집에서 예상하는 기출 문제와 겹치지 않은 새로운 창의적인 문항이 출제되었다.

두 번째로 1994학년도부터 시작된 수능에서는 통합교과적인 소재를 활용하는 문항들이 많이 등장했는데, 안정기에서도 마찬가지로 통합 교과적인 소재를 활용한 문항이 매년 출제되었고 주로 [예시

[예시 문항 9]

<2013학년도 수능 수리 영역 가형, 나형 7번>

7. 화재가 발생한 화재실의 온도는 시간에 따라 변한다. 어떤 화재실의 초기 온도를 T_0 ($^{\circ}\text{C}$), 화재가 발생한 지 t 분 후의 온도를 T ($^{\circ}\text{C}$)라고 할 때, 다음 식이 성립한다고 한다.

$$T = T_0 + k \log(8t + 1) \quad (\text{단, } k \text{는 상수이다.})$$

초기 온도가 20°C 인 이 화재실에서 화재가 발생한 지 $\frac{9}{8}$ 분 후의 온도는 365°C 이었고, 화재가 발생한 지 a 분 후의 온도는 710°C 이었다. a 의 값은? [3점]

- ① $\frac{99}{8}$ ② $\frac{109}{8}$ ③ $\frac{119}{8}$ ④ $\frac{129}{8}$ ⑤ $\frac{139}{8}$

문항 9)에서 보듯이 지수 또는 로그를 이용하여 실생활 문제를 해결하는 문항이 주로 출제되었다.

마지막으로 분수방정식, 분수부등식, 무리방정식 등에 관련된 문항으로 교과서형의 문항으로서는 식을 주고 해를 구하는 문항의 형태가 보편적이고, 또는 상황을 주고 식을 세워 해를 구하는 실생활문제의 형태가 주로 출제되었는데, 2009학년도 수능에서는 좌표평면에서 주어진 그래프와 식을 활용하여 분수 방정식, 무리방정식, 또는 분수부등식의 문제를 해결하는 문항이 출제되었는데 이는 단순히 계산으로 해를 구하는 이전의 문항들과 달리 사고력을 요하는 문항이다. 이후 이와 비슷한 유형의 문항들이 많이 개발되고 출제되었다.

바. 수리 영역의 성과와 발전 방향

1994학년도에 대학입학학력고사에서 수능으로 바뀌면서 통합교과적인 소재를 활용한 사고력 중심의 평가였던 수능은 2005학년도부터 교과의 특성을

바탕으로 한 사고력 중심의 평가가 강조되고 있다. 교육과정의 변화와 시대적 요구에 맞추어 처음 시작되었을 당시의 시험모형과는 많은 차이가 있지만 20년 동안 수능은 대학입학고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공정하고 객관성이 높은 전형자료를 제공하여 왔다. 특히 수리 영역은 교육과정의 변화에 따라 문항 제작에 교육과정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왔고, 결과적으로 고등학교 학교 교육의 정상화에 크게 기여하여 왔다.

수능의 20년 역사를 돌이켜 볼 때, 1994학년도부터 1998학년도까지 5년 동안의 형성기에 문항 수, 문항의 유형(단답형 추가), 시험 시간 등의 시험 모형이 거의 완성되었고, 그 이후에는 교육과정의 변화에 맞추어 시험모형이 조정되어 갔다. 수리 영역이 공정하고 객관적인 전형자료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많았다.

먼저 고등학교 학교 교육의 정상화를 위하여 문항 출제 시 교육과정을 충분히 반영하여 왔다. 수능이 시작된 초기에는 통합교과적인 소재를 바탕으로 실생활, 수학사 등과 관련된 문항이 출제되고,

[예시 문항 10]

〈2009학년도 수능 수리 영역 가형 5번〉

5. 오른쪽 그림은 좌표평면에서 중심이 원점 O 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원과 점 $(0, -1)$ 을 지나는 이차함수 $y=f(x)$ 의 그래프를 나타낸 것이다. 방정식

$$\frac{1}{f(x)+1} - \frac{1}{f(x)-1} = \frac{2}{x^2}$$

의 서로 다른 실근 x 의 개수는? [3점]

① 2 ② 3 ③ 4 ④ 5 ⑤ 6

사고력을 측정하기 위한 새로운 유형의 문항들이 출제되었다. 이에 따라 이전의 학력고사 때와는 달리 수업 시간에 접해보지 않은 생소한 문항들이 많아 수험생들이 쉽게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았다. 그러나 수능이 진행되면서 학교에서의 수학 교육도 사고력 위주의 수업으로 변화하고 학생들도 수능의 여러 문항의 유형에 적응하여 왔다.

수능의 점수가 대학입시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면서 수능의 결과에 의하여 대학 합격이 좌우되어 수리 영역의 난이도는 매년 수능이 치러질 때마다 큰 이슈가 되고 있다. 많은 학생들이 어렵게 느끼지 않도록 적정 난이도를 유지하면서 상위권 학생의 실력을 구분할 수 있도록 변별력을 가져야 하는 문제지를 구성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진 것이다. 수리 영역의 경우 통합교과적인 소재를 활용하고, 사고력을 측정하기 위한 문항으로만 문제지가 구성된다면 그 난도는 매우 높을 것이다. 따라서 수능을 치르기 전에 매년 2회의 모의평가를 시행하여 수험생 집단의 특성을 고려하고 있다. 수리 영역의 경우에는 태동기, 형성기, 성장기에는 계열별로 2종 또는 3종의 문제지를 구성하였고, 2005 학년도부터 시작된 안정기에는 '가'형과 '나'형의 2가지 유형의 문제지를 구성하였다. 해마다 2회의 모의평가와 수능을 치르는 동안 계속하여 응시 집단의 변화가 생기는

등, 여러 상황에 따라 적절한 난이도를 유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일인 것이다.

수능이 실시되고 20년의 시간이 지나는 동안 수리 영역에서는 중요한 개념들은 계속 반복하여 출제하고 학생들이 수학에 흥미를 잃지 않도록 쉽게 출제하고자 노력하여 왔다. 따라서 수학에 조금만 더 흥미를 가지고 수학적 원리를 생각하면서 공부를 한다면 수학은 더 이상 어려운 과목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을 것이다. 수학은 단순히 공식을 암기하는 과목이 아니라 생각을 할 수 있도록 교육을 해야 하는 과목이다. 학교 현장에서도 교사들이 학생들의 수학적 흥미가 유발되고 적극적으로 수업에 동참할 수 있도록 격려를 아끼지 않아야 할 것이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수능은 수험생들이 자신의 적성과 진로에 맞도록 응시 영역/과목을 전부 또는 일부 선택할 수 있다. 그러나 학생들은 대학의 전형 방법에 따라 영역/과목을 선택하여 대학 진학 후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 자연계열이나 공학 분야의 전공에서는 수리 '가'형을 응시하는 것을 요구 또는 권장하고, 인문, 사회계열의 전공에서는 수리 '나'형을 응시하도록 하고 있지만, 사실상 교차지원을 허용하고 있는 대학이 많기 때문이다. 따라서 학생이 자신의 적성을 고려하면서도 진로에 적절하게 영역/과목을 선택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제3절

외국어(영어) 영역

이흥수(전남대학교)

가. 개요

(1) 도입 배경과 취지

대학입시제도의 변화를 살펴보면, 1980년 정부는 과외금지조치를 전면적으로 취하였으며, 1981년에는 대학별고사를 폐지하고 대학입학예비고사 점수와 고교내신을 대학입학전형에 반영토록 하였다. 1982년부터 1993년까지는 대학입학학력고사로 명칭이 변경되어 실시되었다. 영어 시험 과목은 영어, 영어Ⅱ가 필수로 채택되었으며 문항 수는 인문계, 자연계 각각 50문항, 배점은 50점으로 출제되었다. 이 시기에는 대학입학학력고사 점수가 대학입학에 큰 영향을 끼쳤으며, 학생들이 학교에서의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고교내신을 대학입학전형 요소로 반영하게 하고 대학별고사를 실시하지 못하게 하였다. 하지만 대학입학학력고사에서 출제되는 과목이 전 교과목이기 때문에 학습 부담뿐만 아니라 사교육비를 증가시켰다. 수능 외국어(영어) 영역은 학습 부담을 줄이고 고등 정신을 함양하기 위하여 1990~1992년까지 실험평가를 거쳐 1994학년도부터 통합교과적으로 출제하게 되었다.

수능은 시대적 변화에 따라 학교, 수험생, 학부모와

사회의 요구, 연구 기관이나 학술 단체들의 합리적 제안을 수용하였다. 외국어(영어) 영역도 이러한 각계각층의 요구를 영어 교육의 정상화라는 전제 아래 수용하게 되었다. 따라서 교육 정책의 변화, 교육과정의 변화, 난이도 조정, 시험 범위의 변화, 수능 체제의 변화에 따라 외국어(영어) 영역 출제 내용은 변모를 겪게 되었다. 출제 방향의 기본 틀을 유지하면서도 제한된 범위 내에서 듣기 평가의 새로운 유형, 말하기 평가 문항 개발, 읽기 평가에서 지문의 길이, 세트 문항의 출제, 새로운 쓰기 문항의 개발 등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다양하게 변화를 거듭해 왔다.

(2) 외국어(영어) 영역의 성격 및 평가목표

외국어(영어) 영역의 성격은 대학 수학에 필요한 영어 사용 능력을 평가하고 동시에 고등학교 영어과 교육과정에 제시되어 있는 영어 교육 목표의 달성 정도를 측정하기 위한 시험으로 정의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세계화와 정보화의 추세에 따라 원어민과의 접촉이 빈번한 현실을 감안하여, 영어로 읽거나 듣고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포함하여 외국어 습득의 원리에 따라 학습이 이루어진 정도를 평가하므로,

중전의 대학입학 학력고사와는 전혀 다른 개념의 영어 의사소통 능력을 평가하는데 목표를 둔 시험이라 할 수 있다.

평가목표는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가르치도록 한 언어의 4기능, 즉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능력을 측정하는 데 있다. 1994학년도 수능에서는 종래의 학력고사에서처럼 영어 용법(usage)에 대한 정확성(accuracy)을 측정하기보다는 영어를 듣고, 말하고, 읽고 쓸 수 있는 유창성(flucy)을 측정하려고 하였다. 영어 사용(use)의 유창성은 이해 기능인 듣기나 읽기가 먼저 길러지면 표현 기능인 말하기나 쓰기는 자연스럽게 습득된다. 따라서 외국어(영어) 영역은 이해 기능인 듣기와 읽기에 대한 다양한 문항을 출제함으로써 교수·학습 방법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반면, 지필 고사의 특성상 표현 기능인 말하기와 쓰기는 측정하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말하기는 듣기 평가에 포함시켜서 간접 평가할 수 있도록 하며, 간접적이긴 하지만 말하기 평가를 음성 언어로 평가하는 계기를 마련코자 하였다. 수능에서 듣기를 통한 간접 말하기 평가는 일상적인 생활 영어 사용 능력을 함양하는 교수·학습 방법을 개발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 쓰기 문항은 읽기에 포함 시켜서 간접 평가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독해 지문을 통해서 쓰기의 특성과 능력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외국어(영어) 시험은 특성상 학교 교과서 내의 지문을 배제하고, 통합교과적인 다양한 장르의 소재를 활용하여 출제하였다. 읽기 평가는 교육과정에 명시되어 있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과학, 공학 등을 다루는 논설문이나 설명문은 물론이고, 서한문, 광고문 등 실용문을 소재로 출제하며, 듣기나 말하기 평가에서는 생활 주변에서 일어날 수 있는 담화나

대화를 소재로 하여 영어 사용의 실용성을 중심으로 출제하였다. 특히 이전 학력고사에서 출제된 발음과 관련된 장모음과 단모음, 억양, 강세, 연음 등과 철자법을 묻는 암기 위주의 시험 문항이 사라지고, 실제의 대화나 담화를 듣고 이해하는 능력을 평가하는 문항이 출제되었다. 이러한 출제 방침은 수험생의 의사소통 능력을 바탕으로 대학 수학에 필요한 사고력, 창의력을 측정하려는 수능의 성격과 부합한다. 이와 같이 외국어(영어) 영역은 통합적 사고력과 실제 언어 사용 기술을 측정함으로써 수험생을 단순한 암기 위주나 문법 위주의 학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학교의 교실 수업을 안정화시키고 교수·학습 방법에 변화를 가져오도록 하였다.

나. 태동기 외국어(영어) 영역의 변화 (1986~1992년)

지난 20년 동안 외국어(영어) 영역의 변화 추이는 수능의 전체적인 변화와 함께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수능 외국어(영어) 영역 변천사에 대한 시기 구분은 교육과정의 변화, 평가틀의 변화, 문항 수의 변화 등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네 가지 시기로 정리할 수 있다. 1986~1992년까지의 태동기, 1994~1998학년도까지의 형성기, 1999~2004학년도까지의 성장기, 2005~2013학년도까지의 안정기로 구분하여 살펴보기로 한다.¹⁾ 태동기는 1986~1989년까지 연구와 준비를 거쳐 1990년부터 1992년까지 2년간 전국 일반계 고등학교 2학년 재학생을 상대로 실험평가가 실시되었다. 새로운 대학 입시 제도의 도입을 전제로 하고 모두 7차례의 실험평가를 통해서 시험 문항의 형식, 문항

1) 태동기, 형성기, 성장기 외국어(영어) 영역의 변화는 「대학수학능력 10년사 1」(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05)을 참조하여 정리하였다.

수, 배점에 관한 시험모형을 결정하는 시기였다. 특히, 의사소통 능력을 측정하기 위한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의 문항 형식과 지문 길이와 한 지문에서 묻는 문항 수를 실험하였다. 따라서 태동기는 종전의 대학 학력고사와는 전혀 다른 성격의 새로운 문항을 검증해 본 시기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새로 도입된 수능에 대한 초기 사회적 반향은 그 울림이 대단했다.

(1) 시험모형

태동기는 시험모형(영어 영역의 배점, 문항 수, 시험 시간, 출제의 기본 방향과 평가목표를 설정하고 문항 제작의 원칙을 설정하여 수능에서 외국어(영어) 영역이 갖는 성격을 규명하고, 실용 가능성을 검증 하였던 시기라고 규정 할 수 있다.

태동기의 시험모형은 다음과 같다. 1차 실험평가는 ‘대학교육적성시험’이라는 명칭으로 실시하였으며, 문항들은 주관식 20%, 5지선다형 객관식 문항 80%로 구성하였다. 이 시험은 객관식 문항이 4지 선다형에서 5지선다형으로 바뀐 것 외에는 종전의 대학

학력고사와 비슷한 수준의 시험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2차 실험평가는 ‘대학수학능력시험’으로 명칭이 바뀌고, 출제 업무와 채점을 국립교육평가원에서 수행하였으며, 채점의 객관성과 용이성을 고려하여 전체 문항을 객관식 선택형으로 바꾸었다. 이에 따라 2차 실험평가 이후에는 모두 5지선다형 객관식 문항으로 출제하고 문항 당 배점은 1점으로 설정하였다. 또한 2차 실험평가부터 듣기 평가를 실시하였다. 5차 실험평가부터는 변별력을 높이기 위하여 문항 수를 40개에서 50개로 늘리고, 시험 시간도 10분 늘렸으며, 동점자를 최소화하기 위해 0.8점, 1점으로 차등 배점 하였다(〈표 3-3-1〉 참조).

(2) 평가틀

태동기의 외국어(영어) 영역은 영어가 대학교육에 필수적이라는 현실을 감안하여 대학에서 수학하는데 필요한 영어 사용을 평가하는 한편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제시되어 있는 교육 목표 달성도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대학 수학에서 요구되는 영어

〈표 3-3-1〉 1990~1992년 외국어(영어) 영역 1~7차 실험평가 실시 현황

차수	실시일자	대상	출제범위	문항 수	시간(분)	문항유형
1차	'1990. 12. 19	2학년/30개교 1,601명	전교과 (범교과적소재)	35	60	5지선다형(80%) 주관식(20%)
2차	'1991. 5. 24	2학년/100개교 10,232명		40	60	5지선다형
3차	'1991. 7. 11	2학년/100개교 10,263명		40	60	5지선다형
4차	'1991. 11. 27	2학년/100개교 10,286명		40	60	5지선다형
5차	'1992. 5. 27	2학년/315개교 49,808명		50	70	5지선다형
6차	'1992. 8. 31	2학년/549개교 99,005명		50	70	5지선다형
7차	'1992. 11. 10	2학년/702개교 199,298명		50	70	5지선다형

〈표 3-3-2〉 1986~1992년 외국어(영어) 영역의 평가목표 이원목적분류표

내용영역	행동영역	기초언어능력					언어사용기술			문항 수	비율(%)
		어휘	문장/ 통사규칙	담화 구조	사회 언어지식	음운 규칙	사실적	추론적	판단과 감상		
듣기 및 말하기	대화										
	담화										
	대화										
	담화										
읽기 및 쓰기	논설문										
	설명문										
	문학										
	실용문										
	기타										
문항 수											
비율(%)											

사용 능력은 전공 분야의 서적을 읽어 이해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7차례에 걸친 실험평가에서 평가하고자 하는 능력은 내용영역에서 '읽기(독해) 및 쓰기(표현)'와 '듣기(청해) 및 말하기' 등으로 구분하고, 행동영역에서 '기초 언어 능력'과 '언어 사용 기술'로 구분하였다(Bachman, 1990; Canale, 1984). 1990~1992년 실험평가 외국어(영어) 영역 평가들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표 3-3-2〉와 같다(국립교육평가원, 1992).

(가) 듣기(청해) 및 말하기

실험평가 기간 동안은 듣기 평가만을 실시하였다. 듣기평가는 원어민 화자의 음성을 듣고, 얼마나 이해하였는지를 측정하는 시험이다. 쉽고 평이한 어휘와 표현을 사용하여 청취 이해의 비교적 단순한 능력만을 평가하되, 일상 생활의 대화나 담화에서 알 수 있는 능력을 측정하였다. 이와 같은 음성언어에 관한 평가는 단순히 듣고 지각하는 능력과 관련된 '기초 언어 영역'과 들은 내용을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능력과 관련된 '언어 사용 기술'로 나눌 수 있다.

〈기초 언어 능력〉

- 어휘
 - 듣기 자료에서 사용된 어휘 또는 어구를 정확히 듣고 이해하는 능력
- 통사 규칙
 - 듣기 자료에서 통사 규칙에 관한 지식을 근거로 듣는 능력
 - 녹음된 말을 듣고 문장 완성하기
 - 문장 구조를 설명하는 규칙 알기
- 담화 규칙
 - 듣기 자료에서 가장 잘 연결되는 말을 찾는 능력
 - 대화문에서 질의에 적절히 응답하기
 - 담화문에서 논리적으로 연결되는 말 고르기
- 사회언어학적 지식
 - 듣기 자료를 듣고 가장 적절한 표현을 사용하여 응답하는 능력
- 음운 규칙

- 자모음소 식별
- 강세와 억양을 근거로 한 말의 뜻을 판단하는 능력
- 음의 변화
- 회화체 상용 표현법
 - 언어기능, 상황별 사용 표현 고르기
 - 말을 듣고 그 말의 내용에 맞는 그림 고르기

〈언어 사용 기술〉

- 사실적 이해
 - 특정 정보 찾기
 - 필요한 특정 정보 찾기
 - 정보의 위치를 신속히 파악하기
 - 주제 찾기
 - 대화의 내용을 종합하여 주제 찾기
 - 요지 또는 대의 파악하기
 - 말하는 사람의 중심 사상 찾기
 - 간단한 지시를 듣고 이해하기
- 추론적 이해
 - 말의 환경, 조건 등 추론
 - 대화나 담화의 장소, 시간, 등장 인물의 신분, 대화 목적 알기
 - 말의 요지 및 주제 추론
 - 전후의 연결
 - 대화문의 전체 또는 뒤에 이어질 말을 추론하기
 - 의도하는 뜻 파악

(나) 읽기(독해) 및 쓰기(표현)

읽기와 쓰기 평가에서는 영어 사용의 유창성을 평가하되, 글의 의미를 사실적으로, 추론적으로 혹은 종합적으로 파악·재구성하고, 주어진 내용의 이해를 바탕으로 간접적으로 쓰기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가를 측정하였다. 문자언어에 관한 평가는 초보적인 독해

능력을 측정하는 ‘기초 언어 능력’과 독해 요령 및 기술에 해당하는 ‘언어 사용 기술’로 나눌 수 있다.

〈기초 언어 능력〉

- 어휘력(속어포함)
 - 문맥에 의한 어휘의 의미 파악
 - 문맥상 같은 뜻, 반대의 뜻, 비유하여 뜻 알기
 - 문맥상 적절한 어휘 고르기
 - 기초적인 조어의 규칙을 이해하기
 - 중요한 접두사 및 접미사의 의미 파악
- 문장 구조
 - 문법 판단력
 - 어법에 맞는 표현, 잘못된 표현 찾아내기 (오류 고르기)
 - 맞고 틀린 여부를 판단하여 틀린 부분 고치기 (문법성 판단 및 오류 수정)
 - 문장 전환 능력
 - 문장의 구조를 이해하기
- 담화 구조
 - 연결사
 - 두 문장의 관계를 명시하기 위하여 접속사, 서두어 등을 삽입하기
 - 무관한 문장 골라내기
 - 글 속에서 본문 전체의 흐름과 관계가 없는 문장 고르기
 - 주어진 문장을 맥락 속에 넣기
 - 단락 구성하기
 - 몇 개의 문장을 응집력(coherence) 있게 연결하여 단락을 구성하기
 - 주로 작문 능력을 평가하는 수단으로 사용
- 사회언어학적 지식(적절성에 관한 규칙 등)
 - 문장에서 어색한 표현이 있는 부분 고르기
 - 격식을 갖춘 말 고르기

〈언어 사용 기술〉

○ 사실적 이해

- 특정정보 찾기
 - 특정 질문에 대한 해답 찾기
 - 본문의 내용과 일치하는 말 찾기
 - 글 속에 사용된 대명사나 명사구가 가리키는 말 연결하기
- 여러 정보를 하나의 정보로 통합하거나 세부적으로 분류하기
- 글의 주제나 제목 찾기
- 글의 요지 또는 대의 파악하기
 - 필자가 주장하는 바가 나타나 있는 문장 고르기
 - 형식이나 어휘와 관계없이 사용된 말 혹은 문장이 의도하는 뜻 파악하기
 - 글의 줄거리와 요지를 알아내거나 다른 말로 바꾸어 표현하기
- 중요 사실 파악하기(등장 인물, 장소, 시간 등)

○ 추론적 이해

- 주제 추론
- 요지 추론
- 전후관계 추론
 - 앞의 문장을 읽고 그 문단의 결론을 도출하기
 - 어떤 단락의 앞에 나온 말, 즉 글의 전제가 되는 내용을 파악하기
- 지칭 추론
- 원인이나 결론 추론
 - 어떤 글을 읽고 사건의 원인 또는 그 글에서 제시된 사건의 결과를 추측하기
 - 글을 읽고 난 후에 결론을 도출하기
- 함의 추론
 - 글 속에 함축되어 있는 내용을 추리하기

○ 판단과 감상

- 견해 또는 사실 판단

- 읽고 있는 글이 필자의 견해인가 또는 논리적 근거에 의한 사실인가를 판단하기

• 적합성 판단

- 글의 내용과 제목에 나타난 목적이 부합하는가를 판단하기

- 읽고 있는 글이 중심 사상이나 요지를 담고 있는가를 판단하기

• 필자의 견해와 감정 판단

- 글쓴이의 심경 이해하기

• 글이 주는 정서와 분위기 판단

- 희로애락 공감하기

• 글의 종류, 원인 등 판단

- 내용이 실려 있음직한 원전이나 글의 종류 추리

(다) 출제 범위

외국어(영어) 영역의 실험평가(1~7차)에서는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내용과 수준에 맞추어 여러 교과목에서 공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통합교과적 소재를 바탕으로 출제하고자 하였다. 이는 현행의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준하여 출제한다는 뜻이지 교과서 내용에 한정하여 출제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다. 따라서 출제에 이용되는 자료는 교과서 이외에도 교육과정에 근거한 학습 자료를 망라하게 된다. 5차 실험평가 이후부터는 총 50개의 문항 중 듣기 평가 8개 문항을 풀이하는 데 7분, 읽기와 말하기, 쓰기 평가 42개 문항을 풀이하는 데 63분을 할당하여 시험 시간이 70분이 되도록 출제하였다. 듣기 평가를 제외한 42개 문항에서 각각의 문항은 평균 60단어로 이루어진 단락으로 구성하였다. 단어의 난이도 수준은 수험생이 공부하는 검·인정 8종 교과서 수준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문맥에서 의미의 추론이 가능한 단어는 주석 없이 사용하였으며, 추론이 어렵다고

판단이 되는 경우에는 단어에 주석을 달아 내용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 이러한 출제 원칙에 따라 언어의 4기능(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에 따른 영어 사용 능력을 측정할 수 있도록 다양한 문항을 개발하였다. 이해 기능(듣기와 읽기)을 표현 기능(말하기와 쓰기)보다 상대적으로 많이 출제하도록 하였고, 출제 문항이 고등학교 영어 교육의 방향을 제시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세부 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하였다.

- 대학 교육을 이수하는 데 요구되는 영어능력을 측정하기 위하여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수준과 내용에 맞추어 출제하였다.
- 고등학교 영어 교육이 교육과정에 제시되어 있는 교육 목표, 교육 내용, 지도 방향 등에 충실하며 정상화되도록 영어 교육과정에 제시한 영어 사용 능력을 측정할 수 있는 다양한 문항을 출제하였다.
- 영어 용법에 관한 지식의 정확성보다는 영어를 듣고 쓸 수 있는 영어 사용의 유창성을 평가하기 위해 듣기와 독해력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출제하였다.
- 독해력은 대학 수학 능력의 측정을 위하여 대의 파악, 주제 파악, 세부 내용 이해, 논리적인 추론, 요약 등의 능력 측정에 높은 비중을 두었다.
- 숙어를 포함한 어휘력은 문장이나 단락 속에서 의미를 파악하는 능력을 측정하고, 문법성 판단력은 복잡한 구조를 이해하고 그 속에 담긴 정보를 이해하는 능력을 측정하는 수준으로 출제하였다.
- 문법 문제는 지나친 정확성의 강조나 문법 용어에 대한 지식 등을 다루는 문제를 지양하고, 전체 문장 속에서 비명시적인 언어 능력을 측정하는데 주안점을 두어 출제하였다.
- 청해력 문제는 대화나 담화 속에 담긴 내용을

사실적 이해, 추론적 이해, 종합적인 이해 정도를 측정하는 수준으로 출제하였으며, 발음 규칙 같은 용법 등 명시적인 영어에 관한 지식은 제외하였다.

- 다양한 상황의 생활 영어를 통한 언어 능력을 측정하도록 출제하였다.

(3) 특이사항

태동기의 특기할 사항은 2차 실험평가 때부터 처음 도입된 영어 듣기 평가라고 할 수 있다. 종래의 대학입학학력고사에서 발음 문제를 유성음과 무성음의 구별, 장모음과 단모음의 식별, 억양과 강세를 구별할 수 있는 능력 등 단편적 지식 암기 위주의 4지선다형으로 평가해 온 것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자 모험이었다. 이리하여 듣기 평가에서 단편적인 지식이 아니라 실제 언어 사용 능력을 측정하는 방법이 평가의 중요한 요소로 등장하였다. 이에 대해 출제위원 간에도 상당한 의견 차이가 있었음은 부인하기 어렵다. 찬반 토론을 거듭한 후에, 2차 실험평가에서 듣기 평가가 도입되어 5문항을 출제하였다. 2차 실험평가 기간 동안은 2일 동안의 짧은 기간에 듣기 평가 문항의 유형과 평가 방법을 처음으로 마련하게 되었다. 이후 5차 실험평가부터 총 문항 수가 50문항으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듣기 평가 문항 수도 8문항으로 늘어나게 되었다. 듣기 평가는 학교 영어 수업에서 듣기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결정적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 각 시·도 교육청 및 교육연수원은 물론 고등학교 영어 교사들은 교실에서 듣기 훈련을 위한 새로운 교수·학습 방법의 개발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특히 들려주는 횟수와 지역 간 편차에 대한 문제인 한 동안 논의의 대상이 되었다. 듣기 평가 대본은 평가의 특성상 실제 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대

하나 담화로 구성하기가 어려웠다. 왜냐하면 수험생이 정답의 단서를 찾을 수 있는 말을 구체적으로 2~3회 반복하거나 추론하여 답할 수 있는 단서를 제공해 주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듣기 평가의 난이도 조절은 단서의 제공 횟수로 하되 들려주는 횟수는 한 번으로 하기로 결정했다.

지역 간 편차 문제는 시행 초기에 듣기 평가 실시를 반대하는 중요한 요인이었다. 그러나 듣기 평가 실시 후, 지역 간 점수 차가 크게 벌어지지 않았다. 그래서 실험평가 이후 2013학년도까지 문항 출제의 유형과 난이도에 큰 변화가 없이 출제되고 있다.

실험평가 기간의 시험 실시 현황을 살펴보면, 2~4차의 실험평가는 중·소도시, 읍·면지역까지의 중간 수준 학교에서 100개교, 200학급, 약 1만 명씩 표집하였고, 5~7차의 실험평가에서는 1994학년도 대학 입학 수험생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1,000~4,000개 학급 약 5만~20만 명을 계열·성별·지역별을 고려하여 선정하였다.

실험평가 결과 외국어(영어) 영역의 평균 점수는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7차 실험평가에서 51.0점을 나타낸 것을 제외하고, 1~6차 실험평가까지 41.7~42.8점(평균 42.1점)을 나타내고 있어 평균점수는 적정 수준이었다고 할 수 있다. 대학 합격 가능권인 상위 50% 집단의 경우 평균점수는 53.5~65.0점으로 타 영역에 비해 아주 적절하게 나타났다.

또한 문항 난이도는 전체 문항 중 92.3%의 문항이 20~80%에 분포되어 있으나, 그 중 약 37.2%의 문항이 20~39%에 집중되어 있어 전체적인 분포는 정상분포에서 약간 낮은 쪽으로 편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7차 실험평가는 정상분포를 이루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항 변별도는 3차 실험평가를 제외한 모든 실험평가에서 변별도가 0.19 이하인 문항 비율은 8.0~16.0% 인데 반해 변별도 0.40 이상인 문항

비율은 62.0%~76.0%에 이르고 있어 변별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험평가 시험에 참여했던 학생들을 대상으로 시험 종료 후에 실시한 설문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시험 문항의 사고력 측정 정도에 있어서 약 84.4~95.9%의 학생들이 학교에서 시행되는 시험에 비해 더 많이 생각해야 한다고 응답하였으며, 실험평가의 횟수가 거듭할수록 응답수가 증가하고 있어 통합교과적 소재를 통해 학생들의 사고력, 창의력을 제대로 측정하는 것으로 판명이 되었다.
- 수능 준비를 위한 공부 방법과 종래의 공부 방법에 대한 비교를 위한 설문에서 85.5~92.0%의 학생들이 시험 준비를 위한 공부 방법에 변화가 필요한 것으로 응답했다.

또한, 실험평가를 실시한 고등학교 영어 교사(433명)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는 72.6~97.8%의 교사들이 실험평가의 문항들이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목표와 잘 부합되거나 대체로 부합된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64.9~92.2%의 교사들이 시험 문항들이 대학 수학에 필요한 고등 정신 능력을 측정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그리고 71.4~97.4%의 교사들이 수능이 실험평가 문항과 같은 유형으로 출제된다면 교수·학습 방법에 큰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응답함으로써 생활 영어를 통한 음성 언어 위주의 수업 방법을 강구해야 할 필요성이 부각되었다. 문자 언어를 지도하는 데는 다양한 독해 요령과 독해 기술을 학습시킬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는 반응이 많았다.

7차례에 걸친 실험평가는 고등학교 영어 교육을 정상화하는 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는 제6차 영어과 교육과정 개편에도 상당한 반향을 불러 일으켜

이해 기능을 표현 기능에 선행시켜야 한다는 언어 학습 이론(Krashen, 1985)을 중심으로 교육과정이 개편되는 밑거름이 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영어과 교육과정의 내용은 이해 기능과 표현 기능으로 구분되었고, 이해 기능을 표현 기능에 선행하여 지도하도록 개편되었다. 또한 교육과정에 제시되어 있는 문법 사항을 삭제하고 대신 의사소통 예시문을 제시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교육과정의 개정은 교과서 집필자의 집필 태도와 방향에 영향력을 발휘하였다.

다. 형성기 외국어(영어) 영역의 변화 (1994~1998학년도)

형성기는 1994~1998학년도까지 기간으로 실험평가에서 확정된 시험 문항을 수능에 그대로 반영해서 시행했던 초기의 기간이다. 시험 문항은 고등학교 영어 교육을 정상화하는 데 기여했다는 긍정적 평가와 함께 영어 수업에서 교수·학습 방법에 변화를 가져오게 했다. 특히 듣기 평가는 매우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이 시기에는 중·고등학교 영어 교육에서 음성 언어를 통한 수업이 적극적으로 도입되었고, 영어로 수업하는 교사의 수가 늘었으며, 영어 회화에 대한 관심도 크게 증대되었다. 영어 읽기의 경우도 ‘어떻게 독해를 할 것인가’에 대한 독해 기술과 교수·학습 방법의 개발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졌다. 영어 교육의 변화를 실감할 수 있는 시기였다고 할 수 있다.

(1) 시험모형

1994학년도 수능은 2회에 걸쳐 실시하였으며 수험생들은 두 번 응시한 경우 더 좋은 성적으로

대학에 지원할 수 있었기 때문에, 두 시험에서 일관성을 유지하고 난이도를 동일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이 큰 과제였다. 외국어(영어) 영역의 경우는 1차와 2차 시험의 평균 성적이 비교적 근접한 분포를 보였으나 여전히 어려움이 있었으므로 1995학년도부터는 수능을 연 1회 실시하기로 결정하였다.

형성기의 시험모형은 실험평가 출제 모형에 준하되, 시험 시간은 70분에서 80분으로 10분 늘렸다. 교과서의 지문을 배제함에 따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과학, 첨단공학 등 통합교과적 소재가 읽기 지문으로 채택되고, 광고문 등 생활 영어가 강조되었다. 문제지를 8면으로 늘림으로써 수험생들의 정신적 안정감을 고려하였다. 특히 최초로 실시되는 듣기 평가에 충분한 시간을 배당해야 했다. 또한 5지선다형 객관식 문제에서 수험생들의 사고력과 창의성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시험 시간을 늘리는 것이 불가피했다.

문항 수는 1994학년도의 1, 2차에 걸친 시험과 1995학년도 및 1996학년도의 시험에서 거의 동일한 형식으로 출제되었다. 대체로 듣기는 8문항, 말하기는 4문항, 읽기는 32문항, 쓰기는 6문항이 출제되었다. 말하기 평가는 대화 내용을 읽고 푸는 선다형 문항으로 측정하고 이러한 문항 유형이 1996학년도까지 계속되었다. 그러나 1997학년도에 말하기를 음성 언어인 듣기 문항으로 출제하면서 읽기를 통한 말하기 평가 문항은 사라지게 되었다. 말하기 평가는 언어 사용의 적절성(사회언어학적 능력)을 평가하는 문항과 말하는 사람이 의도한 내용과 들은 사람이 이해한 내용을 묻는 문제가 출제되었다.

배점은 1994학년도 1, 2차 시험은 듣기 평가 8 문항을 포함하여 총 50문항에 40점이었으므로 0.8점으로 균등하게 하였다. 반면, 1995학년도와 1996학년도에서는 각 문항의 배점을 교육 과정상의 중요도, 사고 수준, 문항 난이도, 문항별 소요 시간 등을 고려하여 0.6점, 0.8점, 1점으로 3단계 차등

〈표 3-3-3〉 1994~1998학년도 외국어(영어) 영역의 시험모형

학년도	출제 범위	시험 시간	문항 수	배점(점)	문항배점(점)	비고
1994	전교과 (법교과적 소재)	80분	50	40	0.8	연 2회 실시 (듣기 8문항)
1995					0.6, 0.8, 1	연 1회 실시
1996			듣기 10문항			
1997			55	80		1, 1.5, 2
1998						

배점하였다. 1997학년도와 1998학년도에는 듣기 영역에서 간접 말하기 평가 5문항을 추가해서 총 17문항을 출제하였으며, 각 문항의 배점을 1점, 1.5점, 2점으로 상향 조정하여 차등 배점하였다(〈표 3-3-3〉 참조).

(2) 평가틀

평가목표가 정해지고 그에 따른 전체적인 출제 방향과 출제 내용의 범위가 정해지고 나면 평가틀이라 할 수 있는 이원목적분류표를 작성한다. 이원목적 분류표는 출제할 문항 수, 내용영역별 문항표집 계획 및 그 비중, 행동영역별 문항표집 계획 및 그 비중이 구체적으로 제시되며 모든 평가 문항 작성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일종의 출제 계획표라고도 할 수 있다.

외국어(영어) 영역의 평가틀은 1994학년도 수능부터 새로운 평가틀로 수정·보완하여 2013학년도까지 그대로 유지·적용되어 오고 있다. 다음 〈표 3-3-4〉는 형성기 외국어(영어) 영역의 평가틀인 이원목적분류표이며, 크게 내용영역과 행동영역으로 분류된다.

(가) 내용영역

내용영역은 이해 기능인 듣기와 읽기, 그리고 표현 기능인 말하기, 쓰기 네 가지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영역의 성격과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듣기

대화나 담화를 듣고 내용을 전체적으로 이해하고 추론하거나 세부 내용을 파악하는 능력을 측정한다.

○ 말하기

대화나 담화를 듣고 화자가 할 말을 의사소통 상황에서 추론하여 표현하는 능력을 측정한다.

○ 읽기

과학, 음악, 문학, 실용문, 시사적인 내용 등 다양한 소재의 글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읽는 능력을 측정하며, 사실적 이해력과 추론적 이해력을 측정한다.

○ 쓰기

문장과 문장의 논리적인 흐름을 파악하는 능력과 문단의 내용을 요약하는 능력을 측정한다.

〈표 3-3-4〉 1994~1998학년도 외국어(영어) 영역의 평가목표 이원목적분류표

내용영역	행동영역	어휘	문법성 판단력	이해			적용	문항 수	비율(%)
				사실적	추론적	종합적			
듣기	대화								
	담화								
말하기	대화								
	담화								
쓰기	문장								
	문단								
읽기	논설문								
	설명문								
	문학								
	실용문								
	기타								
문항 수									
비율(%)									

(나) 행동영역

행동영역은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의 네 가지 언어 기능을 실제 상황에서 사용하는데 필요한 어휘 및 문법성 판단력, 사실적 이해력, 추론적 이해력, 종합적 이해력, 적용력으로 세분화된다. 이러한 평가 내용은 2013학년도까지 외국어(영어) 영역의 기본 틀로 자리 잡았다. 각 영역의 성격과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어휘 및 문법성 판단력

어휘 및 문법성 판단력은 대학 수학에 필요한 영어 단어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능력과 어휘의 의미를 문맥의 단서를 활용하여 신속하고 정확하게 유추해 낼 수 있는 사고력을 측정한다. 문법의 단순한 암기력보다는 담화나 문단의 전체적 의미나 문장 사이의 의미적 관련성을 고려하여 문법성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측정한다.

○ 사실적 이해력

사실적 이해력은 대화, 담화, 문단의 핵심적 내용과 전개 방식에 비추어 정보를 가급적 정확하고 신속하게 파악하는 능력으로, 말이나 글의 내용을 추론, 분석, 비판하기보다는 진술된 그대로 파악하는 능력을 측정한다.

○ 추론적 이해력

추론적 이해력은 대화, 담화, 문단의 표현 내용과 전개 방식의 사실적 이해에 근거하여 직접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사항을 논리적으로 추론해 낼 수 있는 능력으로, 지칭의 문맥상 의미 추론, 의도적으로 삭제한 내용이나 표현의 추론, 문단의 전후 관계 추론, 말이나 글의 요지, 제목, 견해, 주장, 의도 추론 등의 능력을 측정한다.

○ 종합적 이해력

종합적 이해력은 대화, 담화, 문단의 표현, 내용, 전개 방식 등을 개별적 언어 요소에 대한 분석이 아니라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으로, 글의 종류, 분위기, 목적, 어조, 태도, 느낌 파악하기 등의 이해력을 측정한다.

○ 적용력

적용력은 대화, 담화, 문단의 내용을 이해하여 의사소통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능력으로, 특히 듣거나 읽기 자료를 통해 이해한 바를 가상의 말하거나 쓰기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언어 사용 능력을 측정한다.

(다) 출제 범위

형성기의 외국어(영어) 영역 출제의 기본 방향은 대동기의 실험평가와 대동소이하였다. 가장 문제가 되었던 것은 출제의 범위였다. 1994학년도 2회에 걸친 시험 범위는 고등학교 3학년 1학기까지의 진도로 하되 고등학교에서 성취한 수준과 범위를 고려하여 출제하였다. 통합교과적 소재를 고르게 출제하되, 성별에 따른 이해도의 차이가 있는 소재는 적극 배제하였다. 출제 문항은 출제위원 전원이 참여하여 적극적인 토론 과정을 거치게 하였다. 형성기 출제 내용과 범위는 다음과 같다.

- 종래의 학력고사가 해 오던 것과 같은 영어에 관한 지식이 아니라, 영어를 의사소통의 수단으로 쓸 수 있는 통합적 능력을 측정하였다. 영어를 듣거나 읽어서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 능력뿐만 아니라, 영어의 적절한 표현 방법을 이용하여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말하거나 쓸 수 있는 능력이 얼마나 유창한가를 측정

하도록 하였다.

- 듣기 평가를 제외한 문항에서는 한 개의 문항이 평균 60개의 단어로 구성된 단락이 되도록 하였으며, 사용된 단어의 난이도 수준은 수험생의 8종 교과서 수준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그리고 문맥을 통해 추론이 가능한 단어는 주석 없이 사용하였으며, 추론이 어렵다고 판단이 되는 단어에만 주석을 달았다.

- 고등학교에서 이수하는 모든 교과목과 관련된 교과서 내외의 범교과적 제재를 활용하되 가능한 한 문제 상황 중심의 통합교과적 소재를 활용하여 출제하였다.

- 고등학교 영어과 교육과정에서 제시하고 있는 ‘영어 사용 기능’을 중심으로 출제하여 학교 교육을 충실히 이수한 학생이면 무난히 해결할 수 있는 평이한 문제를 출제하는데 역점을 두었다.

1995학년도와 1996학년도에는 약간의 변화가 생기게 되었다. 1차 시험과 2차 시험 간의 난이도 조정의 실패 때문에 시험 횟수를 1회로 줄였다. 또한 고등학교 계열에 관계 없이 공통 문제로 시험 문항을 출제함에 따라 많은 고등학교에서 계열별 심화 과목을 소홀히 취급하거나 전혀 다루지 않는 등의 파행적인 교육과정 운영을 하게 되어 수능이 고등학교 교육의 정상화에 역작용을 초래하게 되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따라서 1995학년도 수능에서는 ‘계열별 분리 실시’를 하게 되었다. 영어는 전년도와 같이 공통으로 분류되었지만 출제 범위는 언어 영역과 마찬가지로 전 교과를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시험모형 상에는 큰 변화가 없었다.

그러나 음성 영어 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의 변화로 인해 듣기 평가의 비율을 늘리고, 읽기 평가 지문의 길이를 늘려 한 지문 속에 포함되는 어휘 수를 60개 내지 90개 또는 100개로 늘려 속독, 속해 능력을 측정하자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따라서 출제 방향도 전년도에 준하되, 듣기 문항의 비중을 늘리고(1996학년도에는 10문항 출제), 한 개의 문항은 60개 내지 90개 내외의 단어로 구성된 지문을 주로 사용하고, 종합적 이해 능력을 측정하는 문항을 확대하고, 적용 능력을 측정하는 문항 중에는 100개 이상의 단어로 구성된 지문도 사용하여 변별력을 높였다. 또한, 문맥에서 추론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단어에만 주석을 사용하는 것은 전년도와 같았으며, 이러한 출제 방향은 1995학년도와 1996학년도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었다.

차등 배점의 원칙은 난이도보다는 사고력에 기준을 두었다. 정답을 찾는 데 필요한 언어 자료의 양이 비교적 적고, 비교적 단순한 사고 과정을 거치면 해결할 수 있는 어휘 및 문법성 판단력, 사실적 이해력 등을 측정하는 문항에는 낮은 배점을 하였으며, 고등학교 영어과 교육과정이 중시하는 종합적 이해력과 적용력 등 고등 사고력을 요구하는 문항에는 높은 배점을 하였다. 총 문항 중 낮은 배점이 높은 배점의 절반 정도가 되게 하되, 듣기·말하기 부분에서는 낮은 배점이 3개 문항, 높은 배점이 1개 문항이 되도록 하고 1번 문항은 언제나 낮은 배점으로 그림을 활용한 문항으로 출제하였다.

문항 배열에서 외국어(영어) 영역 듣기 문항을 앞부분에 배치하고 읽기·쓰기 문항은 뒤에 오도록 하였다. 각 부분에서는 수험자의 심리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대체로 쉬운 문항에서 상대적으로 어려운 문항의 순서로 배열하였다. 전체적으로 읽기 평가에서는 수험자에게 심리적 불안감을 주는 문항은 뒤쪽에 위치시키고, 쓰기 평가 문항은 편집상

가능하다면 읽기 뒤에 배열하도록 했다.

형성기의 외국어(영어) 영역은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내용과 수준에 맞추어 사고력 중심의 고등 정신 능력을 적절히 평가할 수 있도록 출제하였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고등학교 교육 정상화에 기여할 수 있는 평가 도구로 당초에 기대하였던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한 것으로 평가되어 일선 학교의 영어 교수·학습 방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된다.

(3) 특이사항

1994학년도 수능은 2차에 걸쳐 시행되었으며, 외국어(영어) 영역의 경우, 1차와 2차의 평균점수가 거의 같은 것으로 나타났다. 2차가 1차보다 100점 기준으로 환산할 때 1점이 높았다. 이는 실험평가 이후 외국어(영어) 영역 시험모형이 안정되어 수험생의 의사소통 능력을 비교적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도구로 인정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외국어(영어) 영역은 듣기 평가의 대화나 담화를 녹음하고 대화나 읽기 지문을 수정하기 위해 능력 있는 원어민을 구하는 일이 쉽지 않았다. 물론 실험평가 기간을 통해 약간의 원어민을 확보는 하고 있었지만 수험생들에게 친근한 억양과 발음을 구사하는 원어민을 찾아 검증을 해야 했고, 또한 그들에게 시험을 위하여 20여 일 동안 격리되어 감금당하는 시험 문화를 이해시키기도 어려웠다. 권위 있는 기관에서 근무하는 원어민을 섭외해야 했기 때문에 그 기관에서 출장 허가를 받는 일도 난제였다. 또한 KBS 방송망을 통하여 전국적으로 일제히 녹음 방송이 되기는 하지만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하여 고사장별로 녹음테이프를 제작·배포해야 했으므로, 듣기 평가 대본을 녹음할 때는 고성능 녹음 장비와 전문 기사가 필요했다. 1994학년도 1차 시험은 1993년 8월 20일 오후 2시 30분에서 3시 50분까지

〈표 3-3-5〉 1994~1998학년도 외국어(영어) 영역의 연도별 전체 및 계열별 평균점수(100점 만점 환산)

(단위: 점)

학년도	계열			전체
	인문	자연	예·체능	
1994 1차	50.7	49.7	39.3	49.2
1994 2차	51.8	54.4	40.3	50.2
1995	55.4	55.1	44.5	54.3
	73.9	74.2	57.9	72.5
1996	51.1	52.8	42.2	51.0
	68.7	71.3	54.5	68.5
1997	43.9	45.5	35.5	43.8
	59.6	62.0	45.2	59.3
1998	56.3	58.4	47.0	56.4
	73.8	76.7	59.0	73.7

* 점선 아래는 상위 50% 집단의 평균점수임.

80분간 시행 되었다. KBS 방송을 통해서 듣기 평가가 시행되는 2시 30분부터 18분간은 전국 공항의 항공기가 이·착륙을 하지 못하고 대기해야 했다. 또한 서울 화곡동의 한 고사장에서는 시험 당시 여름철이라 교내에 있는 나무에서 매미 소리를 없애기 위하여 살충제를 살포하여 매미가 수난을 당하는 촌극이 벌어지기도 하였다.

형성기의 시험 결과를 살펴보면, 외국어(영어)의 연도별 전체 및 계열별 평균점수는 다음〈표 3-3-5〉와 같다.

당시 수능의 난이도 기준은 영역별로 전체 수험생의 평균점수와 상위 50% 수험생의 평균점수를 100점 만점으로 환산한 점수를 가지고 결정했다. 이러한 난이도 결정 기준은 2004학년도까지 이어졌다.

1994학년도 2차 시험의 평균점수는 1차 시험 때 보다 100점 만점으로 환산할 경우 1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차 시험이 11월 중에 실시되었으므로 8월에 시행한 1차 시험보다는 성적이 향상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두 시험 간에 종합 점수가 약 8.2점(100점 만점 환산점수)이 하락한 다른 영역

으로 인해 난이도 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되었다. 이로 인해 학교, 학부모, 언론 등에서 1회 실시 요구가 강력하게 제기되었다. 1995학년도에 비해 1996학년도의 성적이 떨어진 이유는 전년도에 비해 지문의 길이가 길어지고, 종합적 사고력을 요구하는 문항이 다수 출제되었기 때문으로 추측된다.

1997학년도에는 여러 문단으로 구성된 세트 문항이 3개가 출제되어 수능 역사상 가장 낮은 평균점수(상위 50%의 점수, 59.3점)를 기록하기도 하였다. 1998학년도에도 전년도와 비슷하게 세트 문항이 3개씩 출제되었지만 한 개 지문의 길이는 1997학년도에 비해 많이 줄어들었다. 이 때문에 평균 점수가 급상승(상위 50%의 점수, 73.7점) 하였다. 1998학년도에는 읽기 평가에서 '사전 속에서 주어진 문장에서 사용된 단어의 뜻과 같은 것을 고르는' 문제가 새로운 유형으로 출제되었다. 이는 사고력을 통한 영영사전의 활용 능력을 측정하는 문항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시기부터 1지문 1문항의 원칙을 다소 수정하여 세트 문항이 등장하였다.

라. 성장기 외국어(영어) 영역의 변화 (1999~2004학년도)

성장기는 1999~2004학년도까지의 기간으로 대학별 고사가 폐지되면서 수능이 대입 전형 자료로서의 역할이 크게 증대되었던 시기다. 수능의 출제 방침이 변함에 따라 외국어(영어) 영역의 시험도 전반적인 골격을 유지한 채 변화를 겪었던 시기라고 할 수 있다. 음성언어를 통한 말하기 평가가 도입되고, 다양한 문항을 출제함으로써 고등학교는 물론, 초등학교, 중학교의 교수·학습 방법에도 지대한 영향력을 끼쳤다. 특히 사교육비에 대한 학부모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시험 범위가 고등학교 1학년 수준인 ‘공통영어’로 한정되었기 때문에 외국어(영어) 영역 시험이 변별력을 잃게 되어 사회적 비판을 받기 시작한 시기이기도 하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외국어(영어) 영역은 수능의 개념과 성격을 재정립하고 시험 체제와 시험모형 및 출제 방법 등에 대한 조정 작업을 끊임없이 진행하였다.

(1) 시험모형

성장기의 시험모형은 출제 범위, 문항 수, 시험 시간 등에서 변화가 있었다.

첫째, 가장 큰 변화는 출제 범위의 변화다. 1998학년도까지는 시험 범위가 고등학교 교육과정상 ‘전 교과’로 되어 있어 고등학교 3학년 1학기까지 학습한 내용을 출제 범위로 하였고 때문에 문항의 변별력을 유지하기가 비교적 수월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제6차 교육과정이 적용되는 1999학년도부터는 고등학교 교육과정상 1학년 과정인 ‘공통영어’ 교과로 한정되었기 때문에 문항 난이도에 대해서 일선 교사는 물론, 학부모와 언론으로부터 비판을 받아야 했다.

둘째, 문항 수와 시험 시간의 변화이다. 2001학년도

부터는 선택형 시험인 제2외국어 시험을 도입함으로써 영어 시험 문항이 55문항에서 5문항이 축소되어 50문항으로 출제되면서 시험 시간도 80분에서 10분이 단축되어 70분이 되었다. 듣기와 말하기 평가의 문항 수 17개는 변동이 없었으므로, 결국 읽기 평가와 쓰기 평가의 문항을 38개에서 5개가 줄어든 33개로 출제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비교적 논리적 사고를 요구하는 읽기 평가의 문항이 축소되어 외국어(영어) 영역 시험의 문항 변별력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다.

1999학년도에는 국립교육평가원이 수행하던 수능 업무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으로 이관되고, 제6차 교육과정으로 수업을 받은 수험생이 처음으로 시험을 치르게 되었다.

(2) 평가틀

성장기의 출제 방향은 대체로 형성기와 비슷하였지만, 대입 전형자료로서의 활용 정도에 따라 연도 별로 다소 차이가 있으며 대략적인 평가목표는 다음과 같다.

- 대학 수학에 필요한 영어 사용 능력의 기본이 되어 있는가를 측정한다.
- 고등학교 영어 교육의 목표를 달성한 정도를 측정하고, 고등학교 영어과 교육과정이 제시하고 있는 영어 사용 능력을 함양시킬 수 있는 수업이 되도록 출제한다.
- 독해력에 많은 비중을 두고, 듣기는 직접 방법으로 말하기와 쓰기는 간접 방법으로 측정한다.
- 속어를 포함한 어휘력은 문장이나 단락 속에서 의미를 파악하는 능력을 측정하고, 문법성 판단력은 복잡한 구조를 이해하고 그 속에

〈표 3-3-6〉 1999~2004학년도 외국어(영어) 영역의 시험모형

학년도	출제범위	배점	시험 시간(분)	문항 수	문항배점	비고
1999	공통영어	80	80	55	1, 1.5, 2	※ 듣기 및 말하기 평가 (17 문항) ※ 듣기 평가시간 (20분이내)
2000						
2001			70	50		
2002						
2003						
2004						

담긴 정보를 이해하는 능력을 측정하는 수준으로 출제한다.

- 독해는 단락 속에 담긴 내용을 사실적 이해, 추론적 이해, 감상이나 판단과 같은 종합적 이해, 적용의 능력을 중심으로 출제한다.
- 청해는 대화나 담화 속에 담긴 내용을 사실적 이해, 추론적 이해, 종합적 이해를 하였는지를 측정하는 수준으로 출제한다.
- 말하기와 쓰기는 간접적으로 출제하되 의사소통 능력을 측정하는 데 필요한 수준으로 출제한다.

이러한 출제의 기본 방향에 따라 성장기 외국어(영어) 영역의 평가틀은 형성기(1994~1998학년도)의 평가틀을 그대로 유지하였다(〈표 3-3-4〉참조).

(가) 출제 범위

성장기 외국어(영어) 영역의 출제 범위는 1999학년도부터 제6차 교육과정이 적용되는 고등학교 1학년 ‘공통영어’로 한정되었다. 영어 사용 능력은 원칙적으로 수험생의 실제 능력을 직접 관찰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하지만 80~90만 명에 이르는 수험생을 대상으로 실시해야 하는 현실적 제약 때문에 작문을 통한 쓰기 능력의 평가나 면접을 통한 말하기

능력의 평가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러나 수능을 통해서 음성 언어 능력을 평가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학계에서는 물론이고 학교 현장에서도 있었다. 이러한 출제 방향의 여론을 수용하여 1997학년도부터는 평가 방법을 달리해서 듣기 능력과 함께 말하기 능력도 측정하는 한편, 듣기 문항도 2문항을 늘려 총 12문항을 출제하고, 말하기 문항을 5문항 추가하여 음성언어 사용 능력에 대한 평가 문항이 총 17문항이 되도록 하였다. 이것은 제6차 고등학교 영어과 교육과정의 내용과도 맥을 같이 한다. 영어 교육의 목표인 언어의 4기능인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의 능력을 고르게 길러내야 한다는 취지를 받아들인 결과다. 또한 음성언어를 수능에서 보다 많이 출제해야 한다는 영어 교육 학계의 끈질긴 요구 사항을 수용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읽기 평가의 경우에도 1단락 1문항에서 점진적으로 1단락 2문항, 2단락 2문항, 또는 다(多) 단락 3~4문항이 점진적으로 출제되었으며, 단락의 길이도 점차 길어져서 1단락에 포함되는 어휘 수가 100개, 150개, 또는 200개 이상이 되는 단락이 포함되도록 하였다. 이는 수능이 속도 검사(speed test)가 아니라 역량 검사(power test)가 되도록 출제하고, 가능한 한 ‘문제 상황 중심의 통합교과적 소재’를 가지고 출제하려는 기본 방향에 따라 단순한 기억력이나 암기력 평가를 지양하고 사고력을

평가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문항 유형이 정형화되고 1999학년도부터는 시험 범위가 고등학교 1학년 ‘공통영어’ 수준에서 출제하도록 하였기 때문에 고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한 시험으로서 변별력에 커다란 문제점이 노출되기에 이르렀다. 문제를 읽는 순간 즉시 해답이 떠오르는 문항이 아니라 깊이 생각하고 해결할 수 있는 사고력 중심의 문항 출제를 어렵게 만드는 원인으로 결국은 1학년 수준인 ‘공통영어’ 수준으로 시험 범위를 제한한 데서 비롯된 것이었다.

뿐만 아니라, 문법성 판단력 문제도 유창성을 중심으로 하였고 긴 지문 속의 맥락에서 판단하도록 한데다 출제 문항도 2개였기 때문에, 일선 학교의 영어 교사들은 문법 지도를 통한 정확성 위주의 영어 교육이 위협받는다라는 문제점을 제기하였다. 쓰기의 경우도 5지선다형 시험에서는 직접 평가가 불가능하므로, 담화(discourse)의 전개 과정, 논리적인 글의 전개, 수사학적인 능력을 읽기 지문으로 평가할 수 있는 도구를 모색하게 되었다.

(3) 특이사항

성장기의 특이사항은 수능에 대한 사회적 요구와 새로운 정부의 교육 정책에 따라 많은 변화를 거듭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이다. 외국어(영어) 영역의 시험 범위가 고등학교 1학년 과정인 ‘공통영어’로 축소되었고, 제2외국어가 시험 영역으로 채택됨에 따라 문항 수가 5개 줄어들었다. 시험 시간도 80분에서 70분으로 줄어들었다.

종래의 학력고사에서 강조되었던 문장 단위의 정확한 문법 규칙으로는 담화 단위의 유창한 영어 사용 능력을 설명하거나 함양할 수 없었기 때문에 문장 단위에서 문단의 영역으로, 정확성에서 유창성으로,

영어 용법에서 영어 사용으로, 추상적 언어 능력에서 구체적 의사소통 능력으로 영어 교육의 목표가 발전과 변모를 거듭해 왔다고 할 수 있다(Brumfit, 1988; Savignon, 1983; Terrel & Krashen, 1983; Widdowson, 1978).

말하기 평가에서는 담화 규칙을 적용할 수 있는 능력과 회화체 상용 어법을 적용할 수 있는 능력 등을 그림으로 물어보는 문항이 개발되었다. 원어민 화자의 녹음을 통한 말하기 평가(5문항)의 실시로 읽기 평가에 포함되었던 종래의 평범한 문항과 서술문을 대화문으로 전환하는 문항은 1997학년도부터는 사고력을 측정하는 문항으로 바뀌었다.

음성언어의 사용 기술에 관한 내용은 실험평가에서부터 시작하여 듣기 평가의 문항 수가 증가하면서 다양한 형식으로 발전해 왔다. 성장기 외국어(영어) 영역에서는 화자 간의 대화 횟수가 점차 늘어난 것이 특징이고, 그림, 도표, 일과표, 메모지 등을 활용하여 사실적, 추론적, 종합적 이해도를 묻는 문항을 많이 출제하였다.

성장기 연도별 특이사항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999학년도는 제6차 교육과정이 적용되는 해였다. 시험 범위가 ‘공통영어’로 제한되었기 때문에 지문의 길이가 늘어나고, 세트 문항이 다수 등장하게 되었다. 초기 태동기에는 1지문, 즉 한 문단의 길이는 60~90단어의 원칙을 지켰고, 형성기에는 마지막 두 문항을 제외하고는 70~90 단어 수준을 유지하였다. 그러나 1999학년도에는 100~120개의 단어로 구성된 지문이 다시 등장하였다. 또한 다(多) 문단으로 구성된 세트 문항이 출제되었다.

2000학년도에도 3개의 세트 문항이 출제되었으나 지문의 길이는 전년도보다 짧은 편이었다. 다 문단을 포함하는 세트 문항이 특색이었으며 단어 수도 250개 정도였다. 이러한 다 문단의 세트 문항은 계속해서 출제되었다. 특히 2002학년도에는 1개

지문에 2개의 단락이 포함되었고, 2003학년도에는 1개 지문에 3단락을 포함하는 장문 독해 문항도 출제되었다. 2004학년도에도 지문의 길이는 더욱 길어졌다.

출제 유형으로 특이한 것은 없었으나 영어로 인터뷰하는 내용을 읽고 답하는 문항이 1999학년도부터 지속적으로 출제되었다. 쓰기 시험의 유형인 글의 논리적인 순서를 묻는 ‘주어진 문장에 이어질 글의 순서’를 고르는 문항은 실험평가 시기부터 2001학년도까지 계속 출제되어 왔으나, 2003학년도부터는 문단 단위로 되어 있는 지문 속에서 알맞은 순서를 고르는 문항으로 출제되었다. 문장 단위의 논리적인 순서보다는 문단 단위의 순서를 묻는 고차원적인 문항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유형은 2003학년도와 2004학년도에도 계속 출제되었다.

2000학년도까지는 읽기 및 쓰기 평가의 문항수가 38개이고 시험 시간이 60분이므로 한 문항을 푸는데 소요되는 시간은 대략 1분 35초인데, 2001학년도부터는 5문항이 축소되어 33개였고 듣기 평가를 위한 20분을 제외하면 시험 시간이 50분이었으므로 한 문항을 푸는데 소요되는 시간은 1분 30초였다. 따라서 성장기 후반으로 오면서 ‘공통영어’의 범위에서 출제한 내용을 숙독, 숙해 할 수 있는 능력을 측정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001학년도에는 제2외국어 시험이 실시됨에 따라 읽기에서 5문항을 감축하여 33문항을 출제하였다. 문법성 판단력을 묻는 문항은 2개가 출제되었고, 읽기 지문 속에 인터뷰 형식의 말하기 문항이 출제되었다. 세트 문항은 2개 출제하였으며 전체적으로 지문의 길이는 비교적 짧았다. 듣기 평가의 대화 횟수(turn)는 상대적으로 늘어났지만 정답률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수능 역사상 가장 높은 평균점수(상위 50%, 83.1점)를 기록하였다.

2002학년도에는 세트 문항이 2개 나왔고 그 중 하나는 4개의 문단으로 구성된 장문을 지문으로 사용

하였다. 듣기 평가의 대화 횟수 또한 더욱 길어졌다.

2003학년도에는 세트 문항이 3개 출제되었다. 특히 종래의 문장 단위로 글의 논리적 순서를 정하는 문제에서 탈피하여 문단 단위의 논리적 순서를 정하는 문제가 출제되었다. 3개의 문단을 포함하는 세트 문항이 출제되었으며 전체적으로 지문의 길이가 길어졌다. 상위 50%의 평균점수는 전년도와 비슷한 71.3점이었다.

2004학년도에는 제6차 교육과정으로 수험생이 치르는 시험이었다. 그러나 시험 범위는 ‘공통영어’에 국한되어 있었으므로 외국어(영어) 영역의 시험에는 큰 차이가 없었다. 지문의 길이는 전년도와 비슷하였다. 그러나 특이한 것은 3개의 문단으로 된 세트 지문이 3개가 출제되었다는 사실이다. 문단 단위의 논리적 순서를 정하는 문제가 계속하여 출제되었고, 또 그 내용을 묻는 문제도 함께 출제되었다. 출제 형식이 전년도와 비슷하였고 사실적 이해를 묻는 문항이 추론적 이해나 적용 능력을 묻는 문항보다 많았다. 때문에 상위 50%의 평균 성적은 80.4점으로 상승하였다.

성장기의 시험 실시 현황과 결과를 살펴보면, 1999학년도부터 2004학년도까지의 전체 및 계열별 평균 점수(100점 만점 기준)는 다음 <표 3-3-7>과 같다.

1999학년도 수능에서는 외국어(영어) 영역의 시험 범위를 고등학교 1학년 과정인 ‘공통영어’ 수준으로 출제하였기 때문에, 매년 조금씩 평균 성적이 올라가 2000, 2001학년도에는 상위 50%의 점수가 83점으로 종전 시험과 비교할 때 지나치게 상승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2002학년도부터 시행된 수능 점수의 등급화 제도는 더욱더 쉽게 출제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마. 안정기 외국어(영어) 영역의 변화 (2005~2013학년도)

안정기는 2005~2013학년도까지의 기간으로 외국어(영어) 영역은 제7차 교육과정의 적용을 받는 2005학년도부터 시행되어온 체제이다. ‘태동기’에서 ‘형성기’, ‘성장기’, ‘안정기’를 거쳐 현재에 이르기까지 외국어(영어) 영역은 영어 교육 관련 학계와 학교, 사회의 요구를 수용하고, 출제와 시행 과정에서 파생되는 문제점을 수정 보완함으로써 영어 교육의 정상화에도 꾸준히 기여를 해왔을 뿐만 아니라 신뢰할만한 대입 전형자료로서 기능을 충실히 수행해 왔다. 그러나 지난 20년(1994학년도~2013학년도) 동안 외국어(영어) 영역이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온 이면에는 사교육비 경감 대책에 따른 교육 정책의 변화로 상당한 한계점을 내포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안정기는 이런

내적 한계점에 대한 바람직한 개선 방향을 모색해야 할 시기이며, 동시에 실용영어 활성화라는 교육 목표에 보다 충실한 평가 방법을 마련해야 할 시기이기도 하다.

(1) 시험모형

안정기의 출제 범위는 성장기의 고등학교 1학년 ‘공통영어’에서 고교 2~3학년 ‘심화과정’으로 확대됨에 따라 변별력과 난이도 조정이 다소 용이하게 되었다. 문항 수와 배점은 성장기와 동일하지만, 배점은 소수점 대신에 정수로 1점, 2점, 3점으로 차등 배점하고 있다. 2008학년도에는 점수 체제 보고에 일시적 변화가 있었다. 즉, 대입 전형에서 수능이 차지하는 비중을 약화시키기 위해 영역 및 과목별 9등급제가 도입되어, 표준점수나 백분위

〈표 3-3-7〉 1999~2004학년도 외국어(영어) 영역의 계열별 평균점수(100점 만점 환산)

(단위: 점)

구분	계열			전체
	인문	자연	예·체능	
1999	61.0(48.8)	63.7(51.0)	50.4(40.3)	60.9(48.7)
	78.9(63.1)	81.3(65.1)	64.2(51.4)	78.3(62.6)
2000	64.3(51.4)	67.4(53.9)	51.3(41.0)	63.6(50.9)
	84.2(67.4)	87.0(69.6)	67.7(54.2)	83.0(66.4)
2001	66.5(53.2)	71.5(57.2)	53.6(42.9)	66.0(52.8)
	84.1(67.3)	88.7(71.0)	68.6(54.9)	83.1(66.5)
2002	54.6(43.7)	61.3(49.0)	40.5(32.4)	54.1(43.3)
	73.7(58.9)	81.3(65.0)	54.8(43.9)	72.6(58.1)
2003	54.2(43.4)	60.7(48.5)	39.3(31.4)	53.9(43.1)
	72.3(57.8)	79.4(63.5)	51.9(41.5)	71.3(57.0)
2004	64.3(51.4)	70.0(56.0)	47.8(38.2)	63.5(50.8)
	81.5(65.2)	86.6(69.3)	63.1(50.5)	80.4(64.3)

* 점선 위는 전체 평균점수이고, 점선 아래는 상위 50% 집단의 평균점수이고, ()는 원점수임.

점수는 표시하지 않고, 오직 등급점수만 제공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이 방식은 원점수를 등급으로 변환하는 과정에서 원점수 차이가 큰 경우에도 동일한 등급으로 묶이는가 하면, 반대로 작은 점수 차이이지만 서로 다른 등급으로 분류되어 큰 차이로 확대되는 등의 심각한 문제점이 지적되었다. 따라서 2009학년도부터는 다시 등급과 표준점수를 함께 제시하는 종전의 점수 보고 방법으로 회귀하였다.

참고로 2005학년도부터 2013학년도까지 시행된 외국어(영어) 영역의 시험모형은 다음 <표 3-3-8>과 같다.

(2) 평가틀

안정기의 평가틀은 제7차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목표와 내용 및 수준에 맞추어 학교 교육의 정상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출제하고 대학 수학에 필요한 영어 사용 능력을 측정하고자 하였다. 안정기 수능 외국어(영어) 영역의 일반적인 출제 지침은 다음과 같다(한국교육과정평가원, 1998~2012a).

- 제7차 외국어(영어)과 교육과정 목표, 내용 및 수준에 따라 대화, 담화 및 문단에서의 의사소통 기능을 이해하고 활용하는 능력을 측정하되, 대학에서 수학하는 데 필요한 영어 사용 능력을 측정한다.
- 영어와 관련된 단편적 지식의 측정을 지양하고 영어를 의사소통의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측정한다.
- 출제범위를 공통영어 수준에서 심화 선택 수준으로 확대함으로써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달성 정도를 성취 기준에 좀 더 다가가도록 한다.
- 각 문항의 소재는 범교과적 내용으로 한다. 다양한 종류의 글과 정보를 이해할 수 있도록 지문의 소재를 균등하게 배열한다. 각 문항의 지문은 수험생의 배경 지식과 부합되는 상황에 기초하거나 배경 지식과 언어 능력의 상호작용에 의해 이해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 듣기는 원어민의 대화나 담화를 듣고 이해하는 능력을 직접 측정하고, 말하기는 불완전 대화나 담화를 듣고 적절한 의사소통 기능을 적용하여 이를 완성하는 능력을 간접적으로 측정한다.

<표 3-3-8> 2005~2013학년도 외국어(영어) 영역의 시험모형

학년도	출제범위	시험 시간	문항 수	총 배점	문항 배점	문항유형
2005	공통영어 (고1) + 심화선택과목 (고2-3학년) 수준	70분	50개	100점	1, 2, 3점	5지선다형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 읽기는 배경 지식 및 글의 단서를 활용하여 의미를 이해하는 상호작용적 독해 능력을 직접 측정하고, 쓰기는 글의 내용을 이해하고 이를 문장으로 요약하거나 문단을 구성할 수 있는 능력을 간접적으로 측정한다.
- 대학에서 학습을 하기 위해 필요한 심화된 독해 능력을 측정하기 위해 지문의 길이를 늘린다. 80~120단어 내외 어휘로 구성된 단일 문단을 출제하거나 복합 문단이나 장문의 경우 160~240단어 내외로 구성된 지문을 사용한다. 1지문 다 문항을 출제할 경우 300단어 내외 지문을 사용한다.
- 한 지문에 두 개 이상의 문제를 출제하는 경우 그 문제들 간의 상호 관련성 없이 출제하도록 한다.
- 지나치게 유창성을 강조하여 대략적인 의미 이해 문항 일변도를 지양하도록 한다.
- 영어의 유창성뿐만 아니라 정확성을 강조하여 균형있는 언어 사용 능력을 측정하기 위해 어법 문항 수를 증대한다.
- 출제 범위의 확대에 의해 급격한 변화와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영어1 수준의 어휘 중에서 빈도수가 높은 것을 사용하여 출제하도록 한다.
- 참신하고 다양한 문항 유형을 통하여 영어로의 언어 사고 능력에 바탕을 둔 영어 사용 능력을 측정한다. 단, 예년의 문항과 어느 정도 유사성을 유지하도록 하여 급격한 변화는 지양한다.
- 모든 문항은 추측에 의해 답을 맞추는 확률을 줄이기 위해 5지선다형으로 출제한다.

이러한 출제의 기본 방향에 따라 안정기의 평가들은 형성기(1994~1998학년도)의 평가들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표 3-3-4〉 참조).

(가) 출제 범위

안정기의 출제 범위는 범교과적 소재를 활용하여 출제하도록 하였으며, 특정한 교과목이나 교과서를 상정하지 않는다. 다만, 어휘 수준의 경우, 공통영어 수준에서 고등학교 2, 3학년 심화 선택과목 중심으로 출제한다. 심화 선택과목은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을 바탕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도 간접적으로 출제 범위에 포함되도록 한다(한국교육과정평가원, 1998~2012a). 2005학년도 수능에서는 심화된 의사소통 능력을 측정하기 위해서 공통영어(고1 수준)보다 어휘 수를 늘리되 사용 빈도수가 높은 어휘 중심으로 어휘 수준을 높임으로써 수험생의 부담을 크게 증가시키지 않도록 하였다. 단, 빈도수가 낮은 어휘를 사용하는 경우, 주석을 달아주도록 하였다.

심화된 의사소통 능력을 측정하기 위해 듣기·말하기 문항은 60~120내외 단어로 구성된 대화나 담화로 구성하고 대화 횟수(turn)는 8~12회 내외로 하였다. 심화된 독해 능력을 측정하기 위해 지문의 길이를 늘렸다. 80~120내외 어휘로 구성된 단일 문단을 출제하거나 복합문단이나 장문의 경우 160~240내외 단어로 구성된 지문을 사용하였다. 1지문 다 문항을 출제할 경우 300단어 내외 지문을 사용하였다(성장기엔 단일 문단 80~100단어 내외, 복합문과 장문 160~220단어였음). 의사소통 능력의 정확성 배양 차원에서 어휘 및 문법 문항을 포함하였다.

(3) 특이사항

(가) EBS 교재 70% 연계 출제

이명박 정부에서 교과부는 사교육비 경감 정책에 적극 부응하기 위해 2011학년도(2010년 11월) 수능에서 EBS 교재와 연계를 강화하여 출제한다고 발표했다. 연계 비율은 문항 수 기준으로 70%이며, 연계 방법은 영역별로 차이가 있으나 중요 개념이나 원리의 활용, 지문 재구성, 그림, 도표 등의 자료 활용, 문항 변형 등이다. 연계 대상 교재는 당해 연도 수험생을 위한 교재 중 평가원이 감수한 EBS 교재로 정한다고 했다. 이같은 EBS 70% 연계 발표로 수능이 쉽게 출제될 것이라는 믿음이 확산됐다.

그러나 2010년 11월의 실제 수능은 전년보다 훨씬 어렵게 출제됐다. 결국, 당시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2011년 1월 학생들이 학교 교육을 충실히 받고 수능 준비를 할 수 있도록 EBS 수능 교재 및 강의와 수능 출제의 연계를 전년도와 같이 70% 수준으로 계속 유지하고 이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영역별 수능 만점자를 1% 수준이 나오도록 노력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출제 과정에서 EBS 수능 교재 및 강의와 수능 출제의 70% 연계는 난이도와 변별력에서 많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영역별 만점자 1% 역시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 출제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2학년도

수능에서 EBS 교재 70% 연계, 영역별 만점자 1% 출제 원칙은 그대로 유지되었다. 그러나 2013학년도 수능부터는 EBS 수능 교재 및 강의와 수능 출제의 70% 연계는 종전처럼 계속 유지하되, 영역별 만점자 1% 문제점이 많아서 폐지한다고 발표했다. 참고로 2012~2013학년도 수능 채점결과 영역별 만점자 비율은 다음 <표 3-3-9>와 같이 나타났다.

(나) 시험 실시 현황 및 결과 분석

안정기의 외국어(영어) 영역의 응시 현황은 다음과 같다. 2005학년도에 57만 명을 기점으로 2008학년도 54만 3천명까지 응시생 수가 감소했다. 그러나 2009학년도에 55만 2천명, 2010학년도에 62만 9천명, 2011학년도에 65만 7천명으로 계속 증가하다가, 2012학년도에 63만 8천명, 2013학년도에 60만 7천명으로 감소되었다(<표 3-3-10> 참조).

안정기의 시험 결과는 2002학년도에 도입된 영역 과목별 9등급제를 그대로 유지해 오고 있다. 성적 통지표에는 영역 및 선택과목별로 표준점수, 백분위, 등급을 표기하였다. 외국어(영어) 영역은 평균 100, 표준편차 20으로 변환한 표준점수를 사용하였다. 안정기의 외국어(영어) 영역의 등급 구분 점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표 3-3-11> 참조).

<표 3-3-9> 2012~2013학년도 언어, 수리, 외국어(영어) 영역의 만점자 인원 및 비율

영역	2012학년도			2013학년도		
	응시자 수(명)	인원(명)	비율(%)	응시자 수(명)	인원(명)	비율(%)
언어	648,180	1,825	0.28	620,469	14,625	2.36
수리	'가'형	154,482	482	145,693	1,114	0.76
	'나'형	451,485	4,397	433,372	4,241	0.98
외국어(영어)	638,385	17,049	2.67	607,939	4,041	0.66

〈표 3-3-10〉 2005~2013학년도 외국어(영어) 영역의 응시현황

학년도	전체 응시자 수(명)	외국어(영어) 영역 응시자 수(명)
2005	574,218	570,431
2006	554,345	549,544
2007	551,884	546,321
2008	550,588	543,945
2009	559,475	552,503
2010	638,216	629,928
2011	668,991	657,695
2012	648,946	638,385
2013	621,336	607,939

〈표 3-3-11〉 2005~2013학년도 외국어(영어) 영역의 등급 구분 점수

	등급 구분 점수								
	1	2	3	4	5	6	7	8	9
2005	132	125	117	108	95	82	72	66	66미만
2006	133	127	118	107	93	82	74	68	68미만
2007	130	126	118	107	95	82	72	65	65미만
2008*	-	-	-	-	-	-	-	-	-
2009	131	126	117	108	95	82	72	65	65미만
2010	133	126	117	107	94	82	74	68	68미만
2011	132	125	117	107	95	82	72	66	66미만
2012	128	125	119	109	95	82	72	65	65미만
2013	134	126	117	106	94	83	74	66	66미만

* 2008학년도에는 표준점수를 제공하지 않고 등급만 제공하였기 때문에 자료가 없음.

각 연도별 1등급 구분 점수를 비교하면, 2005학년도에 132점, 2006학년도에 133점, 2007학년도에 130점, 2009학년도에 131점, 2010학년도에 133점, 2011학년도에 132점으로 대체적으로 130점 초반 점수로 나타났다. 하지만 2012학년도에는 1등급 구분 점수가 128점으로 하락하였다가 2013학년도에 134점으로 다시 예년과 비슷한 점수를 유지하였다.

바. 외국어(영어) 영역의 성과와 발전 방향

(1) 외국어(영어) 영역의 성과

수능이 중·고등학교 영어 교육에 미치는 환류 효과(washback effect)는 실제로 심대하다. 외국어(영어) 영역에서 음성 언어인 듣기 평가와 간접 말하기 평가의 도입은 학교 영어 교육의 변화를

유도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는 점에서 역사적 의의가 크다. 듣기와 간접 말하기 평가를 통해서 종래의 문법·독해 중심으로 일관된 영어 학습으로부터 표현 중심의 듣기와 말하기 학습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계기가 되었고, 각급 학교의 교실 수업에서는 영어회화 위주의 수업 방법을 모색하게 되었다. 예를 들면, 각급 학교에서는 수업 전 학교 방송망을 통해 영어 듣기 연습을 하는 것이 상례화 되었다. 이는 영어 듣기 시험이 교실 수업에 가져다준 커다란 변화이며, 학교 교육을 의사소통 중심의 영어 학습이 될 수 있도록 발전시키는데 큰 원동력이 되었다.

수능은 종래의 대학입학 학력고사와는 그 성격과 출제 방향 면에서 현저하게 달랐다. 외국어(영어) 영역에서는 7차에 걸친 실험평가 기간 동안에 영어 능력의 평가 방법과 출제 방침에 따라 문항을 개발해서 실험 평가로 실시하였다. 종래의 학력고사와는 완전히 다른 차별화된 출제 내용을 공개함으로써 앞으로 있을 수능에 대비토록 하였다.

이렇게 개발된 출제 방침과 실제 문항 유형들은 일선 학교의 영어 교육이나 수업 방식, 수험생들의 영어 과목 학습 형태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학교 교사와 영어 교육 전문가들로부터 외국어(영어) 영역의 출제 방향이 우리나라 영어 교육의 교수(teaching) 내용과 학습(learning) 방법을 개선하는 데 초석을 이루었다고 평가받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수능 영어 출제 문항은 한국 영어 교육을 대변하는 한국영어교육학회(KATE)를 비롯한 영어 교육 관련 학술 단체들에서 학술적으로 연구하기 시작했고, 최근에는 아시아영어교육학회(Asia TEFL)를 비롯한 중국, 일본의 영어 교육 학자들이 한국의 수능 영어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다.

(2) 외국어(영어) 영역의 발전방향

(가) EBS 교재 70% 연계의 방안

정부의 쉬운 수능 정책에 따라 2012학년도 수능부터 시작한 EBS 교재 70% 연계 출제 정책의 기조는 학교 현장의 학습 과정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클 것이다. 그러나 출제 과정에서는 여러 가지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이 있음을 발견하게 되었다. EBS 교재가 수능 문항 유형에 맞추어져 있어서, 실제 수능에서 지문을 연계해서 활용하는 경우, 분야별, 장르별로 내용이 제한적이고 지문의 길이가 짧아서 실제로 활용하는데 어려움이 많았다. EBS 교재와 연계함으로써 학생들의 학습 부담을 경감할 수 있다고 하지만, 영역에 따라서는 EBS 교재 수준이 높아서 결코 그렇지 않다는 지적이다. 더구나 6월과 9월 모의평가, 11월 본수능까지 3회에 걸쳐 70%를 연계하기에는 EBS 교재 내용과 양이 너무 적다는 지적도 많았다. 시설 입시기관들이 EBS 교재 연계가 가능한 예상 문제들을 단 기간에 집중적으로 훈련하기 위한 문제집을 다량으로 출판하고 있어서, 문항 출제가 용이하지 않았다. 출제 과정에서 시설 입시기관들이 출판한 문제집뿐만 아니라 인터넷에 탑재된 입시 문제들을 모두 찾아내서 기출 문제 여부를 확인한다는 것에 한계가 있었다.

수능에서 EBS 교재 연계가 사교육비 경감과 학생들의 학습 부담을 경감시켜 준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EBS 교재를 수능에 효율적으로 연계하기 위해서는 고등학교 교육의 정상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EBS 교재 70% 연계는 학교 교육에 미치는 영향이 실로 막대하다. 학교 현장에서 교과서를 푸대접하고 단순히 EBS 문제집으로 연습만 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크게 우려된다. 수능 영어가 창의력과 종합적인 사고력, 다양한 배경 지식을 측정하는 시험이라는 점에서

외국어(영어) 영역에서 EBS 수능 교재의 70% 이상을 연계해서 출제해야 한다는 정책은 학교 교육과정 운영의 정상화라는 측면에서 불합리한 점이 있다. 따라서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EBS 교재와의 연계 비율을 하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학생들이 다양한 독서를 통해서 사고력과 창의력을 갖도록 해야 한다. 학교 교과서 내용을 충실히 학습할 수 있도록 하고 독서를 많이 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라도 다양한 장르의 긴 글을 읽고 이해할 수 있는 새로운 EBS 교재 모형 개발이 필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수능을 EBS 교재의 내용에 맞추어서 출제하기보다는 수능의 출제 목적에 적합한 EBS 교재가 새로 개발되어야 한다는 것이 영어 교육 전문가들의 주장이다. 현행과 같이 짧은 지문을 읽고 문제를 연습하는 수능 대비 교재가 아니라 다양한 소재의 긴 글을 읽고 응용할 수 있는 EBS 교재가 개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수능과 EBS 교재 연계에 따른 '전문가협의회'를 구성하고 학교 영어 교육의 정상화 방안, EBS 교재 모형 개발과 활용방안 연구, 수능 출제의 용이성 등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

(나) 말하기·쓰기 평가의 필요성

제7차 교육과정을 기반으로 한 '2011개정 교육과정'에서는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등 영어의 4 가지 기능을 고루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 외국어(영어) 영역 시험은 듣기와 읽기에 큰 비중을 두고 있으며, 말하기와 쓰기는 직접 평가하지 않는다. 이러한 불균형 때문에 영어의 4가지 기능의 성취 정도를 타당하게 평가할 수 없다. 21세기는 영어가 공용어(English as a *Lingua Franca*: ELF)로 사용되는 세계화 시대다. 실용 영어 중심의 의사소통 능력이 중시되는 현실을 감안할 때, 외국어(영어) 영역에서 말하기와 쓰기 능력을 평가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그래야 학교 영어

교육이 바뀐다. 앞으로 외국어(영어) 영역 시험에서는 듣기·말하기·읽기·쓰기 등 4가지 기능을 균형있게 평가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다.

말하기와 쓰기는 5지선다형 시험의 제약으로 인해 간접 평가하고 있다. 하지만 말하기와 쓰기 문항들이 실제 영어로 말하고 쓸 수 있는 능력을 타당하게 측정하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아직 확보되지 않았고, 현재 사용 중인 문항의 유형도 매우 제한적이다. 그러므로 간접 평가 대상인 말하기와 쓰기 문항 유형을 개선하고, 각 유형의 타당성 여부를 가리는 실증적 연구를 지속적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다.

(다) 지시문, 질문, 답지를 모두 영어로 전환

학교에서 실용영어 교육을 강화하고 국제 공인 평가의 흐름에 맞추어 외국어(영어) 영역의 지시문과 질문, 선택지 모두를 영어로 제시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이는 학생의 학습 부담과 교사의 수업 부담이 증가할 수 있으며, 또한 상위 변별력보다는 하위 변별력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부담이 있지만, 예상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먼저 영어로 제시된 지시문, 질문 및 선택지에 대한 표준화된 매뉴얼(tutorial)을 발간하고, 이를 일선 학교에 보급하여 사전에 교육하면 될 것이다. 또한 6월·9월 모의평가에서 수험생들이 영어로 제시된 지시문, 질문 등을 경험하게 하여 익숙해지도록 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수험생들이 영어로 제시된 지시문 등을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EBS와 협력하여 EBS 수능 교재에 영어로 된 지시문, 질문 및 선택지를 사용하도록 권장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

(라) 시험 문항 개발 시스템의 개선

평가원은 출제위원이 참고할 수 있는 원전을 가급적

다양하게 구비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출제진들이 희망하는 정도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예측한 출제위원들은 각자 입소할 때 지참한 원전들을 참고하여 출제 작업을 진행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지금보다 훨씬 다양한 원전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다만, 상업용 참고서나 문제집을 제작하는 많은 출판사들이 영어 학습용 원서를 포함한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대다수의 원전을 쉽게 입수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다수의 영어권 국가 출장을 통해 국내에서 구하기가 거의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원전을 수시로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수능은 6월 및 9월 모의평가, 11월 본수능 등 연 3회 실시하는데, 세 번의 시험에서 난이도가 동일해야 한다. 시험의 난이도가 각각 다르면 여러가지 부작용이 따르게 된다. 따라서 난이도가 동일한 수능 시험을 매년 3회 준비하려면 문제은행(item bank) 방식으로 출제 시스템을 전환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은행 출제 방식이 성공하려면 막대한 재정과 시간 투자 그리고 철저한 보안이 필요한 사안이다. 문제 출제 및 선제, 신뢰도 확보를 위한 파일럿 테스트, 최종 문항 검토 등에 필요한 자원과 인력은 현재의 규모로는 역부족이다. 평가원이 최소한 미국의 ETS(Educational Testing Service)의 규모(1,100명의 전문가를 포함한 2,500명의 상근 근무원 가운데 교육 관련 박사 학위 소지자가 240명임) 정도가 되도록 재정적·인적 자원이 지원되어야 할 것이다.

문항 개발과 관련한 현실적인 문제로 보안을 걱정할 수 있다. 수능 시험은 한 달 이상 동안 600여명의 출제 및 검토위원들이 외부와 철저히 차단된 장소에서 구금된 상태로 함께 생활하면서 출제한다. 시험 출제와 관련한 보안 문제 때문에 20년 전과 똑같이 해오고 있다.

일본의 경우는 대학입시 출제위원들이 출퇴근 하면서 2년 후에 실시될 시험 문항을 미리 출제한다.

그래도 아무런 보안 문제가 없다. 왜 그럴까? 시험 출제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 문제다. 지금부터라도 수능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바꾸도록 홍보할 필요가 있다.

(마) 문항 검토 교사 활용 방안

문항 검토위원들의 업무 부담이 가중되어 기출 및 유사 문항 검색에 한계가 있다. 개선 방안으로 검토 분량을 고려하여 검토위원을 늘리도록 해야 한다. 검토위원들은 각 문항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높이고, 기출 여부를 가려내는 데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특히, 대부분의 검토 교사들은 다년간의 영어 교육 경험과 탁월한 영어 구사 능력을 겸비하고 있어서 교육과정 부합도와 난이도 조절에 일조하였다.

출제위원들이 장시간 토의를 거쳐 완성한 문항이 검토위원들에 의해 기출 문제로 확인되는 경우가 흔히 발생하는데, 이 경우 장시간의 문항 제작 과정을 반복해야 한다. 이러한 시간과 노력의 낭비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기출 여부를 신속하게 판단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야 한다. 예를 들어, 스캐너 등의 장비를 사용하여 상업용 참고서나 문제집에 수록된 대화·담화·문단들을 컴퓨터에 입력하고,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지문의 중복성을 자동으로 점검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 엄청나게 쏟아져 나오는 참고서와 문제집들을 평가원이 신속하게 입수하여, 모든 대화·담화·문단을 수시로 컴퓨터에 입력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전문 인력을 동원하여 지문의 비교를 자동화할 수 있는 온라인 자료 검색 시스템을 개발한다면, 기출 여부와 관련된 시비의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방안은 검토 작업뿐 아니라 출제진이 원전에서 문항 지문을 인용하는 과정에서도 활용할 수 있으므로 바람직하다.

(바) 학교 영어 교육의 정상화 방안

외국어(영어) 영역의 출제 기본 방향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외국어(영어) 영역은 대학에서 수학에 필요한 영어 사용 능력의 기본을 측정하는 시험이다. 고등학교 영어과 교육과정의 교육 목표를 달성한 정도를 측정하고, 영어과 교육과정에 제시되어 있는 영어 사용 능력을 함양할 수 있는 실용영어 수업이 진행 되도록 출제한다. 듣기(청해)와 읽기(독해) 영역을 평가하며, 말하기는 듣기를 통해서 쓰기는 읽기를 통해서 간접 평가 방식으로 출제한다. 읽기(독해)는 단락 속에 담긴 내용을 사실적 이해, 추론적 이해, 감상이나 판단과 같은 종합적 이해, 적용 능력을 중심으로 출제하고, 듣기(청해)는 대화나 담화 속에 담긴 내용을 사실적 이해, 추론적 이해, 종합적 이해를 하였는지를 측정하는 수준으로 출제한다.

외국어(영어) 영역의 출제 방향에 관한 기본 원칙이나 평가틀을 살펴보면, 영어의 정확성보다는 유창성을 강조하고, 지식 체계로서의 영어보다는 의사소통의 수단으로서 영어 사용 능력을 강조해 왔으며, 그리고 단순한 암기력 측정을 탈피하고 사고력 측정을 지향해 왔다. 이는 고등학교 현장 영어 교육을 정상화하는데 크게 기여했을 뿐만 아니라 의사소통 중심의 다양한 교수·학습 방법을 유발시켰다. 종래의 정확성을 고집하는 암기 위주의 문법·번역식에 의한 수업이 더 이상 고등학교 교실에서 환영받지 못하게 되었으며, 영어의 네 가지 기능을 골고루 강조하는 경향이 두드러졌다. 이는 고등학교 영어과 교육과정이 명시하는 목표와 부합하는 긍정적인 변화라고 간주할 수 있다.

하지만 제6차 교육과정과 제7차 교육과정, 제7차 개정 교육과정, 2009 개정 및 2011 개정 교육과정의 변화를 거치면서 영어 교육의 목적과 교수·학습방법

및 평가의 변화, 그리고 수능 문항 유형의 고착화에 따른 제반 문제점을 감안할 때, 외국어(영어) 영역은 몇 가지 내용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외국어(영어) 문항의 유형은 수능 도입 이후 거의 변하지 않았으며, 이로 인해 고등학교 현장에서 유창한 영어 사용 능력 자체보다는 각 유형에 대처하는 요령(test-wiseness)만 가르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실제로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많은 참고서와 문제집도 시험 요령을 가르치는 데 치중하고 있다. 이는 의사소통 중심의 영어 교육이라는 대원칙에 위배되는 현상으로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다.

문항 유형의 고정화와 관련된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대학수학능력을 보다 명확하게 정의·분석하여 이 능력을 타당하게 측정할 수 있는 문항유형을 개발해야 할 것이다. 또한 대학 수학 능력과 교육과정의 학습성취기준을 타당하게 측정할 수 있는 시험 문항의 유형을 다양화해서 새롭게 개발해 나가는 작업이 필요하다.

수능이 1994학년도에 처음으로 도입된 이래 몇 차례 변화를 거쳤다. 교육부는 2007년 2월에 제7차 교육과정(교육부고시 제1997-15호)을 토대로 제7차 개정 교육과정(교육인적자원부고시 제2007-79호)을 발표하였고, 이어서 2011 개정 교육과정(교육과학기술부고시 제2011-361호)을 발표하였다. 현행 외국어(영어) 영역은 제7차 교육과정을 반영한 평가 체제로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세계화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학생들이 영어(World English)로 의사소통할 수 있는 실용영어 교육을 강화할 수 있도록 외국어(영어) 영역의 평가 방법이 개선되어야 한다는 요구가 크다.

사교육비 과다 지출에 따른 경감 대책, EBS 교재 70% 연계, 쉬운 수능 정책에 따라 영역별 만점자 1%와 같이 정부가 바뀔 때마다 다양한 분야와 계층의 요구에 따라 대학입시 정책을 결정하게 되면, 수능이 추구하는 본래 목적과 취지에서 벗어나 학교 교육의 내실화를

기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이 학교 교사나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사교육비 과다지출은 사회적으로 용인할 수 없는 일이지만, 대학입시 정책이 사교육비 경감 대책에만 초점이 맞추어지면 학교 교육의 정상화 그리고 수능의 개선과 발전은 기대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수능은 일차적으로 학교 교육을 정상화하는 데 목표를 두어야 한다. 다음으로 대학에서 수학할 수 있는 능력을 정확하게 측정하는 데 목표를 두어야 한다. 학교 교육의 정상화를 기할 수 있고 대학에서

수학할 수 있는 능력을 정확하게 측정하기 위해서는 듣기(listening)와 읽기(reading) 중심의 현행 외국어(영어) 영역의 평가 체제가 말하기(speaking), 쓰기(writing) 중심의 의사소통 능력을 강화하고 실용영어 교육을 활성화할 수 있는 새로운 평가틀로 전환될 수 있도록 연구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지속가능한 국가 차원의 지원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제4절

사회탐구 영역

도성달(한국학중앙연구원)

가. 개요

(1) 도입 배경과 취지

1994학년도 수능부터 실시되어 이제 20년의 성년을 맞은 수능은 학생, 학부모, 교육계, 교과목 관련자들 등 다양한 이해 당사자들의 상호 작용에 의해서 구체적인 모습을 갖추게 되었고 시행 과정에서도 끊임없이 변화를 거듭해왔다. 1994학년도에 처음 실시된 수능에 사회과 영역이 포함되느냐 하는 문제는 상당히 긴 논의 과정을 거쳐서 결정되었다. 이 논의의 과정은 1987년부터 시작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교육부장관의 정책자문기구인 ‘교육개혁심의회’에서는 ‘교육개혁종합 구상’에서 그 당시 실시하고 있던 ‘대학입학학력고사’를 ‘대학입학 적성시험’으로 전환할 것을 제안하였다. 그 이유는 당시에 시행되던 학력고사 제도는 교과목별로 단편적 지식 위주로 출제되었는데, 이를 지양하고 학업 적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범교과적인 새로운 모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를 근거로 수능의 성격을 범교과적 적성검사로 할 것인지 아니면 교과 영역별 적성검사로 할 것인지에 대한 논쟁이 있었다.

수능이 개발되던 초기의 분위기로 보면, 사회탐구 영역은 새로운 대학입학 시험에 포함될 가능성이 매우

낮았다. 이 시험에 대한 초기 연구들은 국어, 수학, 영어 세 가지 기본 영역으로 한정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아갔다. 그런데 여론 수렴의 과정에서 우리나라에서 대학입시는 고등학교 교육의 신호기 역할을 한다는 점, 그리고 국어, 수학, 영어 중심의 시험 제도는 과외 공부를 더욱 부추길 염려가 있다는 견해의 지지를 받아 다른 교과목들도 시험 과목에 포함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사고력이나 적성을 측정하는 시험에서 사회탐구 영역의 개별 교과목을 포함하는 데에 대한 저항이 만만치 않았다. 결국 사회탐구 영역은 연구 방법론에서 탐구라는 공통의 속성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여 사회탐구 영역 개별 교과목을 시험 과목에 포함시킬 것을 제안 하였다.

우여곡절 끝에 1993년에 명칭을 ‘대학수학능력 시험’으로 하고 시험 과목을 언어, 수리·탐구 영역, 외국어(영어) 영역으로 한다는 최종안이 확정 발표 되었다. 수리·탐구 영역은 수리 영역과 탐구 영역으로 구분되는데, 탐구 영역은 과학탐구와 사회탐구 영역으로 구성되었다. 사회탐구 영역이 포함된 것은 사회탐구를 통해서 고차적인 사고력을 함양할 수 있고, 무엇보다도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전반적으로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는 취지에서이다. 논의 당초에는 사회탐구 영역이 수능 과목에 포함된 것은

고등학교 교과목이기 때문에 마지못해 수용되었다는 인식이 강했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 수능이 정착되면서 수리 영역과 탐구 영역에 대한 구분이 명백히 인식되었고, 또한 사회탐구와 과학탐구도 독자적인 영역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2) 사회탐구 영역의 성격 및 평가목표

사회과에서는 ‘탐구’라는 말이 이미 오래 전부터 사용되어 왔다. 사회과는 이러한 탐구 방법론을 가지고 시험모형을 정립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여 왔다. 사회과 교육에서 과학적 방법론이 정착하게 된 것은 객관주의 인식론에 근거하고 있는 사회과학적 연구방법이 발견학습 또는 탐구학습이라는 이름으로 사용되면서 부터이다. 사회과에서 활용되고 있는 탐구, 반성적 사고, 고등사고력, 의사 결정 능력 등의 개념들은 사회과 과목이 단순히 암기 과목이 아니라 탐구학습의 학문적 내용과 방법론을 갖추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급격히 변동하는 현대 사회의 모습을 학교 교육을 통해서 모두 가르친다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지식을 학습자 스스로 발견하고 습득해 가는 탐구 과정이 강조되는 것은 당연하다. 이러한 탐구 능력을 학생들의 학업 적성으로 중시하고 평가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과거의 대입 학력고사에서 사회과 영역은 단순 암기 능력을 측정한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 그래서 수능의 사회탐구 영역을 분석능력, 의사 결정 능력, 추론 능력 등과 같은 고차적 사고능력을 측정하기 위한 방향으로 전환하고자 한 것이다.

그런데 사회탐구 영역은 윤리, 정치, 경제, 사회·문화, 지리, 역사 등 다양한 교과목을 포함하기 때문에, 당초에는 어떤 교과목은 포함시키고 어떤 것은 포함시키지 않을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빈번했다. 사회탐구 영역의 가장 큰 문제점은 사회과의 교과목이

많은데 비해 수능 전체에서 사회탐구 영역이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적었다는 점이다. 초기의 수능 총 200점 중에서 수리·탐구 영역(Ⅱ)은 60문항인데, 이 중에서 33문항이 과학탐구이고 27문항이 사회탐구 영역이었다. 이 27문항은 다시 윤리 3, 정치 3, 경제 3, 사회문화 2, 지리 8, 역사 8 문항으로 나누어졌다. 전체 문항에서 보면 사회탐구 영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13.5%에 불과했다. 이리다 보니 사회 현상의 통합적 이해라는 사회 영역의 당초 목표에도 미흡할 뿐만 아니라 몇 과목 중심으로 분할됨으로써 사회교과의 통합교과적 출제라는 원칙도 지켜지지 못했다.

다음과 같은 대학수학능력시험 기초연구회(1991)의 설명을 요약한 것에서 학력고사와 비교한 수능의 특징이 잘 나타난다.

- 고등학교에서 달성해야 할 교육 목표를 평가의 요소로 한다는 점은 학력고사와 다를 게 없다.
- 각 교과목의 내용별 목표보다는 대학 수학에 필요한 도구적 능력을 평가목표로 한다는 점은 학력고사와 크게 달라지는 점이다.
- 측정 방법에서 보면 교과별, 내용영역별 측정보다는 통합교과적으로 측정하고 행동영역별로 측정하고자 한다.
- 교과별 측정을 지양하고 영역을 언어, 수리, 탐구, 외국어(영어)로 하여 범 교과적 구분을 한다.
- 수리·탐구 영역은 고등학교의 수학, 자연과학, 사회과학 영역에서 학습한 개념과 원리를 이용하여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책을 찾는 탐구력이나 문제 해결력과 같은 고차적 사고력을 측정한다. 즉 단순한 지식의 암기는 지양한다.

수능의 이러한 목표를 사회탐구 영역에 적용해 보면, 사회탐구 영역은 인간과 사회에 대한 교과목의 교육 목표를 평가의 대상으로 삼는다. 다시 말해 고등학교의 윤리, 정치, 경제, 사회·문화, 지리, 역사 등과 같은

사회과 과목이 명시하고 있는 교육목표를 얼마나 잘 성취하느냐를 측정하는 것이다. 그런데 수능은 단지 고등학교 교육의 성취도를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대학에서의 수학 능력 적격자를 선발하는 시험이다. 이렇게 보면 수능은 대학에서 개설되는 인문사회과학 분야의 강의를 학습하는데 필요한 능력과 태도를 평가하는 것이다. 철학, 역사학, 심리학, 정치학, 경제학, 사회학, 인류학, 지리학, 법학 등의 과목을 수학하는데 요구되는 최소한의 개념, 원리, 연구 방법, 학문적 태도 등이 그것이다. 또한 측정하려고 하는 능력은 탐구력, 문제 해결력, 고차적 사고력과 같은 고도의 지적 차원이다. 그러므로 수능의 사회탐구 영역은 고등학교의 사회과 과목에서 추구하는 교육 목표를 평가하고, 나아가 대학에서 사회과학 분야의 전문적 지식을 공부할 수 있는 기초적 능력을 측정하는데 그 목표를 둔다.

나. 태동기의 사회탐구 영역의 변화 (1986~1992년)

사회탐구 영역에서 태동기는 실험평가를 통해 평가 모형을 완성하고 문항 유형을 확정하는 시기로, 수능의 도입이 논의되던 1986년부터 1992년까지이다. 1990년에 일반계 고등학교 2학년생을 대상으로 첫 실시한 이래로 총 7차례에 걸쳐서 실험평가가 이루어졌다. 실험평가의 목적은 수능 모형개발, 시험관리 능력 축적, 교사 학부모·학생 등 이해 당사자의 이해 증진이 주목적이었다. 제1차 평가는 5지선다형 80%와 주관식 20%의 비율로 시험이 실시되었지만 채점의 불편 때문에 2차 평가 때부터는 모든 문항을 객관식으로 바꾸었다. 1차에서 3차까지의 실험평가에서 수리 분야와 탐구 분야의 배점은 각각 50점이었으나 4차부터는 고등교육과정의 수업 단위를 고려하여 수리 분야는 40점, 탐구 분야는 60점으로 확대하였다. 6차 실험평가부터는 수리·탐구 영역(I), (II)로 구분되었으며 사회탐구 영역은 수리·탐구 영역(II)에 포함되었다.

〈표 3-4-1〉 1~7차 실험평가 탐구 영역의 시험모형

차수	배점(점)		문항 수		시간(분)
	탐구 영역	사회탐구	탐구 영역	비율(%)	수리·탐구
1	50	23*	46	20	120
2	50	23	50	23	120
3	50	23	50	23	120
4	60	27	60	27	120
5	60	27	60	27	120
6	60	27	60(수리·탐구Ⅱ)	27	90(수리·탐구Ⅱ)
7	60	27	60(수리·탐구Ⅱ)	27	90(수리·탐구Ⅱ)

* 1차 시험의 경우 주관식 2문항 포함

(1) 시험모형

1차~7차까지 실험평가 탐구 영역의 시험모형은 <표 3-4-1>과 같다.

실험평가에서 수리·탐구 영역은 수학, 과학, 사회 영역의 점수를 모두 혼합해서 결과 처리했기 때문에 사회 영역의 난이도나 평균점수를 따로 구할 수 없다. 수리·탐구 영역의 실험평가 점수는 100점 만점에 평균 35.1점으로 낮은 점수였다. 그 이유는 학업성취도가 낮은 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한 점도 있었지만, 사고력을 측정하려는 의도에서 실험평가 문항의 난도가 높았기 때문인 것으로 짐작된다.

실험평가는 수능의 모형 개발과 틀을 정착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사회탐구 영역 실험평가 문항은 고등학교 교육의 정상화에 기여하고 사회교과의 탐구력을 신장시키며, 또한 통합교과적 행동 목표를 측정하고 암기력보다는 고차적 사고력을 측정하고 실생활 중심의 실천적 교육을 위한 기본 방향으로 출제되었다. 그러나 실험평가 당시부터 문제점으로 지적된 것은 통합교과적 문항의 비중이 낮고 가치 판단이나 의사 결정 능력을 측정하는 문항들이 적게 출제된다는 점이었다. 또한 실생활 중심의 사례를 많이

이용하다보니 학교 교육을 다소 소홀히 할 수 있다는 지적도 받았다. 그러나 이 시기의 사회탐구 영역은 단순 암기 측정이라는 인식이 사라지고 과학적인 탐구 방법에 의해서 학습할 수 있는 좋은 문항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2) 평가틀

(가) 내용영역

수능의 사회탐구 영역의 평가틀은 한면희, 정세구, 최현섭 교수 세 명의 모형을 근거로 만들어졌다. 한면희 교수가 제안한 사회탐구 영역의 대학적성 시험의 평가 요소는 사회정보의 기억 및 인지, 어휘력, 자료의 이해력 및 의문능력, 자료의 해석력, 자료의 분석력, 추리력의 여섯 가지이고, 구체적으로는 6개의 요소 아래 57개의 하위 요소를 제시하였다. 그는 행동 요소 혹은 적성 요소를 기초로 <표 3-4-2>와 같이 이원분류표를 작성하였다(중앙교육평가원, 1990).

한면희 교수는 내용영역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지리, 역사로 구분하였는데, 교과 내용면에서는

<표 3-4-2> 한면희 교수의 사회탐구 영역의 이원분류표

	사회 정보의 기억 및 인지	어휘력	자료의 이해 및 의문력	자료의 해석력	자료의 분석력	추리력	계(비율)
정치	2	2	2	3	3	2	14(15%)
경제	2	2	2	3	3	2	14(15%)
사회	1	1	1	2	3	1	9(10%)
문화	1	1	1	3	2	1	9(10%)
지리	3	3	4	4	5	3	22(25%)
국사 및 세계사	3	3	3	4	5	4	22(25%)
계(비율)	12(13%)	12(13%)	13(15%)	19(21%)	21(23%)	13(15%)	90(100%)

* 90문항을 기준으로 만들어짐.

고등학교의 사회과 교과목 비중을 고려하면서도 사회과학 일반 분류를 많이 반영하고 있는 특징을 보인다. 한편 최현섭 교수의 제안은 실제 실험평가 단계에서 채택되지는 않았지만, 인지 심리학의 일반 모형을 사회탐구 영역에 도입하여, 내용 중심이 아닌 행동 중심의 평가모형을 시도 했다는 점에서 이후 제안들의 모태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최현섭 교수는 이미 과학탐구에서 제시되고 있던 3차원 모형을 제시하였다(황정규 외, 1992). 이 아이디어는 기본적으로 과학과 사회과학 영역은 탐구라는 큰 원칙을 고수하면서 다만 분석 대상을 자연현상이나 사회현상이나 하는 대상의 차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의 모형은 사회교과에서 다루어지는 학문적 지식과 개념을 이용하고, 생활 관련 탐구 소재를 자료로 하여 사회교과가 목표로 하는 행동요소를 측정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이 안은 과학탐구의 3차 모형과 서로 호응하도록 되어 있어서 후반부

실험평가부터 이 준거 틀에 따른 문항 제작이 시작 되었다. 최현섭 교수가 제시한 사회탐구 출제의 내용 측면의 비율은 탐구 상황을 기준으로 한 것으로 학문 영역별 구분과는 무관한 것이다. 그는 구체적으로 통합적 문항을 60%, 학문 영역별 문항을 40%로 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최현섭 교수의 모형이 오늘날 시행되는 수능의 사회탐구 영역의 중심적 틀이 되었다.

(나) 행동영역

사회탐구 영역의 행동영역에 대한 평가틀에 대해서는 사회탐구 능력의 평가 요소를 사회 지식 탐구와 사회가치 탐구 능력으로 구분하여 제안한 정세구 교수의 안이 많은 도움이 되었다. 이 제안은 사회탐구 영역의 탐구 능력의 평가를 인지적 영역과 정의적 영역으로 양분하여 평가한다는 점이 다른 모형과 차별화되는데, 특히 정의적 영역의 평가를

〈표 3-4-3〉 최현섭 교수의 사회탐구 영역의 내용 요소별 비중

관련 학문	탐구 상황	평가 행동	개념 이해와 문제 파악	조사와 실험의 설계 및 수행	정보와 자료의 이용과 분석	검증과 결론 도출 및 해석	가치 판단과 의사 결정	비율(%)
심리학	개인 관계							7%
사회학	가정과 지역사회							11%
인류학	학교와 조직 생활							19%
철학과 윤리학	국가와 사회구조							22%
정치학	세계와 국제 관계							19%
경제학 지리학	지구와 환경							11%
역사학 기타	과거와 미래							11%
비율(%)			11%	19%	29%	22%	19%	100%

점수화 한다는 생각이 매우 인상적이다. 탐구는 문제 해결, 발견 혹은 반성적 사고와 밀접한 연관을 갖는데, 이는 듀이(J. Dewey)의 반성적 사고와 동의어로 사용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탐구 능력은 사회과학자들이 사용하는 과학적 탐구 방법을 동원하여 사회과학 지식을 창출하는 사회지식 탐구 능력과 가치에 대한 분석과 명료화 과정을 거치도록 하였다. 이것은 합리적인 가치 판단을 하고 가치를 내면화할 수 있는 능력을 사회 가치 탐구 능력으로 본 것이다. 따라서 대학교육 적성시험 특징은 가치 탐구를 강조하는 것인데, 사회적 가치 문제 파악은 주어진 자료에서 가치 문제를 밝혀내고 가치갈등을 표현하는 능력, 가치 문제와 사실 문제를 구분하는 능력을 말한다. 그리고 가치 판단의 근거와 가치 판단의 원리 검사 기능은 주어진 사태에서 내린 자신의 가치 판단 원칙을 다른 경우에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파악하는 것이다. 그가 제시한 사회 영역의 탐구 능력은 <표 3-4-4>와 같다.

정세구 교수는 실험평가의 전반부에 사회 영역 문항 개발과 전체 틀을 개발하는데 주도적 역할을 하였다. 실제로 그의 모형이 4차 실험평가까지 준거틀로 사용되었다. 1991년 5월 24일에 실시된 2차 실험평가에 즈음하여 나온 보도자료를 보면 “사회 영역의 출제 방향은 사회과학 지식의 암기가 아니라 연역적, 귀납적 탐구 과정을 거친 후 나름대로 일반화된 결론을 추론하는 능력을 강조하고 합리적 가치 판단을 내리는 경험을 갖도록 출제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출제 내용은 사회 지식 탐구 능력, 가치의 구별 파악 기능, 가치 판단의 근거 제시, 가치 판단의 원칙에 대한 검사를 담고 있다.

4차례의 실험평가를 마치고 1991년 말에 나온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영역별 출제전략 방안 연구’에서 1994학년도 수능 사회탐구 영역의 이원분류표가 완성되고 행동영역이 다음과 같이 5개로 정리되었다.

행동영역의 첫 번째 평가 기준은 문제 파악 능력이다.

- 주요한 개념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주어진 자료 속에서 핵심적인 개념이나 제기되는 문제를 포착할 수 있는가?
- 유사 개념이나 문제와의 차이를 변별할 수 있거나 보다 상위 수준으로 개념화 할 수 있는가?
- 주어진 논쟁점이나 문제의 성격과 중요성을 바르게 파악하거나 실제의 현상과 연관지어 파악할 수 있는가?
- 주어진 주장, 사고 방식의 바탕이 되는 전제나 기본적인 가정을 추정할 수 있는가?

두 번째는 실험·조사의 설계와 수행 능력이다. 이와 같은 능력에 대한 평가에는 다음과 같은 영역과 형태가 포함된다.

- 주어진 자료에서 개념이나 요소들의 연관 관계를 추정하거나 가설을 설정할 수 있는가?

<표 3-4-4> 정세구 교수의 사회 영역의 탐구 능력

사회지식 탐구 능력	1.0 사회 문제 인식 가능 2.0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가설 설정 및 탐색 가능 3.0 사회 정보 혹은 증거 수집 가능 4.0 가설 검증 혹은 결론 도출 가능
사회가치 탐구 능력	5.0 사회 가치 문제 파악 기능 6.0 선택한 가치의 타당한 근거 사실 검증 기능 7.0 가치 판단의 원칙에 대한 검사 기능

* 한국교육과정평가원(2005a)

- 개념의 조작적 정의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거나 변별해낼 수 있으며, 기타 변인을 통제할 수 있는가?
- 실험 또는 조사를 고안하고 그것을 수행하는 적합한 절차를 알거나 추정할 수 있는가?
- 자료 수집, 관찰, 측정을 할 수 있거나 그 방식을 추정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분석, 정리, 도표화할 수 있는가?

셋째는 정보와 자료의 분석과 이용 능력이다.

- 주장, 진술문, 도표 등의 형태로 주어진 자료의 핵심 내용과 성격을 파악할 수 있는가?
- 제공된 자료의 신빙성과 적합성을 변별할 수 있는가?
- 자료를 목적과 필요에 따라 계열화하거나 재조직할 수 있는가?

넷째는 검증과 결론 도출 및 해석 능력의 파악이다. 여기에서 평가하는 영역과 능력은 다음과 같다.

- 여러 가지 형태로 주어진 자료의 공통성, 경향성, 규칙성 등을 파악하거나 가설, 일반화, 결론, 모형, 해석 등을 입증하기에 적합한가를 판별할 수 있는가?
- 가설 검증이나 결론, 일반화, 모형, 해석에 이르는 절차와 입증 자료 또는 필요 조건을 추정할 수 있는가?
- 가설, 결론, 일반화, 모형의 논리적 정당성이나 자료에 의한 타당성을 판별할 수 있고, 이론과 관련지어 해석할 수 있는가?

다섯째는 가치 판단과 의사결정 능력이다.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평가 대상이 된다.

- 사실과 가치 또는 실제 묘사와 의견을 구분할 수 있으며, 제기되거나 대립 또는 갈등을 일으키는 상황과 가치를 식별할 수 있는가?
- 여러 가지 대안으로서 제기되거나 나열되어 있는 가치와 의사를 비교하거나 선택의 타당한 근거 제시와 결과 예측을 할 수 있는가?
- 실천이 요구되는 행위 속에 담긴 원리와 기준을 탐색할 수 있으며, 목표와 수단의 구분, 가치 선택과 의사 결정의 정당성을 제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3) 특이사항

1차 실험평가 문제는 수리·탐구 영역에서 7개의 주관식 문항이 출제되었다. 문항의 배열이나 혼합 방식을 보면 수리·탐구 영역을 하나의 큰 영역으로 묶으려는 의도가 강했다. 문항 체계는 통일성을 유지했지만 문항의 배열은 수학, 과학, 사회의 순서였다. 사회 영역은 가장 뒤쪽에 배열되었으며 18개 객관식 문항을 출제하였다. 1991년에는 3회에 걸쳐 실험평가가 실시되었는데, 2차와 3차는 1차와 동일한 형식으로 치러졌다. 문항 수가 20개에서 3개 늘어나 문항 배치와 점수는 23개 문항 모두 1점짜리였다. 그리고 1992년에 다시 3회 더 실시하여 총 7번의 실험평가가 이루어졌다. 4차 이후에는 사회탐구 영역의 문항 수가 23개에서 27개로 늘어났다. 문항별 배점은 실험평가 내내 모든 문항이 1점이다. 6차부터는 수리·탐구에서 수리·탐구(I)의 수학 영역과 수리·탐구(II)의 탐구 영역으로 구분되어 서로 다른 시간에 시험이 실시되었다. 형식도 많이 정비되어서 복수의 정답을 구하는 문항은 7개에서 1개로 제한하였다.

또한 사회탐구 영역의 실험평가는 정치·경제, 지리, 역사, 윤리 4 영역에서 각각 1명씩 총 4명의

출제위원이 참여하는 문항을 만들다보니 어려움이 많았다. 출제위원들이 인접 전공 영역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사회 영역의 전 문항을 엄밀하게 검증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실생활과 관련된 소재를 많이 이용해서 출제하려다 보니 사회적으로 민감한 문제들이 출제될 가능성이 높아 많은 신경을 써야 했다. 예컨대 보신탕은 한국인의 보편적 음식 중에 하나인데, 이를 소재로 문화의 특수성과 다양성을 설명하는 하나의 사례로 출제하는 것에 대해 많은 논쟁이 있었다. 그리고 정치나 경제 관련 문제, 윤리 영역의 통일 관련 문제는 여러 이해 집단의 공격을 받을 수 있는 소재이기 때문에 출제에 조심스러운 부분이었다.

다. 형성기의 사회탐구 영역의 변화 (1994~1998학년도)

사회탐구 영역에서 이 시기는 7년의 준비 끝에 처음 수능이 실시된 1994학년도부터 1998학년도까지이다. 처음 수능이 실시된 1994학년도에는 2회 시행되었는데, 질병이나 실수 등으로 인해 수험생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고 자신의 성적 수준을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게 하려는 것이었다. 이 시기의 사회탐구 영역의 전체적인 틀은 실험기의 형식을 그대로 유지하였고, 단지 수리·탐구(Ⅱ) 영역의 시험 시간을 실험평가 때의 90분에서 100분으로 늘렸다. 그런데 1994학년도에 치러진 두 번의 수능 가운데 두 번째 시험의 평균점수가 첫 번째보다 낮게 나왔다. 시험을 두 번 치게 함으로써 오히려 수험생들에게 부담을 증가시키고 출제 비용만 가중시키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 그래서 1995학년도부터는 연 1회 시험을 실시하게 되었는데 이 원칙은 지금까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1995학년도부터는 수리·탐구(Ⅱ)의 과학과 사회탐구 영역에서 변화가 생긴다. 인문계열,

예·체능계열, 자연계열을 분리하여 인문계열, 예·체능계열은 사회 영역의 문항 수를 늘려서 사회와 과학 영역의 문항 수를 각각 36문항과 24문항으로 조정하였다. 이전에는 전 수험생이 동일한 문항으로 시험을 치렀지만 이때부터 대학의 지원 계열이 달라지면 문항과 배점이 다른 시험을 치렀다.

(1) 시험모형

1994학년도 수능에서는 실험기에 개발한 사회탐구 영역의 전체적인 시험모형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단지 시험 시간을 90분에서 100분으로 확대하였고 변별력 확보를 위해 사회 영역의 문항의 배점을 0.8, 1, 1.2점으로 차등을 두었다. 1995학년도와 1996학년도 시험도 같은 형식으로 실시하였는데 전년에 비해 달라진 점은 수리·탐구(Ⅱ)에서 과학 영역과 사회 영역을 결합 방식을 인문, 예·체능, 자연계열로 분리하여 시험이 실시되었다는 것이다. 사회탐구는 전 수험생이 공통문항으로 24문제를 풀며, 인문계열 응시자는 추가 문항 12개를 더 풀고, 예·체능계열 지원자는 기본 24문항과 공통사회 영역의 12개 문항을 추가적으로 더 풀도록 하였다. 또한 수능 400점 시대에 접어든 1997학년도에는 사회탐구 영역의 총점이 2배로 늘어났고 문항 수도 20문항이 증가하였다.

(2) 평가틀

(가) 내용영역

1994학년도 1차 수능 출제의 기본적 방향은 사회 현상에 대한 과학적인 분석 능력, 합리적 의사결정 능력, 판단 능력, 창조적 비판 능력을 측정할 수

있는 내용영역을 출제하도록 하였다. 또한 사회적 탐구 능력을 길러주는 수업을 유도하기 위해서 역사 자료, 논설문, 토론 자료에서 학문적 개념과 원리를 추출하거나 비교 검색하도록 하는 문항을 출제하였으며, 무엇보다도 동일한 자료를 통하여 국사, 윤리, 정치·경제, 한국지리, 세계사 등에서 학습한 능력을 종합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문항을 출제하였다.

1995년에는 계열이 도입되어 국사, 국민윤리, 정치·경제, 세계사를 공통으로, 사회문화와 세계지리를 인문계열에 한하여 출제하였다.

1997학년도 수능에서 사회탐구 영역은 '세계화와 지방화 추세에 대비하기 위해 세 개 교과 이상의 통합형 문항 출제'라는 출제 방향이 강조되었다. 이러한 출제 방향은 1997학년도 수능 점수 하락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복합적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1997학년도는 수능 총점이 2배로 되면서 문항 수는 20개 증가하였지만 시간은 10분만 늘어났다. 수험생들의 시간적 제약을 해소하기 위해 문항의 형식면에서 하나의 문제 상황이나 자료를 제시하고 질문을 두 개하는 이른바 '세트 문항'이 크게 증가하게

된다. 이런 내용의 문제 유형은 대체로 통합적으로 출제됨으로써 난도가 올라가고 따라서 점수가 낮아지는 결과를 가져왔다. 문항 배열에 있어서 인문계열과 예·체능계열은 1번부터 32번까지가 과학탐구 문항이고, 33번부터 80번까지의 48개 문항이 사회탐구 영역 문항이었다. 인문계와 자연계 사이에 사회탐구 영역과 과학탐구 영역의 비율은 종전대로 6 : 4의 비율을 유지였고, 공통 영역과 선택 영역은 75 : 25의 비율을 유지하였다.

(나) 행동영역

행동영역의 평가 기준은 실상 실험기에서 제시된 5 가지 기준이 이 시기에도 그대로 적용되었다.

이 시기에 발간된 「대학수학능력시험 해설」에 따르면 행동영역은 다음과 같이 정리되었다.

- 탐구문제의 인식능력과 가설 설정 능력
 - 주어진 자료 속에서 핵심적 개념 및 제기 되는 문제의 포착

〈표 3-4-5〉 1994~1998학년도 영역별, 계열별 배점 및 출제 범위

학년도	배점(문항 수)			출제 범위		
	탐구 영역	사회탐구		공통	선택	
1994 1차	60(60)	27(27)		국민윤리, 국사, 정치·경제, 한국지리, 세계사		
1994 2차	60(60)	27(27)				
1995~1996	60(60)	계열	인문	36(36)	국민윤리, 국사, 정치경제, 한국지리, 세계사	사회문화, 세계지리
			예·체능			국민윤리, 국사, 정치·경제, 한국지리, 세계사
			자연			24(24)
1997~1998	120(80)	계열	인문	72(48)	국민윤리, 국사, 정치·경제, 한국지리, 세계사	사회문화, 세계지리
			예·체능			국민윤리, 국사, 정치·경제, 한국지리, 세계사
			자연			48(32)

- 논쟁점 및 문제의 성격과 의미 파악
- 전체나 기본적인 가정의 명확한 인식
- 가설(문제에 대한 잠정적인 풀이)의 설정
- 탐구의 설계 및 수행 능력
 - 문제와 관련된 변인의 통제
 - 탐구방법의 선정 및 탐구절차의 구체화
 - 관찰, 측정, 자료수집 및 그 결과의 정리
- 자료의 분석 및 해석 능력
 - 자료의 분류 및 변환(기호사용, 도표화 등)
 - 자료의 핵심내용과 특성파악
 - 정성적, 정량적 상관관계 및 인과관계 파악
 - 주어진 자료의 경향성, 규칙성 등의 파악
- 결론 도출 및 평가 능력
 - 자료해석 결과의 종합 및 가설의 검증
 - 탐구과정 및 결론의 타당성 및 신뢰성 판단
 - 결론으로부터 보다 포괄적인 설명체제로의 일반화
- 가치 판단과 의사 결정 능력
 - 사실과 가치의 구분 및 제기, 대립, 갈등의 상황과 가치의 식별
 - 대안적인 가치와 행위의 비교 또는 결과 예측
 - 행위 실천의 원리와 근거 탐색 및 목표와 수단의 구분
 - 가치판단 또는 의사 결정의 타당성, 정확성 제시

(3) 특이사항

1994학년도 2차 수능이 시행된 후 고교 교사들을 대상으로 시행한 의견 조사 결과를 보면, 수능이 통합교과적이고 고차적 사고력을 측정하는 문항 위주로 출제 되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05). 출제 문항들이 고등학교 수업 방법 개선에 미칠 영향이 긍정적이라는 반응이

압도적이었다. 그리고 사회 영역의 난이도 질문에는 60%이상이 어렵다는 반응이었고 쉬웠다는 답은 1% 수준이었다. 이는 초기 수능 문제는 대체로 어려웠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다. 그런데 전국 80만 수험생들이 총점 200점내에 분포함으로써 수많은 수험생들이 동점자가 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되었다. 학생을 선발해야 하는 대학 측에서 보면 이것은 수능의 변별력에 장애 요인이 된다. 더구나 대학 전형의 한 축으로 활용되는 고등학교 내신 성적의 신뢰성이 불신을 받게 되고 수능의 비중이 점점 더 커지자, 변별도 문제가 크게 부각되었다.

1997학년도 수능에서 총점을 두 배로 늘리고 문항 수도 증가한 것도 이런 점과 무관하지 않다. 1997학년도 수능에서 가장 큰 특징은 무엇보다도 수능 역사상 가장 어려운 시험이었다는 점이다. 1997학년도 수능에서는 총점이 전년도에 비해 3점 가량 떨어졌는데 사회탐구 영역도 이와 비슷한 수준으로 하락했다. 1998학년도의 수능은 전년도 수능이 어려웠다는 평가 때문에 비교적 쉽게 출제되었다. 특히 사회탐구 영역은 인문계열 기준으로 57.2점으로, 역대 최고 점수였는데 사회 영역의 평균점수가 전체 평균점수보다 더 높았다. 그리고 1998학년부터 사회탐구 영역에서 가장 신경을 써야 할 문제는 사고력이나 통합교과의 원칙보다는 난이도 조절의 문제였다. 사회탐구 영역과 같이 문항의 고정화가 불가능한 영역에서는 점수 변동이 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회탐구 영역에서 난이도 조절은 절실한 문제였다.

라. 성장기의 사회탐구 영역의 변화 (1999~2004학년도)

수능의 사회탐구 영역에서 1999학년도에서 2004학년도까지의 시기는 내용이나 형식 면에서 많은 변화가 있었다. 1999학년도 수능부터는 제6차

교육과정에 따른 수능이 실시되어 시험 과목의 일부가 바뀌게 되었다. 2000학년도는 전년도에 이어서 제6차 교육과정에 따른 수능을 치른 해이다. 수능 점수는 1997학년도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추세로 이어졌다. 2002학년도 수능부터는 표준점수로 변환한 백분위를 점수는 의미가 없어졌고 영역별 점수로 대체하도록 하였다. 2002학년도 사회탐구 영역은 전년도에 비해 어렵게 출제되어 점수가 크게 하락했다. 그런데 2003학년도 사회탐구 영역의 평균점수는 더 떨어졌다. 사회탐구 영역에서 점수가 더 하락하게 된 이유는 사회탐구 영역의 선택과목 간의 난이도 조절 문제 때문이었다. 그래서 사회탐구 영역에서 가장 신경 써야 할 문제는 난이도 조절을 통한 선택과목 간의 유·불리를 해소해야 하는 문제였다.

2004학년도 수능 사회탐구 영역의 점수, 문항 수, 배점 등의 내용은 전년도와 같았다. 출제의 기본 방향은 교육과정에 제시된 사회과 교육 내용의 이해 정도와 각 교과목의 학습을 통해 형성된 탐구 능력 및 문제 해결 능력을 측정할 수 있도록 출제하였다.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정상적 운영을 유도하는 한편, 대학에서 수학하는 데 필요한 능력을 변별할 수 있도록 유념하였다. 2004학년도에도 신경 쓴 부분은 난이도 조절 문제였다. 이것을 아예 출제원칙에 명시하였다. 사회탐구 영역의 5개 선택과목(정치, 경제, 사회·문화, 세계사, 세계지리)은 각 과목에서 제시하는 개념이나 원리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항을 출제하고자 하였고, 각 과목 간 난이도에 지나친 불균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하였다.

(1) 시험모형

이 시기는 제6차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들이 처음으로 수능을 치르게 되고, 1999학년도는 새

교육과정에 따라서 처음 수능이 실시되는 해였다. 수능의 출제 범위와 내용도 자연히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맞추어 출제될 수밖에 없었다. 제6차 교육과정의 사회탐구 영역은 공통사회, 윤리, 국사의 공통필수 과목과 정치, 경제, 사회·문화, 세계사, 세계지리 5과목으로 구성된 과정별 필수 과목으로 구성되었다. 공통 필수과목은 교육부가 결정하고, 과정별 필수과목은 시·도 교육청이 선택하게 되어 있었다. 그리고 1999학년도부터는 수리·탐구 영역(Ⅱ)가 과학탐구와 사회탐구로 분리되고 과학탐구와 사회탐구 영역에 선택과목이 개설되면서 이들 과목간의 난이도를 조정할 목적에서 처음으로 표준점수 제도를 도입하였다.

그리고 1999학년도 수능에서 가장 큰 관심사는 처음 시행된 선택과목별 성적 분포였다. 선택자의 비율은 사회·문화, 정치, 경제, 세계사, 세계지리의 순이지만 선택과목의 점수는 세계지리, 정치, 세계사, 경제, 사회·문화 순위였다. 사회·문화 과목을 선택하는 수험생의 수는 20만 명을 넘어 다른 과목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았지만 성적은 낮았다. 그리고 1999학년도 수능에서 또 다른 특이 상황은 총점과 영역별 점수를 원점수로 표기한 백분위점수와 400점 기준 변환점수(표준점수)에 의한 백분위점수를 같이 통지하였다는 점이다.

(2) 평가틀

(가) 내용영역

제6차 교육과정의 사회과 영역은 공통사회, 국사, 윤리가 공통 필수 과목이고, 정치, 경제, 사회·문화, 세계사, 세계지리 5개 과목이 선택과목으로 선정되었다. 제6차 교육과정에 따른 과목별 단위 기준은 <표 3-4-6>과 같다.

이러한 교육과정을 반영하여 사회탐구 영역의 수능시험 과목, 시간, 문항 수가 조정되었다. 인문계 지원자는 공통필수 3과목과 5개의 선택과목 중에서 1과목을 선택하도록 했다(표 3-4-7 참조).

또한 사회탐구 영역에서 출제 문항 수는 고등학교 교과 수업시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때문에 출제위원들은 각 교과별로 한 문항이라도 더 많이 출제하려고 선의의 경쟁을 벌이기도 하였다. 공통사회 영역의 과목별 문항 수는 표 3-4-8과 같다.

(나) 행동영역

이 시기의 행동영역의 평가기준은 태동기에서 제시된 문제 파악 능력, 실험·조사의 설계와 수행 능력, 정보와 자료의 분석과 이용 능력, 검증과 결론 도출 및 해석 능력, 가치 판단과 의사결정 능력 5가지 기준이 그대로 적용되었다.

(다) 출제방향

1999학년도 수능에서 사회탐구 영역의 출제 방향은 탐구 능력과 가치 판단을 통한 의사 결정 능력을 측정하는 데 중점을 둔다는 기존의 출제 원칙에서 달라진 게 없었다. 1999학년도 수능에서 사회탐구 영역의 최대 관심사는 처음 시행되는 선택과목별 성적 분포였다. 그래서 출제 문항을 통한 난이도 조정에 가장 비중을 두었으나 선택과목별 평균점수는 최대 10점정도 차이가 났다. 2000학년도의 출제 방향, 출제 범위, 계열별·비율은 1999학년도와 똑같이 고교 교육과정의 전 범위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사회탐구 영역은 계열별로 출제 과목과 출제 비율을 서로 다르게 출제하였다.

2001학년도 수능은 학교 교육의 정상화를 위해 제6차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내용과 수준을 충실히 반영하여 창의성과 종합적 사고 능력이 측정되도록

〈표 3-4-6〉 제6차 교육과정 사회탐구 영역 단위 배당 기준

교과	공통필수 과목	과정별 필수 과목 (교육청 편성)	과정별 선택과목 (학교 선택)
윤리	윤리(6)		
사회	공통사회(8) 국사(6)	정치(4), 경제(4) 사회·문화(4) 세계사(4), 세계지리(4)	

〈표 3-4-7〉 1999~2004학년도 영역별, 계열별 출제 비율 및 범위

영역	계열	배점	출제 비율(%)		출제 범위		
			필수	선택	필수	선택	
수리·탐구 영역(Ⅱ)	사회 탐구	인문	72	80 정도	20	공통사회, 국사, 윤리	정치, 경제, 사회·문화, 세계사, 세계지리 중 택 1
		자연	48	100	-	공통사회, 국사, 윤리	-
		예·체능	72	100	-	공통사회, 국사, 윤리	-
	과학 탐구	인문	48	100	-	공통과학	-
		자연	72	67 정도	33	공통과학	물리Ⅱ, 화학Ⅱ, 생물Ⅱ, 지구과학Ⅱ 중 택 1
		예·체능	48	100	-	공통과학	-

〈표 3-4-8〉 1999~2004학년도 사회탐구 영역의 과목별 문항 수

과목		인문계열	예·체능계열	자연계열
일반 사회	정치	3	3	2
	경제	3	3	2
	사회·문화	2	4	3
윤리		11	14	9
국사		11	14	9
한국지리		8	10	7
문항 수		38	48	32

노력하였다. 문항 출제의 기본 방향은 학교 교육 정상화와 사교육비 경감을 목적으로 학교 수업에 충실한 학생은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핵심적이며 기본적인 내용을 쉽게 출제함’을 원칙으로 하였다. 따라서 모든 영역이 전년도 수준의 난이도와 비슷하게 출제되도록 노력하였다. 또한 제6차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목표와 내용에 따라 가능한 한 실제 문제 상황 중심으로 통합교과적 소재를 활용하여 출제하고 교과서에 포함된 내용도 출제할 수 있다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무엇보다도 선택과목 간의 점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선택과목 간의 난이도를 비슷하게 조절하여 문항을 출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2002학년도 수능에서 출제의 기본 방향은 2001학년도와 같이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내용과 수준에 맞추어 통합교과적 소재를 바탕으로 사고력을 측정하는 문항 위주로 출제하였다. 수능에서 강조하고 있는 교과간의 통합성을 고려하여 사고력을 측정할 수 있는 문항을 출제하기 위해 노력하되 형식적이고 인위적인 통합은 지양하였다. 2003학년도의 사회탐구 영역에서 출제 방향의 기본적 원칙은 변함없었지만 21세기를 살아갈 민주 시민으로서 요구되는 자질의 함양과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한국인으로서 요구되는 상황 인식을 동시에 추구하는 문제와 관련한 문항을 출제하였다. 이러한 출제 방향에 따라 사회

현상에 대한 종합적이고 다각적인 사고를 묻는 문항이 출제 되도록 하였다.

2004학년도 수능의 기본 방향은 통합교과적 소재를 바탕으로 사고력을 측정하고자 하는 수능의 기본 성격과 목적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려고 노력하였다. 사회탐구 영역은 교육과정에 제시된 사회과 교육 내용의 이해 정도와 각 교과목의 학습을 통해 형성된 탐구 능력 및 문제 해결 능력을 측정할 수 있도록 출제하였다. 문항의 소재는 교과서에 얽매이지 않고 일상 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내용이나 시사적인 문제 중에서도 선택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방향에 따라서 당시 우리 사회에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는 자살 문제와 남북 교류에 커다란 관심을 불러일으킨 북한 응원단과 관련된 시사 자료를 소재로 삼은 문항 등 다양한 소재와 유형의 문항이 출제되었다.

(3) 특이사항

1999학년도 수능에서 사회탐구 영역은 고등학교 교육을 정상화하고 과열 과외를 추방하기 위해 수능을 쉽게 출제한다는 원칙에 부합되는 평균점수가 나왔다. 사회탐구의 인문계열은 72점 만점에 47.2점, 자연계열은 48점 만점에 31.3점, 예·체능계열은 72점 만점에 41.7점이 나와 전년도에 비해 인문

계열은 6점, 자연계열은 5.1점, 예·체능계열은 8.4점이 상승했다. 2000학년도에는 1999학년도 수능보다 더 쉽게 출제되어 전년도에 비해 전체 평균점수가 1.3점이나 올랐다. 2001학년도에는 전년도에 비해 무려 평균 6.9점이나 상승해 역대 수능에서 가장 쉬운 수능으로 평가 받았다. 이런 탓으로 2002학년도 수능에서는 다시 어렵게 출제되는 경향을 보였는데, 전년도에 비해 인문계열은 평균 10점, 자연계열은 4.5점, 예·체능계열은 11.4점이나 성적이 크게 떨어졌다. 사회탐구 영역의 출제 난이도를 보면 2002학년도를 기점으로 점차 어렵게 출제되는 경향을 보이는데, 2003학년도에는 1997학년도 이래 가장 어려운 사회탐구 영역의 수능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또 다른 특이사항은 2002학년도 수능이 전반적으로 어려워 점수가 너무 많이 떨어져서 사회적으로 비난이 많았고, 이로 인해 수능을 주관하는 기관장이 바뀌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이다. 또 2002학년도 수능부터는 각 영역별로 등급을 발표하도록 하였다. 2003학년도에도 사회탐구 영역 점수에 대한 계열별 9개 등급의 등급 구분 점수와 인원수는 2002학년도와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한편, 사회탐구 영역의 인문계열은 선택과목에 따른 유·불리를 해소하는 문제가 가장 큰 과제였으며, 이에 변환표준점수가 도입되었다. 2004학년도에서 사회탐구 선택과목을 보면, 국사, 사회·문화, 한국지리, 윤리 과목을 많이 선택하였고, 세계사, 세계지리, 경제지리 과목을 선택한 수험생은 비교적 적었다.

마. 안정기의 사회탐구 영역의 변화 (2005~2013학년도)

이 시기는 수능이 10년째를 맞이하는 2005학년도부터 2013학년도까지이다. 2005학년도에는 제7차

교육과정이 수능에 반영되는 첫 해였고, 따라서 수능의 형식과 내용에서 많은 변화가 있었던 해이다. 우선 사회탐구 영역이 모두 선택과목으로 바뀌게 되었다. 종전에는 사회탐구 영역이 공통필수 과목과 선택과목으로 구분해서 인문계열, 자연계열, 예·체능계열별로 달리 출제되었다. 그러나 2005학년도부터는 이 구분을 폐지하고 사회탐구 영역을 수험생의 필요에 의해 최소 1과목에서 최대 4과목까지 선택할 수 있게 되었다. 수험생은 윤리(윤리와 사상, 전통윤리), 국사, 한국지리, 세계지리, 경제지리, 한국 근·현대사, 세계사, 법과 사회, 정치, 경제, 사회·문화 등 11과목 중 최대 4과목을 선택할 수 있다. 특히 2005학년도 수능부터는 원점수 대신 표준점수, 백분위, 등급점수를 제공하기로 하였다. 제7차 교육과정의 기본 방향인 선택과 집중의 원리를 충실히 반영하기 위해 개편된 2005학년도 수능 체제는 모든 영역, 과목이 임의 선택이었다. 원점수로는 선택과목 간 난이도 차이에 따른 점수의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표준점수제를 채택한 것은 선택과목 간 난이도 차이 문제를 완화하고 수험생들이 학습하기 쉬운 특정 과목에 편중되지 않도록 하며, 자신의 소질과 적성에 따라 공부하도록 유도하여 궁극적으로 학교 교육의 정상화에 기여하기 위해서이다.

(1) 시험모형

이 시기의 수능 사회탐구 영역의 출제 기본 방향이나 출제 범위에서는 크게 바뀐 것이 없지만 출제의 내용과 형식은 전반적으로 많은 변화가 있었다. 우선 공통필수 과목과 선택과목의 구분이 없어지고 사회탐구 영역의 모든 과목은 응시자의 필요에 의해 최대 4과목까지 선택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국민공통기본 교육과정에 속하는 내용은 간접적으로 관련지어 출제 하도록 하였는데, 이것은 과목 선택의 형평성을

고려한 것이다. 그래서 국민공통 기본과목인 국사 이외의 과목에서 국사 교과서의 내용과 자료를 활용하여 출제한 경우에는 신중을 기하도록 하였다. 한편 2005년에 국사 교육과정이 부분 개정됨에 따라 2009학년도 수능부터 국사 과목의 출제범위에 근현대사 내용이 포함되었다. 또한 2012학년도 수능부터는 탐구영역의 선택과목 수가 4개에서 3개까지로 축소되었다.

대신에 교과 내에서 단원 통합 내용을 출제하도록 하였다. 문항의 소재는 기본적으로 교육과정이나 교과서의 내용뿐만 아니라, 교과서 밖의 소재나 일상 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내용, 기타 시사적인 내용 등도 활용하여 출제에 반영하였다. 특히 현실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내용이나 시사 문제를 활용한 유형의 문항들을 가급적 많이 출제하고자 노력하였다. 이 시기 사회탐구 영역의 과목별 문항 수, 배점, 시간은 다음 <표 3-4-9>와 같다.

(2) 평가틀

(나) 행동영역

(가) 내용영역

대학 교육을 받는 데 필요한 사회과학적 탐구 능력과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창의적 사고력을 측정하는 문항을 출제한다는 수능 초기부터 견지해온 사회탐구 영역 출제의 원칙은 이 시기에도 유지되었다. 그러나 선택과목을 임의로 선택함에 따라서 교과 간 통합

이 시기의 행동영역은 기존의 탐구 과정 5개 영역에 '개념·원리의 이해' 영역이 새로이 추가되어 모두 6개 영역으로 구성되었다. 개념·원리의 이해가 새롭게 추가된 배경은 다음과 같다. 그동안 사회탐구 영역에서는 지식의 탐색 과정을 묻는 문항의 형태가 강조되어 왔다. 그러나 수능이 계속됨에 따라 대학에서의 수학 능력과 학업 적성을 평가하고자 하는

<표 3-4-9> 2005~2013학년도 사회탐구 영역의 과목별 출제 문항, 배점, 시간

영역	과목	배점(점)	문항 수	시험 시간(분)	선택
사회탐구 (계열 구분 없음)	윤리	50	20	30	최대 4과목 선택 (2012학년도 부터 최대 3과목 선택)
	국사	50	20	30	
	한국지리	50	20	30	
	세계지리	50	20	30	
	경제지리	50	20	30	
	한국 근·현대사	50	20	30	
	세계사	50	20	30	
	법과 사회	50	20	30	
	정치	50	20	30	
	경제	50	20	30	
	사회·문화	50	20	30	

본래의 취지와 달리 점차 학업성취도를 평가하는 시험의 성격을 지니게 되었다. 그 결과 수능과 학교 수업의 연계성이 높아졌고 따라서 학교에서 배운 지식을 묻는 문항들이 많아졌다. 즉 탐구 문항 이외도 개념이나 원리의 이해를 묻는 문항들이 많아졌다. 그런데 지식에 대한 이해를 묻는 문항이 출제됨에도 불구하고 평가 목표의 행동영역에는 이를 적절히 분류할 수 있는 기준이 없었다. 그래서 2005학년도 수능에서부터는 개념형 문항을 행동영역에 포함시켜 평가목표에 일치하는 문항 출제가 되도록 한 것이다. 2005학년도 수능부터 사회탐구 영역에서 사용한 행동영역의 목표는 다음과 같은 6가지이다.

○ 개념 · 원리의 이해

개념 · 원리의 이해는 탐구의 전제가 되는 기본적인 지식이나 개념 또는 탐구의 결과로 산출되는 지식이나 개념을 다루는 영역을 말한다. 그러므로 탐구형이 동태적(動態的) 지식을 묻는 영역이라면 개념 · 원리의 이해는 정태적(情態的) 지식을 묻는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 가장 기본적인 용어의 개념이나 지식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는가? 그러나 단순한 사실의 암기는 측정에서 제외한다.
- 기본적 지식의 변형 능력이나 응용력을 가지고 있는가?
- 탐구에 필요한 기본적인 지식(사실, 개념, 원리 등)을 구체적인 사례나 문제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는가?

○ 문제 파악 및 인식

문제 파악 및 인식은 진술문, 도표의 형태로 주어진 자료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를 포착하거나 변별해내는 능력이 있는지를 검사하는 것을 말한다.

- 주어진 자료에 나타난 핵심적인 논쟁점, 주장,

문제 등 탐구해야 할 주제를 찾을 수 있는가?

- 주어진 자료의 주장, 진술, 사고 방식에 내재된 기본 전제나 가정을 찾아낼 수 있는가?

○ 탐구 설계 및 수행

탐구 설계 및 수행은 주어진 연구 문제를 성격과 목적을 고려하여 과학적 연구에서 지켜야 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연구를 설계하고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를 검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 가운데서도 특히 실험과 조사를 바르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가 중심이 된다.

- 주어진 자료에서 개념이나 요소들의 연관 관계를 추론하여 가설을 설정할 수 있는가?
- 조사 또는 실험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수행하는 적합한 절차를 제시할 수 있는가?
- 주어진 탐구 문제에 적합한 자료 수집, 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가?
- 수집된 자료를 분석, 분류, 정리하여 필요한 정보를 선별할 수 있는가?

○ 자료 분석 및 해석

자료 분석 및 해석은 목적과 필요에 따라 적합한 정보와 자료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찾고 이용할 수 있거나 다양각색으로 제공되고 접하게 되는 정보와 자료의 신빙성과 총체성을 분석하고 핵심 내용의 특성을 정확하게 포착할 수 있는가를 검사하는 것을 말한다.

- 자료에 나타난 정보를 해석하여 그 의미를 파악할 수 있는가?
- 자료의 규칙성과 경향성을 시대적 배경과 사회적 의미 및 이론적 연관성을 통해 해석, 추정할 수 있는가?
- 자료를 탐구 목적에 따라 재구성할 수 있는가?

○ 결론 도출 및 평가

결론 도출 및 평가는 주어진 가설 검증, 결론 도출, 일반화, 해석 및 모형화의 절차를 추정할 수 있거나 주어진 자료에 의한 타당성을 판별하고 이론과 관련지어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검증하는 것을 말한다.

- 가설 검증의 절차와 방법을 실제 적용할 수 있는가?
- 여러 가지 자료들을 종합하여 일반화할 수 있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는가?
- 인과 관계나 법칙성 또는 논리적 관계를 이해하고 이를 이론화 또는 체계화할 수 있는가?
- 가설 검증이나 결론, 일반화, 모형 해석에 이르는 절차와 입증 자료, 또는 필요 조건을 추정할 수 있고, 그에 따라 평가할 수 있는가?

○ 가치 판단 및 의사 결정

가치 판단과 의사 결정은 사실과 가치를 구분하고 제기되는 가치 문제를 분별해 낼 수 있으며 대안적 가치와 의사를 비교하거나 결과를 예측할 수 있고 목표와 수단을 구분할 뿐만 아니라 가치 선택과 의사 결정을 정당화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를 측정하는 활동이다.

- 사실과 가치, 실제 현상과 주관적인 의견을 구분할 수 있으며, 제기되는 문제의 쟁점을 식별할 수 있는가?
- 여러 가지 대안을 비교, 평가하여 선택한 대안에 대한 타당한 근거를 제시하고 결과를 예측할 수 있는가?
- 실천적 행위의 원리나 기준을 추정하거나 차이를 변별할 수 있으며, 의사 결정 과정에서 목표와 수단을 구분할 수 있는가?
- 가치 선택과 의사 결정에 내재된 의도와 원리를 파악하고 그 타당성을 판별할 수 있는가?

(3) 특이상황

이 시기의 사회탐구 영역에서 가장 큰 특징은 선택과목의 변화이다. 선택과목에 따른 수험생의 숫자는 고등학교 교육에서 사회탐구 교과목의 시수 배정에 결정적 역할을 한다. 이것은 사회탐구 영역의 과목을 전공하는 대학의 교수나 고등학교에서 수업을 담당하는 교사들의 인사 문제와 관계되는 중대한 사안이다. 비교적 공부하기 수월하다고 생각하는 몇몇 교과목에 수험생들이 집중적으로 몰리게 되는 현상은 고등학교 교육의 정상화라는 당초 수능의 목적에 비추어서 바람직한 현상이 아니다. 더욱 문제인 것은 교과목마다 쉽게 출제하려는 경향이 생기다보니 선택과목별 난이도 조정이 심각한 문제였다. 표준점수제가 시행된 것도 교과목마다 쉽게 출제하려는 경향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이다. 문제가 쉬우면 표준점수제 하에서는 표준점수의 최고점이 낮아져서 공부를 열심히 한 학생들은 오히려 불만을 갖게 된다. 그래서 표준점수제에서는 과목마다 쉽게 출제하려는 경향이 감소되었다. 또한 선택과목별 난이도 조정을 위해 응시집단의 특성을 분석하고 정답을 예측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고하는 등의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았다. 사회탐구 영역에서 최대 4과목을 선택하던 제도는 2012학년부터는 최대 3과목으로 바뀌었다.

사회탐구 영역의 선택과목별 응시자 현황을 보면 2005학년도에는 사회·문화, 한국지리, 한국근·현대사, 윤리 순으로 선택을 하였고, 세계사, 세계지리, 경제지리를 선택한 수험생은 비교적 적었다. 연도별 응시자 현황, 선택과목 수에 따른 응시자 수의 변화 양상은 <표 3-4-10>, <표 3-4-11>과 같다.

한편 2005학년도부터 EBS 연계 출제가 시작되었다. 처음에는 연계 정도에 대한 명문규정이 없었으나, 2011학년도 수능부터는 모든 영역과 교과목에서 70%를 반드시 EBS와 연계해서 출제하도록 하였다.

〈표 3-4-10〉 2005~2013학년도 사회탐구 영역의 선택과목별 응시자 현황

(단위: 명)

과목 \ 학년도	2005	2007	2009	2012	2013
윤리	158,584	161,421	171,001	152,976	150,657
국사	100,189	69,507	58,635	43,441	43,918
한국 지리	211,526	214,499	220,083	187,941	172,165
세계 지리	33,346	37,917	40,551	43,840	38,151
경제 지리	47,784	54,286	54,104	29,999	20,498
한국근현대사	172,706	168,414	193,905	167,236	158,269
세계사	32,816	33,120	33,549	31,158	29,683
법과 사회	62,584	62,434	56,111	46,838	39,032
정치	102,487	106,392	113,083	92,602	82,766
경제	86,666	88,068	80,559	41,726	32,701
사회·문화	225,633	227,422	247,329	239,665	221,473

〈표 3-4-11〉 사회탐구 영역의 선택과목 수에 따른 응시자 수와 비율

과목 \ 학년도	2006		2007	
	응시자 수(명)	비율(%)	응시자 수(명)	비율(%)
1과목	263	0.1	270	0.1
2과목	5,636	1.8	5,374	1.7
3과목	34,454	10.8	30,922	9.8
4과목	279,856	87.4	279,924	88.4

대학입시의 선발과정에서 한 축을 담당해오던 고등학교의 생활기록부가 전반적으로 불신을 받게 되자 수능의 비중이 점차 커지게 되었고, 따라서 사교육이 다시 기승을 부리게 되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EBS가 과외 수업을 대신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 것이다. 수능-EBS와 연계 정책은 이처럼 고액 과외를 받지 않아도 누구나 쉽게 풀 수 있는 '쉬운 수능' 정책으로 바뀔으로써 사교육 방지의 긍정적 효과를 낳기도 했다.

[예시 문항 1]

〈2009학년도 수능 사회탐구 영역 윤리 9번〉

9. (가) 사상가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완성하고자 할 때, (A)와 (B)에 들어갈 질문으로 옳은 것은? [3점]

(가) 어떤 것들에 대한 모든 사실과 그 관계를 규명한 이후에야 비로소 그것의 ' 좋음'에 대한 승인과 거부가 내려진다. 도덕적 승인과 덕의 현실화는 악기의 한 현(絃)이 다른 현들을 울리는 것과 같은 인간 사이의 자연스런 느낌에 의해 이루어진다.

(나)

〈범례〉
 □ : 출발 조건
 ◇ : 판단 내용
 ▭ : 사상가의 입장

- ① (A) - 도덕성의 본질은 도덕감인가?
- ② (A) - 도덕적 지식의 근원은 경험인가?
- ③ (B) - 도덕적 행위의 원천은 실천적 지혜인가?
- ④ (B) - 도덕적 실천에서 사회적 덕을 무시하는가?
- ⑤ (B) - 도덕 판단의 기준으로 유용성을 강조하는가?

[예시 문항 1]은 윤리 과목에서 순서도라는 개념적 장치를 활용하여 어떤 윤리 사상의 특징을 논리적 절차에 의해 이해하고 비판적으로 탐구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준다는 점에서 교육적 의미가 있었다.

나아가 응용 수학 및 컴퓨터 프로그래밍에서 다루는 알고리즘과 윤리 과목을 결합시켰다. 이 문항을 계기로 순서도를 활용한 문항이 거의 빠짐없이 출제되는 관행이 정착되었다.

[예시 문항 2]

<2007학년도 수능 사회탐구 영역 한국지리 20번>

20. 지도는 제조업의 사업체 수와 종사자 수를 규모별로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해석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가) 사업체 수 (나) 종사자 수

— < 보기 —

가. 제조업의 사업체 수와 종사자 수는 수도권과 영남권에 편재되어 나타난다.
 나. 수도권은 사업체 수와 종사자 수의 규모별 비중이 유사하다.
 다. 영남권은 중화학 공업의 집중으로 대기업 종사자 수의 비중이 높다.
 르. 충청권과 호남권의 제조업 고용은 소기업이 주도하고 있다.

① 가, 나 ② 가, 다 ③ 나, 다 ④ 나, 르 ⑤ 다, 르

[예시 문항 2]는 지리 과목의 특성을 잘 보여주는 지도를 자료로 이용한 문항이다. 지도는 우리나라 제조업의 지역적 차이와 특성을 지도화한 것으로, 주제도에 해당하며, 이를 통해 제조업의 지역적 분포 특징을 파악할 수 있는지를 묻고 있다. 이와 같은

유형은 지리 과목의 중요한 목적 중 하나인 지역적 차이 및 분포 특성을 도해력(geographicacy)과 함께 측정할 수 있는 문항으로, 이후에도 주요 문항 유형의 하나로 지속적으로 출제되어 왔다.

[예시 문항 3]

<2006학년도 수능 사회탐구 영역 한국 근·현대사 1번>

1. 그림은 어느 외국인 기자가 의병과 인터뷰한 장면을 나타낸 것이다. 이 의병 형제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산악 지대에 활동 근거지를 마련하였다.
- ② 청정년은 물론 나이 어린 소년도 참여하였다.
- ③ 해산 군인들이 합류하여 전투력이 향상되었다.
- ④ 이만손을 비롯한 유생들이 개화파 처벌을 요구하였다.
- ⑤ 포수와 농민을 비롯한 평민들이 대다수를 차지하였다.

[예시 문항 3]은 2005학년도 이후 수능 문항에 삽화와 그래픽이 많이 활용되는 계기가 되었다. 한국 근·현대사에서 출제된 이 문항은 그림 형태로 자료를 제시한 초기의 문항에 해당된다. 의병의 사진을

만화로 재구성하여 말풍선을 달았던 형식이 인상적인 문항이었다. 기자의 인터뷰 형식에서 역사적 상상력을 자극할 수 있었다.

[예시 문항 4]

〈2010학년도 수능 사회탐구 영역 경제 17번〉

17. 다음 X재의 시장 상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제약회사는 최근 유행하기 시작한 신종 전염병의 백신인 X재를 최초로 개발하여 ㉠ 특허권을 인정받았다. 그러나 신종 전염병이 급속하게 확산되자 ㉡ 특허권을 일시적으로 정지시키고 다른 제약 회사들에게 X재의 생산 기술을 공개하라는 요구가 제기되고 있다.

- ① X재의 집중은 부정적 외부 효과를 발생시킨다.
- ② ㉠으로 인해 X재의 생산 기술은 경합성을 가지게 된다.
- ③ ㉠으로 인해 X재의 시장 거래량은 사회적 최적 수준보다 많아진다.
- ④ ㉡으로 인해 X재의 가격은 상승한다.
- ⑤ ㉡의 상황에서 X재의 시장 거래량은 사회적 최적 수준보다 적다.

[예시 문항 4]는 시사적인 내용을 경제적 관점에서 분석을 시도하였다는 점에서 교육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 시사성있는 실제 사례들은 이전에도 많이 출제에 활용되었는데, 특히 이 문항은 신종 플루가 유행한 연도에 출제되었다는 점에서 인상적이었다.

바. 사회탐구 영역의 성과와 발전 방향

수능에서 사회탐구 영역의 평가목표는 수능 ‘기초연구위원회’(1992)가 내놓은 다음과 같은 제안 설명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수리·탐구 영역은 고등학교의 수학, 자연과학, 사회과학 영역에서 학습한 개념과 원리를 이용하여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책을 찾는 탐구력이나 문제 해결력과 같은 고차적 사고력을 측정한다. 즉 단순한 지식의 암기는 지양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목표에 따라 사회탐구 영역은 탐구력, 문제 해결력, 고차적 사고력과 같은 고도의 지적

능력을 측정하기 위한 문항을 제시하려고 노력 하였다. 수능 이전 학력고사 시절의 사회과 과목은 단편적인 지식의 암기만으로도 충분히 치를 수 있는 ‘단순 암기 과목’이라는 인식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수능이 실시된 이후에는 사회 과목에 대한 이러한 인식은 완전히 바뀌었다.

수능의 사회탐구 영역에서 나타난 평가 문항과 방법론에 대한 고민은 사회 과목 교수·학습법에 엄청난 영향을 미쳤다. 무엇보다도 사회 과목이 단순 암기 과목이 아니라 고도의 사고력을 요구하는 과목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게 되었다. 또한 수능에서 사회탐구 영역은 수업 방법에 있어서도 자료의 수집 분석, 의사 결정력 향상과 같은 사고력을 신장시키는 방향으로 전환되었다는 점에서 큰 기여를 했다.

단시간의 암기로는 해결할 수 없는 이해와 깊은 사고를 요하는 평가 유형은 토론이나 논술 등과 같은 학습 방법적 변화를 가져왔다. 이는 학교 현장에서 사회과 과목의 교수학습이 단순 암기보다는 이해와

사고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 또한 사회과 교과목의 출제 방식이 단순 암기 지식에서 사고력 중심의 평가 체제로 바뀌었다는 것은 단시간에 성적을 향상시키기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어릴 적부터 다양한 독서와 학습 경험이 있는 학생과 그렇지 못한 학생 간의 학력 격차가 좀처럼 줄어들지 않는 것이 이를 입증한다. 단시간의 지식 암기보다는 오랜 시간의 독서와 다양한 학습을 통해서 배양된 사고력이 수능 성적을 좌우한다는 것은 수능이 학교 교육에 정상적인 역할과 기능을 했다는 반증이다.

사회탐구 영역은 수능 초기에는 일반사회, 지리, 역사, 윤리 등의 과목이 공통으로 출제되었다. 수능 초창기에 도입된 교과목의 단원 간, 그리고 사회과 교과목 간 통합형 출제 방식은 학교 현장에서는 매우 생소한 것이어서 가르치기 어렵고 공부하기도 어렵다는 문제가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평가 방식은 일선 학교의 교육 현장에서 통합적 사고력과 추론 능력을 측정하는 평가의 전환을 가져왔고, 이는 사회과의 교과 성격과 목표와 잘 부합되는 변화이다.

수능의 사회탐구 영역 변화는 학교 교육과정 개편과 맞물려서 이루어져왔다. 2005학년도부터는 11개의 사회 과목 중에서 최대 4과목 선택제로 바뀌게 되었고, 2012학년도에는 다시 3과목으로 축소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선택과목별로 정체성이 강화되고 교육 내용을 심화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사회탐구 영역의 과목은 11개의 선택과목으로 세분화됨으로써 사회과의 각 교과는 독립 과목으로서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내실화를 이루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아울러 2005학년도부터 사회탐구 영역의 평가들에 '개념·원리의 이해'라는 새로운 행동 영역을 추가하게 되면서 개념과 원리의 이해를 묻는 문항이 많아졌다. 그 결과로 수능이 학업성취도 평가의 성격을 강하게 갖게 됨으로써 학교 수업과의 연계성이 높아졌다.

뿐만 아니라 사회탐구와 연계된 사회과 교육의 활성화는 대학에서 전공을 탐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는 점도 수능의 업적으로 봐야 한다. 물론 수능의 당초 목표에 비추어 그 성과가 미미하다는 지적도 있지만, 수능의 사회탐구 과목은 학생이 선택할 수 있으므로 고등학교의 선택형 교육과정의 취지에 부합되고, 또한 학생들이 자신의 흥미와 적성에 맞는 과목을 선택하여 장래 진로 지도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다.

한편 사교육의 확산에 대한 우려로 2005학년도부터 수능의 EBS 연계가 시작되었으며, 2011학년도부터는 모든 과목을 70% 이상 EBS 교재와 연계시키도록 하였다. 이러한 조치는 사교육 대책이라는 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으나, 학교 교육의 왜곡을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도 야기하고 있다.

올해로 수능은 성년을 맞이한다. 20년이라는 오랜 세월 동안 이 정도의 원칙과 방향을 유지하면서 이처럼 꾸준히 계속된 시험도 흔하지 않다. 많은 분들의 노력 덕택으로 사회탐구 영역은 수능에서 하나의 영역으로 자리 잡았다. 수능의 사회탐구 영역에 대한 이런 저런 비판의 소리가 있는 것은 당연하다. 이러한 비판의 소리를 타산지식으로 삼아 사회탐구 영역은 끊임없이 진화해야 할 것이다.

제5절

과학탐구 영역

정진갑(계명대학교)

가. 개요

(1) 도입 배경과 취지

수능 이전에 실시되었던 ‘대학입학학력고사’ 등 대학 입학에 위한 선발 고사는 시기별로 약간의 편차는 있지만 대부분 고등학교 재학 기간 동안의 학습 내용에 대한 학업성취도를 측정하는 성취도 평가의 성격을 지녔다. 따라서 과학 시험에서도 고등학교에서 이수한 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의 각 교과목에 대하여 방법론적인 것이 아닌 각 교과목의 내용에 대한 단편적인 지식을 측정하는 문제들 위주로 출제되었고, 이에 따라 고등학교의 과학 교육 또한 다량의 과학 지식 축적을 위한 암기 위주의 지식 전달 방법을 택하였다.

1980년대 중반기부터 연구되어 1990년대 초반에 도입된 수능은 고차원적인 사고력의 측정을 강조함으로써 성취도 측정 시험에서 적성검사 성격의 선발고사로 전환하여 중·고등학교의 교육을 정상화하고자 하였다. 즉, 수능은 대학 과정의 학습에 필요한 학업 적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중·고등학교 교육과정의 수준과 내용에 맞게 통합교과적이고 고차원적인 사고력을 측정하는 시험이 되고자 하였다. 특히 과학탐구 영역에서의 평가는 단편적인 과학의 지식 암기 여부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 과학을 학습

하기 위한 기본적인 탐구 능력의 적성, 즉 자료에 대한 이해, 분석, 해석 능력, 추리력 등을 평가하고자 시도하였다.

교육부에서는 이 새로운 대입제도에 대해 초기에 한국대학교육협의회를 통하여 박도순(1989)의 연구자에게 위탁하였고, 또 한편 중앙교육평가원에서는 황정규 외(1988)에게 기초연구를 위탁하였다. 구체적인 시험 교과목 등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두 연구에서 공통되는 점은 다양한 교과 내용에 대한 학업성취도 검사가 아니라 몇 가지 영역에서의 능력을 평가하는 적성검사 유형에 가깝다는 것이다. 따라서 시험의 영역도 각 개별적 과목이 아니라 통합 교과로서의 성격을 지닌다.

황정규는 ‘대학교육적성시험 개발을 위한 기초 연구’에서 이 시험의 개념, 영역, 각 영역의 범위와 내용, 시험 실시 방향 등을 제시하였는데 평가 내용영역으로는 언어 영역, 수리 영역, 사회 영역 및 과학 영역을 제시하였다. 이에 반하여 박도순 등의 제안은 사회 영역과 과학 영역을 배제하는 언어 영역, 수리 영역, 외국어(영어) 영역으로 국한하는 것이었으며, 이 안의 공청회 과정에서 국어, 영어, 수학 중심이라는 비판과 명칭에 대한 비판 등이 제기되었다(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05a).

여론 수렴 과정을 통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교육부는 명칭을 대학교육적성시험에서 대학수학능력시험으로 교체하고 수리 영역을 수리·탐구 영역으로 확대한 새 입시제도안을 1991년 4월에 확정 발표하였다. 이 입시제도안에 따른 수능의 과학탐구 영역은 전체적인 적성검사의 성격은 유지하면서도 몇 차례에 걸친 교육과정의 개정과 시대 여건의 변화에 따라 수차례에 걸쳐 영역의 명칭과 시험모형, 평가의 틀, 출제 범위 등 구체적 평가 내용이 변경되었다(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05a).

(2) 과학탐구 영역의 성격과 평가목표

시험의 성격과 평가목표는 교육과정에 따라 변할 수밖에 없으며 따라서 수능에서 과학탐구 영역의 성격과 구체적 평가목표도 교육과정의 개편에 따라 시기별로 몇 차례에 걸쳐 변하여 왔다. 수능의 도입 단계에서는 제5차 교육과정이 적용되고 있었으며 제6차, 제7차 교육과정을 거쳐 2014학년도 수능에는 2009 개정 교육과정이 적용될 예정이다. 도입 단계부터 현재까지의 과학탐구 영역이 포함된 영역의 평가 시기별 명칭 변경과 변화 과정은 <표 3-5-1>과 같다.

수능의 개념이 정립되던 초기에 수리·탐구 영역에서 측정하고자 하는 것은 각각의 수리 혹은 탐구 영역에 해당하는 교과목의 고유한 전문적 지식이

아니라 수리 및 탐구 영역에 전체적으로 연관된 학습 능력이었다. 즉, 대학에 입학하여 대학 수준의 교육을 이수하는데 필요한 수리적·탐구적 능력을 갖추고 있는가를 평가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이 시험에서 요구하는 정신 능력은 수리 및 탐구의 기초적 개념에 대한 이해력, 수리·탐구 자료나 정보를 해석하고 추리하는 능력, 주어진 자료에 원리나 방법을 적용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었다. 이러한 능력을 평가하기 위하여 수학, 사회, 과학 등 다양한 교과 영역에서 관련된 내용 소재를 활용하여 출제하도록 하였다. 즉, 문항의 소재는 개별 과목에 해당하는 내용을 활용 하되 측정하고자 하는 능력은 이들 과목에 공통되는 탐구 능력이었다.

점차 수리 영역과 탐구 영역이 분리되고, 탐구 영역에서도 사회탐구 영역과 과학탐구 영역이 분리되면서 과학탐구 영역의 성격은 과학적 내용으로 구성된 문제를 통하여 과학적 탐구 능력을 평가하는 것으로 정리되었다. 이에 따라 여러 가지 상황에서 과학적 내용을 소재로 하여 과학적 탐구 능력을 측정하는 것이 과학탐구의 평가목표가 되었다. 평가의 내용이나 측정하고자 하는 과학적 탐구 능력이 무엇인가 하는 것은 수능의 각 시기마다 약간의 변화가 있었으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각각의 시기에 대한 평가틀로 설명할 수 있다.

<표 3-5-1> 과학탐구 영역의 시기별 명칭 변화

평가 시기(학년도)		과학탐구의 영역 명칭	평가 내용
실험평가	1차~5차	수리·탐구 영역	수리, 사회, 과학
	6차~7차	수리·탐구 영역(II)	사회, 과학
1994 1차~2차			
1995~2001		수리·탐구 영역(II)(과학탐구)	과학
2002~2013		과학탐구 영역	과학

나. 태동기의 과학탐구 영역의 변화 (1986~1992년)

앞서 강조한 것과 같이 수능 이전의 대학입학 선발고사는 학업성취도를 측정하는 성취도 평가의 성격이 강하였고, 과학탐구 영역에서도 개별적인 과학교과와 내용에 대한 지식 측정 위주의 문항이 주로 출제되었다. 이에 대한 반성으로 단순한 지식의 평가가 아닌 잠재되어 있는 학생의 학습능력을 평가하고자 하는 노력으로 적성검사의 성격을 갖도록 한 것이 수능이다. 이 시험에 대한 과학탐구 영역의 성격 제시부터 과학탐구 영역에 사용 가능한 시험적인 측정틀의 적용 실험까지 실제 수능의 시행 전에 실험평가를 통해 여러 방향을 모색했던 시기가 태동기라고 할 수 있다.

과학탐구 영역에서는 수능의 평가 내용이 기존의 과학적 개별 내용에 대한 지식에서 과학적 방법 위주의 탐구력으로 바뀌었다. 이 시기는 그 전과 다른 평가 내용을 평가하기 위한 방법이 다각적으로 모색되는 시기였으며 따라서 이 시기 동안에는 영역의 명칭, 문항 수, 배점 등 시험의 구체적 내용을 최적화하기

위한 여러 변화가 수반되었다. 실제 시험이 대학입학에 대한 자료로 사용되기 전에 다양한 실험평가가 활발하게 진행되었으며 이후 안정된 시험모형을 확립하는데 큰 역할을 한 시기이다.

(1) 시험모형

태동기의 수능은 2년간 7차에 걸쳐 행하여진 실험평가이며 이 시기의 과학탐구 영역의 시험은 수리·탐구 영역(1차부터 5차까지) 혹은 수리·탐구 영역(Ⅱ)(6차와 7차)에 포함되어 실시되었다.

중앙교육평가원의 김철언 외(1990)은 황정규, 박도순의 연구에 바탕을 두고 1994년 본 시험에 대비하여 ‘대학교육적성시험 실험평가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 연구에서의 시험 개념과 성격 규정, 측정 영역과 정신 능력, 출제 모형과 문항 제작 방법, 영역별 시험의 개념과 출제 방향 등을 정립하였다. 이에 따라 1990년 12월부터 1992년 11월까지 7차에 걸친 실험평가가 이어졌다. 실험평가에서는 수능의 시험모형, 출제의 기본 방향, 평가목표, 문항 개발의

〈표 3-5-2〉 1986~1992년 시험모형의 변화

차수	배점(점)		문항 수		시험 시간(분)
	탐구 영역	과학탐구	탐구 영역	과학탐구	
1	50	27	46	24*	120(수리·탐구)
2	50	27	50	27	120(수리·탐구)
3	50	27	50	27	120(수리·탐구)
4	60	33	60	33	120(수리·탐구)
5	60	33	60	33	120(수리·탐구)
6	60(수리·탐구Ⅱ)	33	60(수리·탐구Ⅱ)	33	90(수리·탐구Ⅱ)
7	60(수리·탐구Ⅱ)	33	60(수리·탐구Ⅱ)	33	90(수리·탐구Ⅱ)

* 1차 시험의 경우 주관식 2문항 포함

원칙 등 시험의 기본틀을 안정화시켜 시험모형의 타당성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각 실험평가가 진행됨에 따라 영역의 명칭, 문항 수, 배점, 시험 시간 등에서 많은 변화가 있었다. <표 3-5-2>는 태동기의 시험모형의 변화를 요약하여 보여준다.

1차 실험평가는 ‘대학교육적성시험’이란 명칭 하에 실시되었으며, 문항은 주관식 문항 20%, 5지선다형 객관식 문항 80%로 구성하였다. 그러나 2차 실험평가부터는 시험의 명칭이 ‘대학수학능력시험’으로 바뀌고, 채점의 객관성과 용이성을 고려하여 문항을 모두 5지선다형 객관식으로 개발하였다.

1~3차 실험평가에서는 수리·탐구 영역에서 수리 분야와 탐구 분야의 배점은 각각 50점이었으나, 4~7차 실험평가에서는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단위 수를 고려하여 수리 분야의 배점을 40점으로 축소하고, 탐구 분야의 배점을 60점으로 확대 조정하였다. 문항 당 배점은 처음에는 모든 문항에 대해 1점으로 하였으나, 4차 실험평가부터는 문항에 따라 차등 배점을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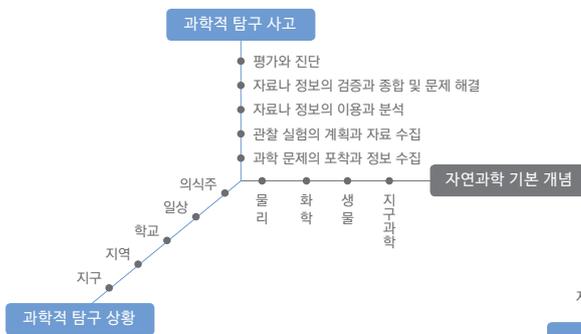
과학탐구 영역 시험의 문항 수는 1차 실험평가에서는 객관식 문항이 22개 문항, 주관식 문항이 2개 문항이었으며, 2차와 3차 실험평가에서는 모두

객관식 문항만이 출제되면서 27개 문항(사회탐구는 23개 문항)으로 늘었다. 4차 평가부터는 배점이 늘어나면서 문항 수도 33개 문항으로 늘어났다. 그리고 6차 실험평가부터는 수리·탐구 영역이 수리·탐구 영역(Ⅰ)과 수리·탐구 영역(Ⅱ)로 분리되면서 각각 다른 시간에 시험을 치렀으며, 과학탐구 영역 시험은 수리·탐구 영역(Ⅱ)에 포함되었다.

수리·탐구 영역의 시험 시간은 1차에서 5차 실험평가까지는 전체 120분이었으나, 시험 시간이 부족하다는 학생들과 고등학교 교사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6차 실험평가부터는 30분을 더 늘렸으며, 과학탐구가 포함된 수리·탐구 영역(Ⅱ)에 90분을 배당하였다.

(2) 평가틀

어떠한 내용을 어떠한 방법으로 평가할 지를 나타내는 평가틀은 과학탐구 영역에서 체계적이고 특정 분야에 편중되지 않은 평가 실시를 위하여 필요하다. 이 평가틀은 평가의 목적, 내용, 상황에 맞게 새로 작성되거나 기존의 평가틀을 수정하여 사용할



[그림 3-5-1] 과학적 탐구 사고력 평가틀



[그림 3-5-2] '1986~1992년'의 과학탐구 영역 3차원 평가틀

수도 있다. 수능과 같이 대규모로 이루어지고 평가 주기가 길어 평가범위가 넓은 경우에는 내용영역을 크게 구분하고, 행동영역도 단순화시켜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평가들은 보통 내용영역이나 또는 행동영역만을 사용하는 1차원 틀, 내용 차원과 행동 차원을 동시에 표시하여 이원목적분류표라 불리는 2차원 틀, 여기에 상황 차원을 추가한 3차원 틀 등이 있다. 수능의 실험평가 이전 단계에서 박승재는 과학적 탐구 사고력의 평가와 평가 내용영역인 자연과학의 기본 개념, 탐구가 이루어지는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출제를 실시하는 지침이 될 [그림 3-5-1]의 3차원 평가틀을 중앙교육평가원에 제출하였다(김형택 외, 1990).

이는 기존의 과학적 탐구 내용 기준의 평가틀과 달리 과학적 탐구 사고력의 평가를 과학의 내용과 탐구·사고과정, 그리고 탐구 상황의 종합적 지침으로 제시하였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

실제 이를 수정하여 태동기에 사용된 3차원 평가틀은 [그림 3-5-2]에 표시하였으며 이 평가틀은 실험평가와 이후 형성기에도 큰 변화 없이 사용되었다.

(가) 내용영역

이 시기의 출제 내용영역은 이후의 수능과는 확연히 구분되는 특징을 지닌다. 즉, 수능의 초기 도입 취지에 충실했던 시기로 교과통합적인 내용을 다루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고등학교 교육의 정상화를 위하여 수학과 과학의 통합적 교과 및 과학의 여러 영역간의 통합적 출제를 특히 강조하였다. 특히 암기적인 내용보다는 탐구력을 측정하기 위하여 이전의 대학 입학시험과는 확연히 구별되는 생소한 유형의 문제가 많이 사용되었다.

실험평가의 초기에는 수리 및 탐구 영역에 전체적으로 연관된 학습 능력을 측정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능력을 평가하기 위하여 수학, 사회, 과학 등 다양한 교과 영역에서 관련된 내용 소재를 활용하여 출제하도록 하였다. 즉, 문항의 소재는 개별 과목에 해당하는 내용을 활용하되 측정하고자 하는 능력은 이들 과목에 공통되는 탐구 능력이었다. 6차 실험평가부터는 수리와 탐구 영역이 수리·탐구 영역(I), 수리·탐구 영역(II)로 나뉘고, 이후 과학탐구와 사회탐구가 함께 수리·탐구 영역(II)을 구성하였지만 각각의 내용영역은 독립적으로 유지되었다. 과학탐구 영역은 제5차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따르는 물리 분야, 화학 분야, 생물 분야, 지구과학 분야 등 과학 전 영역을 다루도록 하고 있으며 특히 교과통합적인 상황에서의 문항 출제를 강조하였다.

(나) 행동영역

권균 외(1989)는 대학교육의 과학적성을 ‘대학 수업에서의 성취를 예언할 수 있는 도구적 과학 능력’으로 개념화하였다. 과학 적성을 이처럼 광범위하게 정의함에 따라 자연과학이나 공학 등의 학문 분야뿐만 아니라 인문, 사회과학을 포함하는 전 영역의 학문 영역에서 과학적 탐구 방법을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는가를 평가하는 것이 대학교육적성시험의 과학적성시험이라고 생각하였으며, 평가 영역을 생활과학, 기초과학, 과학적 탐구 및 방법, 첨단과학의 네 영역으로 나누었다. 네 영역 중에서 ‘과학적 탐구 및 방법’만이 탐구 방법론에 해당하며 나머지 세 가지는 ‘과학의 내용’ 영역에 해당한다. 이보다 진일보한 수리·탐구의 개념 정립은 김형택 외(1990)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이들은 수리·탐구 영역에서 평가하고자 하였던 수리능력, 과학적 탐구력, 사회적 탐구력의 평가 방안, 출제 지침, 표본 문항 등을 제시하였다.

이 시기의 수리·탐구 영역에 대한 평가를 살펴 보면 ‘고등학교의 수학, 자연과학, 사회과학 등의

분야에서 학습한 개념, 원리 및 법칙 등을 동원하여 문제를 파악하고 가능한 해결책을 찾아서 해결하는 문제 해결력을 평가한다.’라고 개념화되어 있다. 이에 바탕을 둔 이 시기의 과학탐구의 행동영역은 다음과 같다(국립교육평가원, 1992).

- 탐구 문제의 인식 능력
- 탐구의 설계 및 수행 능력
- 자료의 해석 및 분석 능력
- 결론 도출 및 평가 능력

(3) 특이사항

이 시기에는 학생들의 계열별 분류에 관계없이 모든 응시자가 같은 유형의 문제를 받아 풀었다. 특히 영역도 1차~5차 실험평가는 수리·탐구 영역으로, 과학탐구 영역이 분리되어 있지 않아서 성적 통지도 영역 전체에 대한 원점수를 제공하였다. 6차와 7차 실험평가에서는 수리 부분인 수리·탐구(I) 영역과 사회 및 과학탐구 영역인 수리·탐구(II) 영역이 분리되었음에도 수리·탐구 영역 전체에 대한 원점수를 제공하였다.

이는 수능의 초기인 태동기에 이 시험 자체가 통합 교과적인 성격을 갖는다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으로써 수능이 단지 과학의 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 교과목을 통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수리 및 과학, 사회에 관련 된 교과를 통합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시험이었음을 보여준다.

다. 형성기의 과학탐구 영역의 변화 (1994~1998학년도)

태동기에서 확정된 시험모형이 실제 대학입학

시험의 성격을 지니는 수능으로 자리 잡은 시기가 형성기이다. 1994학년도부터 시작하여 이후 제6차 교육과정에 따른 수능이 도입되는 안정기 이전까지인 1998학년도 수능이 이 시기에 해당한다. 이전 태동기에서 수능의 개념 정립부터 시작하여 7차에 걸친 실험평가 등을 통하여 시험모형 등의 지속적 수정을 거치면서 어느 정도 정형화된 형태를 지니기는 하였으나 실제 대학입시에 처음 적용하면서 여러 변화를 거친 시기이다. 처음부터 1년에 한 번 시행 예정이던 시험이 갑작스런 정책 변경으로 시행 첫 해에 1년에 2차례 시행되었고 이로 인한 여러 가지 운영 문제가 제기되자, 그 다음 해부터는 1년에 한 번 시행으로 환원되는 등 전체적인 수능 체제의 변화가 있었다. 과학탐구 영역 내에서도 학생의 계열 분류에 따른 공통 출제, 계열별 출제 등에 대한 변경이나 시험 시간의 변동 등 본격적인 수능으로 제자리를 찾아가는 과정에서 시험모형에 많은 변화를 수반하였다.

(1) 시험모형

수능의 첫 시행인 1994학년도 시험은 실험평가 결과에 바탕을 두고 작성된 ‘1994학년도 대학 수능능력시험 시행(초안)’에 의해 이루어졌다. 이 안에 따르면 시험은 1년에 1회 실시하기로 했으나, 교육부의 정책 결정 단계에서 시험 횟수가 연간 2회로 결정되어 그대로 시행되었다. 그러나 두 차례에 걸쳐 시행된 시험의 결과, 두 시험 간의 난이도 조정 실패가 큰 사회 문제로 부각되어 결국 1995학년도 시험부터는 연간 1회 시험을 실시하게 되었다. <표 3-5-3>에는 형성기 중에 실시된 과학탐구 시험의 배점, 문항수, 시험 시간이 제시되어 있다.

형성기의 시험모형에서 학년도별 변화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표 3-5-3> 참조)

첫째, 1994학년도부터 탐구 능력 시험 시간이 실험

평가 때보다 10분이 늘어나 100분이 되었고, 1997학년도에는 110분, 1998학년도에는 120분으로 증가하였다.

둘째, 1995학년도부터 수리·탐구 영역의 출제가 계열별로 구분되어 이루어졌는데, 75% 정도는 공통 출제하고 25%는 계열별로 구분하여 출제하였다. 즉, 과학탐구에서는 인문계열과 예·체능계열을 위한 시험은 과학Ⅰ과 과학Ⅱ에서 공통으로 24문항이 출제되고, 자연계열을 위한 시험은 공통 문항 이외에 물리, 화학을 중심으로 12개의 문항이 추가되어 모두 36개 문항이 출제되었다.

셋째, 이처럼 계열을 구분하여 출제한 취지에 맞추어 배점도 인문 및 예·체능계열 학생들을 위한 과학탐구 시험에는 24점이 배정된 반면에, 자연계열

학생들을 위한 과학탐구 시험에는 36점이 배정되었다. 이는 수리·탐구 영역(Ⅱ)의 사회탐구와 과학탐구의 배점 비율을 인문계열과 예·체능계열은 6:4로 하고, 자연계열은 4:6으로 한다는 출제의 기본 원칙에도 부합되는 것이다. 또한 1994학년도 부터는 동점자의 수를 줄이기 위해서 문항당 점수를 0.8, 1, 1.2 점으로 차등 배점하였다. 1997학년도 시험부터는 문항 수를 늘리고 문항당 배점을 차등화 하는 등 수능의 변별력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1997학년도 시험에는 1996학년도 시험에 비해 인문 및 예·체능계열은 8문항이 늘어 32문항이 되었으며, 자연계열에서는 12문항이 늘어 48문항이 되었다. 따라서 시험 시간도 1997학년도 시험에서는 10분이 늘어 110분으로, 1998학년도 이후부터는

〈표 3-5-3〉 1994~1998학년도 과학탐구 영역의 시험모형

학년도	배점(점)				문항 수			시험 시간(분)		
	탐구 영역	과학탐구			탐구 영역	과학탐구				
1994 1차	60	33			60	33		100		
1994 2차	60	33			60	33		100		
1995	60	계열	인문	24	60	계열	공통	계열	100	
			예·체능			예·체능		0		
			자연			36		자연		24
1996	60	계열	인문	24	60	계열	공통	계열	100	
			예·체능			예·체능		24		0
			자연			36		자연		24
1997	120	계열	인문	48	80	계열	공통	계열	110	
			예·체능			예·체능		32		0
			자연			72		자연		32
1998	120	계열	인문	48	80	계열	공통	계열	120	
			예·체능			예·체능		32		0
			자연			72		자연		32

10분이 더 늘어 120분으로 조정되었다. 배점도 인문 및 예·체능계열은 48점으로, 자연계열은 72점으로 2배씩 증가되었는데, 배점의 이러한 조정은 수능 성적의 총점이 200점에서 400점으로 2배 늘어난데 따른 것이었다.

1997학년도부터 과학탐구 영역의 시험에서 나타난 큰 변화는 시험의 변별력을 높이기 위해 문항 수를 증가시키면서 동시에 문항 당 배점도 1점, 1.5점, 2점으로 차등화했다는 점이다.

(2) 평가틀

형성기의 수능에서 과학탐구 영역에 적용된 3차원 평가틀은 태동기의 3차원 평가틀과 비교하여 전체적 형태에서 큰 변화 없이 거의 동일하다. 다만 내용영역과 행동영역의 세부 내용에서는 약간의 변화가 있다(그림 3-5-3 참조).

(가) 내용영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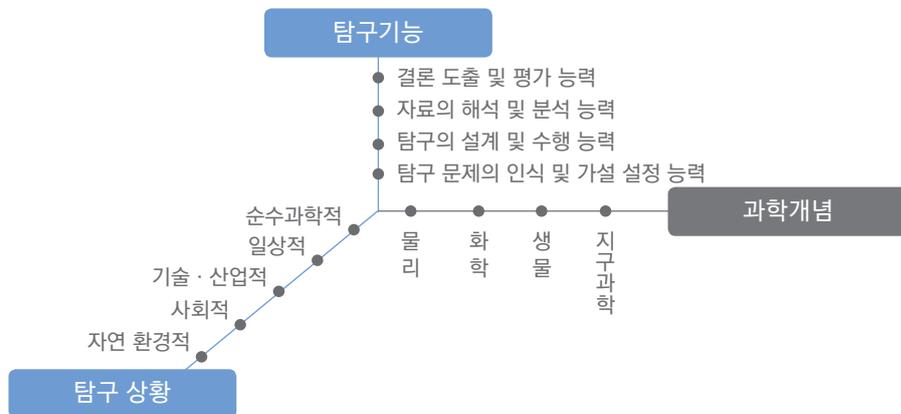
형성기의 시험 평가틀에서 내용영역은 비교적 변화가 많았는데 이는 크게 두 가지 요인에 기인한다.

첫째는 1994학년도의 시험이 두 번 시행되어 1차 시험 실시 때와 2차 시험 실시 때까지의 수업 진도가 달라 출제 내용의 범위가 달라졌고 1995학년도부터는 연 1회 실시되었다는 것과 둘째, 1994학년도에 계열에 관계없이 공통으로 시행되었으나 1995학년도부터는 계열별로 분리가 되었다는 것이다.

수능 첫 해인 1994학년도에는 인문계열, 예·체능계열, 자연계열의 구분이 없이 시험을 치렀기 때문에 계열에 관계없이 공통으로 학습한 과학I, 과학II 만이 출제 범위가 되었으며 1차 시험과 2차 시험에 따라 출제 범위에 차이가 있었다. 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의 교과목은 자연계열 학생만 수강하였기 때문에 출제 범위에 포함할 수가 없었다.

1995학년도에 인문, 예·체능계열과 자연계열 시험이 분리되면서 공통부분과 자연계 선택과목의 출제 범위도 차이가 생겼다. 제5차 교육과정에 따라 1995학년도부터 1998학년도 수능 응시 대상 자연계열 학생들은 과학II를 수강하지 않고 대신에 물리 과목과 화학 과목을 수강하였기 때문이다. 참고로 1994학년도 수능의 출제 내용 기준이 된 과학 교과서 내용은 <표 3-5-4>와 같다.

이 시기의 출제 내용 범위를 다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3-5-3] 1994~1998학년도 과학탐구 영역 3차원 평가틀

- 1994학년도 1차 시험 출제 내용 범위
 - 생물: 과학I(상) 까지
 - 지구과학: 과학I(하) 까지
 - 물리: 과학II(상) 중에서 전자기(전하와 전류)까지
 - 화학: 과학II(하) 중에서 화학 반응(화학식과 화학식량)까지
- 1994학년도 2차 시험 출제 내용 범위
 - 생물: 과학I(상) 까지
 - 지구과학: 과학I(하) 까지
 - 물리: 과학II(상) 까지
 - 화학: 과학II(하) 까지
- 1995~1998학년도 시험 출제 내용 범위
 - 공통 시험: 과학I 전 범위
과학II 내용 중에서 물리, 화학의 내용과 공통부분
 - 자연계열 시험: 생물, 지구과학을 포함하나 주로 물리, 화학에서 출제

(나) 행동영역

수능의 첫 해인 1994학년도의 과학탐구 영역에서 측정하고자 하는 평가목표인 탐구 기능을 다음과 같이 열거하였다. 이는 실험평가에서 한 항목으로 기술되었던 ‘탐구의 설계 및 수행 능력’에서 설계와 수행을 분리하여 기술한 것이다.

- 문제 인식 및 가설 설정 능력

- 탐구의 설계 능력
- 탐구의 수행 능력
- 자료의 해석 능력
- 결론의 도출 및 평가 능력

1995학년도의 시험에서는 약간의 수정이 있었는데 ‘문제 인식 및 가설 설정 능력’을 ‘탐구 문제의 인식 및 가설 설정 능력’이라고 자구를 수정하였으며 ‘탐구의 설계 능력’과 ‘탐구의 수행 능력’의 두 항목을 묶어 ‘탐구의 설계 및 수행 능력’이라는 단일 항목으로 변경하였다. 또한 ‘자료의 해석 능력’ 항목도 ‘자료의 분석 및 해석 능력’으로 수정하였다. 탐구 설계 능력과 탐구 수행 능력은 행동영역을 다섯 가지 항목에서 네 가지 항목으로 단순화시키는 효과가 있었으며 자료의 해석은 자료의 분석과 해석 능력으로 자료 활용에 대한 능력의 범주를 확대하였다(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05a).

1995년에 수정된 평가목표는 1998년까지의 형성기 내내 변동 없이 계속하여 사용되었다. 주어진 탐구 상황에서 과제를 탐구하고 해결하는데 필요한 과학적 탐구 기능의 평가목표에서 구체적 하위 영역의 평가 요소는 다음과 같다.

- 탐구 문제의 인식 및 가설 설정 능력
 - 전제나 기본적인 가정의 인식
 - 논쟁점 및 문제의 성격과 의미 파악
 - 주어진 자료 속에서 핵심적 개념 및 제기되는 문제의 파악

〈표 3-5-4〉 1994학년도 출제 내용의 교과와 내용 구성

인문계열, 예·체능계열, 자연계열 공통교과	과학 I(상)	과학 I(하)	과학 II(상)	과학 II(하)
내용	생물	지구과학	물리	화학

* 자연계열 학생의 경우 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 추가 수강

- 가설(문제에 대한 잠정적인 풀이)의 설정
- 탐구의 설계와 수행 능력
 - 탐구 방법의 선정 및 탐구 절차의 구체화
 - 관찰, 측정, 자료 수집 및 결과의 정리
 - 문제와 관련된 변인의 통제
- 자료의 분석 및 해석 능력
 - 자료의 핵심 내용과 특성 파악
 - 주어진 자료의 경향성 및 규칙성 등을 파악
 - 자료의 분류 및 전환(기호 사용, 도표화 등)
 - 정성적, 정량적 상관 관계 및 인과 관계 파악
- 결론의 도출 및 평가 능력
 - 자료 해석 결과의 종합 및 가설의 검증
 - 탐구 과정 및 결론의 타당성 및 신뢰도 파악
 - 결론으로부터 포괄적인 설명 체제로의 일반화
 - 가치 판단 또는 의사 결정의 타당성 판단
 - 사실과 가치의 구분 및 대립, 갈등의 상황과 가치의 식별
 - 대안적인 가치와 비교 또는 결과 예측

[예시 문항 1]

<1995학년도 수능 수리·탐구 영역(II) 인문, 예·체능 공통 24번>

24. 영희네 학교 화학 특활반에서는 그림 (가)와 (나)의 자료를 가지고 서로 토론하였다. (그림 (가)는 도시 A의 도심에서의 CO 농도 및 교통량 변화를, 그림 (나)는 도시 B의 지역별 CO 농도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각 그래프는 날씨가 좋은 날 하루 동안의 농도 변화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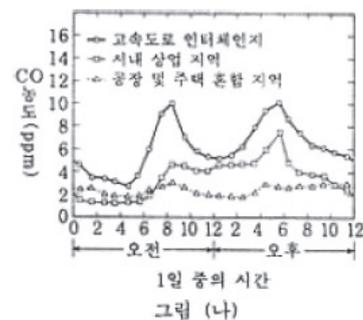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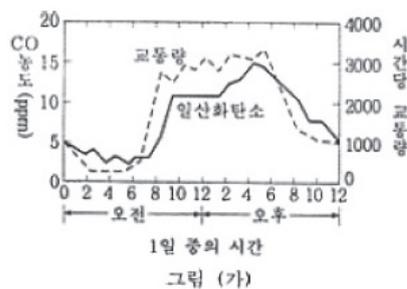


그림 (가)와 여러 가지 대기 현상을 바탕으로, 그림 (나)의 도시 B에서 일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현상들에 대하여 발표한 것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세 지역 중 공장 및 주택 혼합 지역이 하루 동안의 교통량 변화가 가장 적을 것이다.
- ② 상업 지역의 교통량은 오전보다 오후에 많을 것이다.
- ③ 강한 바람이 계속 부는 날의 하루 중 CO 농도 변화는 이 그래프에서의 농도 변화보다 작을 것이다.
- ④ 자동차들을 전부 전기 자동차로 교체하면, 고속도로 인터체인지에서 CO 농도 변화가 크게 줄어들 것이다.
- ⑤ 오전 7~8시경, 도시 B의 여러 지역에서의 대기 중 이산화탄소(CO₂) 농도가 감소할 것이다.

[예시 문항 1]은 인문계열, 예·체능계열, 자연계열 공통으로 출제되었던 것으로 과학Ⅱ 영역에서의 자료의 해석과 결론의 도출 및 평가 능력을 측정하기 위한 문항이다. 문항의 소재가 산업 및 일상 생활, 과학에 고루 걸쳐있으며 내용영역은 과학Ⅱ의 화학이지만 얼핏 보면 내용영역이 지리인지 과학인지 알기 힘들 정도로 교과통합적인 성격을 지닌다. 또한 과학 문제이면서도 특정 과학적 지식을 묻지 않고 과학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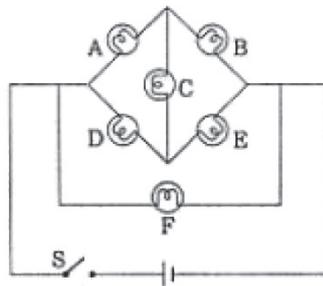
탐구 능력을 측정하는 이 시기 수능의 특성을 잘 나타내는 문제이다.

또 다른 예로 든 [예시 문항 2]는 같은 해에 출제된 자연 계열의 시험 문항이다. 이는 물리 교과목의 전문화된 문제로 공통 문항과 달리 교과통합적인 성격이 거의 보이지 않으며 물리학의 전기 부분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논리적 방법만으로 풀 수 없는 문제의 예를 나타낸다.

[예시 문항 2]

<1995학년도 수능 수리·탐구 영역(Ⅱ) 자연계열 26번>

26. 동일한 전구 6 개를 연결하여 그림과 같은 회로를 만들었다.



스위치 S를 닫았을 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는 결과를 다음 <보기> 중에서 모두 고른 것은?

<보 기>

- ㄱ. 전구 A는 전구 B보다 밝을 것이다.
- ㄴ. 전구 C는 켜지지 않을 것이다.
- ㄷ. 전구 D는 전구 A보다 전력 소비가 많을 것이다.
- ㄹ. 전구 F는 전구 E보다 전력 소비가 많을 것이다.

- ① ㄱ, ㄴ
- ② ㄱ, ㄹ
- ③ ㄴ, ㄷ
- ④ ㄴ, ㄹ
- ⑤ ㄷ, ㄹ

(3) 특이사항

수능이 7차의 실험평가를 거쳐 1994학년도 대학 입학시험에 처음으로 적용되었다. 실험평가에서와

마찬가지로 과학탐구 영역의 성적은 사회탐구 영역, 수리 영역의 성적과 모두 합쳐져서 계열에 관계없이 수리·탐구 영역의 점수로 통지되었으므로 학생의 계열의 차이에 따른 과학탐구 영역의 성적 자료는 물론

전체 학생의 과학탐구 영역만의 성적에 대한 분석도 불가능하였다. 1995학년도 시험부터는 학생들의 진학 희망 전공에 따라 인문, 예·체능, 자연계열로 구분하여 출제되었다. 계열에 따라 사회탐구, 과학탐구의 상대적 문항 수 구성 비율이 다르므로 문제도 다르기는 하였으나 인문계열이나 예·체능 계열과 마찬가지로 자연계열의 학생도 수리·탐구 영역(Ⅱ)에서 사회탐구와 과학탐구를 동시에 풀었기에 사회탐구 영역과 과학탐구 영역의 성적이 구분되어 표시되지는 않았고 따라서 과학탐구 영역만의 성적 분석도 불가능하였다(〈표 3-5-5〉 참조).

라. 성장기의 과학탐구 영역의 변화 (1999~2004학년도)

성장기는 제6차 교육과정에 따라 공부한 학생들이 시험을 본 시기이다. 제6차 교육과정의 정신에 따라 공통과목 외에 심화 선택과목 이 도입되었으며 이에 따라 문항이 필수 문항과 선택 문항으로 분리되었고 따라서 같은 자연계열 내에서도 선택과목에 따라 다른 문항을 풀게 되었다. 제6차 교육과정을 반영한 이 시기의 첫 해인 1999년은 그 전 해와 비교하여 출제 범위 등이 변하는 등 큰 변화를 보였지만 그 이후 2004학년도까지의 기간 내에는 큰 변화 없이

그대로 지속되었다. 영역의 명칭이 한 차례 변경 되었으나 그 외에는 변화가 거의 없었다. 따라서 과학탐구에 국한하여 생각하면 성장보다는 ‘안정’에 가까운 시기이다.

(1) 시험모형

이전 시기와 비교하여 성장기의 첫 해인 1999학년도는 제6차 교육과정이 반영된 수능이 실시 되었다. 따라서 교육과정의 개편에 따라 교과서의 내용이 변하였고 이에 따라 출제 범위가 크게 변하였다. 영역의 명칭은 기존의 수리·탐구 영역(Ⅱ)에서 2002학년도 이후 사회탐구·과학탐구 영역으로 변경되었다. 이 시기 내에서는 계열의 구분이나 계열별 문항 수, 배점, 시험 시간 등 시험모형의 변화가 거의 없었다.

이 시기에는 과학탐구 영역에서 계열에 관계없이 32문항, 배점 48점에 해당하는 공통과학 문제를 모두 풀어야 했으며, 자연계열의 경우에는 물리Ⅱ, 화학Ⅱ, 생물Ⅱ, 지구과학Ⅱ 중 한 과목을 택하여 16문항, 배점 24점에 해당하는 문제를 추가로 풀어야 했다.

탐구 영역의 과학탐구에 해당하는 부분에서 계열에 관계없이 필수로 부과되는 내용은 ‘공통과학’ 교과 부분이며 이는 계열에 관계없이 공통적으로 고등학교

〈표 3-5-5〉 1994~1998학년도 학년도별 성적통지 표기 내용

학년도	성적통지 표기 내용 (과학탐구 해당 부분)
1994 1차	3개 영역별 점수, 총점, 총점에 대한 백분위 (수리·탐구 영역(Ⅰ)과 수리·탐구 영역(Ⅱ)를 합한 영역의 원점수)
1994 2차	
1995~1996	4개 영역별 점수, 총점, 계열별 백분위 (수리·탐구 영역(Ⅱ) 원점수)
1997~1998	영역별 점수, 영역별 백분위 점수, 총점, 총점 백분위 (수리·탐구 영역(Ⅱ) 원점수, 수리·탐구 영역(Ⅱ) 원점수에 대한 백분위 점수)

1학년에서 다루는 교과목으로 그 내용은 ‘문제 인식 및 가설 설정’, ‘탐구의 설계’, ‘탐구의 수행’, ‘자료의 해석’, ‘결론 도출 및 평가’ 등 탐구 과정에 대한 전반적 설명과 각 과학 교과에 대한 내용으로 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공통과학 32문항에서 각 교과에 해당하는 문항 수는 거의 균등하게 분배되었다.

영역의 명칭은 2001학년도까지는 수리·탐구 영역(Ⅱ)로 불리고 2002학년도부터는 사회탐구·과학탐구 영역으로 불렸는데 사회탐구를 포함하여 전체 80문항에 120분의 시험 시간이 주어졌고 문항 당 평균 1분 30초 정도의 시간이 주어졌다. 인문 및 예·체능계열은 공통사회, 공통과학 및 사회선택과목을, 그리고 자연계는 공통사회, 공통과학, 과학 선택과목을 풀게 되었으며 각 과목당의 시간 배분 없이 120분 범위 내에서 풀게 되어 일부 학생들은 시간 배분에 어려움을 갖기도 하였다(〈표 3-5-6〉 참조).

각 문항당 배점은 1점, 1.5점, 2점으로 하되 문제에서 요구하는 사고 수준, 문제를 푸는 데 소요되는 시간, 교육과정상의 중요도에 따라 차등 배점하도록 하였다. 실제 출제된 문항의 배점별 비율은 공통과학과 선택과목 모두에서 1점 문항 12.5%, 1.5점 문항 75%, 2점 문항이 12.5%정도를 유지하였다(〈표 3-5-7〉 참조).

(2) 평가틀

성장기는 새로운 교육과정이 적용되는 시기였으나 내용영역이 아닌 행동영역은 큰 변화가 없었으므로 3차원 평가틀의 모양은 거의 비슷하였다. 앞서 기술한 것과 같이 1995년 이후 행동영역이 4개의 요소로 변화하였으며 이는 성장기 내내 사용되었다.

〈표 3-5-6〉 1999~2004학년도 과학탐구 영역의 시험모형

학년도	계열	배점(점)		문항 수			시험 시간(분) 탐구 영역 전체
		탐구 영역	과학탐구	탐구 영역	과학탐구 필수*	과학탐구 선택**	
1999~2004	인문	120	48	80	32	0	120
	예·체능	120	48	80	32	0	
	자연	120	72	80	32	16	

* 공통과학 과목

** 물리Ⅱ, 화학Ⅱ, 생물Ⅱ 지구과학Ⅱ 중 택 1

탐구 영역의 공식 명칭 변경으로 1997~2001학년도는 수리·탐구 영역(Ⅱ)이며 2002~2004학년도는 사회탐구·과학탐구 영역임.

〈표 3-5-7〉 1999~2004학년도 과학탐구 영역의 배점에 따른 문항 수

	공통과학(32문항)			선택과목(16문항)		
	1점	1.5점	2점	1점	1.5점	2점
문항 수	4	24	4	2	12	2
비율(%)	12.5	75	12.5	12.5	75	12.5

(가) 내용영역

이 시기의 수능에서는 인문, 예·체능계열의 경우 계열에 관계없이 모든 학생이 수강하는 공통과학이 출제 범위로 확정되었다. 자연계열 학생은 이에 추가하여 심화 과정에서 선택적으로 이수하였던 물리Ⅱ, 화학Ⅱ, 생물Ⅱ, 지구과학Ⅱ 중 한 과목을 선택하여 시험을 치르게 되었다.

이 시기의 시험 문제의 내용영역에 대한 출제 기본 방향은 다음과 같다(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05a).

-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내용과 수준에 맞추어 출제한다.
- 가능한 한 문제 상황 중심으로 통합교과적 소재를 활용하여 출제한다.
- 공통과학의 경우 각 교과소재를 고르게 사용하여 출제한다.
- 선택과목의 경우, 어려운 과학 지식보다는 기본 개념을 바탕으로 한 탐구 사고력을 측정하도록 한다.
- 중학교 이하의 과정에서 다룬 내용도 관련지어 문항을 출제할 수 있다.

1999학년도 시험부터 제6차 교육과정에 따라 학습을 한 학생들이 응시하게 됨에 따라 문항을 필수와 선택으로 구분하여 출제하였는데, 이는 새로 도입된 제6차 교육과정의 정신을 반영한 결과였다. 이에 따라 출제 내용 범위가 달라졌으며 교과서의 일부 내용이 변화하였으므로 구체적인 출제 내용도 이에 따라 변경되었다.

과학 교과에서 제5차 교육과정과 비교하여 가장 크게 달라진 것은 공통과학 과목의 신설이다. 제5차 교육과정의 과학은 비자연계열 학생들을 위한 과학이 지나치게 학문 중심적이고, 탐구과정으로서의 과학보다 산물로서의 과학 지식 체계를 지나치게

강조하였다는 단점 등이 지적되었다. 제6차 교육과정에서 신설된 공통과학은 고등학교 과학에서 공통 필수 과목이다. 제6차 교육과정 해설에 수록된 공통과학의 성격 중 일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교육부, 1995).

- 실생활 문제를 과학적으로 해결하는 데 필요한 탐구 방법의 습득을 강조
- 이를 통하여 과학의 기본 개념을 이해
- 내용은 물질, 힘, 에너지, 생명, 지구, 환경, 과학의 탐구, 현대 과학과 기술 등의 지식 영역과 분류, 측정, 예상, 실험, 조사, 토의, 자료 해석 등의 기본적 탐구 영역으로 구성
- 개념 체계보다 소재 중심으로 구성
- 실생활 문제와 기술적 응용 문제를 도입하여 기본적 과학의 지식과 탐구 과정을 이해
- 탐구 활동을 중심으로 문제 해결력 양성
- 학생 스스로 문제를 발견하여 해결하도록 지도
- 과학의 개념 체계는 물리Ⅰ, 화학Ⅰ, 생물Ⅰ, 지구과학Ⅰ, 또는 물리Ⅱ, 화학Ⅱ, 생물Ⅱ, 지구과학Ⅱ에서 다루도록 지도

즉, 공통과학은 모든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과학의 핵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과목이다. 따라서 과학 내용의 도입이나 개념 위주의 학습에서 벗어나 탐구 활동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념만 도입하여, 경험 중심 및 생활 중심의 학습으로 과학적 탐구 능력과 문제 해결력을 신장시키고, 과학의 본성과 과학의 영향 등을 인식할 있도록 하는 과목이다. 특히 공통과학에서는 제6차 교육과정 과학교과의 특성을 살리기 위해 통합교과적인 소재를 활용하여 문제 상황 중심으로 출제할 것이 강하게 요구되었다. 또한 이전 시기에는 계열별로 같은 문항을 풀었던 것에 비하여 과학탐구 영역에서 모든 문항이 필수와 선택 문항으로 구성되었기 때문에 과학 개념 축의 내용이 선택

과목에 따라 다르게 구성되었다.

(나) 행동영역

1999학년도부터 2004학년도까지의 성장기는 제6차 교육과정에 따라 과학을 공부하는 학생이 시험을 치른 시기이다. 이 시기는 과학탐구 영역에 국한하여 보면 비교적 큰 변동 없이 안정적으로 출제된 시기이기도 하다. 특히 평가의 행동영역에서는 1995학년도부터 적용되어 온 다음의 요소가 변화 없이 사용되었다.

- 탐구 문제의 인식 및 가설 설정 능력
- 탐구의 설계와 수행 능력
- 자료의 분석 및 해석 능력
- 결론의 도출 및 평가 능력

이 시기의 공통과학의 특징적인 문항 유형으로 ‘탐구 활동’에 대한 이해를 묻는 것이 있다. 즉, 과학적인 내용 자체보다 문제 인식, 가설 설정, 가설 검증을 위한 실험, 자료의 수집과 해석, 결론 도출의 과정이라는 탐구 활동에서 조건 통제를 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항 유형이다. [예시 문항 3]은 이런 유형의 문항 사례이다.

[예시 문항 3]

〈2002학년도 수능 과학탐구 영역 자연계열 33번〉

33. 색깔에 따라서 태양 복사 에너지를 흡수하는 정도가 다르다는 것을 배운 영희는 자동차에서도 같은 현상이 일어나는지 궁금해졌다. 영희는 아래와 같은 가설을 세우고, 이를 검증하기로 했다.

〈가설〉 햇빛을 받으면 자동차의 색깔에 따라 차 안의 온도가 달라질 것이다.

〈보기〉의 실험 조건 중에서 영희의 가설을 검증하는데 적절한 조건끼리 연결된 것은? [1점]

〈보 기〉

○ 자동차의 위치	ㄱ. 모두 양달 ㄴ. 2대는 양달, 2대는 음달
○ 자동차의 색	ㄷ. 모두 같은 색 ㄹ. 검은색, 흰색, 빨간색, 파란색
○ 자동차의 종류	ㅁ. 모두 같은 종류 ㅂ. 다양한 종류
○ 온도 측정 위치	ㅅ. 차 안의 같은 위치 ㅇ. 차 안의 서로 다른 위치

	자동차의 위치	자동차의 색	자동차의 종류	온도 측정 위치
①	ㄱ	ㄷ	ㅁ	ㅅ
②	ㄱ	ㄹ	ㅁ	ㅅ
③	ㄱ	ㄹ	ㅂ	ㅅ
④	ㄴ	ㄷ	ㅂ	ㅇ
⑤	ㄴ	ㄹ	ㅁ	ㅇ

[예시 문항 4]는 선택형 문항의 예시로 자연계 선택과목인 생물Ⅱ의 문항이다.

[예시 문항 4]

<2000학년도 수능 수리·탐구영역Ⅱ 자연계열 생물(Ⅱ) 78번>

78. 그림은 세포질이 발생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개구리 수정란을 가지고 수행한 실험이다. 16 세포기의 식물극 할구에서 세포질을 뽑아 다른 수정란의 16 세포기 할구에 주입하여 2차 배의 형성 여부를 조사하였다. (단, 빗금 친 부분은 회색 신원환이 있었던 위치를 나타낸다.)

실험	실험 내용	실험 결과 (2차 배 형성 여부)
(가)	<p>동물극 회색 신원환이 있었던 위치</p> <p>A 할구 식물극 B 할구 A' 할구</p> <p>B 할구 세포질을 다른 수정란의 A' 할구에 주입</p>	<p>형성됨</p>
(나)	<p>동물극</p> <p>B 할구</p> <p>B 할구 세포질을 다른 수정란의 동물극 할구에 주입</p>	<p>형성 안됨</p>
(다)	<p>A 할구</p> <p>A' 할구</p> <p>A 할구 세포질을 다른 수정란의 A' 할구에 주입</p>	<p>형성 안됨</p>

이 실험 결과의 해석이나 추론으로 타당한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보 기>

- ㄱ. 모든 할구의 세포질이 다른 수정란에서 2차 배를 형성할 수 있다.
- ㄴ. B 할구의 세포질은 다른 수정란의 식물극 할구에서 2차배를 형성하였다.
- ㄷ. (가) 실험에서 주입된 B 할구의 세포질은 또 다른 원구 상순부를 유도하였을 것이다.
- ㄹ. A 할구의 세포질이 다른 수정란의 동물극 할구에 주입되었다면 2차 배를 형성하였을 것이다.

- ① ㄱ, ㄴ ② ㄱ, ㄷ
- ③ ㄴ, ㄷ ④ ㄴ, ㄹ
- ⑤ ㄷ, ㄹ

(3) 특이사항

이 시기에는 그 전 시기와 달리 같은 계열 내에서도 심화 선택과목에 따라 문항이 다르게 구성되었다. 물론 과학탐구 영역에서 필수적으로 풀어야 하는 공통과학 문제가 66%, 선택형인 심화과목 문제가 33% 정도로 공통적인 문제의 비중이 더 크기는 했지만 심화 선택 문제의 난이도가 다르므로 어떤 선택과목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원점수의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선택과목에 따른 유·불리 문제가 발생하였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표준점수제가 도입되었다. 표준점수를 사용한 이유는 선택과목 간 난이도 차이 문제를 완화하고 수험생들이 학습하기 쉬운 특정 과목에 편중되지 않도록 하며, 자신의 소질과 적성에 따라 공부하도록 유도하여 궁극적으로 학교 교육의 정상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한 것이었다.

표준점수 도입을 비롯하여 이 시기의 성적표 표기는 해당년도에 따라 변화되었다. 특히 2002학년도부터는

수능의 총점에 의한 학생 선발 관행을 지양하고 학생의 소질과 적성을 중시하는 전형 방식을 다양화하며 대학 수학에 필요한 최소 자격을 판단하는 자료로 활용되도록 총점을 없애고 등급제를 도입하였다. 이 등급제는 이후에도 계속 사용되었다.

마. 안정기의 과학탐구 영역의 변화 (2005~2013학년도)

수능이 대학에서의 수학 능력에 대한 적성검사 성격을 지니더라도 그 내용은 근본적으로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의거하여 출제되어야 하며 따라서 교육과정의 변경은 수능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온다.

제7차 교육과정에 따라 교육받은 학생들이 처음으로 수능에 응시한 2005학년도부터 2013학년도까지를 안정기로 분류하였다. 제7차 교육과정의 기본 방향인 선택과 집중의 원리를 충실히 반영하기 위하여

〈표 3-5-8〉 1999~2004학년도 과학탐구 영역의 성적통지 표기 내용

학년도	성적통지 표기 내용
1999	과학탐구 영역 원점수에 대한 백분위 · 표준점수 · 변환표준점수, 총점에 대한 백분위 및 변환표준점수
2000~2001	과학탐구 원점수에 대한 백분위 · 표준점수 · 변환표준점수 및 백분위, 총점에 대한 백분위 · 변환표준점수 및 백분위
2002~2004	과학탐구 영역에 대한 원점수 및 백분위점수, 표준점수, 변환표준점수 및 백분위점수 기재 총점은 기재 하지 않는 대신 변환표준점수에 의한 영역별 등급 및 5개 영역 종합 등급 기재

〈표 3-5-9〉 2005~2013학년도 과학탐구 영역의 시험모형

학년도	과학탐구 각 선택과목당			선택과목 수
	배점 (원점수)	문항 수	시험 시간(분)	
2005~2011	50점	20 2점×10문항 3점×10문항	30	최대 4과목 (물리Ⅱ, 화학Ⅱ, 생물Ⅱ, 지구과학Ⅱ 중 최대 2과목)
2012~2013	50점	20 2점×10문항 3점×10문항	30	최대 3과목

2005학년도부터의 과학탐구 영역에서는 응시자가 원하는 응시 과목을 선택할 수 있도록 개편되었다. 개별 문항의 형식 등은 큰 변화가 없었지만 공통과목이 폐지되고 모두 선택과목으로 변환함에 따른 표준 점수제의 도입, 각 선택과목에 따른 유·불리 문제 해소를 위한 난이도 조절의 중요성 고려 등 시험의 시행에 있어서는 굵직한 변화가 많았던 시기이다. 과학탐구 영역에서는 성장기에 비해 시험모형 등에서의 차이가 매우 컸으며 선택과목 수의 변화, 평가틀 등 거의 모든 부분에서의 변화가 매우 컸던 시기이다.

(1) 시험모형

이 시기에 시험모형이 대폭적으로 변화되었다. 이는 제7차 교육과정을 학습한 학생이 처음 시험을 보게 됨에 따라 출제 과목, 출제 내용 등에서 큰 변화가 필수적이었기 때문이다.

2005학년도 수능은 제7차 교육과정이 적용된 첫 해로서 시험 과목, 시간, 문항 수, 배점 등 시험모형의 모든 면에서 변화를 맞이하였다. ‘안정기’ 시기에는 선택형 수능이 도입됨에 따라 기존의 공통과학이 폐지되고 4개의 선택과목이 물리I, 물리II, 화학I, 화학II, 생물I, 생물II, 지구과학I, 지구과학II 8개의 선택과목으로 개편되어 선택의 폭이 확대되었다. 또한 응시할 수 있는 선택과목의 수도 한 과목부터 여러 개까지 가능하였다. 이 시기 전체를 통하여 선택과목은 8과목을 유지하였지만 이들 선택과목 중 학생이 응시할 수 있는 최대 과목 수는 학년도에 따라 4개에서부터 3개로 변화하였다.

이 시기의 과학탐구 영역에서 선택과목에 대한 제한은 다음과 같이 변화하였다.

- 2005~2011학년도: 물리I, 화학I, 생물I,

지구과학I, 물리II, 화학II, 생물II, 지구과학II 8과목 중 최대 택 4(단, 물리II, 화학II, 생물II, 지구과학II 과목 중에서는 최대 2과목까지 선택 가능함)

- 2012~2013학년도: 물리I, 화학I, 생물I, 지구과학I, 물리II, 화학II, 생물II, 지구과학II 8과목 중 최대 택 3

이 시기의 가장 큰 변화는 탐구 영역에서 사회탐구, 과학탐구, 직업탐구 영역의 시험 중 한 가지를 선택적으로 응시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 이전까지 계열에 관계없이 사회탐구나 과학탐구의 공통 문항을 풀기 위해서 모든 학생들이 사회탐구나 과학탐구 영역의 학습을 해야만 했다. 그러나 이 시기에는 사회탐구나 직업탐구를 선택하는 학생의 경우 과학탐구는 전혀 볼 필요가 없으므로 과학구 영역의 문항은 한 문제도 풀 필요가 없어졌다. 마찬가지로 과학탐구나 직업탐구를 선택하는 학생의 경우 사회탐구 영역의 문항은 풀 필요가 없어졌다. 또한 탐구 영역에 대부분 실업계 고등학교 졸업생들이 응시하는 직업탐구 영역이 도입됨에 따라 수능 초기의 적성검사적인 성격이 일부 약해지고 그 대신 고등학교 교과교육에 대한 성취도 평가 성격이 일부 증가하였다. 응시 시간도 사회탐구와 과학탐구를 포함하여 전체 120분에서 각 응시 선택과목별 30분으로 변경되었다.

문항 수는 기존의 사회탐구를 포함한 탐구 전체 80문항에서 선택과목별 20문항으로 변화하였다. 배점은 문항의 난이도, 사고 수준, 중요도, 소요 시간 등을 고려하여 1점 혹은 2점으로 차등 배점하여 80문항, 120점 배점하던 것을 각 문항마다 2점 혹은 3점으로 변경하여 각 과목별 20문항, 50점 배점으로 변경하였다. 각 과목간의 난이도를 조정하여도 차이가 나기 마련이므로 표준 점수가 더욱 중요하게 되었다.

과학탐구에서 모든 과목이 선택형으로 변환함에

따라 과목이 8개로 늘었고 이에 따른 복잡함 때문에 2005학년도부터 시작된 이 시기에는 홀수형과 짝수형의 2개 유형이 없어지고 과학탐구 영역의 모든 과목은 단일 유형으로 출제되었다.

(2) 평가틀

2005학년도 수능은 제7차 고등학교 교육과정이 반영된 첫 시험이다. 따라서 제7차 고등학교 교육 과정에 해당하는 내용과 수준에 맞추어 학교 교육의 정상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출제함을 목표로 하였다.

이 시기의 큰 변화 중 하나는 평가틀의 변화이다. 이 시기에 적용되었던 과학적 탐구 능력의 평가틀은 탐구 기능, 내용, 상황을 각각 축으로 하는 3차원 구조로 [그림 3-5-4]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가) 내용영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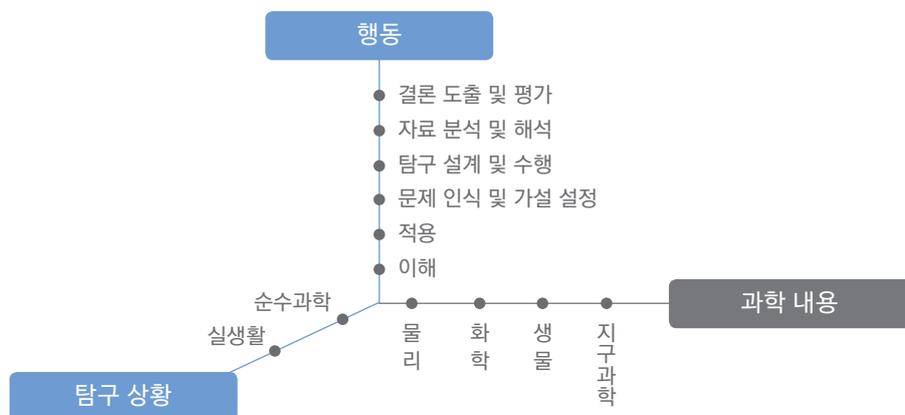
평가틀에서 과학의 개별 교과 내용에 해당하는 내용영역은 선택과목의 도입으로 이전과는 다른

양상을 보이게 되었다.

이 시기의 과학탐구 영역에서의 내용영역에 대한 출제 지침은 다음과 같다.

- 과학탐구 영역은 물리Ⅰ, 물리Ⅱ, 화학Ⅰ, 화학Ⅱ, 생물Ⅰ, 생물Ⅱ, 지구과학Ⅰ, 지구과학Ⅱ의 8개 과목 중 최대 4과목 선택이 가능하다. 단, 물리Ⅱ, 화학Ⅱ, 생물Ⅱ, 지구과학Ⅱ 과목에서는 최대 2과목만 선택이 가능하다. (2011학년도까지만 적용하고 2012학년도부터 ‘과학탐구 영역은 물리Ⅰ, 물리Ⅱ, 화학Ⅰ, 화학Ⅱ, 생물Ⅰ, 생물Ⅱ, 지구과학Ⅰ, 지구과학Ⅱ의 8개 과목 중 최대 3과목 선택이 가능하다’로 변경)
- 고등학교 2, 3학년 심화 선택과목 중심으로 출제한다.
- 심화 선택과목은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을 기초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국민공통기본교육 과정에 속하는 교과목도 간접적으로 평가 내용영역에 포함된다.

이 시기 출제의 기본 방향은 제7차 고등학교 교육 과정의 내용과 수준에 맞추어 학교 교육의 정상화에



[그림 3-5-4] 2005~2013학년도 과학탐구 영역의 3차원 평가틀

기여할 수 있도록 출제하는 것으로 규정되었다.

제7차 과학과 교육과정에서의 목표는 다음과 같이 기술되어 있다(교육부, 1997c).

- 자연 현상과 사물에 대하여 흥미와 호기심을 가지고, 과학의 지식 체계를 이해하며, 탐구 방법을 습득하여 올바른 자연관을 가진다.
- 자연의 탐구를 통하여 과학의 기본 개념을 이해하고, 실생활에 이를 적용한다.
- 자연을 과학적으로 탐구하는 능력을 기르고, 실생활에 이를 활용한다.
- 자연 현상과 과학 학습에 흥미와 호기심을 가지고 실생활의 문제를 과학적으로 해결하려는 태도를 기른다.
- 과학이 기술의 발달과 사회의 발전에 미치는 영향을 바르게 인식한다.

2005학년도부터 시험 과목 등 시험모형의 큰 변화는 필연적으로 출제 범위의 변화를 수반하였다. 일단 공통과목의 폐지로 그 전에 강조하던 교과통합적인 문항은 원천적으로 출제가 불가능하게 되었다. 각 선택과목별로 교과내 전체 범위에서 출제를 강조하였고 교과통합적인 문제는 불가능해졌지만 교과 내에서 단원통합적인 문제는 계속 강조되었다. 공통과학의 폐지와 선택과목의 확대에 따라 더욱 중요한 변수로 대두된 것이 각 과목별의 난이도였다. 표준점수를 적용하였음에도 각 과목의 난이도 차이에 따른 유·불리는 이 시기에 대두된 해소되기 힘든 큰 문제였고 매 시험마다 과목 간의 상대적인 난이도 조절이 강조되었다. 특히 특정 과목에서 점수 편중에 따라 2등급이 아예 없어지는 등급 공백 현상이 나타나기도 하였다. 또한 수능이 너무 어려워져서 사교육을 조장한다는 비판에 따라 적어도 영역별 만점자가 1% 수준이 되도록 난이도를 조절하도록 하였다.

(나) 행동영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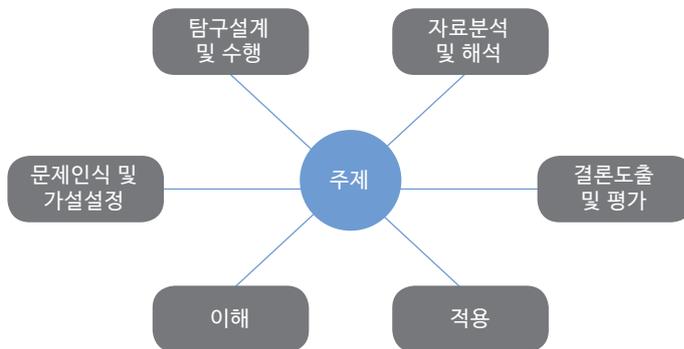
[그림 3-5-4]의 3차원 평가틀에서 보면 이전 시기에 적용되었던 평가틀과 달리 행동영역의 축에 과학 개념의 ‘이해’와 ‘적용’이라는 항목이 추가되었다.

학력고사 이후 수능 체제로 개편되면서 과학탐구 영역은 과학적 지식보다는 문제 인식 및 가설 설정, 탐구의 설계, 탐구의 수행, 자료의 해석, 결론 도출 및 평가 등 탐구 기능을 중시하게 되었다. 이는 주입적인 암기적 지식보다는 대학에서의 학업 수행 능력을 평가한다는 큰 순기능이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지나치게 방법론에 치우치게 되고 과학탐구 영역의 성적이 수리 영역보다 언어 영역과의 상관관계가 지나치게 높아진다는 지적이 많아졌다. 기본적인 과학지식의 이해와 이의 적용에 대한 평가 필요성이 높아지면서 이에 대한 해소책으로 과학탐구 평가의 새로운 틀을 적용하게 되었던 것이다. 다만 이해 및 적용에 너무 치우치지 않고 탐구 기능에 중심을 유지하기 위하여 개념의 이해 및 적용에 해당하는 문항은 전체 문항 수 40% 이내에서 허용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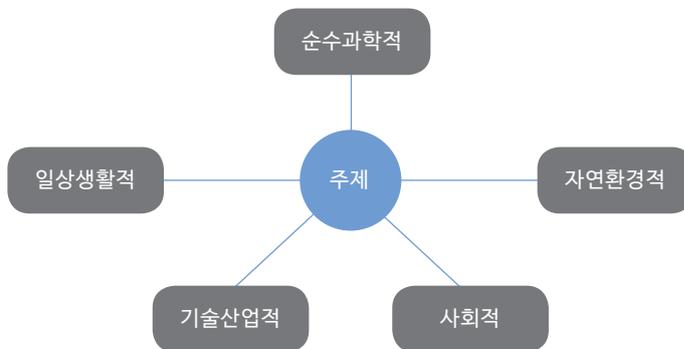
이에 따라 2005학년도 수능부터는 출제하고자 하는 내용이나 소재에 대하여 [그림 3-5-5]와 같이 여러 가지 탐구 능력 중에서 그 소재에 알맞은 능력을 골라 출제하도록 하였다(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04a).

탐구 기능에 해당하는 행동영역에서 새로 추가된 ‘이해’와 ‘적용’의 평가 요소는 다음과 같다.

- 이해
 - 개념을 새로운 상황에서 알아내기
 - 개념의 의미를 파악하고 새로운 형태로 진술하기
 - 개념 사이의 관계 파악하기



[그림 3-5-5] 탐구과정의 행동영역



[그림 3-5-6] 주제에 대한 여러 가지 상황영역

○ 적용

- 개념을 새로운 상황에 활용하기
- 개념을 이용하여 문제 해결하기

‘이해’와 ‘적용’의 평가 요소에 포함되는 개념은 단순한 과학적 사실과 같은 좁은 의미의 개념뿐만 아니라, 원리, 법칙, 이론을 포괄하는 의미에서의 개념을 나타낸다.

문항 소재와 관련한 상황으로 [그림 3-5-6]과 같은 여러 가지 상황을 생각할 수 있다(한국교육과정 평가원, 2004a). 이러한 여러 가지 상황 중에서 실제 문제에서는 기술 산업적, 사회적, 자연환경적 상황은 과학탐구 영역의 문제에서 빈도수가 낮기 때문에 평가들의 상황에 해당하는 축에는 일상생활적 상황과 순수과학적 상황만을 포함하였다. 출제 시에는

가급적이면 일상생활에서 접하게 되는 소재를 많이 활용하여 과학에 대한 인식을 높이려고 노력하였다. 그리고 과학 교육에서의 실험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실제로 실험을 해 본 수험생이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항을 출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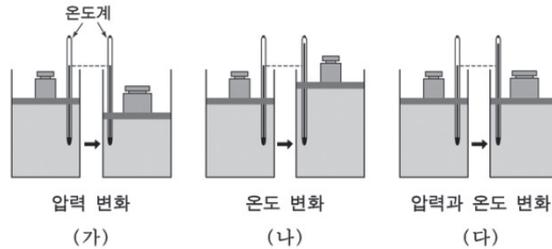
앞선 성장기에는 없던 행동영역인 ‘이해’와 ‘적용’의 문항을 예시하면 아래와 같다. [예시 문항 5]는 ‘이해’의 예시로 2006학년도 수능 과학탐구 영역(화학Ⅱ) 1번 문항이다. 이 문항은 기체의 온도, 압력, 부피 사이에 존재하는 보일의 법칙, 샤를의 법칙과 기체 분자 운동론을 이해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문항이다.

[예시 문항 6]은 ‘적용’의 예시로 2009학년도 수능 과학탐구 영역(물리Ⅰ) 2번 문항이다. 이 문항은 작용과 반작용의 개념을, 수영장에서 발로 밀거나

[예시 문항 5]

〈2006학년도 수능 과학탐구 영역 화학II 1번〉

1. 그림은 일정량의 아르곤(Ar) 기체를 용기에 넣고 (가)압력, (나)온도, (다)압력과 온도를 변화시켰을 때의 부피를 나타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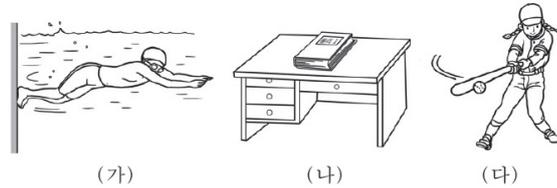
그림에서 분자의 평균 운동 에너지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경우 (A)와 분자 간 평균 거리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경우(B)를 비르게 짝지은 것은?

- | | A | B |
|---|-----|-----|
| ① | (가) | (나) |
| ② | (가) | (다) |
| ③ | (나) | (가) |
| ④ | (나) | (다) |
| ⑤ | (다) | (가) |

[예시 문항 6]

〈2009학년도 수능 과학탐구 영역 물리 I 2번〉

2. 그림 (가)는 철수가 수영장 벽을 발로 미는 모습을, (나)는 책상 위에 책이 놓여 있는 모습을, (다)는 영희가 야구 방망이로 공을 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작용과 반작용 관계에 있는 힘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 <보기> —
- ㄱ. 철수가 벽을 미는 힘과 벽이 철수를 미는 힘
 ㄴ. 지구가 책을 당기는 힘과 책상이 책을 떠받치는 힘
 ㄷ. 영희가 야구 방망이를 잡는 힘과 야구 방망이가 공을 미는 힘

- ① ㄱ ② ㄴ ③ ㄷ ④ ㄱ, ㄴ ⑤ ㄱ, ㄷ

책상 위에 책이 놓여 있거나 야구 방망이로 공을 치는 실생활 상황에서 어떻게 적용하는가를 평가하는 문항이다. 즉, 작용·반작용의 개념을 이해하고 이것을 개별적 상황에 적용할 능력이 있는지를 평가한다.

(3) 특이사항

제7차 교육과정의 기본 방향인 선택과 집중의 원리를 충실히 반영하기 위해 개편된 2005학년도부터 시행된 이 시기에는 과학탐구 영역에서 응시자가 원하는 응시 과목을 선택할 수 있었다. 이 시기 연도별 각 과목의 응시자 수는 <표 3-5-10>과 같다. 자료에서 2012학년도부터는 최대 선택이 3과목으로 축소되어 과학탐구 영역 전체 응시자 수는 증가하였으나 각 과목별 응시자 수는 감소함을 볼 수 있다. 전반적으로 2학년에 주로 배우는 I영역에 속하는 과목을 3학년에 배우는 II영역의 과목보다 많이 선택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연도별 추세를 보면 I, II 모두에서 생물 선택이 화학 선택을 추월하는 것과 지구과학 선택이

물리 선택을 추월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지구과학 I의 응시자가 2010학년도부터 크게 증가하는 것과 화학II 응시자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제7차 교육과정의 기본 방향인 선택과 집중의 원리를 충실히 반영하기 위해 개편된 2005학년도부터 시행된 이 시기의 수능 체제에서 과학탐구 영역의 경우 과목이 임의 선택이기 때문에, 원점수로는 선택과목 간 난이도 차이에 따른 점수의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이 시기에는 채점결과도 원점수, 변환표준점수, 변환표준점수에 의한 백분율점수는 사용하지 않고 과목별로 표준점수를 사용하였다.

표준점수는 상대적 서열을 나타내는 점수로서, 영역/과목별로 정해진 평균과 표준편차에 따라 원점수를 변환하여 상대적 위치가 어디인지를 나타내는 점수이다. 즉, 수험생 개인의 표준점수는 평균으로부터 얼마만큼 떨어져 있는지를 표준편차의 단위로 나타낸 것으로 각 과목의 표준점수는 각 과목별 응시자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이용하여

<표 3-5-10> 2005~2013학년도 과학탐구 영역의 과목별 응시자 현황

(단위: 명)

학년도	물리 I	화학 I	생물 I	지구 과학 I	물리 II	화학 II	생물 II	지구 과학 II	과학탐구
2005	110,285	177,455	170,728	98,874	25,469	79,823	65,595	17,328	195,182
2006	114,674	185,733	173,059	110,703	21,281	81,886	65,523	16,149	198,186
2007	113,907	183,571	178,635	114,645	18,333	75,765	69,102	14,984	197,480
2008	109,682	172,598	170,911	116,416	19,597	64,923	75,386	14,976	190,381
2009	109,333	165,367	167,305	116,624	19,071	58,471	76,602	16,725	186,423
2010	119,086	181,015	189,282	139,845	21,409	59,175	91,391	23,611	210,360
2011	121,564	182,809	196,289	150,292	25,228	56,232	92,918	30,498	227,264
2012	89,002	155,577	169,331	134,194	19,080	36,238	72,263	25,016	237,589
2013	85,635	155,597	170,909	140,779	21,121	34,540	72,416	27,550	241,790

산출한 점수로 과목별 평균 50점, 표준편차 10점으로 전환하여 0~100점 범위에서 산출하여 사용하였다.

이전 시기인 1999학년도부터 선택과목 이 도입됨에 따라 표준점수가 중요한 역할을 하였으나 2004학년도까지는 자연계 학생의 경우 사회탐구·과학탐구 영역 전체에서 문항 수나 배점에서 공통부분이 80%이고 선택과목 부분은 20%에 불과하였기 때문에 선택과목의 난이도에 따른 영향도 상대적으로 적었다. 그러나 2005학년도부터 과학탐구 영역이 완전히 선택제로 전환됨에 따라 선택과목에 따른 형평성 문제는 더욱 심각하게 대두되었다. 표준점수는 선택과목들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같게 하여 과목 간 점수 비교가 가능하도록 할 수 있었으나 특히 최고점에서는 집단의 특성과 난이도에 따라 과목 간 표준점수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시기에는 계속하여 최상위권 학생들의 응시 과목에 따른 유·불리 문제가 야기되었다. 과목별 표준 점수 분포에 나타난 것과 같이 만점자인 경우 응시 과목에 따라 표준점수에서 차이가 있었으며 그 차이는 학년도에 따라 6점에서 12점 정도의 차이가 있었다.

성적표에는 표준점수와 더불어 각 과목별 백분위와 등급도 기재하였으며 등급은 종전과 같이 9등급을 유지하였다. 다만 2008학년도의 경우 수능이 대학의 서열화를 심화시킨다는 지적에 따라 표준점수와 백분위 점수는 표시하지 않고 등급만을 기재하였다. 하지만 이는 오히려 대학 입학에 눈치 보기를 조장하는 등 혼란만 가중시킨다는 지적에 따라 2009학년도부터 다시 과목별 표준점수, 백분위, 등급 기재로 환원되었다.

과학탐구 영역에 속한 8개의 선택과목은 각각 20문항으로 구성되었고 배점도 50점에 불과하여 산출 가능한 점수의 경우의 수가 작아 특정 점수에 동점자가 다수 발생할 수 있고 충분한 변별도를 확보할 수가 없으며 과목 간 난이도가 다르다보니 시행 초기에는 특정 과목에서 등급 공백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2002학년도에 도입된 9등급제는 그 이후 계속 사용되었는데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1등급이 4%, 2등급이 7%로 구성되었다. 따라서 특정 과목에서 1등급에 해당하는 학생이 11%를 초과하게 되면 2등급은 없어지는 등급 공백 현상이 발생한다. 실제로 2005학년도 생물I 과목에서는 1등급이 14.18%나 되어 2등급 공백이 발생하였고 2006학년도 물리I에서 같은 현상이 반복되었다. 다행히 시험이 계속됨에 따라 경험 축적으로 난이도 및 변별도 조정을 통하여 2007학년도 이후에는 이 같은 현상은 발생하지 않았다.

이 시기의 출제본부 운영 상에서의 변화 중 하나는 평가원의 전문 인력 확충에 따른 수능 문항의 검토 기능 확충이다. 과학교과 영역의 전문 인력이 확충됨에 따라 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별로 전문화된 기획위원 및 평가위원을 운영할 수 있게 되어 출제 문항에 대한 세밀한 검토가 가능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수능 실시 이후 공개적인 이의제기를 받고 이의제기에 대해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공정한 심사를 거쳐 정답을 확정함으로써 시험의 공정성을 보장하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이 시기에는 수능 전에 매년 6월 및 9월에 평가원에서 주관하는 전국적인 규모의 모의평가를 실시하였다. 수능과 같은 출제 방식에 따라 행하여지는 모의평가를 통하여 수험생에게 그 해에 치를 예정인 수능의 경향과 수준에 대비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또한 출제진에게는 그 해 응시자의 수준을 이해하게 하여 수능에서의 적당한 난이도 조절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또한 2005학년도 수능부터는 출제 인력풀을 구성하고 확충하여 특정 학교 출신의 학생이나 인맥에 의한 출제진 편중 현상을 해소하려 노력하였다. 두 번의 모의평가 시행은 새로 확충된 출제진에 대한 출제 연습 및 검증 기회도 제공하였다.

2005학년도부터는 정부의 사교육비 경감 정책에 적극 부응하기 위해 EBS 수능 교재에 수록되어 있는

〈표 3-5-11〉 2005~2013학년도 과목별 표준점수 분포

(단위: 점)

학년도	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	물리Ⅱ	화학Ⅱ	생물Ⅱ	지구과학Ⅱ	최고점차이
2005	65~24	65~16	64~17	63~16	64~26	69~27	66~21	67~27	6
2006	64~28	73~23	69~24	65~20	65~28	75~27	73~25	66~25	11
2007	74~27	72~22	70~18	67~22	83~28	79~29	77~27	73~25	16
2008	표준점수 표기 않고 등급만 표시								
2009	67~29	72~27	69~28	73~24	72~30	72~31	70~28	73~28	6
2010	73~29	76~27	68~22	67~25	77~31	77~31	70~28	73~30	10
2011	73~28	69~27	71~26	72~26	74~34	75~30	71~32	74~33	6
2012	71~28	68~28	73~26	68~23	69~31	70~30	75~26	67~30	8
2013	72~32	68~29	72~27	65~28	72~33	68~32	77~30	74~30	12

〈표 3-5-12〉 2005~2013학년도 과학탐구 영역의 성적통지 표기 내용

학년도	과학과목별 성적통지 표기 내용
2005~2007	과목별로 표준점수, 백분위, 등급 제공
2008	과목별 등급만 제공
2009~2013	과목별로 표준점수, 백분위, 등급 제공

문항 중에서 교육과정의 중요한 학습 내용을 변형하여 출제 가능하게 하였다. 수능-EBS 연계 문제의 체감 연계도가 떨어진다라는 지적에 2011학년도 수능부터는 70%의 문항을 수능-EBS 연계 문제로 개발하여 연계도를 더욱 강화하였다.

- 연계 비율: 문항 수 기준으로 평균 70%
- 연계 대상: 당해 연도 수험생을 위한 교재 중 평가원이 감수한 교재
- 연계 방법: 영역별로 차이가 있으나 지문 재구성, 그림, 도표 등의 자료 활용, 문항 변형, 중요 개념이나 원리의 활용 등

이 시기 수능의 출제는 출제진의 구성뿐만 아니라 출제 체계도 큰 발전을 하였다. 그 중 하나가 수능

「출제 매뉴얼」의 발간이다. 과학탐구 영역의 「출제 매뉴얼」에는 시험의 개념과 평가목표, 출제 지침, 출제 절차, 문항 개발 방법, 문항 개발 과정의 사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였다(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05b). 이 매뉴얼은 그 전까지 구전에 의해 전해지던 출제의 노하우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특히 처음 출제에 임하는 출제진에게 큰 도움을 주었고 그 전까지는 출제 과정 중에서 반복적으로 논의하여야만 도달할 수 있었던 출제 문항의 형태에서의 표준화를 이룰 수 있었으며 결과적으로 문항의 품질 관리에 크게 이바지하였다.

이 시기 과학 영역에서 출제 오류에 의한 복수 정답 인정이 2건 있었다. 2008학년도 과학탐구 영역 물리Ⅱ 11번 문항의 경우 평가원에서 처음 발표한 정답은 ④번이었으나 나중에 ②번도 복수 정답으로

인정하였으며 2010학년도 과학탐구 영역 지구과학 I 과목의 19번 문제에 대해 당초 ①번만 정답 인정한 것을 추가로 ③번도 복수 정답 인정하였다.

바. 과학탐구 영역의 성과와 발전 방향

지난 20여년 수능이 시행되면서부터 공교육의 정상화에 많은 기여를 하였다. 과학탐구 영역에서는 특히 획일적 지식 축적 위주의 교육에서 과학적 방법과 과정을 중시하는 교육으로 이행하는 데 큰 역할을 하였다. 수능이 실시되어 오면서 과학탐구 영역에서의 변화를 바탕으로 앞으로의 수능에서 과학탐구 영역의 발전 방안을 모색해 보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일 것이다.

일단 실험기를 제외하더라도 과학탐구 영역의 시험은 몇 차례의 변화를 보여 왔다.

시행 첫 해인 1994학년도에는 모든 학생들에게 동일한 유형의 시험을 치르게 하였으며, 1995학년도~1998학년도까지는 인문, 자연, 예·체능계열 별로 문항이 달랐던 시기였고, 1999학년도~2004학년도까지는 제6차 교육과정에 따라 모든 학생에게 부과되는 공통과학과 자연계의 학생에게만 선택적으로 부과되는 물리Ⅱ, 화학Ⅱ, 생물Ⅱ, 지구과학Ⅱ 중에서 한 과목을 선택하는 시기, 그리고 2005학년도 이후 제7차 교육과정이 반영되면서 탐구 영역 중 사회탐구, 과학탐구, 직업탐구 중 한 영역만 택하게 하고 과학탐구 영역에서는 물리Ⅰ, 물리Ⅱ, 화학Ⅰ, 화학Ⅱ, 생물Ⅰ, 생물Ⅱ, 지구과학Ⅰ, 지구과학Ⅱ 등 8개의 선택과목 중에서 최대 4개 과목까지(2012학년도부터는 3개 과목까지) 택할 수 있게 하였다.

앞으로의 과학탐구 영역의 변화도 기대되지만 이전까지의 수능 과학탐구 영역이 얻어 온 결과를 보면 우선적으로 초기에 얻어진 결과는 과학탐구

영역의 평가가 이제 드디어 주요 사실을 암기하는 내용 위주 평가에서 벗어나 과학적 사실에 이르는 과정을 중시하는 탐구 과정 중심 평가로 전환되었다는 것이다. 이전의 학력고사에서는 과학조차도 기존의 과학적 성과의 구체적인 내용을 이해하고 있는지를 묻는 문항 위주의 시험이었다. 그러나 수능이 도입되면서 이제 과학은 학교 교육 과정에서 강조하는 ‘실험을 중시해야 한다’, ‘탐구의 과정을 중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이는 초기 수능에서의 3차원 평가들의 구성에서 행동영역에 해당하는 탐구의 기능이라는 축에 있는 항목이 문제 인식 및 가설 설정, 탐구의 설계, 탐구의 수행, 자료 해석, 결론 도출 및 평가 등 5개로 되어 있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이는 과학 교육에 있어서 매우 바람직한 현상으로 이 상황이 지속되면 중등 교육과정에서 적어도 과학교육 분야만큼은 바람직한 실험 위주, 탐구 위주로 현장 과학 교육이 충실화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었다.

그러나 많은 기대에도 불구하고 이 기대는 완전히 충족 되지는 못하였다. 평가원의 「수능10년사」에서는 그 이유로 초기의 과학탐구 사고력 측정 시험이 정형화 되면서 학생들의 기억된 사고력을 측정 하게 되었다는 회의론과 다른 하나는 이 시험이 점차 기본 개념의 이해와 적용 능력을 측정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었기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수능의 과학탐구 영역에서 측정 하고자 하는 탐구 능력을 일선 교육 현장에서 배양 하기에는 여건이 미성숙했다는 점이 더 큰 요인이라 생각된다. 즉, 학교 현장에서 탐구 위주의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탐구 능력 위주의 평가를 하려다보니 결국은 논리적인 체계가 앞선 학생들이 우수한 성적을 얻게 되고 이는 필연적으로 언어 영역과의 상관관계가 수리 영역과의 상관 관계보다 높아지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

2005학년도에 제7차 교육과정을 반영한 시험에서부터 공통과학의 폐지와 선택과목의 확대 등과 같은

외형적 변화뿐만 아니라 출제 내용에서도 큰 변화가 있었다. 즉, 평가들의 행동영역에 이해와 적용이라는 항목이 추가된 것은 실제 교육 현장과 수능이라는 평가의 괴리를 그나마 어느 정도 해소하고 그간 너무 등한시 되었던 기본 개념의 이해와 적용이라는 부분의 중요성을 다시 일깨운 것에 의미를 둘 수 있다.

과학교육에 있어서 탐구 활동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이지만 기본적인 내용에 대한 이해와 이를 적용하는 능력은 ‘문제 인식 및 가설 설정, 탐구의 설계, 탐구의 수행, 자료 해석, 결론 도출 및 평가’ 라는 탐구 과정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큰 도움을 줄 수 있다.

일선 학교의 과학 교육과 수능의 과학탐구 영역은 매우 긴밀한 관계에 있다. 엄밀하게 말하면 학교 교육에서의 성취도를 바탕으로 대학에서의 학업 수행능력을 평가하는 것이 수능이므로 수능에서의 출제가 학교 교육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수능에서의 출제 방향이나 과정, 방법 등이 학교 교육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 수능 초기에 일반 사교육에서 제공할 수 없는 탐구 과정 중심의 출제가 잠시 사교육의 영향을 약화시키거나 교과서 내용 중심의 출제가 공교육에 대한 신뢰도를 증가시키는 것은 수능이 일선 교육에 미치는 순기능이라 하겠다. 초기에는 이러한 순기능으로 일선 학교의 과학교육이 탐구 위주로 개편되기를 기대한 면도 있다. 예를 들면 실험 방법에 대한 구체적 문항이 출제된 이후 실제 실험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고 한다. 이러한 바람직한 변화가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지속되도록 더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일선 학교의 교육과 수능은 상호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수능은 일선 학교에서의 공교육 내용 위주의 평가 체제를 확립하여 수능 방향에 따라 교육 내용이 변하는 것을 방지 혹은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5지선택형의 형식으로 측정 불가능한 교육 내용은 시험에서 과감히 삭제하고 학교생활기록부에 반영함으로써 시험에 따라 교육 내용이 거꾸로 영향 받는 일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제6절

직업탐구 영역

정남용(대구교육대학교)

가. 개요

(1) 도입 배경과 취지

1990년대에 접어들면서 중등단계 직업교육은 학생·학부모들의 고등교육에 대한 수혜 욕구 증대, 직업교육의 외재적 가치만을 중요시하는 잘못된 인식, 실업계 고등학교 졸업생들에 대한 불리한 사회적 관행과 제도, 학령인구 감소, 직업교육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 등(이용환, 2000; 김진구·이중범, 2005; 최동선, 2009; 박동열 외, 2010)의 복합적인 영향으로 많은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었다. 특히 실업계 고등학교¹⁾는 일반계 고등학교 진학에 실패한 성적이 낮은 학생들이 입학하는 곳이라는 부정적인 인식이 팽배해졌고, 직업교육 기피 현상의 기중으로 신입생 미달 사태가 지속되면서 우수한 신입생 유치 및 정원 확보에 많은 어려움을 겪어 왔다(김진구·이중범, 2005).

실업계 고등학교가 당면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정부에서는 ‘新직업교육체제 구축 방안’(교육개혁위원회, 1996)을 통해,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들의 계속교육 기회 부여를 포함하는 고등학교 단계 직업교육 다양화 및 평생직업교육 기반 구축 관련 개혁 방안을 제안하였다. 이에 따라 제7차 교육과정부터 취업교육 중심으로 운영되던 기존 실업계 고등학교 교육이 ‘진학을 위한 계속교육’과 ‘취업을 위한 중국교육’을 동시에 추구하는 교육과정으로 전환(김진구·이중범, 2005)되고, 고등교육 단계로 직업교육 중심축이 상향 조정(교육부, 1999)되었다. 특히 취업과 진학을 동시에 추구하는 실업계 고등학교 교육과정 운영 정책은 고졸 수준의 기능인력 양성 및 중견·전문기술자 양성을 위한 직업기초교육을 동시에 추구하는 중등직업교육기관으로 육성한다는 기본 방향(정철영, 2001) 하에서 실업계 고등학교 운영 체제를 다양화하고 취업 및 진학 지원 체제를 강화하는 개혁 방안이

1) 우리나라의 고등학교는 과거 일반계 고등학교와 실업계 고등학교로 구분하다가 2007년 4월 12일 시행된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실업계 고등학교가 전문계 고등학교로 개칭되었다. 이후 2010년 6월 29일에 시행된 초·중등교육법시행령에 의해 우리나라의 고등학교는 일반고등학교, 특성화고등학교, 특수목적고등학교, 자율고등학교로 세분화되었다. 전문계 고등학교 중 마이스터고등학교로 지정받은 경우 특수목적고등학교에 포함되고 그 외의 경우 특성화고등학교로 개칭되었다.

제안된 '실업계 고등학교 육성 대책(교육부, 2000. 1.)'을 통해 구체화되었다.

이후 정부에서는 '대통령교육문화수석위촉 실업교육 발전위원회'를 발족하였다. 그리고 이 위원회에 의해 수행된 '실업교육 발전을 위한 실천적 방안 연구'(조용 외, 2001. 6.)결과를 바탕으로 동일계 정원 외 특별전형과 함께 인문, 자연, 예·체능 계열과 같이 수능에 실업계열 신설 등을 골자로 하는 실업계 고등학교 교육 활성화 정책 방향을 마련하였다. 그 논거는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을 위한

별도의 대학입학시험제도가 존재하지 않아 형평성에 위배된다는 것이었다. 이에 대한 후속 조치로 '대학수학능력시험 2005학년도 개편 연구위원회'에서는 '대학수학능력시험 2005학년도 개편시안(2001. 10.)' 공청회를 통해, 첫째 현 대학수학능력시험 보완안(제1안), 둘째 교과영역별 단일 선택 시험안(제2안), 셋째 기본교과 공통시험과 선택 과목 선택시험안(제3안), 넷째 일반학업능력시험과 교과목 선택시험안(제4안) 등에 따른 실업계 수능 영역 신설 방안을 <표 3-6-1>과 같이 제안(양길석,

<표 3-6-1> 대학수학능력시험 2005학년도 개편 연구위원회의 실업계 수능 영역 신설 방안

제1안	영역	시험 유형	출제 범위	문항 수
제1안	직업탐구	공통	사회(도덕, 국사 포함), 과학	20
		선택	농업, 공업, 상업, 수산·해운, 가사·실업 중 택 1	30
제2안	구분	보통 시험 (1~2학년 수준 내용 중심: 12단위)		심화 시험 (2~3학년 심화선택과목 중심: 24단위)
제2안	직업*	농업, 공업, 상업, 수산·해운, 가사·실업 중 택 1		농업, 공업, 상업, 수산·해운, 가사·실업 중 택 1
* 직업교과 영역의 보통시험과 심화시험의 출제 범위(과목), 내용 및 수준은 추후 논의를 거쳐 확정				
제3안	선택시험 평가영역	출제 범위		비고
제3안	직업 영역*	농업	농업 이해, 농업 기초 기술, 농업 정보 관리	농업계열 학생
		공업	공업 입문, 기초 제도, 정보 기술 기초	공업계열 학생
		상업	상업 경제, 회계 원리, 컴퓨터 일반	상업계열 학생
		수산·해운	해양 일반, 수산·해운 정보 처리, 수산 일반(수산계열), 해사 일반(해운계열)	수산·해운계열 학생
		가사·실업	인간 발달, 컴퓨터 일반	가사·실업계열 학생
* 직업 영역의 출제 범위(과목), 내용 및 수준은 추후 논의를 거쳐 확정				
제4안	시험명	시험 내용에 해당하는 제7차 교육과정의 교과목		비고
제4안	농업	농업 이해, 농업 기초 기술, 농업 정보 관리		* 출제 범위는 추후 논의 후 확정
	공업	공업 입문, 기초 제도, 정보 기술 기초		
	상업	상업 경제, 회계 원리, 컴퓨터 일반		
	수산·해운	해양 일반, 수산·해운 정보 처리, 수산 일반, 해사 일반		
	가사·실업	인간 발달, 컴퓨터 일반		

* 자료: 양길석(2001)의 실업계 영역 신설 방안 표 재구성

2001)하였다.

뒤이어 정부에서는 ‘실업교육 육성 방안’(교육인적자원부, 2001. 11)을 통해 수능에 실업계열 신설을 검토한다고 발표하고, 공청회 결과와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2001년 12월 28일에 발표한 ‘200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체제 개편안’(교육인적자원부, 2001. 12.)을 통해 실업계 고등학교의 전공 필수 과목들을 포함하는 직업탐구 영역 신설을 최종적으로 확정하였다. 이 개편안에 따라서 직업탐구 영역은 <표 3-6-2>와 같이 ‘17개 선택과목 중 최대 3과목까지 선택하되 컴퓨터 관련 4개 과목 중 1과목을, 나머지 13개 과목 중 2과목을 선택’하는 기본 체제가 갖추어 졌고, 이 때 확정된 기본 골격은 2013학년도 수능까지 지속적으로 유지되었다.

결과적으로 직업탐구 영역이 수능에 신설되게 된 데에는 지식기반사회에서 직업교육 중심축이 고등교육 단계로 확대되고 있고 현실적으로 상당수 실업계 고등학교 졸업생들이 대학에 진학하고 있는 현실과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들의 학습 의욕과 자긍심을 높여주기 위해서는 수능에서 직업탐구 영역 신설이 절실하다는 실업교육계의 요구(남명호, 2002)가 받아들여졌기 때문이다. 특히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이 동일·유사계열 대학에 진학할 수 있는 계속교육의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내적·외적 환경의 급속한 변화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업계 고등학교를 활성화(김진구 외, 2004)하기 위한 정책적 결단이 뒷받침되었기에 수능에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들만 응시하는 직업탐구 영역이 독자적 영역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그동안 대학입학전형제도는 여러 차례 바뀌었으며 그 나름대로의 장점과 단점이 있었다. 그러나 1994학년도부터 시행되어 온 수능에서는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들에 대한 배려는 거의 없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200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체제 개편안’에 따라 수능에 직업탐구 영역이 신설·도입된 것은 실업계 고등학교 활성화 측면뿐만 아니라,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불리하게 되어 있던 대학입학시험제도를 개선하였다는 점에서도 그 의의를 찾을 수 있으며, 실제로 전문계 고등학교 졸업생의 진학률에 상당한 영향을 주고 있다(최동선, 2009).

(2) 직업탐구 영역의 성격 및 평가목표

2005학년도 수능에 처음으로 신설된 직업탐구 영역 시험의 성격과 평가목표는 남명호 외(2003)의 연구에 기반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시험의 성격을 설정하는 과정에서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에게 계속교육 기회를 확대할 목적으로 신설된 직업탐구 영역의 도입 취지, 제7차 교육과정에서부터 취업과 진학을 동시에 강조하는 실업계 고등학교의 전문성과 특수성, 그리고 대학 교육에 필요한 수학 능력을 측정하는 수능의 성격 등을 고려하였다. 평가목표는 해당 출제과목의 교육과정 내용과 수준에 근거한 내용영역, 그리고

<표 3-6-2> 2005~2013학년도 직업탐구 영역의 과목 선택 및 출제 범위

컴퓨터 관련 선택과목(택 1)	전공 관련 선택과목(택 2)
농업 정보 관리, 정보 기술 기초, 컴퓨터 일반, 수산·해운 정보 처리 등 4과목 중 택1	농업 이해, 농업 기초 기술, 공업 입문, 기초 제도, 상업 경제, 회계 원리, 해양 일반, 수산 일반, 해상 일반, 인간 발달, 식품과 영양, 디자인 일반, 프로그래밍 등 13과목 중 택2

* 자료: 교육인적자원부(2001)

실업계 고등학교 현장에서 널리 통용되고 있는 Bloom의 인지적 행동영역 ‘지식’, ‘이해’, ‘적용’ 및 고차적 탐구 사고력을 측정하는 ‘탐구’ 등 4개의 영역으로 분류된 행동영역을 근거로 진술하고 있다. 이 연구를 바탕으로 규정된 직업탐구 영역 시험의 성격과 평가목표는 실업계 고등학교의 명칭 변경 사항이 반영된 것을 제외하면 큰 폭의 변화 없이 2013학년도 수능까지 유지되었다. 평가원에서 매년 발간하는 「학습 방법 안내」 자료에 소개된 2005학년도 수능 및 2013학년도 수능 직업탐구 영역 시험의 성격과 평가목표는 <표 3-6-3>과 같다.

시험의 성격과 평가목표에서 알 수 있듯 직업탐구 영역은 출제 범위에 속한 개별 과목의 특성을 바탕으로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들이 동일·유사계열 대학에서 전문 지식을 심화·연계시킬 수 있는 수학 능력을 측정하는 시험이다. 특히 사회/과학탐구 영역과 함께 탐구 영역에 포함된 취지를 살려 사고력 중심의 평가를 지향하고자, 문제 상황을 해결해 가는 일련의 과정을 탐구할 수 있는, 즉 문제해결 능력을 측정하는 문항들을 출제하고 있다. 그러나 실업계 고등학교

교육 목표와 내용이 일반계 고등학교와 달리 전공과 관련 있는 직업기초능력 및 전문 지식과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조직되어 있고, 직업탐구 영역 출제 범위에 속한 과목들 대부분이 전공과 관련 있는 기초 지식이나 원리를 이해하는 수준에서 구성된 이론 중심의 과목이거나 이론과 실습이 통합된 기초 실험·실습 중심의 과목이라 고차적인 사고력을 측정하는 데 한계가 있어 사회/과학탐구 영역과는 다른 차원에서 조명될 필요가 있다(남명호 외, 2003). 이러한 맥락에서 직업탐구 영역이 사회/과학탐구 영역과 차별화되는 것은 출제 범위에 속한 과목들의 교육과정 내용과 수준에서 다루고 있는 교과 개념 및 원리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상황에 응용하는 적용 능력을 측정할 수 있는 문항 출제를 강조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직업탐구 영역에서는 주로 전공과 관련 있는 최근의 학문적 동향 및 통계 자료 이외에도 일상생활에서 접할 수 있거나 언론매체에서 다루었던 현실적인 문제 및 시사성 있는 내용, 직장생활에서 접할 수 있거나 관련 실무(實務)에 활용할 수 있는 직업적 상황 및 실험·실습 상황 등을

<표 3-6-3> 2005학년도 및 2013학년도 직업탐구 영역의 성격과 평가목표

구분	2005학년도	2013학년도
시험의 성격	직업탐구 영역은 실업계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교육 목표 및 내용 체계에 따라 해당 전문 과목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소재를 바탕으로 실업계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충실히 이수한 학생이 동일·유사계열 대학에 진학하여 전공 관련 내용을 보다 쉽게 학습하고 더욱 발전 심화시킬 수 있는 수학 능력을 측정하는 시험이다.	직업탐구 영역은 마이스터 및 특성화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교육 목표 및 내용 체계에 따라 해당 선택과목 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소재를 바탕으로 마이스터 및 특성화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충실히 이수한 학생이 동일·유사계열 대학에 진학하여 전공 관련 내용을 보다 쉽게 학습하고 더욱 발전 심화시킬 수 있는 수학 능력을 측정하는 시험이다.
평가 목표	직업탐구 영역은 실업계 고등학교의 교육과정에 제시되어 있는 해당 전문 과목의 소재를 활용하여 전공과 관련이 있는 기초 지식 및 원리의 이해, 적용, 탐구 능력 측정을 목표로 한다.	직업탐구 영역은 마이스터 및 특성화 고등학교의 해당 선택과목 교육과정 및 교과서 내용과 관련이 있는 다양한 학습 자료를 소재로 활용하여 전공 관련 기본 개념 및 원리, 법칙, 절차 등에 대한 지식, 이해, 적용, 탐구 능력 측정을 목표로 한다.

* 자료: 한국교육과정평가원(2004a, 2012b)

다양한 방식과 형태로 재구성하여 문항의 소재로 활용하고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직업탐구 영역 시험의 성격과 평가목표 및 문항 소재의 활용에 따른 출제 경향 등은 평가원에서 2005~2013학년도 수능 당일에 발표하였던 출제 방향 보도 자료에서도 알 수 있다. 한편 평가원에서 2004년에 발간한 「직업탐구 영역 출제 매뉴얼」과 2005학년도 수능부터 매년 발간하고 있는 홍보 자료 「○○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이렇게 준비하세요」에 의하면, 직업탐구 영역은 시험의 성격과 평가목표에 근거하여 출제의 기본 방향을 설정하고 이들 기본 방향이 조화롭게 실현될 수 있도록 문항을 출제하여 왔다. 2013학년도 수능까지 강조되었던 직업탐구 영역 출제의 기본 방향과 이들 기본 방향이 담고 있는 의미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이 동일·유사계열 대학에 진학하여 전공 관련 내용을 보다 쉽게 학습하고 더욱 발전 심화시킬 수 있는 수학 능력을 측정할 수 있도록 문항을 출제함으로써 대학 교육에 필요한 수학 능력을 측정할 수 있도록 한다.
- 해당 과목과 깊은 관련이 있는 기본 개념 및 원리, 법칙, 절차 등에 대한 지식, 이해, 적용 탐구 능력을 측정할 수 있도록 문항을 출제한다. 단 지식, 이해, 적용, 탐구 능력을 골고루 측정하되 단편적인 지식 및 원리를 직접 묻기보다는 이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실제 상황에 응용하고, 탐구할 수 있는 형태로 문항을 출제함으로써 사고력 중심의 평가를 지향하는 수능의 기본 방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
- 실업계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해당 과목별 교육 목표 및 내용, 교과서 내용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해당 과목의 교육과정 및 교과서 내용의 범위와 수준에 근거한 학습 요소를 소재로 활용하여

문항을 출제함으로써 실업계 고등학교 교육의 정상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한다.

-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들의 전체적인 학력 수준을 충분히 고려하여 문항을 출제함으로써 선택과목별로 적정 난이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해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계속교육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차원에서 신설된 직업탐구 영역의 정책적 도입 취지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한다.

나. 직업탐구 영역의 특징

(1) 시험모형

‘200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체제 개편안(교육 인적자원부, 2001. 12.)’에 따라 직업탐구 영역은 사회/과학탐구 영역과 함께 탐구 영역으로 분류되었다. 그리고 수험생들은 사회/과학/직업탐구 3개 영역 중 한 영역만 응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에 직업탐구 영역의 시험모형은 사회/과학탐구 영역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결정될 필요성이 있었다(남명호 외, 2002). 이에 따라 직업탐구 영역의 과목 당 문항 수, 시험 시간 및 문항 형태는 2005학년도 수능부터 현재까지 사회/과학탐구 영역과 동일하게 설정되고 있다. 다만 2005학년도 수능부터 2011학년도 수능까지 직업탐구 영역이 사회/과학탐구 영역과 달랐던 점은 직업탐구 영역이 최대 3개 과목까지만 선택할 수 있었던 데 비해 사회/과학탐구 영역은 최대 4개 과목까지 선택할 수 있었다는 점이다²⁾. 2005학년도 수능부터 2013학년도 수능까지 적용된 직업탐구 영역의 시험모형을 요약하여 정리하면 <표 3-6-4>와 같다.

직업탐구 영역의 시험모형 주요 특징을 살펴보면,

직업탐구 영역의 출제 범위에 속하는 과목은 <표 3-6-2>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총 17개³⁾이었다. 이들 과목 중 '식품과 영양'은 가사·실업계열 고등학교, '디자인 일반'과 '프로그래밍'은 2000년 대 초에 운영되었던 특성화 고등학교 학생들의 선택 폭 확대를 위해 출제 범위에 포함된 과목들이고, 나머지 14개의 과목들은 농업, 공업, 상업, 수산·해운, 가사·실업 등의 계열별 전공 필수 과목들이었다. 직업탐구 영역에 응시하는 수험생들은 이들 17개의 과목 중 최대 3개 과목까지 선택이 가능하였다. 단 수험생들은 자신이 속한 계열에 관계없이 '농업 정보 관리', '정보 기술 기초', '컴퓨터 일반', '수산·해운 정보 처리' 등의 컴퓨터 관련 4개 과목 중에서 1개 과목을, 나머지 전공 관련 13개의 과목 중에서 2개의 과목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음으로, 직업탐구 영역의 문항 수는 사회/과학탐구 영역과 동일하게 과목당 20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시험 시간 역시 사회/과학탐구 영역과 동일하게 과목당 30분으로 문항 당 풀이시간은 평균 1.5분이다. 최대 3과목까지 선택하게 되어 있던 직업탐구

영역의 과목 선택 특성상 최대 시험 시간은 90분(30분×3과목)이다. 원점수 만점은 과목 당 50점이고, 문항 배점은 동점자를 줄이고 문항의 변별력을 높이기 위해 내용의 중요도, 난이도, 문항풀이에 소요되는 시간, 변별력 등을 고려하여 2점과 3점으로 차등 배점함을 원칙으로 하였다. 이에 따라 과목당 원점수 평균이 50점이 되도록 과목별로 2점짜리와 3점짜리 문항이 각각 10문항씩 구성된다. 문항 형태 역시 사회/과학탐구 영역과 동일하게 5지선다형으로 구성된다.

한편 직업탐구 영역의 경우 실업계열 전문교과를 82단위⁴⁾ 이상 이수한 학생만 선택할 수 있도록 응시 자격을 제한하였다. 이는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계속교육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신설된 직업탐구 영역 도입 취지를 반영함과 동시에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들이 수험 부담이 적고 고득점이 가능하다는 판단 하에 직업탐구 영역을 선택하는 편법을 쓰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였다. 다만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들의 경우 직업탐구 영역뿐만 아니라 사회/과학탐구 영역에도 자유롭게 응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

<표 3-6-4> 2005~2013학년도 직업탐구 영역의 시험모형

문항 수	시험 시간	문항풀이 시간	배점	문항 형태	과목 선택
과목당 20문항	과목당 30분	문항당 1.5분 (30분÷20문항)	과목당 50점	5지선다형	최대 3과목 선택
최대 60문항 (20문항×3과목)	최대 90분 (30분×3과목)	-	2점×10문항 3점×10문항	-	컴퓨터 관련 4과목 중 택1, 나머지 13과목 중 택2

* 직업탐구 영역은 실업계열 전문교과를 82단위 이상 이수한 학생만 응시가 가능함.

2) 2012~2013학년도 수능에서는 사회/과학탐구 영역도 직업탐구 영역과 마찬가지로 최대 선택과목 수가 3개로 축소되었다. 그리고 2014학년도 수능부터는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개편 방안'(교육과학기술부, 2011. 1)에 따라 사회/과학탐구 영역은 최대 선택과목 수가 2개로 축소되었고, 직업탐구 영역은 2개의 계열별 출제 범위 과목이 통합된 농업, 공업, 상업 정보, 수산·해운, 가사·실업 등 5개의 시험과목 중 1개를 선택하는 것으로 시험체제가 개편되었다.

3) 2014학년도 수능부터는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개편 방안'(교육과학기술부, 2011. 1)에 따라 직업탐구 영역의 출제 범위 과목 수가 10개로 축소되었다.

(2) 평가틀

(가) 내용영역

2005~2013학년도 수능에서 직업탐구 영역의 내용영역은 앞서 살펴보았던 평가목표에 명기된 바와 같이 출제 범위에 속하는 과목들의 교육과정 및 교과서 내용에 근간하며, 이 시기에 적용된 교육과정은 제7차 교육과정(교육부 고시 제 1997-15호)이었다. 수능이 교육과정의 내용과 수준에서 출제되기 때문에 직업탐구 영역의 경우에도 교육과정을 기준으로 내용영역을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국정 교과서를 사용하는 과목의 경우 실제 학교 현장에서 배우는 교과서가 1종밖에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교과서를 기준으로 추출하는 것이 적절할 수도 있다(남명호 외, 2003). 그렇지만 직업탐구 영역의 경우 출제 범위에 속한 17개 과목들의 교과서 발행 유형이 다양하다는 특징을 갖고 있었다. 즉 ‘공업 입문(4종)’, ‘상업 경제(8종)’, ‘회계 원리(13종)’, ‘컴퓨터 일반(8종)’ 등 4개의 과목은 검정 교과서를, ‘프로그래밍’ 과목은 인정 교과서를, 나머지 12개의 과목은 국정 교과서를 사용(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04)하고 있기 때문에 출제 범위에 속한 17개의 과목에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평가내용의 추출 기준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았다. 이에 따라 직업탐구 영역에서는 출제 범위에 속하는 과목들의 다양한 교과서 발행 유형에 따라 평가내용을 추출하고 선정하는 기준을 다음과 같이 마련(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04a)하여 문항 출제에 적용하여 왔다.

- 국정 교과서를 사용하는 과목은 교육과정의 내용과 교과서의 모든 학습 요소를 기준으로

평가내용을 추출한다. 단 ‘디자인 일반’은 공업계열의 공업디자인, 상업계열의 시각디자인, 가사·실업계열의 실내디자인 등 계열 간의 디자인 관련 전공에 따라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정 심화 전공 내용은 가급적 문항의 소재로 활용하지 않는다.

- 검정 교과서를 사용하는 과목은 교과서의 내용이 출판사 별로 상이한 부분이 많아 자신이 배운 교과서만으로 수험 준비를 할 경우 불이익을 당하는 학생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교육과정의 내용 및 교과서 간의 공통 학습 요소를 기준으로 평가내용을 추출한다. 단 공통 학습요소를 100% 수준에서 추출할 경우 학습요소가 너무 적어 평가내용을 추출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관계로 교과서 간의 50% 수준에서 평가내용을 추출하도록 권장한다.
- 인정 교과서를 사용하는 ‘프로그래밍’ 과목은 교육과정의 내용을 기준으로 평가내용을 추출한다. 단 C언어 중심의 공업계열 선택과목으로 구성된 교육과정 특성상 교육과정의 내용을 기준으로 할 경우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형평성을 고려하여 ‘프로그래밍’ 과목을 편성·운영하는 모든 계열의 특성화 고등학교에 적용이 가능하도록 C와 비주얼 베이직 두 언어에 공통으로 적용이 가능한 자료의 구조와 알고리즘에 중점을 두어 평가내용을 추출한다.

한편 2005~2013학년도 수능에 적용된 직업탐구 영역의 내용영역은 출제 범위에 속한 17개 선택 과목의 교육과정 및 교과서 내용을 분석한 남명호 외(2003)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재구성된 <표 3-6-5>의 내용체계(대영역, 중영역)에 근간하였다.

4) 2007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2014학년도 수능부터는 전문교과를 80단위 이상 이수한 학생만 직업탐구 영역을 선택할 수 있도록 응시 자격을 제한하고 있다.

이후 내용영역에서 교과서 학습내용이 강조된 일부 선택과목의 경우 1년 단위로 재 인쇄·발행되는 시점에서 지속적으로 수정·보완되는 교과서의 특성에 따라 내용영역 역시 약간의 변화가 있었다.

결론적으로 2005~2013학년도 수능 직업탐구 영역의 내용영역은 이 시기에 적용되었던 출제 범위에 속한 과목들의 제7차 교육과정에 제시되어 있는

교육목표 및 내용과 이를 바탕으로 편찬된 교과서 내용의 전 범위와 그 수준에 근거한다. 특히 해당 과목의 내용 전반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어느 특정의 영역이나 내용에 편중되지 않도록 모든 영역과 내용을 대상으로 골고루 출제(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04a)하고자 노력하였다. 그러나 해당 과목의 성격 및 내용 특성이 상이하고 실제 학교 현장에서 강조되는

〈표 3-6-5〉 남명호 외(2003)에 의해 제안된 직업탐구 영역의 과목별 내용영역*

과목	내용
농업 정보 관리	농업 정보와 컴퓨터(4), 컴퓨터의 활용(5), 컴퓨터 통신과 인터넷(4), 농업에서의 컴퓨터 활용(6)
정보 기술 기초	컴퓨터의 개요(3), 컴퓨터의 원리(3), 컴퓨터의 하드웨어(5), 컴퓨터의 소프트웨어(3), 정보 통신(3), 인터넷(6), 응용 소프트웨어의 활용(4), 컴퓨터의 이용(5)
컴퓨터 일반	현대 사회와 컴퓨터(2), 컴퓨터 시스템(3), 컴퓨터의 원리(2), 컴퓨터의 활용(3), 프로그래밍(4), 컴퓨터의 이용 기술(3)
수산·해운 정보 처리	정보화 사회와 컴퓨터(4), 정보 처리 시스템과 정보 관리(2), 수산업과 정보 관리(4), 해운업과 정보 관리(3), 미래 사회와 정보 관리 발전(2), 소프트웨어의 활용(3)
농업 이해	인간과 농업(4), 농업 과학 기술(3), 농촌 생활(4), 과제 활동(4), 농업과 진로(4), 외국의 농업(5)
농업 기초 기술	실험·실습의 기초(6), 작물의 형태와 관찰(8), 작물의 재배 관리(9), 토양 비료 및 작물 보호(6), 가축 사육 기술(3), 수목 관리 기술(2), 농업 기계(2)
공업 입문	산업 사회와 공업(4), 생산과 경영(3), 안전과 환경(2), 직업 사회와 윤리(3)
기초 제도	제도의 개요(2), 제도 규격과 통칙(4), 기본 도법(5), 스케치(2), 제도의 실제(6), 컴퓨터를 이용한 제도(3), 검도 및 도면 관리(2)
상업 경제	경제 활동과 상업(3), 유통 경제(2), 금융(3), 정보 통신(2), 국제 경영과 국제 경제(4)
회계 원리	회계의 기초(2), 자산·부채·자본의 회계 처리(3), 수익과 비용의 회계 처리(7), 결산과 재무제표(3), 전표 회계와 회계 자료의 전산 처리(2)
수산 일반	수산업의 개요(3), 수산 자원의 개요(3), 어업(4), 선박 운항(3), 수산 양식(7), 수산 가공(4), 수산물 유통(3), 수산업 관리제도(3)
해사 일반	해운 경영(6), 해운 실무(4), 선박의 구조(4), 선박의 운용(6), 선화 운송(4), 기관 운전(3), 선박 충돌 방지(2), 해양 오염 방제(3), 항만의 건설 및 운영(4), 해양 레포츠 및 안전(4)
해양 일반	해양과 인류(3), 해수의 성질(3), 해수의 운동(4), 해양과 생물(3), 해양 조사(4), 해양 개발과 보전(3), 대기의 성질(4), 기압과 태풍(3), 일기도와 일기 예보(2), 해양 위성 정보(4)
인간 발달	인간 발달의 기초(2), 인간 발달 단계(8)
식품과 영양	식생활의 이해(4), 영양소의 기능(4), 식품의 특성과 이용(4), 식품의 가공 및 저장(5), 생애 주기에 따른 영양(5), 질병과 영양(4)
디자인 일반	디자인의 개요(4), 디자인의 역사(2), 디자인의 분야(5), 디자인 요소와 원리(3), 디자인의 방법과 전개(3)
프로그래밍	프로그래밍의 개요(3), 프로그래밍의 기초(3), 기본 프로그래밍(4), 프로그래밍 실제(3)

* 내용영역(대영역, 중영역) 중 대영역만을 제시하였고, ()안의 수치는 해당 대영역에 속한 중영역 수임.

내용의 중요도에 차이가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어느 정도 일관성은 유지하지만 선택과목별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융통성을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직업탐구 영역의 출제 범위에 속하는 17개 과목에서 내용영역별 출제 문항 수 및 비율의 안배는 해당 과목의 성격이나 내용의 중요도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결정(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04)되어 왔다. 특히 수험생들의 시험 준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내용영역별 출제 문항 수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자 매 시험마다 내용영역 간의 출제 문항 수 및 비율이 적정 수준이 유지되는 방향으로 출제하고자 노력하여 왔다.

(나) 행동영역

2005학년도 수능 직업탐구 영역의 행동영역은 남명호 외(2003)의 연구를 통해 제안된 지식, 이해, 적용, 탐구 등 4개의 영역으로 분류되었다. 이 분류는 평가를 받는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 집단의 특성, 제7차 교육과정에 명시된 출제 범위 과목에 속한 선택과목 별 성격과 내용, 수능의 성격, 실제로 평가 가능한 영역 등이 고려되었다(김진구, 2009). 즉 지식, 이해, 적용 영역은 직업교육 분야 및 실업계 고등학교 현장에서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Bloom의 인지적 행동영역으로서 선택과목 별 성격과 내용 및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들의 학력 수준이, 탐구 영역은 고차적 사고력을 측정하는 수능의 성격 및 사회/과학탐구 영역과 함께 탐구 영역에 속한 직업탐구 영역의 특성이 감안되어 설정된 것이다(김진구 외 2004). 직업탐구 영역의 이러한 행동영역 분류는 <표 3-6-3>의 평가목표에서도 알 수 있듯 2013학년도

수능까지 변화 없이 지속적으로 적용되었다⁵⁾. 이는 곧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한 전국단위 시험이나 학교 현장이 상당히 정착되어 있음을 의미한다(김진구, 이종범, 2010). 2005~2013학년도 수능에 적용되었던 직업탐구 영역의 행동영역 분류에 관한 비판적 연구로는 나현진 외(2009)의 연구가 있지만, 이 연구에 의해 제안된 평가준거는 남명호 외(2003)의 연구에서 이미 검토되었던 Bloom의 인지적 행동영역을 그대로 수용한 상태에서 하위 평가준거만 연구 목적에 맞게 약간 수정한 형태의 분류방식이다(김진구 · 이종범, 2010).

직업탐구 영역은 출제 과정에서 출제 범위에 속하는 17개 과목의 성격과 내용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행동영역별 출제 문항 수 및 비율을 결정하여 왔지만, 기본적인 원칙은 지식, 이해, 적용, 탐구 영역을 선택과목의 성격과 내용 특성에 맞추어 균형 있게 안배하여 출제(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04a)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직업탐구 영역의 경우 사고력 중심의 평가를 지향하는 수능의 성격에 부합하기 위해 해를 거듭할수록 가급적 교과 개념 및 원리를 회상하는 수준의 능력을 측정하는 지식 영역의 출제 비율을 최소화하는 대신에, 교과 개념 및 원리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일상생활 및 직업적 상황에 응용하는 능력을 측정하는 적용 영역 및 문제를 해결해 가는 일련의 과정을 탐구하는 능력을 측정하는 탐구 영역의 출제 비율을 높여 출제하고자 노력하여 왔다. 이를 위해 직업탐구 영역에서는 최근의 학문적 동향이나 통계 자료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이나 언론매체에서 접할 수 있는 최근의 현실적 문제나 시사성 있는 내용, 직업생활 중에 접할 수 있거나 관련 실무에 응용할 수 있을 정도로 확장성을 갖는

5)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개편 방안'(교육과학기술부, 2011. 1)에서 강조된 <직업탐구 선진화 방안>에 따라 2014학년도 수능부터 직업탐구 영역의 행동영역은 개념 및 원리 이해, 문제 인식 및 명료화, 대안 탐색 및 선택, 대안 실행 및 적용, 대안 평가 및 일반화 등 5개의 영역으로 재분류되었다.

내용, 실험·실습 상황 등의 각종 소재들을 제시문의 문제 상황으로 적극 활용하여 왔다. 또한 이 과정에서 제시문의 문제 상황을 구성하는 방식이나 질문을 유도하는 문두 표현 방식, 문항풀이에 요구되는 접근 방식 등에 따라 기존 문항들과 차별화되는 타당도가 높은 참신한 유형의 문항들을 출제하고자 노력하여 왔다. 지식, 이해, 적용, 탐구 등 직업탐구 영역의 4개 행동영역에서 측정하고자하는 능력이 무엇이고, 이들 행동영역에 따른 문항의 예를 농업계열 선택과목에서 출제된 문항을 중심으로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지식 영역

지식이란 보편적 사실과 특수 사실의 기억 방법과 과정의 기억 구조나 또는 형태의 상기를 의미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객관식(선택형) 문항에 답하는 경우처럼 주어진 답지 중에서 자신의 기억과 일치하는 것을 확인하는 형태인 인지와 주관식(서답형) 문항에 답하는 경우처럼 배운 내용을 스스로 머릿속에서 끄집어내야 하는 형태인 회상이 모두 포함된다. 즉, 지식은 기억력과 상기력의 힘을 빌어 과거의 경험을 확인 재구성하는 것을 말한다.

직업탐구 영역에서는 지식 영역을 ‘학습한 내용을 어떤 상황에서도 사고 과정을 통해 기억해 내는 능력’을 측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지식 영역의 문항을 출제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지침이 되는 것은 수능의 문항 형식과 질에 걸맞도록 단편적인 개념 및 원리를 제시문의 문제 상황 없이 직접적으로 묻거나 단순히 암기하여 해결할 수 있는 형태로 문항을 구성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지식 영역에서

측정하고자하는 다음의 평가요소들을 사고 과정을 통해 기억해낼 수 있도록 교과 개념 및 원리가 내포된 다양한 소재를 활용하여 여러 가지의 형태로 문항을 출제해야 한다(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04a).

- 용어와 개념에 관한 내용 기억하기
- 연대, 사건, 인물, 장소 등에 관한 사실적 내용 기억하기⁶⁾
- 표준 기호·단위·형식, 정해진 사용법에 관한 내용 기억하기
- 경향과 순서에 관한 내용 기억하기
- 분류와 유목에 관한 내용 기억하기
- 사실, 원인, 의견, 행위를 검증하고 판단하는 기준에 관한 내용 기억하기
- 법칙이나 원리, 이론, 학설 등에 관한 내용 기억하기

[예시 문항 1]은 외국의 농업 정책에 관한 사실적 내용을 기억하고 그 연장선상에서 해당 국가를 국민 소득 수준 및 농산물 수출·입 비중 등의 또 다른 사실적 내용을 기준으로 분류하는 능력을 측정하는 문항이다. 이 문항은 외국의 농업 특징에 대한 단편적인 사실적 내용을 단순히 암기하여 해결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문항풀이 과정에 단계적 사고 과정이 요구되도록 구성되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문항은 개별 교과 특성을 바탕으로 사고력 중심의 평가를 지향하는 수능의 성격에 부합하며, 국가에 관한 사실적 내용을 사고 과정을 통해 기억하고 분류하는 능력을 측정하는 유형의 문항이라 할 수 있다.

6) 「200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행동 영역별 예시 문항-직업탐구 영역」(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07)에서는 이 평가요소에 ‘국가’에 관한 내용이 추가되었다. 이는 일부 선택과목에서 장소와는 뚜렷하게 구별되는 국가에 관한 사실적 내용을 기억하는 평가요소가 새롭게 추가될 필요성이 제기(김진규, 이종번, 2010)되었기 때문이다.

[예시 문항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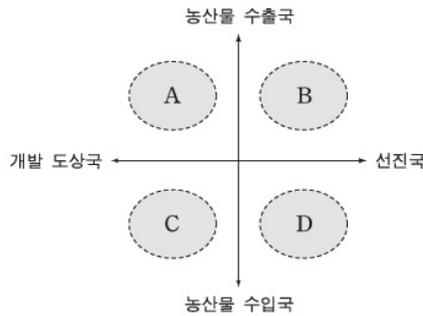
<2009학년도 수능 직업탐구 영역 농업 이해 15번>

15. 다음은 외국의 농업에 대한 설명이다.

- (가) 1978년에 「농업 청부 생산 책임제」가 실시되어 농업 생산이 증가하였다. 그리고 최근에는 보다 자유롭게 토지 경작권을 양도하고 매매할 수 있도록 농민들에게 허용하였다.
 (나) 1910년에 세계 최초로 영농학생회를 조직하여 농업교육을 활성화하였다. 그리고 최근에는 농가의 소득 보조 정책을 대폭 확대한 「2008년 농업법」을 확정하였다.

위 (가), (나)에 해당하는 국가를 그림 A~D에서 고른 것은? (단, 선진국과 개발 도상국은 국민 소득 수준, 농산물 수출국과 수입국은 농산물 수출·입 비중을 기준으로 분류하였다.) [3점]

[국민 소득 수준과 농산물 수출·입 비중에 따른 분류]



- | | | | | | |
|---|-----|-----|---|-----|-----|
| | (가) | (나) | | (가) | (나) |
| ① | A | B | ② | A | D |
| ③ | C | B | ④ | C | D |
| ⑤ | D | A | | | |

이해 영역

이해는 지식이 사실의 단순한 기억 또는 회상인데 비해 전달되는 내용이나 사실 자체의 맥락을 파악하여 인지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학습한 내용을 기계적으로 기억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표현 형태가 바뀌더라도 그 의미를 파악하고 해석하고 추론하는 능력을 모두 포함한다. 즉, 이해력은 학생들이 학습한 것을

구체적으로 지시했을 때 그것을 나타낼 수 있을 정도로 추상 개념을 충분히 아는 능력을 말한다.

직업탐구 영역에서는 이해 영역을 ‘학습한 내용의 표현 형태가 바뀌더라도 그 의미를 파악하고, 해석하고, 추론하는 능력’을 측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해 영역의 문항을 출제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지침이 되는 것은 핵심이 되는 교과 개념 및 원리를

지문이나 표, 그림, 그래프 등 각종의 자료들로 표현 형태를 바꾸어 문항을 제작하는 것이며, 이 영역에서 측정하고자하는 평가요소는 다음과 같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04a).

- 자료의 표현 형태를 바꾸기
- 자료를 재정리, 재배열하거나 새로운 관점에서 요약하기
- 자료가 내포하고 있는 함축적 의미, 결과, 효과 등을 어떤 경향이나 추세의 연장선상에서 파악하기

[예시 문항 2]는 미국 종합 처리장(RPC)에서 사용

하는 순환식 곡물 건조기의 작동 방식을 계측과 제어의 원리 관점에서 요약하는 능력을 측정하는 문항이다. 이 문항은 단순히 순환식 곡물 건조기의 작동 방식에 대한 내용을 묻는 데에서 그치지 않고 계측 방법과 제어 시스템 방식까지 평가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확장시켜 이들 개념 및 원리를 통합적으로 사고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순환식 곡물 건조기의 작동 방식에 관한 자료를 바탕으로 계측과 제어의 원리를 파악하는 이 문항은 자료 속에 내포된 핵심적인 의미를 파악하는 능력을 측정함은 물론, 단원(영역) 간 통합적 사고력도 측정하는 성격을 갖는 유형의 문항이라 할 수 있다.

[예시 문항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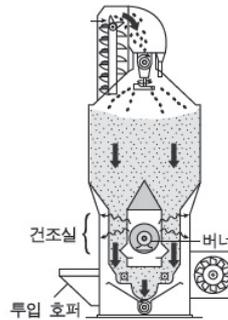
<2013학년도 수능 직업탐구 영역 농업 정보 관리 16번>

[16~17] 다음은 미국 종합 처리장에서 사용하는 순환식 곡물 건조기에 관한 자료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순환식 건조기는 일정량으로 투입된 물벼를 상하로 순환시키며 건조하는 설비로서 건조실을 통과하는 벼를 벼너의 열풍으로 건조한다.

【작동 방식】

- 건조기에 내장된 자동 수분 측정기로 벼의 함수율을 연속적으로 측정하여 제어 오차를 계산하고, 그 값이 0에 근접할 때까지 벼를 건조한다.
- 벼의 함수율은 건조실에 채워진 벼의 전기용량이 수분함량에 따라 변하는 원리를 이용하여 측정하며, 벼의 온도와 중량을 계측하여 ① 함수율 측정값을 보정한다.



16. 위 건조기의 작동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 ① 함수율 측정 방법은 직접 비교법에 해당한다.
- ② 투입 호퍼는 건조기 내의 곡물 순환을 제어한다.
- ③ 건조기의 작동 방식은 폐회로 제어 방식에 해당한다.
- ④ 건조기 내에서 벼의 건조는 순차 제어 방식을 적용한다.
- ⑤ 제어 오차는 투입된 물벼와 건조되는 벼의 함수율 차이이다.

○ 미래의 새로운 상황에 대처하기

[예시 문항 3]은 컴퓨터를 활용한 농산 가공 시설 중 청과물 산지 유통 시설의 과일 선별기 구성 요소 및 기능을 농가 현장에서 사과 선별 작업 중에 발생한 문제 상황에 응용하여 파악하는 능력을 측정하는 문항이다. 이 문항은 관련 실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문제 상황을 대화 형식의 사례 형태로 재구성하였다. 그리고 문제 상황의 원인이 되는 선별기의 종류를 인식하고 이들 선별기를 구성하는 요소 중 점검이 필요한 구성 요소를 파악해야 문항풀이가 가능하도록 구성되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문항은 단계적 사고 과정을 통해 과일 선별기 구성 요소 및 기능을 관련 실무에도 활용할 수 있을 정도로 확장성을 갖는, 직업적 상황에 응용하는 능력을 측정하는 유형으로서, 직업탐구 영역에서 강조되는 대표적인 문항 유형이라 할 수 있다.

탐구 영역

탐구력은 다양성과 복잡성을 지닌 인간의 지적 활동에 관한 추상적인 단어이므로 한두 마디로 그 개념을 정확하게 표현하는 것이 힘들기 때문에 학자들마다 다양한 정의를 내리고 있다. 보편적으로 탐구 과정과 결과는 항상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고 있고 여러 가지 탐구 과정 요소가 복잡하게 합해져서 여러 단계의 과정으로 반복해서 탐구 과정이 이루어진다.

직업탐구 영역에서는 탐구 영역을 ‘문제 해결에 필요한 어떤 방법과 절차에 대한 직접적인 암시가 없는 상황에 직면하였을 때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일련의

과정을 탐구하는 능력’을 측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탐구 영역의 문항을 출제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지침이 되는 것은 고차적인 사고력을 측정할 수 있도록 정답을 유추할 수 있는 결정적인 단서가 포함되지 않은 다양한 직업적 탐구 상황을 소재로 활용하여 문항을 제작하는 것이며, 이 영역에서 측정하고자 하는 평가요소는 다음과 같다(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04a).

- 자료 속에 내포되어 있는 핵심적인 개념이나 제기되는 문제를 인식하고, 명료화하기
- 문제 상황의 해결 방안을 선정하고 구체적인 실행 절차를 수립하기
- 문제와의 관계를 분석하여 자료의 핵심 내용, 특성, 경향성, 규칙성 등을 파악하고, 정리하기
- 결과를 종합하여 결론을 도출하거나 일반화하기

[예시 문항 4]는 제시된 토양의 물리성과 화학성 [분석 결과]에 나타난 문제점을 인식하고 그 결과를 종합하여 사과 재배지에 적합하도록 토양을 개량하는 방법을 탐색하는 능력을 측정하는 문항이다. 이 문항은 문항풀이 과정에서 [분석 결과]에 내포된 문제점을 인식하는 탐구 과정과 함께 문제 상황을 통해 알아낸 정보 이외에 비료의 종류와 특성 및 내염성 작물에 대한 추가 개념이 요구되도록 구성되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문항은 문제 해결에 필요한 어떤 방법과 절차에 대한 직접적인 암시가 없는 직업적 문제 상황을 통해 자료 속에 내포된 문제점을 인식하고 해결 방안을 도출하는 탐구 사고력을 측정하는 유형의 문항이라 할 수 있다.

[예시 문항 4]

<2013학년도 수능 직업탐구 영역 농업 기초 기술 17번>

17. 다음 [분석 결과]에 따른 A씨의 토양 관리 방법으로 적절한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사과를 재배하고 있는 A씨는 생육 상태가 좋지 않고 갈수록 생산량이 줄어 들어 ○○농업기술센터에 토양 분석을 의뢰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통보받았다.

[분석 결과]

1. 토양의 물리성

구 분	토양 구성(%)		
	모래	미사	점토
적정치	40	30	30
분석치	20	40	40

2. 토양의 화학성

구 분	pH (1:5)	유기물 (g/kg)	유효 인산 (mg/kg)	치환성 양이온 (cmol/kg)			EC (dS/m)
				칼륨	칼슘	마그네슘	
적정 범위	6.0-6.5	25-35	200-300	0.3-0.6	5.0-6.0	1.5-2.5	1.5-2.5
분석치	많음						
	적정						
	적음	4.2	32	250	0.5	5.2	2.2

< 보 기 >

- ㄱ. 계분을 시용한다.
- ㄴ. 모래를 넣어준다.
- ㄷ. 황산칼륨을 시비한다.
- ㄹ. 옥수수를 사이짓기한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3) 특이사항

(가) 문항 출제

직업탐구 영역 출제 방향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2003년 12월에 시행된 ‘2005학년도 수능 예비평가’를 통해 제시되었고, 2회에 걸친 2005학년도 수능 6월 및 9월 모의평가를 통해 축적된 노하우를

비탕으로 처음 실시된 2005학년도 수능을 안정적으로 출제하였다는 평가를 받았다(김진구·이중범, 2005). 이를 기반으로 직업탐구 영역은 기본적인 출제 방향은 유지하면서도 지속적으로 출제 전략을 정교화하고, 사고력 평가를 지향하는 수능의 성격에 한층 더 부합하는 문항 제작 기술을 업그레이드시키면서 현재까지 발전을 거듭하여 왔다. 특히 기존 문항에서 사용하지 않은 전공과 관련 있는 최근의 학문적

동향이 반영된 내용,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내용, 관련 실무에 응용할 수 있는 내용, 현실적인 문제나 시사성 있는 내용을 다루고 있는 각종 지문이나 자료, 실험·실습 상황 등의 문항 소재(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12a) 발굴을 통해 문제 상황을 구성하는 방식이나 질문을 유도하는 문두 표현 방식, 문제를 해결하는데 요구되는 접근 방식 등이 차별화되는 참신한 문항 유형을 개발하고자 노력하여 왔다(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12. 11. 8). 이는 [예시 문항 5~7]과 같이 '농업 이해' 과목 '과제 활동' 영역에서 핵심이 되는 과제의 종류 학습내용을 동일하게 측정하고는 있지만, 해를 거듭할수록 2005학년도 수능 초창기 문항에 비해 문항풀이 과정에서 단계적·통합적 탐구 사고력이 한층 더 요구되는 방향으로 문항 유형이 변화되어 왔다는 데에서도 알 수 있다.

직업탐구 영역에서는 문항 출제 시 출제 범위에 속한 과목의 성격과 내용 특성을 고려하여 시대적 변화 상황을 최대한 반영하고자 노력하여 왔다. 즉 해당 과목의 교과서에 포함되었을지라도 그 내용이 최근에 학문적·기술적으로 변화되거나 발전된 내용과 상이할 경우에는 내용을 재구성하여 출제(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04a)함을 원칙으로 하였다. 특히 해사 범규, 기업회계기준, 한국표준 직업분류 등과 같이 전공과 관련된 각종 법률이나 규칙, 기준, 용어 등의 경우 교과서 내용과 비교하여 최근에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확인하고 그 내용을 반영하여 출제(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12a)하여 왔다. 예를 들어 '회계원리' 과목에서는 적용되는 회계 기준을 한국회계기준원의 회계기준위원회에서 2010년 10월 8일자로 개정되고 동년 12월 30일에 공표된 '일반기업회계기준'으로 하였고, 학교에서

[예시 문항 5]

<2005학년도 수능 직업탐구 영역 농업 이해 10번>

10. 다음은 과제 이수 계획서의 일부이다. 과제 이수 장소와 참여자에 따른 과제 활동의 유형을 바르게 짝지은 것은?

과제 이수 계획			
성 명	김유신, 박수진	학 과	식물자원과
과 제 명	고추 재배하기		
장 소	식물자원과 교내 실습포		
평 가	1. 재배 환경 조절, 재배 방법, 수확 시기의 적절성 2. 보고서 작성 및 발표하기		

- | | 장소 | 참여자 |
|---|-------|-------|
| ① | 가정 과제 | 공동 과제 |
| ② | 가정 과제 | 개인 과제 |
| ③ | 학교 과제 | 공동 과제 |
| ④ | 학교 과제 | 개인 과제 |
| ⑤ | 위탁 과제 | 개인 과제 |

[예시 문항 6]

〈2008학년도 수능 직업탐구 영역 농업 이해 4번〉

4. 다음 과제 이수 계획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 과 제 명 : 친환경 벼 재배
- 이 수 자 : 김길동
- 선정이유 : 오리 농법을 이용한 친환경 벼 재배 기술을 익혀 전문 경영인이 되고자 하며, 또한 방과 후 활동 시간을 이용하여 한 달간 벼 재배에 필요한 트랙터의 운전 기술을 습득하기 위한 과제도 같이 이수하기로 하였다.
- 이수목표 : 고품질 친환경 쌀을 생산한다.
- 실시장소 : OO생명과학고등학교 답작 경영포
- 실시규모 : 논 10a
- 이수기간 : 2007년 3월 25일 ~ 2007년 11월 10일
- 실시계획 : 파종 계획
- ⋮

- ① 주과제는 시험과제에 해당한다.
- ② 주과제, 부과제 모두 위탁과제에 해당한다.
- ③ 부과제는 주과제에 비하여 과제 이수 기간이 길다.
- ④ 부과제 이수를 통해 병해충 방제기술을 익힐 수 있다.
- ⑤ 실시계획에는 지출과 수입에 대한 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전에 기업회계기준을 배웠던 수험생들이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변경된 내용은 주석을 달아 출제(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12a)하여 왔다.

이상의 내용 이외에 직업탐구 영역에서 지속적으로 문항 출제 시 특별히 강조하거나 유의하였던 특이 사항을 몇 가지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04a, 2012a).

- 출제 범위에 속하는 과목들의 내용 전반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도록 특정 내용영역에 지나치게 편중되지 않도록 균형 있게 출제한다. 김·인정 교과서를 사용하는 과목들의 경우 특정 교과서에서만 추출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가급적 공통적으로 다루는 학습내용을 평가요소로 활용하여 출제한다.

- 실업계 고등학교의 경우 각 계열별로 다양한 전공학과가 편성·운영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내용영역이 특정 부분에 편중되거나 특정 전공학과와 관련 있는 심화 학습내용을 다루어 계열이나 전공학과에 따라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출제한다.
- 컴퓨터 관련 과목에서 응용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에 관한 내용을 묻거나 문항의 소재로 활용할 경우 교육과정 범위와 수준에 근거하면서 최근에 공공기관에서 널리 통용되고 있는 종류

[예시 문항 7]

〈2013학년도 수능 직업탐구 영역 농업 이해 8~9번〉

[8~9] 다음은 과제 활동에 대한 대화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1. 올해는 무슨 과제 활동을 할거야?
학교 화훼포에서 혼자 허브를 재배 할거야.

2. 너는 무슨 과제 활동을 할거니?
난 우리 집에서 오리 농법으로 버를 재배 할거야.

3. 이웃 농장에서 이앙기 운전과 병충해 방제 기술부터 배울 거야.
나는 기술센터에서 허브 번식 방법을 먼저 배울 건데.

4. 그럼 우리가 이수하려고 하는 주과제의 공통적인 특징은 (가) 이겠네.
그러네.

8. 위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3점]

① 이수 장소가 이웃 농장
② 이수 기간이 1개월 미만
③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
④ 협동성을 기를 수 있는 것
⑤ 비교구를 설치해야 하는 것

9. 위 학생들이 이수하고자 하는 부과제를 이수 목적에 따라 분류 하였을 때, 해당되는 과제의 종류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 <보기> —

ㄱ. 개량과제 ㄴ. 농업관련과제 ㄷ. 기능보조과제

① ㄱ ② ㄷ ③ ㄱ, ㄴ ④ ㄴ, ㄷ ⑤ ㄱ, ㄴ, ㄷ

및 버전(version)을 활용하되, 각 계열의 단위 학교 여건이나 교육적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여 문항을 출제한다⁸⁾. 그리고 응용 프로그램의 명칭은 표기하지 않았을 때 정답시비가 예상되는 경우에 한해 '스프레드시트(엑셀)'과 같이 () 안에 프로그램 명칭을 표기한다.

○ '프로그래밍' 과목은 계열 및 전공 분야에 따라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C와 비주얼 베이직 두 언어를 사용하고, 프로그램 코드에 대한 내용을 묻거나 문항의 소재로 활용할 경우에는 언어 선택에 따른 불이익이 없도록 [예시 문항 8]과 같이 제시문에만, 또는 답지에만, 제시문과 답지

[예시 문항 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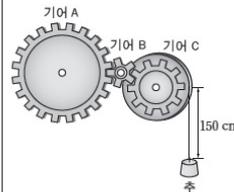
<2012학년도 수능 직업탐구 영역 프로그래밍 13번>

13. 다음 프로그램을 실행한 후 -2를 입력하였다. 출력 값 d를 [조건]에 적용하였을 때 추의 움직임으로 옳은 것은? [3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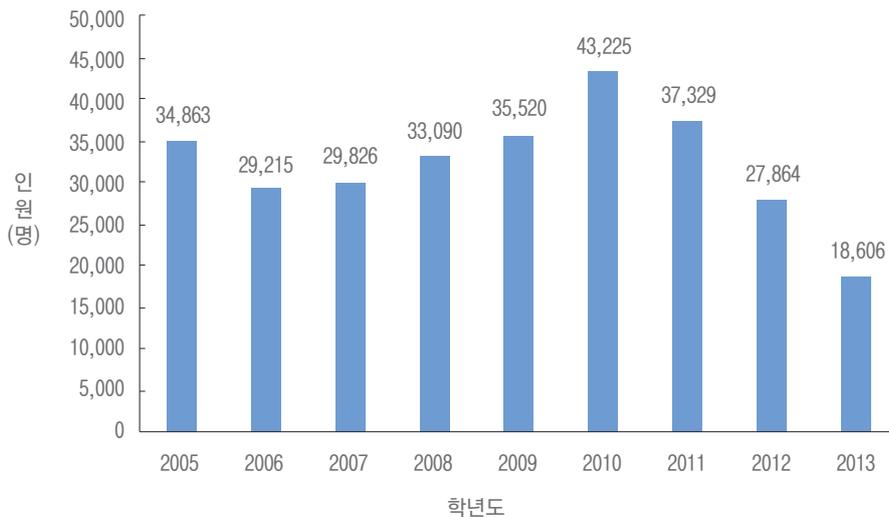
C 언어	비주얼 베이직 언어
<pre>#include <stdio.h> void main() { int g[] = {20, 5, 10}; int t[3], k, d; scanf("%d", &t[0]); for (k = 1; k <= 2; k++) t[k] = -t[k-1]*g[k-1]/g[k]; d = g[2]*t[2]*2; printf("%d\n", d); }</pre>	<pre>Private Sub Form_Activate() Dim t(2), k, d As Variant Dim g() As Variant g() = Array(20, 5, 10) t(0) = Val(InputBox("")) For k = 1 To 2 t(k) = -t(k-1) * g(k-1) \ g(k) Next k d = g(2) * t(2) * 2 Print d End Sub</pre>

[조건]

- 프로그램의 출력 값 d가 양수이면 추가 d cm 아래로 내려가고, 음수이면 추가 |d| cm 위로 올라간다.(단, |d|는 d의 절댓값이다.)
- 추가 달려 있는 도르래는 기어 C에 물려 있어 기어 C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인다.
- 줄의 총 길이는 300 cm이다.



- ① 40 cm 위로 올라간다 ② 40 cm 아래로 내려간다
- ③ 80 cm 위로 올라간다 ④ 80 cm 아래로 내려간다
- ⑤ 추는 움직이지 않는다



[그림 3-6-1] 2005~2013학년도 수능 직업탐구 영역 응시인원

모두에 두 언어를 표현만 달리하여 제시하는 형태로 출제한다.

(나) 응시인원

직업탐구 영역의 전체 응시인원은 [그림 3-6-1]에서 알 수 있듯이 수능에 처음 도입되었던 2005학년도 수능에는 3만 5천여 명이 응시하였으나 다음 해인 2006학년도 수능에서 2만 9천여 명으로 감소하였다. 그 이후부터는 4만 3천여 명으로 가장

많이 응시하였던 2010학년도 수능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다 이를 정점으로 2013학년도 수능까지 급속하게 감소하는 추세에 있다. 특히 2013학년도 수능의 경우 처음으로 응시인원이 2만 명이 채 되지 않았다.

직업탐구 영역의 17개 선택과목 별 응시인원은 <표 3-6-6>에서 알 수 있듯이 큰 차이가 있다. 이는 출제 범위에 속하는 선택과목에 해당하는 계열별 학교 수 및 학생 수, 즉 응시 모집단의 규모에 기인한 측면이 크다. 전반적으로 모집단 규모가 상대적으로

<표 3-6-6> 2005~2013학년도 직업탐구 영역 선택과목별 응시인원

(단위: 명)

과목	학년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농업 정보 관리	1,026	841	830	901	1,060	1,551	1,382	1,124	952
정보 기술 기초	13,765	11,443	11,852	13,067	14,246	17,108	14,688	10,449	6,393
컴퓨터 일반	19,527	16,440	16,623	18,527	19,690	23,842	20,382	15,528	10,134
수산·해운 정보 처리	264	231	287	301	285	357	390	279	207
농업 이해	1,062	835	881	951	1,067	1,606	1,419	1,140	941
농업 기초 기술	1,033	803	807	840	990	1,441	1,268	993	835
공업 입문	14,086	11,231	11,723	12,844	13,934	16,971	14,334	10,167	6,166
기초 제도	12,695	10,087	10,698	11,744	12,830	15,346	12,834	9,022	5,579
상업 경제	16,551	13,714	13,903	15,712	16,995	20,854	17,669	12,929	8,163
회계 원리	13,869	11,348	11,822	13,336	14,463	17,285	14,660	10,790	6,972
수산 일반	199	179	199	232	201	277	239	151	112
해사 일반	55	44	83	63	85	79	98	80	74
해양 일반	273	226	271	252	273	302	317	227	178
인간 발달	1,601	2,219	2,144	2,599	2,644	3,238	3,263	3,016	2,271
식품과 영양	1,180	1,309	1,249	1,299	1,413	2,080	2,000	1,661	1,314
디자인 일반	3,413	3,297	3,211	3,399	3,707	4,284	3,763	3,095	2,419
프로그래밍	2,462	1,949	1,829	1,963	1,765	1,945	1,815	1,460	953

8) 초창기에는 필요에 의해, 교과서보다 상위 버전의 프로그램을 사용할 경우에는 교과서에 제시된 동일 버전이 갖고 있는 기능으로 한정하여 출제함을 원칙으로 하였다(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04).

큰 상업계와 공업계 선택과목 응시인원이 많은 반면에 모집단 규모가 작은 농업계와 수산·해운계 선택과목 응시인원이 적다. 특히 수산·해운계 중 해운계 전공필수 과목으로 모집단이 인천해사고등학교와 부산해사고등학교 단 2곳밖에 없는 ‘해사 일반’의 경우 매년 100명 이상을 넘은 적이 없을 정도로 응시인원이 매우 적다는 특징이 있다. 선택과목 중 응시인원이 가장 많았던 ‘컴퓨터 일반’ 과목의 경우 제7차 교육과정에서 상업계뿐만 아니라 가사·실업계 전공 필수 과목으로 지정된 과목이라는 특징이 있다. 계열 내의 선택과목들 중에는 대체적으로 컴퓨터 관련 과목에 가장 많이, 다음으로 전공 입문(入門)적 성격의 과목에 많이 응시하고 전공 기초 성격의 과목이 가장 적게 응시하는 경향을 보였다. 선택과목별 응시인원의 증·감률 변화 경향은 직업탐구 영역 전체 응시인원 증·감률 변화 경향과 대동소이하다. 즉 전반적으로 2010학년도 수능까지는 점진적으로 증가하다 2010학년도 수능을 정점으로 급속하게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는 고등학교 단계 직업교육을 대표하는 전문계 고등학교의 위기가

심각하다는 인식하에 정부에서 ‘고교다양화 300 프로젝트’ 일환으로 추진한 마이스터고 육성 정책과 무관하지 않다. 특히 ‘고교단계 직업교육 선진화 방안’에 따라 전문계 고등학교 체제를 마이스터(특수목적고) 및 특성화고 중심으로 개편하고 선(先)취업 후(後)진학을 기본으로 하는 취업 강화 정책을 2010년부터 도입·시행(박동열, 2009; 박동열 외, 2009)하였던 데 기인한 측면이 크다.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던 직업탐구 영역의 응시인원이 정부 주도의 취업 강화 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 2010년, 즉 2011학년도 수능부터 감소 추세로 돌아섰다는 데에서도 알 수 있다.

(다) 난이도

매년 평가원에서 수능 당일 발표하는 ‘출제 경향 보도 자료’에 의하면, 직업탐구 영역은 실업계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이수한 학생이면 무난히 해결할 수 있는 수준으로 출제하고자 노력하여 왔다. 이를 위해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들의 전체적인

<표 3-6-7> 2005~2013학년도 직업탐구 영역의 선택과목 간 표준점수 및 1등급 비율 최대 차이

학년도	표준점수 최고점(점)			1·2등급 구분 표준점수(점)			1등급 비율(%)		
	최고 과목	최저 과목	최대 차이	최고 과목	최저 과목	최대 차이	최고 과목	최저 과목	최대 차이
2005	79	66	13	72	67	8	6.06	4.03	2.03
2006	82	68	14	70	65	5	9.09	4.06	5.03
2007	83	70	13	71	66	5	6.37	4.02	2.35
2008	-	-	-	-	-	-	4.98	4.00	0.98
2009	80	69	11	71	65	6	7.27	4.02	3.25
2010	88	70	18	72	67	5	5.82	4.06	1.76
2011	83	69	14	72	66	6	6.10	4.01	2.09
2012	75	67	8	70	64	6	8.75	4.37	4.72
2013	80	67	13	71	66	5	7.27	4.05	3.22

* 2008학년도 수능은 등급제 시행으로 표준점수가 산출되지 않았음.

학력 수준을 충분히 고려하되, 당해 연도 6월 및 9월 모의평가 대비 수능에서 응시인원이 급감하는 직업탐구 영역 응시집단 특성을 감안하여 난이도를 조정하여 왔다. 특히 2011학년도 수능부터는 마이스터 및 특성화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선(先)취업 후(後)진학 정책 강화에 따라 응시인원이 감소하고, 그 여파로 인해 상위권 집단 학력 수준에 큰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전제 하에서 난이도를 조정하여 왔다. 또한 직업탐구 영역은 사회/과학탐구 영역과 마찬가지로 선택과목 간의 난이도를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여 과목 선택에 따른 유·불리 문제를 완화하고자 과목별로 어려운 문항, 중간 수준의 문항, 쉬운 문항 등 다양한 난이도를 갖는 문항들을 적절히 안배하여 출제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2005학년도 수능부터 2013학년도 수능까지 직업탐구 영역의 점수는 사회/과학탐구 영역과 마찬가지로 선택과목 별로 '평균 50, 표준편차 10'으로 선형 변환한 표준점수를 사용하였다. 이에 따른 2005~2013학년도 수능 직업탐구 영역의 17개 선택과목 간 표준점수 최고점 및 1·2등급 구분 표준점수 최대 차이는 <표 3-6-7>과 같다. 표준점수 최고점은 전반적으로 안정적으로 산출되었으나 선택과목 간의 차이가 최대 10점 이상, 특히 응시 인원이 가장 많았던 2010학년도 수능에서는 그 차이가 18점이나 되었다. 이는 과목의 성격 및 내용 특성뿐만 아니라 선택과목 별로 응시집단의 특성이 상이하고, 계열별·지역별·학교별 전공학과에 따라 과목에서 강조하는 학습내용이나 학습량에 큰 차이가 있는 등 문항 난이도 예측 시에 직업탐구 영역만이 안고 있는 고려 사항들이 너무 많아 난이도 조정 과정이 그만큼 수월하지 않았음을 말해준다. 그럼에도 1등급과 2등급을 구분하는 표준점수는 처음 시행된 2005학년도 수능을 제외하면 5~6점 정도에서 안정적으로 산출되어 왔다.

2005학년도 수능부터 현재까지 수능에서는

표준점수와 백분위 이외 영역/과목별 표준점수를 기준으로 산출된 등급을 제공하고 있다. 등급은 영역/과목별 전체 수험생의 상위 4%까지를 1등급으로, 그 다음 7%까지를 2등급, 12%까지를 3등급, 17%까지를 4등급, 20%까지를 5등급 등으로 하여 순차적으로 부여하고, 등급 구분 점수에 놓여 있는 동점자에게는 해당되는 등급 중 상위 등급을 부여(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13)함을 원칙으로 한다. 2005~2013학년도 수능에서 직업탐구 영역은 난이도를 정확히 예측하는 데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응시집단 특성 및 실업계 고등학교에서 전문계 고등학교로, 전문계 고등학교에서 다시 마이스터 및 특성화 고등학교로 체제가 변화되는 과정에서 급속하게 변화되어 온 모집단의 응시 변화 경향 하에서도 한 번의 등급 공백 없이 9개의 등급이 대체적으로 기준 비율에 근접하게 비교적 안정적으로 배치되어 왔다. 그렇지만 <표 3-6-7>에서 알 수 있듯이 4번의 시험에서 선택과목 간 1등급 비율의 최대 차이가 3%를 상회하는 결과가 나타났다. 이 중 2006학년도 수능 및 2012학년도 수능의 경우 최대 차이가 5% 정도로 컸던 이유는 100명 미만의 극소수 인원만이 응시하는 '해사 일반' 과목의 1등급 비율이 9%정도까지 치고 올라갔기 때문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직업탐구 영역 일부 과목의 경우 과목의 성격 및 내용 특성뿐만 아니라 해당 계열의 상위권 집단 응시 경향과 학력 수준의 급속한 변화, 그리고 작은 규모의 응시 집단으로 인해 상위권 변별을 위한 고난도 문항의 난이도 조정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고 볼 수 있다.

다. 직업탐구 영역의 성과와 발전 방향

직업탐구 영역은 수능에 처음 도입된 2005학년도 수능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큰 과오(過誤)없이 안정적으로 출제되었고, 개별 교과와 특성을 바탕으로

사고력 평가를 지향하는 수능의 성격에 부합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타당도가 높은 양질의 참신한 문항 유형들을 개발하고자 노력하여 왔다. 이 과정에서 우려와는 달리 직업탐구 영역의 점수도 대체적으로 대학수학능력을 측정(남보우, 2010)한다는 평가를 받기도 하였다. 즉 객관적이고 신뢰도가 높은 대학입학전형자료를 제공하는 수능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여 왔다.

직업탐구 영역이 수능에 신설된 것은 그 당시 침체되어 있던 실업계 고등학교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적 특단에 따른 것이었다. 그렇지만, 그 이전에는 2000년도에 실업교육관련학회 및 교장회 공동으로 ‘실업교육의 위기와 그 대책’이라는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하였을 정도로 실업교육계가 그 당시 실업교육을 위기로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로 수능에 실업계열 신설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였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그럼에도 수능에 직업탐구 영역을 신설한다고 발표할 당시부터 직업탐구 영역이 실업계 고등학교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지, 아니면 부정적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논의가 끊임없이 제기(김진구·이중범, 2005)되었다. 즉 직업탐구 영역 신설이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계속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확대시켜 궁극적으로 평생 직업교육체제 기반 구축과 실업계 고등학교 활성화에 기여하는 긍정적 측면이 있는가 하면, 계속교육의 강화 정책이 취업 중심의 중국교육 약화로 이어져 궁극적으로 실업계 고등학교의 정체성 혼란을 가중시킬 수도 있다는 것이다(김진구·이중범, 2005; 이양탁 외, 2010).

그럼에도 실업계 고등학교 활성화를 위한 특단의 조치로 학생들에게 대학 입학 문호를 확대하기 위해 수능에 신설된 직업탐구 영역의 정책적 도입 취지는 가시적 성과를 거두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직업탐구 영역이 신설된 이후 그 당시 신입생 미달 사태로 정원조차 확보하지 못하고 있던 실업계 고등학교의

당면 과제가 완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입학성적 면에서 우수한 학생자원이 입학하는 성과(김진구·이중범, 2005; 박동열, 2009; 이양탁 외, 2010)를 거두었다는 데에서도 알 수 있다. 특히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들의 현실적인 대학 진학 욕구를 충족시켜 주는 매개체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여 대학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들의 진학률에도 상당한 영향을 주었을 것이다. 이는 수능에 직업탐구 영역이 신설된 것이 전문계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대학 진학에 대한 강한 동기를 부여하였고 대학에서의 학과 선택에도 많은 영향을 주었다는 연구 결과(선문수, 2007)에서도 입증된 바 있다. 실증적인 데이터로 전문계 고등학교 졸업생들의 진로 현황을 보면, <표 3-6-8>에서와 같이 1990년에 20%정도에 그쳤던 진학 희망률이 1998년부터 50%이상으로 대폭 증가하였고 직업탐구 영역이 수능에 도입된 이후부터 2010년까지는 70%를 상회하기도 하였다. 실제 대학 진학률 역시 1990년에는 10%미만에 그쳤지만 직업탐구 영역이 도입된 이후부터 졸업생의 60%이상, 특히 2007~2010년에는 70% 이상이 대학을 진학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결과는 직업탐구 영역이 전문계 고등학교 졸업생들의 대학 진학에 실제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전문계 고등학교 졸업생들의 대학 진학률이 증가할수록 그 반대의 급부로 취업률은 그만큼 감소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고, 이로 인해 취업 중심의 중국교육 또한 하나의 주요 교육 목표인 전문계 고등학교의 정체성 혼란 문제는 가중될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전문계 고등학교 졸업생의 취업률 저조 문제를 해결하고자 1990년대 중·후반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하던 계속교육 기회 확대 정책 대신 전문계 고등학교의 체제를 개편하고 취업을 강화하는 정책을 추진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정부의 정책 선회는 직업탐구 영역 응시인원의 급속한 감소 현상을 불러왔다. 이는 수도권 소재 대학

〈표 3-6-8〉 1990~2013년도 전문계 고등학교* 졸업생의 진로 현황

연도	졸업생 (A)	진학 희망(B)		진학						취업					
				합계**(C)		전문대(D)		대학*** (E)		합계(F)		전공 분야(G)		다른 분야(H)	
		인원 (명)	비율 (B/A)	인원 (명)	비율 (C/A)	인원 (명)	비율 (D/C)	인원 (명)	비율 (E/C)	인원 (명)	비율 (F/A)	인원 (명)	비율 (G/F)	인원 (명)	비율 (H/F)
1990	274,150	60,570	22.1	22,710	8.3	14,989	66.0	7,367	32.4	210,113	76.6	174,057	82.8	36,056	17.2
1991	272,365	59,789	22.0	21,302	7.8	13,544	63.6	7,378	34.6	218,433	80.2	177,915	81.9	39,453	18.1
1992	274,677	63,517	23.1	23,851	8.7	15,110	63.4	8,307	34.8	218,888	79.7	178,381	81.5	40,507	18.5
1993	272,541	70,045	25.7	26,481	9.7	16,266	61.4	9,698	36.6	209,871	77.0	167,695	79.9	42,176	20.1
1994	263,962	80,675	30.6	39,914	15.1	26,628	66.7	12,427	31.1	192,165	72.8	159,100	82.8	33,065	17.2
1995	259,133	92,288	35.6	49,699	19.2	33,070	66.5	16,274	32.7	190,148	73.4	158,483	83.3	31,665	16.7
1996	274,696	107,962	39.3	60,373	22.0	40,171	66.5	19,536	32.4	196,403	71.5	167,184	85.1	29,194	14.9
1997	273,912	129,934	47.4	79,961	29.2	54,163	67.7	24,961	31.2	177,532	64.8	152,047	85.6	25,485	14.4
1998	302,416	162,088	53.6	107,824	35.7	78,941	73.2	27,451	25.5	164,075	54.3	132,574	80.8	31,516	19.2
1999	290,892	146,835	50.5	112,130	38.6	81,488	72.7	29,609	26.4	148,478	51.0	114,898	77.7	33,580	22.6
2000	291,047	147,893	50.8	122,170	41.9	88,914	72.8	32,101	26.3	149,543	51.4	115,028	76.9	34,515	23.1
2001	270,393	140,997	52.1	121,411	44.9	88,249	72.7	32,220	26.5	130,968	48.4	99,496	76.0	31,472	24.0
2002	231,127	125,932	54.4	115,103	49.8	81,307	70.6	32,688	28.4	104,138	45.1	80,973	77.8	23,165	22.2
2003	189,510	107,972	56.9	109,234	57.6	70,334	64.4	38,072	34.9	72,212	38.1	54,602	75.6	17,610	24.4
2004	182,835	112,955	61.8	113,944	62.3	69,648	61.1	43,449	38.1	60,062	32.9	43,352	72.2	16,710	27.8
2005	170,259	120,585	70.8	115,164	67.6	71,376	62.0	43,083	37.4	47,227	27.7	33,834	71.6	13,393	28.4
2006	162,600	116,887	71.9	111,601	68.6	70,664	63.3	40,415	36.2	42,151	25.9	30,136	71.5	12,015	28.5
2007	158,708	120,309	75.8	113,487	71.5	73,679	64.9	39,244	34.6	32,075	20.2	23,568	73.5	8,507	26.5
2008	158,408	122,683	77.4	115,407	72.9	74,056	64.2	41,193	35.7	30,036	19.0	21,737	72.4	8,299	27.6
2009	151,410	119,112	78.7	111,348	73.5	72,977	65.5	37,974	34.1	25,297	16.7	18,962	75.0	6,335	25.0
2010	156,069	119,279	76.4	111,041	71.1	71,819	64.7	38,436	34.6	29,916	19.2	22,734	76.0	7,182	24.0
2011	152,824	105,256	68.9	97,400	63.7	63,645	65.3	32,956	33.8	35,698	23.4	26,725	74.9	8,973	25.1
2012	146,522	86,884	59.3	80,468	54.9	51,817	64.4	27,857	34.6	48,046	32.8	36,123	75.2	11,923	24.8
2013	141,774	71,728	50.6	67,184	47.4	42,485	63.2	24,131	35.9	50,146	35.4	37,404	74.6	12,742	25.4

*「교육통계연보」에서 전문계고는 2006년까지 실업계고, 가사·실업고는 2005년까지 실업고 명칭으로 통계가 처리됨.

** 2009~2010년의 진학자 합계에는 특수학교 전공과(2009년 23명, 2010년 43명) 진학자가 포함됨.

*** 대학에는 교육대학, 산업대학, 기술대학, 방송통신대학이 포함됨.

자료: 교육통계연보(1990~2013).

대부분이 대학입학전형자료로 직업탐구 영역을 반영하지 않아, 이들 수도권 대학에 진학하고자하는 학생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와 결부되어 직업탐구 영역이 수능에 필요한지에 대한 문제 제기로까지 이어져, 직업탐구 영역의 지속적인 발전 측면에서 간과할 수 없는 당면과제로 남아 있다.

한편 직업탐구 영역은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개편 방안'(교육과학기술부, 2011. 1. 26)에서 강조하는 '직업탐구 선진화' 방안에 따라 변화된 새로운 시험체제와 출제체제 하에서 직업기초능력평가에서 강조하는 문제해결능력을 최대한 반영하는 방향으로 출제 방향이 변화되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문항의 성격을 결정짓는 시험의 성격, 평가목표 그리고 행동영역이 문제해결능력을 반영할 수 있도록 개선(김진구 외, 2012)되어야 한다. 그러나 직업탐구 영역이 대학 교육을 받는 데 필요한 수학 능력을 측정하는 시험이고 직업기초능력평가는

기업이 근로자에게 요구하는 공통적이면서 기본적인 역량을 측정하는 시험이라는 점에서, 즉 시험의 성격과 목적이 상이한 직업기초능력평가에서 강조하는 문제해결능력을 반영하여 출제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특히 2013학년도 수능까지 지속되어 왔던 지식, 이해, 적용, 탐구 중심의 행동영역에서 탈피하여 문제해결능력 측정 중심의 행동영역을 기반으로 새로운 문항 유형들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안착시켜야 하는 부담이 있으며, 이 과정에서 많은 시행착오를 겪을 수도 있다. 그럼에도 실생활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거나 취업 후 관련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직면하는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 나가면서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능력을 측정(김진구 외, 2012)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었다는 점에서 보면, 직업탐구 영역만이 갖는 독자성과 특수성을 한층 더 확고히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다.

제7절

제2외국어/한문 영역

이준식(성균관대학교)

가. 개요

(1) 도입 배경과 취지

1994학년도에 처음 도입된 수능은 직전까지의 대학입학학력고사(이하 학력고사)가 지나치게 단편적 지식과 암기 위주의 기억력에 의존하는 시험이라는 반성에서 출발하였다. 당시 학력고사 체제가 지속되는 한 고등학교 교육의 파행적 운영은 불가피하다는 여론이 사회 전반에 확산되어 있었고, 각 대학에서 실시하는 대학별 고사 역시 학력고사의 성격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는 한계에 봉착해 있었다. 따라서 수능으로의 전환에서 핵심 과제는 학교 교육을 통하여 학습된 능력을 측정하되, 어떻게 단편적 지식을 중심으로 한 암기력 측정으로부터 탈피하여 '사고력 중심의 발전된 학력고사'로 전환하느냐의 문제였다. 단순 지식의 암기와 기억력에 의존하는 입시체제로부터의 탈피는 바로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운영 또한 사고력 중심의 교육으로 정상화된다는 것을 의미하였다. 이에 수능은 시행 초기부터 암기력 중심에서 탈피하여 적용력, 분석력, 종합력, 판단력, 문제 해결력 등 고등 사고력을 중심으로 한 측정이라는 데 초점을 맞추어 왔다. 1994학년도 이래 지난 20년간 수능이 기본적인 성격이나, 목표, 방향 등에서 큰

변화 없이 지속될 수 있었던 배경도 바로 이 시험이 확보할 수 있었던 신뢰도와 타당도, 공공성과 공정성에 기반하고 있다고 진단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국제화라는 시대·사회적 조류에 맞추어 적극적으로 해외 활동 무대의 영역을 확대해 가고 있으며, 국가 성장 동력의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 이런 과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우리는 무엇보다도 먼저 해당 국가의 언어와 관습에 능통한 인재를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육성해야 하며, 학교 교육에서 제2외국어 교과를 처음 접하게 되는 중등학교의 제2외국어 수업이 그 토대가 될 것이다. 만약 토대 단계에서의 교육이 부실해진다면 향후 우리 사회가 부담해야 할 사회적 비용은 한층 더 증대될 것이며, 손실을 만회하기 위한 노력도 배가될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제2외국어 교과가 수능에 채택된 것은 너무도 당연하고도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하겠다. 이런 배경 하에서 제2외국어/한문 영역은 2001학년도의 도입기를 거쳐, 2002~2004학년도까지는 모색과 변화의 시기를, 그리고 그 이후부터 현재까지는 정착과 안정화의 단계를 맞고 있다고 볼 수 있다.

(2) 제2외국어/한문 영역의 성격 및 평가목표

제2외국어/한문 영역 중 제2외국어 시험은 기초적인 제2외국어 의사소통 능력을 측정하는 시험이다. 이 시험은 제2외국어가 대학 교육에서 도구 과목의 성격을 갖는다는 점을 반영하여, 대학에서 학문을 연마하는 데 필요한 기초적인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능력을 측정하는 데 그 의미가 있다. 이 영역에서는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규정된 제2외국어 I의 내용과 수준에 맞추어 학생들이 학교 교육을 통해 배양한 기초적인 외국어 의사소통 능력을 측정하도록 출제하되, 불필요한 언어학적 지식의 측정을 지양하고 다양한 상황에서 사용되는 생활 외국어의 언어 사용 측면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출제하였다. 이는 수능에서 강조하고 있는 시험의 기본 성격 및 출제 방향에 부합하는 것이다.

그러나 제2외국어 시험은 개별 교과목의 특성상 다른 영역이나 과목에서처럼 통합교과적 소재를 활용하여, 적용력·분석력·문제 해결력 등 고등 사고력 중심으로 측정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또 출제 과정에서 다양한 내용과 장르를 아우르는 지문이나 대화 소재를 활용하기도 쉽지 않다. 제2외국어 I 교과서 내의 지문이나 대화문의 내용이 비교적 단순하게 구성되어 있기도 하거니와, 어휘 수와 사용 구문의 용례가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제2외국어 I의 수준에 맞추어 지문이나 대화문을 창작하거나 응용하여 구성할 수밖에 없다. 통합교과적 소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못하는 대신, 이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범단원적 범주를 포괄하는 내용을 활용하기도 하였다. 그 결과 도입 13년차를 맞는 제2외국어 시험은 학력고사에서 중시하였던 문법 지식이나 독해력 등에 관한 출제를 가급적 지양하였다.

한편, 학력고사에서는 실현하기가 쉽지 않았던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등 언어 4기능을 고르게 평가하려는 시도가 부단히 진행되었다. 서신, 광고, 일기, 포스터,

메모, 통계 등 다양한 사실 자료를 이용한 실용문이 문항의 소재로 대거 도입되었으며, 담화나 대화 역시 생활 주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실용적인 소재를 사용하였다. 이로써 실제 생활에서의 언어 사용 능력을 측정한다는 제2외국어 고유의 목표에 더 한층 가까이 다가선 것이다.

제2외국어/한문 영역 중 한문 과목의 시험 범위는 고등학교 교육과정 ‘漢文’, ‘漢文古典’ 중 ‘漢文’의 내용과 수준을 바탕으로 기초적인 한문 이해 능력을 측정하는 시험이다. 즉 이 시험은 한문이 대학 교육에서 도구 과목의 성격을 갖는다는 점을 반영하여 대학에서 학문을 연구하는 데 필요한 한자, 한자어, 한문을 이해하고 활용하는 능력을 측정한다. 한문 교과는 제2외국어/한문 영역에 포함되어 있기는 하지만 교육과정에서 규정된 교과목의 성격, 목표, 내용 체계, 교수·학습 방법이나 자료 등은 제2외국어와는 상이하다. 따라서 출제 기본 방향, 출제 범위와 내용은 물론 평가목표 등도 상이하다. 제2외국어 교과가 국제화의 추세에 맞추어 국제 협력과 교류 확대라는 현실적 수요에 부응하여 그 중요성이 강조되었다면, 한문 역시 주요 도구 과목으로서 사회적 필요성에 부응하여 교육과정에 충실하면서도 대학에서의 수학 능력에 요구되는 사고력 측정이 중점적으로 부각되었다. 특히 한국어 어휘의 상당 부분이 한자어에서 비롯된 것임을 고려한다면 학습자의 독해력, 이해력, 사고력, 응용력, 표현력을 함양하는 데 한자, 한자어 및 한문 실력이야말로 필수불가결한 요소이다. 따라서 한문 교과는 암기력 평가 방식을 지양하고 사고력 측정에 적합한 문항을 개발하며, 아울러 문맥에 고립된 문항보다는 문맥 이해를 통하여 해결하는 문항 개발에 노력해 왔다.

수능에 제2외국어/한문 영역이 도입된 이후 시험의 성격이나 출제 방향에서 가장 큰 변화는 지식 암기 위주의 측정에서 탈피하여 실제 생활에서의 언어 사용 능력을 평가의 중요 요소로 삼았다는 것이다.

교육과정의 규정에 의하면, 제2외국어 I 은 언어의 이해 능력과 표현 능력을 함양함과 동시에 듣기와 말하기에 중점을 두어 의사소통 능력을 신장시키는 과정이다. 외국어 의사소통 능력은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등 언어의 4기능을 중심 내용으로 하면서 동시에 문화 이해 능력까지를 포함하고 있다. 한문의 경우, 제2외국어 I 교과와 비교할 때 성격, 평가목표나 출제 방법 등은 비록 상이하지만 ‘한문 교육용 기초 한자’를 익혀 일상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는 능력, 즉 교과 내용의 실용적 기능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기본 방향은 서로 일치하는 점이 있다. 제2외국어/한문 영역의 「출제 매뉴얼」(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04a)에 제시된 출제 방향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제2외국어 교과를 정상적으로 학습한 학생이라면 누구나 쉽게 답할 수 있도록 타당도와 신뢰도가 높은 문항을 출제한다.
- 한문 과목 평가의 기본 원리와 방향을 바탕으로 하여, 고등학교 ‘한문’을 정상적으로 이수한 학생이라면 누구나 답할 수 있도록 쉽고 용이한 내용으로 출제한다.
- 고등학교 제2외국어과 교육과정의 내용과 수준에 의거하여 기초적인 의사소통 능력을 평가하도록 출제한다.
- 학생의 의사소통 능력을 효과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문법 중심의 측정을 지양하고 다양한 상황에서 사용되는 생활 외국어의 언어 사용 측면이 강조된 평가 문항을 출제한다.
- ‘한문 교육용 기초 한자’를 익혀 일상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측정하도록 출제한다.
- 고등학교 ‘한문’ 교육과정의 내용과 수준에 맞추어 학생들이 학교 교육을 통해 학습한 기초적인 한문 이해 능력을 측정하도록 출제한다.
- 선택과목 간의 난이도 문제 조정을 위해 표준 점수제를 도입했지만, 점수 분포에 따라 선택과목

간 유·불리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는 않으므로 특정 과목을 선택한 학생들이 다른 과목을 선택한 학생들에 비해서 부당한 이익 또는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선택과목 간 난이도 조정에 각별히 유념하여 출제한다.

제2외국어/한문 영역의 출제는 고등학교 제2외국어 I 과 한문 교육과정의 내용과 수준으로 정해져 있다. 이 영역의 교과들은 대학 교육에서 도구 과목의 성격을 띠는 점, 수업 시수의 제약, 수험생의 학습 부담, 대학입학 전형 단계에서의 반영 정도 그리고 수능 전체 영역에서 차지하는 비중 등 여러 요인의 제약을 받는다. 이런 현실적 제약이 결국 평가목표의 설정에 제한점으로 작용하게 된다. 이 영역의 시험은 제2외국어 I 이나 한문을 정상적으로 학습하였다면 누구나 쉽게 답할 수 있도록 타당도와 신뢰도가 높은 문항, 의사소통 능력을 적절하게 평가할 수 있는 생활 외국어 중심의 문항, 그리고 기초적인 한문 이해 능력을 측정하는 문항을 출제하려는 기본 목표를 지향한다. 제2외국어 교과와 한문 교과의 평가목표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우선 제2외국어 영역의 평가목표는 발음 및 철자(문자)의 식별력, 어휘력, 문법 이해력, 의사소통 기능의 이해 및 활용 능력, 문화 이해 능력을 측정하는 것이다. 그리고 한문 과목의 평가목표는 한자, 한자어, 한문의 이해와 활용 능력을 측정하는 것이다. 이를 구체적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제2외국어 영역 평가목표
 - 발음 및 철자의 식별력
 - 외국어 자·모음 발음의 정확한 이해
 - 자·모음 결합 관계의 정확한 이해
 - 단어와 단어 연결 시 발음 변화의 이해
 - 외국어 철자의 정확한 인식
 - 소리와 철자 관계의 이해

- 어휘력
 - 단어의 일차적 의미 및 맥락적 의미의 이해
 - 단어들 사이의 연관성 이해
 - 관용적 표현에 대한 정확한 이해
 - 문법 이해력
 - 어법에 맞는 표현, 잘못된 표현 등의 이해
 - 문장의 구조와 단어의 의미 연결
 - 적절한 시제, 동사의 변화형 등의 파악
 - 의사소통 기능의 이해 및 활용 능력
 - 교육과정에 제시되어 있는 의사소통 기능 예시문의 이해와 활용
 - 문화 이해 능력
 - 일상의 언어 사용과 밀접히 관련된 문화의 이해와 상황에 맞는 적절한 반응
- 한문 영역 평가목표
- 한자를 이해하고 활용하는 능력
 - 한자의 음과 뜻을 알고 쓰기
 - 한자의 짜임을 통해 형·음·의 알기
 - 언어 생활에 활용하기
 - 문장 독해에 활용하기
 - 한자어를 이해하고 활용하는 능력
 - 한자어의 음과 뜻을 알고 쓰기
 - 한자어의 짜임을 통해 뜻 알기
 - 성어의 속뜻 알기
 - 언어생활에 활용하기
 - 문장 독해에 활용하기
 - 선인들의 삶과 지혜를 이해하고 가치관 형성하기
 - 한문을 이해하고 활용하는 능력
 - 산문을 읽고 풀이하기
 - 문장 구조를 통해 문장의 내용 알기
 - 허자의 쓰임을 알고 활용하기
 - 문장의 형식을 통해 문장의 뜻 풀이하기
 - 한시를 풀이하고 감상하기

- 한시의 기초적인 형식과 특징 이해하기
- 격언·속담, 명언·명구를 일상 생활에 활용하기
- 선인들의 삶과 지혜를 이해하고 가치관 형성하기
- 전통 문화를 이해하고 계승 발전시키기
- 한자 문화권 내에서의 상호 이해 증진하기

나. 제2외국어/한문 영역의 특징

(1) 시험모형

제2외국어 영역은 수능이 도입된 지 7년이 되는 2001학년도에 처음 실시되었다. 제2외국어 교과는 1993학년도까지는 학력고사에서 선택과목으로 실시되다가 1994학년도 수능 시행과 함께 폐지되었는데, 고등학교 제2외국어 교육의 정상화 및 국제화 시대의 사회적 요구에 부응한다는 취지에 맞추어 2001학년도 수능부터 부활한 것이다. 최초의 제2외국어 영역은 독일어 I, 프랑스어 I, 에스파냐어 I, 중국어 I, 일본어 I, 러시아어 I 등 모두 6개 선택과목으로 구성되었다. 이후 2005학년도부터는 이란어 I 과 한문이 추가되어 8개 과목으로 증가되었고 영역 명칭도 제2외국어 영역에서 제2외국어/한문 영역으로 변경되었다.

제2외국어 영역 시험의 출제에서 각 교과는 기본적으로 출제 방향과 원칙이 서로 일치하는데 그 기본 특징을 개괄해 보면 다음과 같다.

2001학년도에 최초로 실시된 제2외국어 시험 문항은 총 30문항, 배점은 40점이었으며, 시험은 제5교시에 40분간 실시되었다. 출제 수준은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규정한 제2외국어 I 수준에 맞추어 학생들이 학교 교육을 통해 배양한 기초적인 외국어 의사소통능력을 측정하도록 하였다. 출제에서는

불필요한 언어학적 문법 지식의 축적을 지양하고 다양한 상황에서 사용되는 생활 외국어의 언어 사용 측면이 강조된 문항을 출제하였다. 시험은 내용영역과 행동영역으로 구분하여 영역별로 고르게 출제되도록 하되, 내용영역의 경우 발음 및 철자(문자), 어휘, 문법, 문화를 각각 3개 문항, 의사소통기능을 18개 문항 출제하였다.

단어는 교육과정의 기본 어휘표와 의사소통 기능 예시문에 제시된 단어를 사용하되, 제시되지 않은 단어를 사용할 경우에는 주석을 달았다. 문항당 배점은 각각 1점, 1.5점, 2점으로 하되, 문항의 난이도, 사고 수준, 중요도, 소요 시간 등을 고려하여 차등 배점하였다. 2003학년도까지는 문항당 배점 방식이 1점짜리 12문항, 1.5점짜리 16문항, 2점짜리 2문항으로 출제되었으나, 2004학년도에는 1.5점짜리 문항이 없어지고 1점짜리 20문항, 2점짜리 10문항으로 조정되었다.

제2외국어 영역은 다른 영역과 달리 계열 구분 없이 응시를 희망하는 수험생들에 한해 실시되었다. 따라서 제2외국어 과목의 점수는 총점에 합산하지 않고 별도 표기하였으며, 제2외국어 6개 과목간의 난이도 조정을 위해 원점수와 함께 표준점수제를 도입하였다.

이러한 제2외국어 영역의 출제 방향과 원칙은 기본적으로 큰 변화 없이 그 틀을 지속해 왔는데, 2005학년도 시험부터 몇 가지 큰 변화가 있었다. 2005학년도 이후의 주요 변동 사항을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한문 과목이 추가되면서 영역 명칭이 제2외국어 영역에서 제2외국어/한문 영역으로 변경되었고, 아랍어 I도 추가되어 이 영역은 6개 교과에서 모두 8개 교과로 확장되었다. 에스파냐어 I은 과목 명칭이 스페인어 I로 변경되었다. 문항 수는 총 30문항으로 변화가 없으나, 문항당 배점이 1점짜리 10문항, 2점짜리 20문항으로 변경되어 총점이 40점에서 50점으로 늘어났다. 한문이 추가됨으로써 출제의

기본 방향도 한문이 추가됨으로써 출제의 기본 방향에도 “한자와 한자어의 이해 및 적용 능력 그리고 한문의 독해 능력을 측정할 수 있도록 출제함.”(한국교육과정평가원 1998~2012a)이라는 조항을 추가하였다. 그리고 제2외국어 교과와 관련하여, ‘교육과정’(교육부, 1997b)에서 다루지 않기로 한 ‘제의 문법 사항’과 제2외국어 I 과목 교과서 분석 결과에 의거해 추출한 ‘추가 제의 문법 사항’을 출제 범위에서 제외한다고 공지함으로써 수험생이 시험 준비에 참고하도록 하였다.

문제지의 면수도 변화가 있었다. 2001학년도 시험 초기부터 2004학년도까지는 6과목 총 16면으로 출제하다가 2005학년도부터 2011학년도까지는 과목당 3면으로 출제하였다. 2012학년도부터는 과목당 4면으로 증면되었다. 문제지의 증면은 출제자나 수험생의 입장에서 볼 때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 온다. 수험생의 입장에서는 심리적 안정감과 여유를 가질 수 있고 가독성도 제고될 수 있다. 출제자의 입장에서는 공간 제약으로 인하여 지문과 대화문을 충분히 활용할 수 없었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다. 또 출제자가 공간을 충분히 사용할 수 있게 되면 다양한 사실 자료를 사용하여 출제 방식에 여러 가지 변화를 줄 수 있고, 또 문항 내용의 단순성을 탈피할 수도 있기 때문에 수험생의 흥미를 유발하는 효과도 불러올 수 있다.

2011학년도부터 시행된 EBS 교재 70% 연계는 출제 과정상의 중대한 변화라고 볼 수 있다. EBS 교재 연계 규정은 원래 2010학년도 이후 수능 출제에 도입된 방식으로 2010학년도 출제 원칙에는 ‘EBS 수능 교재에 수록되어 있는 문항 중에서 교육과정의 중요한 학습 내용은 변형하여 출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011학년도의 경우, EBS 교재 연계 비율은 6월 모의평가에서는 50%, 9월 모의평가에서는 60%, 수능에서는 70%를 연계하였다. 다만 제2외국어/한문 영역은 직업탐구 영역과 함께 교재가 미비했던

관계로 모의평가에서는 연계하지 않는 대신 수능에서만 70% 연계를 하였다. 이 연계 규정은 시행 이후 줄곧 보강되어 지금은 연계 비율 및 방법, 연계의 유형까지 구체적으로 제시되고 있다.

해당 외국어의 원어민이 검토위원에서 출제 위원으로 역할이 바뀌게 된 것도 제2외국어 영역 출제에 있어 주요한 전환점이 되었다. 원래 제2외국어 각 교과에서 원어민이 출제본부에 합류한다는 것은 학력고사 시기에는 상상하지도 못한 일이었지만, 수능에서는 시행 첫 해인 2001학년도부터 도입되었다.

초창기 원어민의 역할은 검토위원으로서 문장을 수정하거나 문항의 오류를 지적하는 정도에 국한되었기 때문에 그 역할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다. 게다가 원어민은 전체 문항이 어느 정도 완성된 다음에 입소하여 검토 작업을 하였기 때문에, 실사 문제점이 발견되더라도 큰 틀의 변화나 수정을 기대하기는 어려웠다. 수정·보완하는 데 물리적인 시간이 부족한 경우도 있었고, 때로는 출제위원과 원어민 간에

표현 방식의 차이, 개인의 문체 선호도에 따른 갈등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현재와 같이 원어민이 출제 시작 단계에서 검토위원이 아닌 출제위원의 자격을 부여받은 것은 출제위원의 숫자가 1명 늘어났다는 물리적인 증가 이상의 의미가 있다. 원어민이 출제 초기 단계부터 출제위원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게 되면서 문항 제작 초반부터 대화문의 자유로운 변환과 응용이 이루어질 수 있었으며, 다양하고 참신한 내용을 담은 실용문이 비교적 용이하게 제작될 수 있었다. 또한 생동감 있는 대화문과 깊이 있고 다양한 문화 내용을 다룰 수 있게 되었다. 교과서나 EBS 교재 등의 문장 및 해설 부분에 나타나는 오류에 대한 검증도 이 과정에서 원어민이 수행하는 주요한 업무가 되었다.

지금까지 설명한 2001학년도부터 2013학년도까지 제2외국어/한문 영역 시험에서 발생한 주요 변화의 내용을 정리하면 <표 3-7-1>과 같다.

<표 3-7-1> 2001~2013학년도 제2외국어/한문 영역 시험의 주요 변화

	변경 전	변경 후
과 목	2001학년도 6개 과목 (독일어 I, 프랑스어 I, 에스파냐어 I, 중국어 I, 일본어 I, 러시아어 I)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개 과목 추가 (아랍어 I, 한문) [2005학년도 ~] • 에스파냐어 I 을 스페인어 I 로 명칭 변경 [2005학년도 ~]
내용영역 (제2외국어)	발음/철자 3문항(10%) 어휘 3문항(10%) 문법 3문항(10%) 문화 3문항(10%) 의사소통 기능 18문항 (60%)	문법 5문항, 의사소통 기능 16문항으로 조정 [2005학년도 ~]
문항 수 및 배점	30문항 40점	30문항 50점 [2005학년도 ~]
문항당 배점	1점, 1.5점, 2점	1점, 2점 [2004학년도 ~]
문법 관련 사항 (제2외국어)	-	제7차 외국어과 교육과정(II)의 '제외 문법 사항', 교과서 분석 결과에 의거한 '추가 제외 문법 사항' 공시 [2005학년도 ~]
문제지 면수	6과목 총 16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목당 3면 [2005학년도 ~ 2011학년도] • 과목당 4면 [2012학년도 ~]
EBS 교재 연계	-	문항 수 기준으로 평균 70% 연계 [2011학년도 ~]

(2) 평가틀

(가) 내용 및 행동영역

제2외국어 시험은 외국어 사용의 유창성 정도를 측정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고 있으나, 그 기본 목표는 기초적인 의사소통 능력을 측정하는 것이다. 따라서 <표 3-7-2>에서 보듯이 내용영역은 외국어 의사소통 능력에 대한 평가 요소인 발음 및 철자(문자), 어휘, 문법, 의사소통 기능, 문화로 구분하였다. 또 행동영역은 언어 이해, 언어 표현, 언어 이해와 표현으로 구분하였는데 언어 이해는 듣기와 읽기, 언어 표현은 쓰기와 말하기를 각각 그 하위 요소로 설정하였고, 각각의 기능별로 지식, 이해, 적용 능력을 평가목표로 정하였다.

한문 교과는 제2외국어와 동일한 영역에 포함되어 있긴 하나, 과목의 개념 및 성격, 출제 방향, 평가목표 등이 서로 상이하기 때문에 평가목표 이원분류표의 기준과 내용 또한 상이하다. 한문은 기초적인 한자, 한자어, 한문의 이해 능력을 측정하는 시험이다. 이에

따라 <표 3-7-3>에서 보듯이 평가 내용영역은 크게 한자, 한자어, 한문으로 구분된다. 내용영역의 하위 요소를 보면 ‘한자’ 영역에서는 각각 한자 익히기와 한자 활용하기로 구분되고, ‘한자어’ 영역에서는 각각 한자어 익히기, 한자어 활용하기, 가치관 형성하기로 구분되었다. ‘한문’ 영역에서는 각각 한문 익히기, 한문 활용하기, 가치관 형성하기, 전통 문화 계승 발전시키기 등으로 세분되었다. 한문 교과의 이원분류표는 제2외국어와 달리 내용영역을 이주 구체적으로 세분화한 대신 행동영역은 기능별로 지식, 이해, 적용 능력으로 단순화하여 평가목표로 정하였다.

이상의 영역 구성을 토대로 제2외국어/한문 영역의 출제는 다음과 같은 과정을 통해 진행된다.

먼저, 출제위원과 검토위원의 섭외가 이루어진다. 이때 출제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2012학년도부터 출제위원진의 구성 및 운영 개선안이 마련되었다. 그 첫째는 영역 또는 과목별 출제위원 중 특정 대학 출신자 비율을 50% 이내(단, 출제인력풀에서 특정 대학 출신자 비율이 50%를 초과하는 영역

<표 3-7-2> 제2외국어 평가목표 이원분류표

내용영역	행동영역	언어 이해*			언어 표현*			언어 이해와 표현			문항수	비율 (%)
		지식	이해	적용	지식	이해	적용	지식	이해	적용		
	1. 발음 및 철자											
	2. 어휘											
	3. 문법											
	4. 의사소통기능											
	5. 문화											
	문항 수											
	비율(%)											

* 언어 이해 - 듣기, 읽기 / 언어 표현 - 쓰기, 말하기

** 한국교육과정평가원(2004a)

〈표 3-7-3〉 한문 과목 평가목표 이원분류표

내용영역		행동영역	지식	이해	적용	문항 수	비율 (%)
한자	한자 익히기	· 한자의 음과 뜻을 알고 쓰기 · 한자의 짜임을 통해 형·음·의 알기					
	한자 활용하기	· 언어 생활에 활용하기 · 문장 독해에 활용하기					
한자어	한자어 익히기	· 한자어의 음과 뜻을 알고 쓰기 · 한자어의 짜임을 통해 뜻 알기 · 성어의 속뜻 알기					
	한자어 활용하기	· 언어 생활에 활용하기 · 문장 독해에 활용하기					
	가치관 형성하기	· 선인들의 삶과 지혜를 이해하고 가치관 형성하기					
한문	한문 익히기	· 산문을 읽고 풀이하기 · 문장 구조를 통해 문장의 내용 알기 · 허자의 쓰임을 알고 활용하기 · 문장의 형식을 통해 문장의 뜻 풀이하기					
	한시 익히기	· 한시를 풀이하고 감상하기 · 한시의 기초적인 형식과 특징 이해하기					
	한문 활용하기	· 격언·속담, 명언·명구를 일상생활에 활용하기					
	가치관 형성하기	· 선인들의 삶과 지혜를 이해하고 가치관 형성하기					
	전통 문화 계승 발전시키기	· 전통 문화를 이해하고 계승 발전시키기 · 한자 문화권 내에서의 상호 이해 증진하기					
문항 수							
비율(%)							

* 한국교육과정평가원(2004a)

/과목은예외)로, 특정대학 소속자 비율을 30% 이하로 제한한다는 것이다. 둘째, 출제위원 중 교사 비율을 영역별로 25% 이상으로 구성하는데, 이는 교육 현장의 실상을 충실히 반영함으로써 난이도 예측의 정확성, 예상 정답률과 실제 정답률 간의 괴리를 최소화하는데 기여한다는 것이다. 특히 출제 과정에서 교사 참여 비율의 확대는 고등학교 현장 교육에 대한 사전 지식이나 수험생의 학습 능력과 성취도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는데 적지않은 기여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은 출제 준비 단계로서 출제위원단의 전체 워크숍, 그 뒤를 이어 영역별 워크숍이 이루어지는데, 제2외국어/한문 영역 출제위원단은 이 영역별

워크숍을 통해서 출제 지침에 대한 설명과 상호 의견 교환을 진행하며 여기서 전체적인 출제 방향을 결정한다. 이때 가장 중요한 지침이 되는 것은 교육 과정에 근거하여 학생들이 대학 수학에 필요한 외국어 이해 능력과 활용 능력을 평가한다는 것이다.

다음은 문항 제작 단계로서, 출제위원들은 출제 계획표를 작성하고 상호 간의 역할 분담을 통해 문항 초안을 제작한다. 제작된 문항 초안을 대상으로 출제위원들은 전체 회의를 통해 수정·보완의 과정을 거친다. 이 과정에서의 주요 임무는 문항의 타당성과 객관성의 검증, 교육과정 준수 여부 확인, 난이도 수준, 기출 여부 판단 등이다. 이때 출제위원들은 격의

없는 토론과 정밀한 수정·보완 과정을 거치는데, 최초 출제자가 제시한 문항은 출제위원 상호 간의 치열한 논의를 거치면서 완전히 새로운 문항으로 환골탈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런 출제 과정은 수능의 매 문항 하나하나가 특정 출제위원의 단독 출제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출제위원 공동의 문항으로 출제될 수밖에 없음을 보여준다.

1차적으로 문항 제작이 종료되면 뒤이어 문항 검토 단계를 거치게 된다. 검토 작업은 공식적으로는 1, 2차 검토위원에 의해 이루어지지만, 제2외국어/한문 영역의 경우에는 검토위원이 검토에 착수하기 전에 영역 내 각 과목 출제위원 간의 상호 교차 검토 작업을 진행한다. 이 과정에서는 각 과목 자체 내에서의 검토와 수정 수준을 넘어 다른 과목 출제자가 제3자의 입장에서 정밀하게 검토하는 작업이다. 이 과목 간 교차 검토에서는 특정 교과목의 문항 출제자가 자기 내부적 시각에서 사로 잡혀 자칫 간과하기 쉬운 의외의 오류를 점검하고, 과목 간 난이도 수준을 예상하여 조정하는 데도 유용하다. 이 교차 검토는 결국 당사자보다 제3자의 입장이 때로는 더 객관적이고 정확할 수도 있다는 점을 효과적으로 검증해 보이기도 한다. 검토 작업에서도 출제 단계에서와 마찬가지로 문항의 타당성, 객관성, 정답의 타당성, 선택지의 구성, 기출 여부 등 다양한 각도에서 점검이 이루어진다. 과목 간 교차 검토 방식은 대체로 그물망처럼 복합적이고 조직적으로 운영된다. 동양어와 동양어 간, 또 서양어와 서양어 간, 그리고 완전히 이질적인 외국어 간의 교차 검토가 이루어진다. 초창기의 상호 검토 과정을 보면 1, 2차 검토에서는 제2외국어 6개 과목 전체 출제위원이 참여하는 공동 검토 방식이었다가, 2005학년도부터 아랍어 1과 한문 과목이 포함되면서 1차는 8개 과목 공동 검토, 2차는 동양어와 서양어 교과 4과목 간 교차 검토로 바뀌었다. 2006학년도부터는 2차 검토

위원도 참여하는 인접 2개 과목 간 3차 교차 검토도 시행되었다. 이 교차 검토에는 출제위원, 평가위원 전원이 참여하며, 검토위원 역시 해당 과목에 대한 검토뿐만 아니라 과목 간 교차 검토 과정에도 모두 참여한다.

검토위원은 일부 특정 외국어 과목을 제외하면 원칙적으로 현직 교사가 참여한다. 현직 교사는 학교 현장에서의 교육과정 준수 정도, 수험생의 학업 수준, 고등학교에서의 학습 방향 등에 대한 이해도가 대학교수에 비해 대체로 높기 때문에, 문항의 난이도 수준, 예상 정답률, 문항의 기출 여부, 출제 방향 및 출제 방식의 일관성 등을 정밀하게 검토한다. 게다가 현직 교사가 제기하는 검토 내용 및 방향, 태도 등은 향후 고등학교 제2외국어/한문 교육의 정상화에도 기여할 수 있는 토대가 될 수 있다.

2001학년도 시행 초기부터 제2외국어/한문 영역에서는 각 과목별 출제 문항의 난이도 수준을 대체적으로 동일하게 유지하는 데 주력해왔다. 과목 간의 난이도 수준이 적절하게 유지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 이유는 그것이 제대로 유지되지 못할 경우 시험 자체의 타당도와 신뢰도에 결정적인 흠결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난이도 조정이 실패할 경우 표준점수의 유·불리에 따라 수험생의 이해관계가 침해하게 대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학교 교육에까지 영향을 미쳐 영역 내 과목 사이에 선택의 불균형이 초래될 수도 있다. 또, 수능 시험의 결과는 과목별 표준점수, 백분위, 등급으로 표기되는데 선택과목 성적의 불균형이 대학별 전형과정에서 자칫 수험생의 실제 학습능력을 반영하지 못하고 왜곡시킬 우려마저 있기 때문이다. 그간 출제 과정에서 제2외국어/한문 영역 각 과목별로 출제위원 상호 간에, 혹은 출제위원과 검토위원 간에 사전 협의와 확인 작업을 거치면서 난이도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유의한 항목들을 요약해보면 다음과 같다.

- 출제계획표를 출제 작업에 앞서 미리 작성하면서 과목별로 내용영역과 행동영역의 비중을 대체적으로 균형 있게 유지하였는가.
- 과목별로 교육과정의 기본 어휘 수를 감안하여 사용 어휘 수를 적절히 조정하였는가.
- 다양한 내용을 가진 소재와 의사소통 기능 예시문을 활용하였는가.
- 지문의 수, 지문의 길이 등을 최대한 균형 있게 사용하였는가.
- 한문 교과의 경우, 원전 인용문의 길이를 가능한 10행 이내로 조정하였는가.
- 그림, 도표, 삽화 등 사실 자료의 사용 빈도를 가급적 동일하게 사용하였는가.
- 우리말 선택지로 구성된 문항 수를 최대한 균형 있게 사용하였는가.
- 문화 문항에서 특정 소재에 치중되거나, 문화 지식을 요구하는 문항을 출제하지 않았는가.
-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지문이나 대화문의 전반부에 위치하지 않도록 유의하였는가.
- 특정 문항의 내용, 어휘 및 사실 자료 등이 다른 문항 해결의 실마리가 되지 않도록 유의하고, 동일 문항 내에서도 문두나 선택지 등에 정답이 암시되지 않도록 유의하였는가.
- 일반화되지 않은 이론이나 주장을 이용하여 문항을 제작하지 않았는가.
- 성적, 종교적, 정치적, 지역적 차별 등이 암시된 지문을 사용하지 않았는가.
- 해당 외국어를 일정 기간 동안 학습하지 않은 수험생이 정답을 유추해낼 수 있는 문항은 출제하지 않았는가.

(나) 출제 범위

제2외국어/한문 영역의 출제 범위는 고등학교 제2외국어 I 과 한문 교육과정의 내용과 수준으로

정해져 있다. 제2외국어나 한문 교과는 대학 교육에서 도구 과목의 성격을 가지기 때문에, 그 출제 방식 또한 대학에서의 학문 연마에 소요되는 기초적인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능력 혹은 기초적인 한문 이해 능력을 측정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제7차 교육과정의 내용 체계에는 각 외국어별 언어 재료를 발음, 철자(문자), 어휘, 문법, 의사소통 기능 등으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는데, 출제 범위나 방식 역시 기본적으로는 이러한 구분에 근거해서 구성되어 있다. 여기서는 제2외국어의 경우, 발음 및 철자(문자), 어휘, 문법, 의사소통 기능, 문화로 각각 구분하여 서술한다. 한문 교과의 경우에는 한자, 한자어, 한문 등으로 구분하여 서술한다.

발음 및 철자(문자)는 교육과정에 제시되어 있는 ‘기본 어휘표’와 ‘의사소통 기능 예시문’에서 다른 낱말의 발음 및 철자의 범위 내에서 출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또 교과별 특성에 따라 강세, 연음, 억양, 성조, 장단음, 청탁음, 한자 표기 등과 관련된 문항을 출제할 수 있다. 발음 및 철자(문자)의 문제 유형은 자·모음의 발음 구분, 성조 이해, 퍼즐식 낱말 맞추기, 한자 읽기 등 다양하다.

어휘는 각 과목별 제7차 교육과정에 제시된 기본 어휘 범위 내에서 출제하되, 기본 어휘표와 의사소통 기능 예시문에 제시되지 않은 단어를 사용할 경우에는 주석을 단다. 사용 빈도가 높은 단어는 그 의미와 용례를 단독으로 학습하기보다는 의사소통 기능의 맥락 속에서 활용되는 의미를 파악할 수 있도록 출제한다. 어휘 관련 문제의 유형은 관용어 용례, 지문이나 대화문의 흐름 이해하기, 단어 카드, 도표를 이용한 단어 간의 연관성 이해하기 등이다.

문법은 의사소통 기능 예시문을 중심으로 한 문법 사항을 출제의 우선 범주에 둔다. 그러나 수험생이 문법을 언어적 지식의 측면에서 이해하기보다는 의사소통 기능과 연관지어 학습했을 때 유리하도록 출제한다. <표 3-7-4>에서 보듯이, 문법 사항과

관련해서는 제7차 교육과정에 규정된 제외 문법 사항은 출제 범위에서 제외한다. '제외 문법 사항'에는 중국어 I 과 러시아어 I 의 일부 내용을 제외하고는 평가 요소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법 사항이 열거되어 있으므로 학습자가 참고할 필요가 있다. 또 <표 3-7-5>에서처럼 제2외국어 I 과목 교과서 분석을 통해

추출한 '제2외국어 교과서 추출 제외 문법 사항'도 평가 요소 대상에서 제외된다. 문법 관련 문제의 유형은 구문의 정확성 파악, 제시된 지문 또는 대화문의 문법 사항들을 맥락에 따라 적절히 변형시키기, 문법 용례의 오류 파악하기 등이다. 의사소통 기능은 교육과정에 제시된 의사소통 기능

<표 3-7-4> 제7차 외국어과 교육과정에 규정된 제외 문법 사항

과목명	교육과정에 규정된 제외 문법 사항
독일어 I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용 빈도가 낮은 불규칙 명사와 외래 명사의 변화 • 2중 4격 목적어를 취하는 동사 • 복합 시칭 중 미래 완료 • 2격 목적어를 취하는 재귀 동사 • 수동형 중 미래 수동, 미래 완료 수동 및 과거 완료 수동 • 현재 분사나 미래 분사에 의한 분사적 표현 • 준 관계 대명사 • 접속법 1식 • 접속법 II 식에서 sein, haben, werden 그리고 화법 조동사를 제외한 나머지 동사들의 변화 형태 • 부문장의 단축
프랑스어 I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설법 대과거, 단순 과거, 전과거, 전미래 • 명령법 과거 • 공손한 표현의 용법을 제외한 조건법 • 접속법 • 체롱디프를 제외한 분사 구문
스페인어 I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설법 과거 완료, 직전 과거, 미래 완료 • se의 특수 용법 • 기능법 • 접속법 • 2인칭 복수 재귀 명령형 • 관계 부사와 관계 형용사
중국어 I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법에 관한 내용은 교육 과정 의사소통 기능 예시문의 해당 사항을 참고한다.
일본어 I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법에 관한 내용은 교육 과정 의사소통 기능 예시문의 해당 사항을 참고한다. 다만, 다음 문법 사항은 다루지 않기로 한다. - 고어적인 표현 (예: べし, まい) - 지나치게 복잡한 문법 사항 (예: 사역 + 수동: 歌わせられる, ださせて いただく) - 지나친 존비어 (예: さようでございますか) - 지나치게 격식 차린 구어 표현 (예: ほんじつは, ~であります)
러시아어 I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법에 관한 내용은 교육 과정에 제시된 의사소통 기능 예시문의 해당 사항을 참고로 한다. 다만, 행동사, 부동산사, 수사 중 복잡한 문법 사항은 다루지 않기로 한다.

과목명	교육과정에 규정된 제외 문법 사항
아랍어 I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함자의 난해한 받침 규칙 • 악센트의 위치 • 불규칙 복수의 유형 • 기본형 동사 이외의 파생형 동사의 수동태 • 상태 문장과 수사를 제외한 탐이즈 • 미완료 동사 강세형 • 축소 명사 • 난해한 강조 구문과 제외문 • 동사의 쌍수형 • 관계 대명사의 쌍수형 • 복합 연결형 • 관용적으로 쓰이는 표현을 제외한 조건문

* 한국교육과정평가원(2004a)

〈표 3-7-5〉 제2외국어 교과서 추출 제외 문법 사항

과목명	제2외국어 교과서 추출 제외 문법 사항
독일어 I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동태 • 간접의문문 • 화법조동사의 복합 시칭(미래, 현재완료, 과거완료, 미래완료) • zu 부정사 • 미래 및 과거완료 시제 • 관계대명사
프랑스어 I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롱디프 • 대명동사의 과거 • 사역동사 • avoir+pp 문형에서의 과거분사 일치 • 직목 • 지시대명사 복합형 • 간목의 어순 • 관계대명사
스페인어 I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동태 • 소유대명사 • 직설법 현재 및 현재 진행형을 제외한 모든 시제 • 부정형용사 • 관계대명사 • 부정대명사
러시아어 I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형용사의 비교급 · 최상급 • 조건법
중국어 I 일본어 I 아랍어 I	<p>* 이들 3개 과목은 교육과정에 제시되어 있는 의사소통 기능 예시문의 해당 사항과 보편적인 문법 사항 위주로 출제한다.</p>

* 한국교육과정평가원(2004a)

예시문을 중심으로 출제한다. 따라서 이들 예시문에 나타나는 표면적 의미는 물론 발화 의도까지 정확히 숙지하는 게 중요하다. 아울러 예시문에 내재된 어휘의 특성과 용법, 문장의 구조와 종류, 문법 사항까지 응용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 게 필요하다. 특히 교육과정에 제시된 예시문은 언어별로 각각 상황과 주제, 의사소통의 목적, 표현 방식 등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이 구분의 내용과 의도를 잘 이해해 둘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독일어 I의 경우를 보면, 상황이나 주제별 항목이 ‘대화의 시작과 끝’ 항목에서 시작하여 ‘비교’ 항목까지 모두 29개 항목으로 구분되어 있다. 또 중국어 I의 경우 ‘일상적인 대인 관계’ 등 8개의 대항목으로 구분한 다음, 이들 각 항목의 하위 개념으로 다시 의사소통 목적별로 몇 갈래씩

세분화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표현 사례가 제시되어 있으므로 이를 충실히 학습하는 게 중요하다. 의사소통 기능 예시문과 관련된 문항의 유형은 문항 수 자체가 가장 많기 때문에 그 유형도 다양하다. 가령, 사실 자료의 정확한 이해와 활용, 문제 해결에 관한 표현을 정확히 이해하고 활용하기, 일상생활에서 관용적으로 사용되는 표현 이해하기, 지문이나 대화문에 제시된 필요한 정보를 추출하는 능력 파악하기, 대화문의 표면적 의미와 내포된 의미를 정확히 구분하기 등이다.

문화는 해당 외국어 사용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 사용과 밀접히 관련된 내용을 출제한다. 언어는 그 자체로 문화의 중요 구성 요소의 하나이므로 문화를 이해함으로써 보다 정확하고 적절한 언어 사용 능력을 배양할 수 있다. 제2외국어 영역에서의 문화 요소는 언어 문화, 생활 문화, 예술 문화, 전통 문화, 지리 문화 등 다양하게 세분할 수 있다. 학교 현장에서 학습자는 목표 언어 국민의 일상적인 문화를 언어 자료를 통해 간접적으로 이해하고 수용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외국어를 학습하여 그것을 실제 생활에 활용하는 데는 이 문화 내용이 매우 효과적으로 흥미를 유발하고 이해도를 심화시켜준다. 문화 관련 문제의 유형은 아무래도 각 국가, 민족별로 다양한 문화가 존재하기 때문에 제2외국어 각 교과별로 가장 다양한 형태를 보여준다. 언어별로 고유하게 나타나는 언어 행동의 특징적인 차이, 숫자에 대한 선호도, 예술인과 역사 인물 정보, 산업구조의 특징, 문자적 특징, 예법, 애호 및 금기 사항, 풍속, 가치관과 생활 철학, 민족성, 지리적 특징 등이 모두 문화 문항의 주요한 소재가 된다.

한문 교과의 경우, 교과서와 EBS 교재를 중심으로

출제하기는 하지만 제2외국어 교과에 비해 교과서 종수가 많고 문장 내용 또한 비교적 복잡하다. 특히 한문의 경우 단순한 사실 나열보다는 사고력과 판단력, 응용력을 요구하는 문항이 많기 때문에 종합적인 독해력이 필요한 경우가 많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한문 학습의 출발점은 중·고등학교 ‘한문 교육용 기초한자 1800자’이며, 이 기초 한자에 포함되지 않으면 주석을 달아준다. ‘한문 교육용 기초한자 1,800자’는 1972년 8월 16일에 교육부가 공표한 것을 가리킨다.

한문의 출제 범위는 크게 한자, 한자어, 한문 세 영역으로 구분된다. 한자 영역에서는 중·고등학교 한문 교육용 기초 한자 1800자의 범위 내에서 출제 하되, 한자의 음과 뜻을 알고 쓰기, 한자의 짜임을 통해 형·음·의 알기, 언어생활에 활용하기, 문장 독해에 활용하기 등을 측정할 수 있는 문항을 출제한다.

한자어 영역에서는 한자어의 음과 뜻을 알고 쓰기, 한자어의 짜임을 통해 뜻 알기, 성어의 속뜻 알기, 언어생활에 활용하기, 문장 독해에 활용하기, 선인들의 삶과 지혜를 이해하고 가치관 형성하기 등을 측정할 수 있는 문항을 출제한다.

한문 영역에서는 신문을 읽고 풀이하기, 문장 구조를 통해 문장의 내용 알기, 허자의 쓰임을 알고 활용하기, 문장의 형식을 통해 문장의 뜻풀이하기, 한시를 풀이하고 감상하기, 한시의 기초적인 형식과 특징 이해하기, 격언·속담, 명언·명구 등을 일상생활에 활용하기, 선인들의 삶과 지혜를 이해하고 가치관 형성하기, 전통 문화를 이해하고 계승 발전시키기, 한자 문화권 내에서의 상호 이해 증진하기 등을 측정할 수 있는 문항을 출제한다.

실제 출제된 문항의 예를 들어 보면 다음과 같다.
 [예시 문항 1]은 독일어에서 자주 사용되는 의사소통 표현에 대하여 묻는 문항이다. 문자 메시지를 이용한 대화 상황을 설정하여 학생들의 일상생활이 자연스럽게 묻어나고, 대화 내용에서 지역 문화적인 면이 드러나 있다. 독일어 일상 대화에서 상대방의 진술에 대하여 청자의 놀람이나 부러움과

같은 감정의 의사소통 표현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문항이다. 대화 상황의 앞뒤 문맥에 따라 적절한 표현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해결할 수 있는 문항으로, 언어에 대한 단순한 지식보다는 언어 사용 능력에 중점을 두어서 평가한다는 수능의 출제 기본 방향에 부합한다.

[예시 문항 1]

〈2013학년도 수능 제2외국어/한문 영역 독일어 I 13번〉

13.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지 않은 것은? [1점]



* Technik : 기술

- ① Wirklich? ② Wie schön! ③ Fast nicht!
 ④ In München? ⑤ Was ist los?

[예시 문항 2]는 전통적인 공연 예술의 하나인 ‘皮影戲’를 소개하는 대화문을 통해 그 특징을 이해하고 이를 묘사한 그림을 찾아내는 문화 문항이다. 대화문 내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어 문화적

지식이 없다 하더라도 ‘皮影戲’에 대한 설명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지식을 묻는 문항을 가급적 지양하는 출제 방향과도 잘 부합한다.

[예시 문항 2]

<2012학년도 수능 제2외국어/한문 영역 중국어 I 30번>

30. 밑줄 친 ‘这种戏’에 해당하는 그림으로 알맞은 것은? [1점]

A: 爷爷, 您小的时候看过电影吗?

B: 没看过。小的时候我喜欢看一种戏。这种戏呢, 是用兽皮做成人的样子, 有人在幕后拿着它动, 还边唱边讲故事。

A: 真有意思, 我也想看看。

*兽皮: 동물 가죽 *幕: 막, 장막

①



②



③



④



⑤



[예시 문항 3]은 수험생이 실제적인 언어생활에 활용된 한자어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가를 묻는 문항이다. 동음이의어가 한자로 표기되지 않았을 때

오해나 오류가 흔히 발생할 수 있는데 이는 바로 이런 우리의 언어생활을 잘 반영한 문항이라고 볼 수 있다.

[예시 문항 3]

〈2011학년도 수능 제2외국어/한문 영역 한문 9번〉

9. 대화의 내용으로 보아 ㉠, ㉡의 한자 표기로 옳은 것은? [1점]



- | | | | |
|------|----|------|----|
| ㉠ | ㉡ | ㉠ | ㉡ |
| ① 小題 | 所載 | ② 小題 | 所在 |
| ③ 所載 | 所在 | ④ 素材 | 所在 |
| ⑤ 素材 | 所載 | | |

(3) 특이 사항

(가) 시행 원년의 혼란과 교훈

수능이 시행된 지 7년 만인 2001학년도에 제2외국어 6개 교과가 선택과목으로 채택된 것은 늦은 감은 있지만 다행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제2외국어 교과가 수능 과목에 포함된 이후 그 영향력과 과급 효과는 지대하였으며 공교육의 정상화 및 내실화라는 목표에 한 걸음 다가설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수능에서 제2외국어 교과가 도입되자, 학생들의 인식이나 학교 현장에서 제2외국어 교육을 경시하는 풍조가 어느 정도 개선되었다. 심지어 수능의 출제 원칙과 방향이 고교에서의 제2외국어 교육을 선도하는 역할까지도 담당한다는 사고방식이 자리 잡기 시작하였다. 학력고사와는 달리 수능의 기본 방향이 고등학교에서의 단순 암기 방식 배제, 문법 위주 어문교육의 지양, 독해 위주의 교수·학습을 탈피하여 의사소통능력 위주의 수업 방법을 모색하도록 유도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학교 현장에서의 교수·학습 전략이나 기술 역시 새로운 방법론을 모색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당위성과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2001학년도에 실시된 최초의 제2외국어 영역 수능은 난이도 조정 실패와 변별력 상실이라는 문제를 야기하였다. 이런 시행착오의 배경에는 고등학교 학교 현장 교육에 대한 이해의 부족, 수험생의 학업 능력과 성취도에 대한 정보 부족, 그리고 6개 외국어 간의 과목 이기주의적 요소도 어느 정도 작용하였다. 즉 6개 외국어 과목 간에 서로 쉽게 출제하기 경쟁 같은 심리적 기제가 작동했기 때문에 목표 정답률과 실제 정답률 간의 괴리가 컸고 시험으로서의 변별 기능도 미흡하게 나타났던 것이다. 당시 각 과목별 문항을 보면 외국어 학습 경험이나 지식이 전혀 없는 사람도 풀 수 있는 문항이 6개 과목 전반에 걸쳐 두루

출현하였다. 우리말로 된 발문, 그림과 도표, 주어진 주석에 근거해서 정답을 추정해낼 수 있는 문항도 있었다. 첫 시험을 치른 수험생이나 입시기관에서는 ‘만점자 대거 발생’을 예상했고, 각 대학에서도 ‘선발 기준으로서의 의미’를 부여하기가 어렵다는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언론에서도 만약 이런 방식으로 출제된다면 ‘제2외국어 교육을 강화하려는 취지가 무색해질 것’이라는 비판을 쏟아냈다. 수능에서의 첫 제2외국어 시험이 결과적으로 이렇게 쉽게 출제된 데는 새로 도입된 과목에 대한 수험생의 학습 부담과 심리적 긴장감을 최소화해주려는 교육적 배려가 작용하기는 했지만, 그 파장은 출발과 동시에 시험 무용론이 대두될 정도로 큰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다.

제2외국어 도입 이후의 첫 시험이 가져온 실패를 분석해볼 때, 앞에서 언급한 대로 학교 현장 교육에 대한 이해의 부족, 수험생의 수준 파악 미흡, 과목 간 이기주의적 심리 등의 요인도 있지만 제도적 측면에서의 준비 부족이 그 이면에 내재되어 있었다. 2001학년도 수능에 제2외국어를 추가하기로 결정한 것은 1999년 수능 개선 방안 연구위원회의 제안에서 비롯되었다고 알려져 있다. 이 위원회에서는 ‘세계화 시책의 일환으로 기존의 영어 일변도의 외국어 교육에서 탈피하여 외국어 교육을 다양화해야 한다는 시대적,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여 제2외국어 영역 시험의 편성’(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05a)을 제안했고, 이를 교육부가 수용하여 2001학년도 수능 때부터 학생들이 선택적으로 응시하도록 결정한 것이다. 그러나 이 결정 이후, 약 2년여 동안 교육부에서 제2외국어 과목의 시행을 위해 사전에 어떤 준비 작업을 진행했는지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없다. 최초로 시행된 제2외국어 시험의 결과가 비판의 초점이 된 중요한 원인 중의 하나가 제도적 미비일 수 있었다는 근거도 바로 이 점과 연관된다.

반면, 제2외국어 영역 시험과는 대조적으로 다른 영역은 본격적인 시행에 앞서 실험평가라는 예비

〈표 3-7-6〉 2001~2004학년도 제2외국어 영역 응시자 집단의 선택과목별 평균점수

학년도	구분 응시집단	선택과목별 평균					
		독일어 I	프랑스어 I	에스파냐어 I	중국어 I	일본어 I	러시아어 I
2001	전체	35.5	34.7	31.7	35.7	28.1	28.3
		88.7	86.7	79.2	89.2	70.2	70.6
	상위 50%	39.6	38.8	38.0	39.9	35.2	38.5
		98.9	96.9	95.1	99.7	87.9	96.3
2002	전체	21.5	23.8	23.3	21.9	21.8	21.6
		53.6	59.6	58.3	54.8	54.5	54.1
	상위 50%	29.9	32.2	31.8	30.8	30.9	30.9
		74.8	80.5	79.5	77.0	77.1	77.4
2003	전체	23.4	21.6	25.8	23.7	20.0	24.8
		58.4	54.1	64.6	59.3	50.1	62.0
	상위 50%	31.2	28.5	35.0	31.8	28.1	35.8
		78.0	71.2	87.5	79.5	70.3	89.5
2004	전체	20.4	22.4	19.7	21.0	18.5	17.5
		51.0	56.0	49.3	52.5	46.3	43.8
	상위 50%	28.6	31.2	28.2	29.6	27.5	27.5
		71.5	78.0	70.5	74.0	68.8	68.8

* 점선 위는 원점수, 아래는 100점 만점 환산점수임.

과정을 거친 바 있다. 즉 1993년 처음으로 시행한 1994학년도 수능은 영역별로 비교적 충실하게 사전 준비를 했다. 실험평가는 평가원의 주관 하에 1990~1992년에 걸쳐 총 7차례에 걸쳐 언어, 수리, 과학탐구, 사회탐구, 외국어(영어) 등 5개 영역으로 나뉘어 실시되었다. 실험평가의 목적은 배점, 문항 수, 시험 시간 등 시험모형의 타당성에 관한 검증, 출제 방향의 설정과 영역별 평가목표의 적절성 평가, 학생·교사·학부모의 수능에 대한 이해 증진, 실제 출제 및 관리를 위한 경험의 축적 등이었다. 그러나 제2외국어 영역에서는 이 실험평가의 단계가 생략되었다. 체계적인 준비 과정을 거치지 못하고 곧바로 시행에 들어간 제2외국어 영역 시험이 시행 원년도에 통과되려 호되게 치른 데는 이런 배경 요인이 자리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제2외국어

시험에서는 통상 실험평가에서 조정될 수 있는 시험 문항의 형식, 문항 수, 배점 등의 시험모형을 확정할 수가 없었고, 출제 기본 방향, 평가목표, 문항 제작의 원칙, 수능에서 제2외국어 영역 시험이 가지는 성격 규명 등과 같은 기본 원칙을 마련하기도 쉽지 않았던 것이다.

〈표 3-7-6〉은 2001학년도에서 2004학년도까지 4년 동안의 제2외국어 영역 응시자 전체 집단 및 상위 50% 집단의 선택과목별 평균점수를 나타낸 것이다. 표에 나타난 2001학년도 제2외국어 영역 전체 응시자 집단의 평균점수를 보아 알 수 있듯이 상위 점수대를 보인 중국어 I, 독일어 I의 평균점수가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각각 89.2점, 88.7점인데 비해, 하위점수대를 보인 일본어 I, 러시아어 I는 각각 70.2점과 70.6점으로 그 격차가

무려 18~19점이거나 되었다. 특히 상위 50% 집단의 경우, 목표 평균점수인 75점을 기준으로 볼 때 그 격차는 더욱 심하였다.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과목 전체의 평균점수는 94.6점이었고, 독일어 I 이 98.9점, 프랑스어 I 이 96.9점, 에스파냐어 I 이 95.1점, 중국어 I 이 99.7점, 일본어 I 이 87.9점, 그리고 러시아어 I 이 96.3점이었다. 이는 제2외국어 영역의 난이도와 변별도가 제 기능을 발휘하기 시작한 2002학년도 이후 상위 50% 집단의 목표 평균점수가 75점을 기준으로 오차 범위 10점 내외에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제2외국어 도입 원년도의 문항 수준이 난이도와 변별도의 측면에서 얼마나 부적절했는가를 여실히 보여준다.

원년도 실패의 교훈은 이듬해부터 바로 보완되어 정상을 회복하였다. 즉 2002학년도 제2외국어 영역에서는 과목 간 난이도 수준이 균형을 이루었을 뿐만 아니라 개별 과목 내의 난이도 및 변별도 수준에서도 거의 정상 궤도에 올라섰다. <표3-7-6>에 나타나듯이, 전체 집단의 경우, 독일어 I 이 21.5점(100점 만점 기준으로는 53.6점), 프랑스어 I 23.8점(59.6점), 에스파냐어 I 23.3점(58.3점), 중국어 I 21.9점(54.8점), 일본어 I 21.8점(54.5점), 러시아어 I 21.6점(54.1점)으로 4개 선택과목의 평균이 거의 같았으며, 프랑스어 I 과 에스파냐어 I 만 약간 높았다. 이처럼 2002학년도의 채점 결과를 보면 원년도의 실패를 극복하고 상당히 이상적인 결과로 보완되었음을 알 수 있다. 상위 50% 집단의 목표 평균점수와 실제 평균점수의 차이를 비교해 보면, 독일어 I 은 목표 평균점수(75점)와의 차이가 0.2점에 불과한 74.8점을 나타내어 이상적인 적중도를 보여준다. 목표 평균점수와의 차이가 가장 큰 교과인 프랑스어 I 은 80.5점으로 그 오차가 5.5점이었다. 이밖에 에스파냐어 I 은 4.5점, 중국어 I 2.0점, 일본어 I 2.1점, 그리고 러시아어 I 이 2.4점으로 나타나 원년도의 편차와 대비해보면 그 결과가

매우 안정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로써 2002학년도 제2외국어 영역 시험은 난이도와 변별력의 타당도 면에서 수험생, 학부모, 그리고 언론 매체로부터도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 낼 수 있었고, 심지어 당해 연도 수능에서 제2외국어 영역은 수능 전체 영역 중에서 가장 성공적으로 출제되었다는 평가까지 받을 수 있었다.

2001학년도에서 2004학년도까지 상위 50% 집단의 목표 평균점수(75점)와 실제 평균점수의 차이가 가장 큰 과목으로는 2001학년도에는 중국어 I 이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99.7점(+24.7점)으로 최대치를 기록하였고, 2002학년도에는 프랑스어 I 이 80.5점(+5.5점), 2003학년도에는 러시아어 I 이 89.5점(+14.5점), 2004학년도에는 일본어 I 과 러시아어 I 이 68.8점(-6.2점)을 기록하였다. 2002학년도만큼의 안정성을 보여주는 것은 아니지만, 제2외국어 영역 시험은 도입 첫 해의 난이도 및 변별도 조절 실패 이후, 지속적으로 나름대로 안정세를 보여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나) 응시자 수의 변동 추이

2001학년도 수능부터 도입되기 시작한 제2외국어/한문 영역 시험의 지난 13년 간 응시자 수의 변동 추이를 보면 다음과 같다. <표3-7-7>에서 보듯이, 도입 첫 해인 2001학년도의 제2외국어 영역 6개 과목의 응시자 수는 262,711명으로 전체 응시자 대비 30.9%를 차지하였다. 이후 응시 인원은 매년 감소 추세를 보여 2013학년도의 응시 인원은 67,782명으로 역대 최소 인원수를 기록하였고 그 비율 또한 10.9%로 가장 낮은 비율을 보였다. 2004학년도, 2009학년도, 2010학년도 3회에 한하여 응시자 비율이 전년도에 비해 소폭 증가하였는데 이는 전체 응시자 수의 증가에 따른 자연적인 현상일 뿐 다른 특별한 요인이 작용하지는 않았다.

〈표 3-7-7〉 2001~2013학년도 제2외국어/한문 영역의 응시현황

학년도	전체 응시자 수 (명)	제2외국어/한문 영역		비고
		응시자 수(명)	비율(%)	
2001	850,305	262,711	30.9	
2002	718,441	199,462	27.8	
2003	655,384	162,439	24.8	
2004	642,583	162,072	25.2	
2005	574,218	123,193	21.5	아랍어 I, 한문 추가
2006	554,345	96,962	17.5	
2007	551,884	90,843	16.5	
2008	550,588	89,197	16.2	
2009	559,475	99,693	17.8	
2010	638,216	120,817	18.9	
2011	668,991	107,377	16.1	
2012	648,946	86,577	13.3	
2013	621,336	67,782	10.9	

제2외국어/한문 영역 응시 인원의 수적인 감소는 수능 전체 응시자 수의 감소와 어느 정도 맞물려 있다. 〈표 3-7-7〉에 나타난 대로, 수능 전체 응시자는 2001학년도의 850,305명에서 2013학년도에는 621,336명으로 지난 13년 사이에 약 30%의 감소율을 보여주고 있다. 2010학년도에서 2013학년도까지 약 3년간은 절대 인원이 소폭 증가하였지만, 의미 있는 증가율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수능 전체 응시자 수의 감소는 우리나라 인구의 자연 증가율의 둔화 내지 학생 인구의 변화와 관련되는 문제이므로 어떤 인위적인 변화를 가할 수 없으며, 시급히 정책적인 대안을 강구해야 할 주요 사안이라고 말하기도 어렵다. 그러나 수능 전체 응시자 중에서 제2외국어/한문 영역 응시자 수의 점유 비율이 현저히 감소하는 현상은 결코 가볍게 간과해버릴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이는 고등학교 교육의 현재 상황을 진단하고 생산적인 미래의 교육 방향을 설정함에 있어서 반드시 점검하고 보완해야 할 중대한 정책 과제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제2외국어/한문 영역은 최초 6개 과목에서 출발

하여 2005학년도에 아랍어 I 과 한문이 추가되었고 2014학년도부터는 기초 베트남어도 추가될 예정이다. 이처럼 증가폭이 커질 잠재적 요인이 충분히 내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2외국어/한문 영역 응시자의 비율이 매년 현저하게 감소하는 주요한 원인은 무엇보다 먼저 고등학교 현장의 교육 상황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교육과정 편성에서 수업시수의 감소, 교과 선택 시스템의 부적절한 운용 등이 그 대표적인 사례이다. 게다가 대학입학 전형 과정에서 전형 자료로서의 중요도가 점차적으로 감소하게 된 것도 그 이유 중의 하나이다. 고교 당국, 수험생이나 학부모들은 또 그들 나름대로 학생의 과도한 학습 부담을 이유로 하여 외국어나 한문 학습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다. 대학은 입학 경쟁률을 제고하기 위한 방편의 하나로 이 과목군의 성적 반영을 배제하려는 경향이 없지 않다. 수능 본래의 목적은 공교육의 활성화와 고교 교육과정 운용의 정상화를 달성하는 데 있으며, 제2외국어/한문 영역의 각 교과는 학생들이 대학에서 학문을 연마하는데 필요한 기초 지식을 습득하는 도구적 성격을 띠고

있는데 교육 외적인 요인으로 이 영역의 비중이 약화된다는 것은 자못 우려할만한 현상이 아닐 수 없다.

제2외국어/한문 영역 응시자의 절대 인원수의 감소, 수능 전체 응시자 대비 점유 비율의 감소와 함께, 2001학년도 이후 이 영역 내에서의 선택과목별 응시자 수의 변화 또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그간 선택과목은 최초 6개 과목에서 8개 과목으로 증가했고, 지난 13년 간 과목별 응시자 수의 변동 추이 또한 나름대로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표 3-7-8>을 통해서 과목별 응시자 수의 변동 추이를 보고자 한다.

<표 3-7-8>을 통해 알 수 있는 선택과목별 응시자 수의 변동 추이에 나타난 특징은 다음과 같이 요약해볼 수 있다.

<표 3-7-8> 2001~2013학년도 제2외국어/한문 영역의 선택과목별 응시자 현황

(단위: 점)

과목 학년도	독일어 I	프랑스어 I	스페인어 I	중국어 I	일본어 I	러시아어 I	아랍어 I	한문	총 인원
2001	81,236 (30.9)	62,649 (23.9)	3,796 (1.4)	23,699 (9.0)	90,275 (34.4)	1,056 (0.4)	-	-	262,711
2002	60,874 (30.5)	46,218 (23.2)	2,425 (1.2)	21,945 (11.0)	67,363 (33.8)	637 (0.3)	-	-	199,462
2003	42,813 (26.4)	34,254 (21.1)	2,054 (1.3)	18,674 (11.5)	64,093 (39.5)	551 (0.3)	-	-	162,439
2004	35,837 (22.1)	28,141 (17.4)	1,916 (1.2)	22,796 (14.1)	72,828 (44.9)	554 (0.3)	-	-	162,072
2005	14,910 (12.1)	11,502 (9.3)	1,598 (1.3)	19,491 (15.8)	52,682 (42.8)	423 (0.3)	531 (0.4)	22,056 (17.9)	123,193
2006	8,706 (9.0)	7,449 (7.7)	1,369 (1.4)	15,362 (15.8)	42,758 (44.1)	566 (0.6)	2,184 (2.3)	18,568 (19.1)	96,962
2007	6,564 (7.2)	5,648 (6.2)	1,548 (1.7)	15,940 (17.6)	38,009 (41.8)	826 (0.9)	5,072 (5.6)	17,236 (19.0)	90,843
2008	4,559 (5.1)	4,849 (5.4)	1,920 (2.2)	14,024 (15.7)	31,349 (35.2)	1,283 (1.4)	13,588 (15.2)	17,625 (19.8)	89,197
2009	3,853 (3.9)	4,296 (4.3)	2,530 (2.5)	13,445 (13.5)	27,465 (27.5)	1,918 (1.9)	29,278 (29.4)	16,908 (17.0)	99,693
2010	3,503 (2.9)	4,172 (3.5)	3,685 (3.1)	12,666 (10.5)	25,630 (21.2)	3,275 (2.7)	51,141 (42.3)	16,745 (13.9)	120,817
2011	2,889 (2.7)	3,433 (3.2)	3,334 (3.1)	9,962 (9.3)	19,931 (18.6)	3,270 (3.1)	49,116 (45.7)	15,442 (14.4)	107,377
2012	2,476 (2.9)	3,121 (3.6)	3,231 (3.7)	7,873 (9.1)	14,720 (17.0)	3,612 (4.2)	39,678 (45.8)	11,866 (13.7)	86,577
2013	2,310 (3.4)	2,701 (4.0%)	2,839 (4.2)	7,169 (10.6)	11,661 (17.2)	3,875 (5.7)	27,844 (41.1)	9,383 (13.8)	67,782

도입 첫해인 2001학년도 제2외국어 전체 응시자 262,711명 중에서 34.4%인 90,275명이 일본어를 선택하여 최대 점유 비율을 보였고, 이후 8년 동안 일본어의 점유 비율은 변동 없이 유지되었다. 아랍어는 2005학년도에 처음 도입되었는데 시행 5년차인 2009학년도에 처음으로 영역 내에서 29.4%로 최대 점유 비율을 기록하였다. 아랍어는 도입 원년도에 0.4%, 그 후 각각 2.3%, 5.6%, 15.2% 등 비교적 완만한 증가폭을 보이다가 2010학년도에 이르러 40%대를 초과하는 현상을 보였다. 2013학년도까지 영역 내 8개 과목의 응시 비율의 변동 추세를 보면, 최초 시행 이후 감소폭이 상대적으로 큰 과목은 독일어 I, 프랑스어 I, 일본어 I의 순이며, 중국어 I 과 한문은 감소폭의 변화가 크지 않은 편이다.

중국어 I 은 고교에서 선택과목으로 채택하는 숫자가 증가하면서 학습 인원이 증대된 데 따른 결과로 보이며, 한문 역시 기 채택한 고교에서 변동 없이 지속적으로 선택과목으로 유지해온 때문으로 보인다. 스페인어 I 과 러시아어 I 의 경우, 최초 시행 이후 다소 감소하다가 다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다) 시험 결과의 변동 추이

지난 13년 동안 제2외국어/한문 영역 시험은 수능의 전반적인 변화 추이와 그 궤를 같이 해오고 있다. 2001학년도 도입 원년도의 시험 결과에 나타난 난이도 수준이나 변별력 조정 실패 등은 이듬해 바로 수정 보완되어 정상 궤도에 오를 만큼 시험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유지하는 데 성공하였다. 그동안 제2외국어/한문 영역의 과목별 등급 구분 표준점수, 인원 및 비율 등을 보면 특정 시기를 제외하면 그 변동폭이 크게 중요됨이 없이 일정한 방향성을 유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우선 2002학년도 제2외국어 영역(인문계열)의 과목별 등급 구분 표준점수 및 비율을 보면 <표 3-7-9>와 같다.

1등급과 2등급을 구분하는 등급 구분 표준점수는 독일어 I 67.65점, 에스파냐어 I 66.84점, 스페인어 I 66.88점, 중국어 I 66.69점, 일본어 I 67.30점, 러시아어 I 66.30점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결과는 이듬해에도 큰 변화는 없다. 이는 <표 3-7-10>에

<표 3-7-9> 2002학년도 제2외국어 영역(인문계열)의 과목별 등급 구분 표준점수 및 비율

등급	독일어 I		프랑스어 I		에스파냐어 I	
	등급 구분 점수	비율(%)	등급 구분 점수	비율(%)	등급 구분 점수	비율(%)
1	67.65	5.49	66.84	4.77	66.88	7.36
2	64.59	6.32	63.69	7.33	64.85	4.68
3	58.99	11.35	59.50	11.05	59.78	11.12
등급	중국어 I		일본어 I		러시아어 I	
	등급 구분 점수	비율(%)	등급 구분 점수	비율(%)	등급 구분 점수	비율(%)
1	66.69	5.86	67.30	5.60	66.30	4.13
2	64.22	6.17	64.89	6.67	63.94	7.44
3	59.76	10.97	59.60	11.03	59.68	11.74

* 2001학년도의 경우, 과목별 등급 구분 표준점수 및 비율에 대한 통계 대신 제2외국어 영역의 계열별, 성적급간별 도수 분포(원점수 및 표준점수) 자료만 구비되어 있어서 본문에서는 제시하지 않음. 2002학년도와 2003학년도의 경우, 응시자 수가 상대적으로 많은 인문계 통계 자료만을 참고로 제시하며, 2013학년도의 경우는 계열 구분 없이 과목별 전체 통계 자료를 제시함.

나타난 2003학년도와 비교해보면 알 수 있는데, 1등급과 2등급을 구분하는 등급 구분 표준점수의 편차는 러시아어 I이 4.06점으로 비교적 큰 반면 여타 과목에서는 변동폭이 그리 크지 않다. 다만 에스파냐어 I과 러시아어 I의 경우 1등급 비율이 각각 13.29%, 12.94%를 차지함으로써 2등급의 공백이 발생하였음을 알 수 있다.

참고로 제시하는 <표 3-7-11>은 가장 최근인 2013학년도 제2외국어/한문 영역의 과목별 등급 구분 표준점수 및 비율을 보여준다. 1등급과 2등급을 구분하는 등급 구분 표준점수를 보면, 독일어 I 64점, 프랑스어 I 64점, 스페인어 I 68점, 중국어 I 65점, 일본어 I 66점, 그리고 한문이 70점인 데 비해 러시아어 I과 아랍어 I은 각각 80점과 79점으로 영역 내

<표 3-7-10> 2003학년도 제2외국어 영역(인문계열)의 과목별 등급 구분 표준점수 및 비율

등급	독일어 I		프랑스어 I		스페인어 I	
	등급 구분 점수	비율(%)	등급 구분 점수	비율(%)	등급 구분 점수	비율(%)
1	66.74	4.42	69.54	4.01	63.01	13.29
2	64.02	7.23	64.13	7.81	-	0.00
3	59.12	11.60	57.52	12.33	60.15	11.28
등급	중국어 I		일본어 I		러시아어 I	
	등급 구분 점수	비율(%)	등급 구분 점수	비율(%)	등급 구분 점수	비율(%)
1	67.42	4.84	69.20	4.64	62.24	12.94
2	64.18	7.27	65.52	6.78	-	0.00
3	58.78	11.60	58.16	12.12	60.15	11.48

<표 3-7-11> 2013학년도 제2외국어/한문 영역의 과목별 등급 구분 표준점수 및 비율

등급	독일어 I		프랑스어 I		스페인어 I		중국어 I	
	등급 구분 점수	비율(%)						
1	64	8.92	64	7.33	68	5.78	65	7.32
2	63	3.77	63	7.26	66	5.53	64	4.98
3	61	11.47	60	14.66	61	12.86	59	14.14
등급	일본어 I		러시아어 I		아랍어 I		한문	
	등급 구분 점수	비율(%)						
1	66	6.51	80	4.90	79	5.76	70	6.20
2	64	5.74	58	6.12	59	5.30	66	5.37
3	60	11.73	51	17.06	51	13.06	57	12.22

여타 과목에 비해 비교적 높은 편이다.

위의 몇몇 사례를 제외하고는 별도로 통계표를 제시하지는 않았는데 그 이유는 2004학년도 이후 제2외국어/한문 영역의 과목별 추세는 특징적인 큰 변화가 없었기 때문이다. 각 과목별 난이도와 변별도에서도 기본적으로 안정성을 유지해오고 있다. 물론 시행 첫 해인 2001학년도를 예외로 친다고 하더라도 2002학년도 이후 지금까지 제2외국어 과목의 난이도와 변별도 수준이 매년 성공적인 결과를 가져왔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때로는 학생, 학부모, 언론 등으로부터 비판을 받을 만큼 몇 차례의 굴곡을 경험하기도 하였는데, 2005학년도 이후 시행된 아랍어 I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 사례이다.

사실 아랍어 I은 수능에 도입될 당시 고등학교에서 제2외국어 선택과목으로 채택하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학교 현장의 교육 실상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었다. 게다가 수험생의 학업 능력과 성취도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정보 역시 전무한 상태였다. 따라서 목표 정답률 예측이나 난이도 추정은 전적으로 출제위원들의 주관적 판단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었다. 특수 외국어를 도입하는 초기 단계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불가피한 현상으로 이해된다. 결국 이런 문제는 고교 현장에서의 공교육이 확대되고 정상적으로 학습한 응시 인원이 증가하면 자연스럽게 해소될 수 있을 것이다. 또 대학에서도 '특수한 상황에서 산출된 표준점수'에 대해서는 특별 관리를 통해 별도의 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 실제 아랍어가 도입된 이후 일부 대학에서는 이런 현실을 감안하여 아랍어에 대한 점수 변환 작업을 시행하여 아랍어 선택자가 반드시 유리한 혜택을 누리지 못하도록 자체적으로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기도 하였다.

다. 제2외국어/한문 영역의 성과와 발전 방향

제2외국어/한문 영역이 수능에 도입된 지 13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다. 그동안 교육과정의 개정, 평가의 틀이나 내용, 문항 유형의 변화, 영역 내 과목 수의 증가 등의 변화 과정을 거치면서 수정·보완이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시험의 기본 골격은 대체적으로 잘 유지되어 오고 있다. 이는 지난 20년 간 수능 체제가 수험생, 학부모, 교육계나 사회 구성원들로부터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아왔음을 보여주는 증거이기도 하다. 사실 제2외국어/한문 영역은 2001학년도의 첫 시행착오를 경험한 이후, 바로 이듬해부터 신뢰도와 타당도를 회복하기 위해 다각도로 보완과 변화를 모색하였다. 특히 2005학년도를 기점으로 이 영역에서는 비교적 많은 변화와 개혁이 이루어졌고, 그 이후의 과정은 대체적으로 정착과 안정을 구축한 단계라고 말할 수 있다.

시행 13년 동안 제2외국어/한문 영역이 이룬 성과를 요약하면, 무엇보다 먼저 실생활에서의 의사소통 능력을 중시하는 평가 방식을 채택해온 점이다. 과거 학력고사의 출제 경향과 달리 수능에서는 문법, 어휘, 독해 등 암기 지식의 평가를 최대한 지양하면서 일상생활을 소재로 한 실용문, 실제 언어생활에 적용되는 언어 사용 능력을 측정하는 데 주력하였다. 이는 문항의 내용이 단순 지식의 평가에서 사고력, 종합적 판단력을 측정하는 방향으로 발전했음을 의미한다. 물론 제2외국어의 과목 특성상 발음, 철자, 어휘 등 단순 암기 지식에 대한 이해도 필요하긴 하지만 이를 단순 평가하기보다는 보다 통합적인 지식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려는 노력을 경주해온 것이다. 한문 역시 문언적 지식보다는 언어 생활에서의 한자어 활용도 및 실용적 언어 표현력을 강조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다음에서는 제2외국어/한문 영역의 시행 과정에서

지금까지 제기된 주요 문제점들과, 그것을 효율적으로 극복하기 위한 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해 서술하고자 한다.

첫째, 제2외국어/한문 영역의 가치 및 중요성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외국어 학습의 다변화를 위해 제2외국어 교육이 강화되어야 함은 시대적 요청이다. 우리 사회 미래의 주역들이 현실적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미래지향적 국가과제를 수행하기 위한 제도적, 도구적 방편으로서 제2외국어 교육은 공교육의 현장에서 충분히 중시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현행 수능 제도에서 제2외국어 교과가 차지하는 비중이 지극히 미미한 현실은 개선되어야 한다. 정부는 국제화 시대에 부응하는 글로벌 리더 양성을 목표로 하는 교육정책을 강조하면서도 정작 다양한 외국어의 학습 환경을 조성하는 데는 무관심하다. 한문 교과 또한 사회적 필요성은 광범위하게 제기되고 있다. 한국어 어휘의 70% 이상이 한자어에서 비롯된 것임을 고려한다면 학습자의 독해력, 이해력, 사고력, 응용력, 표현력을 함양하는 데 있어서 한문 실력은 필수불가결함을 인식해야 한다. 이처럼 우리의 언어생활에서의 한자어 비중이 지대함에도 불구하고 고등학교 교육 현장에서의 한문 교육은 충실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현재와 같이 고등학교 교육 현장에서의 제2외국어/한문 교과의 학습이 소외된 배경에는 수능에서 이 영역 교과들의 위상이 크게 위축되어 있는 실정과 맞물려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급한 방안으로는 대학 입시 전형과정에서의 변화와 개선이다. 각 대학에서 우선 제2외국어/한문 교과를 탐구 영역의 대체 과목으로 지정함으로써 이 분야에서 상대적으로 능력이 뛰어난 학생에게 자기 선택권을 부여하는 방안이 있다. 또 제2외국어/한문 취득 점수를 직접적으로 입시 전형 총점에 반영하거나 일정 비율로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식도 고려해볼 수 있다. 어쨌든 현재의 반영 비중을 보다 더 강화하는 적극적인 방안이 요구된다.

둘째, 제2외국어/한문 영역 내 각 교과별 난이도와 변별도의 균형성이 회복되어야 한다. 제2외국어/한문 영역에서는 기본적으로 과목 간 난이도를 동일한 수준으로 맞추어 출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 이유는 다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 하나는 특정 과목이 다른 과목에 비해 지나치게 어렵거나 쉽게 출제되면 영역 내의 각 과목을 대상으로 한 수험생들의 선택의 불균형이 초래되고 궁극적으로는 고등학교 교육 현장에까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다른 하나는 대학별 전형과정에서 과목별 표준점수의 차이에 따라 유·불리한 사례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렇게 되면 시험 자체의 공정성과 신뢰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난이도 수준 및 변별도 조정은 철저한 검토와 보완이 필요한 과제이다. 사실 난이도 수준과 상관없이 수험생이 자기 개인의 학습 능력을 고려하여 과목을 선택한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러나 만약 영역 내에서의 유리한 표준점수 산정 방식을 염두에 둔 요행심이 작용하였다면 이는 교육적으로 결코 바람직한 현상이 아니다. 이러한 현상은 아랍어와 같이 고등학교에 교과목 개설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과목에 응시자가 집중됨으로써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역별 또는 교육청별로 소외되는 과목이 없도록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학생들의 균형 있는 학습 권리와 공교육의 정상화를 위해서 이런 측면은 시급히 개선되어야 한다.

셋째, 교육과정이 개선되고 그 운용상의 문제점이 해결되어야 한다. 외국어 학습의 기본적인 교육 목표는 국제화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글로벌 인재 육성에 있다. 따라서 고등학교에서 이 목표를 실현하는 기능과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는 데 있어서 제2외국어 교육을 강화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이치이다. 문제는 교육과정의 편성과 운용에 있어서 이 방안이 제대로 실현되기 어렵다는 데 있다. 제6차 교육과정까지만 하더라도 제2외국어

교과는 고등학교에서 제2외국어 I 이 6단위, 제2외국어 II가 6단위로 배정되어 있었으며 일반계 고등학교는 대부분 10-12단위로 운영했다. 그러나 제7차 교육과정 이후부터 제2외국어 I 은 일반 선택과목으로 분류되어 7개 과목에서 1개 과목을 선택하지만, 제2외국어 II는 대부분의 학교에서 기피된다. 그 이유는 제2외국어 II에도 6단위가 배정되어 있기는 하지만, 문제는 이것이 53개 심화 선택과목의 하나로 분류되어 있어서 학생들이 거의 선택하지 않기 때문이다. 게다가 고등학교에서 제2외국어 교육을 시작하는 시기가 2학년부부터이니 제2외국어 II를 배우기 위해서는 2, 3학년 기간을 할애해야 하는데 실제 학습 단계를 감안하면 현실적으로 무리가 따른다. 특히 제2외국어 II는 수능의 출제 범위에서도 제외되어 있으니 이런 과목을 교육과정에 배정하기를 기대하기란 거의 불가능하다. 고등학교에 임의적인 선택권을 부여한 상황에서 만약 수능에서조차 경시되거나 제외된다면 학교 현장에서의 제2외국어/한문 교과외의 붕괴는 너무나 자명하다. 요컨대, 제2외국어/한문 교육과 관련된 현행 교육과정의 문제점은 시정되어야 하고, 특히 실제 운용과정에서의 편법을 배제하고 공교육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넷째, EBS 수능 교재 연계 방식의 개선이 필요하다. 주지하다시피 EBS 교재를 연계하게 된 배경은 과도한 사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입시에 대한 수험생의 심리적 부담을 덜어주는 데 있다. 이 연계 시스템은 수능에 도입된 이후 수험생이나 고교 교사로부터 대체적으로 호응도가 높은 편이다. 그러나 긍정적인 측면 못지않게 일정 부분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는 것도 부인할 수 없다. 먼저, EBS 교재 내용의 수준과 정확도의 문제이다. 이 교재의 편찬 목적은 전적으로 수능이라는 수험 대비용이기 때문에 내용의 다양성이나 깊이, 교육적인 지향점 등에서 충분한 배려가 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출제자의 입장에서

볼 때, 만약 교재의 내용 수준이 교과서의 그것에 상응하거나 능가하지 않는다면 그 교재를 출제 자료로 사용하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EBS 교재 집필진의 제작 의도나 태도, 편찬 방식이 교과서 제작 과정만큼 충실한가에 대한 검증이 선행되어야 한다. 아니라면 수능 출제에서 70%라는 높은 반영 비율을 모든 교과에 일괄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재고의 여지가 있다. 실제 EBS 교재의 검토 및 감수 과정에서 집필진과 검토·감수위원 사이의 의견 교환이 충분하게 이루어지지 못하는 현실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또 교재 집필진의 구성에서도 보완이 필요하다. 교과서는 대개 교수와 교사의 공동 집필이거나 교사의 공동 집필인 경우가 많은 데 비해, EBS 교재의 경우 주로 교사 공동 집필인 경우가 많고, 검토와 감수 과정도 교과서의 검인정 과정에 비하면 소략한 편이다. 이는 교수와 교사의 자질 문제가 아니라, 교재 제작과 검증 시스템 과정에서의 격차가 우려스러운 만큼 크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또 제2외국어/한문 영역은 과목 특성상 사교육비의 점유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다. 즉 이 영역에서는 EBS 교재 반영 비율과 사교육비 증가율이 반드시 정비례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EBS 교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게 된 배경이 ‘쉬운 수능’ 정책의 산물이라고는 하지만, 사실 교육기관이 EBS 교재만을 집중적으로 다루기 때문에 오히려 정상적인 학교 교육이 방해받는 사례도 있을 수 있다. EBS 교재 반영을 지나치게 강화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교과서를 중시하는 학교 교육에 대한 도전이 될 수 있음을 고려한다면, 현행 70% 반영 비율은 적정 수준으로 축소 조정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전반적으로 문항의 질 향상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수능 본연의 성격에 맞게 외국어 평가는 외국어 사용의 유창성을 평가하기 위한 언어능력을 측정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언어 지식을 기반으로 한 어휘력, 문법성 판단력, 사실적 이해력, 추론적 이해력, 종합적 이해

및 적용 능력까지를 모두 측정하는 평가 방식이 가장 이상적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어휘 수의 제한, 실제 수업시수, 학습 환경 등 다양한 요인으로 제한적인 평가를 실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러한 현실적 제약에도 불구하고 지난 13년간 이 영역에서는 문항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왔다.

향후에는 보다 더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시각에서 출제 방향과 내용에 대해 면밀하게 검증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를테면, 암기력에 의존하는 단순 지식형 문항으로부터 얼마만큼 자유로운가, 문항 가운데 사실적 이해력 외에 추론적 이해력, 응용력, 종합적

사고력 등을 요구하는 수준의 문항은 어느 정도인가, 문항의 난이도 수준을 조절하기 위해 지나치게 문법 판단력에 의존하는 경향은 없는가, 의사소통의 기능 및 문화 관련 문항의 유형을 다양화하기 위해 충분히 노력하는가, 각 언어별 고유의 특성을 제대로 살리기 위한 문항 개발에 주력하거나, 반대로 문항의 정형화를 지나치게 추구한 나머지 획일적인 유형을 강요한 사례는 없는가, 학습자의 흥미를 제고하고 국제화라는 시대 조류에 부합하는 문항 개발을 위한 소재 발굴에 노력하는가 등 다각적인 각도에서 검증 작업을 신중하게 진행해야 한다.

참고문헌

- 국립교육평가원(1992), 대학수학능력시험 실험평가 문제집, 국립교육평가원.
- 국립교육평가원(1993~1997a), 1994~199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계획, 국립교육평가원.
- 국립교육평가원(1993~1997b), 1994~199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채점결과 보도 자료.
- 교육개혁심의회(1986a), 교육개혁의 기본방향, 정책연구IV-1. 교육개혁심의회.
- 교육개혁심의회(1986b), 大學入試制度의 改善, 교육개혁심의회.
- 교육개혁위원회(1996), 新교육체제 수립을 위한 교육개혁 방안.
- 교육과학기술부(2011. 1.),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개편 방안.
- 교육부(1995), 제6차 고등학교 과학과 교육과정 해설, 대한교과서.
- 교육부(1997a), 고등학교 교육과정(Ⅱ), 교육부 고시 제 1997-15호[별책 4].
- 교육부(1997b), 외국어과 교육과정(Ⅰ), 교육부 고시 제1997-15호 [별책 14].
- 교육부(1997c), 제7차 과학과 교육과정, 대한교과서.
- 교육부(1999), 창조적 지식기반 건설을 위한 교육발전 5개년 계획 시안.
- 교육부(2000. 1.), 실업계 고등학교 육성 대책.
- 교육인적자원부(2001.11.), 실업교육 육성 방안.
- 교육인적자원부(2001.12.), 200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체제 개편안.
- 교육통계연구센터(1990~2013), 교육통계서비스 - 교육통계연보, <http://stdkedire.kr/index.jsp>.
- 권 균, 김영길, 김운오(1989), 대학교육적성시험 문항개발 연구(과학 영역), 중앙교육평가원.
- 김진구(2009), 대학수학능력시험 「농업 이해」 과목의 문항 난이도 영향 요인 및 주요 특성 분석, 농업교육과 인적자원개발, 40(3), 1-32.
- 김진구, 박영수, 김경훈, 박덕수(2012), 문제해결능력을 반영한 직업탐구 영역의 시험의 성격, 평가목표 행동영역 개선 연구, 직업교육연구, 31(3), 43-65.
- 김진구, 이수정, 김보섭, 이광호, 인재만(2004), 수능 직업탐구 영역의 평가 틀 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농업교육학회지, 36(1), 69-87.
- 김진구, 이종범(2005), 수능 직업탐구 영역 신설 이후 농업계 고등학교 운영 실태 분석, 농업교육과 인적자원개발, 37(4), 135-162.
- 김진구, 이종범(2010), 대학수학능력시험 「농업 이해」 과목의 평가목표 이원분류에 의한 문항 유형 분석, 농업교육과 인적자원개발, 42(3), 45-79.
- 김철언, 선행기, 구창현(1990), 대학교육적성시험 실험평가 연구, 중앙교육평가원.
- 김형립, 조태근, 박승재, 정세구(1990), 대학교육적성시험 실험평가 연구. - 수리·탐구 영역-, 중앙교육평가원.

- 나현진, 김종혜, 이원규(2009), 직업탐구 영역 정보·컴퓨터 관련 교과들의 '탐구' 영역에 대한 평가준거 개발, 컴퓨터교육학회 논문지, 12(3), 1-10.
- 남명호(2002), 200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평가 및 시행방안, 2005학년도 대학수학능력 시험 세부 시행 방안 세미나,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남명호, 김영준, 김진구, 문영진, 박선화, 송현정, 신일용, 이수정, 이양락, 이의갑, 전효선, 조지민, 진경애, 진재관(2002), 200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세부 시행 방안 연구,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남명호, 김진구, 이수정, 김보섭, 이광호, 안재만(2003), 200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직업탐구 영역 문항 개발 연구,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남보우(2010), 수능 선택과목의 표준점수 심층분석 및 대입전형 활용방안,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와 대학수학능력시험 자료 분석 심포지엄 발표자료, 341-417.
- 박도순(1989), 대학입학시험 제도개선 방안 연구, 한국대학교육협의회.
- 박동열(2009), 고교단계 직업교육 선진화 방안(案), 고교단계 직업교육 선진화 방안 공청회 발표자료, 한국직업능력개발원, 1-44.
- 박동열, 백성준, 김상진, 최동선, 김진모, 이종범, 이병욱, 임창주, 이창우, 송달용(2009), 전문계고 선진화 방안,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박동열, 정철영, 김진구, 허영준, 김강호(2010), 전문계 및 일반계 고교생의 기초학습능력 수준과 영향변인, 농업교육과 인적자원개발, 42(3), 1-23.
- 선문수(2007), 수능 중 직업탐구영역이 대학진학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계명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양길석(2001), 실업계 수능(영역) 신설 방안, 대학수학능력시험 2005학년도 개편시안 공청회 자료집, 대학수학능력시험 2005학년도 개편 연구위원회, 67-74.
- 이근남, 남명호, 홍후조(1998),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장기 발전 방안 연구,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이양락, 조지민, 신일용, 조윤동, 이명애, 신태수, 박기범, 이광상, 김용명, 강대현, 김동영, 김현경, 김진구, 김영춘(2010),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체제 개발을 위한 기초 연구,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이용환(2000), 실업교육의 본질과 위기, 2000년도 실업교육관련학회 및 교장회 공동 학술대회 자료집, 1-28.
- 정철영(2011), 농업계 고등학교의 발전 방향 모색, 한국농업교육학회·한국농업교육협회 2001년 공동학술발표회 자료집, 1-51.
- 조 우, 신황호, 이영호, 박영숙, 강경중(2001), 실업교육 발전을 위한 실천적 방안연구, 대통령교육문화 수석위촉 실업교육발전위원회.
- 중앙교육평가원(1990), 大學修學能力試驗과 高等學校教育의 再照明.

- 최동선(2009), 전문계 고교생의 대학진학 계획: 1차년도와 4차년도의 비교, THE HRD REVIEW, 12(1), 79-103.
- 황정규 외(1988), 대학교육적성시험 개발을 위한 기초 연구, 연구보고 88-8, 중앙교육평가원.
- 한국교육과정평가원(1998~2012a), 1999~201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계획 보도자료.
- 한국교육과정평가원(1998~2012b), 1999~201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출제경향 보도자료.
- 한국교육과정평가원(1998~2013), 1999~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채점결과 보도자료.
- 한국교육과정평가원(2004a), 대학수학능력시험 출제 매뉴얼,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한국교육과정평가원(2004b), 200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분석연구 자료집 - 제2외국어 영역,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한국교육과정평가원(2004c), 200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어떻게 준비할까요?.
- 한국교육과정평가원(2005a), 대학수학능력시험 10년사.
- 한국교육과정평가원(2005b), 대학수학능력시험 출제 매뉴얼.
- 한국교육과정평가원(2007), 200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행동 영역별 예시 문항.
- 한국교육과정평가원(2012a), 2005-2013학년도 수능 보도자료.
- 한국교육과정평가원(2012b), 201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대비 학습 방법 안내.
- 한국교육과정평가원(2012c), 201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이렇게 준비하세요.
- 한국교육과정평가원(2013),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Q&A 자료집.
- Bachman, L. F.(1900). *Fundamental considerations in language testing*.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Brumfit, C.(1988). *Communicative approach to language leaching*. Oxford: Pergamon.
- Canale, M.(1983). Considerations in the testing of reading and listening proficiency. *Foreign Language Annals*, 17, 349-357.
- Krashen, S. (1985). *The input hypothesis: Issues and implications*. London: Longman.
- Savignon, S.(1983). *Communicative competence: Theory and classroom practice*. Reading, MA: Addison-Wesley.
- Terrel T, & Krashen, S.(1983). *Natural approach*. Oxford: Permonon Press.
- Widdowson, H.(1978). *Teaching language as communication*.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KICE

Korea Institute for Curriculum and Evaluation

A 20-Year History of College Scholastic Ability Test

제4장 시험 관리 체제의 변화

제1절 출제 과정

제2절 인쇄 및 시험 시행 과정

제3절 채점 및 결과 보고 과정

제1절

출제 과정

박기범(전주대학교)

가. 시행 기본계획 수립과 연도별 현황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 시행 기본계획(이하 시행 계획)은 수능 출제 및 관리 책임을 맡은 기관에서 수립하여 신문과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한다. 역대 수능 시행계획 발표일과 시행 세부 계획 공고(이하 시행 공고)일 및 매체는 <표 4-1-1>과 같다.

수능 시행 기본계획은 주로 3월 말에 발표하는데 1997학년도와 1998학년도 수능만 2월 말에 발표하였다. 그리고 시행 공고는 2000학년도 수능까지는 8월 초에 했으나 2002학년도 수능부터는 7월 10일에 했으며 해마다 조금씩 앞당겨져 최근에는 7월 초에 하고 있다. 공고 매체는 정부출자 기관인 '서울신문'이다.

1994학년도부터 2013학년도까지의 수능 시행 계획은 크게 '시험 개요', '출제 관리', '시험 관리', '채점 및 성적 통지', '부정행위 방지대책', '기타'로 구성되어 있다. '시험 개요'에는 주로 시험의 성격 및 목적, 시험 일시 및 장소, 시험관리 기관 등의 내용이 담겨져 있다. '출제 관리'에는 출제 기본 방향, 출제 범위, 듣기 평가 등의 내용이, '시험관리'에는 시행 공고,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응시원서 처리, 문제지와 답안지 인쇄 및 배부, 인수, 운송 보관, 시험지구 결정, 시험 시행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채점 및 성적 통지'에는 채점 방법, 성적 표시 및 통지, 성적 자료 배부에 대한 내용이 있으며, '부정행위 방지대책'에는 부정행위 방지대책과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가 있다. '기타'에는 세부 지침에 대한 안내 및 홍보가 담겨 있다.

역대 시행 계획은 큰 틀에서는 대동소이하다. 다만 수능 시행의 변화 사항에 따라 학년도별로 세부 내용의 변화가 있어 왔다. 시행 계획에서 각 학년도별로 특이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수능이 처음 시행되고 두 차례 실시되었던 1994학년도 수능의 시행 계획에는 실험평가 연구에 대한 내용이 담겨져 있으며, 여기에는 실험평가의 목적과 횟수, 대상과 인원 등이 제시되어 있다. '출제 관리'에는 각 영역별 평가 목표와 1,2차 시험의 범위와 출제본부 운용 기관, 인원, 출제 장소에 대한 내용이 있다.
- 1995학년도의 시행 계획은 1994학년도 시행 계획과 유사하지만, '출제 관리'에서 각 영역별 평가 목표와 내용을 삭제하였고, 듣기 평가 항목에서 청각 장애자와 고난청자에 대한 대책을 추가하였다. 이 대책은, 청각 장애자의 경우 듣기 평가 문항을 지필 검사로 대체하고, 고난청자에게는 보청기 사용을 허가하는 내용

〈표 4-1-1〉 학년도별 수능 시행 계획 발표일과 시행 공고일 및 매체

학년도	시행 계획 발표일	시행 공고	
		공고일	매체
1994 1차	1993. 3. 29(월)	1993. 6. 1(화)	서울신문
1994 2차	1993. 3. 29(월)	1993. 8. 16(월)	서울신문
1995	1994. 3. 30(수)	1994. 8. 12(금)	서울신문
1996	1995. 3. 28(화)	1995. 8. 11(금)	서울신문
1997	1996. 2. 27(화)	1996. 8. 1(목)	서울신문
1998	1997. 2. 26(수)	1997. 8. 1(금)	서울신문
1999	1998. 3. 16(월)	1998. 8. 1(토)	서울신문
2000	1999. 3. 30(화)	1999. 8. 2(월)	대한매일신문 ¹⁾
2001	2000. 3. 29(수)	2000. 8. 1(화)	대한매일신문
2002	2001. 3. 22(목)	2001. 7. 10(화)	대한매일신문
2003	2002. 3. 28(목)	2002. 7. 10(수)	대한매일신문
2004	2003. 3. 31(월)	2003. 7. 9(수)	대한매일신문
2005	2004. 3. 30(화)	2004. 7. 9(금)	서울신문
2006	2005. 3. 30(수)	2005. 7. 8(금)	서울신문
2007	2006. 3. 30(목)	2006. 7. 7(금)	서울신문
2008	2007. 3. 26(월)	2007. 7. 6(금)	서울신문
2009	2008. 3. 27(목)	2008. 7. 7(월)	서울신문
2010	2009. 3. 30(월)	2009. 7. 6(월)	서울신문
2011	2010. 3. 29(월)	2010. 7. 5(월)	서울신문
2012	2011. 3. 30(수)	2011. 7. 4(월)	서울신문
2013	2012. 3. 28(수)	2012. 7. 2(월)	서울신문

으로 이루어져 있다.

- 1996학년도의 시행 계획에서는 1995학년도부터 국립평가원이 OMR 판독기를 구비함에 따라 OMR 응시원서를 통한 지원자 명부 작성과 OMR 답안지를 OMR 판독기로 판독하여 채점하는 방법 등에 대한 내용을 추가하였다.
- 1997학년도 시행 계획에서는 이전까지 제시되었던 시험장당 시험실 설치와 시험실 수험생

배치, 시험상황실 설치와 운영에 대한 내용을 삭제하였다. 또한 특수 교육대상자에 대하여 시험 시간을 별도 운영하고 응시원서 접수 시 소정의 증빙서류를 첨부하는 내용을 첨가하였다.

- 1998학년도 시행 계획에서는 1997학년도 시행 계획에서 삭제되었던 시험장당 시험실 설치와 시험실 수험생 배치, 시험 상황실 설치와 운영에

1) 2000~2004학년도 수능의 경우에는 〈서울신문〉이 제호를 〈대한매일신문〉으로 잠시 바꾼 기간에 해당된다.

- 대한 내용이 다시 첨가되었다. 그리고 특수 교육대상자에 관한 내용에서는 맹인수험생, 뇌성마비 및 약시수험생을 구분하여 시험 시간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맹인수험생에게 점자문제지와 함께 음성 평가 도구(녹음 테이프)를 제공하는 내용을 추가하였다.
- 1999학년도 시행 계획에서는, 한국교육과정 평가원(이하 평가원)이 1998년에 설립되어 수능 업무를 담당하게 됨에 따라 시행 계획서 상에 출제, 문제지의 인쇄, 배부, 채점 및 성적 통지를 담당하는 시험관리 기관이 평가원임을 명시하였다. 또한 부정행위 방지대책에서 매 시험 시간마다 응시자의 사진 대조 확인 등의 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을 추가하였다.
 - 2000학년도 시행 계획에서는 이전 시행 계획과 달리 언어 영역, 수리·탐구 영역(I), 수리·탐구 영역(II)-사회/과학탐구, 외국어(영어) 영역별로 구체적인 출제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 2001학년도 시행 계획에서는 2001학년도 수능부터 제2외국어 영역이 추가됨에 따라 제2외국어 영역 선택 및 시험 시간, 출제 원칙과 범위, 제2외국어 영역 미응시자에 대한 시험실 배치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였다. 그리고 성적통지표 양식을 제시하였다.
 - 2002학년도 시행 계획은 2001학년도 시행 계획과 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다.
 - 2003학년도 시행 계획에서는 이전에 OMR 응시원서에 의거하여 지원자 명부를 작성 하던 것을 평가원이 제공한 원서 접수 전산 프로그램에 의거하여 작성하는 것으로 변경하였으며, 시험 결과에 대한 수험생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시험 이후 신속히 예상 점수를 발표함을 명시하였다.
 - 2004학년도 시행 계획은 2003학년도 시행 계획과 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다.
 - 2005학년도 시행 계획에서는 제7차 교육과정이 적용되어 수능의 시험영역이 대폭 변화됨에 따라 시험의 성격 및 목적, 영역별 출제 방향, 성적 통지 등을 수정하였다. 그리고 부정행위의 기준, 부정행위자 처리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으며, 예상 점수 발표에 관한 항목을 삭제하였다.
 - 2006학년도 시행 계획에서는 대리응시원서 제출 시 필요한 증빙서류 종류, 응시원서의 사진 규격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휴대용 금속 탐지기의 활용, 시험실 반입 및 휴대 금지물품의 종류 및 관리절차에 관한 관리 지침 대리시험 방지 대책, 부정행위자에 대한 경찰 수사 의뢰, 대리응시 의혹이 있는 응시자 발견 시 조치 절차 등을 제시하며 부정행위 방지대책을 강화하였다.
 - 2007~2008학년도 시행 계획은 2006학년도 시행 계획과 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다.
 - 2009학년도 시행 계획에서는 출제 기본 방향에서 한국교육방송공사(이하 EBS) 수능 교재에 수록되어 있는 문항 중에서 교육과정의 중요한 학습 내용을 변형하여 출제 가능성을 밝히고 있으며,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의 공정성 제고를 위한 보완책을 제시하였다. 제시된 보완책은 이의신청 접수 단계에서부터 중대 사안에 대해서는 관련 학회에 유권 해석을 요청하고, 이의심사실무위원회에 출제위원이 아닌 외부 전문가를 영역별 3인 이상 참여시키며, 이의심사실무위원회에서도 필요한 경우 관련학회(또는 외부 전문가)에 유권 해석을 요청하는 것이다.
 - 2010학년도 시행 계획에서는 탐구 영역과 제2외국어/한문 영역 문제지를 영역별로 단일

합권하는 제작 방식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그리고 응시원서 제출 서류를 응시원서, 여권용 규격 사진, 응시수수료, 신분증, 기타 서류로 명시하였다.

- 2011학년도 시행 계획은 2010학년도 시행 계획과 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다.
- 2012학년도 시행 계획에서는 공교육 내실화 및 사교육비 경감을 위하여 EBS 수능 교재의 연계 출제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였다. 연계 출제 비율을 70% 수준으로 하고, 중요 개념이나 원리의 활용, 지문 재구성, 자료 활용, 문항 변형과

같은 연계 유형을 제시하였다. 또한 영역별 만점자가 1% 수준이 되도록 수능 난이도의 일관성을 유지할 것을 밝혔다.

- 2013학년도 시행 계획에서는 이전까지 OMR 판독기를 통한 답안지 판독에서 이미지스캐너를 통한 답안지 판독으로 채점 방법이 변화 되었음을 밝히고 있다.

이상의 시행 계획에서 각 학년도별로 추가된 내용을 정리해 보면 <표 4-1-2>와 같다.

<표 4-1-2> 학년도별 시행 계획에서 특징적인 추가 내용

학년도	추가 내용
1994	실험평가 연구, 출제본부 설치 및 운용(1995학년도에서 삭제됨)
1995	청각 장애자 고난청자에 대한 듣기 평가
1996	OMR용 응시원서 제출 방법과 OMR 답안지를 통한 채점 방법
1997	특수교육대상자 시험 시간, 응시원서 증빙서류
1998	특수교육대상별 구체적 시험 시간, 맹인수험생의 점자문제지와 음성 평가 도구
1999	한국교육과정평가원으로 시험관리기관 변경, 부정행위 방지대책에서 감독 강화
2000	영역별 구체적 출제 원칙
2001	제2외국어 영역 관련 내용, 성적통지표 양식
2002	-
2003	전산프로그램에 의한 지원자 명부 작성, 예상 점수 발표
2004	-
2005	제7차 교육과정에 의한 수능의 변화, 구체적인 부정행위자 기준, 처리 절차
2006	대리응시원서 증빙서류, 응시원서 사진 규격, 관리, 부정행위 방지 대책 개선안
2007	-
2008	-
2009	EBS 교재 이용 출제, 이의신청 개선안
2010	문제지 제작 방식, 응시원서 제출 서류
2011	-
2012	EBS 연계 출제안, 난이도 적정 수준 유지안
2013	이미지스캐너를 통한 답안지 판독

나. 시험 출제 방식의 변화

(1) 연도별 수능 출제 방식의 변화

○ 실험평가

1994학년도 수능에 앞서 수능 시험 및 출제모형을 탐색하고 교사, 학생, 학부모의 이해 제고를 위해 실험평가를 1990년도에 1회, 1991년도에 3회, 1992년도에 3회 총 7회 실시한 바 있다. 또한 국립교육평가원의 분원과 지원, 그리고 시·도교육청 자체 교사 및 교육 전문직 42,500명을 대상으로 456회 연수를 실시하였으며 15,000명의 학부모, 학생 대상으로 32회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또한 「대학수학능력시험은 이런 방향으로 실시됩니다」 2,500부, 「대학수학능력시험 해설」 10,000부, 「대학수학능력시험 실험평가 문제집」 5,000부를 제작하여 홍보 자료로 배부하였다.

○ 1994학년도 수능

1994학년도 수능은 2회(1차 1993년 8월 20일, 2차 1993년 11월 16일) 실시했으며, 수험생들이 두 번 응시한 경우 그 가운데 좋은 성적으로 대학에 지원할 수 있었기 때문에 국립교육평가원에서는 두 시험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영역별 난이도가 동일 수준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였다. 출제위원회의 문항 검토 과정에서 고등학교 교사로 구성된 검토 위원들의 면밀한 난이도 조정 과정이 있었다. 그러나 두 시험 간에 약 8.2점(100점 만점 환산점수 4.1점)의 점수 차이가 발생함으로써 난이도 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되었다. 원점수제를 채택하였던 당시 제도로서는 불가피한 일이라고 하겠으나, 이로 인해 학교, 학부모, 언론 등에서 '1회 실시' 요구가 강력하게 대두되었다. 또 고등학교의 계열에 관계없이 공통 문제로 시험을 실시함에 따라 많은 고등학교에서 계열별 심화과목(자연계열의 수학II, 물리, 화학과

인문계의 세계지리, 사회문화)을 소홀히 하거나 전혀 다루지 않는 등의 파행적인 교육과정 운영이 나타남으로써 고등학교 교육의 정상화에 역작용을 불러왔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계열별 분리 실시' 등의 대안이 등장하게 되었다.

○ 1995~1996학년도 수능

1995학년도 수능은 1994학년도 수능의 1, 2차 시험 간의 난이도 차이로 인한 혼란을 줄이기 위해 11월 중에 연1회 실시하고,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정상적인 운영과 계열의 특성을 살리기 위해 계열별(인문, 자연, 예·체능)로 분리 출제하는 새로운 시험 계획을 수립하였다. 이 수능에서 1994학년도 수능과 달라진 점은 수리·탐구 영역(I)의 시험 시간을 90분(70분→90분)으로 확대, 총 시험 시간을 360분으로 확대하였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문항 수도 30문항(20문항→30문항)으로 확대하고, 이 가운데 주관식 단답형 문항을 6문항 출제하였으며, 문항 배점은 1점, 1.5점, 2점으로 차등 배점을 두었다. 또한 수리·탐구 영역에서 계열별로 구분하여 출제되던 75% 정도는 공통 출제하고 25% 정도는 계열별로 구분 출제하도록 하였다. 한편 수리·탐구 영역(II)의 사회탐구와 과학탐구의 배점 비율은 인문계열과 예·체능계열은 6:4로 하고, 자연계열은 4:6으로 하였다.

1996학년도 수능은 1995학년도의 시행 원칙을 유지하되, 외국어(영어) 영역에서 듣기 문항 수를 10문항(8문항→10문항)으로 늘리고 종합적 이해 능력을 측정하는 문항을 확대하여 변별력을 제고하고자 하였다.

○ 1997~1998학년도 수능

1997학년도 수능에서는 영역별 시험 시간을 조정(언어 영역 90분→100분, 수리·탐구 영역(I) 90분→100분, 수리·탐구 영역(II) 100분→110분)

하여 총 시험 시간을 360분에서 390분으로 확대하였다. 이에 따라 문항 수는 200개에서 230개로 확대(언어 영역 60문항→65문항, 수리·탐구 영역(Ⅱ) 60문항→80문항, 외국어(영어) 영역 50문항→55문항) 하였는데, 특히 외국어(영어) 영역의 듣기 문항 수를 10문항에서 17문항으로 확대하였다. 총 배점도 200점에서 400점으로 확대하였는데, 언어 영역은 1.6점, 1.8점, 2점, 수리·탐구 영역(Ⅰ)은 2점, 3점, 4점, 수리·탐구 영역(Ⅱ)은 1점, 1.5점, 2점, 외국어(영어) 영역은 1점, 1.5점, 2점으로 차등 배점하였다.

1998학년도 수능에서는 시험 시간을 일부 조정(3교시 수리·탐구 영역(Ⅱ) 110분→120분)하여 총 시험 시간을 400분으로 확대하였다.

○ 1999학년도 수능

1999학년도 수능의 본질적 성격은 변화되지 않았으나 제6차 교육과정에 근거해서 시험이 치러짐에 따라 영역별로 출제 비율과 출제 범위가 달라졌다. 특히, 수리·탐구 영역(Ⅱ)에서 선택 과목제가 도입됨에 따라 표준점수를 사용하게 된 것이 큰 변화라 하겠다.

이전 연도와 비교하여 언어 영역은 달라진 점이 없으나, 수리·탐구 영역(Ⅰ)은 예·체능계열의 경우에 '공통수학'에서만 출제되고, 수리·탐구 영역(Ⅱ)에서는 인문계열의 사회탐구와 자연계열의 과학탐구에 선택 과목이 새로 도입되었으며, 외국어(영어) 영역은 '공통영어'에서만 출제되었다.

○ 2000학년도 수능

2000학년도 수능이 전년도와 비교했을 때 달라진 점은 표준점수를 활용하는 대학의 편의를 위해 변환표준점수의 백분위점수가 추가적으로 제공되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2000학년도 수능의 성적표에는 영역별 원점수 및 총점, 표준점수

및 변환표준점수, 원점수에 의한 백분위점수가 1999학년도와 마찬가지로 표기되고, 여기에 변환표준점수에 의한 백분위점수도 추가적으로 제공되었다. 시험 시간 및 영역별 배점, 문항 수, 출제 형식, 출제 범위 및 영역별·계열별 출제 비율은 1999학년도와 동일하였다.

○ 2001학년도 수능

2001학년도 수능의 가장 큰 특징은 제2외국어 영역이 추가되었다는 것이다. 제2외국어 영역은 6개의 선택 과목, 즉 독일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중국어, 일본어, 러시아어로 구성되어 있으며, 문항은 총 30문항으로 배점은 40점이었다. 제2외국어 영역의 시험 시간은 18시 10분부터 실시되는 제5교시에 40분간 실시되었고, 출제 범위는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규정한 제2외국어 I의 내용과 수준으로 하였다. 제2외국어 영역은 선택 과목으로 계열 구분 없이 응시하고자 하는 수험생들만 응시하도록 하였으므로 점수를 총점에 합산하지 않고 별도 표기하였으며, 원점수 및 표준점수와 그에 의한 백분위점수만을 별도로 표기하였고 응시 과목명은 표기되지 않았다.

또 다른 특징으로는 언어 영역의 경우 문항 수가 65문항에서 60문항으로 줄어들어 시험 시간 또한 10분이 줄었고, 문항당 배점이 문제의 난이도와 교육의 중요성 등을 근거로 기존의 1.6, 1.8, 2점에서 1.8, 2, 2.2점으로 변경되었다. 외국어(영어) 영역의 경우에는 문항 수가 55문항에서 50문항으로 줄고 이에 따라 시험 시간이 10분이 줄었으며, 문항당 배점은 전년도와 동일하였다.

○ 2002~2003학년도 수능

2002학년도 수능의 가장 주요한 특징으로는 시험 영역에서 수리·탐구 영역(Ⅰ)을 수리 영역으로, 수리·탐구 영역(Ⅱ)을 사회탐구 영역과 과학탐구 영역으로 분리하여 4개 영역에서 총 5개 영역으로

변경되었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러한 시험 영역 변경에 관계없이 시험 시간, 출제 문항, 출제 범위 등은 2001학년도와 동일한 체제가 유지되었다.

또 다른 특징으로는 총점에 의한 학생 선발 관행을 지양하고 학생의 소질과 적성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전형 방식을 다양화하기 위해 총점 및 소수점 표기를 폐지하고 9등급제를 도입한 것이다. 따라서 원점수에 의한 백분위점수, 표준점수, 변환표준점수(400점 기준), 변환표준점수에 의한 백분위점수의 소수점 표기를 폐지하고 이를 모두 정수로 표기하였다. 다만 수험생 성적표의 원점수는 소수 첫째 자리까지 표기하였는데, 그 이유는 원점수의 경우 소수점 이하 점수를 반올림하여 기재하면 원점수가 동일하더라도 백분위점수, 변환표준점수, 등급에서 차이가 발생하여 수험생에게 혼란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대학에 제공하는 성적 자료(CD)에는 원점수의 소수점 이하 점수를 반올림 처리하여 배부하였다. 총점을 제공하지 않는 대신 변환표준점수에 의한 영역별 등급과 5개 영역 종합 등급을 기재하였다.

영역별 등급은 소수 둘째 자리(소수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까지 산출된 변환표준점수에 의한 등급이고, 5개 영역 종합 등급은 영역별 변환표준점수를 합한 점수에 의한 등급이다. 등급은 상위 4% 수험생에게는 1등급, 그 다음 7% 수험생에게는 2등급 등의 방식으로 부여된다. 제2외국어 영역의 점수는 5개 영역 종합 등급에 합산하지 않고 별도로 표기하였으며, 원점수와 표준점수 및 그 백분위점수만 표기하고 표준점수에 의한 등급을 기재하지 응시 과목명은 표기하지 않았다.

2003학년도 수능은 문항 수, 시험 시간, 배점, 문항 형태, 선택 과목, 성적 표시 등이 전년도와 동일하였다.

2002년부터는 과거에 출제된 문항과 결과에 대한 분석 자료를 DB로 구축하기 시작하였는데, 이후

매년 지속적으로 DB를 업그레이드함으로써 수능 출제 및 연구에 활용하였다.

○ 2004학년도 수능

2004학년도 수능에서 전년도와 달라진 점은 소수점에 의해 당락이 결정되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문항당 배점을 기존의 소수점에서 정수로 변경하여 표기한 것이다. 이에 각 영역의 문항당 배점은 언어 영역은 1.8, 2, 2.2점에서 1, 2, 3점으로, 수리 영역은 2, 3, 4점에서 2, 3점으로, 그리고 사회탐구, 과학탐구, 외국어(영어), 제2외국어 영역은 1, 1.5, 2점에서 1, 2점으로 모두 정수로 표기하였다. 성적 자료 표기에도 변화가 있었는데, 기존의 학생 성적표처럼 대학에 제공되는 성적자료(CD 자료)에도 영역별 원점수가 정수로 표기되었다. 영역별 등급은 소수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수로 산출된 변환표준점수에 의한 등급이고, 5개 영역 종합 등급은 정수로 산출된 영역별 변환표준점수의 합에 의한 등급이며, 등급 경계선에 있는 동점자는 상위 등급으로 처리하였다. 이러한 몇 가지 점을 제외하고는 시험 영역, 시험 시간, 출제 문항, 출제 범위 등에서 2003학년도와 동일한 체제를 유지하였다.

○ 2005~2006학년도 수능

2005학년도 수능은 이전과 많이 달라졌다. 제7차 교육과정을 반영함에 따라 수능 체제가 새롭게 개편된 것이다. 한문 과목의 시의적 중요성과 그에 따른 사회적 요구에 따라 기존 제2외국어 영역에 한문을 추가하여 제2외국어/한문 영역으로 변경되었고, 전문계 고등학교 교육의 활성화 및 국가 시험 출제의 형평성이란 명분에 힘입어 직업탐구 영역이 신설되었다. 이에 따라 수능의 영역은 언어, 수리, 사회탐구, 과학탐구, 직업탐구, 외국어(영어), 제2외국어/한문의 7개 영역으로 구성되어

2013학년도 수능까지 유지되었다. 이른바 ‘선택 수능제’라 불리기도 하는 2005학년도 이후 수능은 학생의 능력, 진로, 필요, 흥미를 중시하는 제7차 교육과정의 기본 정신에 따라 시험의 영역과 과목을 전부 또는 일부를 선택할 수 있게 하였으며, 고교 과정(계열)에 따른 구분 응시가 폐지되었다. 다만 수리 영역에서 수준에 따라 ‘가’형과 ‘나’형으로 구분하여 선택 응시하도록 하였고, 사회탐구/과학탐구/직업탐구 중 1개 영역만 택하여 최대 4과목(직탐은 최대 3과목)까지 응시할 수 있게 하였다는 점이 특징이다. 이는 고교 과정(계열)이 사라졌지만, 실제로 학생이 희망하는 대학 진학 계열을 고려하되 선택과 집중을 통해 학습 부담을 줄이고자 한 취지였다.

2006학년도 수능은 문항 수, 시험 시간, 배점, 문항 형태, 선택 과목, 성적 표시 등이 전년도와 동일하였다.

○ 2007학년도 수능

2007학년도 수능에서는 영역 간 소재 중복 문항에 대한 사전 점검 체제가 필요하여 6월 및 9월 모의평가에서 1차 및 2차 검토용 문항 결재 시 영역 담당 총괄 기획 및 평가위원의 검토, 총괄 평가위원 등의 검토 과정을 통해 최종 문항 완성 단계 이전에 소재 중복 문항 발생의 가능성을 차단하였다. 그리고 6월 및 9월 모의평가에서 영역 간 교차 검토 시 타 영역 지원 검토자의 전공 부분에 대한 상세한 수요 조사, 지원 검토자에 대한 사전 문항 소개 및 서면 검토 병행 등의 방법을 동원하여 영역 간 교차 검토의 효율성을 제고하였다. 또한 기출 문항 시비를 없애기 위해 언어 영역에서는 기출 문항 지문 DB를 구축하여 활용하였으며, 수리 영역에서는 그림 및 증명 문항 DB를 구축하여 수능부터 활용하였다.

○ 2008학년도 수능

2008학년도 수능에서는 문항의 완성도 제고를

위해 이전까지 3시간 30분 정도 하던 전체 상호 검토 시간을 1시간 늘려 4시간 30분 정도 진행하도록 조정하였다.

과학탐구 영역의 물리 과목은 문항의 문두가 너무 길어 수험생과 교사들이 문제의 의도를 파악하기가 힘들다는 비판이 있었다. 이에 문두를 줄이는 방안을 강구하여 모의평가에 적용한 결과 긍정적인 반응이 나와 이를 수능에 적용하였다.

2007학년도 수능까지는 ‘문제 및 정답 이의신청에 대한 이의실무심사위원회’가 출제위원만으로 운영되어 심사가 객관적이지 못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이에 2007학년도 수능부터는 외부 전문가를 반드시 포함하는 방식으로 개선하였다.

2008학년도 수능에는 2007학년도까지 2차 검토본을 대상으로 작성하였던 ‘출제근거자료’를 1차 검토본부터 작성하도록 하고 출제 과정 중 문항이 수정됨에 따라 이를 수정 및 보완하여 최종 제출하도록 하여, 교과서 비교 및 대학의 전공 서적 내용 대조 확인, 정답 및 오답 점검을 통한 문제 완성도를 높이도록 하였다.

○ 2009학년도 수능

2008학년도 수능에서는 이의심사를 끝내고 정답을 확정 및 채점을 실시하여 성적표를 배부한 후에 물리Ⅱ의 복수 정답을 인정하는 사태가 발생하였다. 이러한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해 문제 및 정답에 대한 이의심사 처리과정을 보완하였다.

이의심사실무위원회의 총괄위원장을 출제연구부장에서 수능처장으로 격상하고, 이의심사실무위원회에 참여하는 외부 전문가를 영역별 1명 이상에서 3명 이상으로 늘리고, 외부 전문가의 의견이 다를 경우 학회에 자문을 요청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그동안 출제본부에서 이루어지는 업무는 매뉴얼화되어 있으나 출제위원 섭외, 문제 및 정답 이의신청 접수와 처리, 수능 문항 분석 및 DB 구축

등 업무에 대해서는 그 내용이나 절차가 구체적으로 명문화되어 있지 않아,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출제연구부의 주요 업무와 위기 상황 대처를 위한 매뉴얼을 개발하였다.

○ 2010학년도 수능

2010학년도 수능의 모의평가부터 2차 검토본의 완성도 제고를 위해 수능처럼 검토일을 출제 입소 후 11일차에서 12일차로 하루 연기함에 따라 전체적으로 출제 기간이 16일에서 17일로 연장되었다. 그리고 제2외국어/한문 영역의 경우 제1차 검토본에 대한 원어민의 검토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원어민 입소일을 2010학년도 수능부터 7일차에서 6일차로 변경하였다.

시각 장애인을 위한 대체 문항 개발에서 여러 문제점이 제기되어 점역 대체 문항 선정 조건과 절차, 대체 문항 제작 절차, 교체 문항의 예, 수정 및 보완형 대체 문항의 예 등을 출제 요람에 제시하였다.

그동안 수능 출제 및 문제지 제작을 위한 워드 프로세서로 한글2002가 사용되어 왔다. 그러나 출제 위원들이 많이 사용하는 한글2005 이상에서 가편 집된 문제지를 한글2002에서 편집하면 수식이나 그래프, 그림 등이 손상되기도 하고 중국어의 경우 글자가 파손되기도 하는 등 여러 문제점이 발생하였다. 이에 따라 2010학년도 수능부터는 편집프로그램으로 한글2007을 사용하기로 하였다.

2009학년도 수능까지는 문제지의 표지가 없어서 앞자리에 앉은 수험생이 문제지가 배부되는 동안에 문제지를 먼저 보게 됨으로써 시험의 공정성 문제가 제기되었다. 또한 탐구 영역은 문제지가 여러 권으로 분권되고 러시아어는 문제지가 절반으로 분리되어 수험생이 해당 과목 문제지를 찾거나 보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2010학년도 수능에서는 매 교시별 문제지 표지를 제작하여 문제지 구성을 안내하였고, 16면 인쇄에서 48면 인쇄를 통해 문제지 권수를

줄였다.

수리 영역의 단답형 문항은 전산 채점상의 어려움으로 인해 정답이 두 자리 또는 세 자리 자연수가 나오도록 문항을 조정하였다. 문항에 따라서 수치 조정이 불가능한 경우 풀이 과정에서 얻은 답에 적당한 변형을 가하여 두 자리 또는 세 자리 자연수가 나오도록 출제하여 왔다. 이로 인하여 출제상의 어려움이 발생하고, 문항의 타당성에 대한 민원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2010학년도 수능부터는 미국 SAT, 일본 대학 입시 센터 시험을 참고하여 정답이 한 자리 자연수인 문항도 출제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과거에는 '05'와 같이 십의 자리에 '0'을 표기한 경우를 오답으로 채점하였으나 채점 프로그램을 수정하여 이를 정답으로 채점하도록 변경하였다.

○ 2011학년도 수능

2011학년도 수능에서는 2008년부터 개발하여 사용해 온 출제연구실 업무 매뉴얼에 EBS 교재 감수나 연계 업무와 같이 변경된 업무 일정이나 새롭게 추가된 업무 항목을 반영하여 수정하였고 일부 양식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하여 업무의 편의성을 높였다.

2011학년도 수능에서는 정부의 EBS 연계 강화 정책에 따라 영역별로 연계 방법을 모색하여 발표하였고, 6월과 9월 모의평가에서 EBS 문항을 각각 50%, 60% 연계하여 문항을 출제하였으며, 수능에서 연계율 70%를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였다. EBS 연계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EBS 교재에 대한 검토, EBS 연계를 위한 출제본부 운영 방안 수립, 연계 발표와 홍보, 문항 분석, 모의평가 연계 결과에 대한 반응 분석 등을 수행하였다.

두 차례의 수능 모의평가에서는 일부 영역의 일부 과목에 걸쳐 일정 비율로 문제은행 문항을 적용하였다. 그리고 적용 과정에서 드러난 어려운

점이나 문제점들을 정리하여 향후 문제은행 개발에 반영하였다.

○ 2012~2013학년도 수능

2012학년도 수능부터 출제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출제위원의 자격 심사를 강화하였으며 출제 및 검토위원단의 증원을 통해 출제에 완벽을 기하고자 했다. 출제본부 구성 시에는 출제위원단을 전년 보다 6명 증원하여 출제본부 내에서의 업무 중복 문제를 해소하였으며 언어, 수리, 외국어(영어) 영역에서 검토위원을 8명 증원하여 문항 난이도 예측 및 검토 능력을 강화하였다.

제2외국어/한문 영역에서는 문제지를 3면에서 4면으로 증편하여 검사지의 가독성을 높였다. 또한 언어영역의 경우 지문 검색 프로그램을 크게 개선하였으며, 교육과정의 변화에 따라 수리 영역 '가'형의 경우는 '수학 I', '수학 II', '적분과 통계', '기하와 벡터'에서 각각 25%씩 출제하고, '나'형의 경우는 '수학 I'과 '미적분과 통계 기본'에서 각각 50%씩 출제하기로 하였다.

2012~2013학년도 수능 출제의 특징은 쉬운 수능이라는 기조 아래 영역별 만점자가 1% 수준이 되도록 난이도를 유지하고, 전체 문항 중 70%의 문항을 EBS 연계 교재에서 연계하면서, 연계 체감율을 높이려 하였다는 것이다. 이것은 교육과학기술부가 2011년 2월 17일에 발표한 수능-EBS 연계 개선안에 따른 것으로서, 이 개선안은 2012학년도 수능부터 적용되었다.

수능-EBS 연계 정책이 처음 시행된 2011학년도 수능에서는 70%의 문항을 연계하여 출제하였지만, 연계한 지문과 연계하지 않은 지문이 복잡적으로 제시되거나, 연계 과정에서 개념을 함축시키고 기호화하여 제시된 경우도 있었으며, 새로운 조건이 추가되어 복잡한 사고과정을 필요로 하는 EBS 연계 문항이 있어 학생들이 연계 효과를 체감하기

힘들었다는 비판을 받았다. 각 영역별로 기출 수능 문제에 대한 EBS 연계율, 연계 유형, 연계 문항과 비연계 문항의 정답률, 변별도 등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2012학년도 수능에서의 EBS 연계에 대한 개선 방향을 도출하였다. 그 결과 연계 효과가 비교적 높은 유형의 비중을 늘리고 연계 효과가 낮은 유형은 비중을 줄이거나 연계 유형에서 제외하였다. 구체적으로 교과서와 EBS 연계 교재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내용이나 개념을 활용하는 유형의 비중을 늘리고, 지나치게 변형하지 않았다. 또한 지문, 그림, 자료, 표 등을 활용할 경우에는 EBS 연계 교재의 문항에서 다루고 있는 핵심 개념 또는 원리를 그대로 적용하는 방식으로 연계하였다. 두 차례의 모의평가를 통해 이러한 연계 원칙을 적용하였고 전문가 협의회 및 모니터링단의 의견을 통해 연계 원칙의 타당성을 확인하였다.

영역별 만점자 1% 수준 유지는, 2011학년도 수능이 70%의 문항을 EBS 연계 교재에서 연계하여 출제하였음에도 어려웠다는 평가를 받아서 이에 대한 개선안으로 나온 것이다. 이전 수능의 난이도를 살펴본 결과 영역별 만점자가 0.3% 미만이었을 경우에 어려웠다고 평가받았지만, 0.5% 이상의 만점자가 나왔을 때 비교적 쉬웠다는 평가를 받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영역별 만점자 1%라는 구체적인 수치가 설정되었다.

이 수치를 통해 2012, 2013학년도 수능의 난이도를 일관되게 유지하도록 예년에 비해 더욱 정밀한 난이도 조정 전략을 수립하였으며 이를 위해 정답률 분석에 사용되는 정답률 구간을 세분화하였다. 또한 두 차례의 수능 모의평가 결과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바탕으로 난이도 조정 전략을 지속적으로 수정·보완하였다. 이와 함께 영역/과목의 특성에 따른 난이도 조정 전략을 함께 세워 난이도 조정 방안을 더욱 정교화하였다.

그 밖에도 EBS 연계 정도 및 안정적인 난이도 달성

가능 여부에 대한 현장 예측 상황을 탐색하기 위해 모니터링단을 운영하였으며 이들로부터 얻은 자료를 분석하여 시험 결과에 대한 학교 현장 요구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게 하였다.

다. 출제 일정 및 출제본부 구성

출제 일정과 출제본부 구성은 수능 체제에 맞추어 이루어진다. 그동안 수능 체제가 몇 차례의 크고 작은 변화를 겪으면서 출제 일정과 출제본부도 상당한 변화를 보였다.

(1) 출제 일정

매년 10월 중에 입소하여 시험이 실시되는 11월에 퇴소하게 되므로 30일 안팎의 출제 기간을 갖게 된다. 그런데 입소와 퇴소 시기는 해당 달의 초순, 중순, 하순의 세 가지 유형이 있다. 수능 일정은 고교 교육과정 정상화에 대한 학교와 교육 당국의 요구, 대학 입학 전형 절차를 여유 있게 진행하려는 대학과 대학교육협의회 측의 요구 등 상이한 사회적 요구들 간의 조정 결과에 따라 결정되는 사안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수능 시행을 최대한 뒤로 해서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운영해야 하는 당위성과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입학 전형 절차를 실행하기를 원하는 대학의 현실적인 요구가 충돌하게 되는데, 이는 교육 당국이 당해 연도의 입학제도 변화나 제반 사항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게 된다. 2002학년도와 2005학년도 수능이 그 전해에 비해 일정이 달라진 것은 수능 체제가 달라진 데 따른 것이었다. 이 밖에도 국가적인 주요 행사가 있어서 불가피하게 일정이 조정되는 경우도 있다. 2006학년도와 2011학년도의 경우 당시 가을에 우리나라에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 회의나 G20 정상 회의와 같은 중요한 행사가 열리게 되어 불가피하게 수능 일정이 예년보다 일주일 정도 뒤에 시행되는 것으로 조정되었다.

(2) 출제본부 구성

출제본부는 출제위원단, 검토위원단, 관리요원 단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다. 출제위원단에는 수능을 총괄하는 출제위원장과 위원장을 도와 출제 업무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실무를 책임지는 평가원 연구원으로 출제부위원장이 있고, 평가원 연구원 또는 외부로부터 위촉되는 평가위원장과 각 영역별 영역 위원장들로 구성되는 위원장단이 있으며 각 영역/과목별 기획위원, 평가위원, 출제위원들이 있다.

검토위원단에는 1차 검토위원과 2차 검토위원, 그리고 윤문위원들로 구성되는데, 이들은 대부분 교사이지만 제2외국어/한문에는 교수나 원어민이 포함되기도 한다.

관리요원단에는 관리 대표와 부대표, 출제진행팀, 생활운영팀, 자료전산팀, 보안팀, 외부지원팀, 특수 자료제작팀 등으로 구성되는데, 팀 구성 및 운영은 해마다 조금씩 달라지며 수능 초기에 비해 업무가 점점 세분화 및 조직화되고 있다.

앞서 살펴본 수능 출제 일정과 마찬가지로 출제본부 구성 인원의 경우에도 수능 체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된다. 수능이 도입되고 이듬해 실시된 1995학년도 수능에서는 첫 해에 2회 실시된 것이 1회만 실시됨에 따라 다소 여유 있게 합숙 일수와 출제본부 구성을 재조정 하였다. 또한 수리·탐구 영역이 수리·탐구(I)과 수리·탐구(II)로 계열별로 분리되면서 이전의 3영역 체제에서 4영역 체제로 출제 부담이 늘어나게 되면서 출제 기간과 인원이 증가하였다. 하지만 곧 출제 체제에 익숙하게

되자 일정 간소화나 효율성 제고 측면에서 다시 출제 합숙 기간을 줄이고, 출제 인원도 조금 줄여 1996학년도부터 2000학년도까지 큰 변화 없이 운영해 나갔다. 그러다가 2001학년도 수능에서 선택 영역으로 제2외국어 영역이 신설되면서 다시 5개 영역으로 수능이 확대됨에 따라 출제본부의 출제, 검토, 관리요원이 증대되었다. 그 대신 출제 기간은 조금 더 단축함으로써 출제의 효율성을 기하려 하였다.

2003학년도에는 탐구 영역의 출제 부담을 줄이고 문항의 완성도를 제고하는 차원에서 출제위원을 보강하였다. 이때도 역시 출제 인원이 증가하는 대신 출제 기간을 최대한 단축하려고 하였다.

2005학년도 수능에서는 직업탐구 영역이 신설 되고, 한문이 제2외국어 영역에 포함됨에 따라 출제 기간과 출제본부 구성이 크게 확대되었다. 그 이후에는 2013학년도 수능까지 큰 변화 없이 비슷하게 유지되어 왔는데, 간혹 수능 출제 오류 사태가 발생 하게 되면 문항의 완성도 제고 차원에서 출제 및 검토 위원이 꾸준히 보강되었다. 다만 출제 합숙 기간은 최대한 단축하려고 노력해 왔는데 합숙 후반기의 인쇄 기간이 축소되어 하루 정도 단축하게 되었다. 이는 인쇄를 담당하는 회사에서 시설을 증대하고 기술자의 숙련도를 높임으로서 가능하게 되었다.

2007학년도 수능에서는 영역별 출제 및 검토위원 인력풀을 정원의 10배수 이상(단, 직업탐구 영역은 8배수 이상) 확보하고자 했다. 본원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공모, 대학, 고등학교, 연구소 등을 통한 기관 추천, 평가원 연구원 및 파견 교사에 의한 내부 추천 방법 외에도 수능본부 소속 연구원들이 직접 시도 교육청에 출장을 가서 유능한 출제 및 검토위원을 발굴하기도 했으며, 2006년 8월에 문제은행 연구부에서 주관한 전북 지역의 교사 연수에서는 출제 및 검토위원의 기본 자격을 갖추고 있고, 능력이 있는 교사를 발굴하여 인력풀에 추가하였다. 출제 인력

구성에 있어 2007학년도 수능에서는 출제의 어려움과 문항 완성도 제고 측면을 고려하여 출제위원 중 교사 비율을 이전의 40%에서 43% 정도로 변경하였다. 한편 출제 시 인터넷 검색에 대한 수요를 반영하여 6월 모의평가와 9월 모의평가에서는 별도의 인터넷 검색실을 운영하였는데 효율적인 것으로 판단되어 2007학년도 수능에서도 방화벽 설치 등 보안 장치를 보다 강화한 인터넷 검색실을 운영하였다. 그리고 출제위원 및 검토위원의 건강을 위해 처음으로 6월 모의평가에서부터 의사를 출제본부에 입소시켜 의료 서비스를 강화하였고 본수능에도 이 제도를 유지하였다.

2008학년도 수능에서는 중요한 과제 중의 하나가 2007학년도 시험에서 43%였던 교사 출제위원의 비중을 당해부터 50%로 확대하는 것이었다. 출제 위원 중 교수의 수를 줄이고 교사를 늘리는 대신 교사로 구성되는 검토위원의 수를 감축하는 방식으로 조정하여 이를 모의평가에 적용해 보았다. 그 결과 영역별로 출제나 검토에서 갖가지 어려움을 겪게 되었는데, 이를 개선하기 위해 수능에서는 언어 영역 기획위원 1명 증원, 외국어 영역 검토위원 1명 증원, 사회탐구 영역의 일부 과목은 2차 검토위원의 일부를 1차 검토위원으로 전환, 과학탐구 영역은 출제 위원 수를 4명 줄이는 대신 1차 검토위원을 4명 늘리는 방법 등으로 출제본부 구성을 재조정하였다. 또한 이전까지의 인력풀은 희망자의 자기 추천과 기관장이나 교육 전문직, 동료 교수나 교사 등의 추천을 받아 구축하였다. 그리고 유능한 인력 발굴을 위해 다양한 경로로 추천을 받는 동시에 평가원의 연구원이 학교를 방문하여 인력풀을 확충하는 방식도 병행하였다.

2009학년도 수능에서는 출제 인력을 인력풀에서 임의 추출하던 방식에서 우수 인력 추천 방식으로 변경하고, 교사 출제위원의 비율을 50%에서 영역별 30% 이상으로 조정하였으며, 출제위원의 자격 중

‘최근 5년간 수능 시험과 관련한 상업용 수험서 집필자’ 제외 규정을 최근 3년으로 완화하고, 교과서 집필자 중 자습서만 집필한 사람의 경우에는 출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이전해 교사 출제 위원 수 증가를 위해 검토위원을 감축한 결과 많은 문제점이 드러나 출제위원 중 교사 수를 감축하는 대신 검토위원 수를 확충하도록 하였으며, 그동안 여러 과목을 담당하였던 직업탐구 영역의 기획위원과 평가위원의 수를 일부 증원하여 업무 부담을 줄이도록 하였다.

2010학년도 수능에서는 출제위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교사 출제위원의 비율을 영역별 30% 이상에서 25% 내외로 조정하였다.

2011학년도 수능 출제본부는 2010학년도와 큰 차이가 없도록 구성하였다. 출제본부 운영상의 변화로 특기할 만한 점은 EBS 연계 출제를 위해 사전 워크숍 단계부터 EBS 교재를 투입하여 체감도가 높은 연계 문항 제작이 이루어지도록 하였으며, 검토위원의 검토 과정에서 EBS 연계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였다는 점이다.

라. 출제본부의 출제 업무

수능의 출제 과정은 「출제업무요람」을 제작하여 출제본부 입소 후 출제 업무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출제본부 모두가 공유하고 이에 기반하여 출제 업무를 진행한다. 구체적인 출제 업무를 단계별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준비 단계

합숙 장소에 입소하게 되면 철저한 보안 검색을 하게 되고, 이후 숙소 배정을 마치면 출제본부 입소

식과 출제위원단 전체 워크숍을 실시하게 된다. 워크숍에서는 출제부위원장과 평가위원장이 중심이 되어 당해 연도 수능 출제의 기본 방향 및 지침을 출제위원들에게 설명한다.

그 이후에는 각 영역별로 워크숍을 갖게 되는데, 영역위원장과 기획위원이 주관하여 영역별 출제 계획을 중심으로 출제 업무 및 지침과 생활에 대해 출제위원들에게 자세히 안내한다.

(2) 문항 제작 및 검토 단계

문항 제작은 출제계획표 작성으로 시작된다. 작성된 출제계획표를 검토하고 그 결과에 기반하여 문항 초안을 제작하게 된다. 제작된 초안에 대해 영역/과목별로 검토 및 수정·보완 작업을 진행한다. 시간은 영역/과목에 따라 상이하지만 대략 초안 제작부터 검토 및 수정·보완까지 4~6일 정도 소요된다. 특히 탐구 및 제2외국어/한문 영역의 경우에는 영역 내 과목 간 문항 교차 검토의 과정을 별도로 거친다.

이렇게 해서 1차로 만들어진 문제지는 1차 검토 위원들의 검토를 받기 위해 제출하는데, 이때에는 문제지를 비롯하여 정답표와 예상정답률 등 관련 자료도 함께 출제본부에 제출한다.

제출된 1차 검토용 문제지에 대해 1차 검토위원들의 개별 및 공동 검토 과정을 거친다. 검토위원들은 수험생과 모두 동일한 입장에서 개별적으로 문제를 풀이한 다음 검토위원들이 함께 모여 각 문항에 대한 의견을 모아 문항 검토표와 문항 검토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이때 검토위원들은 최종 문항이 완성되기 전까지는 출제위원과 개별적으로 접촉할 수 없도록 한다. 이는 검토 의견의 공식화를 통해 문항의 완성도를 제고하기 위함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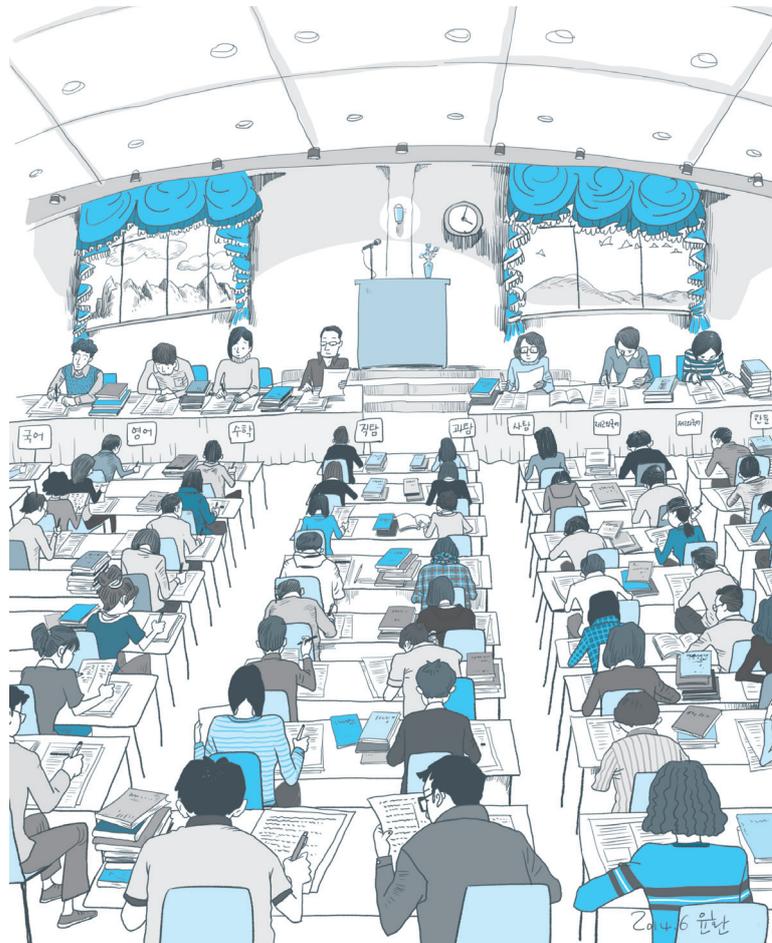
개별적인 접촉 대신 문항에 대한 1차 검토위원

들의 검토 의견에 대해서 논의하기 위해 영역별로 출제위원과 검토위원 간 연석회의를 공식적으로 개최한다. 영역에 따라서는 출제위원 모두가 참석하지 않고 출제위원을 대표하는 기획진만 참석하는 경우도 있다. 이 연석회의에서는 문항의 교육과정 적합성, 타당성, 난이도, 소요 시간 등 문항에 대한 전반적인 의견을 교환한다. 그 다음 출제진은 검토 의견에 따른 수정·보완 계획을 수립한다.

검토위원들은 이후 2차 검토를 하기 전까지 그리고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기출 문항에 대한 검색 작업을 하게 된다. 시중의 참고서/학습지/문제지에서 출제된 문항과의 중복 여부를 검색하는 것이다.

만약 여기서 기출된 문제와 동일하거나 유사하다고 판단되면 그 즉시 평가위원을 통해 출제진에게 알려 문항을 대체 또는 수정하도록 한다. 또한 정부의 EBS 연계 강화 정책에 따라 2005학년도 수능 이후에는 검토위원들에게 출제된 문항이 EBS 수능 방송 및 교재와 어느 정도 연계성이 있는지를 검토하여 의견을 개진하도록 하고 있다. 만약 출제된 문항의 EBS 연계 정도가 대체로 낮다고 분석되면 출제진들이 문항 수정·보완 단계에서 EBS 연계 비율과 정도를 높이도록 조정한다.

이후 3일 내외의 문항 수정·보완 작업을 거친 다음 2차 검토용 문제지와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된다.



〈검토 위원 개별 검토〉

이때는 1차 때와 달리 문제지 편집도 실제 수능 문제지와 동일하게 가편집을 해서 제출하되 정답표와 함께 예상정답률도 제출하여야 한다.

제출된 2차 검토용 문제지를 대상으로 2차 검토 위원들과 1차 검토위원들이 개별 검토 및 공동 검토를 한다. 검토 방식과 요령은 1차와 동일하여 검토 위원들의 개별 검토 이후 공동 검토를 거치고 공유된 의견을 바탕으로 문항 검토표와 검토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이때도 1차 때와 마찬가지로 출제 위원과 개인적인 접촉은 금한다.

영역별로 2차 검토 결과에 대한 출제위원과 검토 위원 연석회의를 개최하여 문항에 대한 의견을 교환한다. 출제진은 또 다시 검토 의견을 반영하여 문항 수정·보완 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한편 출제위원과 검토위원 간의 의견이 조정되지 않을 경우, ‘문항조정위원회’를 소집하여 출제위원 장단 회의의 통해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이후에는 문항의 수정과 보완에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아 매우 긴박하게 출제 업무가 진행된다. 먼저 영역 간 교차 검토가 이뤄지는데 관련 영역끼리 출제위원 및 검토위원들이 함께 모여 다른 영역의 문항을 검토한다. 특히 범교과적인 소재를 다루는 언어나 외국어 영역의 경우에는 인문, 사회, 과학, 예술, 공학 등 다른 영역의 관련 전공자의 시각에서 문항을 검토함으로써 문항에 혹시라도 제기될 수 있는 오류나 결함이 있는지를 면밀히 검토한다.

동시에 문두, 지문, 답지의 표현을 다듬거나 맞춤법을 교정하는 윤문 작업을 거친다. 문법 전공자나 국어 교사로 이루어진 윤문위원들이 언어 영역을 제외하고 다른 영역의 모든 시험 문제에 대해 윤문을 실시한다.

그 다음에는 유사 영역이 모여 최종 상호 검토 과정을 거친다. 이때는 여러 사람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거나 다른 영역의 의견과 조언이 요구되는

문항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게 된다.

이러한 모든 과정이 끝나면 출제위원들은 자신들이 출제한 문항에 대해 출제 근거 자료를 밝히고 문항의 정답과 오답에 대한 해설을 작성하여 제출한다. 이상의 단계를 도식화하면 [그림 4-1-1]과 같다.

(3) 문제지 편집 단계

문제지 편집은 편집 및 삽화 요원들의 도움을 받아 진행된다. 이때 언어, 수리, 외국어(영어) 영역은 홀수형과 짝수형 문제지를 별도로 편집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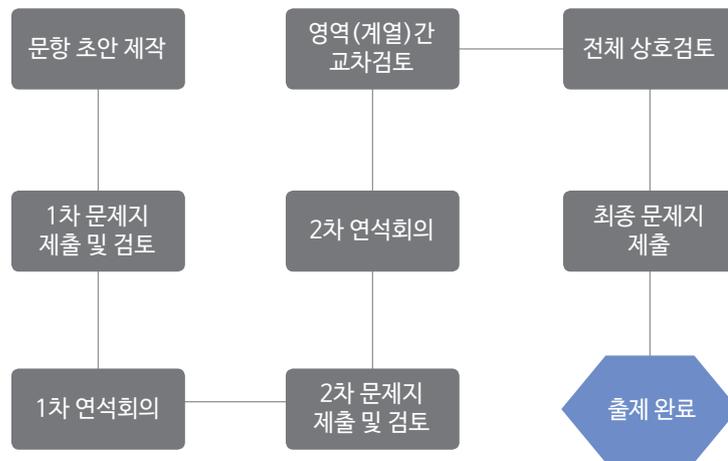
편집본을 가지고 출제위원들과 검토위원들은 시험지의 모든 문장과 그래프, 표 등을 샅샅이 소리내어 읽어감으로써 최종 문제지와 정답표, 예상정답률 등을 확인한 뒤 출제본부에 제출한다.

(4) 인쇄 확인 단계

인쇄에 들어갈 트레싱지 출력본에 나타난 글자, 그림, 도표의 선명도 등을 확인하고 트레싱지 출력본과 문제지 원안지를 비교 검토한 다음 최종 인쇄 승인 절차를 밟는다. 그런 다음 엄격한 보안 관리 하에 문제지 원안을 인쇄소로 인계하게 된다.

(5) 특별관리대상자 문항 개발 단계

문제지가 인쇄되는 동안 출제본부에서는 특별관리 대상자를 위한 문항을 개발한다. 맹인 및 청각 장애 인용 대체 문항을 개발하고, 저시력 수험생용 확대 문제지를 제작하여 검토·승인 후 제출한다.



[그림 4-1-1] 문항제작및 검토 단계 흐름도



<트레싱지 출력본 확인>

(6) 녹음 단계

녹음은 2013학년도 수능까지 언어 영역과 외국어(영어) 영역의 듣기 평가 문제에 대해 실시하였다.

이와 함께 맹인용 음성 평가 자료도 녹음을 하며, 출제본부 내에서 녹음 테이프/CD를 필요한 수량만큼 복사하고 포장까지 완료한다.

출제본부 입소 후 출제 진행에 대하여 해마다 출제 후의 평가회의를 통해 보완점을 찾고 이를 다음해의 출제에 반영함으로써 출제 과정은 조금씩 전문화되고 세분화되는 발전을 거쳐 왔다. 위에서 기술한 출제 과정은 최근의 방식을 중심으로 한 것이다. 수능이 현재보다 영역이나 과목이 적었던 과거에는 지금보다는 절차가 간소하였다.

(7) 정리 단계

출제 과정의 마지막 정리 단계에서는 보도자료 작성과 각종 출제 관련 자료 작성 및 제출 과정을 거친다. 또한 최종 정답표를 확인하고 문항카드, 문항 분석표, EBS 연계표 등을 최종적으로 작성하여 제출한다.

제2절

인쇄 및 시험 시행 과정

박진희(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엄성호(한국교육과정평가원)

가. 인쇄와 배부 과정

시험지의 인쇄는 인쇄본부가 개설되어 이루어진다. 인쇄 과정을 살펴보면, 출제본부에서 완성된 문제지 원안을 철저한 보안 속에서 인쇄본부로 인계하며, 수능본부장이 출제본부에서 출제위원장으로부터 인수받아 인쇄본부 관리대표에게 인계한다. 출제본부에서 인쇄본부로 원안 운송 시에는 반드시 경찰과 함께 이동하며, 본부장을 책임자로 하여 외부지원대표, 보안요원, 경찰관이 동행한다. 2013학년도에는 영역별 인쇄 순서에 따라 5차례에 걸쳐 원안이 인계되었다.

문제지 원안이 인쇄본부에 반입되면 인쇄판을 제작하며, 인쇄 오류의 사전 예방을 위해 출제본부 원안과 인쇄본부에서 제작한 인쇄판의 대조 작업 후 이상이 없을 경우에만 인쇄 작업에 들어간다.

인쇄는 영역·유형별로 실시하며, 한 영역의 인쇄가 완료된 후에 다른 영역을 인쇄하고, 인쇄된 문제지는 영역·유형별로 16부씩 1차 봉투에 넣고 마스킹테이프로 봉한 후 포장 확인용 보안 도장으로 봉투의 위, 아래를 봉인한다. 이렇게 1차 포장 작업이 끝난 문제지는 2013학년도 수능을 기준으로 국어, 수학, 영어 영역은 30봉투, 사회/과학/직업탐구 및

제2외국어/한문 영역은 10봉투씩 2차 상자에 넣어 포장한 다음 OPP테이프로 봉하고 포장 확인용 도장으로 봉인한 후 밴딩기로 끈을 묶으면 포장이 완료된다. 2차 포장 작업까지 끝난 문제지는 교시별, 유형별, 배부일자별로 인쇄본부 내 지정된 장소에 적재한 후 문제지 배부일에 시험지구별로 배부한다.

문제지의 배부 기준은 1~3교시는 시험실당 홀·짝수형 각 1봉투씩, 시험장 여분으로 시험장당 홀·짝수형 각 1봉투씩, 시험지구 여분으로 홀·짝수형 각 1봉투씩이며, 4~5교시는 시험실당 2봉투, 시험장 여분으로 시험장당 2봉투, 시험지구 여분으로 2봉투이다.

특별관리대상자용 문제지 및 듣기 평가 CD는 출제본부에서 제작하여 문제지 배부 시작일 전일에 인쇄본부 내부로 운송하며, 답안지 납품도 문제지 배부 시작일 전까지 완료한다.

문제지 및 답안지는 시험일 기준으로 3일 전부터 시험지구별로 배부하며, 인쇄본부가 설치된 장소를 기준으로 원거리 지역부터 배부한다. 인수단은 시·도교육청 책임자(과장급 이상) 1명, 시험지구 책임자(과장급 이상) 1명, 시·도교육감 또는 시험지구 책임자가 지정한 직원 1~2명, 교육부장관이 임명한 중앙협력관 2명으로 구성되며, 시·도 관할 경찰서의



〈시험지 배부〉

협조를 받아 운송한다. 시험지구별로 배부된 문제지는 시험 전날까지 시험지구 보관 장소에서 각 시험장별로 분류하여 보관하고, 시험 당일 새벽에 시험장으로 운반된다. 인수 순서는 답안지, 문제지, 시험지구별 예비시험장용 문·답지 포장상자, 듣기 평가 CD, 특별관리대상자 문·답지 순이며, 인수 후에는 인계·인수서를 작성하고 시·도교육청 책임자, 시험지구 책임자, 교육부 소속 중앙협력관이 공동 서명한다.

1994학년도 수능부터 2013학년도 수능의 인쇄와 배부의 변화 및 특이 사항은 다음과 같다.

초기 수능부터 2004학년도까지 문제지 면수는 8면에서 16면 사이였다. 2005학년도 선택형 수능부터는 사회탐구 영역 48면, 과학탐구 영역 32면, 직업탐구 영역 72면으로 대폭 증면되었다. 그 당시 인쇄 기계는 최대 16면까지만 인쇄가 가능하였으며, 16면을 초과하는 영역의 문제지는 영역별로 최대 16면씩 분권하여 인쇄하였다. 사회탐구

영역은 16면씩 3권으로, 과학탐구 영역은 16면씩 2권으로, 직업탐구 영역은 16면 4권과 8면 1권인 총 5권으로, 제2외국어/한문 영역은 16면 1권과 8면 1권인 총 2권으로 문제지가 구성되었다.

2010학년도에 56면 인쇄가 가능한 인쇄 기계가 도입되면서 문제지 구성에도 변화가 있었다. 사회탐구 영역은 3권에서 1권 단일형으로, 과학탐구 영역은 2권에서 1권 단일형으로, 제2외국어/한문 영역은 2권에서 1권 단일형으로, 직업탐구 영역을 5권에서 56면과 20면으로 구성된 2권으로 변경되었다.

또한, 2010학년도부터 매 교시별 문제지 표지를 제작하고, 특히 4교시 탐구 영역 및 5교시 제2외국어/한문 영역의 표지에는 과목별 문제지 구성 내역을 안내하였다.

2006학년도부터 대리시험 방지를 위해 매 교시 답안지에 일정한 길이의 시, 금언 등을 기재하는 확인란을 두어 필요시 필적 감정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2013학년도부터는 답안지에 제시하던 필적확인문구를 매 교시 문제지 표지에 제시하였다.

2007학년도에는 수리 영역의 문제지 인쇄 물량이 감소되었는데, 이는 수험생에게 ‘가’형과 ‘나’형 2개의 유형 모두를 배부하던 방식에서 수험생 본인이 선택한 유형 1세트만 제공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었기 때문이다.

2008학년도까지는 각 영역, 유형별 문제지 상자 포장 시 시험지구 소요량을 산출한 후 마지막 상자가 완벽하게 차지 않고 몇 개의 봉투가 남았을 경우, 상자에 해당 봉투만 포장하여 시험지구명과 봉투 수량을 표시하고 ‘자투리 상자’로 배부하였다. 자투리 상자는 시험지구마다 봉투 수가 상이하여 별도로 관리해야 하고, 문제지 배부 시에도 각별한 신경을 써야하는 등 여러 가지 번거로움이 발생하여 2009학년도부터는 자투리 상자 대신 완전한 상

자로 제공하였으며, 이로 인해 추가로 발생하는 여분은 시험지구에서 시험장 여분 등으로 적절히 활용하도록 하였다.

2010학년도 수능이 시행된 2009년 9~11월경에 신종 인플루엔자가 전국적으로 확산되었으며, 각 시·도에서는 수험생들이 차질 없이 시험을 볼 수 있도록 분리시험실 및 병원시험장을 운영하였다. 특히, 시험 당일 갑작스런 환자 발생을 대비하여 모든 영역, 유형별 문제지, 각 교시별 답안지, 4교시 개인용 문제지 보관봉투, 듣기 평가 CD를 한 상자에 포장한 병원시험장용 문·답지 상자를 각 시험지구에서 제공하였다. 이 조치 사항은 시험 당일 긴급하게 병원시험장이 개설될 경우 병원시험장용 문·답지 상자만 있으면 모든 교시의 시험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이듬해인 2011학년도부터는 시·도 교육청 담당 장학사의 요청으로 긴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처를 대비한 예비시험장용 문·답지 상자를 시험지구 별로 1개씩 제공하기 시작하였다.

수능 인쇄본부는 인쇄량 및 인쇄 종류 등을 고려하여 14~18일간 운영되었으며, 인쇄 종류는 제5차 교육과정이 적용되었던 1998학년도까지는 16종으로, 제6차 교육과정이 적용된 1999학년도에는 20종으로 증가하였다. 제2외국어 영역 시험이 도입된 2001학년도 시험에 22종으로 증가되었다가 제7차 교육과정이 적용된 2005학년도에 20종으로 감소하였으며, 2010학년도에 56면까지 인쇄가 가능한 기계가 도입되면서 13종으로 대폭 감소되었다.

〈표 4-2-1〉은 인쇄 물량과 문·답지 배부 기간을 학년도별로 정리한 것이다.

〈표 4-2-1〉 학년도별 인쇄 물량과 문·답지 배부 기간

학년도	참여 인원(명)		문·답지 배부 기간
	관료요원	인쇄물량	
1994 1차	16	3,769,920	8. 17(화)~8. 19(목)
1994 2차	16	3,912,200	11.13(토)~11.15(월)
1995	16	3,908,780	11.20(일)~11.22(화)
1996	16	4,563,800	11.19(일)~11.21(화)
1997	16	4,501,200	11.10(일)~11.12(화)
1998	16	4,127,948	11.16(일)~11.18(화)
1999	20	4,983,924	11.15(일)~11.17(화)
2000	20	5,203,692	11.14(일)~11.16(화)
2001	22	5,446,332	11.12(일)~11.14(화)
2002	22	4,618,080	11. 4(일)~11. 6(화)
2003	22	4,250,736	11. 3(일)~11. 5(화)
2004	22	4,253,868	11. 2(일)~11. 4(화)
2005	20	6,039,972	11.14(일)~11.16(화)
2006	20	5,667,488	11.20(일)~11.22(화)
2007	20	4,886,112	11.13(월)~11.15(수)
2008	20	4,971,008	11.12(월)~11.14(수)
2009	20	5,343,360	11.10(월)~11.12(수)
2010	13	4,545,232	11.9(월)~11.11(수)
2011	13	4,343,296	11.15(월)~11.17(수)
2012	13	4,147,232	11. 7(월)~11. 9(수)
2013	13	3,993,360	11. 5(월)~11. 7(수)

나. 시험 준비 및 시행 과정

(1) 시행 세부 계획 공고 및 업무처리지침 마련

수능 업무는 시행 세부 계획과 업무처리지침을 마련하며 시작된다. 수능 주요 업무 일정과 출제 방향을 담은 시행 기본 계획은 매년 3월 말경 당해 연도 수능 업무의 주요 일정과 출제 방향을 담은 시행 기본 계획을 홈페이지에 발표하며, 시험 개요, 출제 기본 방향 및 출제 범위, 시험 관리, 채점 및 성적 통지, 부정행위 방지대책 등이 포함되어 있다. 특히, EBS 수능 교재 및 강의와 연계하여 출제하기

시작한 2011학년도 수능부터는 시행 기본 계획에 연계 대상 EBS 교재 목록을 포함하여 발표하였다. 시행 세부 계획은 3월에 발표하며, 시행 세부 계획에 근거하여 매년 7월 초에 응시수수료, 시험지구, 응시원서 작성 및 접수, 특별관리대상자의 시험 운영, 성적통지표 교부, 시험 유의사항 등 보다 구체적인 사항이 포함된 시행 세부 계획을 중앙 일간지를 통해 공고한다.

업무처리지침은 시험 관리 기관인 평가원 및 각 시·도교육청에서 시험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평가원에서 작성한 지침서로, 시험관리 및 실시에 대한 세부 지침을 제시한다. 업무처리지침 마련을 위하여 시·도교육청 장학사 협의회를

〈표 4-2-2〉 2013학년도 수능 시행 업무 추진 일정

추진 업무	추진 일정	비고
○ 시행 기본 계획 발표	3.28(수)	홈페이지
○ 시·도교육청 장학사 협의회 회의	4.19(목)~4.20(금)	시·도교육청 담당자 참석
○ 업무처리지침 설명회	6.21(목)~6.22(금)	시·도교육청 담당자 참석
○ 시행 세부 계획 공고	7.2(월)	중앙일간지에 공고
○ 원서 접수 프로그램 설명회	8.8(수)~8.9(목)	시·도 및 시험지구 담당자 참석
○ 응시원서 접수	8.22(수)~9.6(목)	
○ 시험장 배치 프로그램 설명회	8.28(화)~8.29(수)	시·도 및 시험지구 담당자 참석
○ 원서 접수 내역 변경	9.4(화)~9.6(목)	
○ 원서 접수 결과 보도자료 배포	9.7(금)	
○ 시험장 배치	9.13(목)~10.5(금)	시·도 및 시험지구 교육청
○ 출제본부 개설 및 운영	10.6(토)~11.8(목)	
○ 응시원서 및 책상 부착용 스티커 출력	10.10(수)~10.26(금)	시·도 및 시험지구 교육청
○ 답안지 인쇄	10.19(금)~11.2(금)	
○ 채점위원회 구성 및 운영	10.22(월)	
○ 인쇄본부 개설 및 운영	10.23(화)~11.8(목)	
○ 답안지 견본 홈페이지 게시	10.24(수)	홈페이지
○ 중앙협력관 회의	10.30(화)	
○ 특별관리대상자 문제지 및 듣기 평가 CD 인수	11.4(일)	출제본부→인쇄본부
○ 문·답지 배부	11.5(월)~11.7(수)	인쇄본부
○ 종합상황실 설치 및 운영	11.5(월)~11.9(금)	
○ 수험생 예비소집	11.7(수)	
○ 시험일	11.8(목)	
○ 답안지 인수	11.8(목)~11.9(금)	
○ 문제 및 정답 이의신청 접수	11.8(목)~11.12(월)	홈페이지
○ 채점본부 설치 및 운영	11.9(금)~11.28(수)	
○ 응시수수료 환불 신청	11.12(월)~11.16(금)	수능 정보시스템을 통해 신청
○ 문제 및 정답 이의신청 심사	11.12(월)~11.19(월)	
○ 샤프펜 및 수정테이프 설문조사 실시	11.14(수)~11.20(화)	
○ 정답 확정 공개	11.19(월)	홈페이지
○ 채점결과 발표 기자 설명회	11.27(화)	
○ 온라인 성적 출력	11.27(화)~11.29(목)	원서 접수처에서 출력
○ 성적 통지	11.28(수)	
○ 응시수수료 환불	12.10(월)	

〈표 4-2-3〉 학년도별 주요 시행 변경 사항

학년도	주요 변경 사항
1994	· 시험을 2회 실시함(1차 : 8.20, 2차 : 11.16).
1995	· 수리탐구 영역을 수리·탐구(I)과 수리·탐구(II)로 구분하고 계열별 차등 출제함.
1996	· 외국어 영역 듣기 문항이 8개에서 10개로 증가함.
1997	· 문항 수(200→300문항), 총점(200→400점), 시험 시간(360→390분)이 증가함. · 수리에 주관식 문항이 20% 포함함. · 외국어 영역 듣기 문항이 10개에서 12개로 증가, 말하기 문항을 5개 추가함.
1998	· 맹인 수험생에게 점자 문제지 및 음성 평가 도구(녹음 테이프)를 제공함.
1999	· 주관 기관이 국립교육평가원에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으로 변경됨. · 제6차 교육과정을 적용하고, 표준점수제 및 수리·탐구(II)에 과목선택제를 도입함. · 대학에 성적자료(CD)를 제공함.
2000	· 400점 기준 변환표준점수에 의한 백분위점수를 표기함. · 시험실당 수용 인원을 40명 이하에서 32명 이하로 축소함.
2001	· 제2외국어 영역이 추가됨. · 언어와 외국어 영역 시험 시간 단축 및 문항 수 축소
2002	· 수리·탐구(I)을 수리 영역으로, 수리·탐구(II)를 사회탐구와 과학탐구로 분리함. · 총점 및 소수점 표기 폐지 및 9등급제를 도입함.
2003	· 수능 시험의 안정적 출제 체제 구축을 위한 상시 전담 기구를 설치함. · 모의평가를 처음 시행함(1회, 9.3).
2004	· 언어, 사회탐구, 과학탐구, 외국어(영어), 제2외국어 영역의 문항당 배점을 변경함. · 모의평가를 2회 실시함(1차 : 6.11, 2차 : 9.2).
2005	· 인문, 자연, 예·체능계열 구분이 없어지고, 직업탐구 영역을 신설함. · 언어, 수리, 외국어(영어), 사회/과학/직업탐구, 제2외국어/한문 영역 중 수험생의 선택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 영역에 응시할 수 있음.
2006	· 부정행위 방지종합대책을 마련함. (시험실당 수험생 수를 28명 이하로 운영, 반입금지물품 및 휴대가능물품 명시) · 응시수수료를 단계별로 6,000원씩 인상함. · 필적확인문구를 답안지에 기재함.
2007	· 대학에 제공하는 성적 자료를 CD ROM 제공에서 온라인 제공으로 변경함.
2008	· 언어 영역 문항 수(60→50문항) 및 시험 시간(90분→80분)이 축소됨. · 수험생에게 제공하는 성적이 영역/과목별로 표준점수, 백분위, 등급 제공에서 등급만 제공하는 것으로 변경됨.
2009	· 교육과정 부분 개정에 따라 사회탐구 영역의 국사 과목 출제 범위에 근·현대사 내용이 포함됨. · 수험생에게 제공하는 성적이 영역/과목별로 표준점수, 백분위 등급으로 변경됨. · 특별관리대상자 중 맹인, 저시력, 뇌병변 수험생의 시험 시간이 전년 대비 확대됨.
2010	· 문제지 표지 및 합권 제작함. - 매 교시별 문제지 표지 제작 - 탐구 영역과 제2외국어/한문 영역의 표지에 문제지 구성 내역을 안내하고, 영역별로 단일 합권(1권)으로 제작(단, 직업탐구는 2권) · 특별관리대상자 명칭을 변경함. - 약시(저시력)자→저시력자, 뇌성마비(뇌병변)자→뇌병변자

학년도	주요 변경 사항
2011	· EBS 수능 교재와 70% 연계하여 출제함. · 원서 접수, 시험장 배치, 온라인 성적 통지를 위한 '수능 정보시스템' 개발 및 운영함. · 듣기 평가를 TAPE에서 CD로 전면 교체하여 실시함.
2012	· 사회 및 과학탐구 영역의 최대 선택 과목 수(4→3과목)가 축소되어, 전체 시험 시간이 30분 단축됨. · 수험생의 부담 경감을 위해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미응시자에게 응시수수료의 60%를 환불함. · 졸업생, 검정고시 수험생 등의 경우, 희망자에 한하여 전자메일로도 성적통지표를 발송함. · 제2외국어/한문 영역 문제지 면수가 과목별 3면에서 4면으로 증면되어, 시험 시간에 본인의 선택 과목 문제지만 뽑아 책상 위에 올려놓고 나머지 문제지는 책상 밑에 내려놓도록 함.
2013	· 응시수수료 환불 대상 사유를 확대함(군입대, 사망 추가). · 필적확인문구를 답안지에서 문제지 표지에 제시하는 것으로 변경함. · 이미지 스캐너로 판독하여 채점을 실시함(2011학년도까지는 OMR판독기로 채점 실시).

실시하여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고, 시·도의 의견 및 개선사항 등을 반영하여 업무처리지침을 확정한다. 그리고 시·도교육청 담당 장학사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실시하고, 각 시·도에서는 자체 실정을 반영하여 시·도별 업무처리지침을 마련한다.

수능 업무는 시험일을 기준으로 시행 세부계획 공고일, 원서 접수 기간, 출제본부 및 인쇄본부 운영 기간 등을 역산하여 추진 기간을 산정한다. <표 4-2-2>는 2013학년도 수능 시행 업무 추진 일정을 정리한 것이다.

1995학년도부터 수요일에 실시되었던 시험은 2007학년도에 목요일로 변경되었다. 문제지가 시험일 3일 전부터 인쇄본부에서 각 시·도로 운송되는데, 시험일이 수요일인 경우 일요일부터 문제지 운송이 시작되어, 주말 고속도로 교통 혼잡으로 원활한 수송이 이뤄지지 않아 시험일을 수요일에서 목요일로 변경하여 실시하게 되었다.

시험이 2회 치러진 1994학년도에 1차 시험일은 8월 20일, 2차 시험일은 11월 16일이었으나 교육 현장에서 교육과정 운영이 끝나는 시점에 실시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대학의 입시 및 등록 일정을 고려하여 1995학년도와 1996학년도에는 11월 넷째 주 수요일에 실시하였다. 그러나 11월 넷째

주는 기온이 낮아 수험생이 시험을 치르는 데 어려움이 발생하여 1997학년도부터 2001학년도까지는 11월 셋째 주 수요일에 실시되었다. 2002학년도 수능부터는 보다 다양화된 대학 입학 전형에 필요한 대학별 입시 전형 기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시험일이 1주일 정도 앞당겨져 11월 둘째 주 수요일에 시험이 실시되었다.

2005학년도부터 2013학년도까지 수능 시험은 11월 둘째 주 또는 셋째 주에 실시하였다. 다만, 2006학년도에는 국가 행사인 APEC 회의가 11월 셋째 주에 개최되어 수능 시험을 1주일 정도 늦추어 11월 넷째주인 11월 23일(수)에 실시하였고, 2011학년도 역시 국가 행사인 G20 정상 회담으로 11월 둘째 주에서 1주일 연기된 11월 18일(목)에 실시하였다.

<표 4-2-3>은 학년도별로 주요 변경 사항을 정리한 것이다.

(2) 원서 접수

원서 접수는 수능 정보시스템을 통해 이루어지며, 원활한 원서 접수를 위해 시·도 및 시험지구 담당자를 대상으로 프로그램 설명회를 실시하고, 시·도 및 시험지구에서도 자체 일정을 수립하여 학교 담당자를 대상으로 프로그램 설명회를 실시한다.

원서 접수는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을 기준으로 2013학년도에의 경우, 8.22(수)~9.6(목)까지 12일간 이뤄졌으며, 원서 접수 마감 전 3일은 원서 접수 내역 변경 기간으로 운영하여 선택 영역/과목을 변경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2002학년도 수능까지는 원서 접수가 대부분 토요일에 마감되었으나, 토요일 오후에도 접수가 시행되는 것으로 알고 접수를 미루고 있었던 수험생의 민원에 따라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2003학년도에 접수 시기를 일부 조정하여 접수 마감일을 화요일로 변경하였다. 2004학년도부터 금융기관 토요일 휴무제가 실시되어 토요일을 제외한 평일에만 접수를 실시하고 있다.

원서 접수 시 모든 수험생이 공통으로 제출한 서류는 응시원서 1통, 사진 2매(응시원서 및 수험표 부착용) 및 응시수수료이며, 특별관리대상자, 검정고시 합격자 및 기타학력 인정자 등 별도의 증명을 필요로 하는 경우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였다.

원서 접수 방법 개선 및 변화를 사례별로 정리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증빙서류 규격 강화

2005학년도까지 응시원서에 부착하는 사진의 규격은 '3cm×4cm'였으나, 2006학년도에 대리 시험 발생 가능성을 차단하여 부정행위를 예방하고자 '최근 3개월 이내에 양쪽 귀가 나오도록 정면 상반신을 촬영한 여권용 사진(3.5cm×4.5cm)'으로 변경하였고, 2007학년도에는 '최근 6개월 이내'로

사진 규격을 확대하였다.

2006학년도에는 대리 접수를 장애인, 수형자, 군복무자, 입원 중인 환자, 원서 접수일 현재 해외 거주자로 엄격하게 제한하였으며, 시·도교육감이 요구하는 증빙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였다.

(나) 수험생 편의 확대

2008학년도부터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고교 졸업자와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이 있는 자 중 제주특별자치도 이외의 지역에서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의 편의를 위하여 원서 접수 기간 중 일부 기간 동안 서울 성동교육청에 접수 장소를 별도로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다.

(다) 접수 시스템 변경

2002학년도까지의 접수 시스템 방식은 수험생이 기재용 응시원서와 전산처리용 OMR 카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이에 근거하여 평가원에서는 시·도별 지원자 명부를 작성하고 수험 번호를 일괄 부여하였다. 그러나 수험생이 OMR 카드를 정확히 작성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서 확인 및 수정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런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2003학년도에 평가원은 원서 접수 전산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수험생이 응시원서를 교부받아 직접 수기로 작성한 후 사진을 부착하고 서명을 날인하여 접수처에 제출하면, 접수처 담당자가 평가원에서 배포한 원서 접수 전산 프로그램에 원서 내용을 입력하였다. 그러나 이 시스템은 응시원서 입력 후 원본과 대조하는 작업을 수행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으며, 관련 작업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시·도 및 시험지구 교육청의 업무에 상당한 부담이 되었다.

〈표 4-2-4〉 학년도별 원서 접수 관련 주요 내용

학년도	작성 및 접수 기간	변경 신청 기간	접수 방법 및 특이사항
1994 1차	6.11(금)~24(목)	-	· 1차 응시희망자 : 1차 시험에 원서 제출 · 2차 응시희망자 : 2차 시험에 원서 제출 · 2회 모두 응시자 : 1차 시험에 한 번만 제출
1994 2차	10.2(토)~11(월)	-	-
1995	9.12(금)~27(화)	-	· 출신학교 단위로 일괄 제출 원칙 · 타 시·도교육청 응시자와 검정고시 합격자 등은 개별 제출 가능
1996	9.11(월)~23(토)	-	-
1997	9.2(월)~14(토)	-	-
1998	9.1(월)~13(토)	-	-
1999	9.1(화)~15(화)	-	-
2000	9.1(수)~11(토)	-	-
2001	9.1(금)~16(토)	-	-
2002	8.27(월)~9.8(토)	-	· 3개 시·도교육청에서 원서 접수 전산화 시범 적용
2003	8.28(수)~9.10(화)	-	· 원서 접수 전산화(원서 접수처에서는 평가원이 제공한 원서 접수 전산 프로그램에 의거 지원자 명부 작성)
2004	8.27(수)~9.16(화)	-	· 졸업생 중 타 지역 거주자가 출신고교에 접수하는 것에 대한 민원이 많아 접수방법 개선 · 금융기관 토요일 휴무제 실시로 토요일에는 접수를 실시하지 않음.
2005	8.31(화)~9.15(수)	-	-
2006	8.30(화)~9.14(수)	-	· 응시원서 부착 사진 변경(가로3cm×세로4cm→최근 3개월 이내에 양쪽 귀가 나오도록 정면상반신을 촬영한 3.5cm×4.5cm 여권용 사진)
2007	8.29(화)~9.13(수)	-	· 응시원서 부착 사진 규격 확대(최근 3개월 이내→최근 6개월 이내 촬영)
2008	8.28(화)~9.12(수)	-	-
2009	9.1(월)~9.17(수)	-	-
2010	8.26(수)~9.10(목)	-	-
2011	8.25(수)~9.9(목)	9.7(화)~9.9(목)	· 인터넷 전용 사이트인 '수능 정보 시스템' 개발 및 운영(수험생이 응시원서 접수 프로그램에 입력할 기초 자료를 별도 양식에 기재하여 접수처에 제출한 후, 응시원서를 출력받아 접수내용을 확인하고 사진 부착 및 서명 날인하여 제출) · 응시원서 작성 내역을 수정, 변경할 수 있는 기간을 운영함.
2012	8.24(수)~9.8(목)	9.6(화)~9.8(목)	-
2013	8.22(수)~9.6(목)	9.4(화)~9.6(목)	-

2011학년도에 평가원에서는 원서 접수, 시험장 배치 및 온라인 성적 통지가 가능한 인터넷 전용 사이트인 '수능 정보시스템'을 개설하였으며, 이 시스템을 통해 원서를 실시간으로 접수받게 되었다. 수험생이 정보시스템에 입력할 기초 자료를 별도

양식에 기재하여 접수처에 제출하면, 접수 담당자가 시스템에 해당 내용을 입력한 후 응시원서를 출력하여 수험생에게 해당 내용을 확인하도록 하고 사진 부착 및 서명을 날인하면 원서 접수가 완료되었다. 원서 접수의 전산화 운영으로 응시 현황 검색 및 관련

〈표 4-2-5〉 학년도별 지원 인원, 응시 인원 및 응시율

학년도	지원 인원(명)						응시 인원 (명)	응시율 (%)
	총계	성별		학력별				
		남	여	재학생	졸업생	검정고시 등		
1994 1차	742,668	437,465 (58.9%)	305,203 (41.1%)	521,806 (70.3%)	213,459 (28.7%)	7,403 (1.0%)	716,326	96.5
1994 2차	750,181	444,612 (59.3%)	305,569 (40.7%)	496,617 (66.2%)	243,826 (32.5%)	9,738 (1.3%)	726,634	96.9
1995	781,749	452,360 (57.9%)	329,389 (42.1%)	477,960 (61.1%)	261,492 (33.5%)	42,297 (5.4%)	757,488	96.9
1996	840,661	478,707 (56.9%)	361,954 (43.1%)	526,833 (62.7%)	300,482 (35.7%)	13,346 (1.6%)	809,867	96.3
1997	824,374	472,527 (57.3%)	351,847 (42.7%)	545,023 (66.1%)	268,044 (32.5%)	11,307 (1.4%)	795,338	96.5
1998	885,321	495,179 (55.9%)	390,142 (44.1%)	613,376 (69.3%)	261,424 (29.5%)	10,521 (1.2%)	854,272	96.5
1999	868,643	475,625 (54.8%)	393,018 (45.2%)	623,130 (71.7%)	233,893 (26.9%)	11,620 (1.4%)	839,837	96.7
2000	896,122	483,602 (54.0%)	412,520 (46.0%)	631,745 (70.5%)	250,064 (27.9%)	14,313 (1.6%)	868,366	96.9
2001	872,297	465,546 (53.4%)	406,751 (46.6%)	603,238 (69.1%)	254,538 (29.2%)	14,521 (1.7%)	850,305	97.5
2002	739,129	390,473 (52.8%)	348,656 (47.2%)	541,662 (73.3%)	185,946 (25.1%)	11,521 (1.6%)	718,441	97.2
2003	675,922	356,418 (52.7%)	319,504 (47.3%)	482,089 (71.3%)	179,880 (26.6%)	13,953 (2.1%)	655,384	97.0
2004	674,154	357,421 (53.0%)	316,733 (47.0%)	476,129 (70.6%)	184,317 (27.4%)	13,708 (2.0%)	642,583	95.3
2005	610,257	324,700 (53.2%)	285,557 (46.8%)	435,538 (71.4%)	161,524 (26.5%)	13,195 (2.1%)	574,218	94.1
2006	593,806	314,323 (52.9%)	279,483 (47.1%)	422,310 (71.1%)	159,190 (26.8%)	12,306 (2.1%)	554,345	93.4
2007	588,899	313,715 (53.3%)	275,184 (46.7%)	425,396 (72.2%)	151,697 (25.8%)	11,806 (2.0%)	551,884	93.7
2008	584,934	312,064 (53.4%)	272,870 (46.6%)	446,597 (76.3%)	126,729 (21.7%)	11,608 (2.0%)	550,588	94.1
2009	588,839	313,002 (53.2%)	275,837 (46.8%)	448,472 (76.2%)	127,586 (21.7%)	12,781 (2.1%)	559,475	95.0
2010	677,834	358,142 (52.8%)	319,692 (47.2%)	532,436 (78.5%)	130,658 (19.3%)	14,740 (2.2%)	638,216	94.2
2011	712,227	379,385 (53.3%)	332,842 (46.7%)	541,880 (76.1%)	154,661 (21.7%)	15,686 (2.2%)	668,991	93.9
2012	693,631	371,771 (53.6%)	321,860 (46.4%)	526,418 (75.9%)	151,887 (21.9%)	15,326 (2.2%)	648,946	93.6
2013	668,522	356,924 (53.4%)	311,598 (46.6%)	510,972 (76.4%)	142,561 (21.3%)	14,989 (2.3%)	621,336	92.9

자료 활용이 용이해지고 응시원서 원본 대조 작업이 필요 없게 되어 시·도 및 시험지구 교육청의 업무가 많이 경감되었다.

또한, 2011학년도부터는 응시원서 작성 내역을 수정, 변경할 수 있는 기간을 별도로 운영하여 이미 원서를 접수했다라도 지정된 기간 내에 시험 영역 및 과목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였다.

〈표 4-2-4〉는 학년도별 원서 접수 기간, 변경 신청 기간, 접수 장소, 접수 방법 등 주요 내용을, 〈표 4-2-5〉는 원서 접수 결과 지원 인원 및 응시 인원을 정리한 것이다.

지원 인원은 2011학년도에 712,227명으로 최대치를 기록한 이후 2012학년도 693,631명, 2013학년도 668,522명으로 점차 감소하고 있다.

(3) 응시수수료

수능 응시수수료는 교육부, 기획재정부 등 유관 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결정하는데, 1994학년도 수능에서 12,000원의 응시수수료가 책정되었다. 2000학년도에 부정행위 방지대책의 일환으로 시험실당 수험생 수를 감축하고, 시험 감독관 감독 시간을 축소함에 따라 관리 비용이 증액되어 응시수수료를 5,000원 인상하였으며, 2001학년도와 2003학년도에 제2외국어 시행 등의 인상 요인이 발생하여 각각 2,000원씩을 인상하였다.

2005학년도 선택형 수능 체제 개편에 따른 선택 영역/과목의 확대에 출제 및 검토위원이 증가하고, 시험장 증설 및 시험 감독관이 대폭 증원되어 응시수수료를 조정하였으며, 응시수수료의 합리적인 징수를 위하여 언어, 수리, 외국어(영어), 사회

〈표 4-2-6〉 학년도별 응시수수료 현황

선택영역 학년도	응시수수료	비고
1994~1999	12,000원	
2000	15,000원	· 시험실당 수험생 수 감축(40명→32명) 및 시험 감독관 감독 시간 축소(4개 교시 전일 근무→3개 교시만 근무)에 따라 감독관이 증원되어 응시수수료를 조정함.
2001~2002	20,000원	· 제2외국어 시행에 따른 시험장 및 시험실 운영 경비, 감독관 수당 등을 반영함.
2003~2004	22,000원	· 지원자 수의 대폭 감소로 인하여 최소한의 관리·운영을 위해 인상함.
2005	· 3개 영역 이하 : 31,000원 · 4개 영역 : 36,000원 · 5개 영역 : 41,000원	· 선택형 수능체제로의 개편으로 선택 영역/과목이 늘어남에 따라 출제 및 검토위원이 증가하고, 시험장 증설 및 시험 감독관이 대폭 증원되어 응시수수료를 조정하였으며, 응시수수료의 합리적인 징수를 위하여 5개 영역 중에서 수험생이 선택한 영역 수에 따라 3단계로 차등하여 징수함.
2006~2013	· 3개 영역 이하 : 37,000원 · 4개 영역 : 42,000원 · 5개 영역 : 47,000원	· 시험실당 수험생 수 감축(32→28명), 복도 감독관 증원, 출제·검토위원 수당 현실화, 응시 인원 감소 예상 등 인상 요인이 발생하여 전년도 대비 단계별로 6,000원씩 일률적으로 인상함.

/과학/직업탐구, 제2외국어/한문의 5개 영역 중에서 수험생이 선택한 영역 수에 따라 3단계로 차등하여 징수하였다.

2004학년도에 22,000원이었던 응시수수료는 2005학년도에 3개 영역 이하 선택 시 31,000원, 4개 영역 선택 시 36,000원, 5개 영역 선택 시에는 41,000원으로 조정되었으며, 2006학년도에는 단계별로 6,000원씩 일률적으로 인상되었다.

어려운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2006학년도부터 현재까지 응시수수료를 동결하고 있으며, <표 4-2-6>은 학년도별 응시수수료 현황을 나타낸 것이다.

(4) 시험지구 및 시험장 현황

시험지구는 6월 중에 확정하여 7월에 시행 세부 계획 공고를 통해 발표한다. 시험지구의 증설 및 조정은 시·도교육감의 의견 및 수험생 편의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며, 1994학년도 수능에서 51개로 운영하였던 시험지구는 2013학년도에는 85개로, 34개가 증가되었다. <표 4-2-7>은 1994학년도 수능 시험지구를, <표 4-2-8>은 학년도별 시험지구 증설 현황, 시험장, 시험실 현황을 나타낸 것이다.

시험장은 듣기 평가에 대비한 방송 시설, 교통 문제 등 제반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도교육감이 결정하며, 수험생 체격에 맞는 책·걸상 비치를 위하여 고등학교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표 4-2-7> 1994학년도 수능 시험지구

시·도별	시험지구 수	시험지구 명
서울	9	동부, 서부, 남부, 북부, 중부, 강동, 강서, 강남, 동작
부산	2	동부, 서부
대구	1	대구
인천	1	인천
광주	1	광주
대전	1	대전
경기	4	수원, 성남, 의정부, 부천
강원	5	춘천, 원주, 강릉, 속초, 삼척
충북	4	청주, 충주, 제천, 옥천
충남	4	천안, 공주, 대천, 서산
전북	5	전주, 군산, 이리, 정주, 남원
전남	3	목포, 나주, 순천
경북	4	포항, 경주, 구미, 안동
경남	5	마산, 울산, 진주, 창원, 거창
제주	2	제주, 서귀포
계	51	

〈표 4-2-8〉 학년도별 시험지구 증설, 시험장, 시험실 수

학년도	시험지구			시험장 (개)	시험실 (개)	비고
	지구 수(개)	증설 수(개)	증설 지구			
1994 1차	51	-		658	18,653	
1994 2차	51	-	이전 학년도와 동일	664	18,838	
1995	56	5	경기(평택), 전남(여수), 경북(영주,상주), 경남(밀양)	702	19,767	
1996	59	3	경기(안양), 전남(해남), 경북(김천)	749	21,252	
1997	67	8	서울(성동,성북), 경기(고양,남양주), 강원(태백), 충남(논산,홍성), 경남(김해)	771	20,887	
1998	69	2	경기(안산), 경북(경산)	820	22,410	
1999	70	1	강원(동해)	828	22,046	
2000	71	1	전남(담양)	1,017	28,304	시험실당 수험생 수 축소(40→32명)
2001	73	2	경기(광명, 이천)	1,054	27,843	
2002	73	-	이전 학년도와 동일	938	23,668	
2003	73	-	이전 학년도와 동일	878	21,723	
2004	73	-	이전 학년도와 동일	876	21,710	
2005	73	-	이전 학년도와 동일	912	21,567	
2006	75	2	충남(아산), 전북(김제)	966	23,076	시험실당 수험생 수 축소(32→28명)
2007	76	1	경기(용인)	971	24,056	
2008	78	2	경기(군포,광주하남)	980	24,110	
2009	78	-	이전 학년도와 동일	996	24,588	
2010	79	1	경기(화성오산)	1,124	26,350	
2011	82	3	경기(시흥,동두천양주), 전남(광양)	1,206	27,829	
2012	84	2	경기(김포,파주)	1,207	26,904	
2013	85	1	세종	1,191	25,992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세종특별자치도 추가

경우에는 중학교에도 시험장을 설치한다.

시험장 배치는 수능 정보시스템을 통해 이루어지며, 2013학년도 기준으로 시험장 및 시험실 배치 조건은 다음과 같다.

시험장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한 시험장에서

1개 학교의 수험생 구성비가 그 시험장 전체 인원의 40% 이내가 되도록 하며, 시·도교육감이 부득이하다고 판단하여 동일학교 수험생 구성비가 시험장 전체 인원의 40%를 초과한 경우에는 동일학교 학생 비율을 고려하여 감독 교사 수를 증원 배치하거나

시험실당 학생 수를 감축하여 운영한다.

시험실은 성별, 탐구 영역별, 탐구 영역 선택 과목 수를 기준으로 우선 배치하고, 시험실당 수험생 수는 28명 이하로 구성한다. 또한, 1개 시험실에 같은 학교 출신자가 가능한 한 적게 배치되도록 한다.

시험장 및 시험실 배치가 완료되면 수험생의 수험 번호가 생성되는데, 수험 번호는 시험지구 번호 2자리, 시험장 번호 2자리, 시험실 번호 2자리, 수험생 위치 2자리로서 총 8자리로 구성된다.

시험장이 결정되면 시험장 책임자는 듣기 평가 실시에 지장이 없는 곳, 책상과 의자의 높이가 수험생에게 적절하고 상태가 양호한 곳, 시험장 관리 본부와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고 교실 전체가 밝은 곳, 시험장 책임자와 연락이 용이한 곳, 수험생에게 편리한 곳 등을 고려하여 시험실을 설치한다.

부정행위 방지대책의 일환으로 수험생간 간격을 적절히 유지하기 위하여 시험실당 수험생 수를 2000학년도에 40명에서 32명으로, 2006학년도에 32명에서 28명 이하로 축소 배치하면서 시험실이 증가하였다.

2011학년도에는 거주지에 시험장이 없어서 타지역으로 원거리 이동하여 시험을 보는 수험생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수능 시험장 미설치 지역 해소 방안'을 수립하였으며, 46개 시·군에 시험장을 대폭 확대 설치하였다. 이로써 일명 '원정 수능'에 대한 해결 방안이 마련되었으며, 원거리 이동 수험생의 부담 경감 및 관련 민원을 해소하였다.

시험장 관리요원은 책임자(교장), 부책임자(교감), 시·도교육청에서 파견한 파견 감독관, 시험 감독관, 복도 감독관, 대기실 감독관, 본부요원, 관리요원, 순찰요원, 경찰요원으로 구성되며, 시험장 현황 등을 고려하여 시·도교육감이 실정에 맞게 운영한다.

(5) 시험 운영

(가) 시험 실시 준비

시험 감독관은 시·도교육청에서 관내 교사 중에 선정하여 배치하며, 시험실당 매교시 2명으로 배치하되, 4교시에는 선택 과목 시행으로 인한 시험 시간 중 문제지 회수 및 선택 과목 확인 등의 업무가 추가되어 3명으로 증원하여 운영한다. 평가원에서는 시험 시행 물품을 제공한다. 2005학년도 수능부터 수험생이 답안지 표기를 잘못하였을 경우 수정할 수 있도록 수정테이프를 시험실당 5개씩 제공하고, 교육부의 부정행위 방지 종합대책에 따라 2006학년도부터 수험생에게 샤프펜을 제공하기 시작하였으며, 샤프펜 및 수정테이프는 평가원에서 일괄 구매하여 각 시·도로 배부하였다.

시·도에서는 평가원에서 제작 및 구매하여 배부한 샤프펜, 수정테이프, 시험실 전면 부착 안내문, 감독관 업무 안내 브로셔와 각 시·도에서 제작 및 구매한 컴퓨터용 사인펜, 수험생 유의사항 책자, 감독관 유의사항 책자를 시험 시행에 활용한다.

또한, 시험 실시를 위한 준비 작업으로, 시험지구에서는 수능 정보시스템에서 응시원서, 수험표 및 책상용 스티커를 출력하여 부착하는 작업을 실시한다. 시험장 학교에서는 시험장 정문 출입구에 시험장 안내표 및 시험실 배치도를, 시험실 출입구 옆에는 수험 번호 안내표를, 시험실 전면에는 평가원에서 제작하여 배부한 전지 크기의 '답안지 작성 유의사항 및 시험 시간표' 및 '시험장 반입 금지물품 및 소지 가능 물품 안내'를 부착한다.

(나) 수험생 예비소집

시험일 전일에는 수험생을 대상으로 예비소집을 실시하며, 예비소집 장소에는 시험실 반입 금지물품 등에 대한 사전 고지 및 시험실 배치도와 교통 안내 등을 포함한 상세한 안내판을 게시하고, 수험표를 교부한다.

(다) 시험관리 종사자 교육 실시

평가원에서는 감독관 사전 교육을 위한 ‘감독관 유의사항’ 동영상과 책자 및 시험 당일 감독 업무 수행 시 활용할 수 있는 ‘감독관 업무 안내 브로셔’를 제작하여 각 시·도에 배부한다. 시·도에서는 감독관, 관리요원, 순찰요원 등 시험 종사자 전원을 시험 전에 소집하여 시험 진행 요령, 시험실 배치도, 감독관 근무요령 및 수험생 유의사항 내용 등에 철저히 교육하고 서약서를 징구하였다. 특히, 시험 감독관에게는 듣기 평가 시 유의사항, 수험생 불만 예방도 포함하여 교육하였다.

(라) 상황실 설치

시·도 및 시험지구는 인쇄본부에서 문·답지를 인수하는 시점부터 상황실을 설치하고, 전용 전화 및 상황요원을 배치하여 평가원 종합상황실과의 유기적 연계체제를 유지한다. 특히, 평가원은 문·답지 배부 시작일부터 답안지 인수 완료일까지 종합상황실을 설치하며, 시험지구의 야간 문·답지 보관 상황 확인 등을 위해 24시간 운영하고, 문·답지 운송 및 보관 상황을 시험지구별로 1일 2회 접수받아 관리하였다. 또한, 시험 당일 결시자 및 시험 관리와 관련한 각종 상황을 접수하여 처리하고, 응급 상황 발생 시 처리 방안 강구 등의

임무를 수행한다.

(마) 시험 실시 및 문제 및 정답 공개

시험일인 1교시 언어 영역 시험이 시작되면 출제 경향 등을 설명하는 출제위원장 기자회견을 교육부 브리핑룸에서 실시한다. 시험이 종료되면 수험생으로부터 회수한 문제지 및 듣기 평가 CD는 시·도교육감이 지정하는 장소에 시험일로부터 1년간 보관 후 폐기 처리하며, 답안지는 시험장 책임자가 회송용 상자에 넣어 봉인한 후 시험지구 책임자에게 회송하고, 시험지구 책임자는 평가원으로 운송한다. 수도권인 서울, 인천, 경기도는 시험 당일 저녁에, 나머지 지역은 시험일 다음날에 평가원에 답안지를 제출한다.

문제 및 정답은 평가원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는데, 2011학년도까지는 일반 수험생의 매 교시 종료 후에, 2012학년도부터는 특별관리대상자 중 맹인 수험생의 매 교시 종료 후에 공개하였다.

(바) 특별관리대상자 시험 운영

맹인, 저시력자, 청각장애 지필검사자, 청각장애 보청기 사용자, 뇌병변자, 지체부자유자 등 시험 특별관리를 필요로 하는 수험생은 특별관리대상자로 원서 접수를 받고 있으며, 공정한 시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시험 시간 연장 및 특수문제지 등을 제공하고 있다.

1994학년도 수능부터 맹인, 저시력자, 뇌병변 수험생에게는 시험 시간 연장을 제공하고 있으며, 2008학년도까지 맹인은 일반 수험생 시험 시간의 1.5배, 저시력자 및 뇌병변 수험생은 일반 수험생 시험 시간 대비 20분을 추가하여 운영하였다.

2009학년도부터 맹인은 일반 수험생 시험 시간의 1.7배를, 저시력자 및 뇌병변 수험생은 1.5배를 연장하여 운영하고 있다.

2013학년도 수능에서 특별관리대상자에게 제공되었던 특별 조치 사항은 <표 4-2-9>와 같다.

(6) 이의 신청

문제 및 정답의 이의 신청은 평가원 홈페이지에 전용 게시판을 설치하여 시험일로부터 5일간 접수를 받았으며, 이의심사실무위원회 및 이의심사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후 정답을 확정하여 평가원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한다.

(7) 응시수수료 환불

응시료 환불은 2012학년도부터 수능 미응시생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해주고자 응시수수료 환불을 위한 관련 법령(고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된 후, 실시하였다. 응시수수료 환불 신청 기간을 5일간 운영하여 원서 접수처를 통해 접수를 받은 후, 환불 신청자 중 시험 응시자, 환불 사유 미해당자 등을

<표 4-2-9> 2013학년도 수능 특별관리대상자 제공 내역

구분	시험 시간	특별 조치 사항
맹인	일반 수험생 시험 시간의 1.7배	· 점자 및 음성 평가 자료(1,3,4교시 녹음 테이프) ※ 3교시 음성 평가 자료는 2012학년도부터 제공
저시력자	일반 수험생 시험 시간의 1.5배	· 희망자에 한해 확대독서기 사용 가능 · 확대 문제지(118%, 200%, 350%) 제공 · 답안지 이기를 희망할 경우 이기 가능
뇌병변자	일반 수험생 시험 시간의 1.5배	· 답안지 이기를 희망할 경우 이기 가능
청각장애 지필검사 대상자	일반 수험생 시험 시간과 동일	· 듣기평가를 필답고사로 대체

<표 4-2-10> 2012~2013학년도 응시수수료 환불 내역

학년도	환불 신청 내역			환불 내역		
	신청 기간	신청 장소	제출 서류	환불 인원	환불액	환불 방법
2012	2011. 11.14(월) ~ 11.18(금)	원서를 접수한 곳	응시수수료 환불 신청서, 증빙서류, 신분증	21,319명 (질병 290, 수시모집 21,029)	528,821 천원	수험생 본인명의 계좌로 입금
2013	2012. 11.12(월) ~ 11.16(금)	전년도와 동일함.	전년도와 동일함.	22,592명 (질병 321, 수시모집 22,251, 군입대 17, 사망 3)	556,268 천원	환불 방법 확대 (수험생 본인 명의 및 직계가족 명의 계좌 가능)

제외한 인원에 대해 응시수수료의 60%를 수험생이 신청한 계좌로 입금 처리한다.

2012학년도에는 천재지변, 질병, 수시모집 최종 합격 등의 사유에 해당하여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수험생을 대상으로 환불을 실시하였으며, 2013학년도에는 군입대, 사망의 2가지 사유를

추가하여 실시하였다.

〈표 4-2-10〉은 2012학년도와 2013학년도 응시수수료 환불 신청 내역 및 환불 인원, 환불액 등 실제 환불 내역을 정리한 것이다.

제3절

채점 및 결과 보고 과정

김순강(한국교육과정평가원)

민경석(세종대학교)

가. 채점본부 운영

(1) 채점본부 구성

채점본부 운영 목적은 답안지 인수부터 수험생에게 성적통지표를 교부할 때까지의 모든 채점 절차 및 방법 등을 정하여 채점의 공정성 및 객관성,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채점본부는 총괄 책임자, 채점운영대표, 전산운영팀장, 채점관리팀장, 채점관리요원, 채점운영요원, 보안요원으로 구성된다.

채점본부 운영 기간은 시험일 당일로부터 수험생에게 성적통지표가 교부되는 날까지이다. 응시 인원 및 채점시설 변화에 따라 운영 기간은 변화해 왔으며, 2013학년도에 경우에는 채점본부가 20일간 운영되었다.

채점본부에서는 채점 전반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대학 교수 및 전문가로 구성되는 채점 위원회를 운영한다. 채점 위원회는 위원장 및 위원, 간사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관련 분야의 전문적인 학식과 덕망을 갖춘 원내·외 인사로 위촉한다. 채점위원은 10인 이하로 구성하되, 교육 평가 전문가, 전산 분야 전문가, 교육부 업무 담당자, 일선 학교 교장(감) 또는 교사, 학부모

단체 대표, 변호사 등으로 구성되며, 수능본부장과 정보화센터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하고, 간사는 수능운영팀장이 맡는다. 채점 위원회는 시험일 기준 약 20일 이전까지 구성을 완료하고, 수험생에게 성적을 통지하는 날까지로 하여 약 50일간 운영한다.

채점 위원회의 구체적인 역할은 채점에 대한 처리 절차 및 운영방법, 채점 원칙 및 세부 처리 기준에 대한 심의·의결, 표기 오류 답안지에 대한 판정 기준 심의·결정, 성적 발표 보도자료 작성 및 기자회견 등의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다. 세부적으로 1차 회의 시에는 채점 원칙 및 기준 등을 심의·의결하고, 2차 회의 시에는 채점 과정을 직접 참관하여 운영 상황을 점검하고, 3차 회의 시에는 채점 과정에서 발생하는 표기 오류 답안지 등에 대한 판정 기준을 심의·의결하고, 4차 회의 시에는 채점 결과에 대한 점검 임무를 수행한다. 또한, 성적통지표 배부일 이전에는 교육부 기자실에서 채점 결과 보도자료를 배부하는데, 이때 참석자는 채점위원장과 평가원장 등이다.

채점 업무 관리 체제는 '채점관리'와 '전산 운영'으로 이원화하여 업무 성격에 맞도록 체제를 구성한다. 채점관리 분야는 채점본부 개설 계획 및 채점본부 설치·운영, 보안 관리 등 채점 관리에 관한 사항을 수능본부 수능운영팀에서 주관하며, 전산 운영 분야는

답안지 판독 및 성적 처리, 성적통지표 온라인 출력 등의 사항을 정보화센터 채점관리팀에서 주관한다. 전산 운영 분야는 세부 업무별로 판독팀, 정보 확인팀, 판독확인팀, 성적처리팀으로 세분화하여 팀을 구성한다. 또한, 채점 시설 및 채점실 출입자 인적 보안 관리 등을 위하여 경찰 및 사설 보안요원으로 구성되는 합동 경비반을 운영하여 시설 보안 및 인원 통제 등의 임무를 수행하도록 한다.

판독팀은 OMR 답안지 판독 업무를 담당한다. 답안지 판독은 OMR 답안지에 수험생이 표기한 답란을 판독하여 답안 정보를 DB에 저장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판독팀은 판독 업무를 관리하는 관리요원 6명, 판독기를 직접 운영하는 채점 일용요원 약 60명으로 구성된다.

정보확인팀은 수험생의 시험 정보를 확인하는 업무를 담당하며, 시험 정보로는 문제지 문형 및 결시자, 백지 답안지 여부 등을 확인한다. 수험생의 답안지와 시험장에서 보내온 결시자 현황표 및 각종 서류 등을 상호 확인하여 오류를 바로 잡는 업무를

수행한다. 정보확인팀은 관리요원 4명과 각종 정보입력·검증을 위한 채점 일용요원 25명으로 구성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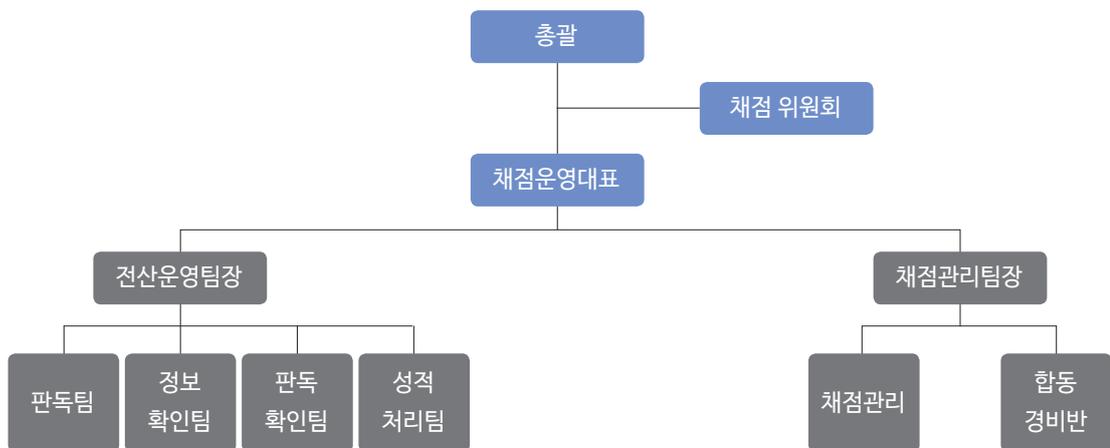
판독확인팀은 판독기가 오류 답안지로 분류하는 답안지를 확인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오류 답안지를 육안으로 여러 번 확인하는 절차를 통하여 답안 정보를 확정한다. 구성원으로는 관리요원 6명과 채점 일용요원 20명으로 구성된다.

성적처리팀은 수험생별 성적을 산정하고, 각종 통계자료 생성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성적 처리자는 3명으로 구성되고, 각각 프로그램을 직접 개발하여 운영 후 결과를 상호 교차 검토한다.

채점본부 구성 조직은 [그림 4-3-1]과 같다.

채점본부 총괄은 원장이 맡으며, 채점운영대표는 수능본부장, 전산운영팀장은 정보화센터장, 채점관리팀장은 수능운영팀장이 각각 맡는다.

채점을 위한 인력은 채점본부 구성 조직에 따라 약 50명의 관리 인력과 연인원 약 600명의 채점 일용 인력으로 구분된다. 관리 인력은 평가원 직원으로



[그림 4-3-1] 채점본부 구성 조직

구성되며, 채점 일용 인력은 공개 모집을 통하여 우수한 인력을 선발하되 해당 업무담 운영 기간 동안 임시적으로 근무한다. 이들은 전국 시험장으로부터 운송되는 약 5,600개 답안지 상자를 이동·정리, 답안지 상자 개봉 정리, 이미지 스캐너 운영, 육안 판정, 수기 채점에 이르기까지 채점 전반에 걸친 업무를 담당한다.

(2) 채점 과정 및 절차

채점 과정은 답안지 인수부터 시작하여 성적통지표 제공까지 단계별로 이루어지며, 세부 절차 및 방법, 원칙 등은 채점 위원회에서 정해진다.

답안지 인수는 시험 당일부터 다음날까지 진행되며, 전국 시험장에서 수합된 답안지를 관할 시험지구 교육청에서 경찰의 호송 하에 교육청 담당자와 함께 평가원으로 수송한 후 상자 단위로 인계한다. 답안지 상자를 인수 받을 때는 각각의 상자별로 연번 스티커를 부착하여 개수를 확인한다. 교육청 담당자와 평가원 담당자의 인수인계서 작성으로 인수인계가 종료된다. 인수된 답안지 상자는 시험지구별로 구분하여 밀차에 정리되고, 답안지 상자 개봉 및 정리 작업을 위하여 이동된다.

답안지 상자 개봉은 정확하고 신속한 답안지 판독을 위하여 시험장별, 교시별로 답안지 봉투를 분류하는 작업이다. 개봉 정리 작업을 위해서는 사전에 상자별 답안지 봉투 수를 정하고 스티커를 제작한다. 또한, 시험장에서 인수한 상자가 아닌 OMR 상자를 사용하므로 별도의 상자 제작이 필요하다. 시험장에서 인수된 답안지 상자는 규격이 일정치 않고, 재질이 약하여 쉽게 파손되기 때문에 규격이 동일하고 재질이 튼튼한 OMR 상자를 별도로 제작하여 사용한다. 개봉된 상자의 답안지 봉투는 정해진 일정량을 OMR 상자로 이동하여 정리·포장한다.

개봉 정리가 완료된 OMR 상자는 4단으로 제작된 밀차에 탑재하여 판독실로 이동한다. 모든 밀차에는 OMR 상자 현황표를 부착하여 답안지 관리가 용이하도록 하고, 탑재가 완료된 밀차는 시험장 번호순서대로 판독실로 이동된다.

답안지 판독은 이미지 스캐너를 사용하여 판독을 진행한다. OMR 판독기는 2011학년도까지만 사용하였고, 2012학년도 판독부터는 판독 방식을 전면 전환하여 답안지 이미지를 인식하여 판독하는 방식으로 변경하였다. 기존의 OMR 판독기 대신 이미지 스캐너를 도입, 운영하여 판독 일정 등을 단축하였다. 답안지 판독은 시험장 단위로 진행되며 답안지 봉투를 개봉하여 답안지를 스캔한다. 이미지 스캐너는 답안지 이미지를 생성하고, 동시에 인식 프로그램에 의해 수험생이 표기한 답안을 인식하여 답안정보를 DB에 저장한다. 응시원서 정보와 1:1 매칭을 통하여 답안지 판독이 진행되므로 답안지가 없거나 중복으로 판독될 수 없도록 시스템을 운영한다. 2011학년도까지는 답안지 판독 시 오류가 있는 답안지는 별도로 분류하는 절차가 있었으나, 2012학년도부터는 이미지 기반 판독으로 전환됨에 따라 오류 답안지는 별도로 구분하지 않고 정상 답안지와 함께 포장하였다. 오류 답안지는 추후 확인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이때 답안 이미지가 존재하기 때문에 실물 답안지는 열람할 필요가 없고 이에 따라 별도 포장이 필요하지 않게 되었다. 판독이 완료된 답안지는 해당 OMR 상자에 다시 포장하고, 해당 밀차에 탑재되어 답안지 보관실에 보관된다. 판독이 완료된 답안지 중 정상적인 답안지는 답안 정보가 확정되며, 수험 번호 및 문형, 답안에 오류가 있는 답안지는 추가 확인 절차가 진행된다.

수험 번호 표기 오류 답안지는 수험생의 필체 및 교시별 표기 상태 등을 고려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시험장에 확인 요청하는 절차를 진행하여 수험

번호를 수정 처리한다. 수험 번호가 수정 처리된 답안지는 별도로 관리하며, 추가적인 확인 및 검증 절차를 수행한다.

답안지 판독 과정에서 답안지에 문제지의 문형을 표기하지 않거나 정해진 문형과 다르게 문형을 표기한 경우, 해당 답안지는 시험장에 확인 요청하여 해당 수험생의 문제지 등을 확인 후 수정 처리한다. 또한, 답안지 판독 결과와 시험장에서 보내온 결시자 현황표를 상호 대조하여 결시 여부 결과가 다를 경우에도 시험장에 확인 요청하여 수정 처리한다. 채점 과정에서는 다양한 오류가 발생하므로 시험장과의 업무 연락이 빈번하며, 이를 위하여 답안지 오류 확인 업무가 종료될 때까지는 교육청 담당자가 대기하도록 전국 교육청에 협조 의뢰한다.

답안지 판독 과정에서 답안에 표기가 없거나 중복으로 표기한 것으로 인식된 답안지는 육안 확인 절차를 진행한다. 수험생들의 다양한 표기 방법 등에 따라 기계적인 인식으로 답안 정보를 확정하지 않고, 정확한 채점을 위하여 육안 확인 절차를 진행한다. 예를 들어, 답안 인식 프로그램이 답안에 표기가 없는 것으로 인식한 경우, 실제로 해당 문항에 표기가 없는 것인지 아니면 표기 방법이 잘못되어 인식하지 못한 것인지를 판정하게 된다. 표기 오류는 실제로 표기가 없거나, 크기가 작거나, 위치가 벗어났거나, 농도가 옅거나, 중복으로 표기하거나 하는 등의 많은 경우가 있으며, 이런 경우 채점 위원회에서 정한 판정기준으로 판정하여 답안 정보를 최종 확정한다.

오류 답안지는 각각의 다른 판정자가 3회 이상 판정하는 절차를 수행하도록 하여 공정성 및 정확성 등을 확보한다. 판정 과정에서 판정이 모호한 경우는 채점 위원회에 부의하여 확정한다.

답안지 판독과 오류 답안지 처리를 통하여 확정된 답안 정보는 성적 처리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답안 정보는 답안 유효 범위 값(1~5) 등의

논리적 오류 여부를 확인하고, 특히 사항은 해당 팀으로 재차 확인 요청 후 성적 처리를 진행한다. 성적 처리는 3명의 담당자가 각각의 프로그램을 직접 개발하여 성적을 산출하고, 상호 교차 검토 절차를 수행한다. 또한, 채점의 정확성 확보를 위하여 수작업 채점을 진행한다. 수작업 채점은 전체 답안지 중 무작위로 답안지를 선정하여 수작업을 통하여 판독의 정확성 및 원점수의 정확성을 전산 자료와 교차 비교한다. 수험생별 최종 성적은 정답 및 배점 정보를 확인하고 부정행위자 처리 후 확정된다. 부정행위자는 당해 연도 시험 무효라는 법률에 따라, 답안지 판독 등 답안 정보 확정까지는 정상적으로 진행하되, 성적 처리 대상자에서는 제외된다.

수험생별 성적자료는 당해 연도 성적통지표 양식에 따라 원점수, 표준점수, 백분위, 등급 등 성적을 개별 산출한다. 또한, 보도자료 작성 및 문항 분석 등을 위한 각종 통계 자료를 산출한다.

확정된 성적 자료는 수험생에게 성적통지표 제공 및 성적증명서 발급용으로 활용된다. 전국 대학에서 대학입학 전형자료를 활용하기 위한 자료로도 제공된다. 수험생에게 제공되는 성적통지표는 2010학년도까지는 평가원에서 직접 일괄 출력하여 제공하였으나, 2011학년도부터는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하여 학교 현장에서 직접 출력할 수 있도록 하였다. 평가원에서 직접 일괄 출력하여 제공할 시에는 대형 고속 프린터를 사용하여 시험지구별로 성적통지표 및 일람표를 출력·포장하고, 시험지구 교육청 담당자가 직접 평가원을 방문하여 수령하였다. 이때의 경우, 현장 방문의 어려움과 보안상 문제점 등이 있었으나, 온라인 시스템 구축으로 사용자 편의성 및 보안성 등이 획기적으로 개선 되었다.

성적증명서 발급을 위하여 온라인 발급 시스템을 2010년도에 구축하여 1995학년도 수능 성적 자료부터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인터넷에서

수험생이 직접 편리하게 발급받을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다.

나. 점수 보고 방식의 변화

1994학년도부터 2013학년도까지 수능의 점수 보고 방식(수능 성적통지표)에는 많은 변화가 있었다. 이 절에서는 해당 학년도의 수능 성적통지표를 중심으로 수능 영역/과목과 점수 종류(원점수, 백분위, 표준점수, 등급 등)를 제시하고자 한다.

(1) 1994학년도 점수 보고

기존 대학입학학력고사를 대체하여 범교과적 학업 적성 평가를 위한 수능이 최초 시행되었으며, 연 2회 시험이 실시된 1994학년도에는 [그림 4-3-2]와

같이 비교적 간단한 형식의 성적통지표가 제공되었다. 1994학년도 수능 성적통지표에는 언어 영역, 수리·탐구 영역, 외국어 영역의 원점수와 원점수 총점, 원점수 총점의 백분위점수를 표기하였다. 또한 참고 자료로 희망 계열과 희망 계열 내에서의 백분위점수도 표기하였다.

(2) 1995~1996학년도 점수 보고

1995학년도와 1996학년도의 성적표 양식은 동일하며, 1994학년도 성적표와 크게 다르지 않다. 다만 표기 영역에서 수리·탐구 영역이 수리·탐구(I), (II)로 바뀌어 4 영역별 원점수와 원점수 총점, 원점수 총점의 백분위점수를 표기하였다. [그림 4-3-3]과 같이 참고 자료로 표기되었던 희망계열 대신 응시계열과 응시계열에서의 백분위점수가 표기되었다. 또한 일부 학생(검정고시 합격자,

1994학년도 제1차 수능 성적 통지표						
차수	수험번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출신고교	
성 적					※ 참고자료	
언어영역	수리·탐구 영역	외국어 영역	총 점	백분위 점수	희망 계열	백분위 점수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1993. 9. 23
국립교육평가원장

[그림 4-3-2] 1994학년도 제1차 수능 성적통지표

직업과정 위탁생 등)에 대한 내신 등급이 성적 통지표에 포함되었다.

영역(I), 수리·탐구 영역(II), 외국어(영어) 영역의 각 영역에 대한 원점수와 영역별 원점수에 의한 백분위 점수, 원점수 총점과 원점수 총점의 백분위점수를 표기하였다. 1995학년도와 1996학년도 성적통지표에서는 표기하지 않았던 영역별 원점수에 의한 백분위점수를 추가하였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3) 1997~1998학년도 점수 보고

1997학년도와 1998학년도의 성적표 양식은 동일하며, [그림 4-3-4]와 같이 언어 영역, 수리·탐구

수험번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출신고교 (반, 졸업년도)		
성 적					계열별 백분위점수		※ 내신 등급
언어영역	수리·탐구영역 (I)	수리·탐구영역 (II)	외국어영역	총 점	응시계열	백분위점수	

1995. 12. 22
국립교육평가원장

[그림 4-3-3] 1996학년도 수능 성적통지표

수험번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출신고교 (반, 졸업년도)	
응시계열	구 분	언어 영역	수리·탐구 영역(I)	수리·탐구 영역(II)	외국어(영어) 영역	총 점
	성 적					
	백분위점수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1996. 12. 7
국립교육평가원장

[그림 4-3-4] 1997학년도 수능 성적통지표

(4) 1999학년도 점수 보고

1999학년도 수능 성적표에는 [그림 4-3-5]와 같이 수리·탐구 영역(II)가 과학탐구와 사회탐구로 나뉘어 표기되어 있다. 따라서 언어 영역, 수리·탐구 영역(I), 수리·탐구 영역(II)-사회탐구/과학탐구, 외국어(영어) 영역에 대한 원점수와 각 영역 원점수에 의한 백분위점수, 원점수 총점과 원점수 총점의 백분위점수를 표기하고, 영역별 표준점수, 영역별 변환표준점수(400점 만점)와 변환표준점수 총점을 표기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5) 2000학년도 점수 보고

[그림 4-3-6]에 제시된 바와 같이, 2000학년도

수능 성적표에도 언어 영역, 수리·탐구 영역(I), 수리·탐구 영역(II)-사회탐구/과학탐구, 외국어(영어) 영역에 대한 원점수와 각 영역 원점수에 의한 백분위점수, 원점수 총점과 원점수 총점의 백분위점수, 영역별 표준점수, 영역별 변환표준점수(400점 만점)와 변환표준점수 총점을 표기하도록 하였다. 1999학년도와 비교하여 달라진점은 변환표준점수에 의한 백분위점수가 추가되었다는 것이다.

(6) 2001학년도 점수 보고

2001학년도 수능 성적표에는 [그림 4-3-7]과 같이, 언어 영역, 수리·탐구 영역(I), 수리·탐구 영역(II)-사회탐구/과학탐구, 외국어(영어) 영역 외에 제2외국어 영역이 추가되었다. 각 영역에 대해

수험번호		성명	주민등록번호			출신고교(반, 졸업년도)	
응시계열	구분	언어 영역	수리·탐구 영역(I)	수리·탐구영역(II)		외국어(영어) 영역	총점
				과학탐구	사회탐구		
	원점수						
	백분위점수						
	표준점수						
	변환표준점수 (400점 만점)						

1998. 12. 18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

[그림 4-3-5] 1999학년도 수능 성적통지표

2000학년도 수능 성적 통지표

수험번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출신고교 (반, 졸업년도)		
응시계열	구 분	언어 영역	수리·탐구 영역(I)	수리·탐구영역(II) 과학탐구 사회탐구		외국어 (영어)영역	총 점	제2외국어 영역
	원 점 수							
	백분위점수							
	표준점수							
	변환표준점수 (400점 만점)							
	변환표준 점수에 의한 백분위점수							

1999. 12. 17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

[그림 4-3-6] 2000학년도 수능 성적통지표

2001학년도 수능 성적 통지표

수험번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출신고교 (반, 졸업년도)		
구 분	언어 영역	수리·탐구 영역(I)	수리·탐구영역(II) 과학탐구 사회탐구		외국어 (영어)영역	총 점	제2외국어 영역	
	원 점 수							
	백분위점수							
	표준점수							
	변환표준점수 (400점 만점)							
	변환표준점수에 의한 백분위점수							

2000. 12. 12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

[그림 4-3-7] 2001학년도 수능 성적통지표

영역별 원점수, 원점수에 의한 백분위점수, 원점수 총점, 원점수 총점의 백분위점수, 영역별 표준점수, 영역별 변환표준점수(400점 만점)와 변환표준점수 총점, 변환표준점수에 의한 백분위점수를 표기하였다. 그러나 제2외국어 영역의 경우 변환표준점수(400점 기준)와 변환표준점수에 의한 백분위점수 대신 표준점수에 의한 백분위점수를 표기하도록 하였다.

(7) 2002~2004학년도 점수 보고

2002~2004학년도 수능 성적표에는 언어 영역, 수리 영역, 과학탐구 영역, 사회탐구 영역, 외국어(영어) 영역, 제2외국어 영역의 6영역이 표기되었다. 이전과는 달리 수리·탐구 영역(I) 수리·탐구 영역(II)을 구분하지 않고, 수리 영역, 과학탐구 영역, 사회탐구 영역으로 나누어 표기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2002학년도 수능 성적통지표는 [그림 4-3-8]과 같다.

수험번호	성 명	주민등록번호	계 열			출신고교 (반, 졸업년도)
구 분	언어 영역	수리 영역	과학탐구 영역	사회탐구 영역	외국어(영어) 영역	제2외국어 영역
원 점 수						
원점수에 의한 백분위점수						
표준점수						
변환표준점수 (400점 만점)						표준점수에 의한 백분위점수 ()
변환표준점수에 의한 백분위점수						
영역별 등급						
5개 영역 종합등급						

2001. 12. 2
한국 교육 과 정 평 가 원 장

[그림 4-3-8] 2002학년도 수능 성적통지표

각 영역에 대해 영역별 원점수와, 원점수에 의한 백분위점수, 영역별 표준점수, 영역별 변환표준점수(400점 기준)와 변환표준점수에 의한 백분위점수를 표기하고, 영역별 등급과 5개 영역 종합등급을 추가로 제시하고 있다. 제2외국어 영역의 경우 변환표준점수(400점 기준)와 변환표준점수에 의한 백분위점수 대신 표준점수에 의한 백분위점수를 표기하였다.

2004학년도 성적통지표에서 예년과 달라진 점은 첫째, 문항에 부여되는 배점이 모두 정수가 되어 정수로 표기되는 원점수를 받게 되었다는 것이다. 둘째, 등급은 변환표준점수의 소수 첫째 자리에서의 반올림한 정수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것이다. 이때 경계선에 있는 동점자는 상위 등급으로 처리한다.

(8) 2005~2007학년도 점수 보고

제7차 교육과정에 따른 영역/과목별 선택제가 도입된 2005학년도 수능이 2004학년도와 비교하여 달라지는 점은 다음과 같다.

- 인문, 자연, 예·체능계열 구분이 없어짐.
- 언어, 수리, 외국어(영어), 사회/과학/직업탐구 영역과 제2외국어/한문 영역 모두 수험생이 임의 선택할 수 있음.
-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들을 위한 직업탐구 영역을 신설함.
- 제2외국어/한문 영역에 아랍어 I 과 한문을 신설함.
- 사회/과학/직업탐구 영역 중 한 영역만 선택 가능함(최대 4과목).

이에 따라 2005학년도 수능 성적통지표는 [그림 4-3-9]와 같이 변경되었다.

수험번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출신고교 (반 또는 졸업연도)				
구 분	언어	수리	외국어 (영어)	과학탐구				제2외국어/ 한문
		'가'형 (미분과 적분)		물리 I	생물 I	지구과학 I	생물 II	일본어
표준점수								
백분위								
등 급								

[그림 4-3-9] 2005학년도 수능 성적통지표

2005학년도 성적통지표에는 이전의 영역별 원점수, 원점수에 의한 백분위점수, 변환표준점수, 5개 영역 종합등급 등은 제공되지 않으며, 영역/과목별 표준점수, 표준점수에 의한 백분위점수 및 등급만 표기되었다. 2005학년도의 선택형 수능과 표준점수 체제는 2007학년도까지 유지되었다.

(9) 2008학년도 점수 보고

수능의 과도한 점수경쟁을 완화하고 학생부 중심의 대학 입학 전형을 유도하고자 2008학년도 수능에서는 영역/과목별 표준점수, 표준점수에 의한 백분위점수를 삭제하고, 영역/과목별 등급만을 제공하였다. 이에 따라 2005학년 이후 동일한 수능 체제를 유지함에도 불구하고 [그림 4-3-10]과

수험번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출신고교 (반 또는 졸업연도)				
구 분	언어	수리	외국어 (영어) 영역	과학탐구				제2외국어 /한문영역
		'가'형 (미분과 적분)		물리 I	화학 I	생물 I	지구과학 I	일본어 I
등 급								

[그림 4-3-10] 2008학년도 수능 성적통지표

수험번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출신고교 (반 또는 졸업연도)				
구 분	언어 영역	수리영역	외국어 (영어) 영역	과학탐구영역				제2외국어/ 한문
		'가'형 (미분과 적분)		물리 I	화학 I	생물 I	지구과학 I	일본어 I
표준점수								
백분위								
등 급								

[그림 4-3-11] 2009학년도 수능 성적통지표

같이 수능 점수는 등급으로만 표현되는 간략한 형식의 성적통지표로 제공되었다.

최대 선택과목 수가 축소되는 변화가 발생한다. 즉, 사회탐구와 과학탐구의 최대 선택과목 수가 3과목으로, 직업탐구는 2과목으로 축소됨에 따라 수능 성적통지표는 [그림 4-3-12]와 같이 변경되었다.

(10) 2009~2011학년도 점수 보고

2009~2011학년도 수능 성적통지표는 2005~2007학년도로 회귀하여 [그림 4-3-11]과 같이, 영역/과목별 표준점수, 표준점수에 의한 백분위점수, 표준점수에 의한 등급이 표기되었다. [그림 4-3-9]와 동일하게 수리 '가'형, 사회/과학/직업탐구 영역, 제2외국어/한문 영역의 경우에는 본인이 응시한 선택 과목명이 함께 표시되었다.

다. 점수 통지 및 조회

(1) 수능 성적통지표 배부

수능 실시 후 성적통지표는 원서를 접수한 곳에서 배부한다. 졸업생 중 응시원서를 출신 학교에 접수한 경우에는 출신 학교에서 배부하고, 재학생은 현재 재학 중인 학교에서 배부한다. 검정고시 출신이나 기타 학력자, 고교 졸업자 중 주소지를 이전하여 현 거주지 관할 시험지구 교육청에 응시원서를 접수한 경우는 응시원서를 접수한 시험지구 교육청에서 배부한다.

(11) 2012~2013학년도 점수 보고

2012~2013학년도에는 2005학년도 이후 선택형 수능 체제가 동일하게 유지되면서, 탐구 영역의

성적통지표를 분실한 경우에는 홈페이지에서

수험번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출신고교 (반 또는 졸업연도)			
구 분	언어 영역	수리영역	외국어 (영어) 영역	과학탐구영역			제2외국어/한문
		'가'형 (미분과 적분)		물리 I	화학 I	생물 I	일본어 I
표준점수							
백분위							
등 급							

2011. 11. 30,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

[그림 4-3-12] 2012학년도 수능 성적통지표

성적증명서를 재발급 받을 수 있다.

(2) 수능 답안 내역 확인 민원 처리

성적 통지 이후 본인 답안지에 대해 직접 확인을 요청하는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에 이를 확인시켜주는 처리를 하고 있으며 이는 수험생 자신이 작성한 정답 내역에 대한 궁금증 해소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채점 결과 추진 계획을 통해 담당자가 성적 조회 신청자의 신분을 확인한 후, 방문 신청인에 대해 답안지 판독 자료를 확인하도록 조치하고 있다.

민원 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성적 확인 신청서를 접수하고 둘째 답안지 판독 자료를 열람하게 한다. 단 답안지 이미지 파일 확인을 원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접수를 받아 파일 열람을 제공하여 신청자에게 확인하도록 조치한다. 셋째 조회 신청자는 전산 판독 자료를 직접 확인하고 서명 날인한 후 담당자에게 반환하고, 확인이 끝난 자료는 모두 회수한다.

이렇듯 시험 결과의 조회는 평가원에서 담당하며 성적이 발표된 이후부터 당해 연도 대학 입시가 종료될 때까지 이루어지는데, 수험생 본인이나 보호자가 평가원을 직접 방문하여야만 조회 신청이 가능하다.

참고문헌

- 한국교육과정평가원(2004), 200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Q & A 자료집.
한국교육과정평가원(2005), 대학수학능력시험 10년사 I, II.
한국교육과정평가원(2005), 200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Q & A 자료집.
한국교육과정평가원(2006), 200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Q & A 자료집.
한국교육과정평가원(2007), 200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Q & A 자료집.
한국교육과정평가원(2008), 200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Q & A 자료집.
한국교육과정평가원(2009), 201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Q & A 자료집.
한국교육과정평가원(2010), 201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Q & A 자료집.
한국교육과정평가원(2011), 201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Q & A 자료집.
한국교육과정평가원(2012), 201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Q & A 자료집.
한국교육과정평가원(2013),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Q & A 자료집.



KICE

Korea Institute for Curriculum and Evaluation

A 20-Year History of College Scholastic Ability Test

제5장 기록으로 남기는 수능의 다사다난

제1절 수능의 다면사

제2절 수능 복수 정답 사례

제3절 출제본부의 위기와 대처

제1절

수능의 다면사

박진동(한국교육과정평가원)

위성임(한국교육과정평가원)

유규오(한국교육방송공사)

정경식(한국교육과정평가원)

정진석(한국교육과정평가원)

가. 수능의 연습, '모의평가'

실전에 앞서 연습이 있어야 하는 건 당연한 이치일 것이다. 오랜 세월 동안 다양한 사람들의 경험들이 축적되어 “연습이 있어야 완벽할 수 있다(Practice makes perfect)”라는 영어 격언이 등장한 걸 보면 말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중요한 실전을 앞두고 ‘모의’란 말을 붙여 연습하고 또 연습한다. 프로야구 시즌이 시작되기 전 시범(모의) 경기가 있고, 새로운 재판 제도를 도입하기 전 모의 재판을 시행한다. 군인들의 경우에는 정말 실전을 가정한 모의 훈련을 얼마나 자주 하는가!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이 우리 한국 사회에서 차지하는 그 중요성의 비중은 얼마나 될까? 수능 시행을 보고 외신이 보도한 내용은 대략 이렇다 (경향신문 2013.11.8 재인용). “인생을 바꾸는 대학입시에 대한민국이 멈춰 섰다. 한국은 수능 시험 날 소음을 줄이기 위해 비행기 이착륙을 정지시키고, 군사 훈련을 일시 정지한다.”(CNBC), “대학입시 때문에 한국이 멈췄다. 민간항공기 이·착륙이

오후로 미뤄졌고 증시 개장도 늦춰졌다. 한국 학생들 65만명에게는 이 시험이 경력과 결혼까지 결정짓는다.”(파이낸셜타임즈) 수능이 차지하고 있는 중요성에 대한 비판적인 시선이 있지만, 어쨌든 수능이 우리 사회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시험인 것만은 확실하다.

이렇듯 중요한 수능이기에 현재 실전 수능에 앞서 모의평가가 시행되고 있다. 수능 모의평가를 도입한 취지는 크게 세 가지 측면이 있다. 첫째, 수능 출제·시행 측면에서의 ‘모의’이다. 수능에서 무리 없는 적절한 시험 난이도를 유지하고, 다수의 수험생이 치르는 시험 시행에서 발생 가능한 문제점들을 점검하기 위해서는 사전 모의평가가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그 해 수능을 치를 예정인 고등학교 3학년 재학생과 졸업생들이 응시하는 두 번의 모의평가를 통해 수능 출제·시행 기관은 수험생의 수준을 파악하고, 시행의 문제점 및 개선점을 파악하게 되는 것이다. 둘째, 수험생의 입장에서 보면 2001년부터 교육 당국의 지침에 따라 학교에서 입시 기관에서 주관하는 사설 모의평가가

금지되어 왔기 때문에 자신의 현재 준비 상황을 파악하고 수능에 대한 사전 적응을 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 모의평가이다. 셋째, 교육 정책적 측면에서 ‘과도한 사교육비 지출’을 막기 위한 한 가지 방편으로 사설 모의평가를 대체하는 수능 ‘모의’ 평가를 시행하고 있다. 당해년도 수험생들의 학력을 진단하고 수험생에게 수험 대비 방법을 제시한다는 도입 취지의 측면에서 모의평가는 다음과 같이 시행되고 있다.

/ 수능 모의평가의 출제

수능의 모의평가이기 때문에 모의평가의 시험 영역, 과목, 출제 문항 수는 수능과 똑같다. 모의평가의 문항 출제는 수능처럼 격리된 장소에서 출제·검토위원들이 합숙하여 이뤄진다는 점에서는 수능과 동일하다. 그러나 출제가 진행되는 기간(출제본부 운영 기간)은 수능에 비해서 열흘 남짓 짧다. 그 이유로 수능은 출제가 완료된 후 시험지 인쇄·배부(인쇄본부 운영)가 진행되는 동안 보안 관계상 출제본부를 계속 운영하지만, 모의평가의 경우는 출제를 마치면 출제본부 운영을 종료하고 시험지 인쇄·배부를 하기 때문이다.

모의평가의 문항 출제를 위해서 약 500여명의 출제·검토위원들이 투입된다. 모의평가 출제본부의

운영을 위해 투입되는 인원까지 포함하면 총 600명이 넘는 인원이 1회의 모의평가 출제를 위해 수고하게 된다. 출제위원은 대학 교수, 고등학교 교사 중에서 수능의 해당 영역/과목에 대한 전문성을 가진 분을 위촉하게 되는데, 수능의 중요성 때문에 직계 자녀 중 해당 학년도에 수능 응시 예정자가 없어야만 한다. 또한 불필요한 논란을 피하기 위해 최근 3년간 수능과 관련하여 상업용 수험서를 집필하거나 영리 목적의 입시학원이나 인터넷 사이트, 방송 등에서 강의를 한 경우에는 위촉 대상에서 제외하게 된다. 문항 출제를 위한 기본조건을 갖춘 출제위원을 위촉하기 위해서는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많다. 또한 모의평가의 취지에 맞게 출제·검토위원의 일정 비율 이상을 수능 출제의 경험이 없는 자 중에서 위촉하게 된다. 수능 출제에서도 연습이 충분해야 완벽을 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 수능 모의평가의 시행

문항 출제를 제외한 모의평가의 시행은 여러 단계를 거쳐 진행된다. 그리고 각 단계마다 수능과 동일하게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모의평가인 관계로 다소 다른 부분도 있다.

모의평가의 주된 응시생은 고등학교 3학년 재학생들이다. 2013년의 두 차례 모의평가에서 전체

※ 모의평가 시행 단계



응시생 대비 졸업생의 비율이 약 10%인데 비해 수능은 졸업생의 비율이 약 20%로, 10% 정도 차이가 나는 것을 보면 이를 알 수 있다. 주된 응시생이 재학생이다보니 시험 시행도 재학생들을 기준으로 진행된다. 가장 큰 차이는 모의평가가 재학생들의 학교에서 주로 시행된다는 것이다. 이는 수능에서 전국의 시험지구별로 수능 시험장을 별도로 선정·배치해서 시험을 진행하는 것과는 다른 모습이다. 물론 검정고시생을 포함한 졸업생들도 모의평가에 응시할 수 있다.

모의평가가 재학생들의 학교에서 시행된다는 점은 시험 시행의 전반적인 흐름에서 수능과는 다른 면을 발생시킨다. 응시 신청의 단계에서 수능과 달리 재학생의 경우 응시원서를 별도로 제출하지 않고, 모의평가 시스템에 학급별로 지원 인원수를 입력하게 된다. 졸업생들은 출신 고등학교에 접수하거나 모의평가 시험장으로 운영되는 학원에 접수하게 된다. 출신학교 소재지와 다른 주소지에 거주하는 졸업생들이 주소지 관할 교육청에 응시 신청을 할 수가 없다는 점도 수능과 다른 점이다. 또한 졸업생들의 편의를 위해 학원 시험장을 운영하고 있다. 졸업생들의 경우 출신 고등학교에서도 응시 신청 및 시험 응시가 가능하지만, 모의평가를 보기 위해 졸업한 고등학교에 응시 신청하는 걸 꺼려한다. 이러한 제도는 다수의 졸업생들이 재수학원을 다니며 시험 준비를 한다는 점도 고려한 것이다. 졸업생 응시 신청자 중 90% 넘는 수험생이 학원에 모의평가 응시 신청을 한다. 학원 시험장은 재수학원 중에서 재원생들을 기준으로 일정 인원이 모의평가 응시를 희망하는 경우 신청을 받아 운영하게 된다. 학원 중에서는 재원생들 외에 시설 여유가 되면 비재원생들의 응시 신청도

받을 수 있는데 이로 인해 사소한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졸업생들은 앞서도 언급했지만 출신 고등학교 보다는 학원 시험장을 선호하는데, 지역별로 모의평가 시험장으로 운영되는 학원수가 제한되어 있을 뿐 아니라 접수 가능 인원에서도 제한이 있게 된다. 이에 지역에 따라서는 학원에서 응시하고자 하나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가 발생한다. 이때 일부 수험생들이 응시수수료에 웃돈을 더해 학원 접수증을 거래하려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해서 시행 기관을 당혹스럽게 하기도 하였다.¹⁾

응시 신청이 종료되고 최종적인 응시 신청 인원이 확정되면, 문제지 인쇄·포장·배부 작업이 이어서 진행된다. 모의평가 문제지는 인쇄소에서 인쇄 및 포장되어 전국의 2천개가 넘는 시험장 학교와 학원에 직접 배송된다. 수능은 인쇄소에서 포장된 문제지가 전국 시·도 교육청으로 배부되고 시험 당일 새벽에 시험장으로 배부되는 단계를 거치는데, 모의평가는 조금 다르게 진행되고 있다. 2천 개가 넘는 시험장별로 문제지를 포장하여 배부하기에 모의평가는 시험일 5~6일 전부터 화물차를 통해 배부된다. 시행기관의 입장에서는 직접 시험장으로 문제지를 배부해야 되기 때문에 신경 쓸 일도 많고 발송 준비 작업도 복잡하다. 수능을 대비한 모의시험이지만 문제에 대한 보안은 수능과 동일하게 중요하기 때문에 문제지가 시험장 책임자에게 인계되기까지 보안요원 및 시험장 관할 시·도 교육청 관계자가 배부 과정에 동행하여 배부 단계에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인다. 문제지를 인계받은 시험장 관계자들도 시험일 전까지 문제에 대한 보안에 철저한 주의를 기울인다. 모의평가를 시행하는 학원의 경우에는

1) 경향신문(2011.05.11), 모의 수능 접수증 웃돈 거래

2010학년도 9월 모의평가(2009년 9월 시행)부터 시험 당일 새벽에 문제지를 배부하고 있다. 이는 수능 모의평가는 아니었지만 2009년 7월에 전국연합학력평가 문제가 유출되었다는 논란에 따라 그 전까지는 시험일 2일 전에 배부되던 문제지를 학원에 한해 시험 당일 배부하게 된 것이다. 모의평가 문제지가 학원 관계자를 통해 사전에 유출될 수 있는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대책이었다. 이에 더하여 학원 문제지 배부 시에는 학원별로 교육청 관계 공무원을 파견 감독관으로 선임해 시험 종료 시까지 모의평가 시행을 감독하고 있다.

모의평가의 문제지 포장도 수능과는 조금 다르다. 수능은 모의평가에 비해서 포장 작업 공정이 단순하다. 영역별 문제지만을 봉투에 넣은 후 상자 포장을 하면 된다. 수능에서는 각 영역별 문제지 상자만이 최종적인 포장물이 된다. 포장된 문제지 상자를 전국의 시험지구별로 산출된 수량만큼 발송하면 문제지 발송 작업은 종료된다. 이에 비해 모의평가의 경우에는 문제지 상자에 문제지와 답안지 외에도 시험 시행 관련 물품들이 함께 포장이 된다. 응시 현황표, 정답지, 실시요강, 답안지 회송용 포장 상자 등 함께 포장되는 물품의 종류가 많다. 포장되는 물품의 종류가 많은 만큼 포장 작업에서 유의해야 할 사항이 많다. 포장 물품 중 누락되는 것이 없도록 꼼꼼히 수량을 체크하며 포장해야 하기 때문이다. 모의평가 문제지 상자에는 영어 듣기 평가 CD도 함께 포장해야 한다. 포장 공정이 자동화된다면 수월해지겠지만, 포장 물품의 종류가 많고, 규격이 다 달라 공정 자동화는 쉽지 않다. 수능에 비해 포장 작업이 더 복잡하기 때문에 모의평가의 문제지 인쇄·포장 기간은 수능에 비해 3·4일 정도 긴 편이다. 20여 일 동안 문제지를

인쇄·포장하고 시험장으로 발송까지 종료해야만 비로소 인쇄 본부 내 근무자들이 긴장감에서 해방될 수 있다.

수능이 아니기 때문에 모의평가 시험일에는 출근 시간도 늦춰지지 않고, 비행기 이·착륙 시간의 조정도 없다. 하지만, 모의평가가 시행되는 시기적인 문제로 시행에 곤란을 겪기도 한다. 즉, 9월 모의평가가 시행되는 9월 초는 아직 여름이 다 끝난 때가 아니기 때문에 태풍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2011학년도 9월 모의평가가 시행된 날에 태풍 ‘곤과스’의 영향으로 모의평가 시험 시간이 늦춰지기도 했었다.²⁾

모의평가의 시행 목적 중 하나가 ‘모의평가 문항 유형 및 수준을 통한 수험 대비 방법 제시’이기 때문에 수험생 입장에서는 그 결과(성적)가 중요하다. 모의평가의 채점 방식은 수능과 다른 점이 없다. 하지만 모의평가에서 나타난 결과는 수능 성적 결과처럼 대입전형의 자료로 사용되지는 않는다.

/ 모의평가의 취지를 살리려면

모의평가는 수능 시험을 대비한 ‘연습’ 시험이다. 시험의 출제·시행기관도 이를 통해 연습하고, 수험생들도 두 번의 모의 시험을 통해 본시험을 대비하게 된다. 수능의 적정 난이도 유지라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 두 번의 모의평가는 좋은 연습이 되며, 수험생도 두 번의 모의평가를 통해 자신의 강점과 약점을 잘 파악하면 고득점 획득이란 목표를 이룰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모의평가의 시행 취지를 살리려면 모의평가에 관계된 여러 당사자가 그 취지를 공감하며 참여하는 것이 필수적이라 할 것이다.

2) 연합뉴스(2010.09.02), 수능 모의평가 1~2시간 늦춰 시행키로

첫째, 모의평가의 출제·시행 기관은 수능의 출제와 시행을 위해서 두 번의 모의평가 결과에 대한 정밀한 분석 및 대책 수립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또한 수능과는 시행 상에 있어 여러 다른 면이 있겠지만 접수부터 성적 통지에 이르기까지 좀 더 효율적인 시험 시행이 가능하도록 면밀한 검토를 해야 한다.

둘째, 학교·학원·교육청 관계자들은 서비스 제공자의 입장을 견지하여 모의평가 시행에 적극적인 협조를 다해야 할 것이다. 다수 관계자들의 온전한 협조 없이 모의평가가 무리 없이 시행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진부한 결론이겠지만 모의평가가 수능을 대비한 진정한 '연습'이 되기 위해서는 시험에 관계된 당사자들이 각자의 입장에서 올바른 태도를 견지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나. 수능-EBS 강의와 연계 정책

수능과 EBS 교재 및 강의 연계 정책은 언제부터 시작되었을까? EBS 강의와 대입시험을 연계하여 출제하는 방안은 1990년대에도 지속적으로 논의 되었으나 이를 처음으로 공식화한 것은 2004년이였다. 2004년 2월 17일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사교육비 경감 대책'을 발표하면서 10대 과제 가운데 'EBS 강의를 활용한 사교육비 경감 대책'이 핵심 단기 과제로 선정되었다. 이날 발표가 전 국민적인 관심을 불러 일으켰던 것은 대입 수능에 EBS 강의를 연계 출제하겠다는 획기적인 발상 때문이었다. 그렇다면 EBS는 언제부터 수능 강의를 시작하였나?

/ EBS 수능 강의의 시작

EBS 수능 강의가 시작된 시점은 수능 도입부터이다. 1991년 4월 2일, 정부는 오랜 시간 동안 검토

했던 대학입시제도를 대폭 개선한다고 발표하면서 1994학년도부터 '수능'을 도입하겠다고 했다. 이에 맞추어 EBS는 1993년 3월 1일부터 수능 강의를 시작하였다. 처음에는 언어, 외국어 등 과목에 대한 기초 학습을 중심으로 방송하였다. 상반기에 1차 수능이 끝난 후, EBS는 즉시 2차 수능에 대비한 2단계 'TV고교가정학습'을 방송하였다. 1차 시험에서 나온 문제 유형을 해설하면서 문제풀이 중심으로 진행하였다. 당시에는 새로운 대입제도인 수능의 문제 유형이 너무나 낯설어서 학교 현장에서도 학습 지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때 EBS 수능 방송은 새로운 대입제도에 대한 가이드 역할을 담당하여 학생, 교사들에게 혼란을 방지하는 데 일조하였다.

그러다가 과외비 급증이 사회적 이슈로 등장하면서 과외비 축소 대책이 필요하게 되었고 그 해결 방법으로 인공위성을 활용하자는 아이디어가 논의되었다. 당시 우리나라는 최초의 인공위성인 무궁화 1, 2호의 발사로 우주강국의 꿈을 실현한다는 것에 한층 고무돼 있었는데, 무궁화 2호가 성공적으로 지구궤도에 안착한 1996년 1월 14일, 이를 통해 가용 채널 12개가 확보되면서 위성 채널을 활용한 과외비 축소 방안이 본격적으로 논의되었다. 그리고 마침내 1997년 8월 25일, 위성교육 방송이 개국하였다. 그전까지는 EBS 지상파 TV에서 2시간 정도 방송하던 것을 2개 위성 채널로 이관하여 무료 과외 방송을 제공하였다. 1채널은 고등학생 대상으로 주당 55시간을 방송하고, 2채널은 초·중학생 대상으로 주당 72시간을 방송하며 출연 강사는 현직 교사 70%, 학원 강사 30%의 비중으로 선발, 운영하였다. 위성교육방송은 학교 현장에서도 시청할 수 있도록 전국의 모든 학교에 위성 수신망을 구축하였다. 당시 조사에 따르면 전체 학교의 78.9%가 EBS 위성교육방송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 EBS 수능 강의 연계

2000년 4월 27일 헌법재판소에서 과외 교습 단속 행위에 대해 ‘과외 금지는 과도한 기본권 침해’라며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사교육 시장은 급속하게 확장되었다. 사교육비 문제는 가계 경제를 위축시킬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었다. 2004년 노무현 정부는 부동산과 함께 사교육비 문제를 민생과 관련한 가장 시급한 정책 과제로 설정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특단 조치가 필요했고 2004년 2월 17일 안병영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 ‘사교육비 경감 대책’을 발표하면서 가시화되었다. 당시 대책의 핵심은 EBS 수능 강의를 수능 출제에 연계하겠다는 것이었다. 그러면서 EBS 수능 강의 인터넷서비스(www.ebsi.co.kr)를 4월 1일에 개통하겠다고 선언하였다. 그러나 단기간 내에 인터넷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은 쉽지 않았고, 폭증이 예상되는 이용자를 수용할 만큼 시스템을 갖추는 것은 더더욱 난망해보였다. 특히 동시접속 10만 명을 감당할 수 있는 서버를 긴급하게 조달하는 문제가 주된 화두였다. 결국 안병영 부총리와 진대제 정보통신부 장관의 노력으로, 3월 30일 새벽 미국에서 긴급 수송된 CDN(Contents Delivery Network) 서버가 조달되면서 4월 1일 인터넷 서비스는 무사히 개통될 수 있었다. 연계 정책 첫 해인 2004년 제작된 강의 편수는 수능 강좌 3,262편(63.1%), 내신 강좌 1,422편(27.5%), 논술 강좌 485편(9.4%) 등 총 5,169편이며 동영상 강의 이용 건수는 하루 평균 133,757건이었다. 또한 강의 내용을 상담하는 Q&A 상담 교사 303명이 연간 257,922건의 상담을 진행하였다. 2004년 EBS 수능 인터넷 강의는 인터넷 접속이 되는 곳이면 언제 어디서든 활용할 수 있고 1:1 쌍방향 부가 서비스도 제공된다는 점에서 기존의 방송 강의보다는 획기적인 발전이었으나 수준별 강좌 편성이 부족하거나 강의 구성이 단조롭다거나 강의 화질이 떨어진다는 등

몇 가지 문제점도 지적되었다. 또한 당시 정부 발표에서 ‘EBS 수능 강의와 수능 출제를 연계하겠다.’고 밝혔으나 연계 대상이 강의인지, 교재인지 명확하지 않았고 연계 방식에 대해서도 명료하지 않았으며 선언적 의미만 강했다. 그만큼 수험생들에게 혼란스러웠고 EBS 교재 품질에 대한 논란도 끊이지 않았다. 이후 EBS 수능 강의에 대한 폭발적 관심은 2004년만큼 지속되지는 못했다.

/ EBS 수능 연계 변화와 발전

수능-EBS 연계 정책이 전환점을 맞이한 것은 2010년이었다. 3월 10일 ‘교육과학기술부-평가원-EBS 간 교류협력 협정서(MOU)’를 체결하면서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EBS 수능 강의 내용이 지금까지 수능시험에 30% 정도 영향을 미쳤지만 (올해부터) 70% 또는 그 이상이 반영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그리고 3월 19일 이명박 대통령이 EBS를 방문, 학생-학부모-교사 간담회에 참석하여 수능-EBS 연계 정책에 힘을 실어 주었다. 그동안 선언적 의미였던 수능-EBS 연계 정책은 이후 보다 내실화되어 갔다. 연계 방식은 영역별로 전체 문항 중 70% 문항을 EBS 연계 교재에서 출제하는 것으로 명료화되었고 연계 대상 교재도 「수능특강」, 「인터넷수능」, 「10주완성」 등 120권(언어·수리·외국어·사회탐구·과학탐구·직업탐구·제2외국어/한문)으로 구체화되었다. EBS 수능 강의도 연계 교재별 수준별 편성을 확대하고 다양한 개념 강의를 개설하면서 수준별 강좌 편성의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되었다. 2010년 제작, 서비스한 강의 편수는 총 27,979편이며 수능 강좌 20,349편(73%), 내신 강좌 5,669편(20%), 대학별교사 및 기타 강좌 1,961편(7%) 등이었다. 출연 교사 중 학생 선호도가 높은 학교 교사 5명을 EBS에 파견하여 획기적인 성과를 거두었다. 파견 교사를 비롯한 출연 교사들은 연말에 진행된 강사 선호도

조사 결과 모든 영역에서 이른바 학원가 스타 강사들보다 우위를 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동영상 강의 이용 건수는 하루 평균 566,188건이고 강의 내용 상담 건수는 연간 559,730건을 기록했다. 또한 대교협과 공동 주관으로 1:1 입시상담도 새롭게 개설되어 연간 14,647건을 상담하였다. 사교육업체가 300K, 700K 스트리밍 서비스만 고집할 때, 한국 이러닝(e-learning)계 최초로 EBS 수능 강의는 과감하게 1M 다운로드 서비스까지 제공하였다. 2010년 수능-EBS 연계 정책은 70%라는 구체적인 연계율이 제시되어 내실화되었고 EBS 수능 강의 서비스도 맞춤형으로 다양해지면서 모든 측면에서 비약적으로 성장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불만들이 제기되었다. 학생들은 연계 교재와 강의가 너무 많다는 불만과 연계 교재에 오류가 많다는 지적을 지속적으로 제기하였고 학교 현장에서는 EBS 교재·강의가 학교 수업을 대체한다는 불만이 터져 나왔다. 또한 수능-EBS 70% 연계에도 불구하고 시험이 어려웠으며 연계 체감 효과가 없었다는 등의 지적이 등장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1년 2월 16일, 교육과학기술부-평가원-EBS가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공교육을 보완하는 수능·EBS 연계 정착 방안’을 발표하였다. 개선방안의 요지는 첫째, EBS 연계 교재는 학교 수업을 보완할 수 있도록 개념과 원리 중심으로, 교육과정에 충실하게 개발하고 둘째, 연계 교재 수를 언어·수리·외국어 기준으로 45권에서 24권으로 대폭 축소하고 연계 교재는 모두 PDF 파일로 무료 제공하며 셋째, 연계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연계 교재를 지나치게 변형하지 않고 출제하고 만점자를 1% 수준으로 난이도를 일관되게 유지하도록 한다는 내용이었다. 또한 EBS는 양질의 연계 교재 개발을 위해 중전에는

‘기획 → 집필 → 평가원 감수 → 외부 전문가 검토 → 발간’ 단계로 진행하던 것을 ‘기획 → 교육과정 및 교과서 분석 → 집필 → 평가원 1차 감수 → 외부 전문가 1차 검토 → 평가원 2차 감수 → 외부 전문가 2차 검토 → 발간’ 단계로 집필 과정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수능 연계 정책의 내실화 2년 차에는 개념 강의를 대폭 확대하여 2010년에는 6,698편에서 9,741편으로 확대하고 수능 관련 17,896편(66%), 내신 관련 6,935편(26%), 대학별 고사 및 기타 관련 2,255편(8%) 등 총 27,086편을 제작하였고 과학교사는 첫째 5명에서 10명으로 확대, 운영하였다. 이를 통해 동영상 강의 이용 건수는 하루 평균 694,336건으로 증가하고 강의 내용 Q&A 상담 건수도 연간 990,237건으로 대폭 확대되었다. 또한 대교협과 공동 주관으로 진행한 1:1 입시상담도 연간 43,678건으로 늘어났고, 학교 방문 입시설명회도 연간 494개교에서 개최하였다. 수능 연계 내실화 2년차에 맞게 EBS 수능 강의는 전반적으로 내실화되고 학생들의 만족도도 높게 나타났다.

▮ EBS 수능 연계 품질 향상

그러나 연계 교재의 품질 개선은 쉽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2011년 5월 2일, ‘EBS 대표와의 대화’ 게시판을 통해 「인터넷수능-운문문학」11~12강에서 다수의 오류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즉각 재검토를 실시하여 5월 14일 오류 수정 PDF를 온라인에 탑재하고 6월 13일 「인터넷수능-운문문학」11~12강 수정판 34만부를 무료 배포하였다. 그러나 7월 초 발간된 「고득점 외국어 330제」의 정답과 해설에서 또다시 대량 오류 사태가 발생하였다. EBS에서는 즉각 44명의 검토 인력을 투입하여 「고득점 외국어 330제」교재를 전면 재검토하여 7월 26일~28일에 오류 수정 PDF를 탑재하고 ‘정답과 해설’ 수정판 40만부를

무료 배포하였다. 결국 2권의 연계 교재에서 발생한 대량 오류 사태는 연계 교재 전반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졌고 EBS-수능 연계 정책이 위기에 봉착하게 되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EBS 수능 교재 개선을 위한 관계기관장 협의회를 개최하여 총체적인 대책을 마련하였다. EBS는 교과연구·개발 전문 인력을 대폭 보강하고 교과 전문성이 높고 수능 출제 경험이 많은 대학 교수들을 대표 집필진으로 영입하여 현직 교사 중심의 집필진 역량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특히 평가원의 수능 출제 및 검토 시스템을 적극 차용하여 기존의 개별 채택 검토 방식에서 합숙형 집중 검토 방식으로 개선하였다. 평가원의 감수 단계도 2단계에서 3단계로 확대되었다. 그 결과 2011년 연계 교재(언어·수리·외국어·사회탐구·과학탐구) 기준으로 총 563건이었던 오류·오탈자 건수가 2012년에는 24건으로 대폭 감소하였다.

2012년에는 연계 교재 품질 제고 뿐만 아니라 수능 강의 서비스가 전반적으로 안정화되었다. 동영상 강의 이용 건수도 하루 평균 712,848건으로 확대되고 강의 내용 Q&A 상담 건수는 연간 120만 건이 넘었다. 이에 따라 사교육업계는 전반적으로 연계정책 내실화 이전에 비해 대폭 위축되었다. 특히 상장된 주요 사교육업체의 주가가 연계 정책 이전 대비 1/4 수준으로 하락하였다. 재수생의 경우 과거에는 대부분 재수종합학원이나 기숙학원에 등록했으나 연계 정책 내실화 이후에는 혼자 공부하는 사례가 점차 늘어났다. 다만 연계정책이 안정화되면서 EBS 수능 강의로 인해 공교육이 훼손되었다는 비판도 커져갔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EBS 교재의 교육과정과의 연계성을 강화하거나 수능 강의와 별도로 학교교육 보완을 위한 콘텐츠를 개발하는 등 공교육 보완 대책을 마련하였다. 학습동기 유발 및 창의적 사고 배양을 위해 ‘배움너머’, ‘문명과 수학’, ‘인류문명탐험’, ‘과학혁명의 이정표 시즌1,2’ 등의 고급 동영상 콘텐츠와 자기주도학습 사례를 소개하는 ‘공부의 왕도’ 다큐멘터리를 제작하여

제공하였을 뿐만 아니라, 60,000여 편의 교과용 클립을 무료로 활용할 수 있는 EBS클립뱅크 사이트를 오픈하였으며 EBS가 보유한 310,000 문항들을 문제은행 서비스로 구축하여 교사들이 접속하여 한글 파일로 다운받아 언제든 활용할 수 있도록 무료로 오픈하였다.

수능-EBS 연계 정책은 2004년에 시작되어 올해로 10년을 맞이한다. 수능-EBS 연계는 여전히 사교육비 경감 대책의 하나로 진행 중에 있다. 그동안 EBS 수능 강의와 EBS 연계 교재는 학생, 학부모, 교사들의 따가운 비판과 질책을 받으며 개선되고 성장해 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 믿는다.

다. 듣기 평가 CD 제작

수능 시험일, 이제 몇 시간 후면 30여 일간의 긴 보안 합숙을 끝내고 바깥세상으로 나갈 수 있다는 설렘보다 시험을 치르는 수험생 못지않은 극도의 긴장감으로 출제본부에서의 마지막 날을 보낸다. 특히, 듣기 평가가 종료되는 시간이면 듣기 평가 관련 민원이 접수되었는지 평가원 종합상황실에 확인을 요청한다. 종합상황실로 전화를 하는 짧은 시간 동안, 흡사 영화 ‘쥬스’의 드보르작 신세계 교향곡이 심장에 깔린 것 마냥 설 새 없이 두근거리기 시작한다. 특이사항 없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서야 안도의 숨을 내쉰다. 그래도 안심이 되지 않아 듣기 평가 관련 뉴스가 나오지 않는지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방송 뉴스에 계속 귀를 기울이게 된다. 바깥소식을 바로바로 접할 수 없어서 걱정스런 마음은 더 배가 되는 것 같다.

듣기 평가 녹음

출제본부 개설 이틀째, 출제본부 합숙 시설 귀퉁이에 녹음부스가 설치된다. 실제로 녹음부스는 언어 및 외국어 시험 문제지가 완성된 이후 사용되지만, 출제

기간 중간에 설치 인부들이 들어올 수 없어서 출제위원 입소 전에 설치되는 것이다. 녹음부스는 가로 2.5m, 세로 3.4m, 높이 2.2m의 직육면체 모양으로 정면에는 성우가 대본을 읽는 것을 볼 수 있도록 창이 나 있고 그 옆면에는 성우가 드나드는 출입문이 있다. 재질은 완벽한 방음을 자랑하는데, 이는 합판과 또 다른 합판 사이에 차음제, 흡음제, 유리가 이중으로 채워져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합판(나무)과 달리 높은 밀도로 인해 소리가 통과할 수 없어서 방음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서로 맞닿는 면에 알루미늄을 덧대어 견고하게 조립한다. 녹음부스 내벽은 구멍이 조밀하게 나 있는 인조가죽 재질로, 밀폐된 공간에서 소리가 울리는 것을 막아주는 흡음제 역할을 한다. 이처럼 외부와 완전히 차음된 곳에서 듣기 평가 문제와 더불어 맹인 수험생용 음성 평가 자료를 녹음하게 된다.

라디오 방송국 부스와 거의 유사한 현재의 녹음부스는 다년간의 수능 시험을 통해 진화된 것이며, 2000년대 초반에는 합판과 계란판 모양의 흡음제로만 제작하였다고 한다. 마치 시골 점방을 연상하면 된다고 하니, 지금처럼 완전 방음이 됐을 리 만무하다.

축음기, 라디오 방송, LP, 테이프 레코드 등 소리를 기록하는 역사가 끝없이 진보하고 발전해 왔듯이, 현재 듣기 평가 매체로 활용되고 있는 CD도 진화한 방식으로 그리 오래된 역사를 지니는 것은 아니다.

수능이 시작된 1994학년도부터 2000학년도까지는 EBS를 이용하여 전국으로 동시 방송되었는데, 당시 송출은 KBS가 담당하고 비상 시를 대비하여 시험장당 녹음 테이프 2개를 배부하였다. 2001학년도부터는 EBS 방송망이 아닌 학교 방송 시설을 이용하여 시행됨에 따라 방송 시설이 가능한 학교를 시험장으로 설치하고 시험장에 녹음 테이프를 배부하였다. 2011학년도 CD의 도입으로 10여 년간 듣기 평가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던 테이프는 수능 역사의 뒤편길로 사라졌으며, 깨끗한 음질의 CD를 제작하기 위한 고민과 노력은 현재도 계속 진행 중에 있다.

출제본부에서 CD 만들 생각을 누가 했을까? 보안을 우선시하는 출제본부이다 보니 공여지책으로 나온 안이었을 것이다. 그리고 보면 출제위원을 한 달 넘게 감금하여 출제하는 것도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일이다.

출제본부 개설 21일째 오전 9시에 언어와 외국어 문제지가 최종 완성되어 인쇄본부로 반출되고 나면, 녹음 작업과 CD 제작을 위한 녹음 엔지니어와 성우가 출제본부에 입소한다. 성우는 외국인 성우 2명과 내국인 성우 4명으로 구성되는데, 특히 외국인 성우는 영어 발음이나 억양과 관련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섭외 시부터 각별한 신경을 쓴다. 한국인 성우 4명은 애니메이션이나 영화 더빙, 어린이 동화책이나 오디오북 제작 등 프리랜서로 활동하고 있는 이들에게

〈표 5-1-1〉 2012~2013학년도 듣기 평가 CD 제작 수량

(단위: 개)

구분	2012학년도				2013학년도			
	언어		외국어		언어		외국어	
	주	예비	주	예비	주	예비	주	예비
시험장	1,207	1,207	1,207	1,207	1,191	1,191	1,191	1,191
예비 시험장	84	84	84	84	85	85	85	85
시험지구	-	5,200	-	5,200	-	5,275	-	5,275
계	1,291	6,491	1,291	6,491	1,276	6,551	1,276	6,551

이들의 입소로, 그동안 인적 없이 조용했던 녹음부스가 갑자기 북적북적해지기 시작한다. 말하자면 본격적으로 CD공장 생산라인이 가동되기 시작하는 것이다.

녹음 작업은 성우가 녹음부스 안에 들어가 대본을 읽으면, 출제위원은 부스 밖에서 모니터링을 하는 식으로 진행된다. 라디오 방송국을 연상하면 되는데, 흡사 성우는 DJ이고, 출제위원은 작가나 PD가 되는 것과 같다. 마지막 문항까지 녹음이 끝나면 음악, 효과, 포즈 삽입 등 편집을 하고, 출제위원의 시사회를 진행한다. 출제위원의 최종 확인을 받으면 녹음 작업이 끝나며, 마스터링 CD가 나오는데 이 작업에 하루가 꼬박 소요된다. 이 마스터링 CD를 복제하는 작업을 2~3일간 수행하며, 8~12개의 디스크가 들어있는 복제기 10대가 이 작업에 투입된다. 보통 디스크당 CD가 생산되는 데 5~7분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면, 10대의 복제기를 모두 가동했을 때 100여 개 이상을 한 번에 생산할 수 있는 셈이다. 복제 작업이 시작되면 출제본부 녹음실은 5일여 동안 작은 CD 복제 공장으로 변신한다.

제작해야 하는 수량은 15,000장 내외로, 영역별로 시험장당 주CD 1개와 예비CD 1개로 이루어진 1세트, 예비 시험장당 주CD 1개와 예비CD 1개가 배부되며, 시험지구당 영역별로 예비CD 50개가 주어지는데, 이는 시험지구 예비용이다(〈표 5-1-1〉 참조).

CD검수

CD는 복제 작업만큼 검수 작업도 철저하게 이루어진다. 2011학년도 수능까지는 트랙 체크로 검수 작업을 수행하였고, CD의 에러율을 조금이라도 줄이고자 2012학년도 수능부터 시험장 배부용 주CD에는 전수 검사가 도입되었다. 여기서 트랙 검사란 문항별로 실행이 되는지 체크하는 것이며, 전수 검사란 복제된 CD를 CD PLAYER에 넣고 처음부터 끝까지 실제 시간으로

듣는 것을 의미한다.

이 작업을 위해서 출제본부 개설 24일째에 별도의 인원이 투입되는데, 전수 검사의 도입으로 검수요원이 2012학년도 수능에는 검수요원이 5명에서 10명, 2013학년도 수능에는 10명에서 15명으로 증원되었다. 출제본부 개설 30일째(시험 4일 전)에는 듣기 평가 CD가 인쇄본부에 전해져야 하기 때문에 포장 시간을 제외하고 나면 실제 검수할 수 있는 기간은 3.5~4일 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 예비CD를 트랙만 체크하는 이유도 이런 한정된 시간 때문이다(〈표 5-1-2〉 참조).

CD 검수 장소는 녹음부스와는 별도의 장소에 마련된다. 협의실 한 편에서는 이동식 복제기를 통해 CD 복제 작업이 이루어지고, 한쪽에서 검수 작업이 진행된다. 20대 초중반의 검수요원들이 CD PLAYER에 이어폰을 꽂고, CD를 일일이 처음부터 끝까지 들으며 이상 여부를 검수하는데, 작업 내용을 잘 모르는 외부인이 본다면 이어폰을 꽂고 음악을 듣는 여유로운 청춘들로 여겼을 것이다.

그러나 실상은 정반대이다. 근무기간은 4일 정도로 짧다고 할 수 있으나 같은 내용의 언어를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듣는다는 것은 여간 힘든 일이 아니다. 특히, 최소한의 먹고 자는 시간을 제외한 하루 평균 12시간을 CD와 사투해야 한다면 말이다.

이들의 고충을 잘 알기 때문에 줄음이 쏟아지며 노곤해지려는 오후 3, 4시쯤 관리팀에서 아이스크림이나 커피를 들고 방문하여 고충을 위로하고 검수 작업에 대한 사명감을 주시키며 격려하곤 한다. 수능에서 모든 작업이 중요하겠지만, 검수 작업을 소홀히 했을 때의 문제점을 설명해 주면 검수요원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수험생을 위해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된다.

첫 CD를 검수할 때의 초롱초롱하던 눈빛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점 생기를 잃어간다. 차라리 육체적 노동이 낫다고 하는 검수요원도 있으며 두통을

〈표 5-1-2〉 검수요원 1인당 1일 주CD 검수 수량

학년도	구분	개당 검수 시간	1일 근무 시간	1인당 1일 검수 수량	검수 요원	검수 수량	소요 일수
2012 수능	언어	15분	12시간(720분)	48개	10명	1,207개	2.5일
	외국어(영어)	22분	12시간(720분)	33개	10명	1,207개	3.6일
2013 수능	언어	15분	12시간(720분)	48개	15명	1,191개	1.7일
	외국어(영어)	22분	12시간(720분)	33개	15명	1,191개	2.4일

호소하고 심지어 구토 증상을 보이는 사람도 있다. 검수가 끝날 때쯤이면 모든 문항을 외울 수도 있다고 하니, 영어 리스닝에 어려움이 있는 학생들에게 적극 권하고 싶은 공부 방법이다.

단순한 작업 같지만 사소해 보이는 행동 하나도 알고 보면 의미가 있다. 녹음팀장이 복제 CD의 후면을 형광등 불빛에 비춰 보고 있는 모습을 흔히 목격할 수 있는데, CD 표면에 미세한 흠이라도 발견될 경우 따로 모아 파기시키기 위함이다. 아주 작은 잡음이라도 들릴 경우 검수요원은 녹음팀장을 부르거나 손을 들어 그 사실을 알린다. 그리고 잡음이 발견된 CD는 즉시 파기 CD로 분류된다. 이는 복제 작업 초기에는 복제기의 에러율을 파악하는 데 중요한 데이터가 되기도 하는데, 특정 복제기에서 생산된 CD가 에러가 잦을 경우 그 복제기는 생산라인에서 제외된다. 검수 중에 생길 수 있는 CD 오염을 방지하고자 면장갑을 낀 채 마치 야기 다루듯 CD를 잡는 검수요원들의 모습은 경건하기까지 하다. 이는 CD에 이물질이 있을 경우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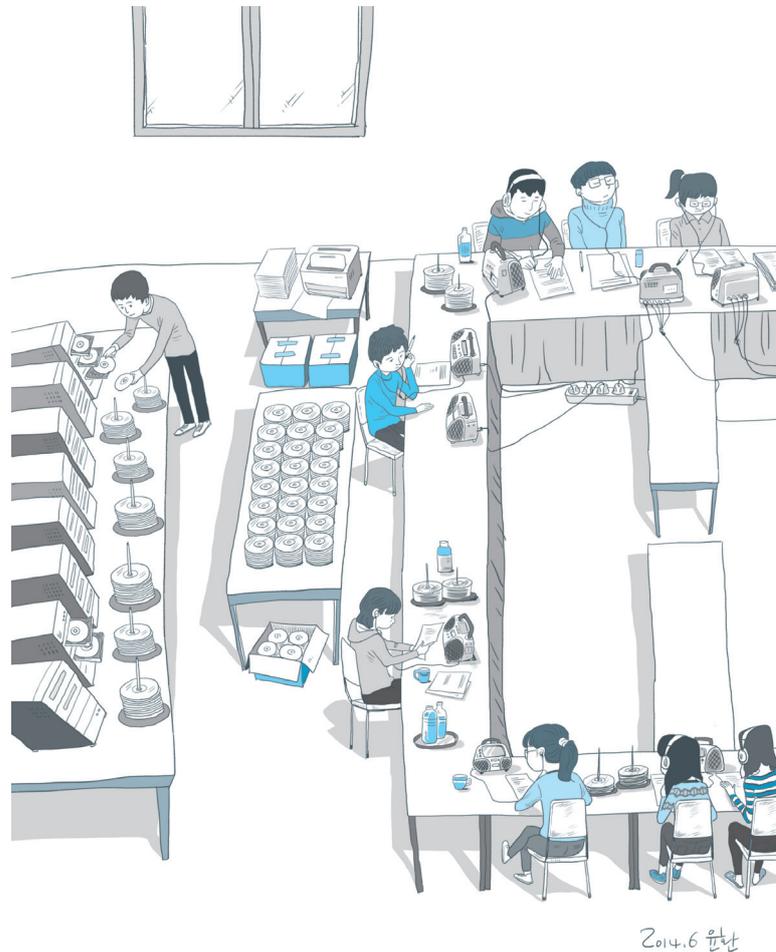
안타깝게도 아직까지는 복제 CD의 대량 검수에 활용할 수 있는 기계나 프로그램을 이용한 검수 방법이 없어서 이렇듯 수동적인 방법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인지 검수가 끝난 CD를 보면 힘든 과정만큼이나 뿌듯하고 넉넉한 기분이 든다. 아마도 군대를 다녀온 직원이라면 “보람찬 하루 일을 끝내고 나면~” 이라는 노래가 절로 나오지 않을까 싶다.

CD 포장

검수 작업이 끝난 주CD와 예비CD는 여러 단계의 포장 작업을 거치게 된다. 시험장으로 배부되는 CD는 2단계로 포장되며, 1단계는 영역별로 주CD 1개와 예비CD 1개를 1차 케이스에 넣고, 2단계에서 언어 영역과 외국어 영역 각각의 1차 케이스를 2차 케이스에 넣는다. 시험지구 예비용으로 배부되는 예비CD는 p-case에 1개씩 넣는데, 이는 시험장에 배부되는 주CD와 예비CD로도 시험 진행이 원활하지 않을 때를 대비한 비상용 CD인 셈이다.

시험지구별로 2차 케이스 수량이 맞는지 꼼꼼하게 확인한 후 상자를 입봉한다. 모의평가는 50개 단위로 상자에 넣기 때문에 포장 과정이 간단하지만(모의평가는 인쇄본부에서 시험장별로 재포장 작업 실시), 수능은 시험지구별로 시험장수와 여분 수량이 상이하야 상자 포장 작업에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여러 번의 확인 작업을 거치고 CD가 1세트도 남아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혹시 포장이 잘못되지 않았을까 괜한 걱정에 임의로 몇 개 시험지구의 상자를 다시 열어보기도 한다. CD 포장 작업은 보통 자정을 넘기는 경우가 많으며, 특히, 듣기 평가 CD가 반출되기 전날에는 거의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운다.

마침내, 늦가을 이른 아침에 듣기 평가 포장 상자는 출제본부 보안문을 통해 외부 책임자에게 전달된 후 경찰차량의 호위를 받으며 인쇄본부로 이동된다. 점점 작아지는 차를 보며 마냥 흥분분하지는 않다.



2014.6 원안

〈듣기 평가 CD 검수〉

시험이 무사히 종료될 때까지 이 불안감의 크기는 줄어들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영화 '쥬스'도 그랬듯이 공포 영화의 결말은 언제나 뻔했던 것을 기억하며, 올해도 듣기 평가 방송이 무사히 진행되기를 기도하는 심정으로 8일여 간의 CD 공장장에서 출제본부 일상으로 복귀한다.

라. 특별관리대상자용 문제지 제작

출제를 위한 합숙 기간은 바쁘지 않은 날이 없다. 입소 이후 출제의 전 과정을 거쳐 퇴소하는 그날까지 국민들이 기대하는 문항, 학생들의 능력을 타당하고 신뢰성 높게 측정할 수 있는 문항을 제작하기 위해, 적지 않은 업무를 정해진 일정에 맞게 차질 없이 수행해야 한다. 그럼에도 출제 기간 중 업무가 가장

바쁘게 돌아가는 시기는 최종 문제지 제출을 전후한 며칠일 것이다. 완성도 높고 참신한 문항을 제작하기 위한 그동안의 노력이 빛을 발하기 위해서는 정신의 날을 더욱 바짝 세워 문항을 하나씩 꼼꼼하게 살펴야 한다. 여기에 더해 최종 문제지가 완성된 이후 작성해야 할 서류와 해결해야 할 업무들도 적지 않다. 따라서 최종 문항을 출제했다고 긴장의 끈을 풀 수가 없다. 끝나기 전까지는 끝난 것이 아니라는 말이 있는데 최종 문제지가 제출되었다고 모든 출제가 끝난 것은 아닌 것이다. 점역 대체 문항 제작을 포함하여 특별관리대상자용 문제지를 제작하는 것도 여기에 해당한다.

/ 대체 문항 제작

“A형 ○○번, ○○번, ○○번, ○○번, B형 ○○번, ○○번, ○○번 등은 특별관리대상자를 위해 대체 문항 개발이 필요합니다. 힘드시겠지만 잘 부탁드립니다.” 출제본부에 입소하여 최종 문항을 검토한 점역위원이 대체 문항 제작 요청서와 함께 그 내역을 상세히 알려주었다. 저시력자를 위한 확대 문제지를 제작하는 것은 최종 문제지를 118%, 200%, 350%로 확대하거나 71%로 축소하면 되기 때문에 편집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변형 가능성 정도만을 검토하면 된다. 하지만 맹인 수험생을 위한 점역 대체 문항을 제작하는 것은 경우에 따라서는 문항을 완전히 새롭게 출제해야 하는 어려운 작업이다. 문항의 최종 완성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한 상태에서 이러한 출제 요구는 다소 부담스러울 수 있다. 하지만 출제위원들도 국가 수준의 시험에서 소수자를 배려하고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는 점을 충분히 공감하기 때문에 자신의 문항이 점역 대체 대상 문항으로 선정될 경우 적극적으로 협조하고자 한다.

“그림 A형 ○○번은 도표의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풀어 설명하는 것으로도 충분할까요?”, “B형 ○○

번은 보기의 그림을 삭제하는 대신 이 그림이 묘사하는 현상에 대해 설명을 더 추가해야 하나요?” 예를 들어 국어 영역의 경우 여러 영역에서 다양한 소재를 다루기 때문에 그래프, 기호, 그림, 표 등을 문항에 활용하는 경우가 많다. 이들 자료는 특정한 이해 정도와 능력을 측정하거나 지문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지만 시각 장애 수험생들에게는 오히려 문항 풀이의 장애로 작용할 때가 있다. 따라서 점역위원은 시각 장애 수험생들이 풀 수 없거나 그들의 능력을 적절하게 측정하기 어려운 문항들을 선정하여 출제 위원에게 통보해야 하고 출제위원은 해당 문항을 수정·보완하거나 대체 문항을 새로 제작할 때 유념해야 할 지점들을 점역위원과 상세하게 상의해야 한다. 만약 지문에 제시된 그림을 삭제하거나 특정 기호들을 문자로 바꾸는 선에서 수정·보완이 가능하다면 쉽게 대체 문항을 제작할 수 있다. 하지만 삭제된 그림 대신 설명을 추가하거나 표의 내용을 다소 긴 문장으로 풀어 설명해야 한다면 섬세한 개발이 필요하며 따라서 점역위원과의 협의가 매우 중요하다. 수정·보완되거나 교체된 부분이 평가 문항으로서의 기능을 적절히 수행하면서도 장애 수험생의 문항 풀이에도 적합해야 하기 때문이다. 대체 문항을 설계해야 하는 출제위원의 고민은 깊어질 수밖에 없다.

이처럼 수능에서는 맹인 수험생, 저시력 수험생, 청각 장애 수험생 등 장애 수험생의 응시 편의를 위해 모의고사와 수능에서 특별관리대상자용 문제지를 제작하고 있다. 맹인 수험생을 위해서는 점역 문제지와 녹음 테이프를 제공하며 저시력 수험생에게는 확대 문제지, 청각 장애 수험생에게는 듣기 평가 대체 지필 문제를 제공한다. 이러한 편의를 제공한 것은 1979년 예비고사에서 점자 문제지를 제공하고 시험 시간을 1.5배로 연장한 것을 시작으로 하여 이후 1998학년도 수능부터는

〈표 5-1-3〉 수능 맹인 수험생용 특수 문제지 제작 대상 영역/과목 현황

	언어	수리		외국어 (영어)	사회 탐구	과학 탐구	제2외국어/한문
		가	나				
2011 학년도	○	○	○	○	윤리, 국사, 한국지리, 한국근현대사, 세계사, 법과 사회, 정치, 사회문화	물리 I, 화학 I, 생물 I, 생물 II	일본어
2012 학년도	○	○	○	○	윤리, 국사, 한국근현대사, 세계사, 법과 사회, 정치, 사회문화	-	일본어
2013 학년도	○	○	○	○	윤리, 국사, 한국근현대사, 세계사, 법과 사회, 정치, 사회문화	물리 I, 화학 I, 생물 I, 지구과학, 화학II, 지구과학II	일본어

문항 수와 지문량의 증가를 고려해 언어 영역과 사회탐구, 과학탐구 영역의 문제를 녹음 테이프 방식의 음성 평가 자료로 제작하여 수험생들에게 제공하였다. 또한 2009학년도 수능부터는 시험 시간을 1.5배에서 1.7배로 연장하였으며, 2011학년도 수능에서는 외국어 영역 문제도 음성 평가 자료를 제공해서 시험을 볼 수 있게 하였다.

특별관리대상자용 문항의 제작 대상 과목은 원서 접수 단계에서 학생의 희망에 따라 선정된다. 출제본부에 점역요원이 입소하여 점역 대체 문항을 선정하면, 출제위원이 점역 대체 문항을 제작하고, 이를 점역요원이 승인한 뒤 결재하는 절차를 거쳐 문항이 확정된다. 문항이 확정되면 점역 문제지, 감독교사용 A3 점역 대체 문제지, 음성 평가 자료, 듣기 평가 대체 지필 문제를 제작한다. 참고로 최근 3년간의 수능 시험 특수 문제지 제작 현황을 밝히면 〈표 5-1-3〉과 같다.

시험 시행 과정에서 시각 장애 학생은 정안 학생과는 다른 시험 시간, 시험실, 시험지 등을 제공받는다. 시험 시간은 정안 학생 수험생의 1.7배이며 귀가 시간을 고려하여 점심시간과 휴식 시간을 단축 운영한다. 시험실은 시각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별도의 시험실과 대기실을 설치하고 있는데 현재 시험실당 10명 이하를

기준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시험 감독관은 3명이다. 학생들은 점역 문제지와 녹음 테이프를 제공받는데, 녹음 테이프 플레이어 및 점자판과 점필은 개인이 지참하여야 한다.

▮ 대체 문항의 수정·보완

“눈을 감고 들어보니까 지금 설명만으로는 그림 없이 해당 현상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좀 더 추가적인 설명을 출제위원에게 요청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럼 어떤 내용을 얼마나 더 추가해야 할까요?”, “그림에서는 A, B, C, D의 위치에 점을 찍어 진동면과 회전 방향을 표시했지만 그림을 삭제할 경우 이러한 표시들은 수험생의 이해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보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설명이 너무 과하면 수험생이 읽기에 부담이 될 수 있고 목표 못하는 난이도도 성취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출제위원이 제작한 대체 문항도 일반 문항처럼 출제의 모든 과정을 거친다. 다시 말해 제작된 모든 대체 문항은 검토위원들의 검토를 받아 필요한 경우 수정과 보완의 과정을 다시 거쳐야 하는 것이다. 대체 문항을 접수한 검토위원들은 더욱 집중하여 문항을 꼼꼼하게 검토할 수밖에 없다. 일반 문항이 대체 문항으로 바뀌는 과정에서



2014.6 원환

〈시각 장애 수험생의 문제 풀이〉

문항의 완성도 변화, 복답이나 무답 가능성을 살펴야 하고 무엇보다 장애 수험생들의 문항 풀이에 문제가 없는지 점검해야 한다. 예를 들어 대체 문항이 〈보기〉에 있던 그림을 삭제하고 이를 대신하여 설명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제작되었다면 추가된 설명이 삭제된 그림의 기능을 적절하게 대체하고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살펴야 한다. 이를 위해 검토위원들은 응시 상황을 가정하여 누군가가 낭독하는 문두, 보기, 답지 등을 오직 듣기만 한다. 이를 통해 대체 문항이, 응시할 수험생의 특성에 맞게 설계되었는지를 좀 더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고 너무 과하거나 부족한 설명은 없는지 확인할 수 있으며 적절한 대안도 모색할 수 있다.

이러한 검토 내용은 다시 출제위원에게 전달 되고 출제위원은 검토 내용을 고려하여 대체 문항을 좀 더 수정하고 보완한 다음 검토위원에게 다시 전달한다. 이런 과정을 여러 번 거치면서 대체 문항의 완성도와 적절성은 높아간다. 물론 대체 문항으로 확정하기 위해서는 점역위원의 최종 판단을 거쳐야 한다. 출제위원과 검토위원이 고려하지 못한 지점들이 있을 수 있고 그 지점들이 장애 수험생들의 문제 풀이에 필요한 것이라면 대체 문항에 반드시 반영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대체 문항은 출제위원, 검토위원, 점역위원의 사이를 여러 번 오가야 할 때가 있고 그 여정은 점역위원의 다음과 같은 말과 함께 비로소

끝이 난다. “이 정도면 수험생들이 풀이하는 데 특별한 문제가 없었습니다. 대체 문항으로 확정해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능은 대학입학에 중요한 전형 자료로 대학 입학에 희망하는 특별관리대상자들이 다수 응시하고 있다. 법률에서는 이들에 대한 차별금지와 권리구제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실질적 보장에 대한 사회적 요구도 증대되고 있다. 따라서 이들에게 공정한 시험 기회를 부여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이들을 위해 대체 문항을 개발하고 문제지를 제작하는 것은 출제의 매우 중요한 업무이며 앞으로도 계속되어야 할 책무이다. 최근 평가원에서 연구하고 시행을 계획하고 있는 스크린리더 도입도 이러한 노력의 일환이다. 시각 장애 수험생들을 위해 기존에 제공된 카세트 테이프 음성 평가 자료를 대체할 스크린리더 음성 평가 자료는 카세트 테이프를 이용하여 녹음된 문항들을 일일이 찾아 들어야 하는 기존 방식과는 달리 문항이 저장된 텍스트 파일에서 원하는 부분을 검색하여 음성으로 변환하는 방식의 새로운 수험 자료이다. 이는 시각 장애 수험생들의 수능 응시에 큰 편의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바 앞으로도 특별관리대상자를 위한 연구와 실행 노력은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마. 평가원 수능 전담 조직

Ⅰ 수능 전담 부서가 만들어지기까지

2001학년도 수능이 이른바 ‘물수능’이라는 비판을 받자 2002학년도 수능을 대비하기 위해서 ‘KICE 대수능 특임팀’이 구성되었다. 이는 전담 연구원 없이 수능 시행일이 다가오면 일시적으로 출제위원단을 조직한 이전에 비하면 수능 출제를 연구하면서

준비했다는 점에서 진일보한 것이었다. 하지만 특임팀은 다른 업무를 겸임하였기 때문에 수능 업무를 전담한 조직은 아니었다.

Ⅱ 상시 전담 기구인

대학수학능력시험특임연구실이 설치되다

2002년 2월 1일 고사관리본부가 고사관리실로 개편되었는데, 하부조직으로 고사운영1부와 고사운영2부를 두었다. 이때 대학수학능력시험 특임연구실이 신설되었고, 그 아래에 대수능관리부가 편제되어 2002년 6월 30일까지 유지되었다. 이때부터 수능 전담 조직이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2002년 7월 1일 대학수학능력시험특임연구실에 기획분석부, 연구개발부를 신설하여 기존의 대수능관리부와 함께 3부 체제가 꾸려졌고 그해 12월 29일까지 유지되었다. 2002년 7월에는 시·도교육청으로부터 국어, 일반사회, 생물, 지구과학, 영어, 중국어, 스페인어 과목 교사 7명을 파견받았다(2002년부터 2012년까지 본원 수능 업무에 파견된 교사는 총 51명에 이른다). 수능 업무는 2002년 9월 3일 처음으로 수험생의 수준을 파악하기 위한 모의평가가 실시되었고, 2004학년도부터 모의평가를 연 2회(6월과 9월) 실시하게 되어 연중 담당 업무가 정해졌다.

2002년 9월 16일에 발표된 ‘수능 시험 적정 난이도 대책 방안’에는 대학수학능력시험실을 두고 하위 조직으로 기획분석부, 연구개발부, 수능관리부를 운영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어 상시 전담기구의 설치가 공식화되었다. 인력은 연구직 27명, 행정직 4명, 전산직 3명 등 34명으로 하며, 원서 접수, 출제, 채점 기간에는 필요한 인력을 타부서에서 차출하기로 하였다. 연구직은 고등학교 지도 경험이 많은 인력을 확충하기로 하였다. 또한 현직 고등학교 교사 9명으로 구성된 파견교사 제도를 운영하기로 하였다. 수험생의 수준을 고려한 출제로 적정 난이도를 확보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던 것이다.

2002년 12월 30일, 실 체제는 본부 체제로 개편되었다. 대학수학능력시험특임연구실이 대학수학능력시험연구본부로 개편되었으며, 하위에 기획분석부, 출제연구부, 수능관리부 3부가 편제되어 2004년 1월 4일까지 유지되었다.

▶ 수능 조직이 대학수학능력시험연구관리처로 확대되다

2004학년도 수능에서 수능 역사상 처음으로 ‘복수 정답’이 인정되었고, ‘부적격 출제위원 선정’ 문제가 발생되었다. 이 같은 사태에 직면해서 평가원과 교육인적자원부는 감사원의 특별감사를 받았다. 특별감사 결과 평가원의 관련 책임자 10여 명이 징계를 받았고, 수능 등 평가 시스템 전반을 개선하도록 권고 받았다.

이를 계기로 2003년 12월 5일 교육인적자원부 차관을 단장으로 하여 ‘수능출제·관리개선기획단’이 발족되었다. 기획단은 한국교육개발원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출제위원선정개선위원회’, 총리실정책평가위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출제체제개선위원회’ 등 민관합동의 2개 분과위로 구성었다. 동 기획단은 3개월여의 작업 끝에 2004년 3월 12일 수능시험 출제관리 개선안을 발표하였다.

개선안에는 출제위원 인력풀 확대 및 다변화, 출제위원 검증시스템 강화, 출제위원 인센티브 강화, 문항 출제체제 개선, 문항 검토체제 개선, 이의제기 처리 절차 개선, 2005학년도 수능 시행·관리체제 개선 등에 걸친 내용이 담겨있다. 이와 함께 교육인적자원부는 평가원에 ‘수능지원단’을 파견, 대학수학능력시험연구관리처 협조 기구를 설치해서 운영하였다. 단장을 포함해 4명으로 구성된 수능지원단은 2005학년도 수능 모의평가 시행 지원, 응시 수수료 결정, 시·도교육청 협조 관련 업무 수행, 2005학년도 수능 시행 지원, 2005학년도

수능 관련 언론 보도 대응, ‘수능출제·관리개선 기획단’ 확정 과제 추진 점검 및 확인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2004년 1월 5일에는 대학수학능력시험연구관리처가 신설되고, 하부 조직으로 시행관리부와 출제관리부를 신설하여, 기존의 기획분석부, 출제연구부와 함께 4개 부서로 구성되었다. 이 조직은 2005년 5월 23일까지 유지되었다. 2005년 5월 24일에는 시행관리부의 명칭을 수능운영부로 변경하였다. 2005학년도 수능에서는 휴대폰을 이용한 대규모 부정행위가 발생했다. 공정한 평가 질서 및 시험의 공신력을 확보하고, 정보통신기술의 발달 등으로 첨단화·지능화·조직화되고 있는 부정행위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2005년 3월 교육인적자원부는 ‘수능 부정행위 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하였다. 이와 같은 일을 겪으며 수능의 시행이 시·도 교육청 소관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시행관리부’라는 명칭 때문에 평가원 업무로 오해할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명칭을 변경한 것이다.

2004년 10월 28일에 교육인적자원부는 ‘학교 교육 정상화를 위한 2008학년도 이후 대학입학제도 개선안’을 발표하였다. 이 개선안에는 수능을 폐쇄형 출제 방식에서 점차 문제은행식 체제로 전환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이에 따라 평가원에서는 문제은행식 체제 구축을 위해서 인력 및 예산의 단계적 확보를 추진하였다. 2005년에는 문제은행 TF팀을 구성하였고, 2005년 12월 22일에는 문제은행연구부를 신설하면서 5부 체제를 갖추게 되었다.

▶ 수능연구관리처에서 수능본부로 상시 조직이 정비되다

2008년 12월 31일에는 대학수학능력시험연구관리처가 대학수학능력시험연구본부로 개편되었다. 하위 조직으로 기획분석부, 출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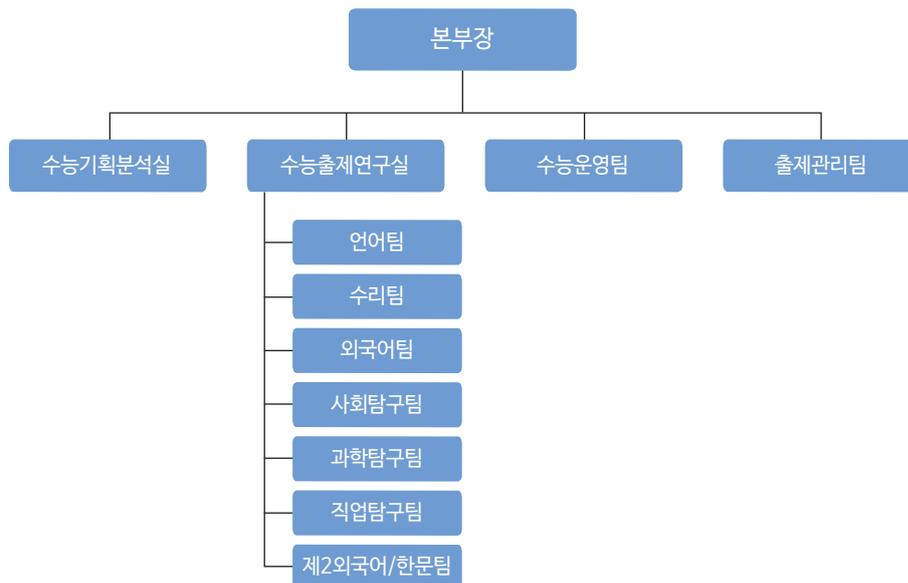
연구부, 문제은행연구부, 수능운영부, 출제관리부, 행정지원팀을 두었다. 2004년 이래 연구관리로 격상되었던 조직이 다른 부서와 나란히 배치되었으므로 어떻게 보면 수능사업이 비상체제에서 다소 벗어난 듯이 보인다.

2009년 12월 28일에는 기획분석부가 기획분석실로, 출제연구부가 출제연구실로, 문제은행연구부가 문제은행연구실로 변경되었다. 평가원이 연구원 조직은 ‘실’체제로, 행정원 조직은 ‘부’체제로 명칭을 분리한 결과였다. 이때 행정지원팀은 폐지되었다. 2010년 12월 28일에는 본부의 명칭이 대학수학능력시험연구본부에서 대학수학능력시험본부로 변경되었다. 수능의 특성이 연구보다는 사업의 비중이 높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수능본부 아래 3개 실과 2개 부로 구분된 조직은 2011년 5월 2일까지 계속되었다.

수능본부에서 영역팀이 공식 조직이 되다

2011년 5월 3일에는 대학수학능력시험본부의 하위 조직에 큰 변화가 있었다. 우선 기획분석실과 출제연구실이 각각 수능기획분석실과 수능출제연구실로 변경되었다. 수능이라는 업무가 추가된셈인데, 이미 교육평가본부에 있는 기획분석실과 출제연구실은 수능본부와 구분하기 위해서 학업성취도기획분석실과 학업성취도출제연구실이라고 명명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와 형평을 맞추었다고 볼 수 있다. 문제은행연구실은 폐지되었지만 문제은행사업은 계속되었기 때문에 수능출제연구실로 업무가 배정되었다. 명칭보다 큰 변화는 행정조직을 부체제에서 팀체제로 바꾼 것이었다. 이로써 수능운영부는 수능운영팀으로, 출제관리부는 출제관리팀이 되었다. 이것은 수능조직뿐만 아니라 평가원 전체적으로 행정

※ 2012년 대학수학능력시험본부 조직도



조직을 부제에서 팀제로 바꾼 결과였다. 또다른 변화는 기존에 비공식 조직으로 활동하고 있었던 영역팀을 공식조직으로 만든 데 있었다. 이때부터 수능출제연구실 하위조직으로 언어팀, 수리팀, 외국어팀, 사회탐구팀, 과학탐구팀, 직업탐구팀, 제2외국어팀 등 7개 영역팀이 탄생하였다. 영역 주무로 불리던 영역팀장은 보직 개념으로 탈바꿈하였다. 뿐만 아니라 영역별 팀원도 이전에 비해서 확충되었다. 고등학생이 응시하는 문항을 다루는 수능 업무는 일반적인 연구역량과는 다른 업무역량이 필요하며, 이러한 역량을 갖추기는 단기간으로 부족할 수 있다. 그러므로 연구원이 안정적으로 장기간 근무할 필요가 있었다. 그런데 공정성 문제 때문에 수험생 자녀가 있으면 수능 업무를 담당할 수 없고, 대학 등 타 기관으로 이직이 적지 않기 때문에 업무의 공백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전공별로 복수의 연구원을 배치해서 업무를 분담할 뿐만 아니라 업무의

인수인계에 문제가 없도록 해야 했다. 특히 국어, 영어, 수학 담당 연구원이 증가했다.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문제은행실이 폐지되면서 문제은행실 소속 연구원이 수능출제연구실로 옮겼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정부가 사교육비 절감을 위해서 2010년부터 시작한 수능-EBS 연계 정책에 따라 수능교재의 감수사업이 강화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갑자기 시작된 연계 정책으로 2010년 하반기에는 연계 교재에 오류가 많다는 지적이 빚발쳤다. 이에 따라 2011년부터는 평가원 감수를 강화해야 했고, 영역별 필요 인력을 확충해야 했다.

2012년 12월 22일에는 언어팀이 국어팀, 수리팀이 수학팀, 외국어팀이 영어팀, 제2외국어팀이 제2외국어/한문팀으로 변경되었다. 2014학년도 수능부터 영역 명칭이 언어, 수리, 외국어에서 국어, 수학, 영어로 바뀌고 제2외국어팀의 영역 명칭에 맞추어 조정된 결과였다. 이로써 영역팀은 수능본부의 핵심 조직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제2절

수능 복수 정답 사례

김동영(한국교육과정평가원)

조용기(한국교육과정평가원)

최혁준(한국교원대학교)

가. 2004학년도 수능 언어 영역 17번 문항

2003년 11월 24일 오후 2시 정부중앙청사 교육부 기자실. 평가원장은 2003년 11월 5일 실시된 2004학년도 수능 언어 영역 17번 문항에 대해 “원래 정답 ③번 이외에 ⑤번도 정답으로 인정하기로 최종 결정했다.”라고 발표했다. 언론과 방송들은 “수능 공신력 먹칠… 후유증 클 듯”, “수능 공신력 위기…언어 영역 사상 첫 복수 정답 인정”, “엇갈리는 희비 속 파장 확산” 등 선정적인 제목으로 앞을 다투어 보도하기 시작하였다.

시적 화자가 이르고자 하는 ‘고향’으로 가는 길을 열어 주는 ‘문’과 같은 기능을 수행한다. 즉 ‘의원’은 이원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북관’과 ‘고향’을 연결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해 준다. <보기>에서 ‘테세우스’가 ‘비밀의 방’에 이르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것은 ‘미궁’인데, 이 ‘미궁의 문’은 “들어가고자 하는 사람에게만 존재하고 열린다.”라고 미궁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 입구인 ‘미궁의 문’을 찾아야 한다. 요컨대 출제진은 제시된 시의 “나(북관)-의원-고향”이 <보기>의 “테세우스[미궁 뚫]-미궁의 문-비밀의 방”과 일치한다고 보았다.

/ 언어 영역 17번 문항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17번’ 또는 ‘미궁의 문’으로 기억하고 있는 2004학년도 수능 언어 영역 17번 문항(이하 17번 문항)의 설명은 다음과 같다.

이 문항의 출제 의도는 ‘작품의 각 구성 요소들과 전체 작품 구조와의 관계’를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는 것이었다. 출제진은 다음과 같은 인식에 근거하여 이 문항의 정답을 ③으로 제시했다. 제시된 시에서 ‘의원’은, ‘북관’에서 혼자 앓아누운

결코 낮설고 무서운 세계일 수 없으므로 낮설고 무서운 세계-친근한 세계를 기계적인 도식이라고 비판한다. 그리고 <보기>에서 테세우스의 목표는 분명 '비밀의 방'에 이르는 것이라는 것이다. 또한 후자와 달리 전자는 제시된 시의 "나(북관)-의원-고향"이 <보기>의 "테세우스(미궁)-실-(미궁) 밖"과 일치한다고 주장한다. 비교의 범주에 있어서도 전자와 후자는 커다란 차이를 보였다.

평가원 홈페이지를 통해 수험생들이 계속해서 이의제기를 하고, 최 모 교수도 신문 기고를 통해 공신력 있는 전문가에게 공정한 결론을 맡기라고 촉구하였다. 급기야 11월 18일 평가원에서는 내부 논의를 통해 공신력 있는 관련 학회에 17번 문항의 정답에 대한 유권 해석을 의뢰하기로 결정하였다. 11월 20일 한국국어교육연구학회에서 구성한 심의위원회의 유권 해석 결과는 다음과 같은 요약문으로 회신되었다. "위원 5명 : ③이 정답, 그중 2명은 ⑤가 정답이 아니라고 부정하기 어려움, 위원 1명 : ⑤가 정답, 위원 1명 : ③과 ⑤ 둘 다 정답임."

이상과 같은 회신을 받은 평가원은 수능자문 위원회를 개최하였으나, 수능자문위원회에서도 복수 정답과 단수 정답이 6 : 4 정도로 갈렸다. 평가원에서는 교육부와 협의를 거쳐 11월 24일 17번 문항의 정답이 둘이라고 발표하였다.

복수 정답 인정

평가원이 복수 정답을 인정한 근거는 문두의 개방성과 답지 해석의 다양성이었다. 즉 17번 문항의 문두에서 '유사한 기능'이라는 용어에 조건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특정 방향으로 응답을 제한하지 않았다. 그래서 일반적인 수험생의 지적 능력으로 해석할 때, 출제 의도와 다른 답을 정답으로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 출제위원의 의도대로 하면 정답이 ③번이지만, 문두의 '유사한 기능'이라는 말이 포괄적이어서 출제위원의 의도와는 달리 '실'도 답으로 생각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그러나 복수 정답을 인정한 것으로 사태는 바로 종결되지 않았다. 시위, 국민감사 청구, 소송 등의 후폭풍이 뒤를 이었다. ③을 선택한 학생들은 삼청동 평가원 앞에서 시위를 가진 뒤에 복수 정답 인정 경위에 대해 국민감사를 청구했다.(⑤번을 선택한 수험생들도 수능 사후처리 절차에 대해 국민감사를 청구하였다.) 이들이 청구한 국민감사가 받아들여져 2004년 2~3월에 평가원은 감사원의 감사를 받았다.

또한 ③을 선택한 수험생 449명은 평가원을 상대로 복수정답 인정행위 효력정지 신청 소송을 제기했다. 12월 10일 서울행정법원에서는 "17번 문항은 '유사한 기능'이라는 용어 앞에 아무런 조건이 명시돼 있지 않아 평균적인 수험생들로서는 진정한 출제의도를 파악하기 쉽지 않았다."라며 신청을 기각하였다. 이에 불복한 수험생 460명은 이듬해 평가원장을 상대로 복수정답인정처분 취소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2004년 7월 8일 서울행정법원에서는 "시의 특성상 백석의 시 「고향」에서 '의원'과 <보기>의 '실'이 아무런 기능적 유사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고, 오히려 그 유사성에 관해 나름의 논리적 근거가 제시될 수 있다."라고 밝히면서 신청을 기각하였다. 그리고 정답에 대한 이의 제기 후 평가원 측의 사후대응 방식과 절차가 과연 적절했는지에 관해서도 "평가원이 전문가들의 의견을 조회한 후 그 결과를 종합해 복수 정답을 인정한 것은 평가원에 허용된 판단 여지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라고 판시했다. 이로써 길고 긴 17번 문항의 논란은 사실상 끝이 났다.

많은 시행착오를 겪고 법적 다툼으로 얼룩지기는 했지만, 2004학년도 수능에서 발생한 복수 정답을 계기로 2005학년도 수능부터 이의신청 제도를 운영하게 되었다. 이는 우리나라 국가고사에 최초로 도입된 제도라는 점에서 의미를 가진다.

나. 2008학년도 수능 과학탐구 영역 물리Ⅱ 11번 문항

2008학년도 수능 물리 과목의 출제진은 최근 2~3년 동안 가장 안정적인 구성이었다. 일반적으로 수능 출제위원 섭외 과정에서 학교 일정 및 학회 참석 등 여러 이유로 인해 최선이 아닌 차선의 출제진이 구성되는 경우가 많았으나 2008학년도 수능은 외부 기획위원을 비롯하여 출제위원, 검토위원 모두 이전의 수능 및 모의평가에서 충분히 검증 받은 전문가를 섭외할 수 있었다. 출제본부 내에서의 출제 과정도 큰 어려움 없이 진행되었다. 큰 어려움이 없다고 하여 출제를 일찍 끝내고 자유로운 시간을 가졌다는 것이 아니다. 밤 12시를 넘긴 시간까지 공동으로 문항을 검토하는 날들이 허다하였으며, 그 이후에도 개인적으로 문항을 검토하곤 했다. 그 당시 과학탐구 영역 물리 과목의 출제진은 이런 방식으로 문항을 검토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여겼다.

물리Ⅱ 11번 문항

문제가 된 물리Ⅱ 11번 문항은 이상기체에 관한 문항으로, 교육과정상 이상기체의 내부에너지는 (병진) 운동에너지와 같다고 되어 있고 다원자 분자 이상기체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는다. 교과서에서도 일반적으로 ‘단원자 분자’란 표현 없이 이상기체를 다루고 있으며 이원자 분자 이상기체란 표현이 있는 2종의 교과서에서는 본문이 아닌 날개나 집중탐색과 같은 참고 자료에 이를 소개하고 있다.

또한 제7차 교육과정을 적용하여 실시된 물리Ⅱ 수능 및 모의평가 문항 중 이상기체에 관한 문항은 그때까지 모두 23문항 출제되었는데, 이중 21문항은 ‘이상기체’로, 2문항은 ‘단원자 분자 이상기체’로 기술하였으며 ‘다원자(또는 이원자) 분자 이상기체’로 기술한 문항은 한 문항도 없었다. ‘단원자 분자’란 기술 없이 그동안 출제된 문항의 경우도 다원자 분자 이상기체를 고려하면 오답 소지가 있는 여러 문항이 있었으나 그동안 이에 대한 이의 신청이 제기되지 않았다. 이에 이의심사실무위원회에서 외부 전문가를 비롯한 모든 참석자는 이 문항에 대해 오류가 없는

11. 그림은 1몰의 이상기체의 상태가 $A \rightarrow B \rightarrow C \rightarrow A$ 를 따라 변화할 때 압력과 부피의 관계를 나타낸 것이다. $A \rightarrow B$ 는 정적과정, $B \rightarrow C$ 는 단열과정, $C \rightarrow A$ 는 등온과정이다. A와 B의 온도는 각각 $T, 2T$ 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단, 기체상수는 R 이다.) [3점]

<보기>

ㄱ. $A \rightarrow B$ 에서 기체가 받은 열량은 RT 이다.

ㄴ. $B \rightarrow C$ 에서 기체가 외부에 한 일은 $\frac{3}{2}RT$ 이다.

ㄷ. $C \rightarrow A$ 에서 기체는 외부로 열을 방출한다.

① ㄴ ② ㄷ ③ ㄱ, ㄴ ④ ㄴ, ㄷ ⑤ ㄱ, ㄴ, ㄷ

것으로 판단하였다. 11월 28일 정답이 원안대로 발표되고 이에 따라 채점이 진행되어 12월 7일 학생들에게 성적표가 배부되었다.

복수 정답 인정

그런데 12월 18일 한 수험생이 한국물리학회장에 이 문항에 대한 문의를 하였다. 한국물리학회에서는 물리교육위원회에 메일을 통해 이 문항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한국물리학회의 공식 입장이 발표되기 전, 12월 22일에 학회 총무의 문항 오류 가능성에 대한 인터뷰가 조간신문에 실렸고, 한국물리학회장이 학생의 이상기체에 대한 이해 수준에 따라 ②번과 ④번이 둘 다 답으로 간주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불과 일주일 전에 2학기 수시 합격자가 발표되었고, 2008학년도 정시모집 원서접수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물리학회의 물리Ⅱ 11번 문항의 복답 가능성 제기는 엄청난 파문을 일으켰다. 물리학계를 대표하는 한국물리학회가 공식적으로 이의를 제기한 만큼 방송과 언론에서는 대서특필하였고, ②번을 선택한 수험생들은 크게 반발하였다. 그러나 평가원은 “수능은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에 따라 출제되므로 정답에 이상이 없다.”라는 입장을 고수하였다.

방송과 언론들은 이러한 상황을 집중적으로 보도하기 시작하였다. 많은 사람들이 들뜬 크리스마스 이브였음에도 불구하고 12월 24일에는 거의 15분 간격으로 인터넷에 복수 정답을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의 기사들이 올라오기 시작하였다. 급기야 12월 24일 오후 5시 경 평가원장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사태 해결의 최우선 과제가 수험생들의 여망에 부응하는 것이라는 인식을 토대로 복수 정답을 인정하고, ②번을 선택한 학생 중에서 등급이 상향된 경우 26일까지 성적표를 재발부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이어 물리Ⅱ 정답 처리 과정에서 관리 책임을

다하지 못해 수험생·학부모·교사들에게 걱정을 끼친 점에 대해 사과하며 원장직을 사퇴하였다.

물리Ⅱ 11번 문항의 복수 정답 인정으로 문항을 둘러싼 논란은 가라앉았지만, 그것보다 더 큰 문제는 2008학년도 대입 전형이었다. 2학기 수시모집 합격자 발표와 등록을 마친 대학들이 수시 전형의 일부를 다시 해야 했고, 대입 정시 모집 원서 접수 기간을 연장해야 했다.

다. 2010학년도 수능 과학탐구 영역 지구과학Ⅰ 19번 문항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2009년 11월 12일, 2010학년도 수능이 치러진 이후 이의신청 게시판에 올라온 내용을 확인하다가 떠오른 생각이다. 문항을 출제하다 보면 문제에 찍히는 점 하나라도 필요한 것이 빠지거나 불필요한 것이 들어가면 출제 오류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수차례 수능 출제에 참여하면서 늘 살얼음판을 걷는 심정으로 확인과 검토를 거듭했다. 게다가 2년 전 물리 복수정답으로 원장님까지 책임을 지고 물러나시는 모습을 안타깝게 지켜본 입장에서는 그 부담감이 훨씬 컸던 게 사실이다. 이의신청 내용을 보고 인터넷이며 각종 자료를 이리저리 확인해 본 결과, 문항에서 일식의 지속 시간을 비교하는 부분이 제시한 정답과 실제 사실이 다른 것으로 보였다.

하지만 이의신청에 들어온 내용을 찬찬히 살펴 볼수록 오류를 인정하고 정답을 수정하는 것만으로 간단히 정리될 문제가 아님을 알 수 있었다. 이의신청을 한 교사도 과학적 사실은 분명히 틀렸지만 그렇다고 정답을 정정하는 것은 난감해하는 상황이었다. 왜 그랬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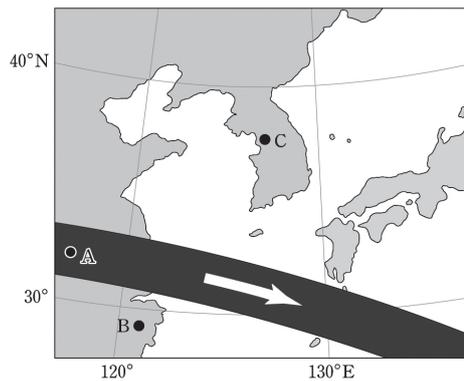
/ 지구과학 I 19번 문항

문항은 2009년에 우리나라 부근에서 실제 일어났던 개기 일식 현상을 소재로 교육과정에서 학습한 일식에 관련된 내용을 질문하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달에 의해 태양 전체가 가려지는 개기 일식 현상은 지상에서 대낮에 밤과 같은 어두움을 경험하게 하여 예전부터 사람들에게 깊은 관심을 불러 일으켜 왔던 현상이다. 개기 일식이 일어나더라도 지구상 어디서나 관측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달이 태양을 가리면서 생기는 달의 그림자가 드리워지는 지역에서만 제한적으로 관측할 수 있다. 개기 일식이 일어나는 지역은 이를 보려고 모여드는 사람들 때문에 관광 특수를 누리기도 한다. 이 문항은 이러한 특이한 현상이 우리나라 가까이에서 일어났다는 시사적인 내용을 소재로 했기 때문에 그해 출제 경향을 분석한 언론에서는 이 문항을

실생활과 관련된 과학 문항 사례로 소개하기도 했다.

문항에서 문제가 된 부분은 <보기> ㄴ의 '일식의 지속 시간'을 묻는 내용이었다. 일식의 지속 시간은 고등학교 과정에서 그 원리를 학습하는 것이 아니고, 제시된 자료를 분석하여 타당한 결론을 내릴 수 있는 탐구 능력을 평가하는 의도의 문항이었다. 일반적으로 달의 본그림자가 지나는 지역은 달이 태양 중심부를 지나면서 그림자를 드리우는 지역이기 때문에 일식의 지속 시간이 길게 된다. 출제 의도도 이런 정도의 이해 수준에서 수험생들이 문항을 해결할 수 있는가를 평가하려는 것이었다. 하지만 일식의 지속 시간을 결정하는 요소는 지구 표면의 곡률이나 위도 차이 등 고려해야 할 부분이 더 있었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러한 요인 때문에 달의 본그림자가 지나는 지역보다

19. 그림은 2009년 7월 22일 우리나라 부근을 지나간 달의 본 그림자의 궤적과 이동 방향을 나타낸 것이다.



A, B, C 세 지역에서 일어나는 일식 현상을 비교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 <보기> —

- ㄱ. A 지역에서는 맨눈으로 코로나를 관찰할 수 있다.
- ㄴ. 일식의 지속 시간은 A 지역이 B 지역보다 길다.
- ㄷ. 일식은 C 지역에서 가장 먼저 관측된다.

- ① ㄱ ② ㄷ ③ ㄱ, ㄴ ④ ㄴ, ㄷ ⑤ ㄱ, ㄴ, ㄷ

일식이 더 오래 지속되는 다른 지역이 나타날 수도 있다. 공교롭게도 문제의 소재로 다른 일식이 이러한 경우에 해당되었던 것이다.

과학적 사실만을 놓고 본다면 <보기> ㄴ은 틀린 내용이 되기 때문에 정답은 발표된 ③번이 아니라 ①번으로 정정해야 했다. 하지만 오류를 인정하고 정답을 ①번으로 변경하는 것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었다. 일식 지속 시간에 관련된 여러 요소를 감안하여 실제 일식 시간을 알아내는 것은 복잡한 계산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시험을 치르는 수험생이 시험장에서 이를 계산하여 정답을 찾았다고 볼 수는 없었다. 수능 시험이 대입 전형 자료로서 정상적인 교육과정을 거친 학생들의 성취 수준과 대학 진학 이후의 수학 능력을 측정하기 위한 시험임을 고려한다면 비록 과학적 사실과는 차이가 있더라도 학습한 내용과 수준에서 판단할 수 있는 답을 정답으로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천문연구소에 의뢰하여 시험에 제시된 두 지역의 일식 지속 시간에 대한 정확한 결과를 받기까지 수 일이 소요된 점만 보아도 시험을 치르면서 이를 계산하여 결과를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은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문제였다. 이의신청을 한 교사조차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과학적 사실은 분명히 바로잡을 필요가 있지만 정답을 정정하여야 하나에 대해서는 곤혹스러워 할 수 밖에 없었다. 정상적으로 공부한 학생들이 오히려 피해를 볼 수도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이의신청 처리

중대한 사안으로 분류된 이의신청에 대해 밝아야 할 절차대로 관련 학회인 한국천문학회에 자문을 의뢰하고, 회신을 받은 즉시 이의신청 실무심사위원회를 개최했다. 출제 관계자뿐만 아니라 외부 전문가들과 이의신청한 교사까지 참여한 이 회의에서 과학적 사실에 답이 두 개 있을

수 없으므로 ①번만을 정답으로 해야 한다는 주장과 대입 전형자료로서의 평가 문항임을 고려할 때 학생들이 풀어서 해결할 수 없는 답을 정답으로 인정해서는 안 되므로 본래의 정답인 ③번을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팽팽히 맞섰다. 오랜 논의 끝에 위원회의 다수 의견으로 본래의 정답과 과학적 사실에 의한 정답 모두를 인정하자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2년 만에 또다시 과학탐구 영역에서 복수 정답이 결정되는 순간이었다.

복수 정답 인정

최종 정답 발표를 하는 날 언론에서는 ‘수능 또 출제 오류… 복수 정답 인정’, ‘올해 수능서도 복수 정답 나와’, ‘수능 지구과학 복수정답 인정 파장… 원래 정답 ③번 응답 많아 성적에는 큰 영향 없을 듯’ 등의 제목으로 복수 정답 내용을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학교에 있는 교사들에게서도 문의 전화가 여러 차례 걸려왔다. 왜 ①번이 답이 되는지, 학생들이 질문하면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등등. 과학적 사실도 중요하지만 학교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교육 상황을 고려한다면 복수 정답으로 내려진 결론이 더욱 아쉬워지는 상황이었다.

정답을 확정하기 위해 노심초사하고 심사숙고했던 많은 시간과 노력이 떠올랐다. 수능 출제에서는 선택하는 학생이 몇 명되지 않는 과목이라 하더라도 한 치의 오류도 없도록, 그래서 애써 시험을 준비하면서 고생한 수험생들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한다.

비록 평가 문항으로서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학습 내용을 바탕으로 정답을 확정하는 것은 이루지 못했지만 정해진 절차와 과정을 거쳐 엄정히 업무를 수행한다면 원장님이 물러난다거나 담당자가 중징계를 당하는 일은 없다는 선례를 남기는 데 나름 의미를 찾을 수 있었다.

제3절

출제본부의 위기와 대처

정수백(한국교육과정평가원)

최종교(한국교육과정평가원)

가. 신종플루와의 전쟁, 2010학년도 수능

“수능을 한 달여 앞둔 2009년 10월 8일 서울 양천구 A고 고3 교실, 여기 저기 빈자리가 보이는 가운데 학생 대부분이 마스크를 쓰고 있다. 강의를 하는 교사도 마스크 차림이다. 한 학생이 기침을 하자 모두 놀란 표정으로 그쪽으로 돌아 본다. 모두 가슴이 철렁한 모습이다. 신종플루로 병원에 입원한 학생이 1명, 열 때문에 학교에 안 나온 학생이 7명, 신종플루에 감염될까 집에서 공부하겠다고 안 나온 학생이 3명, 지금 수업 중인 학생은 학급 정원 34명 중 23명뿐이다. 지금 고 3교실은 몇 달째 긴장의 연속이다.” - 이는 신종플루가 한창 기승을 부리던 2009년 10월, 언론에 비춰진 당시 고등학교 3학년 교실 모습이다.

/ 신종플루의 공포

연초부터 시작된 신종플루가 전국을 공포 분위기로 바꿔 놓았다. 지하철에서 채채기만 해도 찻찻하고 기침 소리만 나와도 모두 놀란 표정이었다. 아파트마다 반상회가 중지되고 극장가나 대형 마트 등도 한산해졌다. 치료제인 타미플루와 릴렌자

같은 약품이나 손세정제 같은 물품을 구하지 못해 난리였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행사나 회의는 줄줄이 취소되기 일췌였다. 임신부나 노인들은 가정에서 칩거하고 외국이라도 갔다 온 사람들은 확진검사를 받고 결과가 나오는 3일 내내 좌불안석이었다. 학교에서도 비상이 걸렸다. 여름 방학이 끝나고 개학이 되자 신종플루 집단 감염 우려로 휴교하는 학교가 나오기 시작했다. 8월 24일 현재 전국적으로 휴교한 학교가 19개 교, 개교를 연기한 학교가 3개 교라고 보도되었다. 수학여행, 소풍, 운동회, 각종 수련회 등이 취소되거나 연기되었다. 기숙사가 있는 학교에서는 학생들의 외출이 금지되었다. 보충 수업이나 야간 자율 학습을 중단하는 학교가 속출했다. 교실에서는 아이들이 점심도 혼자 먹고 책이나 노트를 빌려 보는 일도 없어졌다. 학교마다 체온계를 비치하고 등굣길 교문에서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체온 검사를 실시 했다. 검사 결과가 빠른 귀체온계는 턱없이 부족하여 검사 시간만 1시간 이상씩 걸렸다. 조금이라도 열이 있는 학생은 보건실로 보내서 격리시키거나 열이 심한 학생은 집으로 돌려 보내 병원 진료를 받도록 하였다. 학생들에게는 수시로 손을 씻게 하고 교실마다 세정제를 비치하였다.

▮ 정부의 대처

정부도 비상이 걸렸다. 보건복지가족부 내에 ‘중양인플루엔자대책본부’를 설치하고 각 부처별로 담당자를 파견 받아 부처별로 대처하도록 하였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전체 인구의 20%가 감염이 우려되고 입원환자 20만명, 사망자는 2만에서 4만명으로 예상했다. 의료 전문가들은 전 세계적으로 유행했던 1958년 아시아독감으로 9만8천명, 1968년 홍콩독감으로 4만5천명이 사망한 이래 가장 전파력이 강하고 치사율이 높은 질환이 되지 않을까 우려했다. 그러나 초기 우려와 달리 급속한 전파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9월 6일까지 환자 발생 6,234명, 사망자 4명으로 예상보다 피해가 적었다. 문제는 기온이 떨어지는 10월부터가 걱정이 되었다. 교육과학기술부도 부내에 자체적으로 기획조정실장을 단장으로 하는 ‘학교신종플루대책상황실’을 설치했다. 우선 예방에 필요한 소독제, 체온계 등의 물량 확보를 위해 시·도 교육청별로 예비비를 긴급 편성하였다. 9월 2일에는 전국 시·도교육청 학생건강 증진담당과장 회의를 개최하고 학교에서의 신종플루 예방 및 환자 발생 시 대처 요령을 지시했다.

신종플루 감염 학생은 등교를 중지시키고 불가피하게 치러야 하는 각종 시험에서도 격리 시험을 실시토록 하였다.

10월이 되면서 수능이 연기 된다는 괴담이 퍼지기 시작했다. 기온이 내려가자 감염 환자가 눈에 띄게 증가하기 시작했다. 감염 학생 수도 41,523명으로 늘어나고 휴업한 학교도 334개교에 달했다. 이제 학교에 자녀를 보내지 않는 경우도 생기고 여기 저기 교육 당국의 대책을 질타하는 목소리가 거세졌다. 수능을 앞둔 고3 수험생들은 극도의 긴장감 속에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다. 신종플루 예방을 위해서는 백신 주사를 맞는 것이 최선이었으나 백신 공급이 11월 중순 이후로 늦어짐에 따라 고3 수험생에게는 그림의 떡이었다. 정부는 일부 의료진에 한

하여 우선 집중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교육 현장은 확실한 대책 없이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였다. 급기야 일부 언론에서는 수능을 한 달쯤 연기하지는 주장까지 나왔다.(조선일보, 2009.10.29) 수능을 연기할 경우 대학의 학사 일정이 늦춰지는 등 큰 혼란이 예상되어 교육 당국의 고민은 깊어 갔다. 10월 26일 신종플루 사망자 수가 29명으로 집계되었다. 정부는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을 비롯하여 행정안전부,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등 관계부처 장관회의를 개최하고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였다. 수능은 당초 예정대로 11월 12일 실시하기로 하였다. 정부는 전체 수험생의 3%인 약 23,000명의 환자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하고 1,124개 고사장별로 확진 환자용 1,124실, 의심환자용 1,124실 총 2,248개의 분리 시험실을 설치하기로 했다. 시험장마다 의사 1명씩을 배치하고 79개 고사지구별로 거점 병원 1곳씩을 두기로 했다.

▮ 출제본부 대처

한편 수능 출제를 담당하는 평가원에도 비상이 걸렸다. 연초부터 시작된 신종플루가 여름을 지나면서 환자 수 증가가 둔화되는 듯하다가 개학기를 맞은 9월 이후로 급속히 증가하기 시작했다. 이제 출제본부 운영이 걱정되었다. 5월부터 교육과학기술부와 수시로 대책 회의를 갖고 보건복지가족부에 설치된 중양인플루엔자대책본부와도 긴밀한 협조 체제를 갖추기 시작했다. 수능 출제본부는 통상 출제위원 330여명, 검토위원 220여명, 관리요원 150여명 등 총 700명에 가까운 대규모 인원이 한 달 이상 합숙 작업을 하게 된다. 외부로의 외출 및 통신이 일체 차단되고 환자가 발생해도 긴급 환자 이외에는 출입이 금지된다. 만약 전염성이 강한 신종플루가 출제본부에 침투한다면... 정말 생각만 해도 아찔한 상황이었다. 우선 출제위원과 검토위원, 관리요원 등 합숙대상자들을 인선하는 데 고민이

생겼다. 신종플루는 의심 증상이 있어 검사를 받아도 확진 결과가 나오는 데 3일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었다. 입소 당시에는 괜찮다가 입소 후 발열이 나고 감염 사실이 밝혀질 경우 대책이 난감했다. 그래서 가족 중에 신종플루 감염 환자가 있거나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 해당자를 해촉하고 대체 위원으로 위촉하기로 했다. 임신 중인 여성이거나 호흡기 질환 고위험군에 해당하는 사람도 제외했다. 보건복지가족부에는 입소자에 대한 예방 백신 우선 접종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확보된 예방 백신이 부족하여 신종플루 치료를 담당하는 의료진 이외에는 접종이 어렵다는 통보를 해왔다. 다만 질병관리본부가 지정한 거점 병원을 전용 병원으로 지정 받았다.

출제본부 합숙 장소 선정 작업부터 신경을 썼다. 몇 군데 후보지를 대상으로 비교적 도심으로부터 떨어져 있고 내부 공간이 여유로워 장기간 합숙에 유리하며 환자 발생 시 격리 공간이 별도로 제공될 수 있는 강원도 모 콘도를 합숙 장소로 지정하였다. 입소 한 달 전 해당 콘도의 내부 시설을 점검하고 위생 취약 시설에 대한 보관을 요구하는 동시에 2~3일 간격으로 정기적인 소독을 실시하도록 하였다. 만약의 환자 발생을 고려하여 거점 병원으로 지정된 인근 병원과 협조하여 전용 병실을 확보하였다. 또한 의사 1명과 간호사 1명으로 구성된 의료진을 출제위원 입소 하루 전에 입소시키고 격리된 환자 감독을 위해 보안요원 2명을 추가로 증원하였다. 아울러 진료 예방에 필요한 전자체온계, 발열감지기, 손소독기를 출제본부 내에 비치하도록 하였다. 드디어 입소 당일, 전국 각지에서 온 출제위원들은 버스에서 내리자마자 손소독기 세척, 발열감지기 검사, 보안 검색, 체온 검사 순으로 삼엄한(?) 검사를 받고 객실로 입실하였다. 개인별로 구강청결제와 손세정제를 지급하고 공용 화장실에 물비누를 비치하였다. 각 협의실에는 가습기와 물티슈를 비치하고 여러 사람이 만지는 문 손잡이, 엘리베이터 버튼을 수시로 소독하도록 하였다.

실제 발열이 있거나 기침 등으로 신종플루 유사 환자가 있을 경우 출제 활동에서 제외시켜 격리된 객실을 사용하게 하였다. 그 결과 33일간 운영된 출제본부 기간 중에 연인원 총 1,346명이 보건실을 이용하였고 감기 및 인후통 환자는 300명에 달하였으나 발열 증상과 기침 등으로 신종플루로 의심된 환자는 7명에 그쳤고 신종플루 확진검사 결과 최종적으로 신종플루로 판명된 환자는 2명에 불과하였다. 이 두 환자는 퇴소 시까지 별도의 객실로 격리되어 생활하였고 타미플루를 투여하여 완치 후 퇴소할 수 있었다.

수능 시험장 준비

수능을 9일 앞둔 11월 3일, 정부는 신종플루 관리 수준을 위기 단계에서 심각 단계로 격상시키고 다음 날인 11월 4일 '중앙재난대책본부'를 출범시켰다. 11월 10일에는 행정안전부 장관 주재로 제2차 신종플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수능 대비 종합 대책을 논의하였다. 날씨가 추워지자 신종플루는 더욱 기승을 부려 11월 10일에는 사망자가 52명으로 늘어났다. 수능 하루 전인 11월 11일, 수능 예비 소집일인 이날 전국 고사장에서는 전용시자를 대상으로 발열 검사를 실시하였다. 발열 등 신종플루 의심 환자는 별도의 분리 시험실에서 시험을 치르도록 하였다. 서울시 교육청에서는 수능 응시생 20만 명에게 1인당 2매씩 마스크를 배포하고 일회용 손소독제를 지급하였다. 아울러 교실마다 손세정제를 1병씩 비치했다. 한편 분리 시험실을 감독할 감독 교사 확보에도 비상이 걸렸다. 젊고 건강한 교사들 가운데 자원자들의 신청을 받았으나 신종플루 감염이 우려되어 대부분 기피하였다. 감독관 수당을 4만원 추가 지급기로 했으나 차라리 안 받고 감독관 안하겠다는 분위기가 팽배했다. 실제로 10월 말까지 전국 1,124 고사장 가운데 75%만 감독관을 확보하는 데 그쳤다.



〈신종플루 대처〉

수능 시험일

드디어 11월 12일, 사상 첫 신종플루 태풍 속에서 수능 시험이 실시되었다. 고사장마다 문진성시를 이루던 후배들의 수능 응원전도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 아침 일찍 방한복을 두껍게 입고 마스크를 낀 채 시험장으로 입장하는 수험생들의 얼굴엔 비장함이 감돌았다. 고사장 밖에서 기다리는 학부모들의 표정에도 예년과 다른 긴장감이 묻어났다. 전국 1,124개 고사장 중 895개 시험장에 분리 시험실이 개설되었다. 당초 1,124개 전 고사장에 설치하려던

분리 시험실이 대폭 줄어들었다. 교육과학기술부 집계 결과 신종플루로 인하여 분리 시험실에서 응시한 수험생은 총 2,707명이었다. 그 중 신종플루로 확진 판정을 받은 수험생이 717명, 나머지 1,990명은 의심 환자였다. 분리 시험실은 교실당 1.54명이 입실하여 특급 시험장이 된 듯 했다. 증상이 심각하여 병원에서 시험을 치렀던 응시자는 9명에 불과 했다. 우려했던 혼란은 일어나지 않았다. 정부도 국민도 모두 안도했다. 수능 연기론까지 제기했던 언론의 비판도 사그라졌다. 그 뒤 정답 확인 절차, 채점 등 일련의

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되어 12월 8일 수능 성적 발표로 이어졌다. 쓰나미처럼 밀려왔던 신종플루의 공포 속에 교육과학기술부, 보건복지가족부를 비롯한 정부 당국, 일선 학교, 수험생의 사투에 가까운 노력으로 무사히 2010학년도 수능이 대단원의 막을 내리게 된 것이다. 그 이듬해 4월, 정부는 신종플루 위기 경보를 해제하고 국민들은 일상으로 돌아갔다.

나. 불행한 사고, 2012학년도 수능

2012학년도 수능 출제위원 이 모 씨가 출제본부 안에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평가원 측은 교육과학기술부와 논의해 고인과 유족에 대해 최대한의 예우를 갖추어 장례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1년 11월 9일, 수능을 하루 앞두고 사망 기사가 언론에 보도되었다. 출제본부 내에서 출제위원이 사망한 일은 수능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다.

사망사고 발생

사망사고가 일어난 11월 8일은 2012학년도 수능 출제본부 퇴소를 이틀 남겨 둔 날이었다. 시험 당일 출제위원장이 발표할 기자회견 보도자료를 준비하고 있던 16시경, 출제진행실에서 연락이 왔다. 출제위원 한 명이 의식을 잃은 상태로 발견되어 본부 의료진이 현장으로 갔다는 것이다. 출제본부에는 위기 상황 발생 시 초동대처가 어렵다는 보안 합숙의 특성을 고려하여 의사와 간호사가 함께 상주하며 대상자들의 건강을 살피고 만일의 상황을 대비하고 있다.

현장인 객실로 가 보니 의사와 간호사가 사력을 다해 심폐소생술을 하고 있었고 옆에서는 두어 명의 출제위원이 이를 돕고 있었다. 곧바로 병원과 소방서에 연락해 구급차를 요청하였고 경찰에도 상황을 알렸다. 구급대원이 도착해서 이 출제위원이 사망한 것을 확인하였고, 곧이어 도착한 경찰은

현장 검증을 시작하였다. 경찰은 최초 목격자, 주변 동료, 관리책임자와의 면담을 요청하였다. 이틀 밖에 남지 않은 수능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출제본부 일정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는지 염려해야 할 것이 많았지만, 출제본부 관리팀장으로서 전례가 없는 사고에 대처해 나가야 하는 상황이었다.

상황 보고를 받은 원장과 수능본부장은 현장에 도착하자마자 이 출제위원이 사용하였던 객실로 가서 고인에 대한 예의를 갖추었다. 현장에는 소방대원, 합숙본부 협력병원 관계자, 경찰서 수사과장 등이 각자 바빠 움직이고 있었다. 상황은 교육과학기술부 등 관련기관에도 보고되었다. 저녁에는 고인의 출신대학교 동문을 중심으로 분향소를 마련해달라는 요청이 들어왔다. 숙소 측의 도움을 받아서 필요한 영정사진, 물품, 조화 등을 구해서 분향소를 설치하고 조문객을 맞이하였다. 업무 진행에 차질이 없어야 하므로 사망사고와 관련된 업무, 시험 당일 보도자료 반출 업무, 퇴소 준비 업무, 출제본부 보안 강화 업무 등에도 각별한 주의를 기울였다.

장례 절차 수행

출제본부가 바쁘게 움직이는 시간에 평가원에서도 신속하게 대처를 해나갔다. 평가원에서는 다년간 출제본부 경험을 쌓은 사무국장이 책임자로 지명되어 직원 2명과 함께 고인의 자택을 방문하였다. 유가족은 출제본부에 들어와서 현장을 보지 않고 아침이 되면 부검을 실시한 다음 인천으로 운구하여 인하대학교 병원에 영안실을 마련하고 장례를 치르는 절차를 밟으려고 하였다. 병원에서는 여건이 되지 않아 부검이 가능한 인근 병원에서 이를 진행한 후 인천으로 운구하려 하였으나 유가족들이 부검을 원하지 않는 쪽으로 입장을 표명하였기 때문에 바로 인하대학교 병원으로 운구하였다.

이들이 지나고 시험일인 11월 10일, 어느 때의 수능 시험과 마찬가지로 새벽 4시에 출제위원장이 출제

본부를 나가서 기자회견을 마치고 12시경에 다시 출제본부로 복귀하였다. 퇴소 당일 오후 1시에 조문 관련 일정을 종료하고 인천행 퇴소 버스의 운행 구간을 병원까지 연장하였다. 출제본부 내에 분향소를 찾은 사람이 예상보다 훨씬 많았다. 출제·검토위원은 물론 생활을 담당했던 숙소 직원, 심지어는 전산편집팀, 듣기 평가 녹음팀 요원들도 조문을 했다는 후문이다. 11월 10일 치러진 장례식에도 평가원에서는 원장과 간부진이 참석하여 슬픔을 함께 하였으며 교육과학기술부에서도 장관을 비롯한 수능 관계자가 참석하여 유가족과 면담하고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을 약속했다.

▣ 장례 이후 후속 과정

11월 14일 월요일부터 보상 및 유가족과 합의를 위한 절차가 진행되었다. 사고 대책 처리를 맡은 사무국장이 중심이 되어 총무팀, 재무운영팀, 구매계약팀의 지원을 받으며 관련 정보를 취합하였고, 출제관리팀장은 변호사, 노무사 등으로부터 법률적인 자문 및 업무 처리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협의하면서 일을 처리하였다.

또한, 유관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의를 위하여 사고 처리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였다. 이 위원회는 평가원 원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으로는 국무총리실 기획총괄정책관, 교육과학기술부 미래인재정책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사무총장, 그리고 고인의 소속 학교장이 외부 위원으로 참여하였고, 원내에서는 사무국장 및 수능본부장, 경영기획실장, 재무운영팀장 그리고 출제관리팀장으로 구성하여 11월 22일 회의를 하였다.

회의는 고인에 대한 명예 보상과 유족에 대한 물질적 보상 방안을 다루었다. 고인에 대한 명예 보상 방안으로 국가 유공자 신청은 소속 학교에서 신청하고 평가원은 신청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며, 총리실 및 교육과학기술부는 국가유공

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와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로 하고, 고인에 대한 훈·포상은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하였다. 유족에 대한 물질적 보상 방안은 장제 비용 전액을 수능 예산으로 지원하기로 하였으며 공무원 연금 법상 공무 중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고, 평가원이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여 가입한 합숙 작업 단체 손해보험금은 최대치로 수령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으로 하고 회의를 마쳤다.

논의된 바에 따라 고인이 근무했던 학교에서는 공무상 재해를 인정받기 위하여 공무원 연금 관리공단에 관련 서류를 접수하였다. 교육과학기술부에서 행정안전부에 협조를 요청하였으며 공무원 연금관리공단 관계자와 업무 협조를 부탁하였다. 12월 7일 공무상 재해 관련 심의가 있었고 12월 8일에 부결되었다는 연락을 받았다. 같은 시각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1/2 보상으로 결정된 것을 확인하였다. 이 결과를 유족에게 알려주니 재심 신청을 하겠다고 하였다. 재심 신청은 행정안전부에서 부결되어 최종적으로 1/2보상으로 결정되었다. 후에 유족 측에서 관련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다는 말을 전해 들었다. 한편 국가유공자 신청을 위하여 12월 5일 인천지방보훈청에 신청서를 접수하였다. 교육과학기술부 대입제도와 사무관과 함께 직접 여의도에 있는 국가보훈처에 찾아가서 협조를 당부하기도 하였으나 2012년 3월 8일 결국 부결되었다는 통보를 받았다. 그해 12월에 유족은 평가원에 합의를 요청하였고, 평가원에서는 유족 대표와의 긴밀한 협의를 거쳐서 장제비 일체와 소정의 위로금을 전달하는 것으로 합의를 이루었다.

불행한 사고가 초래한 위기의 시간은 지나갔지만, 그곳에서 합숙을 하게 되면 먼저 고인의 객실 앞에서 묵념을 하는 것으로 필자의 출제본부 일상이 시작된다.

KICE

Korea Institute for Curriculum and Evaluation

A 20-Year History of College Scholastic Ability Test

부록 연구물 목록

연구물 목록

본 연구물 목록은 대학입학학력고사에 대한 개선 논의가 시작된 1986년부터 수능 시행 20년째인 2013년까지를 대상으로 하였다.

유형은 학술논문, 학위논문, 연구보고서 및 단행본으로 분류하였으며, 각 유형별로 교육일반에 대한 주제는 총론, 교과별 주제는 영역, 그 외 주제는 기타로 제시하였다.

수능과 관련된 여러가지 주제를 다루고 있어 수능을 파악하는데 중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1986 연구물 목록

학술논문

▷ 총론

- 박정훈, 대학입시논술고사의 실험적 연구, 경희대학교 교육문제연구소 논문집, 5, pp.1-9, 경희대학교 교육발전연구원.

▷ 영역

- 김창식, 고등학교 과학교육 정상화를 위한 대학입시제도의 개선, 한국과학교육학회지, 6(1), pp.9-14, 한국과학교육학회.
- 박봉상, 이보열, 고등학교 과학교육과 대학입시제도, 한국과학교육학회지, 6(1), pp.15-17, 한국과학교육학회.
- 이민성, 김병준, 대학입시 준비생의 과학과목선택에 대한 조사연구, 한국지구과학회지, 7(2), pp.109-116, 한국지구과학회.

학위논문

▷ 총론

- 고영진, 대입학력고사와 고교연합고사 및 고교성적과의 상관성 연구 : 제주지역 인문계여고를 대상으로,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학동, 대입학력고사에 나타난 경향분석: 발음, 문법, 독해력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영역

- 이경원, 대입 학력고사와 고등학교 불어교육,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학봉, 국어과 학습목표에 입각한 대입학력고사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 건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채미혜, 대입 학력고사 불어과 문항분석: 81년에서 85년 문항을 중심으로,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연구보고서 및 단행본

- 고려대학교 교육문제연구소, 대학수학능력검사 기술 보고서, 고려대학교.
- 교육개혁심의회, 대학입시제도의 개선, 교육개혁심의회.
- 김영길, 이수환, 김진규, 표준화 대학수학능력검사 개발 연구1, 중앙교육평가원
- 박정훈, 대학입시논술고사의 실험적 연구, 경희대학교.
-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학입시제도발전과 논술고사의 운영방향: 제10차 대학교육발전 학술세미나, 한국대학교육협의회.

1987

연구물 목록

학술논문

▷ 영역

- 김창식, 고등학교 과학교육 정상화를 위한 대학입시 제도의 개선, 기초과학논총, 5(1), pp.47-64, 국민대학교 기초과학연구소.

학위논문

▷ 영역

- 김지권, 고등학교 국사교육의 효율적인 지도방안: 대입학력고사 및 교과서와 관련하여, 강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노희삼, 대입 학력고사 물리 문제의 분석: 1980학년도부터 1987학년도 까지, 공주사범대학교 교육대학원.
- 이 경, 대입예비고사 및 대입학력고사 생물과목 출제문제의 분석,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연구보고서 및 단행본

- 김영채, 강무섭, 김신복, 김해식, 이무근, 대학입시제도의 개선, 교육 개혁심의회.
- 장병규, 김영식, 황정규, 김재규, 새 대학입시제도의 발전적 정착: 새 대학입시제도에 관한 세미나, 중앙교육평가원.
- 황정규, 대학수학능력검사의 표준화를 위한 기준 제작 연구,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교육연구소.

1988

연구물 목록

학술논문

▷ 총론

- 김동성, 대학 입시제도에 대한 소고: 바람직한 개선방향에 대한 제언, 최고경영자과정 논문집, 7, pp.38-48, 경북대학교 경영대학원.

연구물 목록

1988 > 연구물 목록

학위논문

▷ 영역

- 김연정, 대입학력고사 영어과 출제 경향 분석: 1981년도에서 1987년도까지,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찬경, 대입학력고사를 중심으로 한 독일어 교육에 관한 연구: 1981학년도부터 1987학년도까지의 문항을 중심으로,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장희서, 고등학교 영어교육과 대입학력고사,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수길, 대입학력고사 일어과 문항분석연구: 81년에서 88년 문항을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연구보고서 및 단행본

- 이진재, 일본의 교육개혁과 대학입시제도: 일본임시교육심의회종합답신을 중심으로, 중앙교육평가원.
- 황정규, 김영길, 이성현, 대학 교육 적성시험 개발을 위한 기초 연구, 중앙교육평가원.

1989 > 연구물 목록

학술논문

▷ 총론

- 김명희, 임은수, 한국 사회에 있어서 교육의 기회균등과 대학입시제도에 관한 연구, 청파 교육, 18(1), pp.7-30, 숙명여자대학교 문리대 교육연구회.
- 김호권, 대학입시의 측정, 평가론적 연구, 교육평가연구, 3(2), pp.3-15, 한국교육평가학회.
- 안경환, 대학입시낙방생의 법적권리, 고시계, 34(2), pp.190-192, 고시계사.

▷ 기타

- 신언모, 고등학교 미술과 지도가 대학입시에 미치는 영향, 예술문화연구, 1, pp.123-143, 충남대학교 예술문화연구소.

연구보고서 및 단행본

- 권균, 김영길, 김윤오, 대학 교육 적성시험 문항 개발 연구: 과학 영역, 중앙교육평가원.
- 박도순, 장석우, 강무섭, 신동진, 대학입학시험제도 개선 방안 연구, 한국대학교육협의회.

- 이종성, 강봉규, 김영길, 이성현, 대학 교육 적성시험 문항 개발 연구: 수리 영역, 중앙교육평가원.
- 이종승, 김광해, 김영길, 이영호, 대학 교육 적성시험 문항 개발 연구: 언어 영역, 중앙교육평가원.
- 이종재, 허경철, 대학입시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공청회 결과 보고, 중앙교육평가원.
- 한면희, 김영길, 이성현, 대학 교육 적성시험 문항 개발 연구: 사회 영역, 중앙교육평가원.
- 황정규, 김영길, 김운오, 대학 교육 적성시험의 활용 방안, 중앙교육평가원.

1990

연구물 목록

학술논문

▷ 총론

- 박도순, 대학입시제도 개선안에서의 대학교육적성시험의 개념, 사학, 52, pp.47-54, 대한사립중고등학교장회.
- 박형규, 교육대학 입시 전형의 개선 방향, 논문집, 26, pp.141-162, 전주교육대학.
- 오일환, 대학입시제도의 개선과 고교교육의 방안, 사학, 52, pp.41-46, 대한사립중고등학교장회.

▷ 기타

- 박광배, 신민섭, 고등학생의 대학입시목표와 자살생각,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9(1), pp.20-32, 한국심리학회.
- 박부권, 외국대학의 입시제도: 미국 시카고대학의 사례를 중심으로, 사학, 52, pp.63-72, 대한사립중고등학교장회.
- 이만홍, 이영문, 김찬영, 대학입시 스트레스가 고등학생의 자아정체감 발달에 미치는 영향, 신경정신의학, 29(4), pp.896-909, 대한신경정신의학회.

학위논문

▷ 총론

- 김준호, 고전검사이론과 문항반응이론에 의한 대입학력고사 문항 분석,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연구보고서 및 단행본

- 김철연, 선형기, 구창현, 대학 교육 적성시험 실험평가 연구, 중앙교육평가원.
- 김형립, 조태근, 박승재, 정세구, 대학 교육 적성시험 실험평가 연구: 수리탐구 영역, 중앙교육평가원.

연구물 목록

1990 > 연구물 목록

- 이종성, 김광해, 노명완, 대학 교육 적성시험 실험평가 연구: 언어 영역, 중앙교육평가원.
- 장석우, 김덕기, 대학 교육 적성시험 실험평가 연구: 외국어 영역, 중앙교육평가원.
- 황정규, 대학 교육 적성시험 실험평가 연구: 개념 정립과 실시 방향, 중앙교육평가원.

1991 > 연구물 목록

학술논문

▷ 총론

- 강승호, 대학수학능력시험과 고등학교교육의 평가방법, 인문학연구, 29(1), pp.3-28, 강원대학교.
- 김수업, 중등교육 정상화를 위한 대학입시 개선 방안: 각 학과별 선발 방식으로 개선하자, 중등교육연구, 3, pp.109-118, 경상대학교 중등교육연구소.
- 김재연, 대학입시제도의 개선내용, 사학, 57, pp.103-109, 대한사립중고등학교장회.
- 김제한, 사범계대학 입시에서의 교직적격성 평가방안, 논문집, 24, pp.279-299, 서울교육대학교.
- 김홍주, 대학 입시 정책 평가를 위한 준거 체제 탐색, 한국교육, 18(1), 한국교육개발원.
- 박도순, 대학수학능력시험의 구조와 의미, 교육평가연구, 4(2), pp.71-84, 한국교육평가학회.
- 백일우, 대학입시 당락에 영향을 주는 요인 분석, 연세교육과학, 39, pp.23-36, 연세대학교.
- 이군현, 중등교육의 평준화 정책과 수월성: 대학입시제도의 개선을 중심으로, 교육행정학연구, 8(2), pp.35-46, 한국교육행정학회.
- 이영호, 대학입시와 교육내용 통제: 대입 윤리고사 문항분석을 중심으로, 교육학논총, 10, pp.87-103, 한국교육학회 대구·경북지회.
- 임인재, 대학수학능력시험의 반영률은 30% 이상으로, 사학, 57, pp.119-121, 대한사립중고등학교장회.
- 장석우, 장언효, 대학입시에서의 고교내신성적 반영방법의 타당화 방안 연구, 교육학연구, 29(2), pp.129-146, 한국교육학회.
- 정영수, 대학입시와 교육, 사학, 57, pp.16-22, 대한사립중고등학교장회.

▷ 영역

- 박한진, 대학입시 미술이론의 문제출제에 관하여, 조형교육, 7, pp. 161-167, 한국조형교육학회
- 우종욱, 이경훈, 이항로,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수리·탐구 영역 중 지구과학 교과에 관련된 탐구능력 측정을 위한 행동 요소의 추출과 평가 목표의 상세화 연구, 한국과학교육학회지, 11(1), pp.83-96, 한국과학교육학회.

학위논문

▷ 총론

- 김영균, 대학입시제도의 변천 과정과 대학수학능력시험의 고찰, 동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부일, 대입학력고사의 문항편과성 연구: 대입모의학력고사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영역

- 문강주, 대입 학력고사에서 물리 문제의 분석 및 실험 평가문항 개선 방안 연구, 우석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유재철, 대입 학력고사 수학 문제의 분석: 1984학년도부터 1991학년도 까지, 인천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연구보고서 및 단행본

- 김홍주, 대학 입시 정책 평가를 위한 준거 체제 탐색, 한국교육개발원.
- 김제한, 사범계대학 입시에서의 교직적격성 평가방안, 서울교육대학.
- 대학교육심의회, 대학입시제도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대학교육심의회.
- 대학수학능력시험기초연구위원회,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영역별 출제 전략 방안 연구, 중앙교육평가원
- 임인재, 박도순, 조주연, 강승호, 이형행, 대학수학능력시험과 고등학교교육의 재조명, 중앙교육평가원.
- 장석우,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정착 방안 연구: 고등학교 교육을 중심으로, 한국교육개발원.
- 중앙교육평가원, 대학수학능력시험과 고등학교교육의 재조명, 중앙교육평가원.

1992

연구물 목록

학술논문

▷ 총론

- 김연주, 김영채, 신철순, 입시제도와 대학교육, 교육학연구, 30(1), pp.59-73. 한국교육학회

연구물 목록

1992 > 연구물 목록

- 김영균, 대학 입시와 사고력 교육, 사고개발연구, 12(2), pp.9-27, 대한사고개발학회.
- 김영채, 대학입시와 사고력 교육, 사고개발연구, 2(2), pp.9-27, 대한사고개발학회.
- 백일우, '70-'80년대의 대학정원정책과 입시개혁, 연세 교육연구, 5(1), pp.115-133, 연세대학교 교육연구소.
- 이미나, 대학입시의 의미와 그 내적 논리, 호서문화연구, 10, pp.267-291, 충북대학교 중원문화연구소.
- 허경철, 한정신, 손두환, 대학입시제도와 중등학교 교육, 교육학연구, 30(1), pp.41-57, 한국교육학회.

▷ 영역

- 김영수, 김은진, 대학수학능력시험 실험 평가 문제의 분석: 과학 탐구를 중심으로, 한국과학교육학회지, 12(1), pp.75-92. 한국과학교육학회.
- 김진호, 대학입시실기고사종목선정에 대한 연구: 서울시체육계학과를 중심으로, 체육학논문집, 20, pp.21-28, 경희대학교 스포츠과학연구원.
- 김찬중, 대학수학능력시험 제5차 실험평가 수리·탐구 영역에서 지구과학 분야의 문항분석, 한국지구과학회지, 13(4), pp.539-550. 한국지구과학회.
- 박성혁, 대학수학능력시험 실험평가 문제의 평가목표분석: 사회탐구를 중심으로, 사회와 교육, 16(1), pp.37-52. 한국사회과교육학회.
- 우종욱, 이경훈, 이항로,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자연과학 탐구 능력 평가를 위한 행동 요소의 추출과 평가 목표의 상세화 연구Ⅱ, 한국과학교육학회지, 12(2), pp.81-95, 한국과학교육학회.
- 이상진, 고등학교 한문교육과 대학입시, 한문교육연구, 6, pp.78-86, 한국한문교육학회.
- 정범모, 고등정신 기능과 수학능력시험, 과학교육연구논총, 9(1), pp.93-100, 충북대학교 과학교육연구소.
- 정원우, 이운중, 김중욱, 이상춘, 대학수학능력시험 실험평가 문항 중 지구과학 개념에 대한 학생들의 오인 분석, 과학교육연구지, 16, pp.47-82, 경북대학교 과학교육연구소.
- 최현섭, 새로운 대학입시제도에서의 사회탐구능력의 평가, 사회와 교육, 16(1), pp.53-65, 한국사회과교육학회.



▷ 기타

- 오일환, 1994학년도부터의 대학입시에 대처하는 인문고교의 입장, 사학, 60, pp.17-22, 대한사립중고등학교장회.
- 오일환, 박용진, 박도순, 김영철, '94 새 대학입시와 고교의 입장, 사학, 61, pp.17-38, 대한사립중고등학교장회.

학위논문

▷ 총론

- 최혜영, Raju방법을 이용한 차별기능문항 추출에 관한 연구: 대학 수학능력시험 4차, 5차, 실험평가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추정아, 대학수학능력시험 실험평가의 성별에 따른 차별 기능 문항 추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영역

- 김명규, 고등학교 수학교과서와 대입학력고사의 평가 문항 비교,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영균, 대학입시제도의 변천과정과 대학수학능력시험의 고찰: 수리영역을 중심으로, 동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은진, 대학수학능력시험 실험평가 문제의 분석: 과학탐구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준원, 인문계 고등학교 음악교육의 문제점에 관한 연구: 대입학력 고사문제 및 교과서 분석 결과를 통하여, 강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류지관, 대학대입 학력 고사가 고등학교 교육과정 운영에 미치는 영향: 국어 I 을 중심으로, 한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송백연, 영문독해력 향상에 관한연구: 대학수학능력시험의 분석을 중심으로, 서강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광주, 대입학력고사와 대학수학능력시험의 비교 분석: 외국어 영역 중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윤희, 영어 교재와 대입시에 나타난 영어 구조형 비교 연구, 인하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한수자, 고등학교 화학 탐구실험 학습의 효과에 관한 연구: 대학 수학능력시험 실험평가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연구보고서 및 단행본

- 강무섭, 대학입시제도 개선을 통한 대책, 한국교육개발원.
- 국립교육평가원 사회교과실, 대학수학능력시험 실험평가문제집, 국립교육평가원.

연구물 목록

1992 연구물 목록

- 국립교육평가원, (새 대입제도에 따른)대학수학능력시험 해설, 국립교육평가원.
- 문용린, 조영달, 윤희원, 성기훈, 이해영, 구청현, 황병수,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출제, 채점, 통계 분석 및 제도 운영의 효율화 방안 연구, 대학수학능력시험운영위원회.
- 박도순, 이태수, 이준옥, 김재연, 이해영, 황병수, 황홍순, 김화진, 1994학년도 새 대학입시제도의 실행 방안에 관한 연구, 대학교육심의회 1994 새 입시제도 실행방안연구위원회.
- 이종성, 조남현, 이재학, 송진웅, 성태제, 강영세, 대학수학능력시험 준비 문제집 평가연구, 국립교육평가원
- 장석우,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정착 방안 연구: 고등학교 교육을 중심으로, 한국교육개발원.
- 황정규, 우정호, 우종옥, 최현섭, 김임득, 대학수학능력시험과 교수-학습방향, 국립교육평가원.
- 황정규, 이종성, 이종승, 백용덕, 선형기, 구창현, 대학수학능력시험 문항개발에 관한 연구, 국립교육평가원.

1993 연구물 목록

학술논문

▷ 총론

- 강상조, 신범철, 한국체육대학 입시 실기검사의 개선방안, 한국체육대학교부속 체육과학연구소논문집, 12(1), pp.1-12, 한국체육대학교부속 체육과학연구소
- 김진아, 수학능력시험, 교육계 대변혁의 예감: 수학능력시험 앞으로가 문제다, 월간 사회평론 길, 93(10), pp.96-99, 사회평론.
- 김충희, 대학입시제도의 타당성 분석: 대입학력고사와 내신성적의 타당성 분석, 교육발전논총, 14(1), pp.45-81, 충남대학교 교육연구소.
- 명홍규, 새 대입제도와 초청 장학: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대비한 교수-학습 방법 개선을 중심으로, 교육경남, 129, 경상남도교육청.
- 신석기,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일차원성 가정의 검증, 부산교육학연구, 6(1), pp.159-176, 한국교육학회 부산지회.
- 이성규, 대학입시 강화는 대학의 지대 추구 행위, 한국논단, 44(1), pp.113-119, 한국논단.

- 이성희, 수학능력시험, 교육계 대변혁의 예감: 수학능력시험과 참교육, 8년만의 해후, 월간 사회평론 길, 93(10), pp.92-95, 사회평론.
- 이원호, 김석우, 대학입시제도 개혁의 국제적 동향, 부산교육학연구, 6(1), pp.1-25, 한국교육학회 부산지회.
- 이인구, 이정수, 최계호, 94학년도 전문대학 새입시제도의 분석 및 보완되어 저야 할 조건, 논문집, 7, pp.214-244, 대구산업정보대학.
- 추정아, 성태제, Mantel-Haenszel 방법과 Raju 방법에 의한 제4차, 제5차 대학수학능력시험 실험평가의 성별에 따른 차별 기능분향 추출, 교육평가연구, 6(2), pp.259-286, 한국교육평가학회.
- 최무전, 대입 수학능력시험의 특성과 지도 방안, 한밭교육, 8, pp.51-59, 대전직할시교육과학연구원.
- 허양순, 김원경, 충북 고입 수학능력시험의 타당성 분석과 문항개발, 수학교육, 32(2), pp.125-135, 한국수학교육학회.
- 황소림, 대학수학능력시험 제6차, 제7차 실험, 실험평가의 문항특성과 피험자 능력점수 동등화, 교육평가연구, 6(2), pp.287-314, 한국교육평가학회.

▷ 영역

- 구창현, 대학수학능력시험의 과학탐구분야 출제방향: 과학 탐구 능력 신장 방안 모색을 위한 세미나 및 학술 논문 발표회, pp.35-42, 한국과학교육학회.
- 김임득, 대학수학능력시험과 교수-학습 방향: 외국어(영어) 영역, 사학, 64, pp.46-59, 대한사립중고등학교장회.
- 김진호, 조태호, 대학입시 실기고사 종목에 대한 분석과 개선방향 서울시 체육계학과를 중심으로, 체육학논문집, 21, pp.181-191, 경희대학교 체육과학연구소.
- 김호창, 1994년 미술대학 입시의 수능고사를 생각해 본다, 조형교육, 9, pp.206-209, 한국조형교육학회.
- 박인기, 대학수학능력시험과 교수-학습 방향: 언어 영역, 사학, 64, pp.41-45, 대한사립중고등학교장회.
- 우정호, 대학수학능력시험과 교수-학습 방향: 수리 · 탐구 I 영역, 사학, 64, pp.60-68, 대한사립중고등학교장회.
- 이영하, 대학수학능력시험(수리 영역)에 대비하여, 수학교육, 32(3), pp.263-279, 한국수학교육학회.
- 임 형, 대학수학능력시험의 2~7차 실험평가 수리 영역에 관한 문항 분석, 수학교육, 32(3), pp.220-243, 한국수학교육학회.

연구물 목록

1993 > 연구물 목록

- 우종욱, 대학수학능력시험과 교수-학습 방향: 수리 · 탐구 II (과학) 영역, 사학, 64, pp.76-85, 대한사립중고등학교장회.
- 이항로, 대학 수학능력시험 대비 과학과 교수-학습 방법에 관한 고찰-발표, 과학 탐구 능력 신장 방안 모색을 위한 세미나 및 학술 논문 발표회, pp.64-79, 한국과학교육학회.
- 조영달, 대학수학능력시험과 교수-학습 방향: 수리 · 탐구 II (사회) 영역, 사학, 64, pp.69-75, 대한사립중고등학교장회.
- 최영한, 대학입시 수학 특기자 제도에 대하여, 수학교육, 32(1), pp.69-73, 한국수학교육학회.

▷ 기타

- 강준만, 한국언론과 민주주의의 위기: 언론의 대학입시 보도를 중심으로, 한국사회와 언론, 3, pp.31-54, 한국언론정보학회.
- 안병철, 문학과 사회: 대학입시와 가족; 아버지를 중심으로, 민족과 문화, 1, pp.299-319, 한양대학교 민족학연구소.

학위논문

▷ 총론

- 김인영, 대학수학능력시험이 교육방법변화에 미칠 영향 분석,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현정, 대학수학능력시험의 구인에 관한 탐색적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연우, 고전검사이론과 문항반응이론에 의한 대입전형자료의 비교분석,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영기, 고전검사이론과 문항반응이론에 의한 문항분석방법의 비교연구: 대학수학능력시험 5차 실험 평가결과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학명, 대학수학능력시험 실험평가의 문항분석,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추정아, 대학수학능력시험 실험평가의 성별에 따른 차별기능문항 추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황소림, 대학수학능력시험 제6차, 제7차 실험평가의 문항특성과 피험자능력 동등화,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영역

- 고희령, 영어 청취력 증진에 관한 연구: 대학수학능력시험 실시를 배경으로,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권영기, 대학수학능력시험(영어) 영역 평가 기준에 관한 연구, 경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병열, 대학수학능력시험 모의실험평가와 1994학년도 제1차 대학수학능력시험에 관한 비교연구: 수리·탐구(II)을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승원,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대비한 교수-학습에 대한 교사와 학생의 지각 연구: 수리·탐구 영역의 과학 분야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방희주, 고등학교 철학교과의 교수-학습 방향 연구: '9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실험평가를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유춘원, 대학수학능력시험과 국민윤리 교과서의 연계성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승언, 대입학력고사 음악과목의 출제경향 연구: 1987-1992년 전기대학 학력고사 선택과목 '음악', 계명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태희, 고등학교 영어과 교육과정과 '94 1차 대학수학능력시험의 비교연구,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허양순, 충북 고입 수학능력시험의 타당성 분석과 문항개발: 수리 영역을 중심으로,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연구보고서 및 단행본

- 가족문화연구회, 대학입시와 가족, 하나의학사.
- 구창현, 우한용, 이영하, 최완기, 허명, 최연희, 대학수학능력시험과 그 방향, 이화여자대학교.
- 국립교육평가원 입시제도실, 1994학년도 제1차 대학수학능력시험 출제 문항 분석 연구, 국립교육평가원.
- 국립교육평가원 입시제도실, 1994학년도 제2차 대학수학능력시험 출제 문항 분석 연구, 국립교육평가원.
- 국립교육평가원 평가연구실, 대학수학능력시험에 대한 반응 조사 분석, 국립교육평가원.
- 박도순, 새 대학입시 시험제도, 중앙교육진흥연구소.
- 박도순, 학습 및 수험전략: 대학수학능력시험대비전략, 교육과학사.
- 송진웅, 대학수학능력시험과 물리교육, 대구대 물리교육과 물리교육 연구실.
- 우종욱, 황정규, 구창현, 김대행, 김임득, 박인기, 배두분, 우정호, 이영하, 조영달, 최현섭, 허명,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영역별 출제 모형 정립 및 모형 활용 방안 연구, 국립교육평가원.

연구물 목록

1993 > 연구물 목록

- 이종성, 새 대학입시제도 보완 방안에 관한 연구, 교육부.
- 이정근, 대학입시제도의 개혁을 위한 소고, 한국대학교육협의회.
-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대학 입시제도 개선방안,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한국교육평가연구원, 새로운 대학입시제도의 합리적 시행을 위한 한국교육평가연구원 초청 토론회, 한국교육평가연구원.
-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학윤리위원회, ('94학년도) 대학입시의 공정관리를 위한 워크숍, 한국대학교육협의회.
- 허경철, 대학수학능력시험의 도입에 따른 학교 현장의 변화 조사, 한국교육개발원.

1994 > 연구물 목록

학술논문

▷ 총론

- 강무섭, 한국의 중등교육과 대학입시제도, 사학, 69, pp.108-120, 대한사립중고등학교장회.
- 강영석, '94 대학수학능력시험의 문제점 분석, 교육학논총, 13, pp.163-174, 한국교육학회 대구·경북지회.
- 김우철, 김성호, 대학입시에서 선택과목에 대한 표준점수제 심포지움: '새 대학입시의 통계적 계획과 분석'에 대하여, 춘계학술 및 입시총회, pp.42-42, 한국통계학회.
- 김진호, 대학입시 실기고사 종목선정에 대한 동향과 방안, 한국체육학회지, 33(1), pp.1039-1048, 한국체육학회.
- 박도순, 1994학년도 새 대학입시제도의 실행방안에 관한 연구, 교육문제연구, 6, pp.1-34, 고려대학교 교육문제연구소.
- 박병량, 대학수학능력시험 도입 후의 고교 교육 변화에 관한 연구, 교육연구, 4, pp.57-82, 부산대학교교육연구소.
- 박인학, '94 학년도 대학입시제도의 문제점에 관한 분석, 논문집, 19, pp.49-61, 광주보건대학.
- 박찬주, 대학입시 제도와 과열 과외, 사학, 69, pp.47-56, 대한사립중고등학교장회.
- 성태제, 대학별 고사를 위한 문항 분석, 표준점수, 검사동등화, 한국통계학회논문집, 1(1), pp.206-214, 한국통계학회.
- 성태제, 1994학년도 제1차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성별에 따른 차별기능 문항 추출, 교육평가연구, 7(2), pp.87-101, 한국교육평가학회.

- 성태제, 대학입시에서 선택과목에 대한 표준점수제 심포지움: 대학별 고사를 위한 문항분석, 표준점수, 검사동등화, 춘계학술 및 입시총회, pp.7-15, 한국통계학회.
- 신동로,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측정내용과 행동설정을 위한 요인분석: 수리·탐구 하위검사를 중심으로, 학생생활연구, 21, pp.1-25, 전북대학교 학생생활연구소.
- 안세근, 김민환,中等교육 정상화를 위한 현행 대학입시제도의 개선방안 탐색, 논문집, 15, pp.1-20, 상지대학교.
- 우종욱, 대학수학능력시험의 바람직한 정착 방향, 대학교육, 69, pp.10-23, 한국대학교육협의회.
- 유진형, 대학수학능력시험과 평가 기반의 확충, 충남교육, 109, 충청남도교육과학연구원.
- 이상익, 대학수학능력시험과 사고력 평가, 교육전남, 83, 전라남도교육청.
- 이종덕, 대학수학능력시험 대비를 위한 수업 개선 방안, 연구월보, 247, 전라북도교육연구원.
- 이종재, 대학입시의 자율화 방향과 과제, 교육이론, 7-8(1), pp.21-43,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교육학과.
- 임 형, 대학입시에서 선택과목에 대한 표준점수제 심포지움: '새 대학입시의 통계적 계획과 분석'에 대한 토론, 춘계학술 및 입시총회, pp.27-41, 한국통계학회.
- 정인수, 대학수학능력시험과 교수·학습 방법의 전환, 연구월보, 249, 전라북도교육연구원.
- 최영한, 대학 입시 제도의 나아갈 길, 수학교육 프로시딩, 2, pp.161-166, 한국수학교육학회.
- 허명희, 대학입시에서 선택과목에 대한 표준점수제 심포지움: 새 대학입시의 통계적 계획과 분석: 문항분석과 선택과목 등화(표준점수제)를 중심으로, 춘계학술 및 입시총회, pp.16-26, 한국통계학회.

▷ 영역

- 구창현,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사회탐구영역시험, 역사교육, 55, pp.131-134, 역사교육연구회.
- 권오량, 대학수학능력시험이라는 혁신에 대한 고교 영어 교사의 관심과 요구, 영어교육, 48, pp.265-290, 한국영어교육학회.
- 권재술, 김상철,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과학탐구 영역의 분석, 과학교육논문집, 4(1), pp.264-274, 한국교원대학교 과학교육연구소.

연구물 목록

1994 > 연구물 목록

- 김종해, 이만근, 9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수리분야 문항의 장·단점 분석, 수학교육학연구, 4(1), pp.135-144, 대한수학교육학회.
- 김민주, 6차 영어과 교육과정과 대학수학능력시험, 어학연구, 6, pp.33-43, 순천대학교 어학연구소.
- 김상철, 권재술,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과학탐구 영역의 분석, 한국과학교육학회지, 14(2), pp.214-224, 한국과학교육학회.
- 명전옥, 지구과학 교사들의 탐구학습 지도에 대한 관심과 필요 사항: 대학수학능력시험제도 도입에 즈음하여, 한국지구과학회지, 15(5), pp.331-340, 한국지구과학학회.
- 송현호, 대학수학능력시험과 문학 교육, 어문논총, 14(15), pp.164-175, 전남대학교국어국문학회.
- 차경환, 대학수학능력시험 영어 듣기문항 분석, 영어교육, 47, pp.49-75, 한국영어교육학회.
- 최영한, 대학입시제도에서 수학분야의 나아갈 길, 수학교육, 33(1), pp.23-27, 한국수학교육학회.

학위논문

▷ 총론

- 김성희, 대입 전형자료의 타당도 및 신뢰도 평가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유재성, 1차, 2차 수학능력시험을 통하여 본 앞으로의 수업과 학습의 방향, 건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영선, 대학수학능력시험에 대한 교사, 학생, 학부모의 의견 분석,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영역

- 고재영, 고등학교 영어교육과 대학수학능력시험,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경찬, '9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외국어(영어) 영역 문항 분석,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병열, 대학수학능력시험 모의 실험평가와 1994학년도 제1차 대학수학능력시험에 관한 비교 연구,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수학교육 전공) 석사학위논문.
- 김상철,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과학탐구 영역의 분석,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숙경, 고등학교 영어교육과 대학수학능력시험 간의 상관관계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문경원, 1994학년도 제1, 2차 대학수학능력시험과 대학별 본고사에 관한 비교: 수리·탐구(1)을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반재천,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수리영역에 대한 신뢰도 측정모형의 적합도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수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역사교육현장에 미친 영향과 바람직한 역사과 교수-학습 방법,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송난경, 대학수학능력시험 중 과학적 탐구능력 평가에 관한 연구, 전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유춘원, 대학수학능력시험과 국민윤리 교과서의 연계성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은경, 고등학교 영어교육과정과 대학수학능력시험,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차광순, 영어과 교육과정에 부합되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의 방향, 동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홍순창, '수리·탐구 영역(1)'의 평가문항 분석에 관한 연구: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중심으로,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연구보고서 및 단행본

- 국립교육평가원, ('9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해설, 국립교육평가원.
- 국립교육평가원 출제관리1실, 199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출제 문항 분석 연구, 국립교육평가원.
- 박경숙, 대학수학능력시험의 발전 방안(RR95-19), 한국교육개발원.
- 성기조, 대학수학능력시험해설(부록), 학영사.
- 이영선, 대학수학능력시험에 대한 교사, 학생, 학부모의 의견 분석, 이화여자대학교.
- 이종성, 새 대학입시제도 보완방안에 관한 연구, 새 대학입시제도 보완 발전 연구위원회.
- 이종재, 대학입시의 자율화 방향과 과제,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교육학과.
- 장석우, 구창현, 김광해, 이영하, 정진우, 양호환, 배두분, 대학수학능력시험 정착을 위한 고등학교에서의 교수·학습 개선 방안, 199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출제위원회.
- 전라북도교육연구원, 영어과 대학수학능력시험 지도자료: 외국어 영역, 전라북도교육연구원.

연구물 목록

1994 연구물 목록

- 전라북도교육연구원, 대학수학능력시험 지도자료: 언어 영역, 전라북도교육연구원.
- 전라북도교육연구원, 대학수학능력시험 지도자료: 수리·탐구(Ⅰ) 영역. v.3, 전라북도교육연구원.
- 전라북도교육연구원, 대학수학능력시험 지도자료: 수리·탐구 영역 (1-2). 전라북도교육연구원.
- 전라북도교육연구원, 대학수학능력시험 지도자료: 수리·탐구(Ⅱ) 영역. v.4, 전라북도교육연구원.
- 한국가족학연구회, 자녀교육열과 대학입시, 자녀교육열과 대학입시.

1995 연구물 목록

학술논문

▷ 총론

- 김상호, 대학수학능력시험 및 고등학교 내신성적과 대학학업성적과의 상관관계 연구, 한국교육문제연구, 10, pp.91-111, 중앙대학교 한국교육문제연구소.
- 김성만, 대학입시제도 변천에 관한 고찰, 연구논집, 13, pp.32-54, 경기대학교행정대학원.
- 김승원,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위한 교수-학습 방안 연구, 사학, 72, pp.125-135, 대한사립중고등학교장회.
- 박병량, 변영계, 한대동, 성병창, 대학수학능력시험제도가 고등학교 교육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교사의 인식, 교육연구, 5(1), pp.1-28, 부산대학교 교육연구소.
- 박영신, 대학수학능력시험의 타당도 분석, 교육문화연구, 1, pp.125-171, 인하대학교 교육연구소.
- 배금수, 대학입시요강 색깔이상자 제한규정 타당성 연구, 한국체육학회지, 34(1), pp.1123-1131, 한국체육학회.
- 이공훈, 우리 나라 대학입시시험 제도의 개혁 방안, 사학, 74, pp.99-101, 대한사립중고등학교장회.
- 이귀술, 대학 입시제도에 대한 문제점의 고찰과 제언, 박문논집, 2(1), pp.43-50, 한국박문학회.
- 이상렬, 색깔이상과 대학입시, 대한의학협회지, 38(11), pp.1330-1332, 대한의학협회.
- 이종재, 교육 개혁 방향에 따른 새 대학입시제도, 사학, 74, pp.77-85, 대한사립중고등학교장회



▷ 영역

- 강상조, 1996학년도 한국체육대학 입시실기교사의 양호도분석(II), 한국체육대학교부속 체육과학연구소논문집, 14(1), pp.1-11, 한국체육대학교부속 체육과학연구소.
- 권오량, 대학수학능력시험 외국어 영역 개선 방향, 교육월보, 166, 교육부.
- 김임득, 대학수학능력시험과 영어 교육의 방향, 외국어 교육, 1, pp.39-70, 한국외국어교육학회.
- 김임득, 대학수학능력시험과 외국어(영어) 영역의 개선 방향, 교육논총, 10, pp.63-73, 한양대학교 한국교육문제연구소.
- 김경석, 수학능력시험의 사회언어학적 분석, 영어교육, 50(4), pp.25-45, 한국영어교육학회.
- 명진옥, 박승재, 대학수학능력시험 도입에 따른 과학적 탐구사고력 평가에 대한 과학 교사들의 관심과 필요 사항, 한국과학교육학회지, 15(4), pp.417-428, 한국과학교육학회.
- 조성민,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의 사회가치탐구 평가문항의 기본 유형개발에 관한 연구, 사회과교육, 28, pp.260-293, 한국사회과교육연구회.
- 차경환, 1994학년도 1,2차 대학수학능력시험 영어 듣기 문항 분석, 영어교육, 50(2), pp.209-231, 한국영어교육학회.

▷ 기타

- 김태희, 이숙현, 어머니와 청소년 자녀의 관계만족도: 청소년 발달, 중년기 변화, 대학입시와 관련하여, 가족학 논집, 7, pp.91-126, 한국가족학회.

학위논문

▷ 총론

- 김동한, 대입 전형 자료의 타당도 평가 연구,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선주, 대학학업성취도와 대입본고사 성적에 대한 요인 분석,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재구, 우리나라의 대학수학능력시험과 미국의 대학입학허가제도에 관한 소고,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영역

- 고동현, 국어과 읽기 교수-학습 방법에 관한 연구: 대학수학능력시험과 관련하여, 강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연구물 목록

1995 > 연구물 목록

- 박신복, 대학수학능력시험의 분석과 학습대책에 관한 연구: 수리 영역(I) 중심으로, 경희대 대학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서만재,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의 가치 탐구 평가 방안 탐색,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국민윤리교육) 석사학위논문.
- 원영섭, 대학수학능력시험 외국어(영어)영역 평가에서의 독해문제 분석 및 그 지도법,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윤영별, 대학입학 학력고사와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영어과 평가 문항 비교 분석,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상율, 대학수학능력시험 외국어영역 분석을 통한 학습지도 방안 연구, 부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창완, 199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과 한양대학교 본고사에 관한 연구: 수리·탐구 영역(I)과 수학과목을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차광순, 영어과 교육과정에 부합되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의 방향, 동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영봉, 영어 청취력 향상을 위한 효율적인 지도방안: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중심으로, 충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편남숙,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영어 독해 문항 분석,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연구보고서 및 단행본

- 국립교육평가원, 대학수학능력시험 안내, 국립교육평가원.
- 국립교육평가원, ('96학년도)대학수학능력시험 해설, 국립교육평가원.
- 박경숙, 대학수학능력시험의 발전 방안, 한국교육개발원.
- 심재기, 김재복, 김대행, 최규홍, 김대식, 최운식, 전병만, 대학수학능력시험 문제의 질적 향상을 위한 출제 방향 및 방법의 개선 연구, 199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출제위원회.
- 원영섭, 대학수학능력시험 외국어(영어)영역 평가에서의 독해문제 분석 및 그 지도법, 한국외국어대학교.
- 최은수, 한국의 대학입시행정, 송실대학교.
- EBS, 교육과정, 이렇게 바뀐다 대학입시에서 입학제도로 [비디오 녹화 자료], EBS.
- 황정규, 박도순, 이종승, 김대행, 최규홍, 김대식, 최운식, 전병만, ('9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개선방안, '97대학수학능력시험개선방안연구위원회.

1996

연구물 목록

학술논문

▷ 총론

- 김경성,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출제 관리 방안, 교육진흥, 33, pp.26-35, 중앙교육진흥연구소.
- 김상길, 대학수학능력시험의 개념, 성격 및 평가 목표, 고등교육연구, 8(1), pp.257-272, 한국고등교육학회.
- 변영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고등학교 수업에 미친 영향, 교육진흥, 34, pp.164-180, 중앙교육진흥연구소.
- 변영계, 성병창, 대학수학능력고사가 고등학교 수업에 미친 영향, 사대논문집, 32, pp.61-86, 부산대학교.
- 성태제,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성격과 개선 과제, 대학교육, 81, pp.19-39, 한국대학교육협의회.
- 송재열, 대학수학능력시험과 구조 개편 방향, 교육진흥, 33, pp.16-25, 중앙교육진흥연구소.
- 이일용, 대학입시제도의 개혁에 대한 평가 연구, 한국교육문제연구, 11, pp.133-147, 중앙대학교 한국교육문제연구소.
- 이현청, 교육 개혁과 대학입시제도, 사학, 76, pp.35-44, 대한사립중고등학교장회.
- 현원명, 대학수학능력시험의 문항별 4단계 교수·학습 및 논리 전개 구조에 의한 문제해결력 신장 방안, 한밭교육, 13, 대전광역시교육연구원.

▷ 영역

- 구창현, 특강: 대학수학능력시험과 수리·탐구 영역(Ⅱ: 과학탐구) 시험, 과학교육 평가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 pp.107-114, 한국과학교육학회.
- 김상길, 1994-9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외국어(영어) 영역 결과 분석 비교, Studies in English education, 1(2), pp.11-24, 글로벌영어교육학회.
- 노명완, 대학수학능력시험과 독서 교육, 교육월보, 178, 교육부.
- 신향근, 양기열, 정권수, 송영무, 대학수학능력시험 수리영역의 특징과 97학년도 문항분석, 과학과 교육, 4, pp.1-16, 순천대학교 사범대학 부속 과학교육연구소.
- 이만근, 대학수학능력시험-수리분야-문항 분석 및 개선 방향, 수학교육학연구, 6(2), pp.165-176, 대한수학교육학회.

연구물 목록

1996 > 연구물 목록

- 임 형, '9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수리·탐구 영역 (1) 주관식 문항의 응답 표기 오류에 관한 연구, 수학교육 프로시딩, 4, pp.153-174, 한국수학교육학회.
- 정권수, 신향근, 양기열, 송영무, 대학수학능력시험 수리 영역의 특징과 97학년도 문항 분석, 과학과교육, 4, pp.1-16, 순천대학교 사범대학부속 과학교육연구소.

▷ 기타

- 윤수정, 수능 시험에 부정 행위 많았다고, 한국인, 15(2), pp.138-138, 사회발전연구소.
- 정기성, '97대학입시 이모저모, 지역사회, 1, pp.92-101, 한국지역사회연구소.

학위논문

▷ 총론

- 마광규,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영향에 대한 조사연구,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준석, 대입수능에서 Fractal과 관련된 문항분석 및 Fractal 학습문항 개발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동화,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채택과정 분석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영역

- 김광명, 국어과 수학능력시험 분석 연구: 언어 영역을 중심으로, 한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남중욱, 대학수학능력시험의 과학탐구영역 문항 분석,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점수,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영어 학습자에게 미치는 영향 연구, 전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장주, 우리나라 대학수학능력시험(수리·탐구 I)에 관한 연구, 서강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규성, 1995년에 실시된 대학 본고사 및 모의고사에 관한 연구: 수학Ⅱ를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연구보고서 및 단행본

- 국립교육평가원, ('97학년도)대학수학능력시험 해설, 국립교육평가원.
- 국립교육평가원 출제관리1실, 199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출제 문항 분석 연구, 국립교육평가원.

- 국립교육평가원, 대학수학능력시험 안내, 국립교육평가원.
- 국회도서관, 학교생활기록부의 의미와 활용방안: 대학입시제도 개선과 관련하여, 국회도서관.
- 박도순, 배호순, 김경성, 남명호, 구창현, 유명규, 박문기, 대학수학능력시험의 문제은행식 출제·관리 방안에 관한 연구, 대학수학능력시험 문제은행식 출제·관리 방안 연구위원회.
- 전라북도교육연구원, 대학수학능력시험 향상 자료: 수리·탐구 영역, 전라북도교육연구원.
- 전라북도교육연구원, 대학수학능력시험 향상 자료: 수리·탐구(Ⅱ) 과학 영역, 전라북도교육연구원.
- 전라북도교육연구원, 대학수학능력시험 향상 자료: 수리·탐구(Ⅱ) 사회 영역, 전라북도교육연구원.
- 전라북도교육연구원, 대학수학능력시험 향상 자료: 언어 영역, 전라북도교육연구원.
- 전라북도교육연구원, 대학수학능력시험 향상 자료: 외국어 영역, 전라북도교육연구원.
- 중앙교육진흥연구소, 학교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대학 및 고교입시 정책의 과제와 발전방향: 창립 25주년 기념 학술 세미나, 중앙교육진흥연구소.

1997

연구물 목록

학술논문

▷ 총론

- 김석우, 윤명희, 최태진, 검사 가중치 방법에 관한 연구: 대학수학능력시험에의 적용, 부산교육학연구, 10(2), pp.37-52, 한국교육학회 부산지회.
- 김수봉, 모의 수능고사의 결과 연구, 우암사려(牛岩斯藜), 8, pp.353-394, 부산외국어대학교 국어국문학과.
- 김인희, 최옥선, 대학 입시 정책 50년사의 의미와 과제, 그리고 전망, 연세교육과학, 45, pp.83-93,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 박승배,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과 고교 내신성적에 의해 분류된 전주교대 재학생 집단 간의 대학 성적 차이에 관한 연구, 초등교육연구, 8, pp.1-22, 전주교육대학교 초등교육연구소.
- 여환진, 고교성적과 수능성적 및 대학성적간의 상관성, 중등교육연구, 40, pp.271-282, 경북대학교 사범대학부속 중등교육연구소.

연구물 목록

1997 > 연구물 목록

▷ 영역

- 이만근, 9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수리·탐구(1) 영역의 출제 방법 개선 방안, 수학교육학연구, 7(2), pp.205-213, 대한수학 교육학회.
- 이병옥, 대학수학능력시험에 대비한 지리과 교수-학습방법, 지리교육, 9, pp.235-252, 경북대학교 사범대학 지리교육과.
- 임석훈, 고교 정기고사 성적이 수능시험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연구, 중등교육연구, 39, pp.215-229, 경북대학교 사범대학부속 중등교육연구소.
- 이정림, 대학 수학 교육의 현황과 전망, 대학교육, 86, pp.87-93, 한국대학교육협의회.
- 차경환, 대학수학능력시험 영어 듣기 문항의 현황, 영어교육, 52(2), pp.265-288, 한국영어교육학회.

▷ 기타

- 오세정, 대학입시와 언론, 철학과 현실, 33, pp.122-129, 철학문화 연구소.
- 윤영선, 대학입시전형자료와 관련된 연구논문들의 문제점과 앞으로의 연구방법에 대한 제언, 교육연구, 31, pp.27-51,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문제연구소.

학위논문

▷ 총론

- 김정수, 고교 성적과 수능성적 및 대학 성적간의 상관성, 경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마광규,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영향에 대한 조사 연구,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송학영, 지능 창의성과 학업성적 수학능력시험의 상관 연구, 경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윤재근, 청취력 향상을 위한 지도방안에 관한 연구: 대학수학능력시험 분석을 중심으로, 창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지영수, 고교 정기고사 성적이 수능시험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연구, 경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지영해, 지능·학업 성적·대학수학능력시험 간의 관계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영역

- 고창일, 영어 독해 전략과 대학수학능력시험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기봉, 대학수학능력시험의 탐구영역과 과학탐구능력 및 논리적 사고력과의 관계,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승현, 고등학교 영어과 교육과정에 따른 평가 방법에 대한 연구: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중심으로, 전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장한, 대학수학능력시험 외국어(영어)영역 독해문항 분석을 통한 독해지도 방법고찰, 상지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희정, 고등학교 수학교육과정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 방향: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중심으로, 계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병구, 대학수학능력시험 외국어(영어) 영역 기출 문제의 문제점 및 개선 방향 연구, 수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채리, 대학수학능력시험 수리·탐구(I) 영역의 문제점과 그 개선책에 대한 연구, 명지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송춘현,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추이와 효과적인 교수학습방법: 수리·탐구 영역 I 을 중심으로, 순천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유정선, 언어이해능력과 수학 문제해결과의 관계,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윤영수, 영어청취력 향상에 관한 연구: 대학수학능력시험의 듣기평가 영역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윤종경, 대학수학능력시험 영어 영역의 분석과 학습 대책에 관한 연구: 듣기 평가를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영철, '9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외국어(영어)영역 분석,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전필진, 대학수학능력시험 수리·탐구 영역(I)에 관한 연구, 경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안숙, 영어 독해 전략에 관한 연구: 대학수학능력시험의 분석을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혜진, 대학수학능력시험 생물 분야 문제 분석,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현섭, 대학수학능력시험 외국어(영어) 영역 분석, 홍익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 준, 대학수학능력시험 외국어영역(영어)의 청해시험유형 및 발음속도가 수험결과에 미치는 영향,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연구물 목록

1997 연구물 목록

연구보고서 및 단행본

- 국립교육평가원 출제관리1실, '9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해설, 국립교육평가원.
- 국립교육평가원 출제관리1실, 199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분석 연구, 국립교육평가원.
- 소광섭, 구창현, 배호순, 김광해, 김종해, 권병두, 윤덕홍, 김임득, 199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출제방법 개선방안 연구, 199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출제위원회.
- 황정규, 심재기, 김경성, 민경찬, 정구조, 박경순, 박도순, 이종승, 대학수학능력시험의 평가와 발전방안 탐색, 대학수학능력시험 개선방안연구위원회..

1998 연구물 목록

학술논문

▷ 총론

- 김규성, 한상문, 대학수학능력시험 표준점수제의 합리적 활용, 논문집, 32(1), pp.457-474, 서울시립대학교.
- 김성훈,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선택과목 도입과 점수보고 방법에 대한 논의, 교육평가연구, 11(2), pp.149-170, 한국교육평가학회.
- 김신복, 대학입학전형제도의 비교 및 개선 방안, 행정논총, 36(2), pp.1-24, 서울대학교행정대학원.
- 박성현, 김춘원, 대학입시에서의 선택과목 등화에 대한 연구, The 12th Asia Quality Management Symposium: Total Quality Management for Restoring Competitiveness, pp.113-122, 한국품질경영학회.
- 윤혜경, 성태제, 대학수학능력시험의 '모든 것이 정답' 혹은 '정답 없음' 답지를 포함한 선다형 문항특성 분석, 교육학연구, 36(1), pp.131-147, 한국교육학회.
- 이종재, 대학입학전형제도의 개혁 방안, 교육진흥, 42, pp.164-179, 중앙교육진흥연구소.
- 이종승, 대학입학제도의 변천 과정과 새 제도의 의의, 교육진흥, 42, pp.6-17, 중앙교육진흥연구소.
- 이현청, 대학입학의 무시험 전형이 선진 시민 양성할 수 있다. 국회보, 384, 국회사무처.
- 장주욱, 대학 입학 시험, 없앨 것인가, 대학교육, 95, pp.122-125, 한국대학교육협의회.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의 표준점수제, 교육월보, 197, 교육부.
- 한상문, 김규성, 대학수학능력시험 표준점수제의 합리적 활용, 서울시립대학교 논문집, 32(1), 서울시립대학교.

▷ 영역

- 구창현, 대학수학능력시험 심층 분석, 화학세계, 38(8), pp.20-31, 대한화학회.
- 김병무, 박채리, 양승갑, '대학수학능력시험' 수리·탐구(Ⅰ)영역에 관한 문제점과 그 개선책에 관한 연구, 자연과학논문집, 17, pp.7-26, 명지대학교 자연과학연구소.
- 양승갑, 박채리, 김병무, 대학수학능력시험 수리탐구(Ⅰ)영역에 관한 문제점과 그 개선책에 관한 연구, 자연과학논문집, 17, pp.7-26, 명지대학교자연과학연구소.
- 이항로, 정진우, 우종욱, 제4분과 발표논문 초록: 과학 탐구능력과 개념 이해도가 대학수학능력시험 지구과학 문제 해결에 미치는 영향, 지구과학 교육심포지엄 및 춘계학술발표회, pp.111-112, 한국지구과학회.

▷ 기타

- 이두휴, 우리나라 대학입시정책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논문집, 13(1), pp.291-309, 여수대학교.
- 최승재, 교육부장관의 대학입시기본계획 일부보완통보, 고시 연구, 25(11), pp.318-327, 고시연구사(연구).
- 최청일, 대학입시와 시장 기능, 사학, 83, pp.59-66, 대한사립중고등학교장회.

학위논문

▷ 영역

- 김영숙, 고등학교 국어과 교육과정과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상관성 연구, 성균관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용문,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외국어 영역 독해문제 분석을 통한 독해력 향상 지도방안, 전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우상, 9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중 '수리·탐구(Ⅰ) 영역'의 평가 문항 분석에 관한 연구, 인하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재흠, 대학수학능력시험 영어영역 선정 어휘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민 섭, 영어 청취이해력 신장을 위한 연구: 대학수학능력시험 듣기 영역을 중심으로, 강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연구물 목록

1998 > 연구물 목록

- 박기명, 대학수학능력시험의 국사 문제 분석과 그 개선 방안, 서강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서환, 대학수학능력시험 외국어(영어) 영역 청해 문항 분석 및 영어 교육과의 연관성,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은정, 영어독해 전략과 영어독해 지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문항 분석을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백석연, 대학수학능력시험 영어 독해력 문제 분석,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윤혜균,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지리관련 문항의 평가,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 승, 영어 청취력 향상의 효과적인 지도방안과 대입수능 청취 문항 분석, 경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경옥, 수리·탐구(I) 영역을 중심으로 본 EBS 수능특강 프로그램에 대한 조사 연구, 명지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산호, 대학수학능력시험(영어)의 문항 분석 연구, 숭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용주,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수리·탐구(I)영역에 대한 불안감 조사: 사례 연구,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정화, 영어 읽기능력 지도 평가에 관한 연구: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중심으로, 계명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향노, 과학 탐구능력과 개념 이해도가 대학수학능력시험 지구과학 문제 해결에 미치는 영향,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임성희, 대학수학능력시험 수리·탐구(I) 영역 분석, 전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장원섭, '대학입학학력고사'와 '대학수학능력시험'의 비교분석과 발전 방안: 수리·탐구(I) 영역을 중심으로, 명지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수진, 심층학습이 사회과 사고력 성취에 미치는 효과 연구: 대학수학능력시험 사회탐구의 평가 요소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윤정, 대학수학능력시험 수리분야의 문항 분석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호적, 대학수학능력시험 외국어(영어)영역 독해문항 분석 및 그 지도방안 연구, 연세대학교 관리과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용배, 대학수학능력시험 외국어영역 평가에서의 듣기문제 분석 및 효율적 학습방안,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대위, 영어 독해력 향상을 위한 지도방법: 수학능력시험 독해문제를 중심으로, 강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하만두, 대학수학능력시험 외국어 영역의 문화적 내용, 인제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한용태, 고등학교 국어과 듣기 교육의 실태와 대입 수능 언어영역의 듣기 평가 문항 분석 연구,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연구보고서 및 단행본

- 교육부, 2002학년도 대학입학제도 개선안, 교육부.
- 김대행, 200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출제방법 개선 연구, 1999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출제위원회.
- 김신영, 구창현, 임형, 박정, 대학수학능력시험 결과 보고 및 분석 방안 연구,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김영숙, 고등학교 국어과 교육과정과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상관성 연구, 성균관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도순, 김주훈 컴퓨터 교육 활성화를 위한 대학입학전형 개선 방안 연구, 교육부.
- 백순근 외, 대학 신입생 선발제도 개선 방안 연구,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서기태, 교육대학교 입시 검정 변인의 예언 타당도, 공주교육대학교.
- 이근남, 남명호, 홍후조,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장기 발전 방안 연구,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임찬빈, 양길석, 성병창, 대학수학능력시험 영향 연구,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정구향 외, 대학입학면접 전형자료 개발과 활용방안,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최진황, 언어, 외국어(영어) 영역 문제은행 구축을 위한 문항 개발,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대학 입학 면접 전형자료의 개발과 활용 방안 탐색 [학술 세미나 자료집],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Guideline for College Scholastic Ability Test,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고사관리부, 199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출제 문항 분석 연구,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수능시험 성적정보의 활용실태 및 문제점 분석,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연구물 목록

1999

연구물 목록

학술논문

▷ 총론

- 김신영,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영역별 변환표준점수 반영 비율에 관한 연구, 교육과정평가연구, 2(1), pp.289-299,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김현철, '99학년도 대입수능시험 선택과목 원점수와 선형 또는 비선형 표준점수의 비교 및 표준화 효과의 실증분석, 교육학연구, 37(1), pp.219-243, 한국교육학회.
- 이만근,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출제 경향 분석, 수학교육논문집, 8, pp.461-468, 한국수학교육학회.
- 이상권, 김완섭, 수학능력시험 및 학교생활기록부의 성적특성에 따른 대학의 학업성취도에 관한 연구, 세무회계연구, 6, pp.137-155, 한국세무회계학회.
- 이종재, 대학입학전형제도의 개혁 방안, 교육행정학연구, 17(1), pp.9-22, 한국교육행정학회.
- 지은림, 대학입학전형 자료들의 타당도 및 공헌도 평가를 통한 학생 선발 도구로서의 의미 고찰, 경희대학교교육문제연구소논문집, 15, pp.215-227, 경희대학교부설교육문제연구소.

▷ 영역

- 김영하, 90년대 문학과 나, 그리고 전망: 정신분열증을 위한 수학능력시험 언어영역 테스트, 작가세계, 40, pp.336-339, 세계사.
- 박화신, 워크샵/수학문제 창작-수학능력시험에 대하여: 수리영역을 중심으로, 수학교육논문집, 8, pp.459-459, 한국수학교육학회.
- 신명신, 대학수학능력시험 영어 읽기 지문의 구문 패턴 분석, 영어교육, 54(4), pp.309-326, 한국영어교육학회.
- 이문남, 정대영,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물리과목의 선택화에 따른 문제점과 발전 방안, 교과교육연구, 3, pp.127-140, 단국대학교 교과교육연구소.
- 정우상, 대학입시 한자반영 시급하다: 수능 문제에 한자를 출제해야 한다, 어문연구, 27(4), pp.146-151, 한국어문교육연구회.

▷ 기타

- 김병무, 대학 수학 수업과 평가의 다양화, 수학교육, 91, pp.173-177, 한국수학교육학회.
- 박정수, 황현식, 김윤선, 대학입시의 전형요인별 영향력 측정과 전형간 비교를 위한 통계적 방법의 고찰, 교육평가연구, 12(2), pp.219-233, 한국교육평가학회.

- 배장오, 한국의 대학 입시 제도에 관한 연구, 논문집, 34(4), pp.279-309, 강남대학교.
- 채규철, 북한과 중국의 국가발전전략이 대학입시정책에 끼친 영향, 사회과교육, 32, pp.489-503, 한국사회과교육연구회.
- 최계호, 김환열, 통계적 추세변동분석에 의한 21C 대학입시 인력의 수급예측, 논문집, 13(1), pp.462-487, 대구산업정보대학.

학위논문

▷ 총론

- 김은미, 한국과 일본의 대학입시제도에 관한 비교 연구,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손지은, 대학수학능력시험의 문화적 내용 분석,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성건, 대학수학능력시험의 내용분석 및 활용방안, 한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화숙, 대학수학능력시험 결과 분석을 통한 지도법의 고찰, 울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영역

- 고은정, 대학수학능력시험 지리 문항 분석,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수경, 수학능력시험(영어) 6차 고등학교 영어과 교육과정의 상관성 분석, 동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창만,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수리·탐구(I) 영역에 관한 연구: '98학년도 문제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관리과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화수, 대학수학능력시험 수리·탐구(I) 영역과 수학 교과서와의 비교 분석 연구, 단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진아, 대학수학능력시험과 학교수업의 연관성에 대한 의식변화 조사: 수리·탐구(I) 영역에 대하여, 강릉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진경, 대학수학능력시험과 일반계 고등학교 수학 교과서와의 연계성 탐색, 영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방상욱, 대학수학능력시험 영어 읽기 문제의 담화구조 분석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백명호, 대학수학능력시험의 분석과 교수·학습 방법에 관한 연구, 공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서경률, 대학수학능력시험의 분석과 학습 대책에 관한 연구, 국민대학교 교육대학원(수학교육 전공) 석사학위논문.

연구물 목록

1999

연구물 목록

- 윤청희, 화학평형에 대한 고등학생들의 개념 연구: 수학능력시험 과목선택제 도입에 따른 고3학생을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인숙, 영어과 듣기평가 문항 분석과 개선 방향: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중심으로, 수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전선용, Sandhi-Variation 및 속도와 EFL듣기 능력과의 관계분석: 1994~199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듣기평가문항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경신, 대학수학능력시험 영어 듣기평가 문항분석과 청취력 향상 지도방안,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하유진, 수리·탐구(I) 영역의 행동영역별 출제 문항 분석과 학습 대책에 관한 연구: '97~'99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을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연구보고서 및 단행본

- 교육부, 2002학년도 대학입학제도 개선 안내 자료집, 교육부.
- 김선호, (국제경쟁력을 키우는) 대학입시제도와 대학교육, 장락.
- 남명호 외, 200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제2외국어 시험 시행 지침서 시안,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목은균, 2002학년도 대학 입시제도 변화에 따른 학부모 및 교육관계자 의식전환 방안 연구, 교육부.
- 박도순, 성태제, 남명호, 채선희, 원효현, 200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세부시행방안 연구, 교육부.
- 안희수, 성태제, 정병현, 최규홍, 조영달, 이길재, 이홍수, 200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출제 방법 개선 연구, 200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출제위원회.
- 이근님 외, 대학수학능력시험 제2외국어 영역 출제 지침 개발 연구: 독일어 I, 프랑스어 I, 에스파냐어 I, 중국어 I, 일본어 I, 러시아어,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정구향, 김수동, 양길석, 대학수학능력시험의 평가 연구,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고사기획부, 199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분석 자료,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0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제2외국어 시험 시행 지침서 시안,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00

연구물 목록

학술논문

▷ 총론

- 강현석, 2002학년도 대학입학전형제도의 분석, *교육학논총*, 21(1), pp.367-405, 대경교육학회.
- 강현석, 백정하, 대학입학전형제도의 이해와 비교 분석, *고등교육연구*, 11(1), pp.197-233, 한국고등교육학회.
- 교육부 대학학사제도과 편, 2002학년도 대학입학제도의 성공적 정착, *교육마당* 21, 226, 교육부.
- 김명화, 대학수학능력시험의 문제은행 활용 방안, *교육문제연구*, 13, pp.89-101, 고려대학교 교육문제연구소.
- 김성훈, 대학수학능력시험 변화의 당위성에 대한 논의: 능력 측정의 타당성에 한계 있다, *새교육*, 549, 한국교육신문사.
- 김창원, 대학수학능력시험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읽기 영역을 중심으로, 10(1), *국어교육학연구*, 10, pp.141-167, 국어교육학회.
- 김현철, 순환동등화에 의한 2000학년도 대입수능시험 선택과목 점수 동등화 결과의 비교, *교육평가연구*, 13(2), pp.153-168, 한국교육평가학회.
- 박성현, 김춘원, 박준오, 대학입시에서의 선택과목 점수 표준화에 관한 연구, *품질경영학회지*, 28(3), pp.124-132, 한국품질경영학회.
- 성태제, 홍후조, 교육과정과 교육평가 및 대학 입학 시험의 변화, *안암교육학연구*, 6(2), pp.59-75, 안암교육학연구.

▷ 영역

- 손장진, 김병협, 바람직한 수능영어 독해지도 방안, *현대영미어문학*, 18(1), pp.91-113, 현대영미어문학회.
- 신황호,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의 직업탐구영역설정에 관한 연구, *상업교육연구*, 1, pp.67-93, 한국상업교육학회.
- 안희수, 대학수학능력시험과 과학탐구(지구과학문항)의 출제 방안, *지구과학 교육심포지엄 및 춘계학술발표회*, pp.19-28, 한국지구과학회.

▷ 기타

- 백호유, 이정미, 대학입시 자료분석에 필요한 통계적 방법: 1999학년도 원광대학교 입시자료를 중심으로, *기초과학연구지*, 18(1), pp.119-126, 원광대학교 기초자연과학연구소.

연구물 목록

2000 연구물 목록

학위논문

▷ 총론

- 김지현, 대학수학능력시험 차등배점과 문항난이도모수와의 관계 분석,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성현정, 교차타당화에 의한 동등화 방법들의 안정성 비교: 2000학년도 대학입학수학능력시험 선택과목 점수 자료를 사용하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미숙, 2002년 시행 예정 대학입학전형제도가 고등학교 교육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인식 조사,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법진, 고교유형 및 전형유형에 따른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과 대학학업성취도와의 관계, 경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영역

- 고은정, 대학수학능력시험 지리 문항 분석,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구영택, 영어 독해력 향상을 위한 방안: 200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독해영역 중심으로, 경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성훈, 영어과 교육과정과 대학 수학능력시험의 일관성과 적절성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주성, 대학수학능력시험의 과학탐구영역 문항 분석,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안경희, 영어 독해력 향상을 위한 지도 방안에 대한 연구, 창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윤순석, 수능 독해문항 분석 및 효과적인 교수·학습 방법 연구, 순천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윤승필, 대학수학능력시험 영어독해 문항분석, 경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준호,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위한 L'Hospital 정리의 적용에 관한 연구, 대구가톨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재훈, 대학수학능력시험의 대수문제에 대한 분석과 지도방법 연구: 수리·탐구(1) 영역, 동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종욱, 영어과 교육과정과 대학수학능력시험 외국어(영어) 영역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한길중, 고교수학 성적과 수능시험(수리연구 I) 성적과의 상관관계 연구: 일반계 고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경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기타

- 김지영, 특수교육대상자 특별전형 실시 대학의 입시 제도 분석, 가톨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병천, 과년도 대입시험 문제를 활용한 보충학습이 선수학습 결여 해소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아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연구보고서 및 단행본

- 김주훈, 원효헌, 김명화, 200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결과 분석,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정구향, 정영국, 김명화, 언어, 외국어 영역 문제은행 구축 연구,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정구형, 정영국, 김명화, 김종철, 이성영, 김창원, 최인철, 홍민표, 이회주, 이재희, 언어, 외국어 영역 문항 발전 방향 탐색,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01

연구물 목록

학술논문

▷ 총론

- 강상진, 대학입학전형 요소의 준거관련 타당도 추정 방법 비교 분석, 교육평가연구, 14(1), pp.171-197, 한국교육평가학회.
- 김재춘, 대학수학능력시험의 문제와 전망, 한국교육논단, 1(1), pp.1-10, 한국교육포럼(아시아태평양교육학회).
- 김재춘, 대학수학능력시험 “실업계열 신설 방안”에 대한 토론, 한국교육논단, 1(1), pp.54-56, 한국교육포럼(아시아태평양교육학회).
- 김현철, 2000학년도 대입수능시험 선택과목 점수에 대한 2단계 선형동등화의 빈도추정 동등화의 결과 비교, 교육학연구, 39(2), pp.191-214, 한국교육학회.
- 박정수, 황현식, 김태기, 입학 성적과 대학 성적 간의 연관성 분석, 학생생활연구, 32, pp.25-35, 전남대학교학생생활연구소.
- 백순근,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장기 발전 방안, 교육개발, 125, pp.20-25, 충북대학교교육개발연구소.
- 백순근, 한국의 대학수학능력시험과 일본의 대학입시센터시험에 대한 비교 연구, 아시아교육연구, 2(1), pp.55-69, 서울대학교 교육연구소.

연구물 목록

2001 > 연구물 목록

- 오성삼, 특별전형 제도에 의한 대학 입학자들의 입학 후 학업성취 분석, 한국평가학회지, 1(1), pp.82-105, 한국평가학회.
- 이덕봉, 수능 평가 문항의 출제 기준 및 분석, 일본학보, 46(1), pp.89-106, 한국일본학회.
- 이상혁, 대학수학능력시험과 실업계고등학교, 한국교육논단, 1(1), pp.11-27, 한국교육포럼(아시아태평양교육학회).
- 이용길, 대학입학전형제도의 전개와 평가, 한국교육사학, 23(2), pp.115-146, 한국교육사학회.
- 이용현, 부총리가 사과하는 수능시험, 열린전북, 27, pp.153-158, 열린전북.
- 이종승, 충남대학교 신입생의 입학 성적과 대학 성적 간의 관계 분석, 학생생활연구, 28, 충남대학교학생생활연구소.
- 이혁규,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출제 문화에 대한 연구, 교육인류학연구, 4(3), pp.290-323, 한국교육인류학회.
- 임충기, 입학 성적과 대학 평점 및 성격검사 점수의 연관성 분석, 학생생활연구, 19, 서원대학교학생생활연구소.

▷ 영역

- 김미자, 대학수학능력시험 외국어(영어) 영역과 고등학교 공통영어 교과서의 문항유형 비교, 영어교육, 56(4), pp.349-371, 한국영어교육학회.
- 김지인, 2000학년도 대학입학수학능력시험 외국어영역의 검사특징과 문항특성 분석, Foreign languages education, 8(2), pp.1-22, 한국외국어교육학회.
- 문학과교육연구회 편집부 편, 200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언어영역 문학 지문 및 문항 해설, 문학과교육, 18, pp.30-92, 문학과교육연구회.
- 서용중, 듣기·말하기의 문항 분석과 3단계 교수·학습을 통한 문제해결능력 신장: 대학수학능력시험 외국어(영어) 영역을 중심으로, 교육제주, 110, 제주도 교육청.
- 이경한, 대학수학능력시험 사회탐구 영역의 지리 문제 설계 및 정교화 과정, 지리·환경교육, 9(2), pp.63-72, 한국지리·환경교육학회.
- 이봉우, 이성묵, 물리평가 인증제 연구: 대학수학능력시험 물리 문항 분석, 과학교육연구논총, 26(1), pp.53-77, 서울대학교 교육종합연구원 과학교육연구소.

- 이양락,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지구과학영역 문항 및 응시자 반응 분석, 한국지구과학회지, 22(6), pp.469-479, 한국지구과학회.
- 이의영, 김현철, 2000학년도 경제과목 대입수능시험의 검사 및 문항특성 분석, 경제교육연구, 7(1), pp.265-283, 한국경제교육학회.
- 이장무, 김태유, 허은녕, 자연계열 수능지원자의 지속적인 감소추세, 그 원인과 해결책, 과학기술정책, 11(6), pp.2-12, 과학기술정책관리연구소.
- 이재희, 대학수학능력시험 영어 영역의 총체적 개선 방안, 영어교육, 56(2), pp.333-364, 한국영어교육학회.
- 정치봉, 정완수, 대학 수학 교육 연구: 필요성, 방법 그리고 과제, 수학교육논문집, 11, pp.321-338, 한국수학교육학회.
- 차경환, 박길수, 대학 입학 영어 시험의 역사적 변천 과정, 영어교육연구, 13(1), pp.227-255, 영남영어교육학회.

▷ 기타

- 강병운, 대학입시제도 변화에 관한 연구, 한국교육연구, 7(2), pp.19-43, 한국교육연구소.
- 박도순, 세계화 과정과 대학 입시제도의 방향, 교회와 신학, 47, pp.38-44, 장로회신대학교.
- 윤명희, 안도희, 새입시 제도하에서의 지방사립대학 입시방안 연구, 교육평가연구, 14(1), pp.151-170, 한국교육평가학회.
- 조남근, 양돈규, 대입 재수 경험 및 대학 입학 만족도에 따른 낙관성, 행복도 및 스트레스 수준의 차이, 세명논총, 9, pp.85-102, 세명대학교.
- 조동섭, 김광수, 2002학년도 대학입시제도 개선 연구, 교육연구, 18, pp.111-139, 춘천교육대학교 초등교육연구소.

학위논문

▷ 영역

- 권순영, 대학수학능력시험 외국어 영역 독해문제 분석과 독해력 지도방안 연구, 아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경범,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출제경향과 인식도 분석을 통한 국사 교수-학습 방법 연구,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미자, 대학수학능력시험 외국어(영어)영역과 고등학교 공통영어 교과서의 문항유형 비교: 이해기능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병석, 200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수리·탐구 영역(I)의 비교 분석, 공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연구물 목록

2001

연구물 목록

- 김병협, 대학수학능력시험 외국어(영어) 영역의 유형별 독해 문항 분석에 관한 연구, 우석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은미, 대학수학능력시험 분석을 통한 영어 독해 과정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정곤, 고등학교 영어교과서와 대학수학능력시험 외국어(영어) 영역에 나타난 중의적 표현,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나승렬, 대학수학능력시험의 국사과 탐구 평가의 방향과 국사 관련 문항 분석, 전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남성준, 고등학교 3학년 국어과 교수-학습의 방향전환에 대한 연구: 수학능력시험 언어영역 출제 경향을 중심으로, 가톨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기완, 소설 평가 문항의 적절성 연구: 수학능력시험 문제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천익, 독해력문항 분석을 통한 대학수학능력시험외국어(영어)영역 개선 방안, 상지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심교택, 대학수학능력시험 수리·탐구 영역(1)이 수학교육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2001학년도 수능시험 중심으로, 상지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안창성,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영어 학습 태도에 미치는 영향, 서강대학교 교육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오경미, 수학능력시험의 영어과 시험이 고등학교 영어과 교수-학습 과정에 미치는 영향(washback 연구), Teachers College, Columbia University 박사학위논문.
- 이미영, 제6차 고등학교 영어 교육과정과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상관성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은경, 대학수학능력시험 외국어(영어) 읽기 지도 방안, 홍익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호재, 대학수학능력시험 외국어(영어)영역 듣기평가의 의미와 영어교육에 대한 영향 분석,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 미, 영어 청취력 향상을 위한 지도 방안 연구, 성균관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정환, 독해력 향상을 위한 독해 전략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진경, 스키마 이론에 기반한 수능 영어 독해 문항 분석과 지도에 관한



- 연구, 인하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추미자, 200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일본어과 문제 분석,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한도형, 영어 독해 문항분석 및 지도방법: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중심으로, 안동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황기권, 고등학교 국어과 '읽기'교육에 대한 연구: 대학수학능력시험과 관련하여, 강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연구보고서 및 단행본**
- 남명호, 원효현, 양길석, 조지민, 시민희, 이정은, 200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분석 연구,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남명호, 200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출제 시행 개선 연구 자료집,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대학수학능력시험 2005학년도 개편연구위원회 편, 대학수학능력시험 2005학년도 개편시안, 대학수학능력시험 2005학년도 개편연구위원회
 - 박도순, 김재춘, 남명호, 백순근, 성태제, 양길석, 이원희, 홍후조, 200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체제 연구, 200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체제 연구위원회.
 - 이근남, 김영준, 양승관, 김영춘, 제2외국어 영역 문제은행 구축을 위한 문항 개발,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대학수학능력시험 Q&A,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MBC 프로덕션, PD수첩: 수능쇼크 그리고 이해찬1세대 [비디오 테이프], MBC 프로덕션.

2002

연구물 목록

학술논문

▷ 총론

- 강현석, 2002 대학입학제도에 가정된 우수 교사의 개념과 역할에 대한 교육적 검토, 한국교원교육연구, 19(2), pp.5-29, 한국교원교육학회.
- 교육인적자원부 학술학사지원과 편, 200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개편 방안, 교육마당21, 240, 교육인적자원부.
- 남보우, 수능시험 집단간 실력차이 보정방법에 관한 연구, 춘계 공동학술대회(대한산업공학회/한국경영과학회), pp.1085-1092, 한국경영과학회.
- 남보우, 대입수능 동등화 표준점수 산출 보정: 2005 사례연구, 한국경영과학회 학술대회논문집, pp.85-89, 한국경영과학회.

연구물 목록

2002 > 연구물 목록

- 남보우, 2005학년도 대입 전형의 개관: 2005학년도 대학입학전형제도의 분석, 교육진흥, 15(1), pp.54-64, 중앙교육진흥연구소.
- 문희경, 진학유형에 따라 교과점수와 비교과점수가 대입수능점수에 미치는 영향, 교육연구, 15, pp.229-238, 목포대학교 교육연구소.
- 박 정, 문항반응이론과 선형방법에 의한 대학수학능력시험 선택과목 조정점수 비교, 교육학연구, 40(5), pp.161-180, 한국교육학회.
- 이종찬, 수능 시험 옳은가, 나라사랑, 103, pp.175-179, 외솔회.
-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편, 제11회 대학 교육 정책 포럼: 2005학년도 대학입학전형 계획과 향후 방향, 대학교육, 120, pp.136-139, 한국대학교육협의회.

▷ 영역

- 강홍립, 한·일 간의 대입 수능 영어 비교 연구, 아세아문화연구, 6, pp.141-163, 한국경원대학교 아시아문화연구소.
- 강홍립, 극동 아시아 3개국 대입 수능 영어 비교 연구, 영어교육연구, 24, pp.199-220, 한국영어교육연구학회.
- 김덕자, 과정과 기능면에서 본 대학수학능력시험 외국어, 논문집, 26(1), pp.17-36, 한성대학교.
- 김왕규, 특집: 제22회 한국한문교육학회 전국학술대회-한문과 평가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200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과 '한문'영역 평가 방향, 한문교육연구, 19, pp.129-146, 한국한문교육학회.
- 김왕규, 한문과 평가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200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과 한문 영역 평가 방향, 한문교육연구, 19, pp.129-146, 한문교육학회.
- 김진구, 농업계 고교생의 대학 수학 능력 향상을 위한 제7차 교육과정 편성·운영, 한국농업교육학회지, 34(4), pp.25-41, 한국농업교육학회.
- 윤덕중, 대학수학능력시험과 고교 제2외국어 교육, 인문논총, 15, pp.255-273, 경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 이광호,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의 직업탐구영역 신설: 추진과정과 향후과제-, 상업교육연구, 5, pp.1-24, 한국상업교육학회
- 이병욱,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의 직업탐구영역 신설에 따른 문제점 및 해결 방안 연구, 대한공업교육학회지, 27(2), pp.35-52, 대한공업교육학회.

- 이양락, 대학수학능력시험 '과학 탐구'의 응시자 수와 평균 점수 변화 및 문항에 대한 학생 반응, 한국과학교육학회지, 22(2), pp.345-356, 한국과학교육학회.
- 이윤찬, 제22회 한국한문교육학회 전국학술대회-한문과 평가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한문과 수능평가 기준의 방향 모색, 한문교육연구, 19, pp.147-177, 한국한문교육학회.
- 최경호, 대입수학능력시험 확률통계 기출문제 분석, 산경논총, 21(1), pp.377-382, 전주대학교 산업경영연구소.
- 홍미영, 정경문, 이범홍, 이양락, 대학수학능력시험 화학Ⅱ 문항에 대한 학생들의 응답 분석, 한국과학교육학회지, 22(1), pp.204-213, 한국과학교육학회.
- 홍미영, 정경문, 이범홍, 이양락, 대학수학능력시험 공통과학 중 화학 영역의 문항 및 응시자 응답 분석, 한국과학교육학회지, 22(2), pp.378-386, 한국과학교육학회.
- 황덕성, Wag the Dog: 대학수학능력시험의 긍정적 효과를 위한 제언-, 영미어문학연구, 18(1), pp.157-177, 영미어문학회.

학위논문

▷ 총론

- 김문겸, 대학성적과 수능성적간의 상관성,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남혜영, 우리나라 대학입시제도 변천 과정에 나타난 문제점 분석 연구, 건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영걸, 대학입시제도가 고교 교육에 미치는 영향, 동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영역

- 고임석, 대학수학능력시험 영어독해 문항 분석: 문제점과 개선 방향을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권남훈, 대학수학능력시험 영어 듣기문항 유형에 따른 청취력 향상 방안, 충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옥남, 대학수학능력시험 사회탐구 공통문항의 난이도 상관 변인과 예측 모형,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용완, 제6차 중등학교 교육과정(영어과)이 대학수학능력시험(외국어 영역)에 미치는 영향, 동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우용, 고등학교 영어 독해력 향상에 관한 연구: 수능시험 독해문제를 중심으로, 울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연구물 목록

2002 > 연구물 목록

- 김정화, 7차 교육과정과 대학수학능력시험에 대한 연구: 수리·탐구(I) 영역을 중심으로, 서울시립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종성, 수학능력시험 준비를 위한 읽기 능력 향상 방안 연구, 한동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현주, 대학수학능력시험 영어 독해문제 분석, 부산외국어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노문숙,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수리탐구 I 영역 시험 문항 분석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상규, 대학수학능력시험 언어영역의 문항 분석 연구: 최근 5년 간의 시험 자료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송유홍, 대학수학능력시험 외국어(영어) 영역 독해문항 분석을 통한 독서 지도방안에 관한 연구, 창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신춘만, 고등학생의 전략사용이 모의수능 영어시험에 미치는 영향, 군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심윤희, 대학수학능력시험 언어 영역 듣기 평가 연구, 전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염정순, 대학수학능력시험 국사과(사회탐구영역) 문항 분석,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윤기연, 대학수학능력시험 외국어 영역 청취 문항 분석, 한성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준용, 대학수학능력시험 외국어(영어)영역 독해 문항 분석을 통한 영어 읽기 과정 연구, 중앙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진희, 일본어 수학능력시험에 대한 문항 분석연구, 중앙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화정, 대학수학능력시험 언어영역 평가문항의 난이도 예측 연구,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전경희, 동등화를 이용한 2000~200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외국어영역의 검사특성과 피험자능력 비교분석,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전체인, 탐구형 지리 평가 문항에서 활용되는 자료의 특성에 관한 연구: 대학수학능력시험 한국지리 문항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새미, 대학수학능력시험 지리문항 분석: 선택과목 세계지리를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영서, 국어교과서 '평가 중점'과 대학수학능력시험 '언어 영역' 문제의 상관성 연구, 여수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옥형, 대학수학능력시험 외국어 영역과 독해 교과서 분석을 통한 영어 독해력 향상 방안, 공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좌혜정, 200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언어, 수리영역 결과타당도 분석과 2003학년도 출제 방향,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재원, 대학수학능력시험 언어 영역 문항 분석 연구,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하지선, 고등학교 국어과 교육과정과 대학수학능력시험 언어 영역의 상관성 연구, 인하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허준득, 수능 영어 듣기 문항 연구: 의사소통기능과 언어처리과정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연구보고서 및 단행본

- 김애란, (국제경쟁력을 키우는)대학입시제도와 대학교육 [e-book], 장락.
- 김왕규 외, 200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한문 영역 출제 지침 개발을 위한 세미나,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김종철, 이재학, 전병만, 김진영, 지찬수, 대학수학능력시험 문항의 질 개선을 위한 주요국 대학 입학 시험 문제 비교 세미나,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남명호 외, 200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점수체제 세미나,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남명호, 최석진, 조지민, 김재철, 반재천, 송현정, 조용기, 신성균, 박문환, 김영인, 이양락, 이창훈, 진경애, 장경숙, 김영준, 200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분석 연구,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남명호, 최석진, 김영준, 조지민, 김재철, 반재천, 신성균, 송현정, 이양락, 진경애, 200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영향 연구,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대학수학능력시험본부, 200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모의평가 결과 분석,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성태제, 한국교육평론 2001: 대학입시제도와 대학수학능력시험의 난이도 조정, 한국교육개발원.
- 이범홍, (200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 관리 체제 연구, 교육인적자원부.
- 이양락, 200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출제 시행 개선 연구 자료집,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물 목록

2002 > 연구물 목록

- 이양락, 남명호, 김영준, 진경애, 조지민, 김재철, 전효선, 조용기, 송현정, 문영진, 박선화, 박문환, 김영인, 진재관, 신일용, 이창훈, 이의갑, 장경숙, 김영춘, 200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출제·시행 개선 연구,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이용순, 2005년 수능 신설 직업탐구 영역 관련 교과 성취기준 및 평가기준 개발 방안 연구,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조금주, 대입수능 이후 고등학교 교육과정 운영 방안 연구, 교육인적자원부.

2003 > 연구물 목록

학술논문

▷ 총론

- 김안나, 대학입학 수능 성적 분포의 변화추이를 통해 본 고등교육의 서열화 구조, 교육사회학연구, 13(3), pp.89-108, 한국교육사회학회.
- 김현철, 모의실험에 의한 대학수학능력시험 선택과목 점수 동등화 방법들의 적합성 비교(I), 교육학연구, 41(1), pp.363-384, 한국교육학회.
- 김현철, 모의실험에 의한 대학입학수학능력시험 선택과목 점수 동등화 방법들의 적합성 비교(II), 교육학연구, 41(2), pp.115-133, 한국교육학회.
- 남보우, 2005학년도 대학입학전형의 개요 및 의미, 대학교육, 125, pp.68-74, 한국대학교육협의회.
- 백순근, 대학수학능력시험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 사대논총, 67, pp.141-155,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 손지희, “다양화, 특성화, 자율화”로 포장된 입시제도와 7차 선택형 수능에 대한 고찰, 교육비평, 14, pp.113-136, 교육비평사.
- 손충기, 한국의 대학입학전형제도의 변천 과정 및 발전 방향 탐색, 교육연구, 22, 원광대학교 교육문제연구소.
- 이준형, 대학입학전형 정책: 수시 입학 전형 도입에 대한 평가, 한국사회와행정연구, 14(1), pp.345-368, 서울행정학회.
- 이현청, 2005학년도 대학입학전형의 주요 특징과 과제, 대학교육, 126, pp.58-72, 한국대학교육협의회.



▷ 영역

- 김라연, 수학능력시험 대비 “언어 영역” 참고서 분석 연구, 수련어문논집, 28, pp.33-54, 수련어문학회.
- 남현우, 2005수능의 탐구영역 내 과목간 점수조정에서 합집단연계화방법의 적용가능성, 교육평가연구, 16(1), pp.163-182, 한국교육평가학회.
- 신인숙, 안병규, 화용적 능력에 입각한 수능 영어 말하기 문항 분석과 개선 방안, Foreign languages education, 10(3), pp.219-235, 한국외국어교육학회.
- 신일용, 이양락, 이창훈, 2005 수능의 과학탐구 영역의 출제 방향 탐색, 제43차 동계학술대회 및 정기총회, pp.112-113, 한국과학교육학회.
- 이광호,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직업교육훈련 정책방향: 대학수학능력시험 직업탐구 영역 문항 개발의 방향, 공동학술대회, pp.151-157, 대한공업교육학회.
- 이근남, 대학수학능력시험 제2외국어 영역의 발전 방안 연구, 교원교육, 18, pp.42-74, 한국교원대학교 교육연구원.
- 이용순, 김수원, 이병욱, 수능 직업탐구영역 관련 과목 성취기준, 평가기준 및 평가도구 모형 개발 연구, 직업 교육 연구, 22(3), pp.43-71, 한국직업교육학회.
- 이응백, “2003학년도 대입 수능”의 한자 표기에 대하여, 한글한자문화, 44, pp.38-41, 전국한자교육추진총연합회.
- 이종승, 김성훈, 김재철, 손현정, 박문환, 장경숙, 대학수학능력시험 문항난이도 추정모형 개발: 언어 영역, 수리 영역, 영어 영역을 중심으로, 교육평가연구, 16(2), pp.1-24, 한국교육평가학회.
- 이종연, 학교성적, 모의평가성적, 대학수학능력시험성적의 분석과 그 상관관계에 대한 고찰: 일반계고등학교 3학년 대상, 교육이론과 실천, 13(2), pp.57-72, 경남대학교 교육문제연구소.
- 장경윤, 제7차 고등학교 수학과 교육과정 적용의 쟁점과 개선 방향: 2005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제도와 관련하여, 학교수학, 5(1), pp.27-42, 대한수학교육학회.
- 전경희, 성태제, 동등화를 이용한 대학수학능력시험 외국어 영역의 검사특성과 피험자 능력의 비교, 교육평가연구, 16(1), pp.87-104, 한국교육평가학회.
- 좌혜정, 성태제, 200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언어, 수리영역 결과타당도 분석과 2003학년도 출제 방향, 교육학연구, 41(1), pp.329-361, 한국교육학회.

연구물 목록

2003 > 연구물 목록

▷ 기타

- 남보우, 2005학년도 수학능력시험 체제를 반영한 대입전형요소 활용 전략, 한국경영과학회 학술대회논문집, 2, pp.205-208, 한국경영과학회.
- 조금주, 이인규, 대입수능 이후 고등학교 교육과정 운영 개선 방안, 교육과정연구, 21(3), pp.385-408, 한국교육과정학회.
- 최종근, 유영제, 대학입시와 과학교육, NICE, 21(2), pp.220-227, 한국화학공학회.
- 황매향, 김계현, 대학입시 의사결정 과정에 나타나는 타협유형, 상담학연구, 4(1), pp.19-36, 한국상담학회.

학위논문

▷ 총론

- 김도향, 제7차 교육과정의 특징과 새로운 교육과정의 적용에 의한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연구, 중앙대학교 교육대학원 (수학교육) 석사학위논문.
- 김옥남, 대학수학능력시험 사회탐구 공통 문항의 난이도 상관 변인과 예측 모형,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용백, 고등학교 과정에서의 단계별 영어 독해 지도, 청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용완, 제(6)차 중등학교 교육과정(영어과)이 대학수학능력시험(외국어 영역)에 미치는 영향, 동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유수, 대학수학능력시험과 그래프 능력 및 논리적 사고력의 관계, 경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창화, 대학수학능력시험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정순,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범하기 쉬운 오류에 관한 연구, 경성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석금중, 고등학교 영어 내신성적과 대학수학능력시험 영어 점수와의 상관관계, 숭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상우, 효과적인 고등학생 어휘지도를 위한 수능 기출 어휘분석 및 어휘학습/교수전략에 관한 연구, 부경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준용, 대학수학능력시험 외국어(영어) 영역 독해 문항 분석을 통한 영어 읽기 과정 연구, 중앙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장유미, 제 7차 교육과정에 의한 듣기·쓰기 영역의 평가에 관한

연구: 최근 3년간 대수능을 중심으로, 수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지선미, 대입수학능력시험과목 개편이 상업계 고등학생의 진로선택 및 학습에 미친 영향, 인천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한지혜, 대학수학능력시험 언어 영역 쓰기 문항의 타당도 분석, 부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황성효, 학교 성적, 모의평가 성적,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과의 상관관계고찰, 경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수학교육) 석사학위논문.

▷ 영역

- 김미례, 200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수리영역의 문항 분석, 건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재기, 제7차 교육과정에 의한 수능영어시험 독해 평가의 방향 및 문항 개발, 서울시립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정택, 효율적인 교교 영어 독해 지도 방안 연구: 대학수학능력시험 문항분석을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진수, 국가 교육과정 평가기준에 의한 대학수학능력시험 일반사회 영역 문항분석,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현희, 대학수학능력시험 외국어(영어) 독해문항 분석 및 지도방안, 계명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나은주, 대학수학능력시험 일본어과 문항 분석: 2001~2003년 '의사소통 기능' 및 '문화' 문항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난희,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대비한 영어듣기전략 활용 방안, 경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상훈, 대학수학능력시험 외국어(영어)영역 독해문항 분석 및 문항개발, 창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석중, 고등학교 영어 내신 성적과 대학수학능력시험 영어 점수와의 상관관계, 송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성윤미, 대학수학능력시험 외국어(영어)영역의 점수 요인분석과 그 시사점, 인하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손남희, 고등학생들의 효과적인 영어 독해력 향상 방안: 대학수학능력시험 외국어(영어) 영역 독해를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심지연, 대학수학능력시험 언어영역 분석연구: 어휘문항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연구물 목록

2003 > 연구물 목록

- 원정은, 대학수학능력시험 고전소설 문항 분석: 고등학교 국어(상) 교과서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남주, 대학수학능력시험 분석을 통한 영어독해력 향상방안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유미,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영어 독해문제 분석 및 개선방안, 아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정화, 대학수학능력시험 외국어(영어)영역 듣기 문항 분석 및 지도 방안, 계명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장성호, 대학수학능력시험의 탐구성에 관한 연구: 생물 문항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장수란, 대학수학능력시험 생물문항 분석 연구: 1994학년도-2002학년도, 건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완모, 대학수학능력시험 외국어(영어)영역의 독해문항 분석에 관한 연구,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연구보고서 및 단행본

- 교육인적자원부, (2005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대학수학능력시험 반영계획 주요사항, 교육인적자원부.
- 김영준, 김영춘, 이회갑, 최정원, 200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제2외국어 영역 문항 개발 연구,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김진구 외, 200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직업탐구영역 문항 개발 탐색을 위한 세미나,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정만진, 대학입시와 대구교육, 문예미학사.
- 남명호, 200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분석 연구,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남명호, 200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 원서 개발 연구,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남명호, 김영춘, 김진구, 김평국, 문영진, 박문환, 반재천, 손원숙, 송현정, 신일용, 이명준, 장경숙, 전효선, 조지민, 진재관, 200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출제·시행 관리 지침 개발,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남명호, 김진구, 이수정, 김보섭, 이광호, 안재만, 200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직업탐구 영역 문항 개발 연구,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송현정, 문영진, 조용기, 200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언어 영역 문항 개발 연구,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이명준, 진재관, 육근록, 김성준, 김영인, 200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사회탐구 영역 문항 개발 연구,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이범홍, 신일용, 이창훈, 이성진, 김규태, 200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과학탐구 영역 문항 개발 연구,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이범홍, 남명호, 이양락, 김경훈, 김경성, 김재춘, 정진수, 이원희, 200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관리 체제 연구,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이양락, 박선화, 박문환, 송갑석, 200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수리 영역 문항 개발 연구,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이양락, 조용기, 박선화, 이창훈, 이의갑, 김영준, 조지민, 반재천, 손원숙, 김영인, 200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분석 연구 자료집,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이양락, 조용기, 박선화, 이창훈, 이의갑, 김영준, 조지민, 반재천, 손원숙, 김영인, 200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출제·시행 체제 개선 연구,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이의갑, 장경숙, 이후고, 200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외국어(영어) 영역 문항 개발 연구,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이종승, 김성훈, 김재철, 송현정, 박문환, 장경숙, 문항 난이도 추정 모형 개발 연구: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언어, 수리, 외국어(영어) 영역을 중심으로,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충남대학교, 지역대학 입시제도와 진학지도 전략에 관한 세미나, 충남대학교 교육발전연구소.

2004

연구물 목록

학술논문

▷ 총론

- 김성천, 수능 시험에 대한 학원과 학교 경쟁력 비교 분석, 한국교육, 31(3), pp.127-156, 한국교육개발원.
- 박건호, 대학수학능력시험, 어떻게 바뀌는가?, 서울교육, 46(1), 서울특별시교육과학연구원.
- 이기중, 대학입학수학능력시험의 심리측정학적 조명, 교육논총, 23, pp.107-126, 국민대학교 교육연구소.
- 이장익, EBS 수능강의가 주는 시사점은 무엇인가, 사학, 108, pp.7-13, 대한사립중고등학교장회.
- 전우홍, 수능제도 개선을 통한 지역간 교육격차 해소방안 연구, 한국교육, 31(3), pp.157-184, 한국교육개발원.

연구물 목록

2004 > 연구물 목록

- 최병렬, 7차 교육과정과 대학입학전형의 다양성에 대한 분석, 교육연구논총, 25(1), pp.171-196, 홍익대학교 교육연구소.
- 한석수, 정부의 대학입학전형제도 개선 노력의 역할과 한계, 대학교육, 128, pp.80-85, 한국대학교육협의회.

▷ 영역

- 김진구, 이수정, 김보섭, 이광호, 안재만, 대학수학능력시험 직업탐구 영역의 평가 틀 개발에 관한 연구, 농업교육과 인적자원개발, 36(1), pp.69-87, 한국농업교육학회.
- 김진구, 이수정, 김보섭, 이광호, 안재만, 대학수학능력시험 직업탐구 영역의 평가를 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농업교육학회지, 36(1), pp.69-87, 한국농업교육학회.
- 남궁원, 대학수학능력시험 한문 영역 시험의 성격과 평가 방향, 한문교육연구, 22, pp.93-124, 한국한문교육학회.
- 박문환, 대학수학능력시험 난이도 관련 변인 탐색, 수학교육학연구, 14(1), pp.71-88, 대한수학교육학회.
- 박상규, 국어 시험의 현황과 개선 방안: 대학수학능력시험(언어영역)의 현황과 개선 방안, 국어교육학연구, 20, pp.85-124, 국어교육학회.
- 박종운, 산업인력 양성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실업교육방안: 수해양교육: 대학수학능력시험 직업탐구 영역의 전문교과 축제경향분석, 공동학술대회, pp.252-260, 대한공업교육학회.
- 박종운, 김진구,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직업탐구영역에 대한 수산·해운계열 전문교과 문항 분석, 수산해양교육연구, 16(1), pp.50-59, 한국수산해양교육학회.
- 서인원, 국사 교육 평가의 현황 분석: 대학수학능력시험의 고려시대 국사 문항을 중심으로, 동국사학, 40, pp.433-464, 동국사학회.
- 성윤미, 대학수학능력시험 외국어(영어)영역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영어어문교육, 9(2), pp.213-241, 한국영어어문교육학회.
- 송현정, 대학수학능력시험 언어 영역 난이도 관련 변인에 대한 연구, 국어교육, 113, pp.233-262, 한국어교육학회.
- 이강섭, 김종규, 대학수학능력시험의 확률영역에 관한 문항반응 분석, 수학교육논문집, 18(2), pp.239-250, 한국수학교육학회.
- 이광호, 김동원, 김상원, 박영수, 안창미, 이상배, 정성학, 조경희, 200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직업탐구영역의 채기준과 평가기준 개발 연구: 상업경제 과목을 중심으로, 상업교육연구,



- 8, pp.31-60, 한국상업교육학회.
- 이근남, 프랑스 문화 능력 평가 연구: 대학수학능력시험 문화 능력 평가 문항을 중심으로, 불어불문학연구, 60, pp.549-576, 한국 불어불문학회.
 - 이기중, 심리측정학적 관점에서 본 대학수학능력시험 외국어영역, 교육평가연구, 17(2), pp.165-181, 한국교육평가학회.
 - 이재학, 조승제, 박선화, 박혜숙, 우리나라와 주요국의 대학 입학 수학 시험 문제 비교 연구, 수학교육, 43(4), pp.349-379, 한국수학교육학회.
 - 이희국, 학회의 제언: 올바른 “이공계 꿈나무” 선발을 위한 대학입시 제도가 되어야, 공학교육, 11(4), pp.4-5, 한국공학교육학회.
 - 장경숙, 대학수학능력시험 외국어(영어) 영역 읽기 난이도 예측 모형 개발, 외국어교육, 11(1), pp.111-130, 한국외국어교육학회.
 - 전영승, 김동원, 김근욱, 박종근, 신재순, 이기형, 이승영, 최완순, 200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직업탐구영역의 성취기준과 평가기준 개발 연구: 회계 원리 과목을 중심으로, 상업교육연구, 8, pp.1-30, 한국상업교육학회.
 - 허 준, 윤석화, 대학수학능력시험 영어 듣기평가에 관하여: 영어 교사들과 대학생들의 설문조사를 토대로, Foreign languages education, 11(3), pp.185-207, 한국외국어교육학회.
 - 황홍익, 대학수학능력시험 직업탐구영역 정착방안에 관한 연구 : 상업계열을 중심으로, 상업교육연구, 8, pp.83-105, 한국상업교육학회.

▷ 기타

- 강준만, [한국 '대학입시 전쟁'의 역사] '정글의 법칙'은 한국인의 숙명인가?, 인물과 사상, 74, pp.149-202, 인물과사상사.
- 김완진, [광장] 대학입시와 대학의 자율권, 철학과 현실, 63, pp.117-123, 철학문화연구소.
- 김하석, 대입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AP제도의 도입과 대학입시, 공학교육, 11(4), pp.16-18, 한국공학교육학회.
- 지은림, 우리나라 대학입시 과열경쟁 현상에 대한 인식 조사, 교육평가연구, 17(2), pp.147-164, 한국교육평가학회.
- 허 형, 새 대학입시제도의 내용 및 문제점 분석, 사학, 110, pp.9-15, 대한사립중고등학교장회.
- 황형태, 이강섭, 이장택, 대학입시에서의 면접점수 표준화에 관한 연구, 수학교육, 43(3), pp.309-314, 한국수학교육학회.

연구물 목록

2004 연구물 목록

학위논문

▷ 총론

- 신윤선, 대학수학능력시험 문항분석 및 개선방안: 2001년~2004년 수학능력시험,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임은영, 대학수학능력시험 환경교과 관련 문항 분석 및 환경 교과의 선택이 학교별 모의고사 성적에 미치는 영향,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추재관, 인터넷 활용을 통한 독해력 향상 방안: 대학수학능력시험 중심으로, 경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홍성은, 대입 수학능력시험의 자격고사화와 수학교육의 전망, 서울시립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영역

- 공태원, 수학능력시험의 영어영역에 나타난 어휘 분석, 경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광영미, 대학수학능력시험 외국어영역 내용 타당도 분석,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미나, 영어 독해 문항 분석: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민우, 효과적인 국어교육을 위한 인터넷 수능방송의 활용 방안: EBS를 중심으로, 단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영아, 대학수학능력시험 지리교과 문항 분석: 1997~2003학년도 한국지리 문항을 중심으로,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진숙, 대학수학능력시험의 분석: 수리·탐구 영역 중심으로, 여수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태령, 대학수학능력시험 지리 문항의 타당성 분석: 한국지리 문항을 중심으로, 전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현주, 고등학교 영어독해력 향상 방안 연구: 대학수학능력시험 독해영역을 중심으로, 한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남인자, 대학수학능력시험 외국어(영어)영역 듣기평가 문항분석과 개선방향, 경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민정원, 고등학생을 위한 효과적인 독해지도 방안: 대학수학능력시험 외국어(영어) 독해문항을 중심으로, 상명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현지,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수리·탐구(1) 영역 시험문항 분석과 2005년도 출제 방향, 신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서원석, 대학수학능력 독해 시험의 문항 분류 및 효과적인 독해 지도 전략에 관한 연구, 충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손선형, 교과서와 대학수학능력시험 과학탐구영역 화학Ⅱ의 탐구상황 요소 분석: 7차 교육과정 화학Ⅱ 교과서와 1999년도~2004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안미정, 대학수학능력시험 러시아어 과목 문항 분석,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안영주, 언어지식과 독해요령이 수능 영어 독해력에 미치는 영향,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원정은, 대학수학능력시험 고전소설 문항 분석,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유은희, 대학수학능력시험의 과학탐구영역 중 화학Ⅱ 문항 분석 연구: 최근 5년간 시험 자료 중심,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경희, 차별기능문항군 추출 방법을 활용한 대학수학능력시험 수리 영역에서의 성차 탐색,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선교, 고등 학교 수학 교육의 변천 과정: 대학수학능력시험 시기의 입시 제도 중심으로, 안동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선영, 대학수학능력시험 외국어영역 듣기 문항의 발화속도에 관한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순이, 대학수학능력시험 영어 영역의 읽기 텍스트 유형 및 구조 분석, 숭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연화, 대학수학능력시험 언어 영역 분석 연구: '국어 지식' 부분을 중심으로, 건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창주, 대학수학능력평가지험 문제 유형에 따른 교실 내 수준별 수업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수학교육) 석사학위논문.
- 임백규, 대학수학능력시험 외국어(영어)영역 듣기 평가 문항 분석: 문항 난이도와 문항 변별도 및 오답 매력도를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장성호, 대학수학능력시험의 탐구성에 관한 연구: 생물 문항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대욱, 수학능력시험 외국어 영역 독해의 학습자 곤란도 요인 분석, 충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차자영, 대학수학능력시험 외국어(영어)영역의 독해문항 분석을 통한 효과적인 읽기 전략,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연구물 목록

2004 > 연구물 목록

연구보고서 및 단행본

- 한재숙, 사고 구술(think aloud)을 통한 대학수학능력시험 언어 영역 문제 풀이 과정 분석 연구,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현내은, 대학수학능력시험 외국어(영어)영역 독해 평가 문항 분석: 독해전략을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경훈, 200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Q&A 자료집,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김경훈, 조지민, 손원숙, 민병근, 박문환, 이봉주, 최인봉, 이현정, 200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 방안 연구,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김창원, 이성영, 대학수학능력시험 언어 영역 평가틀 개선을 위한 세미나,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남명호, 대학수학능력시험 출제 매뉴얼: 언어 영역,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남명호, 대학수학능력시험 출제 매뉴얼: 수리 영역,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남명호, 대학수학능력시험 출제 매뉴얼: 외국어(영어) 영역,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남명호, 대학수학능력시험 출제 매뉴얼: 사회탐구 영역,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남명호, 대학수학능력시험 출제 매뉴얼: 과학탐구 영역,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남명호, 대학수학능력시험 출제 매뉴얼: 직업탐구 영역,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남명호, 대학수학능력시험 출제 매뉴얼: 제2외국어/한문 영역,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문영진, 유영희, 박선화, 진경애, 장경숙, 김미경, 은지용, 오정준, 이창훈, 홍미영, 김진구, 이수정, 김영춘, 이후고, 김성준, 이진희, 박영경, 이용철, 김동영, 박주성, 황홍익, 조동현, 황해숙, 박정희, 200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출제 방안 연구,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이근님, 2005 대학수학능력 이렇게 달라집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이근님 외, 대학수학능력시험 언어영역 평가 틀 개선을 위한 세미나,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이종승, 홍후조, 200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및 내신제도의 개선 방안,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이종승, 박도순, 이종재, 남명호, 김홍원, 김정겸, 백순근, 대학수학능력시험 개선 방안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조용웅, 200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어떻게 준비할까요?,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차가원, 박건호, 김도중, 김규연, 200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관리 개선을 위한 세미나,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한국교육개발원, 200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및 내신제도의 개선 방안, 한국교육개발원.

2005

연구물 목록

학술논문

▷ 총론

- 박정정, 문항반응이론에 의한 2005 대학수학능력시험 영역별 선택과목 점수조정의 타당성 검증, 한국교육학연구, 43(2), pp.135-154, 한국교육학회.
- 이우정, 수능부정사건에 대한 단상, 열린전북, 1, pp.124-128, 열린전북.
- 전효관, [2005년을 말한다] 1년 뒤, 또다시 죽어갈 아이들에게: 수능부정 사건의 왜곡된 윤리를 묻는다, 당대비평, 29, pp.156-162, 생각의나무.
- 한건우, 공교육을 위한 EBS 수능강의 개선 방안, 교육정보미디어연구, 11(4), pp.23-33, 한국교육정보미디어학회.

▷ 영역

- 김원경, 심주석, 수학 내신성적에 비해 수능성적이 저조한 학생의 학습 특성에 관한 사례연구, 수학교육논문집, 19(1), pp.69-100, 한국수학교육학회.
- 김진구, 이종범, 대학수학능력시험 직업탐구 영역 신설 이후 농업계 고등학교 운영 실태 분석, 한국농업교육학회 논집, 37(4), pp.135-161, 한국농업교육학회.
- 노양재, 대학수학능력시험 직업탐구영역에 대비한 학교에서의 운영방안, 상업교육연구, 11, pp.83-109, 한국상업교육학회.
- 심지연, 대학 입시에서의 의미 교육의 평가 현황 : 대학수학능력시험 언어 영역을 대상으로, 한국어 의미학, 16, pp.125-142, 한국어 의미학회.

연구물 목록

2005 > 연구물 목록

- 이강섭, 200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수리영역 가형”에 대한 문항분석, 수학교육논문집, 19(1), pp.321-323, 한국수학교육학회.
- 이기중, 대학수학능력시험 외국어 영역 문항특성 분석, 교육논총, 24, pp.101-116, 국민대학교 교육연구소.
- 장명희, 나현주, 민경희, 이화영, 표점순, 하미옥, 2005 수능 직업탐구영역의 과목별 성취기준과 평가기준 개발: 식품과 영양 과목을 중심으로,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17(2), pp.197-219, 한국가정과교육학회.
- 황재순, 대학입시가 고등학교 고전문학 교육에 미치는 영향, 고전문학과 교육, 9, pp.61-74, 한국고전문학교육학회.
- 황형태, 수능 표준점수제의 문제점 분석 및 대안 개발, 춘계학술대회, pp.257-262, 한국통계학회.

▷ 기타

- 강일국, 특집: 대학입시에서 공공성과 자율성; 교육적 원칙에서 바라본 2008 대입제도의 특징, 교육비평, 19, pp.45-80, 교육비평사.
- 김기현, 한글+한자문화 칼럼: 영수국한(英數國漢)/ 국영수와 대학입시, 한글한자문화, 77, pp.46-49, 전국한자교육추진총연합회.
- 나장함, 구성주의적 관점에서의 교육텍스트 분석: 한국과 대만 대학입시 영어지문을 중심으로, 한국교육, 32(2), 한국교육 개발원.
- 안수연, 현장의 목소리: 대한민국 89년생, 대학입시는 “그까이꺼”가 아냐!, 기억과 전망, 12, pp.192-197,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 어운대, 권두연; 이제 한자교육을 다시 추진해야 한다; 대학입시 논술고사에서 국한문혼용 시행을..., 한글한자문화, 70, pp.12-14, 전국한자교육추진총연합회.
- 오경미, 차동춘, 나장함, 영어텍스트의 교육적 함의: 한국, 대만, 일본의 대학입시 영어지문을 중심으로, 교육과정연구, 23(4), pp.287-312, 한국교육과정학회.
- 이응백, 경험에서 생각하는 대학입시, 한글한자문화, 74, pp.28-30, 전국한자교육추진총연합회.
- 이현청, 대학자율과 대학입시의 방향, 한국교육법연구, 8(2), pp.147-181, 한국교육법학회.
- 정진곤, 미국대학의 학생선발방법과 한국입시제도에서의 시사점: Berkeley, Stanford와 Washington 대학을 중심으로, 교육평가연구, 18(2), pp.149-171, 한국교육평가학회.

- 차동춘, 나장함, 오경미, 대학입시 영어에 내재된 사회적 가치들: 한국과 일본 영어읽기 텍스트의 비교담론분석, 영어학연구, 19, pp.65-94, 한국영어학학회.

학위논문

▷ 총론

- 강정하, EBS 수능방송 시청이 사교육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진주 지역고등학생을 중심으로, 경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구자민, 대학수학능력시험 모의평가와 대학수학능력시험과의 상관관계 고찰: 2004학년도 자연계 수리영역을 중심으로, 경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선아, EBS 수능강의의 이용 실태와 만족도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숙희, 고등학생 e-Learning 수능강의 이용실태와 만족도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은정, 수준별 자기주도 학습을 위한 온라인 학습 사이트 비교 분석: 수능 강의 중심으로, 경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상길, EBS 수능 방송 · 인터넷 강의에 대한 이용자들의 인식 연구,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변정섭, 200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교수활동과 학습활동에 미치는 영향, 충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안현순, 고등학교에서 문제해결의 능력과 내신, 수능모의고사 성취도와 상관관계, 강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양경숙, 대학수학능력시험의 환경교육관련 문항 분석,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은정, 수능 문제 유형 분석을 통한 읽기 전략 적용에 관한 연구, 창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수영, 대학수학능력시험에 대한 인문계 고등학교 교사의 요구분석,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혁량, 수능관련 온라인 강의의 효용성에 대한 연구, 단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홍현화, 수험생들의 EBS 수능강의 시청동기와 충족도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신문방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황 충, 수학과와 고교 내신성적과 수능모의고사 성적의 상관성 연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영역

- 강유진, 대학수학능력시험 외국어(영어)영역의 독해문항 분석,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연구물 목록

2005

연구물 목록

- 고 용, 대학수학능력시험분석을 통한 영어독해력 향상방안 연구, 순천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오련, 수능시험 영어 듣기평가 분석 및 지도방안, 경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 문, 제7차 교육과정의 수능영어 듣기 평가 문항의 분석 연구,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미연, 7차 영어과 교육과정에 의거한 200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외국어영역 읽기 문항 분석, 홍익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성민, 하향식 읽기 과정에 기반한 수능 외국어(영어)영역 독해 문항 분석 및 전략, 아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수정, 200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예비평가의 제7차 중국어 교육과정과의 연계성 연구: 의사소통 기능과 문화 문항을 중심으로 비교 분석, 강릉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수현, 고등학교 러시아어 교과서 주제별 어휘분석: 대학수학능력시험 출제어휘와의 비교를 통해,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윤정, 대학수학능력시험 외국어(영어)영역 듣기 문항 분석 및 지도방안,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은주, 대학수학능력시험 고전문학 문항 분석 연구,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주현, 대학수학능력시험 영어독해영역 지도방안, 경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지선, 대학수학능력시험 언어영역의 행동영역에 관한 연구: 창의적 사고를 중심으로, 단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서원대, '대학수학능력시험'중 '수리탐구영역(I)'의 출제 문항 분류 및 분석: '1994~2004'학년도 출제 문항 중 수학 I 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서재영, 영어 독해 지도 방안: 대학수학능력시험의 분석을 통하여, 강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서진경, '확산적 사고로 문제 풀어보기'지도가 수능의 수리영역과 내신 성취도에 미치는 효과, 강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손재남, 제7차 교육과정에 따른 대학수학능력시험 출제 문항 분석: 수리 '가'형 중 선택과목 미분과 적분을 중심으로, 계명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심주석, 수학 내신성적에 비해 수능성적이 저조한 학생의 학습 특성에 관한 사례연구,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안이경, 대학수학능력시험 언어영역 고전문학 출제 작품 및 문항 연구: 문학 과목 교육과정과의 상관성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오미래, 영어독해지문 연구: 고등학교 영어 교과서와 대학수학능력 시험에서, 성균관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유연숙,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사회탐구영역 세계사 문항 분석,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윤경옥, 영어 듣기 평가 문항의 유형 분석과 효과적인 듣기 전략: 수능 영어 듣기평가 중심으로,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윤상운, 고교 영어 교과서의 어휘통제 및 수능시험과의 상관성 연구: 제 7차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윤새롬, 대학수학능력시험 영어독해 문항분석과 지도방안, 전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기봉, 대학수학능력시험 '언어'영역 출제 문항 분석 연구: 1994~2005학년도의 12개년 자료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미경, 고등학생 영어 독해 능력 향상을 위한 지도 방안: 대학수학능력시험 독해문항분석을 중심으로, 경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승철, 대학수학능력시험 언어 영역의 개선 방안, 동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재근, 대학수학능력시험 국어지식영역 분석 연구,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창우, 대학수학능력시험 언어영역 문항 분석 연구: 현대시 및 고전시를 중심으로, 전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장영수, 미래교육의 징후 수능방송: 수학을 중심으로, 금오공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전지영, 대학수학능력시험 외국어(영어)영역 듣기 문항 분석 및 효율적인 지도 방안 연구: 듣기전략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경아, 대입수학능력시험의 직업탐구영역이 상업교육 활성화에 미친 영향, 군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지현, 대학수학능력시험 외국어(영어)영역 듣기 문항 분석,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연구물 목록

2005 > 연구물 목록

- 하광아, 고등학교 화학 I 과 화학 II 에 대한 7차 교육과정과 2005 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연관성 연구, 창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하민정, 200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영어듣기문항분석을 통한 고등학생의 영어듣기 지도방안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하현숙, 5-7차 교육과정에 따른 대학수학능력시험 세계 지리문항 분석,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한수연, 대학수학능력시험 일본어과 문항분석 및 모의평가와의 비교분석: 2005학년도 문항을 중심으로, 동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한영현, 제7차 고등학교 국어과 교육과정과 대학수학능력시험 언어영역 비교 연구: 심화 선택 과목의 교육과정 내용과 언어 영역 평가 요소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홍익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허순옥, 3차원 평가틀에 의한 대학수학능력시험 화학 II 문항 분석, 경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허진형, 2001-2005학년도 독일어과 대학수학능력시험 문항분석을 통한 학습평가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현 빈, 어휘 평가 문항 분석 연구: 대학수학능력시험 어휘문항을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기타

- 한대호, 프랑스와 한국의 대학입학제도의 비교연구: 바칼로레아와 수학능력시험을 중심으로, 충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연구보고서 및 단행본

- 구논회, 대학입시제도 개선 방향 탐색: 학벌, 대학서열화가 엄존하는 현실적 제약조건하의 연구, 대한민국국회.
- 나장함, 구성주의적 관점에서의 교육 텍스트분: 한국과 대만의 대학입시 영어지문을 중심으로, 한국교육개발원.
- 홍후조, 한국교육평론 2004: 제7장 2008학년도 이후 대학입시전형 제도의 변화, 한국교육개발원.
- 김경훈 외, 수능 문제은행식 출제 · 관리체제 구축 방안 탐색: 세미나 자료집,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남명호, 200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준비하기,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남명호 외, 대학수학능력시험의 문제은행식 출제 · 관리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남명호 외, 대학수학능력시험 10년사 I,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남명호 외, 대학수학능력시험 10년사 II,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06

연구물 목록

학술논문

▷ 총론

- 도면희, 대학수학능력시험 출제와 내용선정의 문제점: 대학교수의 입장에서, 역사와 역사교육, 12, pp.113-135, 웅진사학회.
- 양길석, 200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점수체제(9등급제)에 대한 비판적 고찰, 한국교육학연구, 12(2), pp.141-164, 안암교육학회.
- 양길석, 대학수학능력시험의 문제은행 구축 및 활용, 교육방법연구, 18(2), pp.177-199, 한국교육방법학회.
- 이재각, 수학능력시험 출제와 내용선정의 문제점: 중등학교 교사의 입장에서, 역사와 역사교육, 12, pp.97-111, 웅진사학회.
- 임현정, 수능모의고사를 이용한 학업성취도의 종단적 분석 모형 탐색, 교육평가연구, 19(2), pp.281-300, 한국교육평가학회.

▷ 영역

- 김만수, 문학교육에서 대학수학능력시험과 수행평가의 기능, 한국근대문학연구, 7(2), pp.61-84, 한국근대문학회.
- 김영희, 시리즈 E: 수능 응시 영역에 따른 대학 교양 수학 성취도 분석, 수학교육논문집, 20(4), pp.523-535, 한국수학교육학회.
- 김종혜, 김용, 김자미, 이원규, 대학수학능력시험 직업탐구영역의 '컴퓨터 일반' 교과 문항 분석, 컴퓨터교육학회논문지, 9(6), pp.11-18, 한국컴퓨터교육학회.
- 박진형, 대학수학능력시험 프랑스어와 SAT II French 비교 분석, 한국프랑스어문교육학회 학술대회자료집, pp.38-66, 한국프랑스어문교육학회.
- 송 경, 대학수학능력시험 한문영역의 문항분석: 2006학년도 본수능 및 모의평가 출제 문항을 중심으로, 한문교육연구, 27, pp.293-334, 한국한문교육학회.
- 신동일, 김종국, 대학입시에 등장한 영어 대화의 특성 연구, 영어교육, 61(4), pp.277-296, 한국영어교육학회.

연구물 목록

2006 > 연구물 목록

- 유해미, 김재근, 대학수학능력시험과 임용고사 분석을 통해 나타난 생물Ⅱ 교과서의 문제점에 관한 연구, 한국생물교육학회지, 34(3), pp.307-320, 한국생물교육학회.
- 이근님, 대학수학능력시험 제2 외국어영역(프랑스어과) 평가, 한국프랑스어문교육학회 학술대회자료집, pp.13-37, 한국프랑스어문교육학회.
- 이승철, 대학수학능력시험 언어 영역의 개선 방안: 시험의 성격과 이원목적분류표를 중심으로, 동국어문학, 17-18, pp.117-155, 동국어문학회.
- 장한엽, 대학수학능력시험 프랑스어 문화 문제 분석과 개선 방안, 프랑스어문교육, 23, pp. 151-169, 한국프랑스어문교육학회.
- 정향진, 2005 수능 직업탐구영역의 과목별 성취기준과 평가기준 개발 연구: 디자인 일반, 커뮤니케이션 디자인학연구, 21, pp.119-136, 커뮤니케이션디자인학회.

▷ 기타

- 류정순, 소년소녀가장의 대학입시, 기념논문집, 1, pp.349-350, 한국빈곤문제연구소.
- 황갑진, 교육현상에 대한 고등학생들의 인식과 가정환경의 영향: 대학서열과 입시교육의 문제를 중심으로, 사회과교육연구, 13(3), pp.69-92, 한국사회교육학회.

학위논문

▷ 영역

- 고유미, 한·미 간 수능 생물 문항 비교 및 응시자 응답 분석, 성균관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공미경, 외국의 영어평가도구 분석을 통한 대학수학능력시험 외국어(영어)영역 개선방안 연구, 상명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광수준, 2004-200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외국어(영어)영역 독해문항 분석을 통한 독해지도 방안 연구, 충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권 율,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수학10의 출제비중 분석, 안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민철, 대학수학능력시험 일본어과 문항 분석: 2001~2005학년도 의사소통기능 문항을 중심으로, 한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 석, 대학수학능력시험 외국어영역 독해문항 분석: 최근 3년간 출제경향을 중심으로, 부경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소희, 대학수학능력시험 언어영역의 문학 문항 분석 연구: 교육과정과의 상관성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유진, 대학수학능력시험 외국어 영역 어휘의 고등학교 영어 교과서 반영정도 분석,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준우, 대학수학능력시험 외국어 영역 영어 독해문항 유형분석,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지은, 제7차 교육과정에 의한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생물 문항에 대한 3차원 평가틀에 의한 분석, 경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진희, 한국 대학수학능력시험과 일본센터시험 외국어(영어)영역 내용타당도 비교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효진, 고등학교 국어과 문학 교육과정과 대학수학능력시험 언어영역의 상관성 연구: 현대시, 현대소설 문항을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문지현, 고등학교 과학교과서와 수학능력시험문항의 탐구영역 분석: 물리영역을 중심으로, 단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수만, Bloom의 인지적 영역에 기반한 대학수학능력시험 수리영역 문항 분석, 인제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정은, 고등학교 국어과 교육과정과 대학수학능력시험 언어영역의 상관성 연구 및 타당도 분석: 2005학년도 언어 영역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방은정, 미국 문화에 대한 태도와 이해도가 영어 능력 향상에 미치는 영향: 대학수학능력시험 외국어영역 점수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서성희, 대학수학능력시험 제2외국어 평가영역에서 일본어 문항분석 및 개선방안: 2005·2006년 문항을 중심으로,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성시언, 2005 대학수학능력시험 문항 분석에 관한 연구: 수리영역 중심으로, 아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송 경, 대학수학능력시험 한문영역의 문항분석: 2005, 2006학년도 대수능 및 모의평가 출제문항을 중심으로, 단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송승연, 'EBS 수능강의' 이용 실태 및 사교육 격감에 미친 영향: 수리영역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연구물 목록

2006 > 연구물 목록

- 송창근, 제7차 교육과정에 따른 대학수학능력시험 출제 문항 분석: 수리 '가'형 중 선택과목 확률과 통계를 중심으로, 계명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신경란, 일본어과 대학수학능력시험 문항 분석: 6, 7차 교육과정 비교를 중심으로, 순천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신규옥, 대학수학능력시험 일본어과 문항 분석: 2001~200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신미경, 제6차 및 제7차 교육과정의 대학수학능력시험 외국어(영어)영역 분석: 듣기 문항을 중심으로, 인천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신윤희, 대학수학능력시험 사회문화영역 문항의 타당도 분석, 경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심순원, EBS 수능방송 수강이 수리영역 학습에 미친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안길현, 대학수학능력시험 일본어과 문항분석, 건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윤다래, 수학능력시험 외국어영역과 고등학교 영어교과서의 어휘 비교분석, 홍익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윤오영, 대학수학능력시험 수리영역 성적 산출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연구,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동주, 대학수학능력시험 수리·탐구 영역 I의 문항 분석에 관한 연구, 서강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맑음, EBS 영어 수능 강의에 대한 학생과 교사의 인식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병훈, 대학수학능력시험 과학탐구영역 물리II의 탐구상황 요소 분석: 1999학년도-200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상학, 3차원 평가틀을 이용한 대학수학능력시험 물리과목 문항 분석,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정민, 영어회화 교과서와 대학수학능력시험 외국어(영어)영역 듣기문항 유형 비교,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지영, 제7차 교육과정에 따른 2005-200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외국어(영어)영역 듣기 문항 분석, 계명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진화, 2005·200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영어 듣기 문항 비교 분석, 중앙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수정, 수학능력시험 물리문항의 요구정신용량과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의 정신용량 비교 분석,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선숙, 대학수학능력시험 과학탐구영역 생물Ⅱ의 문항 분석, 인하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은아, EBS 수능특강 언어영역 동영상 강의의 교수발화 분석,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영호, 일본어과 수학능력시험 분석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운선, 수학능력시험 문학 평가문항 개선방안, 전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최주원, 대학수학능력시험 언어 영역 듣기 평가의 적합성 연구: 질문지와 선택지 제시 방식이 평가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현지은, 대학수학능력시험 유형별 분석을 통한 영어독해 지도 방안, 서강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황규선, 고등학교 중국어 교과서 주제별 어휘 분석: 대학수학능력시험 출제어휘와의 비교를 통해, 상명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연구보고서 및 단행본

- 대구광역시교육청, (2007) 수능 심층 분석 및 수업전략, 대구광역시 교육청.
- 민경찬, 고교-대학 협력 제고 방안 연구(안): 2008학년도 이후 대학입시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교육인적자원부.
- 서울특별시교육연구원, 2006학년도 대학입시 길잡이, 서울특별시 교육연구원.
- 이명준, 200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대비 학습 방법 안내,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이명준, 200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이렇게 준비하세요,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이명준, 200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Q&A 자료집,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이양락, 국가시험 출제 및 관리 매뉴얼,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전인식,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EBS 수능 강의의 2주년 성과와 발전 방안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연구물 목록

- 조용기 외, 수능 언어 영역 문항 수 축소 방안 공청회 자료집,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EBS, 2008학년도 이후 대학입시제도 개선방안 [비디오 녹화자료], EBS.

2007

연구물 목록

학술논문

▷ 총론

- 김병모, 교육 수요자-공급자 관점에서 EBS수능강의의 효과 인식에 대한 질적 연구, 한국교육학연구, 13(2), pp.229-255, 안암교육학회.
- 김지하, 정동욱, 내신성적과 수학능력시험성적이 대학진학 및 대학성취도 선행지표에 주는 영향력 비교 연구, 교육행정학연구, 25(4), pp.585-609, 한국교육행정학회.
- 김현철, 2008학년도 대입수능시험 점수체제의 변화에 따른 대입수능시험의 영향력 변화와 이의 활용방안 탐색, 교육학연구, 45(3), pp.1-24, 한국교육학회.
- 조재호, 지니계수로 추정한 대학입학수학능력시험 성적의 하향평준화 분석: “이해찬 1세대”를 중심으로, 경제연구, 25(2), pp.1-19, 한국경제통상학회.
- 채창균, EBS 수능강의 참여 실태와 효과 분석, 직업능력개발연구, 10(3), pp.25-44,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영역

- 김기석, 수능 언어영역의 시각자료 고찰, 국어교육, 124, pp.25-54, 한국어교육학회.
- 김예나, 국동식, 3차원 평가틀을 이용한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지구과학 II 문항 분석, 교육연구논총, 28(1), pp.103-117, 충북대학교 교육개발연구소.
- 이병선, 한글+한자 문화 칼럼: 수능시험에 한자를 비중있게 출제해야: 대학생들의 한자능력 향상을 위하여, 한글한자문화, 97, pp.54-57, 전국한자교육추진총연합회.
- 이상식, 대학수학능력시험을 통해서 본 제7차 교육과정과 국사 교육, 사총, 64, pp.71-102, 역사학연구회.
- 이상하, 이봉주, 손홍찬, 대학수학능력시험 수리 영역 문항 난이도 예측을 위한 회귀모형 추정, 수학교육, 46(4), pp.407-421, 한국수학교육학회.

- 이정민, 김해동, 영어 회화 교과서에 대한 학습자·교사 반응과 대학수학능력시험과의 연계성, 영어교육연구, 19(2), pp.277-305, 팬코리아영어교육학회.
- 이하자, 신경란, 일본어과 대학수학능력시험 문항 분석, 일본어교육, 41, pp.43-67, 한국일본어교육학회.
- 최상훈, 대학수학능력시험 역사영역 평가목표의 개선방안, 역사교육연구, 6, pp.133-175, 한국역사교육학회.
- 최상훈, 대학수학능력시험 역사영역 문항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역사교육, 103, pp.99-135, 역사교육연구회.
- 함승연, 대학수학능력시험 직업탐구영역 공업계열 출제 문항에 관한 고찰, 대한공업교육학회지, 32(2), pp.23-46, 대한공업교육학회.

▷ 기타

- 강창동, 한국 대학입시제도의 사회사적 변천과 특징에 관한 연구, 교육문제연구, 28, pp.83-113, 고려대학교 교육문제연구소.
- 김수구, 전문계 고등학생의 대학진학의 원인과 입시전략에 관한 인식의 탐구, 인문학연구, 34(2), pp.27-53, 충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 김지하, 백일우, 대학입시과외게입의 보상행렬 추정 및 학부모의 전략 결정요인 분석, 교육재정 경제연구, 16(1), pp.159-189,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
- 김태완, 대학입시 정책, 사학, 119, pp.20-28, 대한사립중고등학교회.
- 노영오, 우수한 해양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대학 입시와 교육에 대하여, 한국마린엔지니어링학회지, 31(5), pp.475-476, 한국마린엔지니어링학회.
- 부재율, 2008학년도 대학입시 제도에서 전형자료들의 당락에 대한 영향력과 학업성취도 예측력 변화에 대한 분석, 교육평가연구, 20(3), pp.57-79, 한국교육평가학회.
- 정현웅, 김미숙, 임윤희, 권희숙, 우리나라 대학입시정책의 문제점과 그 개선 방향, 복지행정연구, 23, pp.239-260, 안양대학교 복지행정연구소.

학업논문

▷ 총론

- 문혜영, 수능 성적이 임금에 미치는 영향, 서강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신성영, 'EBS 수능강의'가 학교 교육과정 활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연구물 목록

2007 > 연구물 목록

- 전기홍, 수학능력시험 이후 인문계 고등학교의 교육프로그램 요구 분석, 부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함예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학생의 증명능력평가,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영역

- 장민정, 대학수학능력시험 수리·탐구(I)의 방향과 문항분석: 200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계한, 제7차 교육과정 일본어교과서와 대학수학능력시험문항 분석연구: 대한교과서 I 과 수능제2외국어일본어를 중심으로, 울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상화, 대학수학능력시험 외국어 영역 지문과 고등학교 영어교과서 본문의 독해 난이도 비교,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선미, 대학수학능력시험 외국어(영어) 영역의 독해 문항 분석을 통한 효과적인 읽기 방안에 대한 연구, 순천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연희, e-learning 사이트의 교육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 언어영역 수능 강의 사이트를 대상으로, 중앙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예라, 3차원 평가 틀을 이용한 대학수학능력시험 지구과학Ⅱ 문항 분석, 충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윤희,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의 '법과 사회' 문항 분석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은영, 2005-200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중국어 I 문항 분석,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지현, 대학수학능력시험 직업탐구영역의 '정보기술기초' 문항 분석,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선제,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수리 영역 (나)형 문항 분석 및 출제 경향에 관한 연구(2005-2007): 7차 교육 과정을 중심으로, 경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선진, 제7차 교육과정에 따른 대학수학능력시험 출제 문항 분석: 수리 '가'형 중 선택과목 이산수학을 중심으로, 계명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소재, 대학수학능력시험 사회과 선택과목 선정에 영향을 미치는 원인 분석: 지리영역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신영, 2001-2007 학년도 프랑스어과 대학수학능력시험 문항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유미, 수능 영어 듣기 평가 문항분석(2005~2007) 및 지도방안,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현성,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출제된 지구과학 I 문제 분석 및 교과서 탐구 활동과의 연관성, 전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배영무, 수능 영어 문법 문항 분석: 내용 타당도와 역류효과,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선문수, 대학수학능력시험 중 직업탐구영역이 대학진학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계명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신수경, 대학수학능력시험 외국어(영어)영역 독해문항 분석을 통한 고등학교 학생들의 영어 독해력 향상 방안, 공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신정은, 제6차, 7차 영어과 교육과정에 의거한 수학능력시험 읽기문항 분석, 경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신효진, 제7차 교육과정에 따른 대학수학능력시험 문항 분석에 관한 연구: 수리영역을 중심으로, 명지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오정덕, 수학능력시험의 영어독해영역에 나타난 어휘 분석,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윤지영, 대학수학능력시험 외국어(영어) 영역 듣기·말하기의 문항 유형별 언어형식 및 어휘에 관한 코퍼스 분석,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미혜, 대학수학능력시험 러시아어 I 에 사용된 어휘와 문항유형 분석,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영철, 생물 I·II 교과서와 생물 I·II 대학수학능력시험의 탐구 상황 요소, 강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정은, EBS 지리 수능 강의 시청현황 및 만족도에 관한 조사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치레나, 수학능력시험 외국어(영어) 영역과 교과서 문항 분석: 독해 과정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혜영, 현행 고등학교 중국어 1 교과서 비교와 대학수학능력시험 문항분석: 의사소통 기능을 중심으로, 경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연구물 목록

2007

연구물 목록

- 이화수, 대학수학능력시험 중국어 II 문항 분석을 통한 의사소통 능력 평가 신장 방안 연구, 단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장선희, 화학 II 교과의 교과서와 대학수학능력시험 탐구상황 요소 분석, 단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전성은, 대학수학능력시험 외국어(영어) 영역과 제7차 외국어(영어) 교육과정, 서강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승덕, 7차교육과정하의 고교 영어듣기평가 문항분석: 2005년 시·도교육청 주관 듣기평가(고3)와 수능듣기평가문항분석과 비교를 중심으로, 인제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예경, 대학수학능력시험 과학탐구 영역 생물 문항 분석 연구: 2000학년도부터 2006학년도까지, 중앙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현영, 대학수학능력시험 영어 듣기 문항 내용 및 향상방안 연구,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성권, 효과적인 영어 독해지도를 위한 대학수학능력시험 독해문항 분석, 전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영미, 대학수학능력시험 역사지도문항 분석을 통한 국사교육의 고찰: 1994학년도-2007학년도 국사관련 역사지도문항을 중심으로,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형래, 대학수학능력시험 한국근·현대사 문항 분석: 제7차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울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형석, 대학수학능력시험의 물리영역 문항 분석,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정렬, 대학입시에서 수능 수리영역 교차지원자들의 학과적응에 관한 조사연구, 안동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추영임, 1994학년도-200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과학탐구영역 지구과학 II의 탐구상황요소 분석,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한승희, 고등학교 영어교과서와 대학수학능력시험 외국어(영어)영역 듣기문항의 유형비교: 고등영어, 영어I, 영어회화 교과서를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한지완, 대학수학능력시험 언어영역 점수와 논술 시험 점수의 상관관계 연구,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허정미, 대학수학능력시험 외국어(영어)영역 독해 문항의 성격 학습유형별 교수법에 관한 질적 연구: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을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홍인철, 대학수학능력시험 영어 말하기 문항의 화행분석, 명지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황장연, 7차 교육과정 고등학교 화학 I 수능예시문항에 대한 오개념 연구,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연구보고서 및 단행본

- 김현철, 방과 후 학교 및 EBS 수능방송의 정책 효과 분석, 교육인적 자원부.
- 이명준, 200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대비 학습 방법 안내,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이명준, 200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이렇게 준비하세요,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이명준, 200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Q&A자료집,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이명준, 200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행동 영역별 예시 문항: 언어 영역,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이명준, 200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행동 영역별 예시 문항: 수리 영역,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이명준, 200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행동 영역별 예시 문항: 외국어 영역,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이명준, 200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행동 영역별 예시 문항: 사회 탐구영역,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이명준, 200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행동 영역별 예시 문항: 과학 탐구영역,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이명준, 200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행동 영역별 예시 문항: 직업 탐구영역,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이명준, 200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행동 영역별 예시 문항: 제2 외국어/한문영역,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정영식, 2007년 EBS 수능 강의 발전 방안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2008

연구물 목록

학술논문

▷ 총론

- 김미숙, 대학수학능력시험 준비과정에서의 학교 의존도 결정요인, 한국교육, 35(2), 한국교육개발원.
- 김현철, 대학수학능력시험 점수체제 변화에 따른 입학전형 요소들의 적정 반영률과 선발결과 비교, 교육학연구, 46(3), pp.81-102, 한국교육학회.

연구물 목록

2008 > 연구물 목록

- 박소영, 방과후 학교와 EBS 수능강의의 사교육비 경감 효과, 교육행정학연구, 26(1), pp.391-411, 한국교육행정학회.
- 반재천,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점수체제에 대한 고찰: 표준점수와 등급을 중심으로, 교육평가연구, 21(1), pp.127-147, 한국교육평가학회.
- 반재천,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표준점수, 백분위, 등급에 의한 총점의 순위변화, 교육평가연구, 21(2), pp.75-96, 한국교육평가학회.
- 안병철, 수학능력시험으로 본 학업성취 불균등과 요인별 기여율, 경제연구, 26(3), pp.25-46, 한국경제통상학회.

▷ 영역

- 고희경, 문헌분석을 통한 대학수학능력시험 수리영역의 개정 방향 탐색, 한국학교수학회논문집, 11(3), pp.467-481, 한국학교수학회.
- 김낙복, 대학수학능력시험 외국어(영어)영역의 코퍼스 언어학적 어휘 비교 분석, 영어어문교육, 14(4), pp.201-221, 한국영어어문교육학회.
- 김정렬, 신지연, 추론 기능 지도가 수능 외국어 영역 읽기 성취도에 미치는 영향, 현대영어교육, 9(1), pp.188-213, 현대영어교육학회.
- 김종국, 대학수학능력시험 담화에서 구어 특성에 관한 연구, 외국어교육연구논집, 22(2), pp.133-153, 한국외국어대학교 외국어교육연구소.
- 김종신, 국가 수준 “국어/언어 능력 검사”의 비판적 검토: 수능 언어 영역 문항의 비판적 검토와 대안, 국어교육학연구, 31, pp.69-108, 국어교육학회.
- 김진구, ‘농업 이해’ 과목 교과서 학습 내용의 대학수학능력시험 출제 경향 및 주요 특성 분석, 농업교육과 인적자원개발, 40(3), pp.1-32, 한국농업교육학회.
- 박영수, 대학수학능력시험 직업탐구 영역의 평가 문항 적합도에 대한 연구: ‘상업 경제’ 과목을 중심으로, 상업교육연구, 19, pp.1-19, 한국상업교육학회.
- 송승연, 황우형, ‘EBS 수능강의’이용 실태 및 사교육 격감에 미친 영향: 수리영역을 중심으로, 교과교육연구, 1, pp.95-115, 고려대학교 교과교육연구소.

- 이기형, 대학수학능력시험 직업탐구영역 회계원리 출제경향분석, 한국전산회계학회 학술발표회, pp.121-143, 한국전산회계학회.
- 이기형, 대학수학능력시험 직업탐구영역 회계원리 국가수준 성취 기준과 평가문항의 적합도에 관한 연구, 상업교육연구, 21, pp.83-113, 한국상업교육학회.
- 이기형, 대학수학능력시험 직업탐구영역 회계원리 출제경향 분석에 대한 연구, 전산회계연구, 7(1), pp.51-81, 한국전산회계학회.
- 이기형, 대학수학능력시험 직업탐구영역 평가문항 제작방법에 관한 연구, 경영교육저널, 13, pp.77-110, 대한경영교육학회.
- 장호성, 대학수학능력시험 한문 과목 “한자 영역”의 출제 경향 및 문항 유형 분석, 한자 한문교육, 21, pp.281-330, 한국 한자한문교육학회.
- 하성욱,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의 어휘력 평가에 대한 비판적 고찰, 우리어문연구, 32, pp.159-184, 우리어문학회.

▷ 기타

- 김학운, 특집: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 이명박 정부의 대학 입시 정책, 교육비평, 24, pp.54-66, 교육비평사.
- 명재덕, 사회복지 구현을 위한 대학입시제도 모형 연구, 한국사회교과 교육학회 학술대회지, 2, pp.1-30, 한국사회교과교육학회.
- 엄철현, 인도의 차별철폐정책이 한국의 대학입시정책에 주는 시사점: 기회균형선발제도를 중심으로, 비교교육연구, 18(1), pp.171-191, 한국비교교육학회.
- 전동렬, 대학 입시에 대한 성찰, 교육연구와 실천, 73, pp.21-58, 서울대학교 교육종합연구원.
- 한삼희, 이명박 정부가 직면한 교육문제: 세계수준의 대학 30~40개만 있으면 입시경쟁도 누그러지고 나라 미래도 탄탄, 한국논단, 228, pp.46-53, 한국논단.

학위논문

▷ 총론

- 김병모, EBS수능강의 정책에 대한 문화기술적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윤애, 대학수학능력시험과 모의평가 문항분석을 통한 문제해결에 관한 연구, 경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은희, e-learning 사업평가에 관한 연구: EBS 수능방송 인터넷 서비스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범정희, EBS 수능강의가 교육격차에 미친 영향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연구물 목록

2008 > 연구물 목록

- 손은숙, 제7차 교육과정과 제7차 개정교육과정의 비교 분석 및 개정교육과정에 따른 대학수학능력시험 체계 분석, 명지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양서우, 대입수학능력시험성적이 개인노동생산성(임금)에 미치는 효과,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염동호, 이미지 시스템을 이용한 국가시험 채점에 관한 연구: 대학수학능력시험 전산채점 시스템 사례를 중심으로, 건국대학교 정보통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지훈, 대학수학능력시험 분석과 고등학생들의 독해력 향상 방안 연구, 한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철재, 우리나라 대학수학능력시험과 미국의 SAT 비교연구, 서강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충형, 대학수학능력시험과 대입논술시험의 상관관계 연구: 고3 인문계 학생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영역

- 공은주, 수능시험에 쓰인 한자어 연구, 성균관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권은숙, 대학수학능력시험 과학탐구 영역(물리)의 통합교과적 요소 연구: 2005학년부터 2007학년까지 기출문제를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규태,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의 역사적 사고력 평가방안: 세계사 영역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금주, 대학수학능력시험 영어 듣기 평가 분석 및 유형별 효과적 듣기 지도 방안, 중앙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봉운, 대학수학능력시험 언어 영역 '듣기 평가' 연구, 금오공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소은, 2008년 대학수학능력시험 수리영역의 문제점과 제7차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개선방안 연구, 성균관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신범, 7차 교육과정에 따른 대학수학능력시험 화학Ⅱ 문항분석: 2005-2007년도 화학Ⅱ 문항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영지, 대학수학능력시험 영어 어휘 수준에 대한 코퍼스 바탕 연구,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윤미, 대학수학능력시험 과학탐구영역 물리Ⅱ 문항분석: 2005학년~200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중심으로, 창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재영, 외국어(영어)영역 듣기 평가 연구: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재현, 제7차 교육과정에 의한 대학수학능력시험의 경제지리 문항 분석, 동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지선, 1999학년도~200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과학탐구 영역에서 생물 문항의 탐구상황요소와 STS 내용 분석,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남해룡, 대학수학능력시험(수리·탐구I)에 대한 평가문항 분석: 200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중심으로, 경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남효정, 제7차 교육과정의 고등학교 수학 교과목 구성과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수리 가-형 선택 과목과의 상호 불합리성에 관한 연구, 동아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맹미전, 영어 양상조동사의 쓰임 연구: 최근 5년간 수능 외국어영역을 중심으로,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맹인숙, 대학수학능력시험 국어 과목의 문법 문항 출제 경향 연구: 제5차 교육과정부터 7차 교육과정까지를 중심으로,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명희, 고등학교 영어 회화 교과서 및 대학수학능력시험 외국어 영역의 대화문 분석: 제7차 교육 과정을 중심으로,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윤희, 대학수학능력시험 및 교과서 듣기문항 분석을 통한 듣기 지도 방안, 아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진선, 고등학교 수학내신 석차백분위와 대학수학능력시험 수리영역 석차백분위와의 상관관계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진열, 고등학교 고전소설 교육의 실태분석과 효과적인 교육방법 연구: 수학능력시험과의 연관성을 바탕으로,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백지현, 대학수학능력시험 수리영역 문항 분석 연구: 2005학년도, 2006학년도, 2007학년도 수리영역 '가'형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서재근, 대학수학능력시험 언어영역 문법 관련 문항 분석 연구, 부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연구물 목록

2008 > 연구물 목록

- 서향미, 7차교육과정에 있어서의 제2외국어(일본어) 대학수학능력시험 분석연구, 경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석영희, 대학수학능력시험 일본어과 문항분석 연구: 2005~2008학년도 수능문제를 대상으로,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설유진,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쓰인 언어 연구: Make, get, take 동사를 중심으로, 경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손승민, 고등학교 '법과 사회'의 대학수학능력시험과 교과서 비교분석: 7차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손승완, 언어적 사고력 신장을 위한 어휘 평가도구 개발 연구: 대학수학능력시험 언어영역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송미령, 대학수학능력시험 문항 분석을 통한 효과적인 영어독해력 향상 방안 연구, 한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송성진,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수리 영역 '나'형 문항 분석 및 출제경향에 관한 연구(2006~2008): 7차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신지연, 추론 기능 지도가 수능 외국어 영역 읽기 성취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여희숙,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탐구상황 요소에 의한 과학탐구 영역(물리Ⅱ) 출제 경향 분석: 2004~200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중심으로,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오정은, 수능 외국어(영어)영역 담화 유형에 대한 학습자의 독해 전략 분석,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유재석, 학교 및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출제된 생물 I 문항 비교분석, 공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윤 희, 3차원 평가틀에 의한 대학수학능력시험 물리 문항의 분석, 성균관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광훈, 대학수학능력시험 직업탐구영역의 공업계고등학교 관련 교과 문항 분석,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동섭, 대학수학능력시험 수리영역 시험문항 분석에 관한 연구: 2005학년도부터 2008학년도까지, 아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선영, 대학수학능력시험 수리영역 2006~2008학년도 문항분석: '수학 I' 중심으로, 계명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수현, 영어교과서의 수학능력시험 반영정도에 관한 연구: 듣기 문항을 중심으로, 경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유허, 대학수학능력시험 일본어과 문항 분석 연구,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종훈, 대학수학능력시험 출제 문항 분석: 2005~2007학년도 수리 '가'형 중심으로, 계명대학교 특수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혜경, 대학수학능력시험 독일어 I (2001~2007) 문항분석 및 평가,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임소연, 대학수학능력시험 고전운문 문항분석 연구: 교육과정과의 연관성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장윤정, 대학수학능력시험 외국어영역 듣기 문항에 나타난 의사소통 기능의 양상,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영희, 대학수학능력시험의 과학탐구영역 중 화학 I 문항 분석 연구 (최근 4년간 시험자료 중심),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진영, 상업정보계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직업탐구영역이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경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준호, 대학수학능력시험 세계사 문항 내용 타당도 증거 분석, 서강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영수, 대학수학능력시험 스페인어과 문항 분석을 통해 본 교육과정 개선의 필요성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한효정, 대학수학능력시험 외국어영역(영어) 듣기 문항의 분석: 제 5차 문법 중심 교육과정과 제6차 및 제7차 의사소통적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현진아, 대입 논술고사에서 지구과학 영역의 출제 유형 분석,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홍은미, 고등학교 공통영어 교과서와 대학수학능력시험 외국어(영어) 영역의 독해문항 연관성 비교분석, 국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황윤성, EBS 수능 영어 방송의 학년 및 소득수준별 시청 실태, 흥미도, 이해도 및 영어 성적과의 상관관계, 동아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연구물 목록

▷ 기타

- 김성우, 대입 논술 고사의 이중성과 교육적 함의,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8

연구물 목록

연구보고서 및 단행본

- 김미란, 대학선발 자율화에 따른 사회적 대타협 방안 연구, 교육과학기술부.
- 수능운영부, 200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이렇게 준비하세요,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수능운영부, 200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학습 방법 안내,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수능운영부, 200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Q&A 자료집 (2008.6),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이양락 외, 201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수리 영역 출제 체제 연구,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이양락 외, 201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수리영역 출제 체제 공청회,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정영식, EBS 수능강의 성과 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2009

연구물 목록

학술논문

▷ 총론

- 김신영, 대학수학능력시험의 개선 방안 탐색, 교육평가연구, 22(1), pp.1-27, 한국교육평가학회.
- 이영식, 정혜선, 대학수학능력시험 문항분석을 통한 고등학생의 효과적인 독해 지도 방안, 교육연구, 17, pp.37-68, 한남대학교 교육연구소.
- 이영진, 논술교육이 수능 성적에 미치는 영향 분석, 청람어문교육, 39, pp.173-211, 청람어문교육학회.

▷ 영역

- 김수미, 국가 수준의 대학입시에서 국사문항의 변천, 역사교육연구, 9, pp.145-200, 한국역사교육학회.
- 김진구, 대학수학능력시험 '농업 이해' 과목의 문항 난이도 영향 요인 및 주요 특성 분석, 농업교육과 인적자원개발, 41(3), pp.1-39, 한국농업교육학회.

- 김진구, 김강호, 이건남, 농업계 고등학교 출신 대학생의 대학수학 능력과 고교 내신성적 및 대학수학능력시험성적의 관계, 농업교육과 인적자원개발, 41(4), pp.1-20, 한국농업교육학회.
- 노은희, 박기범, 미국 SAT 문항 분석을 통한 수능 언어 영역 개선 방향 탐색, 국어교육학연구, 34, pp.267-307, 국어교육학회.
- 박진동, 수능 문항의 구성 요소 분석과 문항 제작 방안, 역사교육, 111, pp.227-262, 역사교육연구회.
- 손민정, 중국어 I 교육과정과 수능 문항의 의사소통 기능 내용 분석, Foreign languages education, 16(3), pp.435-456, 한국 외국어교육학회.
- 장호성, 대학수학능력시험 한문 과목 “한자어 영역”의 출제 경향 및 문항 유형 분석, 한자 한문교육, 23, pp.239-317, 한국한자한문 교육학회.
- 장호성, 동Asia 한자, 한문교육; 한국과 일본의 대학입시 한문 시험 비교, 한문교육연구, 33, pp.75-107, 한국한문교육학회.
- 조항덕, 대학수학능력시험을 통해 본 프랑스어 교육 현안 문제, 프랑스어문교육, 32, pp.123-148, 한국 프랑스어문교육학회.

▷ 기타

- 최승배, 강창완, 조장식, 웹 로그데이터를 이용한 대학입시 지원자 행태 분석, 한국데이터정보과학회지, 20(3), pp.493-504, 한국데이터정보과학회.
- 한혜정, 박소영, IB(International Baccalaureate)와 호주 VCE(Victorian Certificate of Education)가 우리나라 대학입시성적 산출방식에 주는 시사점 탐색, 비교교육연구, 19(1), pp.83-109, 한국 비교교육학회.

학위논문

▷ 총론

- 장지혜, 대학수능성적과 경력의 임금효과: 1998년~2007년 패널분석, 서강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영역

- 국신애, 대학수학능력시험 언어영역 국어지식 문항 분석: '2005학년도 ~2009학년도'를 중심으로,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경환, 대학수학능력시험 수리영역 출제문항 분석: 1994학년도~2009학년도 수리영역 중심으로, 서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연구물 목록

- 김보경, 대학수학능력시험의 환경 관련 문항과 고등학교 '생태와 환경' 교과서와의 연계성 분석: '사회탐구, 과학탐구 영역'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성환, 제7차 교육과정에 의한 대학수학능력시험 과학탐구 영역 생물 문항 분석 연구: 2007학년도부터 2009학년도까지, 중앙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9

연구물 목록

- 김혁린, 대학수학능력시험 분석을 통한 올바른 독해지도방법, 상명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나현진, 대학수학능력시험 직업탐구영역 정보·컴퓨터 교과목의 평가준거 개발: '탐구'영역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미경, 대학수학능력시험 독해문항 분석을 통한 효율적인 영어 독해 지도 방법 연구, 대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병오, 대학수학능력시험 세계지리 평가문항의 분석: 2005~2009학년도,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세용, 수능직탐영역 신설이 상업정보계열 고등학생의 진로선택에 미친 영향: 경기도 지역을 중심으로, 공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순석, 대학수학능력시험 언어영역 읽기 문항에 관한 고찰: 읽기 능력과 맥락을 중심으로,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영자, 대학수학능력시험 모의평가와 대학수학 능력시험과의 상관관계 고찰: 2009학년도 수리영역(가·나형)을 중심으로, 경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지하, 수능 영어 듣기 평가 문항 유형 분석을 통한 효과적인 듣기 지도 방안, 단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지훈, 개정된 Bloom 교육목표분류학에 따른 대학수학능력시험 문항분석: 2007-2009년도 화학Ⅱ 문항을 중심으로, 충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백인정, 제7차 교육과정기의 대학수학능력시험 중국어 문항분석과 개선방안: 2005학년도~2008학년도 출제문항을 중심으로,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서수경, 상호작용 독해모형에 따른 고등학생의 영어 독해전략 사용 분석: 대학수학능력시험 영어 문항 유형 중심으로, 경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손병태, EBS 수능강의의 운영에 대한 연구: 수리영역을 중심으로, 충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송리라, 고등학교 영어 교과서 듣기와 대학수학능력시험 영어듣기 평가의 적합성 및 연계성 분석,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신민용, 대학수학능력시험 언어 영역 시문학 문항 분석, 숭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안다미, 일본어 대학수학능력시험문제에 대한 분석연구: 2005~2009학년도를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양희준, 대학수학능력시험 제2외국어영역 일본어 어휘 분석: 교육과정 기본어휘와 의사소통 기본표현을 중심으로, 건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유정원, 한국 대학수학능력시험과 일본 센터시험 화학문항 비교연구,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윤 미, 제7차 교육과정의 화학 I 탄소 화합물 단원에 대한 수업과 수능 및 모의 평가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 조사,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병정, 대학수학능력시험 직업탐구영역 “컴퓨터일반” 문항분석, 강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선혜, 대학수학능력시험 ‘중국어 I’ 기출문제 분석과 7차 교육과정과의 연계성 연구, 동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승희, 고등학교 수학과 서술형 수행평가 문항개발에 관한 연구: 내신형 문제와 수능형 문제의 연계성을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아영, 제7차 교육과정 영어과 성취기준에 의거한 2007-200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외국어(영어) 영역 문항 분석, 충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영희, 대학수학능력시험 외국어(영어)영역 독해 문항 분석, 아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은정, 어휘적 접근방식에 기초한 수능 영어 단어장 분석, 충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정화, 대학수학능력시험의 듣기 평가 연구: 5년간의 시험 자료 분석을 바탕으로, 동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장도순, 대학수학능력시험 언어 영역의 수필 문항 연구: 1999학년도~2008학년도 기출 문제를 중심으로, 서강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연구물 목록

- 장유경, 대학수학능력시험 중국어 I 문항분석과 교육과정과의 연계성 연구: 제7차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전주연, 자연계열 학생의 대학수학능력시험 수리영역 “가”, “나” 형 선택에 따른 문제점 연구, 계명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전현주, 확률·통계 영역의 교육과정에 근거한 수능 수리영역 문항 분석과 문항제안,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9

연구물 목록

- 정영숙, 고등학교 ‘일본어 I’ 과 대학수학능력시험 ‘일본어과’의 대화문 분석, 계명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지나, 의사소통을 중심으로 한 수능 영어 듣기 문항 분석 및 지도 방안, 상명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성호, 200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생물(I·II) 문항 분석, 인하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혜연, 대학수학능력시험 중국어 문항의 분석: 2001~2008학년도 문항을 중심으로, 명지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정현, 대학수학능력시험 외국어(영어)영역의 문화적 내용 분석, 서강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진혜진, 대학 수능 외국어(영어) 영역 문항 분석을 통한 효과적인 독해 전략, 경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채정은, 2005~200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생물 I·II 문항 분석, 강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현숙, 물리 I 선다형 문항에 제시된 제한 조건 분석: 한국교육과정 평가원 대입관련 힘과 에너지 단원 선다형 문항 중심으로,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기타

- 최혜영, 대입논술 출제경향 분석을 통한 효율적 읽기·쓰기 지도 연구, 국제문화대학원 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연구보고서 및 단행본

- 국회도서관, 고등학교·대학 입시정책 한눈에보기: 외교논쟁포함, 국회도서관.
- 김성열, 201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이렇게 준비하세요,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김성열, 201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대비 학습 방법 안내,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김성열, 201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Q&A 자료집,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김정호, 201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업무처리지침,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김정호,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험관리 주요 사례집,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김주훈 외, 각종 국가 고사 등의 문항 차등 배점 적용 타당성 연구,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김진영, 수능점수분포를 통해 본 학교 지역 간 학력편차 연구, 교육과학기술부.
- 이양락, 대학수학능력시험의 현안 문제와 미래 전망: 제2회 KICE 교육과정 평가 정책 포럼 [2009.9.11(금) 13:30~17:50 3층 대회의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이양락 외, 일본 입시센터시험 문항 분석,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조지민,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 분석 결과 전문가 세미나,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조지민, 수능 및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분석 심포지엄 [제4회 KICE 교육과정 평가 정책 포럼],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10

연구물 목록

학술논문

▷ 총론

- 강창희, 채창균, 대입수학능력시험 성적 자료를 이용한 학급 내 동료 효과의 분석, 노동경제논집, 33(1), pp.1-30, 한국노동경제학회.
- 김성식, 수능 성적에 대한 지역 여건의 영향력 분석, 교육사회학연구, 20(2), pp.53-75, 한국교육사회학회.
- 김양분, 신혜숙,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에 영향을 미치는 학생 및 학교 변인의 탐색, 교육평가연구, 23(3), pp.591-615, 한국교육평가학회.
- 김원중, 황우형, 학교 내신시험과 대학수학능력시험과의 비교를 통한 대학입학 고사의 수리논술 문항 분석, 교과교육연구, 3(1), pp.23-51, 고려대학교 교과교육연구소.

연구물 목록

2010

연구물 목록

- 남보우, 수능시험 선택과목 점수조정에 대한 측정학 및 경영과학 비교, 한국경영과학회 학술대회논문집, 2010(10), pp.164-168, 한국경영과학회.
- 노요섭, 비행적성에 영향을 미치는 대학수학능력시험에 관한 연구, 한국항공운항학회지, 18(1), pp.85-90, 한국항공운항학회.
- 양길석, 대학수학능력시험의 변천 과정과 쟁점 분석, 교육평가연구, 23(4), pp.765-791, 한국교육평가학회.

▷ 영역

- 김경석, 수학능력시험 영어 읽기 지문에 담긴 정보의 정확성에 관한 연구, 사회언어학, 18(1), pp.53-76, 한국사회언어학회.
- 김진구, 이종범, 대학수학능력시험 '농업 이해' 과목의 평가목표 이원 분류에 의한 문항 유형 분석, 농업교육과 인적자원개발, 42(3), pp.45-79, 한국농업교육학회.
- 김효찬, 대학수학능력시험 현대 소설 기출 문항 분석, 한어문교육, 23, pp.383-422, 한국언어문학교육학회.
- 박기범, 박중훈, 중국 대입시험 문항 분석을 통한 수능 언어 영역 개선 방향 탐색, 국어교육학연구, 39, pp.339-377, 국어교육학회.
- 박기범, 일반 논문: 현대소설 제재 평가 문항 연구: 대학수학능력시험 및 모의평가를 중심으로, 국어교육, 131, pp.379-412, 한국어교육학회.
- 서현숙, 황진석, 광대오, 대학수학능력시험 생물 문항에 나타난 과학적 소양 분석, 교과교육학연구, 14(3), pp.601-620, 이화여자대학교 사범대학 교과교육연구소.
- 심영식, 스페인어 대학수학능력시험 출제의 문제점 및 대책, Foreign languages education, 17(1), pp.379-403, 한국외국어교육학회.
- 안병근, 학술논문: 대입 수능시험에서 "경제" 과목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경제교육연구, 17(2), pp.1-16, 한국경제교육학회.
- 윤소영, 김인수, 수능 수리영역에서 발생하는 학생의 오류에 대한 분석과 지도, 과학교육연구지, 34(1), pp.15-25, 전남대학교 사범대학 과학교육연구소.
- 윤인경, 최영선, 대학수학능력시험 직업탐구 영역 문항 분석: 가사, 실업계열의 '식품과 영양' 교과를 중심으로, 직업교육연구, 29(1), pp.1-21, 한국직업교육학회.
- 이정례, 이성진, 권혁홍, 이경희, 중위권 공과대학 신입생의 수학 기초학력과 대학수학능력시험 수리영역 성적의 관계, 수학교육 프로서딩, 45, pp.27-37, 한국수학교육학회.

- 이정우, 대학수학능력시험 '사회·문화' 문항 분석: 1995~2010학년도 문항의 교육과정 시기별 특성 분석을 중심으로, 사회과교육, 49(3), pp.135-150, 한국사회과교육연구학회.
- 장의선, 다문화 교육의 관점에서 본 대학수학능력시험 세계지리 문항의 특징, 한국사회교과교육학회 학술대회지, 2010(2), pp.33-47, 한국사회교과교육학회.
- 장호성, 한국과 중국의 대학입시 한문 시험 비교 고찰, 한문교육연구, 35, pp.135-185, 한국한문교육학회.
- 정 행, 대학수학능력시험 영어 음성언어 평가문항 분석, Studies in English education, 15(2), pp.177-197, 글로벌영어교육학회.
- 최경호, 대학수학능력시험의 통계단원 문제에 대한 문항반응분석 : 전북지역 예비 수험생을 대상으로 한 탐색연구, Communications for statistical applications and methods, 17(3), 한국통계학회.
- 한경찬, 대학수학능력시험(2006~2010년) 한국지리 평가문항에 나타난 지리도해력 분석, 교과교육연구, 3(2), pp.151-175, 고려대학교 교과교육연구소.

▷ 기타

- Jun-Mo Ahn, 대학수학능력시험 영어듣기영역에서의 고등학교 학생들의 음소변화인지에 관한 연구, 한국교육문제연구, 28(1), pp.23-55, 중앙대학교 한국교육문제연구소.
- 김수미, 국가 수준의 대학 입시 국사 문항에서 오답시비 유형 분석, 역사교육, 114, pp.177-232, 역사교육연구회.
- 임 결, 정영식, 수능 인터넷강의 선호요인 사례분석, 한국콘텐츠학회 논문지, 10(12), pp.477-491, 한국콘텐츠학회.
- 조은진, 조규락, EBS 인터넷 수능강의와 사설 인터넷 수능강의의 실태 및 만족도 비교분석, 중등교육연구, 58(3), pp.133-154, 경북대학교 중등교육연구소.
- 최석준, 김병수, 입학사정관제 전형 입학자와 수능중심 전형 입학자간의 학업성취도 비교분석,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11(11), pp.4220-4227, 한국산학기술학회.

학위논문

▷ 총론

- 김동복, 시각장애학생을 위한 대학수학능력시험 검사조정 효과 및 요구 분석, 조선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운영, 고등학교 교과서 어휘 및 구문구조 분석을 통한 수능평가와의 상관성 연구, 서강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연구물 목록

2010 > 연구물 목록

- 김은비, 대학수학능력시험 통계자료를 이용한 성별 학력특성 연구, 단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손현정, 2005-200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문항 분석 및 영역별 효과적인 지도법 연구, 수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황성환, EBS수능방송 학습자의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주는 학습서비스 요인 연구,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평생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영역

- 강문선, 코퍼스를 기반으로 한 대학수능시험 외국어 영역 듣기 평가 어휘 분석: 2005학년부터 2009학년도 중심으로, 상명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강승희, 도덕·윤리와 평가 문항의 개선방안 연구: 대학수학능력시험 문항 분석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공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강은미, 대학수학능력시험 외국어(영어)영역 듣기·말하기 문항에 나타난 성역할 분석,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강주영, 대학수학능력시험 언어영역 '듣기' 지문의 통사적 난이도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구지영, 대학수학능력시험 언어 영역의 국어 지식 문항 분석 연구: 2005학년도에서 2010학년도까지의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중심으로, 부경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상순, 한국, 미국, 독일의 대학수학능력시험 물리 문제 분석, 성균관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수현, 대학수학능력시험 외국어(영어) 독해 영역 분석 및 개선방안, 아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원중, 학교 내신시험과 대학수학능력시험과의 비교를 통한 대학입학 고사의 수리논술 문항 분석,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윤정, 대학수학능력시험 분석을 통한 고등학교 영어독해 수업 지도안 연구, 동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은애, 수능 언어영역 '읽기' 문항의 내용 타당도 분석: 문법 지식을 중심으로, 서강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은주, 대학수학능력시험 과학탐구(생물)영역의 통합형문항 분석: 2005학년도~2009학년도,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지선, 대학수학능력시험 외국어(영어) 읽기 영역 분석: 담화 구조 유형을 중심으로,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효정, 대학수학능력시험 고전산문 지문 및 문항 연구: 문학 교육의 본질과 목표에 따른 분석, 건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자영, 국어과 교육과정과 대학수학능력시험 문학 문항 상관도 분석: 현대시 영역을 중심으로, 동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방희원, 동사 유형을 중심으로 한 고등학교 영어 교과서와 수능 외국어(영어) 영역의 상호 연계성 비교,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백지연, 수리논술 교육을 위한 대학별 수리논술과 대학수학능력시험 비교 분석,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손영미, 대학수학능력시험 수리영역 2007~2009 학년도 문항분석, 중앙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손종선, 고등학교 영어 교과서와 대학수학능력시험 외국어영역 듣기문항의 비교 분석, 부경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신서영,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직업탐구영역 신설이 상업계 고등학생들의 학습에 미친 영향,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심숙진, 대학수학능력시험과 고등학교 생물 교과서와의 연계성 분석을 통한 과학교육과정 연구: 생물2 교과서를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심현영, Anderson의 교육목표 분류체계를 이용한 대학수학능력시험 생물Ⅱ 문항 분석, 충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안준모, 대학수학능력시험 영어듣기영역의 음소변화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안지영, 대학수학능력시험 외국어(영어) 영역 듣기 문항 분석을 통한 효과적인 듣기 지도 방안, 동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어경선, 2007-200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외국어(영어) 영역 독해문항 분석, 충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여지원, 수능 외국어영역에 나타난 make와 get의 코퍼스 기반 언어 분석: 동사+명사구 중심으로,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여하영, 대학수학능력시험 ‘일본어 I’ 분석 연구: 제7차 교육과정 문항을 중심으로, 충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오상준, 대학수학능력시험 외국어영역을 대비한 효과적 독해 지도 방안, 강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연구물 목록

2010 > 연구물 목록

- 유연경, 대학수학능력시험 언어영역의 비판적 고찰: 읽기 영역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유주혜, 제7차 교육 과정 영어과 읽기 성취 기준에 의거한 대학수학능력시험 외국어(영어) 영역 읽기 문항 분석, 경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윤지현, 한국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생물 I, II 과목과 미국 SAT 생물과목의 출제 문항 비교분석, 건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나래, 대학수학능력시험 언어영역 비문학 지문의 통사론적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민호, 한국고등학생의 영어학습 스타일과 전략사용에 관한 연구: 수능시험 외국어 영역 등급간 비교를 중심으로, 서울시립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상욱, 영어 사교육과 영어 성적과의 상관관계 연구: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상은, 대학수학능력시험 외국어(영어)영역 독해문항 분석, 단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용배, 수능 외국어(영어)영역 문학텍스트 문항 개발,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지원, 대학수학능력시험 외국어영역 어휘의 코퍼스 분석,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장경수, 대학수학능력시험 수리영역과 교과서의 연계성에 대한 연구, 전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장명은, 한국의 대학수학능력시험 물리Ⅱ와 미국 수능시험(SAT) 최근 물리 문제 출제 경향 분석,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전정민,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의 '물리Ⅱ' 문항 분석에 관한 연구: 2007학년~200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혜선, 대학수학능력시험 문항분석을 통한 고등학생을 위한 효과적인 독해 지도 방안, 한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영미, 고2 학생들의 EBS 온라인 수능 영어 강의 만족도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우진, 우리나라 대학수학능력시험 물리(I, II)와 미국의 SAT, AP Physics 문항 비교 분석, 부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은주, 고등학교 영어교과서와 대학수학능력시험 외국어(영어)영역 어휘 수준에 대한 코퍼스 바탕 분석,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연구보고서 및 단행본

- 최중일, 대학수학능력시험 외국어(영어)영역 문법문항에 대한 분석, 강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황정연, 7차 및 개정 7차 교육과정에 의한 대학수학능력시험 말하기 듣기 영역 분석,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강상진, 비모수 커널 추정법을 통한 대학수학능력시험의 검사동등화 및 다층모형의 시도교육청간 학업성취도 비교 연구, 교육과학기술부.
- 강상진, 5.31 교육개혁 이후의 고교간 교육격차 추세 분석: 1995-2010 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결과 분석, 교육과학기술부.
- 김성열, 2009개정 교육과정 시행에 따른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체제 개편 연구,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김용명 외, 대학수학능력시험 외국어(영어)영역 개선 연구,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김정호 외, 국가고사 관리체제 개선 방안 연구,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김정호, 201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업무처리지침,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김정호, 201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험관리 주요 사례집,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김정호, 학교 의견을 반영한 수능-EBS 연계 방안 탐색,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수능운영부, 2011 대학수학능력시험 이렇게 준비하세요,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수능운영부, 201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Q & A 자료집,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수능운영부, 201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대비 학습방법 안내,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신일용 외, 201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수리 영역 선택 과목별 문항 배분 연구,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이상하 외,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와 대학수학능력시험 자료 분석 연구 공모 및 심포지엄 개최,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이상하 외,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와 대학수학능력시험 자료 분석 연구,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이상하 외,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와 대학수학능력시험 자료 처리 보고서,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이상하 외,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와 대학수학능력시험 자료의 레이아웃,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물 목록

- 이상하 외,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의 설문지 모음집: 2003년~2009년,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이양락,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체제 개발을 위한 기초 연구,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채창균, 대입정책의 변화가 사교육비 지출에 미치는 영향, 교육과학기술부.
- 한국교육개발원, 2010년 EBS 수능강의 성과 분석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와 대학수학능력시험 자료 분석 심포지엄,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11

연구물 목록

학술논문

▷ 총론

- 김경식, 이현철, 수능성적에 대한 사교육 효과분석, 교육학논총, 32(2), pp.35-49, 대경교육학회.
- 남보우, 대입수능 선택과목 점수조정을 위한 선형계획모형 개발 및 활용, 경영 과학, 28(1), pp.141-158, 한국경영과학회.
- 서인석, 전문계 고등학생의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에 대한 학교의 영향, 상업교육연구, 25(4), pp.1-23, 한국상업교육학회.
- 한상만, 조순옥, 이희수, EBS 수능강의의 사교육비 경감효과 인식 분석, 한국교육문제연구, 29(1), pp.171-191, 중앙대학교 한국교육문제연구소.
- 홍예윤,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그래픽 계산기 도입에 관한 고찰: 뉴질랜드 사례를 중심으로, 교사교육연구, 50(3), pp.105-118, 부산대학교 과학교육연구소.

▷ 영역

- 강승호, 대학수학능력시험 '국사' 문항 분석과 개선 방안, 역사와 교육, 12, pp.5-39, 역사와 교육학회.
- 김진구, 농업교사의 대학수학능력시험 문항개발과정에 관한 사례 연구, 농업교육과 인적자원개발, 43(2), pp.1-27, 한국농업교육학회.
- 묘연창, 대학수학능력시험 중국어 I 문법 문항 분석, 동아문화, 49, pp.191-219,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동아문화연구소.
- 박찬욱, 언어,교육: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중국어 1"과 SAT의 "Chinese with Listening" 비교 -체제와 문항을 중심으로, 비교문화연구,

- 23, pp.351-382, 경희대학교 비교문화연구소.
- 서보억, 오광식, 김혜경, 광역지방자치단체 내에서 성취도평가 수학 성적과 수능 수리영역 성적의 변화 추이 및 경향, 한국데이터정보과학회지, 22(2), pp.297-311, 한국데이터정보과학회.
 - 신혜원, 장경호, 사설 인터넷 강의와 EBS 특강 수강이 수학능력시험 사회탐구 영역 성적에 미치는 영향 분석, 시민교육연구, 43(3), pp.55-73, 한국사회과교육학회.
 - 이정례, 이경희, 수학 기초학력과 대학수학능력시험 수리영역 성적의 관계 연구, 수학교육논문집, 25(4), pp.629-639, 한국수학교육학회.
 - 장호성, 대학수학능력시험 평가 문항의 이론과 실제: “고3 전국연합 학력평가” 한문 문항을 중심으로, 한문학논집, 32, pp.265-290, 근역한문학회.
 - 장호성, 동아시아 삼국의 대학입시 한문 시험 비교 고찰, 한자한문교육, 26, pp.157-218, 한국한자한문교육학회.
 - 정소영, 현행 고등학교 중국어 교육의 문제점: “제2외국어 수능폐지 정책”의 타당성을 중심으로, 중국언어연구, 34, pp.319-346, 한국중국언어학회.
 - 조성운, 대학수학능력시험 ‘한국근·현대사’의 출제 경향과 문항 분석, 역사와 교육, 12, pp.41-67, 역사와 교육학회.
 - 한경동, 장경호,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경제를 선택하는 학생의 특성 분석, 경제교육연구, 18(2), pp.45-57, 한국경제교육학회.

▷ 기타

- 김진영, 좋은 학교 찾기: 수능점수 분석을 통한 학교평가, 재정학연구, 4(3), pp.1-35, 한국재정학회.

학위논문

▷ 총론

- 김난영, 대학수학능력시험 기출어휘분석에 대한 연구, 부경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승엽, 대학수학능력시험에 대한 전북지역 고교 교사들의 인식 비교, 전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안세봉, 201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교육방송 연계 분석과 대학수학능력시험 개선 방안, 부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연구물 목록

2011

연구물 목록

- 이치형, 코퍼스 분석 프로그램을 활용한 대학수학능력시험 기출 문제 분석, 부산외국어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장연미, 한·중 대학입시제도에 관한 비교연구: 대학수학능력시험과 고고(高考)를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영역

- 강유정, 내신과 수능을 연계한 서술형 수행평가 문항 개발에 관한 연구: 다항함수의 미적분을 중심으로, 신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공경식, 중등 물리교육에서의 교육목표와 평가방법에 대한 연구: 수학능력시험 평가방법이 현장수업에 미치는 영향,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광훈, 수능 외국어(영어) 영역 문법문항 분석, 경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동희, 2010학년도, 201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수리영역 문항 분석: 정답률과 오답 매력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민정, 2007~2010 대학수학능력시험 외국어(영어) 영역의 독해 문항유형분석 및 개선 방안: 텡스(TEPS)문항과의 비교를 통하여, 경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성애, 한국 대학수학능력시험 중국어 I 과 미국 SAT Chinese with Listening 비교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수정, 대학수학능력시험 및 외국교과서에 근거한 수학 교과서의 개선 방안,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효찬, 대학수학능력시험 현대 소설 기출 문항 분석: '문학'과목 교육과정과의 상관성을 중심으로, 공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남선우, 대학수학능력시험 평가 문항의 분석: 세계사 과목을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문지혜, 수학능력시험 현대소설 문항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성태, 고등학교 생물교과 용어의 통일성과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출제된 용어의 이용분석, 중앙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영주, EBS 수능 영어 독해 교재 난이도 분석 연구: 읽기지문의 구문구조 및 이독성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서은주, 대학수학능력시험 영어영역 듣기문항의 발화속도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서현숙, 고등학교 생물 교과서와 대학수학능력시험 생물 문항의 과학적 소양 분석, 경상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성연규, 내용 요소를 통한 화학II 교과서와 수학능력시험 문항과의 연계성 분석: 산화-환원 반응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신영섭, 수능 수리영역 문항분석(1994~2010): 확률과 통계 영역을 중심으로, 안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양미경, 대학수학능력시험 외국어(영어)영역 어휘 연구: 2005~2011학년도 수능을 중심으로, 인천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원미영, 고등학교 프랑스어 교과서와 2007-2011학년도 수능시험 비교분석: 어휘를 중심으로, 충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윤미소, 한국의 일본어교육에 있어서 일본문화교육에 관한 고찰: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중심으로,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윤소영, 수능 수리영역 문항 해결과정에서 학생의 오류에 대한 분석과 지도, 전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윤영선, 3차원 평가틀을 이용한 대학수학능력시험 화학 II 문항 분석: 2007-2011학년도 출제문항 중심으로,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재환, 대학수학능력시험 윤리 영역의 동 서양 윤리학 문항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정림, EBS 수리영역 수능강의 시청 현황 및 만족도 조사,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해동, 대학수학능력시험 한문영역과 한문교과서의 상관관계 분석, 부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홍민, 고등학교의 고전시가 교육과 대학수학능력시험 문항의 상관성 연구: '지식', '경험', '태도', '수행'의 내용범주를 기준으로,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장태수, 2011학년도 수능 모의평가 및 대학수학능력시험 수리영역 EBS 연계문항 분석, 중앙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연구물 목록

2011

연구물 목록

- 전진양, 대학수학능력시험 출제매뉴얼에 비추어 본 언어영역 문항 제작의 내용적 오류 유형에 관한 연구, 창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순공, 대학수학능력시험 언어영역 비문학 지문의 독해전략 연구, 창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정유지, 201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탐구영역 과학탐구 영역 생물 II와 대학 일반생물학 교재와의 연계성 연구, 동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명연, 수능시험이 한국의 영어교육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우송대학교 TESOL-MALL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현정, 2008-201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프랑스어 문항분석,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차수열, 고등학교 지구과학 I 수능예시문항 평가를 통한 교사와 학생의 지구과학 개념 인식에 대한 비교 연구,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혜진, 대학수학능력시험 외국어(영어) 영역에 나타난 문화적 내용 분석: 2005학년도~2010학년도 시험지를 중심으로, 인하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희승, 대학수학능력시험 문항 분석을 통한 경제교육의 개선방안 연구: Bloom의 인지과정을 중심으로, 단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한경찬, 대학수학능력시험 한국지리 평가문항에 나타난 지리도해력 분석: 2006~2010년,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황명진, 201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과 EBS 수능방송 연계에 관한 연구: 사회탐구 영역을 중심으로, 영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기타

- 김병국, 비(非) 수능 영역으로 대학입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을 위한 자기 주도형 웹기반 컨설팅 모형 구안,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병수, 입학사정관제 전형 입학자와 수능중심 전형 입학자간의 학업성취도 비교분석,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원태, 고등학교 수학 교과과정과 대입 수리논술의 연관관계 연구, 동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연구보고서 및 단행본

- 조혜령, 정보 기술 기초 교과의 수능중심학습을 위한 웹 코스웨어 설계 및 구현, 계명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경훈, 201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업무처리지침,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김경훈, 201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험관리 주요사례집,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김경훈, 2014학년도 수능시험 개편에 따른 과목별 문항 개발 및 시행준비를 위한 기초 연구: 제1분과(탐구, 제2외국어/한문) 세미나 자료집,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김경훈,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체제 개편안 토론회 자료집,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김경훈 외, 2014학년도 수능시험 개편에 따른 과목별 문항 개발 및 시행준비를 위한 기초 연구,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김경훈 외, 미국, 일본, 중국 대학입학시험 체제 비교에 기반한 수능 개선 방안,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김수진 외,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와 대학수학능력시험 자료 활용 분석 심포지엄: 제1주제 학교교육 성과 분석,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김수진 외,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와 대학수학능력시험 자료 활용 분석 심포지엄: 제2주제 교육정책 효과 분석,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김수진 외,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와 대학수학능력시험 자료 활용 분석 심포지엄: 제3주제 학교 특성과 학업성취,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김수진 외,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와 대학수학능력시험 자료 활용 분석 심포지엄: 제4주제 학습자 특성과 학업성취,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김수진 외,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와 대학수학능력시험 자료 활용 분석 심포지엄: 제5주제 기초학력보장 정책 비교 분석,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김수진 외,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와 대학수학능력시험 자료 활용 분석 심포지엄: 제6주제 대규모 성취도 평가결과 보고 방법 탐색,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김양분, 분석 연구 활성화를 위한 수능 및 학업성취도 평가 자료 제공 개선 방안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 김완수 외, 학업성취도 평가와 대학수학능력시험 평가 자료 활용 시스템 구축 및 연구 활성화 지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물 목록

2011

연구물 목록

- 김용명 외, 수능 외국어(영어) 영역 평가방법 개선 후속연구,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김주훈, 201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대비학습방법안내,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김주훈, 201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이렇게 준비하세요,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김주훈, 201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Q&A 자료집,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신일용, 2014학년도 수능시험 개편에 따른 과목별 문항 개발 및 시행 준비를 위한 기초 연구: 제1분과 세미나 자료집,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신일용 외, 201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출제방안 연구 요약, 2011 KICE 이슈페이퍼,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신일용 외,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개편에 따른 문제은행 문항 활용 방안 연구 요약, 2011 KICE 이슈페이퍼,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심재목 외, 국가고사 관리업무 제도개선 보고서,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윤지환 외, 대학수학능력시험 외국어(영어) 영역 시험의 지시문, 질문 및 선택지를 영어로 제시하는 정책방안의 교육적 효과 연구,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이명애, 대학수학능력시험 결과 활용 방안: 2011 KICE 이슈페이퍼,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정영근, 각국의 대학입학시험 체제 및 대학 전형 현황,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지은림, 고교평가제도 개선 및 대학입시 반영모델 개발, 한국교육개발원.

2012

연구물 목록

학술논문

▷ 총론

- 양정호, 2014학년도 수준별 수능시험 개편방안에 대한 인식분석, 교육평가연구, 25(2), pp.167-191, 한국교육평가학회.
- 임현정, 김양분, EBS-수능강의의 사교육비 경감 효과 분석, 교육재정경제연구, 21(4), pp.155-177,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



▷ 영역

- 김용각, 한국의 일본어교육에 있어서 언어문화교육에 관한 일고찰 :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중심으로, 인문과학연구, 30, pp.199-218, 성신여자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 박종훈, 수능 국어 영역 문제은행식 출제의 가능성과 한계, 어문학 교육, 45, pp.43-68, 한국어문교육학회.
- 윤영진,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의 '생활과 윤리'평가 문항 출제의 기본 방향, 윤리교육연구, 29, pp.187-212, 한국 윤리교육학회.
- 윤지환, 이문복, 박용호, 모의 수능 영어시험의 지시문, 질문, 선택지 언어 차이가 수험생들의 시험 결과에 미치는 영향, 응용 언어학, 28(1), pp.59-85, 한국응용언어학회.
- 전성애, 대학수학능력시험(영어시험)의 문항개선에 대한 연구, 영어 어문교육, 18(2), pp.189-211, 한국영어어문교육학회.
- 전창완, 경제 교육의 성과 개선을 위한 노력과 한계: 대학수학능력 시험의 경제 선택 여부를 중심으로, 경제교육연구, 19(1), pp.97-122, 한국경제교육학회.

▷ 기타

- 이명희, 이제경, 수능 직전 고3 학생을 위한 진로저널 프로그램 연구, 상담학연구, 13(4), pp.1975-2000, 한국상담학회.

학위논문

▷ 총론

- 유훈영, 자기평가가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성적과 자기주도학습에 미치는 영향, 서강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장수정, 불균등 지수를 활용한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의 지역 격차 분석,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홍진기, 고 3 EBS 수능방송 시청과 모의고사 성적 향상도 관계, 동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영역

- 강보영, 2011년 수학능력시험 외국어 영역 듣기평가 문항분석, 중앙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송이, 고등학교 "정치"과목의 수능시험 출제 경향과 수업 내용의 상관관계 연구: 수도권 소재 중·고등학교 사회과 교사를 대상으로,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수연, 대학수학능력시험 외국어영역 대화문의 성차별 연구, 서강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연구물 목록

2012 > 연구물 목록

- 김숙정, 고교 수능 중국어 문화분야 기출문제 분석: ‘중국어 I’ 교과서와 연계성을 중심으로, 경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아람, 2012학년도 중국어 I 수능모의평가 및 대학수학능력시험과 EBS교재의 연계성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영수, 대학수학능력시험과 고등학교 영어 II 교과서의 텍스트 난이도 비교 분석, 전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은진, 대학수학능력시험 외국어(영어) 영역 정답률 변화의 원인 연구, 서강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정호, 수능 물리분야 평가 문항의 분석을 통한 학업 성취도 향상 방안 탐구: 2010-2011 수학능력시험을 중심으로, 한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준석, EBS 수능방송 수리영역 강의 특징 분석: 학생들의 수업 만족도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지희, 대학수학능력시험 고전소설 문항 분석과 개선 전략: 7차 교육과정 중심으로, 전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태근, 제7차 교육과정의 대학수학능력시험 ‘한국 근·현대사’ 문항분석,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만 민, 한국 대학수학능력시험을 통한 중국 고등학생의 영어듣기 능력수준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모진철, 경제교과서 ‘국제경제’영역에 관한 내용 연구: 대학수학능력시험 경제과 출제 문항을 이용하여, 전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문정, 고등학교 영어 교과서와 대학수학능력시험 외국어(영어) 영역의 독해 문항 비교 연구, 서강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상연, 사고 구술 프로토콜을 이용한 문제 해결 과정 분석: 대학수학능력시험 언어 영역을 중심으로, 가톨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용희, 고등학교 영어 교과서와 대학수학능력시험 영어의 읽기 영역에 나타난 소재 분석, 인하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은혜, 대학수학능력시험 외국어(영어) 영역과 고등학교 영어 교과서의 독해 문항 분석,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석정훈, 대학수학능력시험 언어영역의 극문학 장르 출제경향연구, 충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성현진, 대학수학능력시험 언어 영역의 문법 문항 분석과 개선 방향,



-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송선화, 수능능력시험 외국어영역에 나타난 Make, Get, Take의 코퍼스 기반 언어 분석, 충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엄지혜, 고등학교 영어 교과서와 대학수능능력시험 문항의 어휘 연계성 비교: 듣기 문항을 중심으로, 아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오연지, 영어 II 교과서와 수능 외국어영역 듣기문항의 비교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유지영, 대학수능능력시험 외국어 영역(영어) 독해문항의 분석 및 지도방안, 강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윤선희, 대학수능능력시험 외국어(영어) 영역 독해 문항과 토플(TOEFL) iBT 독해 문항 분석을 통한 효과적인 읽기 지도 연구, 서강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윤혜성, 대학수능능력시험 언어 영역 쓰기 문항 분석 연구: '작문'과목 교육과정과의 연관성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은혜진, 영어 전제에 관한 연구: 대학수능능력시험을 중심으로, 충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무환, 수능 외국어 독해지문의 체계기능문법적 분석: 주제구조와 앤림(NRheme)을 중심으로, 단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미경, 수능 외국어영역에 나타난 make, get, take 연어의 코퍼스 분석, 공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수영, 7차 교육과정에 따른 대학수능능력시험 화학과 화학II 문항 분석: 2005학년도-2012학년도,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원기, 2005~2010학년도 대학수능능력시험 한국지리 평가문항의 분석, 공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은주,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한국사 평가 문항의 개선 방향: 대학수능능력시험 문항을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지은, 대학수능능력시험 외국어(영어)영역의 환류효과,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혜원, 대학수능능력시험을 위한 효과적인 영어 어휘 학습 전략,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임이랑, 대학수능능력시험 외국어(영어)영역 독해 문항 분석을 통한 효과적인 교수·학습 방법 연구, 순천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연구물 목록

2012 > 연구물 목록

- 장삿별, 대학 입시 수학능력시험 언어 영역에 출제 된 현대시의 성향 분석과 문항 대처방안: 2006학년도부터 2011학년도까지 대학수학능력시험 언어영역에 본 지문으로 출제 된 현대시 작품을 중심으로, 단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장현슬, 대학수학능력시험(2008~2012) 독일어 I 문항 내용 분석,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전성애, 대학수학능력시험(영어시험)의 문항 개선에 대한 연구, 전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선희, 대학수학능력시험 외국어영역 모의고사와 국가영어능력평가 2급 비교 연구,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지슬기, 문항 유형에 따른 학습자의 영어 능력과 주제 친숙도의 영향력 조사 연구: 대학수학능력시험 독해영역을 중심으로,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채회경, 201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수리영역 평가 문항 분석, 충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용욱, 대학수학능력시험 현대소설 출제 유형 분석 및 개선 방안, 공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하미화, 대학수학능력시험 일본어과 문항 분석: 2010~2012학년도를 중심으로, 경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연구보고서 및 단행본

- 김경훈,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예비시험 업무처리지침,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김경훈, 201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업무처리지침,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김경훈, 201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험관리 주요사례집,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김경훈, 수준별 시험 도입에 따른 2014학년도 수능 출제 및 시행 체제 구축 방안,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박영수 외, 2014 수능 체제 대비 문제은행식 출제 방안,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박진동 외, 수능의 적정 난이도 유지와 EBS 연계,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수능운영부, 201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대비학습방법안내,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수능운영부, 201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이렇게 준비하세요,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수능운영부, 201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Q&A 자료집,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시기자 외, 준거참조평가에 근거한 고교 내신 대입 전형 활용 사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이명애 외, 부가가치 모형을 적용한 201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분석,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최인봉 외, 학업성취도 평가와 대학수학능력시험 결과 자료를 활용한 연구 활성화 지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최인봉 외,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와 대학수학능력시험 자료 활용 분석 심포지엄-1,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최인봉 외,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와 대학수학능력시험 자료 활용 분석 심포지엄-2,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최인봉 외,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와 대학수학능력시험 자료 활용 분석 심포지엄-3,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최인봉 외,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와 대학수학능력시험 자료 활용 분석 심포지엄-4,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13

연구물 목록

학술논문

▷ 총론

- 박현정, 길혜지, EBS 수능강의 수강이 교육격차 감소와 학교수업태도 향상에 미치는 효과 분석, 교육평가연구, 26(5), pp.1115-1141, 한국교육평가학회.
- 백순근, 길혜지, 홍미애, EBS 강의가 고등학생의 교과별 사교육비와 영역별 수능 성적에 미치는 영향, 아시아교육연구, 14(1), pp.137-162, 서울대학교 교육연구소.
- 서민철, 박찬선, 대학수학능력시험 난도의 하향 출제가 학력 격차에 미친 영향,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3(2), pp.19-38, 학습자중심교과교육학회.
- 최필선, 민인식, 수능성적이 초기 노동시장 성과에 미치는 효과, 노동정책연구, 13(1), pp.139-162, 한국노동연구원.

▷ 영역

- 강대현, 설규주, 대학수학능력시험 '정치' 문항 분석 연구: 자료 및 답지의 유형별 문항 분석을 중심으로, 시민교육연구, 45(2), pp.1-30, 한국사회과교육학회.
- 강문구, 김용명, 2014 수능 수준별 영어 시험의 검사지 구성을 위한 외국어 영역 문항 유형에 대한 내외적 타당성 분석, 영어교과교육, 12(2), pp.1-35, 한국영어교과교육학회.

연구물 목록

2013 > 연구물 목록

- 구본관, 조용기, 문법 영역 출제의 개선 방향: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국어 영역을 중심으로, 문법교육, 18, pp.1-44, 한국문법교육학회.
- 구현정, 박은수, 고등학교 영어교과서 문법분석 및 대학수학능력시험 문법문항과의 연계성연구, 교과교육학연구, 17(1), pp.91-107, 이화여자대학교 사범대학 교과교육연구소.
- 김미순, 국내외 대학입학시험 중국어 과목 평가 양상에 관한 연구 수능, GCE A-LEVEL, 센터시험, SATST를 중심으로, 중국어문학지, 45, pp.511-537, 중국어문학회.
- 김미순, 박양숙, 대학수학능력시험 “중국어 I”의 문항 분류 기준에 관한 재고, 중국어문학논집, 80, pp.271-296, 한국중국어교육학회.
- 김유범, 2014학년도 수능시험 개편안과 국어사 교육, 문법 교육, 18, pp.45-64, 한국문법교육학회.
- 김영춘, 2012-201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러시아어 I 과목 상위권 변별 문항의 특성 분석, 한국노어노문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6, pp.23-38, 한국노어노문학회.
- 김용명, 이병천, 2016 대학수학능력시험 영어 영역 최소필수교과목 선정에 관한 연구, 현대영어영문학, 57(1), pp.1-32, 한국현대영어영문학회.
- 김종술, 권경일, 수능 국어영역 개편에 따른 학교 문법교육의 강화 방안, 문법교육, 18, pp.65-95, 한국문법교육학회.
- 김종술, 주제발표: 수능 국어영역(문법)의 개편에 따른 학교 문법교육의 강화, 한국문법교육학회 학술발표논문집, pp.194-205, 한국문법교육학회.
- 김진구, 대학수학능력시험 농업 기초 기술 과목의 고난도 문항과 매력적인 오답지 평가내용 및 특성 분석, 농업교육과 인적자원개발, 45(3), pp.1-38, 한국농산업교육학회.
- 김진희, 국어 교육 분야; EBS 언어영역 수능 연계 교재의 어휘·어법 문항에 대한 고찰, 한국문법교육학회 학술발표논문집, pp.22-41, 한국문법교육학회.
- 남민우, 2014 수능 체제 개편에 따른 국어 영역 평가 방향의 변화, 한국문법교육학회 학술발표논문집, pp.161-170, 한국문법교육학회.
- 박형준, 김은영, 경제 과목에 대한 인식이 수능에서 경제 과목 선택에 미치는 영향, 교육연구, 57, pp.85-104,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문제연구소.

- 배문규, 고등학교 윤리 교과서와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서술된 동학윤리사상 검토, 윤리교육연구, 31, pp.189-212, 한국윤리교육학회.
- 신희철, 대학수학능력시험의 문법 영역 문항 분석을 통한 출제 경향 진단: 2005학년도~2013학년도를 대상으로, 국어교육학연구, 48, pp.243-272, 국어교육학회.
- 우문영, 국어과 평가문항에서의 시각 자료 활용 연구, 한어문교육, 29, pp.81-104, 한국언어문학교육학회.
- 윤영진,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의 '생활과 윤리'평가 문항 출제의 기본 방향, 윤리교육연구, 29, pp.187-212, 한국윤리교육학회.
- 이미영, 수능 독일어1 문화 문항 분석: 제7차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독일언어문학, 62, pp.21-43, 한국독일언어학회.
- 이상하, 최혁준, 대학수학능력시험의 물리 I 선택요인분석, 교육과정평가연구, 16(1), pp.231-251,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이소연, 제7차 교육과정기 대학수학능력시험 '경제' 문항 분석, 경제교육연구, 20(1), pp.91-107, 한국경제교육학회.
- 이병천, 수능 영어영역의 실용·기초학술영어에 대한 소재 명세화, 영어어문교육, 19(2), pp.291-313, 한국영어어문교육학회.
- 이병천, 2014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의 실용영어와 기초학술영어 개념과 분류 준거 연구, Foreign languages education, 20(3), pp.247-268, 한국외국어교육학회.
- 이병천, 2014 수능의 실용영어와 기초학술영어 분류체계에 대한 제언, 현대영어교육, 14(1), pp.267-296, 현대영어교육학회.
- 임응순, 정영근, 사교육비와 수능성적과의 관계 연구: 외국어 영역을 중심으로,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14(6), pp.2660-2666, 한국산학기술학회.
- 전영주, 대학수학능력시험 수학(수리) 영역 변천사, 한국수학사학회지, 26(2), pp.177-195, 한국수학사학회.
- 전영주,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수학 영역 체제, 수학교육학술지, pp.47-53, 한국수학교육학회.
- 조성민, '생활과 윤리' 대학수학능력시험 평가문항의 기본 유형 개발에 관한 연구, 윤리철학교육, 18, pp.147-194, 윤리철학교육학회.
- 조용기, 대입 국가고사 국어시험의 고전시가 출제 변천 양상, 고전문학과 교육, 25, pp.247-291, 한국고전문학교육학회.
- 조혜진, 대학수학능력시험 스페인어과 문화관련 문항 분석, 스페인라틴아메리카연구, 6(2), pp.1-27, 고려대학교 스페인·라틴아메리카연구소.

연구물 목록

2013

연구물 목록

- 함승연, 공업계열 특성화고 교사가 인식하는 수능 직업탐구 영역 응시 집단 특성 변화, 수산해양교육연구, 25(6), pp.1389-1407, 한국수산해양교육학회.
- 함승연, 수능 직업탐구 영역의 성과와 과제에 대한 공업계열 특성화고 현장 교사의 인식, 수산해양교육연구, 25(5), pp.1148-1164, 한국수산해양교육학회.
- 함승연, 특성화고 진로선택 경향과 수능 직업탐구 영역 응시율 변화에 대한 공업계열 특성화고 현장 교사의 인식, 한국기술교육학회지, 13(3), pp.146-163, 한국기술교육학회.

▷ 기타

- 박미희, 김성식, 대학입시 준비 경험이 대학진학에 미치는 영향 분석, 교육사회학연구, 23(1), pp.1-24, 한국교육사회학회.
- 신혜원, 장경호, 대학 입시 전형 요소가 사교육에 미치는 영향, 시민교육연구, 45(1), pp.27-41, 한국사회과교육학회.

학위논문

▷ 총론

- 박재은,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쟁점에 대한 비판적 담론분석: 신문 사설을 중심으로,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설향순, 학업 성취 수준별 확률과 통계 이해 분석: 대학수학능력시험 및 모의평가 문항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나리, 수능성적이 취업성과에 미치는 영향 분석, 성균관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학주, EBS 수능강의의 교육적 효용성 연구: 고등학생의 인식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홍재강,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연계되는 EBS 교재가 정의적 요인과 사교육비에 미치는 영향, 경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영역

- 강초롱, EBS 영어 교재의 활용, 만족도 및 학습효과 연구,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광연정, 대학수학능력시험 언어 영역쓰기 문항 분석, 금오공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구현정, 고등학교 교과서 문법과 대학수학능력시험 문법문항 비교 분석, 경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가영, 대학수학능력시험 영어영역에서의 수준별 독해 저해 요인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은영, 일반사회 과목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학생의 특성 분석,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영아, 구문분석 능력이 수능영어 읽기능력에 미치는 영향,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영란, 대학수학능력시험 중국어 I 문화영역의 효율적 지도방안 연구: 2005~2013학년도 출제 문항 분석을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용운, 대학수학능력시험 사회과 선택과목 편중현상의 분석과 개선방안, 단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완산, 내신강화와 EBS 수능강의의 외국어 사교육 격감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은진, 2009~2013 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수리영역 문항분석,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진희, 수리논술 문제 유형 분석: 2012학년도 대학입학시험 자연계열 논술고사를 중심으로, 계명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태경, 고등학교 영어교과서와 대학수학능력시험 외국어영역에 나타난 조건문에 관한 연구, 인하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현경, 대학수학능력시험과 EBS 수능교재 연계분석: 2012~2013 일본어 I 영역을 중심으로,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혜란, EBS 수능 외국어 영역 강의 및 교재에 대한 만족도와 인지 전략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류한나, 한국, 중국, 일본 대학입학시험 외국어(영어)영역 문항 비교 분석, 인하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민일홍,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사회과 교육과정 운영에 끼치는 영향 연구, 강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박동춘, 고등학교 교재 분석을 통한 현대시 수업 방법 연구: 국어교과서, 문학교과서, EBS 수능교재, 언어영역 현대시 참고서, 수능 언어영역 문제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병임, 영어 관계대명사에 관한 연구: 최근 3년 간 대학수학능력시험 외국어영역 독해지문을 중심으로, 충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신정록, 고등학교 영어 교과서, EBS 영어 독해 교재, 대학수학능력시험 영어 독해 지문의 이독성 비교, 서울시립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연구물 목록

2013

연구물 목록

- 여운관,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사회·문화’영역 문항 특성,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오한나, 대학수학능력시험 외국어영역 독해분석을 통한 읽기지도 방안, 경성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오현민, 제목과 훑어 읽기를 활용한 현대시 교수학습 방법에 대한 연구: 대학수학능력 시험 및 모의고사 현대시 파트 기출 분석을 통해서, 단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원민선,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예비 시행 영어 영역 A형과 B형의 난이도 비교,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광재, 고등학교 영어 교과서와 대학수학능력시험 외국어(영어) 영역에 나타난 관계부사 사용에 관한 코퍼스 기반 연구,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성희, 수능영어와 EBS 영어 교재의 어휘분석, 공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지민, 201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및 수능 모의평가 수리영역의 EBS 연계성 분석, 충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해인, 3차원 평가 틀에 의한 201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생물 II 문항 분석, 인하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임형은, 대학수학능력시험 영어 말하기문항의 화용적 능력 분석, 부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장수휘,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예비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지구 과학 영역에 대한 평가: 문항 분석을 중심으로, 부경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윤정, 대학수학능력시험 수리영역의 문항분석: 문제 정보의 관점에서, 경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용기, 대입 국가고사 국어시험의 변천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조선영, 우리나라 대학수학능력 외국어(영어)영역 독해문제 분석,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근호, EBS 수능 연계교재와 고교 영어교과서 어휘수준에 대한 코퍼스 기반 분석,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진재원, 신경향 대학수학능력시험 영어 영역 듣기 문항 분석: 201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및 2014학년도 예비시행 문항과의 분석을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채정우, 교과서 수학과 대학수학능력시험의 비교, 중앙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수연, EBS 수능 영어 방송의 효과에 대한 고등학생들의 인식, 건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 영, 대학수학능력시험 모의평가와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유사성 고찰: 2013학년도 수리 영역 (나형)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은숙, 고등학교 일본어 교과서와 대학수학능력시험 문항 비교분석, 부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황보성, 대학수학능력시험 고전운문 문항 분석 연구: 2008~ 2012 학년도를 대상으로,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연구보고서 및 단행본

- 김경훈 외,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대비 학습방법안내,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김경훈 외,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이렇게 준비하세요,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김경훈 외,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Q&A 자료집,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김성혜 외, 수준별 수능 영어 영역 시험 개선 연구,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김용명 외, 2015학년도 통합형 수능 영어영역의 시험체제 및 검사지 구성 방안 탐색,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13 KICE 정책 제안서 III: 대학수학능력시험 분야,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자문위원

박도순(전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원장)
양길석(가톨릭대학교)
은지용(춘천교육대학교)
이양락(한국교육과정평가원)
이종승(전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원장)
이흥수(전남대학교)
정병현(숙명여자대학교)
조난심(한국교육과정평가원)

집필진

김경성(서울교육대학교)
김동영(한국교육과정평가원)
김성룡(호서대학교)
김순강(한국교육과정평가원)
김진규(중앙교육연수원)
도성달(한국학중앙연구원)
민경석(세종대학교)
박기범(전주대학교)
박진동(한국교육과정평가원)
박진희(한국교육과정평가원)
선우하식(건국대학교)
양길석(가톨릭대학교)
엄성호(한국교육과정평가원)
위성임(한국교육과정평가원)
유규오(한국교육방송공사)
이준식(성균관대학교)
이흥수(전남대학교)
정경식(한국교육과정평가원)
정남용(대구교육대학교)
정수백(한국교육과정평가원)
정진갑(계명대학교)
정진석(한국교육과정평가원)
조용기(한국교육과정평가원)
지은림(경희대학교)
최종교(한국교육과정평가원)
최혁준(한국교원대학교)

편찬위원회

-편찬위원장
조용기(한국교육과정평가원)

-편찬위원
곽희길(한국교육과정평가원)
김경주(한국교육과정평가원)
김경훈(한국교육과정평가원)
김재홍(한국교육과정평가원)
김진구(한국교육과정평가원)
김은미(한국교육과정평가원)
박주현(한국교육과정평가원)
박진동(한국교육과정평가원)
신항수(한국교육과정평가원)
안남신(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엄성호(한국교육과정평가원)
위성임(한국교육과정평가원)
이복희(한국교육과정평가원)
이용상(한국교육과정평가원)
이재봉(한국교육과정평가원)
장의선(한국교육과정평가원)
장호성(한국교육과정평가원)
전윤산(한국교육과정평가원)
정경식(한국교육과정평가원)
정수백(한국교육과정평가원)
정학준(한국교육과정평가원)
조지민(한국교육과정평가원)
황필아(한국교육과정평가원)
이명애(한국교육과정평가원)
박남화(전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오윤아(전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대학수학능력시험 20년사

수능 CAT 2014-28

발행일 2014년 10월 31일
발행인 김성훈
발행처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주 소 서울 중구 정동길 21-15 정동빌딩
전 화 (02)3704-3704
팩 스 (02)730-7487
홈페이지 <http://www.kice.re.kr>
인쇄업체 (주)현대아트컴 (02-2266-4482)
I S B N 978-89-6687-887-1 93370

※ 본 자료 내용의 무단 복제를 금함